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정선
계율^{精選}
戒律

11



대한불교조계종 韓國傳統思想書 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11

精選戒律정선계율 · 譯註역주

Gyeyul : Selected Works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vol. 11

역주 ▣ 원철

엮은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팩스 ▣ 02)725-0364 · 02)725-0365

펴낸이 ▣ 대한불교조계종

펴낸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출판부

등록번호 제 300-2009-5호(2009.1.22)

인쇄일 2010년 04월 20일

발행일 2010년 04월 30일

편집 · 디자인 ▣ 아르떼203

인쇄 · 제책 ▣ 동화인쇄공사 · (주)가원

ISBN 978-89-962509-7-5 94220

ISBN 978-89-962509-0-6 (세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cip.ph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0000505

© 2010 by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Buddhist Thought,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이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

정선
계율
精選戒律

11

역주…원철 圓徹

원철·성해·원창·행오·영덕
원영·박상준·이미령



刊行辭 간행사

2000년이 시작되던 몇 년 전, 인류는 21세기를 새 천년 즉 밀레니엄이라 부르며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육이 자행되는 분쟁지역의 비극과 경제위기 등 지구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세계는 늘 불안정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엄연한 고통의 바다라고 확인시키고 있으니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가르침입니다.

이 불안정한 생명의 바다에, 탐욕과 분노와 사건 즉 삼독이 파도치면, 무한으로 연결된 중생계의 고통은 더없이 가중될 것이며, 이에 반하여 탐욕을 치유하는 인내와 절제의 계학(戒學), 분노를 진정시키는 정학(定學), 사건을 정화하는 혜학(慧學) 등 삼학의 활동이 점차 증장될 수 있다면, 인류는 온 생명계를 요익케 하는 제일류(第一流)의 유정(有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5세기 이후 이미 불교공동체인 승가전통과 대승교학의 수승한 요체를 토착화한 이후 선문(禪門)의 정화를 거쳐 현재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수행승가를 통해 정법유산(正法遺産)을 단절 없이 전승하고 있는 귀중한 불연토(佛緣土)입니다.

자원과 영토 그리고 탐욕의 자본과 사건으로 얼룩진 종교분쟁 등, 삼독의





화염이 치연한 지구촌 그 한가운데서, 무명(無明)의 파도를 진정시킬 정법유산을 전승하고 또 널리 유통하는 일은 실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중을 애호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광대무변한 불법의 교설을 활약한 ‘중요’로서 남긴 원효스님의 대자대비행으로부터, 대승의 광장설과 그 실천규범 등을 널리 유통키 위해 주석 등의 유산을 남긴 동아시아에 빛나는 지성 원측스님과 대각국사 그 외 수많은 선지식들의 활동, 그리고 선문(禪門)을 중흥시켜, 경계 없는 마음의 영토를 계발시켜준 선사들의 어록과 행장 등, 우리불교의 전통으로 전승된 귀중한 유산들은 실로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공익의 위대한 유산들입니다.

이미 수집 출간된 『한국불교전서』 총14책에는 현재 한국고승 등 150여인에 의해 찬술된 320여 종의 문집이 고전 한문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번 문집간행불사의 1차 사업은 그 중 대표적인 고승문집 90여 종을 선별, 국역과 영역을 거쳐 각각 13책씩 총26책으로 출간하여 널리 유통하는 대작불사업입니다.

근대 이후 우리사회는 서세동점에 급속히 포획되어, 전통의 단절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과 대중





들에게 전통의 위대한 유산들은 열리지 않는 보물창고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어떤 생명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오래된 과거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누적된 성찰과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로 이어지는 무한한 연속성을 감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기억의 상실은 세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해하기 어려운 고전한문의 높은 담 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 빛을 감추어 머금고 있는 한국불교의 전통유산은 한국사회에서만 아니라, 세계인류에게 있어서도 생명계의 의내명주(衣內明珠)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슬을 꺼내 갖고 닦아 빛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번역간행불사입니다. 위대한 유산의 전승은 그 인과(因果)를 아울러 수행할 때 원만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체용(體用)이 상응하고 성상(性相)이 불유(不謬)해야 명실상부할 수 있으니, 모양은 그 쓰임의 결과로 빛나고 쓰임은 모양을 빌어 비로소 충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번역사업은 불교문헌번역의 오래된 전범인 다자번역전통(多者翻譯傳統)을 원칙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삼장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삼장은 처음부터 합송(合誦)으로 결집(結集)되고 역장설치(譯場設置)를 통해 번역되는 등 다자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에 의해 전승되었습니다. 범어삼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역장에는 범어를 이해하는 자와 한문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외의 역할을 달리하여 협력한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9인의 역관(譯官)으로 구성된





역장에는 범본삼장을 읽고 풀이하는 역주(譯主), 역주의 좌측에서 역주와 함께 그 뜻을 꼼꼼히 살피는 증의(證義), 역주의 우측에 자리하여 문장의 정밀함을 살피는 증문(證文), 출발어인 범문을 자세히 살피는 범학승(梵學僧), 현지어로 받아쓰는 필수(筆受), 번역된 글을 한자문법에 맞게 구문을 구성하는 철문(綴文), 범문과 한문을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참교(參校)하는 참역(參譯), 산만한 문장을 다듬고 정리하는 간정(刊定), 역주와 마주하여 번역된 문장을 다듬어 아름답게 하는 윤문(潤文) 등이 협력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다자들의 합송에 의한 결집으로 전승된 삼장은 다시 이렇듯 다자에 의한 협동으로 번역되어 전승되었고, 한국승가의 강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논강(論講) 또한 이러한 전통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독해와 전통이해 그리고 다양한 불교술어를 번역할 수 있는 연구자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국고지원이 갖는 시간적 한계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한 불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전통의 다자번역 전통이라는 의미 있는 작업까지 아우르는 고난도 작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간행위 여러분들과 국내외 번역자들 그리고 간행위 사무처 관계자 등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불사의 원만회향을 부처님께 기원드리며 간행사에 대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0월 10일

제32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가산지관 적음





完刊辭 완간사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한글 완간본(完刊本)을 모든 불자들과 함께 삼보전(三寶前)에 봉정(奉呈)하옵니다.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시며,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가산지관(伽山智冠) 큰스님의 크신 원력(願力)이 한글역 완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글역과 함께 영역본도 간행위원분들과 영역, 교정, 편집을 담당하신 분들의 노고에 의해 간행됩니다.

이번에 13책으로 완간하게 된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은 삼국시대 이후 한국에서 꽃피운 1700년 불교역사의 정수(精髓)이자, 한국사상의 토대와 대들보입니다. 화쟁국사(和諍國師) 원효(元曉) 스님의 사상, 교육을 통한 후학 양성의 모범을 보이신 화엄(華嚴)의 대가 의상(義湘) 스님, 청렴한 결사운동(結社運動)으로 한국 선불교(禪佛敎)를 중천(重闡)하신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스님, 어려운 국난을 이겨내시고 한국불교 교육과 수행 전통을 정비하신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스님을 축으로 하여, 삼국, 고려, 조선으로 면면히 이어진 한국불교의 핵심 사상을 이번에 완간한 전통사상총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사상총서 불교편에는 화엄(華嚴), 유식(唯識), 정토(淨土), 대승계(大乘戒), 선





불교(禪佛敎), 구도여행기, 삼국유사의 불교문화, 고승의 비문(碑文)이 정선(精選)되어 자세한 학술적인 역주와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통사상총서 완간의 의미를 1700년 한국불교의 사상과 수행 전통을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의 등불로 삼아가는 중요한 노력의 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전해져 무수한 중생의 삶을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지혜(智慧)와 자비(慈悲)가 한반도에서 실현된 결실의 일부가 이 전통사상총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전통사상총서 속에서 우리는 바로 조계종단 집행부의 원력을 확인하고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소통(疏通)과 화합(和合)으로 함께하는 불교의 모습을 원효스님, 의상스님, 지눌스님, 휴정스님 등의 사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수행종풍(修行宗風)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은 바로 선현(先賢)들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고전(古典)을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는 역경(譯經) 불사(佛事)에서 비롯됩니다. 번역된 우리말 경전을 교육과 포교에 활용한다면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共同善) 실현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영역(英譯)으로도 13책이 간행됩니다. 세계의 한국 불교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를 맡아 한글역을 대조해가면서 영역을 담당하였습니다. 한국불교의 고전이 영어로 단편적으로 소개된 예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와 같이 한국불교 사상의 정수를 모아서 영역되는 것은 처음이며, 한글역자와 영역자간의 다자간(多者間) 상호 검증체계를 통한 번역의 엄밀성을 시도한 것도 처음입니다.

영역된 한국전통사상총서는 분명히 이제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불교교학전통과 수행전통의 진면목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포교 네트워크화와 한국전통사찰체험, 템플스테이를 통한 한국불교 국제화의 기초자료이자 사상적, 실천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전통사상총서는 한글본 영역본 모두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도록 전자출판 형태로 공개합니다. 보시 가운데 가장 수승한 법보시(法布施)를 통해 한국불교의 지혜와 자비,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온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불교는 지금까지 중흥의 기틀을 다져왔고 이제 웅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완간되는 전통사상총서는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나아갈 방향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번역과 교정 그리고 제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간행위원, 연구원, 영역자, 교정자, 편집자, 제작자 그리고 사무처의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가산 지관 큰스님의 간행 원력에 수희(隨喜)찬탄(讚嘆)합니다.

이 대작불사(大作佛事)의 공덕(功德)을 제불보살(諸佛菩薩)님과 무량중생(無量衆生)에게 회향(回向)하며 완간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월 20일

제33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해봉 자승(海峰 慈乘)





(왼쪽)태현(太賢)스님의 행적(行積)을 기록한 『삼국유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아래쪽)『삼국유사』 권4 “현유가 해화엄(賢瑜伽海華嚴)” 조





태현스님이 주석했던 용장사터의 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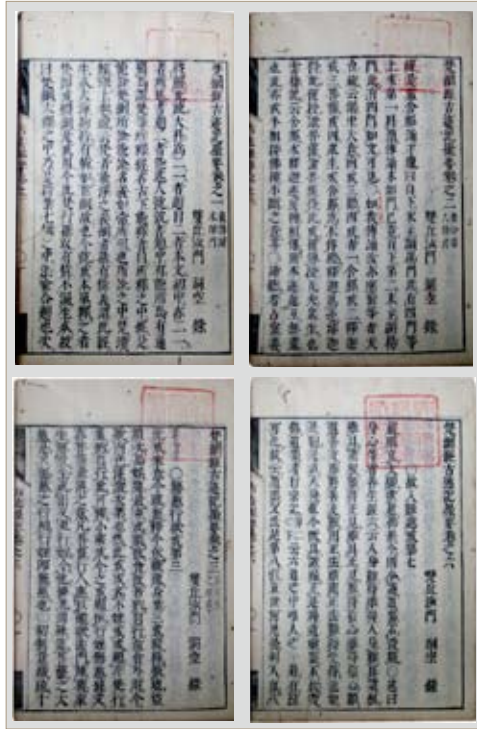


『범망경고적기상회본』 乾坤(乾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범망경고적기찰요(梵網經古述記撮要)』, 동국대도서관 소장





『범망경고적기촬요』 본문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범망경고적기』 末1의 본문





總目次 총목차

【梵網經古迹記 범망경고적기】

【菩薩戒本宗要 보살계본종요】





凡例 일러두기

1.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국불교의 전통 사상을 알리는 총서로 기획한 한국전통사상서 ‘계율’ 편으로, 2008년 5월 9일 초역으로부터 최종윤문인 2010년 4월 20일까지의 작업이다.
2. 이 책의 번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의 번역 내규에 따랐다.
3. 번역의 저본은 『한국불교전서』이나, 문단은 동경서림본을 기준으로 나누었고 띄어쓰기와 문장종결 구두점은 각경처본을 참고하면서 한불전 번역물에 입각하여 달았다.
4. 교감 정보 및 과목의 참고 문헌은 제 1권 각주 1)에서 밝히고, 저본의 원문에 각주 처리하여 교감한 글자를 밝혔다.
5. 총체적으로 과목을 달았으며 과목의 참고 문헌은 『梵網經古述記上會本』乾坤, 『梵網經古述記撮要』一卷~五卷, 『卍續藏經』(中國, 藏經書院版, 新文豐刊)의 科目과 『古述記』本文안의 과목을 참고 하여 계율 팀이 刪補하였음을 밝혀둔다.
6. 본문의 구성은 번역문을 먼저 싣고 그 바로 아래에 원문을 두었으며 주석은 각주로 처리하여 인용문 출처를 밝히거나, 범수 등의 용어를 해설하거나, 번역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7. 원문의 표점은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큰 따옴표(“ ”) 작은따옴표(‘ ’) 등을 사용하였다. 직접인용의 文取인 경우는 큰 따옴표를 쓰고 그 외의 意取이거나 생략된 내용 및 술어 인용은 작은따옴표를 썼다.
8. 경전이나 저술은 『, 품이나 소재목 등은 「」를 사용하였다. 같은 음의 한자에는 (), 다른 음의 한자를 붙일 때에는 []를 사용하였으며, 이해를 위해





덧붙인 내용에는()를 사용하였다.

9. 『한국불교전서』는 韓, 『대정신수대장경』은 大, 『만속장경』은 叢으로 약칭하였다.
10. 많이 함축된 부분은 간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 옆에 간단히 부연 설명 하였다. 예) 세 가지 뜻[三義, 自覺·覺他·覺行圓滿]
11. 숫자는 범수나 용어로 굳어진 것은 한글이나 한자로도 표기하였다.
12. 『梵網經古迹記』의 특수성은 경율론의 많은 인용과 인용문이다. 각주에서 전거와 원문을 충실히 밝혔으며, 경우에 따라 각주 원문의 번역문은 달지 않았다. 원문은 전거 바로 뒤에 큰 따옴표로 묶었으며 대장경의 전거는 쪽수와 함께 줄 수를 표시하였다. 예) 『大般涅槃經』 권1(大12 p.402c8)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一切中生悉有佛性.” 또 『法華玄義』 권5(大33 p.743c8) “三句攝一切法, 無非佛性.”
13. 많이 쓰는 관용구는 일관성을 위해, 者; 은, 는 / 言 ~ 者; ~라는 것은, 이란, ~라고 말하는 것은 / 故; 어떤 일에 대한 이유 ~때문이다. 또는 일반 서술형 ~이다. / 謂 言 名 者; 등은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관여할 뿐, 간결한 문장의 긴장을 위하여 반복되는 용어들은 생략하기도 하고 간혹 읽히는 리듬과 느낌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예외로 쓰기도 하였다.
14. 범망경 경문은 ‘□’, 고적기 기문은 ‘■’, 번호 없는 과목은 ‘■, ◇’으로 표시하여 경문과 기문을 효율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15. 『梵網經古迹記』의 상세한 내용분석인 科目과 부록으로 대현과 범망경고적기에 관한 자료 검색표를 실었다.





解題 해제

1. 들어가는 말 _____
2. 태현의 행적(行蹟)과 저술(著述) _____
3. 태현의 대승계학(大乘戒學) _____
4. 마무리 말 _____



1. 들어가는 말

법흥왕(法興王) 14년 정미년(丁未年, 西曆527)에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뒤 유학승들을 비롯하여 많은 신라 사람들이 중국을 왕래하면서 발달된 각종 선진문화와 불교의 여러 교리사상을 한꺼번에 들여오기에 이르렀다. 그것을 흡수하여 소화할 겨를이 없었던 전래 초기의 ‘수입시대’가 지나고, 이윽고 불교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를 바탕으로 신라의 불교인들에 의하여 신라적인 특색을 지닌 불교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를 신라 불교의 ‘건설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때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일본 등 외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불교계의 인물들이 나타났으니, 원광(圓光)·자장(慈藏)·원효(元曉)·의상(義湘)·경흥(憬興)·의적(義寂) 등 대덕들이다. 그들의 뒤를 이어 신라 화엄의 원효(元曉)·의상(義湘)이 출현하였고, 원측(圓測)·도증(道證)이 당에서 법상(法相)의 영향을 받아 신라 유식의 터전을 닦았다. 그 다음 신라 유가(瑜伽)의 개조(開祖)로 추앙을 받은 분이 등장하였으니 바로 태현법사(太賢法師)이다.

그의 교학연구의 범위는 유식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교학의 여러 분야에 이르러 다양한 불교사상에 통달하였으며, 많은 저술은 경·율·론의 삼장에 걸쳐 있으므로 후세에 ‘해동(海東)의 자은(慈恩)’이라고 칭송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박학다재(博學多著)하고 천성이 지혜롭고 민첩하며 기품을 갖춘 현인(賢人)이면서도 명예를 좋아하지 않아 숨어서 덕행을 행한 까닭에 그의 행적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경주 남산의 용장사(茸長寺)에 머물면서 신라 경덕왕 시대(742-764)에 활약한 것만은 확실하나 승전(僧傳)에 전해지는 기록이 없다. 다만

『삼국유사』에 조금 보이는 행적과 『고적기(古迹記)』라고 불리는 저서와 그 주석서들 가운데 그에 관한 약간의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생몰연대와 관향(貫鄉) 등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자세한 행적을 알 수 없다.

태현이야말로 신라 불교학계에서 연구영역의 다양함과 저작활동의 방대함 그리고 신라를 떠난 적이 없으면서도 외국까지 학문적인 영향을 끼친 점으로 보아 능히 원효와 어깨를 겨룰 만한 대석학이다. 하지만 국내학계는 지금까지 연구 성과가 많지 않으니 심히 아쉬운 일이라 하겠다.

2. 태현의 행적과 저술

1) 태현의 행적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 있는 태현에 관한 문헌으로는 『삼국유사』 권4 ‘현유가해화엄조(賢瑜伽海華嚴條)’에 보이는 행적이 전부이다. 그러나 그의 저술들은 일찍이 일본에 전해져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이 읽히며 많은 주석서가 연구되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그 주석서들 가운데 태현에 관한 기술이 더러 보이며, 특히 나라(奈良)의 도다이지(東大寺)에 머무르며 『율종강요(律宗綱要)』, 『삼국불법전통연기(三國佛法傳通緣起)』 등 많은 저술로 유명한 교넨(凝然, 1240-1321)의 저술 가운데 『태현법사행장록(太賢法師行狀錄)』 1권이 있어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전기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보이나, 전해지지 않으므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의 생몰년대나 관향(貫鄉) 등은 알 수 없으나, 휘(諱)는 태현(太賢) 또

는 태현(太賢)으로 기록되어 있고, 스스로는 청구사문(靑丘沙門)이라 칭하였다. 태현이라는 휘명에 대해서는 조선(定宗)의 『범망경고적기보망초(梵網經古迹記補忘抄)』 권1에

태현(太賢)은 조사(祖師)의 휘(諱)이다. 사람들이 스님을 경외(敬畏)하는 까닭에 감히 바로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실명 대신 휘자(諱字)를 쓰게 된 것이다. 돌아가신 뒤의 증호(贈號)로써 시호(諡號)를 사용함은 남산대사(南山大師)를 정조대사(澄照大師)라고 추증(追贈)한 예가 있기는 하지만, 휘(諱)와 시(諡)는 사용되는 바가 각각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혹은 태현을 ‘매우 어질다’라고 하든가, ‘늠름하다’라고 새겨서 읽기도 하는데, 스님은 명예를 탐하지 않고 덕행을 숨겼으므로 승전(僧傳) 등에는 보이지 않으니, 이런 까닭에 그와 같은 뜻으로 새겨서 읽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쇼엔(照遠)의 『범망경고적기술적초(梵網經古迹記述迹抄)』 권1에는

현장(玄奘)의 3천문도 중에 70인의 달통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으뜸이었던 원측법사(圓測法師)의 문제(門弟)인 도증(道證)의 제자가 바로 태현이다. 태현은 처음에 화엄을 배우고, 그 뒤에 법상(法相)을 익혔다. 항상 자취를 숨기는 생활을 하였고, 거문고 타기를 즐겼다. 그러므로 그가 밖으로는 덕행을 숨기고 안으로는 밝은 지혜를 지니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의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에 도봉(道峯)이 서문을 지으면서 ‘자취[用]를 감추고[潛] 빛[光]을 숨긴[韜] 까닭에 태현(太賢)이라 하니, 매우 어질다는 뜻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함이다.

라고 하였다. 또 청구사문이라고 자호(自號)하였는데, 청구(靑丘) 혹은 청구(靑邱)는 해동(海東)이라는 명칭과 함께 신라의 고칭(古稱)의 하나이다. 여기에 대하여 역시 『범망경고적기술적초』에서는

청구(靑丘)란 문선(文撰)의 주(註)에 말하기를 ‘복건(服虔)이 말하되 청구국은 해동 3백리에 있다.’ 또 ‘동궁절운(東宮切韻)에 말하되 청구는 국명(國名)이다’, ‘옥편(玉篇)에 말하되 한수(漢水)는 청구의 산에서 나온다’, ‘야마대(野馬臺)의 주(註)에 말하되 청구는 신라국을 말함이니 그 나라에 소나무가 무성한 까닭에 청구라 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가 곧 신라라면 태현의 『고적기(古迹記)』에 ‘신라국 청구사문 태현’이라는 찬호(撰號)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세이산(清算)의 『범망경고적기강의(梵網經古迹記講義)』 권1에

신라는 총국(總國)이며 청구(靑丘)는 별국(別國)이다. 예컨대, 일본국(日本國)은 총국(總國)이며, 대화국(大和國) 등은 별국(別國)인 것과 같다. 또한 대당(大唐)에서는 신라국의 이름을 해동(海東)이라고도 하니, 원효(元曉)를 해동법사(海東法師)라고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

휘명(諱名)도 태현(太賢)과 태현(太賢)의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기록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해제에 나오는 도표들은 선임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서 발췌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도표1. 대현(大賢)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증

번호	근거자료	例證
1	『三國遺事』卷4 ‘賢瑜伽條’ (大49, 1009下)	〈瑜伽條 大德大賢〉
2	大薦福寺僧道峯撰『大賢法師義記序』 (大45, 915上)	〈卽東國大賢法師其人也〉
3	『菩薩戒本宗要』 (大45, 915中·卽1, 60, 2)	〈靑丘沙門 大賢撰〉
4	『佛國寺古今歷代記』 (1767年刊, 1954年 騰寫本 p.5)	〈名大賢 自號靑丘沙門〉
5	『朝鮮佛教通史』 (李能和著 1917年刊, p.96)	〈詔沙門 大賢〉 〈大賢撰 藥師經古述二卷〉
6	『朝鮮佛教略史』 (權相老著 1917年刊, p.4·p.65)	〈大賢大德行迹〉
7	『朝鮮禪教史』 (忽滑谷快天著 1930年刊, p.64·p.68)	〈大賢 唯識〉
8	『韓國佛教文化史』 (金映遂著 1960年刊, p.23)	〈元曉 大賢〉
9	『新羅佛教의 理念과 歷史』 (趙明基著 1962年刊, p.180)	〈大賢 法相〉
10	『韓國思想史』 (朴鐘鴻著 1966年刊, p.45)	〈圓測의 肉食사상을 전승한 것은 신라의 道證이오, 다시 그 계통을 이은 것이 대賢이다〉
11	『韓國佛教史』 (禹貞相·金煥泰 共著 1968年刊, p.54)	〈大賢 或 太賢〉

■ 도표2. 태현(太賢)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증

번호	근거자료	例證
1	『梵網經古迹記』 (大40, 689中·卽1, 60, 3)	〈靑丘沙門 太賢集〉
2	『本願藥師經古迹記』 (大38, 257上·卽1, 35, 2)	〈靑丘沙門 太賢撰〉
3	『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大44, 409中·卽1, 71, 4)	〈太賢 作〉
4	『成唯識論學記』 (卽1, 80, 1)	〈太賢 集〉
5	『菩薩戒本宗要纂註』 (宗覺正直編 日本大21, p.2下)	〈太賢法師義記序〉

이 밖에 일본대장경(日本大藏經)에 수록되어 있는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에 관한 각 주석서에는 모두 ‘태현’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분석해 볼 때 한국과 중국의 문헌자료에는 거의 다 ‘대현’으로 쓰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에 전하는 문헌자료의 대부분은 ‘태현’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추측하건대 일본에서 ‘태현’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태현’의 많은 저술 가운데서도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범망경고적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태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 주석서나 저술에서 이것을 기준하여 ‘태현’으로 쓰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의 두서(頭序)에 중국의 대천복사(大薦福寺) 도봉(道峯)의 ‘대현법사의기서(大賢法師義記序)’에서는 ‘태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쇼가쿠(宗覺)가 편집한 『보살계본종요찬주(菩薩戒本宗要纂註)』와 그의 「태현법사의기서해(太賢法師義記序解)」에는 ‘태현’으로 고쳐져 있다. 신라에서는 어느 이름이 휘명(諱名)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결정지를 확실한 근거가 없으나 본 해제에서는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教全書)』에 실린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자료가 예로부터 ‘태현’이라고 기록된 것에 의거하여 ‘태현’으로 쓰기로 한다.

태현은 유식학에 있어서 원측과 도증의 계통을 이어받았다. 노법사(老法師)인 원측은 당에 있으면서 현장 삼장 이후 중국의 범상학계를 자운사(慈恩寺) 규기(窺基)와 함께 이끌어 가면서 유식의 제일인자로서 추앙되어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존숭을 받은 대덕이다. 그는 유식(唯識)·유가(瑜伽)의 해의(解義)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으며 범어 외에도 여섯 가지 언어에 능통한 어학력을 가지고 역장(譯場)의 상수(上首)로서 커다란 활약을 하였다. 그러나 이국인이었던 까닭에 다른 학파의 질투와 배척을 받아 이단시되었고 『송고승전(宋高僧傳)』의 ‘당경사서명사원측전(唐京師西明寺圓測傳)’에서는,

석 원측은 씨족을 알 수 없다 [釋圓測者 未詳氏族也].

라고 하여, 높은 인격과 깊은 학식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과장된 중상모략의 기록만 남기고 있다.

원측법사야말로 신라 출신의 대덕으로 신라의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고번경증의대덕원측휘일문(故翻經證義大德圓測諱日文)」이나, 송(宋)의 송부(宋復)가 지은 「주서명사고대덕원측법사사리탑명병서(周西明寺故大德圓測法師舍利塔銘并序)」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같이 그 학덕이 세상에 뛰어난 대덕이었다. 그런 까닭에 유식연구를 뜻에 둔 신라의 유학승들이 그의 밑에 모여 들었을 것은 지당한 일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원측의 법사(法嗣)인 도증이 원측 입적(入寂) 5년 전인 692년에 신라에 돌아왔으니, 역시 신라 국내의 유식학승들이 모두 그의 가르침을 받았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증과 태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 도증이 귀국한 뒤에 약 20년 정도 더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753년에 궁중의 내전(內殿)에서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강의하여 우물의 물을 솟아나게 하는 신통을 보였다는 태현이 그의 젊은 수학시절에 도증의 강연(講筵)에 직접 참석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333년 쇼엔(照遠)이 『범망경고적기술적초』를 초기(抄記)할 무렵의 일본에는 태현의 저작이 현존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전해져 연구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전기에 관해서도 역시 같은 시대의 교넨(凝然)이 『태현법사행장록(太賢法師行狀錄)』 1권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있었으며 또 『고적기술적초(古迹記述迹抄)』에 ‘태현이 도증의 제자’라고 인용할 만한 전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후세에 ‘신라 유가조(瑜伽祖) 대덕대현(大德大賢)’이라고 존칭되었듯이 국내 그리고 국외의 대덕선사(大德先師)들이 법상(法相)에 관하여 밝힌 의지(義旨)를 여러 저술에서 집대성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라 유가(瑜伽)연구의 기반을 세웠다. 그 문하에는 회엄(檜巖)·운권(雲卷)·귀암(龜巖) 등의 제자가 배출되어 그의 법통을 계승한다.

세이산(清算)이 지은 『범망경고적기강의(梵網經古迹記綱義)』(1356-1361)

제1(第一)에

태현(太賢)이란 소주(疏主)의 휘명(諱名)이다. 다른 조(朝)에서는 율사(律師)·선사(禪師)·법사(法師)의 세 가지 사호(師號)를 세우는데 여기에서는 법사(法師)라고 칭호(稱號)하니, ‘중요(宗要)’의 서(序)에 ‘태현법사(太賢法師)’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넨(凝然)의 기(記)에 이르기를 ‘태현(太賢)은 신라국 사람이며, 오직 자국(自國)에서만 불법(佛法)을 펼친 까닭에 고승전(高僧傳) 가운데에는 이 스님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문장(文章)은 당국(唐國)에도 전해지고 있으니 신라의 순경(順憬)·의상(義湘)과 같이 승전(僧傳)에 실려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대당(大唐) 대천복사(大薦福寺)의 도봉법사(道峯法師)는 서(序)를 지어 태현 사(師)가 지은 모든 글[諸文]의 첫머리에 두었고,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의 첫머리에도 서를 두었다.

또 멀리서나마 법사의 행업(行業)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오백(五百)에 응하여 걸기(傑起)함은 그 누구인가. 곧 동국(東國)의 태현법사(太賢法師)야말로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자취를 숨기고, 만남을 멀리 하였다…”고 하였으니, 그가 승전(僧傳)에 실리지 않은 것은 작용을 숨기고, 광명을 드러내지 않았던 까닭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태현의 저서는 당까지 전해져 널리 유통되었다. 선배인 원효가 당의 흠을 밝은 일이 없었지만, 그의 저술이 당에서 널리 존송되었듯이 태현의 전기가 비록 승전(僧傳)에 실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감히 견주어 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윽한 행업(行業)이 전해져 크

게 찬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나 일본 등에 전해지는 자료에는 대현의 학덕을 그 저술에 의하여 찬탄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행장(行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충분치는 않으나 『삼국유사』 권4 '현유가조(賢瑜伽條)'에는 그 사적(事蹟)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유가종의 시조(祖)이며 대덕이신 대현(大賢)은 남산의 용장사(菴長寺)에 주석(住)하였다. 절 안에 미륵보살[慈氏]의 석상(石像)이 있으니 일장 육척(一丈六尺)이었다. 대현(大賢)이 항상 그 주위를 돌면 석불(石佛)도 또한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고 한다. 대현(大賢)은 지혜와 번재가 정밀하고 민첩하여 결택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대개 범상종[相宗]의 도리는 뜻과 이치가 깊고 오묘하여 쪼개어 분석하기가 어렵다. 중국의 명사 백거이(名士 白居易)도 일찍이 이것을 연구하다 해내지 못하고 말하기를 “유식은 오묘하여 알기 어려우며, 인명(因明)은 분석해도 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이어받아 계승하기 어려운 지 오래되었다. 대현(大賢)이 홀로 그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잠깐 만에 심오한 뜻을 열어 자유자재로 분석하였다. 동국(東國)의 후학들이 모두 다 그의 가르침을 따랐으며, 중국의 학자들도 자주 그의 글을 의지하여 안목을 삼았다.¹⁾

그리고 다시 전하기를,

1) 『삼국유사』 권4, 의해(義解) 5 「현유가조(賢瑜伽條)」瑜珈祖大德大賢, 住南山菴長寺. 寺有慈氏石丈六, 賢常旋繞, 像亦隨賢轉面. 賢惠辯精敏, 決擇了然. 大抵相宗銓量, 旨理幽深, 難爲剖析. 中國名士白居易, 嘗窮之未能, 乃曰, “唯識幽難破, 因明擘不開.” 是以學者, 難承稟者尙矣. 賢獨刊定邪謬, 暫開幽奧, 恢恢游刃. 東國後進, 咸遵其訓, 中華學士, 往往得此爲眼目.

경덕왕(景德王) 천보(天寶) 십이년(十二年) 계사해[癸巳, 753]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었으므로 (대현에게) 왕명을 내려 내전에 들어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강설하여 단비를 빌게 하였다. 하루는 사시공양 때에 발우를 펴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기다렸으나 정수(淨水) 올리는 것이 늦어졌다. 감독하는 관리가 늦은 것을 나무라자 공양 준비하는 자가 말하기를 ‘궁궐의 우물이 말라 먼 곳에서 길어 오느라 늦었습니다.’ 하였다. 대현(大賢)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하여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더라. 오후 경을 강설할 즈음에 향로를 받들고 아무 말 없이 계시니 이에 잠깐 사이에 우물물이 솟아 일곱 길이나 올라가는 모양이 마치 찰당(刹幢)과 같았다.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탄복하니, 이 일로 인하여 그 우물을 금광정(金光井)이라 부르게 되었다.²⁾

대현은 일찍이 스스로 청구사문(靑丘沙門)이라 호(號)하였다.

그를 찬탄하는 시에,

남산 위 부처님을 돌고 도니 미륵도 대현 따라 함께 돌아네

청구의 불일(佛日) 하늘 한가운데 다시 떠오르니

금광명경 강설함에 마른 우물에서 맑은 물 솟구치네

그 누가 알았으랴 한 줄기 향 연기의 신령스러움을.

遶佛南山像逐遊 靑丘佛日再中懸

解教宮井清波湧 誰識金爐一炷烟

라고 하였듯이 대현은 단순히 교리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감히 남이 따르

2) 『삼국유사』 권4, 의해(義解) 5 「현유가조(賢瑜珈條)」景德王天寶十二年癸巳, 夏大旱, 詔入內殿, 講金光明經, 以祈甘霖. 一日齋次, 展鉢良久, 而淨水獻遲. 監吏詰之, 供者曰, “宮井枯涸, 汲遠故遲爾.” 賢聞之曰, “何不早云.” 及晝講時, 捧爐默然, 斯須井水湧出, 高七丈許, 與刹幢齊. 闔宮驚駭, 因名其井曰金光井.

지 못할 만한 두터운 신심을 가지고 국가의 이익과 백성들의 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대보살행을 하신 분이기도 하다. 또 『삼국유사』 권5 ‘대성효이세부모조(大城孝二世父母條)’에는,

사중(寺中)에 기록하기를, 경덕왕(景德王) 시대(742-764)에 재상[大相]인 대성(大城)이 천보(天寶)10년 신묘(辛卯, 751)에 불국사(佛國寺)를 창건하였다. 혜공왕(惠恭王) 대(代, 765-779)를 거쳐 대력(大歷) 9년 갑인(甲寅, 774) 12월 2일에 대성(大城)이 죽으므로 국가에서 그 일의 마무리를 지었다. 처음에 유가(瑜伽)의 대덕(大德)을 청하여 마(魔)를 항복받도록 하였으므로 이 절에 머물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에 이르러 왔다. 고전(古傳)이 같지 않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³⁾

라고 하였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중(寺中)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慶尙道) 강좌(江左) 대도호부 경주 동령(江左大都護府慶州東嶺) 토함산 대화엄종 불국사(吐含山大華嚴宗佛國寺) 고금역대 제현 계창기(古今歷代諸賢繼冊記)』를 말한다. 이 ‘계창기(繼冊記)’에는 ‘청유가대덕(請瑜伽大德)’의 밑에 ‘명대현 자호청구사문 경덕봉위국사(名大賢自號靑丘沙門景德封爲國師)’라는 작은 글자로 된 두 줄의 주석이 있다. 이에 의한다면 당시 신라에 있어서 국가적인 대작불사(大作佛事)였으며, 오랜 세월 끝에 중창의 완성을 보게 된 제일명찰(第一名刹) 불국사에 항마(降魔)의 위신력을 지닌 대덕을 청해 머무르게 하고 국사(國師)의 예우를 하였는데 그 고승이 바로 태현법사였다는 것이다. 유가대덕(瑜伽大德)인 태현을 화엄의 명찰인

3) 『삼국유사』 권5, 효선(孝善) 「대성효이세부모조(大城孝二世父母條)」而寺中有記云, 景德王代, 大相大城, 以天寶十年辛卯, 始創佛國寺. 歷惠恭世, 以大歷九年甲寅, 十二月二日, 大城卒, 國家乃畢成之. 初請瑜伽大德, 除魔住此寺, 繼之至于今. 與古傳不同, 未詳孰是.

불국사에 머물도록 청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태현이 불국사의 사기(寺記)에 머문 것으로 기록될 정도로 당시에 경앙(敬仰)받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일이라 할 것이다. 태현은 승전(僧傳)에 실리지 않을 만큼 밀행(密行)하여 그 자취를 숨겨 드러내지 않는 생애를 보냈지만, 그래도 그의 높은 덕과 명성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는 한 단편이다.

2) 태현의 저술과 현존하는 저술

신라에서 통일을 전후하여 불교 교학연구의 꽃이 피어서 원효를 비롯하여 경흥(憬興)·의적(義寂)·승장(勝莊) 등의 석학들이 배출되어 훌륭한 저술을 많이 남겼고, 당(唐)에서도 원측(圓測)·순경(順憬)·신방(神昉)·도증(道證) 등의 대덕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특히 원효 같은 이는 당시 신라에서 유행했던 것처럼 당에 들어가 유학하는 길을 밟지 않고 국내에서 불교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쌓아 모든 불교를 한 이치에 귀납시키는 통일적인 불교를 수립하여, 이 원리에 의하여 사회의 통일과 화합을 실현시키려는 화쟁(和諍)의 논리를 제창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는 화엄 사상을 주로 하면서도 그 교학연구는 경·율·논 등 불교전반에 걸쳤으며, 교리에 대한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대보살행을 실천하였다.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불교사상을 통불교적인 안목으로써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는 다만 원효 한 사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신라 불교학계에 있어서 연구경향의 대세였다. 이러한 경향을 이은 대표적인 불교학자가 바로 태현이다.

중국의 불교학자들은 대개가 자종(自宗)의 소의경전이나, 혹은 자기의

신앙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경론을 주로 연구하거나 주석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그 밖의 다른 경론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소의경론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곁에서 돕기 위한 자료로서 연구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의 불교학자들은 그와 같은 종파관념에 사로잡히는 일없이 통불교적인 견지에서 모든 경론을 다 같이 연구하여 평등한 안목으로 주석(註釋)하여 그 깊은 뜻을 밝혀주고 있음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태현은 유가(瑜伽)·유식(唯識)의 사상에 의지하면서도, 그 연구범위는 특정한 종학(宗學)에 한정되는 일 없이 널리 팔종(八宗)에 통달하였다. 외국에 나간 일이 없으면서도 그가 지은 『고적기』라고 불리는 박학하고도 정확한 주석(註釋)을 담은 저술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칭찬을 받고 널리 쓰일 정도의 훌륭한 것이었으니, 계율에 관한 태현의 『범망경고적기』와 『종요(宗要)』가 일본 등에서 크게 중요시되어 오래토록 의거해 온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태현의 저술은 대승의 각 경전에 관한 주소(註疏) 23부, 각 대승론(大乘論)에 관한 주소 32부 합계 55부 122권이다.⁴⁾ 다음 도표는 조명기(趙明基) 박사의 조사에 의한 것인데 각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⁵⁾

-
- 4) 태현의 저술에 관해서는 민영규(閔泳珪), 「신라장소록장편(新羅章疏錄長編)」(『백성옥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1959), pp.375-378 및 조명기(趙明基),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신태양사, 1962), pp.191-194에서는 각각 45종, 54종을 들고 있으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편,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동국대출판부) pp.72-82에서는 52종을 들고 있다. 또 채인환(蔡印煥), 『신라불교계율사상연구』(국서간행회, 1977), pp.378-386에서는 43종을 들고 있다.
- 5) 다음 도표는 조명기박사(趙明基博士)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에서 조사한 '태현저서일람(太賢著書一覽)'에 의거하였다. 서목(書目)의 번호는 55번까지 있다

■ 도표3. 신라 태현의 저서에 관한 자료

訂 正	著書數	書名	卷 數	典據한 目錄名
1	1	華嚴經古迹記	10或5	義天1, 佛典上, 諸宗上
2	2	涅槃經古迹記	8或4	義天1, 佛典上, 諸宗2, 東域上
3	3	法華經古迹記	4	義天1
4	4	金光明經古迹記	4	義天1, 佛典上
5	5	金光明經料簡	1	佛典上
6	6	仁王經古迹記	1	義天1, 佛典上
7	7	般若理趣分經註	2	義天1, 佛典下
8	8	般若心經古迹記	或2	義天1, 佛典上
9	9	般若心經註	2	佛典上
	10	金剛經古迹記	1	佛典上
10	11	觀無量壽經古迹記	1	義天1, 佛典下, 諸宗1
11	12	大無量壽古迹記	1	義天1
	13	小無量壽古迹記	1	義天1
12	14	稱讚淨土經古迹記	1	義天1, 佛典下
	15	淨土總料簡	1	佛典下
13	16	阿彌陀經古迹記	1	佛典下
14	17	彌勒上生經古迹記	1	義天2, 佛典上
15	18	彌勒下生經古迹記	1	義天1, 佛典上
16	19	(欠)		
17	20	藥師經古迹記(現存)	1或2	佛典1, 諸宗上
18	21	梵網經宗要	1	義天2, 佛典上
	22	梵網經戒本宗要(現存)	1	律宗, 諸宗2
19	23	梵網經古迹記	52或4	諸宗上, 佛典1, 東域上, 蓮門下, 奈良
20	24	起信論古迹記	1	義天3, 佛典上, 諸宗2, 東域下
	25	起信論內義略探記(現存)	1	
21	26	成唯識論古迹記	10或5	義天3, 佛典上, 諸宗2, 東域下
	27	成唯識論學記(現存)	8	
22	28	成唯識論開發章	4或2	義天3
	29	成唯識論決擇	1	義天3, 佛典上, 諸宗
23	30	唯識二十論古迹記	1	義天3

나, 저서일람표에는 제19가 빠져 있으므로 실제 숫자는 54부가 기재되어 있고 조박사도 이 조사표에 대하여, “각종 서적목록에서 발췌하고 동본이명(同本異名)이나 서명의 광략(廣略)과 권수(卷數)등은 후일에 재조(再調)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24	31	廣釋本母頌	3	佛典上, 諸宗2, 法相云成唯識論 廣釋本母頌
25	32	大乘心路章	2	佛典下, 東域下
26	33	因明論古述記	1	義天3, 佛典下, 諸宗下, 東域下
27	34	正理門論古述記	1	義天3, 佛典下, 諸宗1
	35	因明正理古述記	1	諸宗1
	36	因明正理古述記	1	諸宗2
	37	因明入正理論古述記	1	東域下, 法相
28	38	瑜伽論古述記	4	義天3, 佛典上
	39	瑜伽論纂要	3	諸宗2, 東域上
29	40	顯揚論古述記	2或1	義天3, 佛典上, 東域下
30	41	攝大乘論世親釋論古述記	1	義天3, 佛典上, 東域下
31	42	攝大乘論無性釋論疏古述記	1	義天3, 佛典上, 東域下
32	43	雜集論古述記	4	義天3, 佛典上, 東域下
	44	對法論古述記	4	佛典上
33	45	中邊論古述記	1	義天3, 佛典上
	46	辯中邊論古述記	1	東域下
34	47	成實論古述記	1	義天3, 佛典上, 奈良云成業論記
35	48	觀所緣論古述記	1	義天3, 佛典上
36	49	掌珍論古述記	1	義天3, 佛典上, 諸宗1, 東域下
37	50	廣百論古述記	1	義天3, 佛典上
38	51	大乘一味章	1	義天3, 佛典上
39	52	五蘊論古述記	1	佛典上
40	53	釋名章	2	佛典上
41	54	百法論古述記	1	諸宗, 東域下
42	55	佛地論古述記	1	東域下

■ 도표4. 태현 저술의 현존서(現存書)

번 호	현존하는 서명
1	『梵網經古述記』 2卷, (大40.689, No.1815, 卍1, 60, 3)
2	『菩薩戒本宗要』 1卷, (大45, No.1906, 卍1, 9, 2)
3	『藥師經古述記』 2卷, (大38.257, No.1770, 卍1, 35, 2)
4	『成唯識論古述記』 8卷, (一名 成唯識論學記, 卍1·80·1)
5	『起信論古述記』 1卷, (一名 起信論內義略探記, 卍1·71·4)

이상과 같이 방대하였던 태현의 저작이 오랜 세월을 전해 오는 동안 아깝게도 그 대부분이 산일(散佚)된 가운데 위와 같은 4종의 ‘고적기’와 『보살계본중요(菩薩戒本宗要)』의 5부 14권의 저술이 학계에 남아 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들 ‘고적기’ 가운데서 대승범망계(大乘梵網戒)에 있어서 『범망경고적기』가 담당해 온 역할과 대승계학연구(大乘戒學研究)에 차지하는 위치만을 가지고도 태현의 『고적기(古迹記)』가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대승불교권을 통하여 불교학연구에 기여한 공적이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

앞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태현의 저서에는 대승경전 20부 가운데 18부, 그리고 대승론(大乘論) 23부 가운데 19부가 ‘고적기’ 혹은 ‘중요’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조센(定泉)의 『범망경고적기보망초(梵網經古迹記補忘抄)』 권1에는 태현의 저서에 붙여진 고적기(古迹記)라는 제명(題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에 『아비달마장고적(阿毘達磨藏古迹)』의 17권을 보건대… 이와 같이 사(師, 太賢)의 제작(制作)을 거의 다 고적(古迹)이라 칭하는 것은 곧 비하(卑下)함을 나타내는 말이니, 의적(義寂)·법장 등의 소기(疏記)에 의거하여 저술하였기 때문에 고적(古迹)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적(古迹)이란 곧 비하(卑下)함을 나타내는 말’이라 함은 크게 잘못된 해석이다.

쇼엔(照遠)의 『범망경고적기술적초』에서는 태현이 자기 저서의 대부분에 ‘고적기’라고 제명(題名)하게 된 연유를 술이부작(述而不作)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았으니, 이것이 더 타당한 설명으로 보인다. 즉 저술을

하되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거하여 선인의 견해를 의지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태도는 고금을 막론하고 공부하는 자들의 기본자세이므로 특별히 겸손하거나, 비하하기 위하여 고적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태현법사(太賢法師)는 대승제경(大乘諸經)과 논(論)에 대한 그의 해석서(解釋書)를 고적(古迹)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각 제가(諸家)들이 해석한 종적(蹤迹)을 의지하여 그 요점을 취해서 기록한 때문이니, 전거(典據)함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저술을 하되 함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지(依承)하는 데를 두고 기술(記述)하였지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까닭이다.

그러면 태현의 『고적기』는 주로 어떤 선사(先師)들의 자취를 의지하여 계승한 것일까? 유식(唯識)은 원측(圓測)·도증(道證) 등의 자취를 이었고, 성종(性宗)은 법장·원효(元曉) 등의 자취를 의지하였고, 잡집(雜集)은 현범(玄範)의 자취를 취하였으며, 범망(梵網)은 의적(義寂)·승장(勝莊) 등의 자취를 이어 받았음을 그의 각 『고적기(古迹記)』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고인(古人)의 자취를 의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강(大綱)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훌륭하게 뛰어난 일가견을 갖춘 까닭에 다른 사(師)들의 잘못을 설파하여 자기의 바른 뜻을 기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유식에 관한 이설에 대해서는 엄정한 비판적 태도를 굳게 지켰고 선사(先師) 원측·도증의 학통을 여지없이 공격하였던 자은(慈恩)·혜소(惠沼) 계통의 학설에 대해서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측·도증의 학설이라도 역시 파할 것은 파하고 세울 것은 세

위서 학문상에 조금도 정실이나 파벌에 집착하는 바가 없었다.

교학에 대한 이와 같은 조화로운 태도는 신라불교사상의 특징인 원효의 화쟁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식 법상가이면서도 성종의 종지를 겸수(兼修)한 것 또한 이러한 화쟁정신의 자취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포용적인 학문태도는 원측에게도 찾을 수 있다. 즉 원측은 대승불교의 참되고 깊은 뜻을 밝히는 데 있어서 자기의 법상종 종지에만 집착하는 일이 없었으며, 『반야심경소(般若心經疏)』나 『반야심경찬(般若心經贊)』의 찬술에서 볼 수 있듯이 반야의 공지(空旨)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태현이 『고적기』를 저술함에 성(性)·상(相) 이중(二宗)의 어느 편을 의지했는가는 뒷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론(異論)이 있다. 일본 남도시대(南都時代)의 학자들은 태현이 본래는 화엄을 수학한 성종의 사람이었으나, 뒤에 유식을 전공하여 법상종(法相宗)의 소의론(所依論)을 거의 다 해석하였다. 그외에 그가 저술한 여러 주석을 보더라도 법상적인 해석이 많으므로 그가 성종원융(性宗圓融)의 도리를 인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은 어디까지나 상종(相宗)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태현은 어디까지나 성종이며, 법상종으로 옮긴 것은 아니다. 그의 해설에서는 일심(一心)·여래장(如來藏) 등 성종의 깊은 뜻을 볼 수 있으며, 또 그가 말하는 삼제원융(三際圓融)의 법문 등은 모두 성종의 오지(奧旨)인데 어떻게 그를 상종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론하고 있다.

그러나 태현은 성(性)과 상(相)의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일 없이 성과 상을 겸수(兼修)하여 화회(和會)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삼세육추(三細六麤)의 연기(緣記)에 대해서도 성·상이 소의(所依)로 하는 논장의 의

취(意趣)를 화합하여 법해일미(法解一味)의 본뜻을 살리고자 하였다.

세이산(清算)은 『범망경고적강의(梵網經古迹綱義)』에서 교넨(凝然)의 기술을 인용하여 태현이 성·상을 화합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 있다.

사(師)의 중지(宗旨)는 제교(諸敎)에 다 통한다고 하지만 그 종(宗)을 삼는 바는 유식(唯識)에 있으며, 많은 책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뜻은 법상(法相)에 있다. 그러나 상종(相宗)만을 전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의 뜻은 이사(理事)를 융합(融合)하여 원통(圓通)한 이치를 세우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해석하는 글의 취지는 원효(元曉)의 뜻과 통하는 바가 있다.

찬술하는 장소(章疏)의 사류(事類)가 한결같지 않으니 그 사류(事類)가 같지 않다고 함은, 혹은 유가(瑜伽)·유식(唯識) 등 상종(相宗)의 논장(論藏)에 관한 소석(疏釋)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청변(淸辯)이 지은 장진(掌珍)·광백(廣百)·기신(起信) 등 성종의 논장(論藏)에 대한 소석(疏釋)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 글들이 모두 성·상을 겸비(兼備)하여 서로 어긋남이 없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태현이 저술한 『고적기』의 성격을 판단하고 있다.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는 대체로 대승불교의 여러 교리를 널리 종합하고 화합시켜 성과 상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원통무애(圓通無碍)의 교리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그러기에 널리 제종(諸宗)의 경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일 없이 여러 선사(先師)들의 자취를 의지할 바로 삼아서 잘못된 점은 가려 버리고 바른 뜻만을 집대성함으로써 후세에 정확한 표준을 보여주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후학들이 다투어 『고적기』를 그들의 안목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니, 특히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와 『범망 경고적기』 등은 중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본에서는 율종(律宗)·진언종(眞言宗)·법상종(法相宗)·정토종(淨土宗) 등의 학자들이 유식학·범망보살계 등을 학습하고 연구함에 반드시 이 두 가지 『고적기』를指南(指南)으로 삼았으니 이 『고적기』는 가히 교과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태현의 대승계학

1) 신라의 『범망경(梵網經)』 연구

『범망경』⁶⁾은 경본(經本)에 따라 경의 제목이 여러 가지로 일정하지 않

-
- 6) 『범망경(梵網經)』의 ‘범망(梵網)’은 견망(見網)의 범문과도 통하는데, 이는 곧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아 올리듯 모든 사된 견해를 끌어올린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범망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전은 2종이 있다. 하나는 초기경전에 속하는 것으로서, 팔리어로 씌어진 남방 상좌부의 경장(經藏)인 장부(長部)의 제1경으로서의 『범망경(Brahmajāla-sutta)』이다. 한역(漢譯)으로는 장아함(長阿含) 제21경인 『범망경』(大1-88) 및 『범망육십이현경(梵網六十二見經)』(大1-264)이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구마라집(鳩摩羅什)(344-413)의 번역으로 되어 있는 『범망경』(大24-997)이다. 이 경은 보통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 혹은 『보살계본(菩薩戒本)』으로 불리지만, 정확한 제명(題名)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제10이다. 이러한 제명(題名)이 붙은 이유는 “『범망경』의 광본(廣本)에서 보살의 계위(階位)와 계율(戒律)에 관한 제10보살심지(菩薩心地)의 1품만을 송출(誦出)한 것이 이 경이다.”라고 하는 라집역(羅什譯) 『범망경』 서문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전

으나, 고려대장경에는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법문품(梵網經盧遮那佛說菩薩心地法門品)』 제십(第十) 2권으로 되어 있다. 본래는 위와 같은 경제(經題)와 품제(品數)로 된 120권의 광본(廣本)이 있었는데, 요진(姚秦) 삼장법사 구마라집(鳩摩羅什)이 장안(長安)에서 대소승의 경론 50부를 역출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 경의 보살행지(菩薩行地)를 밝히고 있는 보살심지법문품(菩薩心地法門品) 가운데서 수행의 계위와 계에 관한 부분인 제십(第十)만을 따로 역출한 것이라고 한다. 이 제십(第十)을 상·하 양 권으로 나누어 상권에서는 보살의 향상심(向上心)을 십발취(十發趣)·십장양(十長養)·십금강(十金剛)·십지(十地)의 사십심(四十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하권에서는 보살이 수지해야 할 십지계(心地戒)로서 십중(十重)·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⁷⁾인 58가지의 계법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범망

의 이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경록(經錄)인 승우(僧祐)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권11에 수록된 작자 미상(未詳)의 「보살바라제목차후기(菩薩波羅提木叉後記)」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천축(天竺)의 구마라집(鳩摩羅什) 법사가 이 계본(戒本)을 송출(誦出)한 점, 그리고 이것이 『범망경』 중에 수록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다. 라집역 『범망경』은 대승보살계를 설한 경전으로서 대장경 중에서는 대승율부(大乘律部)에 속하며,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다. 상권에서는 10발취(十發趣), 10장양(十長養), 10금강(十金剛), 십지(十地) 등 보살수도(菩薩修道)의 40위가 설해지며, 하권에서는 10중48경계가 설해지고 있다. 이 중에서 후자가 전자에 비해 우리에게 보다 친숙할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한국불교에서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 경은 유송대(劉宋代, 5세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임이 거의 정설(定說)로 되어 있으며, 또한 광본(廣本)의 권수에 관해서도 이설(異說)이 많다. 예컨대 범망의 서(序)에는 1백12권 61품으로 되어 있고, 승조(僧肇)의 서(序)에서는 1백20권 61품으로 되어 있으며, 평광(明曠)의 회소(會疏)에는 1백52권 61품으로, 그리고 범장의 본소(本疏)에는 10만송 61품으로서, 권수로 따지자면 족히 3백 권은 된다고 한다.

- 7) 10중48경계(十重四十八輕戒)의 대승계 계상(戒相)과 아울러 수계 작법 및 대승보살의 집회작법(集會作法) 등을 설하고 있는 『범망경』 하(下)권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10중48경계이다. 범장 등이 모두 이 하권을 인용하여 주소(註

대계(梵網大戒) 또는 불계(佛戒)라고 부르는 보살계이다. 하권만을 따로 『보살계경(菩薩戒經)』 혹은 『보살계본(菩薩戒本)』·『범망계본(梵網戒本)』으로 부르기도 하며, 대승보살계의 근본성전으로서 천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존중해 왔다. 계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식의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수행의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것은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미리 지키게 되

疏)를 지은 것도 본경(本經)의 주된 취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10중(十重)은 바라이죄(波羅夷罪) 10조(十條)를 말한다. 바라이란 율장에서는 교단추방의 죄를 의미하지만 『범망경』에서는 ‘10중계(十重戒)를 범한 사실이 있으면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하여, 바라이가 지옥에 떨어지는 죄로 의미가 바뀐다. 10중(十重)이란 살생하지 말 것,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술을 팔지 말 것, 남의 허물을 떠벌리지 말 것, 자기를 높이고 남을 헐뜯지 말 것, 인색하게 굴면서 도움을 청하는 자를 헐뜯고 욕하지 말 것, 성을 내면서 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과오를 범하지 말 것, 삼보를 헐뜯지 말 것 등의 10조(十條)로서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의 8중계(八重戒), 『우바새계경』의 6중계 등으로부터 채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십중금계(十重禁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중에서 특이한 점은 별청(別請)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훈계하는 것과 제20조의 팔려가 죽을 목숨을 사서 놓아주고, 죽는 것을 구제하라는 조항과 재가계(在家戒)로서 특히 효순심(孝順心)의 강조, 수계자(受戒者)의 파법(破法) 및 승려의 통관(統官)을 규제하는 것 등, 제33조의 유희에 대한 훈계와 더불어 이 조항들은 본 계법이 가정 및 사회에서 발생하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결코 유리되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는 단지 방비지악(防非止惡)의 일면만으로 볼 때는 소극적인 자리행(自利行)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대승계(大乘戒)의 진면목인 섭율의계(攝律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요익중생계(饒益衆生戒) 등 삼취정계(三聚淨戒)의 본의(本義)를 구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작선(作善)을 강조하고 타인을 교화, 인도하는 대방편(大方便)의 참다운 뜻을 함축하며 자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보살지지경』의 유가계(瑜伽戒)가 소승의 계율을 내포한 대승계로 삼승(三乘)에 통하는 데 비해, 이것은 대승의 독자적인 계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및 일본불교에서 중시되어 많은 주소(註疏)를 남기며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면 얻게 되는 좋은 이익을 관찰하여 설명해 놓은 것이다. 『범망경』의 계율들은 자기의 불성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성계⁸⁾이다. 이런 계율을 지켜 자기의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청정한 지혜를 길러 번뇌를 없애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계에 의해 생활을 청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선정을 닦을 수 없고, 선정없이는 참된 지혜가 얻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범망경』의 계율은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금욕적 입장에서 제정된 것도 있고, 교단의 통제와 질서 유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 경전의 성립에 관한 최근의 학문적인 연구 성과에 따르면 5세기 중간 무렵(420년경)에 중국에서 먼저 유행되고 있던 여러 종류의 대승계경과 소승율, 그리고 『열반경(涅槃經)』 등의 대승경전을 기본으로 하였다는 설과 여기에 다시 중국 고유의 효(孝) 사상까지도 섭수해서 찬술된 중국 성립의 경전이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중국적인 윤리사상이 들어가 있다라도 전통적인 인도찬술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⁹⁾

-
- 8) 불성계(佛性戒)란 자기의 불성을 개발하려는 불자의 자각에 입각하여 보살도(菩薩道)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며 그 행위의 실천은 부모, 사승(師僧), 삼보 등에 대한 효순(孝順)과 자비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효를 이름하여 계라고 설하는 것은 중국적인 색채가 지나치게 강하여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다.
 - 9) 다른 여러 경전과 범망경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중48경계를 설하는데 있어서 연화장세계의 노사나불이나 천엽(千葉)의 석가(釋迦), 그리고 천백억석가(千百億釋迦)의 금강천광왕좌(金剛千光王座)를 비롯하여 마해수라천왕궁에 이르는 설법회좌(說法會座) 조직은 『화엄경』의 영향이나, 특히 『보살계경(菩薩戒經)』으로 별행(別行)되는 것은 담무참이 번역한 『보살계본(菩薩戒本)』의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0중48경계가 설해지기 이전의 이 계를 ‘불성계(佛性戒)’ 혹은 ‘불계(佛戒)’등으로 부르는 것은 『열반경』의 영향으로 보이며, 10발취(十發趣) 이하의 40심(四十心)은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계(戒)를 ‘효(孝)’라고 이름한 것은 유교사상을 도

그런데 비록 이와 같이 성립에 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에는 『화엄』·『열반』·『인왕반야』 등의 대승불교사상이 흐르고 있으므로 교판상이 경의 지위에 관해서는 예부터 여러 가지 의론이 있어 왔지만, 전체적으로 『화엄경』의 설상(說相)과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화엄의 결경(結經)으로 단정하는 것이 정설이 되고 있다. 또 여러 종류의 대승계경과 율문(律文)을 총괄적으로 섭하여 계율의 조항을 정비해서 여법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제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心地)에 근본을 두는 계바라밀을 한층 더 높이 끌어 올려서 대승계의 정신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한국·일본 등 대승계율권의 여러 나라에서 크게 사용되어 유행하였고, 특히 일본에서는 사이초(最澄)가 그때까지의 대소승을 겸수한다는 계율사상을 지양하

입한 것이 분명하며, 더구나 이 ‘효순심(孝順心)’이 불교의 ‘자비심’과 병용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0중계는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과 관련이 있으며 『우바새계경』, 『열반경』 등과도 관련이 있다. 즉 『보살지지경』의 4중은 범망(梵網) 10중 가운데 제7 이하의 4와 합치하고, 『선계경』의 8중은 범망의 제5, 제6의 2계를 제외한 것, 『우바새계경』의 6중계는 범망(梵網)의 최초의 6중(六重), 『열반경』의 성중계(性重戒)는 범망의 처음 4중(四重)과 합치한다. 또한 소승율의 4바라이죄도 범망의 처음 4중(四重)에 상응하며 다만 다른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소극적인 금지사항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작선(作善)이나 구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보살계(菩薩戒)의 3취계(三聚戒)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48경계(四十八輕戒)도 선행(先行) 경전의 영향이 적지 않다. 예컨대 『열반경』 식세형기계,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의 42중다범(四十二衆多犯), 『우바새계경』의 28실의죄(二十八失罪罪), 『보살내계경(菩薩內戒經)』 47계(四十七戒)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해 『범망경』은 『금광명경(金光明經)』 유수장자품(流水長者品), 『보양경(寶梁經)』 비구품(比丘品),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비구응공경(比丘應供經)』 등의 경전에 의거했음이 밝혀졌으며, 소승의 율문(律文)과도 적지 않은 연관성이 있지만, 특히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과 『우바새계경』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 범망계를 받아 지니는 것만으로 보살비구가 된다고 하는 독특한 원돈계(圓頓戒)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근본경전이 되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천태종의 개조(開祖)인 지의(智顗, 538-597)가 범망계에 관한 주석서로서 『보살계경의소(菩薩戒經義疏)』 2권을 저술하면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고 뒤이어 법장(法藏, 643-712)의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6권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석서가 나타났다. 이렇게 연구되기 시작하여 이 경이 그 이전의 여러 경을 섭(攝)하여 성립된 경전인 만큼 도리어 넓은 범위를 가지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가장 잘 정비된 대승경전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서 드디어 대승계 제일경(第一經)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여러 경에서 설하고 있는 대승계를 망라해서 섭취(攝取)한 하권은 보살계본으로 따로 독자적으로 널리 세상에 유포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의 당 이후에는 소승 삼장의 연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게 되었고 신라에서도 같은 시기인 통일기 이후부터는 소승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적어지며 점차로 대승보살계 가운데서도 범망계가 주로 연구되고 또한 실천되었다. 그밖에도 율종이 아닌 타종(他宗)이나 일반의 불교학자들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된 결과, 많은 저술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신라에서 저술된 『범망경』에 관한 저작을 여러 목록 속에서 초록(抄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도표5. 신라 『범망경』 연구 장소(章疏)

번호	법명	소초 이름
1	元曉	『梵網經疏』 2卷 『梵網經略疏』 1卷 『梵網經宗要』 1卷 『梵網經菩薩戒本私記』 2卷 (上卷만 現存, 韓, 卍1·95·2) 『梵網經菩薩戒本持犯要記』 1卷 (韓, 大45·918·No.1907, 卍1·61·3)
2	勝莊	『梵網經述記』 3卷 (韓, 卍1·60·2)
3	義寂	『梵網經文記』 2卷 『梵網戒本疏』 3卷 (韓, 大40·656·No.1814, 卍1·60·1)
4	玄一	『梵網經疏』 3卷
5	端日	『梵網經記』 2卷
6	圓勝	『梵網經記』 1卷
7	太賢	『菩薩戒本宗要』 1卷 (韓, 大45·915·No.1907, 卍1·60·2) 『梵網經古迹記』 2卷 (韓, 大40·689·No.1815, 卍1·60·3)

이 가운데 6종의 저술이 현존하여 한국불교전서, 대정신수대장경, 속장경 등에 수록되어 있다.

『범망경』이 어느 때에 신라에 전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뒤 37년 만인 진흥왕 26년(565)에 명관(明觀)이 진(陳)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경론 1천 7백여 권의 내용이 분명치는 않지만 대소승의 경론이 들어 있었다고 하므로 혹 그 속에 『범망경』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헌에서 보살계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진평왕 11년(589)에 중국의 진(陳)에 들어가서 금릉(金陵)의 장엄사(莊嚴寺) 승민(僧旻)의 강석(講席)에 참석하여 『성실론』과 『열반경』에 통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월(吳越) 지방에서 『반야경』을 강설하여 이역(異域) 땅의 사람들을 개도(開導)하되 훌륭한 해의(解義)와 수사(修辭)로써 이름을 드날렸

던 신라의 원광(圓光)이 진평왕 22년(600) 귀국한 뒤에, 신라의 젊은이들에게 준 세속오계(世俗五戒)에 나타난다.

불교에는 보살계 열 가지가 있으나, 너희들은 신자로서 그 것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세속의 오계를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보살계의 열 가지라는 것이 『범망경』의 십중계(十重戒)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때에 원광은 중국의 수(隋)에서 『범망경』을 연구하여 신라에 전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선덕여왕 5년(636)에 입당한 자장(慈藏)은 12년(643)에 귀국할 때 당 태종(626-649)에게 대장경 1부를 받아서 돌아왔다.

이 가운데 소승교에 속하는 소수의 삼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이 대승경전이었다고 하니, 이때 대승경전의 중요한 것이 거의 신라에 전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범망경』과 그 주석서 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신라에 돌아온 자장에 대하여 도선(道宣)의 『속고승전(續高僧傳)』에서는

대승경론(大乘經論)을 강(講)하고 또 황룡사(黃龍寺)에서 보살계 설하기를 칠일칠야(七日七夜)에 이르니 하늘에서 감로(甘露)가 내리고 운무(雲霧)가 자욱하게 강당(講堂)을 덮자, 사부대중[四衆]이 모두 그 신이(神異)에 감복하였다.

고 한다. 이때에 이미 신라에서는 대승불교 연구의 기반이 완전히 다져졌고, 대승계에 관해서는 『범망경』 특히 보살계본에 관한 연구열이 높았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신라에서 『범망경』에 관한 연구가 많이 나온 가운데서도 특히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는 선행하던 모든 소를 정리하여 해석하면서도, 고인(古人)의 종적(蹤迹)에 의거한다는 제명(題名)과 같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대승의 경·율·론과 여러 소석(疏釋)들을 정확하고 적실하게 인용하였다.

그러면서도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일 없이 반드시 선사(先師)·고인(古人)들의 종적을 의지하고 있는 까닭에 『범망경』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는 표준을 제시하여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2) 『범망경고적기』에 인용된 경·율·론·소

태현은 『범망경고적기』를 저술하는 데 있어서도, 고적(古迹)이라는 이름 그대로 『범망경』에 관한 지의(智顗)의 『의소(義疏)』, 법장의 『계본소(戒本疏)』, 전오(傳奧)의 『기(記)』, 원효의 『소(疏)』와 『요기(要記)』, 의적(義寂)의 『소(疏)』 등 앞서 저술된 대가들의 소석(疏釋)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그 결점은 비판하고 그 장점은 채택해서 일가견을 세웠던 까닭에, ‘고금의 모든 소석(疏釋)을 초월하였으니, 참으로 범망소석(梵網疏釋) 중의 으뜸이며 권위’라는 칭송을 들을 수가 있었다.

아래에 작성한 인용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범망경고적기』를 저술하기 위해서 43종의 경전, 4종의 율문, 12종의 논(論), 그리고 먼저 저술된 제소석(諸疏釋) 등 심지어는 전설(傳說)이나 속설(俗說)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열성적으로 조사하여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 방법도 ‘경론에 운(云)’이라고 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며 혹은 자기의 의견을 말하되, 거기에 대하여 어느 경론의 설을 들어서 자설(自說)을 증명하는 인증의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경전 가운데서는 주로 『화엄경』·『열반경』·『유교경』·『문수문경』·『본

업경』·『선계경』·『대집경』 등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논서로는 그가 법상(法相)의 종지(宗旨)를 통달하여 ‘해동유가(海東瑜伽)의 조(祖)’라는 말을 듣는 만큼 『유가사지론』의 인용이 많다. 전후의 53회에 걸쳐서 인용되고 또 20곳에서 인용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논서는 『대지도론』과 『십주비바사론』이다. 그리고 선사(先師)들의 소석(疏釋)으로는 법장, 의적·원효의 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속서(俗書)와 중국[漢地]의 전설과 속설 등까지도 인용하고 있음을 볼 때 그 해박한 학식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따름이며, 『고적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당연하다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의 표는 인용된 경·율·논·소와 인용·인증된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 도표6. 『범망경고적기』에 인용된 경

經 數	經典名	引用回數		引證回數	
		上卷	下卷	上卷	下卷
1	涅槃云 涅槃經云 如涅槃經		5 7		4
2	遺教云		7		
3	文殊問經云 如文殊問經說 如文殊問經言			6	3 2
4	本業云 本業經云 如本業		2 4		1
5	大般若云 般若言		3		1
6	善戒經云 善戒經	2	3		2
7	善生云 善生經云 善生經		1 3		3
8	契經云	1	3		

9	華嚴云 華嚴頌曰 華嚴說 如華嚴經說	3	1 2 1	3	
10	大集云 云大集經云 如大集言		2 1	2	
11	優婆塞戒經云		1		1
12	菩薩戒經				1
13	菩薩藏經云		1		
14	十地經云		1		
15	仁王云	1	1		
16	正法念處經云 正法念經云		1 1		
17	不思議光菩薩經云		1		
18	諸法無常經云		1		
19	決定毘尼經云		1		
20	如金光明經說		1	1	
21	維摩經云 如維摩經云		1 1		1
22	長壽王經云		1		
23	瓔珞經云		1		
24	如戒經				1
25	法華經云		1		
26	提謂經云		1		
27	發菩提心經云	1	1		
28	如淨土說				
29	如阿含經 阿含說			1	1
30	如地持說			1	
31	如不增不減經			1	
32	大悲經說				1
33	善意天子經云				1
34	阿闍世王經云		1		
35	如集法悅經				1
36	普賢觀經				1
37	蓮華面經				1
38	寫龜經				1
39	大雲經				1
40	指鬘經				1

41	楞伽經		1		
42	方等經云 余諸經 有經 如經頌曰		1 1 2	1	

■ 도표7. 『범망경고적기』에 인용된 율

律 數	律 名	引用回數		引證回數	
		上 卷	下 卷	上 卷	下 卷
1	五分云		3		
2	僧祇云 僧祇律云 僧祇律		1 1		1
3	十誦云 十誦		1		1
4	四分云 律云 律 如小乘律		1 5		1 1

■ 도표8. 『범망경고적기』에 인용된 론

論 數	論 名	引用回數		引證回數	
		上 卷	下 卷	上 卷	下 卷
1	瑜伽云 瑜伽論云 瑜伽 瑜伽說 如瑜伽說 如瑜伽云 菩薩地云 如菩薩地說		26 13 12	4	2 6 4 1
2	智論云 如智論說 大智論云 如智論云		12 5	1	1
3	十住云 十住論云 如十住論 十住毘婆娑云 婆娑云	1	1 5 1		1

4	雜集云		1		
5	十地論 依十地論			1	1
6	莊嚴云 如莊嚴論云		2	1	
7	如攝大乘 攝論			1 1	
8	唯識論				1
9	俱舍云 俱舍 如俱舍云	1	1		1
10	善見論云		1		
11	如對法			1	
12	中邊說 如辯中邊·智論說			1	1
13	如大論記 謂如論說				1 2
14	十論云		1		
15	略攝, 頌曰		1		
16	七十四云 七十三云 如七十九云 如八十云		1 1		1 1
17	瑜伽本業				1

■ 도표9. 『범망경고적기』에 인용된 인명(人名)과 소기(疏記)

論 數	人名 疏名	引用回數		引證回數	
		上卷	下卷	上卷	下卷
1	如世尊云 如世尊言				1 4
2	法藏師云	2	8		
3	義寂師云		3		
4	元曉師云		1		
5	龍樹云 如龍樹云			1	1
6	北井州眞藏師云	1			
7	和上云 由此等教和上云	2 1			
8	古師云	1			
9	眞諦數曰	1			

10	如聖天言		1		
11	孔丘云	1			
12	宗要釋 如宗要記 如宗要說			3 1 1	
13	疏云	2			
14	舊疏云	1			
15	龍樹說				1
16	如戒本疏			1	
17	如戒本記				
18	古有作疏云	1			
19	北并州疏		1		
20	西域記云 西域云	1	1		
21	爾雅云		1		
22	漢地傳說 傳說 傳說如此	1	1 3		
23	有說	1	1		
24	俗云		1		

이상과 같이 태현이 『범망경』을 소석함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의지하고 있는 대승경전은 『열반경』 16회, 『문수문경』 11회, 『화엄경』 10회, 그리고 『선계경』, 『본업경』, 『유교경』 각 7회이며, 특히 하권에서 보살계를 해석하는 데 『열반경』을 많이 의지하고 또 『유교경』의 인용도 많다.

상권에서 보살의 계위(階位)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화엄경』의 인용이 많다. 율은 『사분율』을 인용한 것이 7회이며, 『오분율』 인용은 3회이다.

논의 인용은 『유가론』 69회, 『지도론』 19회, 『십주비바사론』 9회 등으로 『유가론』의 인용이 단연 많으며, 특히 하권의 보살계는 『유가론』의 설에 입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성종과 상종의 경론을 잘 화합시키고 있는 유가

대덕(瑜伽大德)으로서 태현의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이름과 글을 거론하고 있는 선사(先師)로는 범장의 설이 10회, 의적(義寂)의 설이 3회 그리고 원효의 이름을 들고 있다. 따라서 범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6권, 의적의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3권과 ‘여계본기(如戒本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승장(勝莊)의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그리고 원효의 범망계에 관한 제소(諸疏) 등의 각소(各疏)를 의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태현이 범망계를 소석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보살계본중요』 1권을 찬술하여 그 계율사상을 밝힌 뒤에 다시 『범망경고적기』를 저술하고 있으며, 그 하권에서 보살계를 해석할 때에 『보살계본중요』를 5회나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와 같이 고인(古人)들의 업적의 자취를 널리 따라 가면서도 결코 거기에 매이거나 빠져버리는 일이 없다. 세이산(攄山)은 『범망경고적기강의(梵網經古迹記綱義)』에서

태현법사(太賢法師)는 대개 범장·의적(義寂)·승장(勝莊) 등의 소(疏)의 뜻을 의지하여 쓰고 있으나, 그러나 의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체적인 것 뿐이며, 곳곳에서 다른 사(師)의 그릇된 설(說)을 파(破)하고 자기의 새로운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고 하면서 그의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3) 『범망경고적기』의 특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는 폭넓게 많은 경율론을 의지하여 『범망경』을 소석하면서, 범망계의 계상과 지범(持犯)을 판석(判

釋)하는 데 있어 한편에 치우치는 일 없이 성(性)·상(相) 양종의 종지를 화회(和會)시키고 있다. 또한 선배 석학들의 저술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 각각의 장점을 채택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세우고 있는 까닭에 『범망경』 연구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후학들이 이 경을 연구하려면 『고적기』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이에 『고적기』가 지니는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징은 지의(智顗)의 『의소(義疏)』 이후에 천태·화엄·법상 등 각 종파의 학자들이 다투어서 소식을 저술하였으나 대개는 상권에만 주석을 하거나, 혹은 하권의 계본만을 해석하거나 하여 상·하 양권을 다 소석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예컨대 잘 알려져 있는 소(疏) 가운데도 승장(勝莊), 법선(法銑), 도선(道璩), 전오(傳奧), 이섭(利涉), 박양(撲揚) 등은 하권만을 주석하고 있으며, 지의(智顗), 법장, 의적(義寂), 명광(明曠) 등은 하권 가운데서도 계송 이하만을 해석하고 있으나, 태현은 상·하의 양권에 걸쳐서 남김없이 그 깊은 뜻을 잘 밝혀내고 있다. 그래서 세이산(清算)의 『범망경고적기강의(梵網經古迹記綱義)』에서는

모든 해석 가운데에서 상·하(上·下) 양권을 통히 해석하여 깊이 불경(佛經)의 깊은 뜻[深旨]을 얻음은 이제 이 태현사(太賢師) 한 사람뿐이니 제류(諸類)를 초과(超過)하였다.

고 찬탄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범망경』의 하권 가운데 계송 이하의 계상(戒相)만을 따로 내어서 여기에 수계갈마(受戒羯磨)와 설계서(說戒序)를

두고, 또 최후에 유통계(流通偈)를 붙여서 포살용(布薩用)으로 체제를 갖춘 것이 보살계본이며, 이것을 가리켜 『보살계경』, 『범망계경』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 계본에 있는 십중사십팔경계의 계문에 제명이 붙여져 있지 않은 까닭에 각 소가들이 계문을 해석할 때에 그 계상(戒相)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각각의 계에 나뉘대로 내용을 요약한 제명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각 소가(疏家)의 계제(戒題)를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 태현이 붙인 계제(戒題)가 각계의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으므로, 후세의 소가들은 대개 태현의 계제(戒題)를 쓰고 있다.

우선 십중계에 붙인 계제를 다른 몇 개의 유명한 소(疏)의 계제(戒題)와 대조해 비교하면, 태현의 계제가 가장 뛰어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묘류(妙龍, 1705-1746)의 『범망경요해계문(梵網經要解戒問)』에서는 십중계의 제일계에 제명을 붙이되, 태현의 제명인 ‘쾌의살생계(快意殺生戒)’를 채택하면서 평석하기를,

대개 계의 제목[戒題]에 대한 사(師)들의 세운 이름이 같지 아니하다. 즉 천태(天台)·법장·의적(義寂) 등은 살계(殺戒)라 하고, 석벽(石壁)은 살명계(殺命戒)라 하고, 승장(勝莊)은 불살계(不殺戒)라 하고, 지옥(智旭)·재참(在慘) 등은 천태(天台)와 같으나 태현(太賢)만은 쾌의살생계(快意殺生戒)라고 하였으니, 각각 좋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어서 그 뜻이 그릇될 것은 없으나, 그 가운데서도 태현(太賢)이 붙인 이름이 가장 뜻을 갖춘 듯하다.

라고 한 것은, 태현의 계제가 다른 소의 제목 보다 계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훨씬 우수함을 입증한 것이라 하겠다.

대표적인 각 소에서 볼 수 있는 십중계의 계제와 태현이 『고적기』에서

붙이고 있는 십중계의 계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도표10. 범망십중계제(梵網十重戒題)의 비교대조

	第一戒	第二戒	第三戒	第四戒	第五戒
太賢	快意殺生戒	劫盜人物戒	無慈行欲戒	故心妄語戒	酤酒生罪戒
法統	殺戒	盜戒	婬戒	故妄語戒	
智周	不殺戒	不偷盜戒	不故婬戒		
明曠	殺人戒	不與取戒	行非梵行戒	大妄語戒	酤酒戒
勝莊	不殺戒	偷盜戒	不婬戒	不妄語戒	不酤酒戒
義寂	殺戒	盜戒	婬戒	妄語戒	酤酒戒
法藏	殺戒	盜戒	婬戒	妄語戒	酤酒戒
智顗	殺戒	盜戒	婬戒	妄語戒	酤酒戒

	第六戒	第七戒	第八戒	第九戒	第十戒
太賢	談他過失戒	自讚毀他戒	慳生毀辱戒	瞋不受謝戒	毀謗三寶戒
法洗	說過戒		故慳戒	故瞋戒	
智周	不說菩薩過戒		不故慳戒	不故瞋戒	
明曠	說四衆名德犯過戒	自讚毀他戒	故慳加毀戒	瞋心不受懺謝戒	助謗三寶戒
勝莊	說四衆過戒	自讚毀他戒	慳戒	瞋太受悔戒	誹謗戒
義寂	說他過戒	自讚毀他戒	慳惜加毀戒	瞋不受悔戒	毀謗三寶戒
法藏	說過戒	自讚毀他戒	故慳戒	故瞋戒	謗三寶戒
智顗	說四衆過戒	自讚毀他戒	慳惜加毀戒	瞋心不受悔戒	謗三寶戒

세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범망경』에 문장상으로는 삼취정계설(三聚淨戒說)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신라 의적의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에서는,

앞의 십중계(十重戒)를 판단하여 율의(律義)로 삼고, 뒤의 사십팔(四十八)을 나누어서 나머지 둘로 삼는다. 경에서 설한 섭율의계(攝律義戒)는 이른바 십바라이(十波羅夷)이며, 섭선법계(攝善法戒)는 팔만사천

법문(八萬四千法門)이며, 섭중생계(攝衆生界)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이니, 교화(教化)가 일체중생에게 퍼져서 중생이 모두 안락함을 얻게 된다. 또한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가운데 앞의 삼십계(三十戒)는 다분히 섭선(攝善)이며, 뒤의 십팔계(十八戒)는 다분히 이생(利生)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다. 범장은 여기에 대해서 『범망경』의 십바라이가 지악(止惡)에 중점을 둔 까닭에 율의계(律儀戒)라고 하지만 남을 죽이지 않는 데서 벌써 자비로운 이타의 행(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데서 소욕(少欲)의 청정행(淸淨行)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지악(止惡)의 생활이 그대로 작선(作善)하는 데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뜻으로 볼 때 삼취정계(三聚淨戒)가 악을 여의는 면에서는 모두가 율의계(律儀戒)이며,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중생들을 위하는 것이 되므로 모든 것이 섭중생계(攝衆生戒)의 실천행 아님이 없다고 보아

십계(十戒)의 낱말에 삼취(三聚)를 모두 구족(具足)하고 있다.

고 보고 십계가 그대로 삼취(三聚)의 계상(戒相)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태현은 10중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48경계나 더 나아가 일체의 계에 있어서도 다 그러한 까닭에,

제계(諸戒)의 낱말에 모두 삼취계(三聚戒)의 뜻을 구족(具足)하고 있다.

고 하여 한층 더 진전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묘류(妙龍)의 『범망경요해계문(梵網經要解戒問)』에서는 보살계의 삼품전범(三品纏犯)의 뜻을 해석하면서, 삼전실계(三纏失戒)와 불실계(不失

戒)에 관한 태현의 새로운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여 평석(評釋)하고 있다.

문(問), 『고적기(古迹記)』에 말하기를 중계(重戒)를 범(犯)하는데 대개 이중(二種)이 있으니 일(一)은 파(破)요, 이(二)는 오(汚)이다. 만약 상품(上品)의 번뇌전(煩惱纏)으로써 범한다면, 범한 바에 해당되는 계율의(戒律儀)를 잃게 되나, 만약에 중품과 하품의 전(纏)으로써 범한다면, 이것은 오직 오(汚)일 뿐이요, 실(失)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답(答), 상품의 악심(惡心)으로 살생계(殺生戒) 하나를 범(犯)하면 오직 그 살생계(殺生戒)만 잃게 되며, 나머지 투도계(偷盜戒) 이하의 계(戒)는 그대로 인지라 조금도 손해(損害)가 없다. 또 중·하의 전(纏)으로 범(犯)하였을 때는 그 계(戒)가 염오(染汚)되었을 뿐이요, 실계(失戒)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태현이 새롭게 세운 뜻이며 상종(相宗)에서 통상(通常)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상종(相宗)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상전(上纏)의 마음으로 일계(一戒)라도 범(犯)하게 되면, 따라서 나머지 제계(諸戒)도 다 잃게 된다고 한다. 내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이것은 중남칠독(終南七毒)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듯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는 이와 같은 특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선사들의 고적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도 그 이전의 모든 소식들보다 뛰어나므로 신라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국외까지 전해져 널리 알려졌다. 일본에는 태현이 생존해 있을 무렵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 까닭은 일본의 천평(天平) 승보(勝寶) 3년(751)에 나라(奈良)의 향산사경소(香山寫經所)에서 필사된 것이 고야산(高野山)의 보귀원(寶龜

院)에 전해오다가, 이것이 관문(寬文) 8년(1668)에 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현이 신라 궁중의 내전에서 『금광명경』을 강의한 때가 경덕왕 12년(753)이었던 까닭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뒤에도 일본에서 연보(延寶) 5년과 6년(1677, 1678)에 간행되었고 또 다시 메이지(明治) 11년(1878)에 간행된 바 있으며, 이것이 대정신수대장경과 속장경에 수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와 『약사경고적기(藥師經古迹記)』 등과 함께 『청구법집(靑丘法集)』이라는 서명으로 1920년에 금릉각경처(金陵刻經處)에서 간행된 바가 있으며, 그 이전의 간행에 관해서는 조사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태현의 저작에 대한 국내의 무관심과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범망경고적기』에 대한 연구 열풍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대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처음 간진(鑑眞)이 중국에서 돌아오면서(754) 비로소 대소승 제계(諸戒)의 계의(戒儀)를 구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범망경』에 최초로 주석을 한 것이 첸슈(善珠, 724-797)의 『범망경약소(梵網經略疏)』 4권이며, 이 뒤에 많은 주석서가 저술되었다.

이 『약소(略疏)』는 『범망경』의 상·하권에 간략하게 주소(註疏)한 것이며, 해석은 신라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를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으며 각 계목도 태현의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이시다미즈마로(石田瑞麿)의 『범망계경 주석(梵網戒經の註釋)』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첸슈의 주석을 읽으면서 눈에 뜨이는 것은 우선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를 그 주석의 본의(本義)로 삼고서, 거의 전부를 그대로 전문(全文)에 걸쳐서 유용(有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으로 보면 젠슈 자신의 이해 혹은 해석을 볼 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이른 나라(奈良) 시대(710-784)의 일본불교에서 『범망경고적기』가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또 천장(天長) 5년(828)에 찬술된 것으로 추측되는 쿠카이(空海)의 『범망경해제』 1권에도 범어와 한역의 양 제목을 들어 그 자의(字義)를 해석함에 있어서 지의(智顗)·법장과 함께 태현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그 깊은 뜻을 밝히고 있다.

그 뒤 남도(南都, 奈良)와 북령(北嶺, 比叡山) 사이에 있었던 계율에 관한 논쟁, 그리고 가마쿠라(鎌倉)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계율부흥운동 등의 영향으로 범망보살계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관한 주석서가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다시 이 주석서에 거듭 주석을 한 이른바 말소(末疏)도 많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경향에 따라 『범망경』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범망경고적기』를 수용하다가 차츰 이 『고적기』 자체를 주석하는 것으로 바뀌어갔다. 이렇게 경전을 소석하고, 또 그 소석한 것을 소석하는 것이 당시의 경향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태현의 『범망경고적기』처럼 말소가 다양한 것도 드물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범망경보살계의 수계가 열풍이었으며, 태현의 『고적기』가 중요시되어 활발하게 연구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태현의 『범망경고적기』에 관한 말소 일람표를 소개하겠다. 여기에 조사된 것 외에 빠진 것도 있을 것이나 후일 연구자에게 남겨둔다.

■ 도표11. 태헌 『범망경고적기』의 일본 주석서

	書名	권數	著者名	著作年代	存否	現所藏
1	梵網經 古迹記	3卷	太賢述	742-764	存	巳1・60・3, 大40・689
2	梵網經 古迹記上會本	2卷	妙辯合會		存	元祿 3年刊(1689), 唐 招提寺戒學院文庫
3	梵網經 古迹記科	1帖	興正叡尊	1201-1290	存	建治元年刊(1275), 高野山 寶壽院
4	梵網經 古迹記 科解	2卷	興正叡尊解	1201-1290	存	元祿 3年刊(1690), 高野山 大, 奇・1・23
5	梵網經 古迹記科文補行文集	10卷	興正叡尊述	1201-1290	存	日本大藏經 第19권 大乘律章疏 第2
6	梵網經 古迹記 補忘抄	10卷	堯戒定泉記	1273-1312	存	日本大藏經 第19권 大乘律章疏 第2
7	梵網經上古迹 修法章	14卷	示觀凝然述	1240-1321		
8	梵網經 古迹記 述迹鈔	10卷	照遠述	1333作	存	日本大藏經 第20권 大乘律 章疏 第3
9	梵網經 古迹記 綱義	10卷	彦證清算述	1356-1361	存	日本大藏經 第20권 大乘律 章疏 第3
10	梵網經 古迹記 溫知	6卷	圓鏡述	1681-1683	存	貞亨 2年刊(1685), 谷大3421, 龍大2424・30
11	梵網經古迹記折衷	5卷	德嚴養存補	1688-1703	存	存元祿 15年刊(1702), 龍 大2424・71, 正大1182・76
12	梵網經 古迹記 撮要	6卷	洞空慈泉述	1645-1707	存	貞亨 3年刊(1686), 龍大2424・42, 正大1182・81
13	梵網經 古迹記 撮要纂解	4卷	洞空慈泉述	1645-1707	存	存寫本, 龍大2424・45 元祿2年刊, 龍大2424・46, 谷大長保 276
14	梵網經 古迹記 撮要纂釋	3卷	洞空慈泉述	1645-1707	存	
15	梵網經 古迹記撮要啓蒙續纂	6卷	洞空慈泉述	1645-1707	存	存寶永 4年刊(1707), 龍大2424・38
16	梵網經 古迹記 資講鈔	10卷	通玄述	1731	存	(1716), 正大1182・77
17	梵網經 古迹記 資講鈔引據	1卷	素覺		存	享保 11年刊(1726), 龍大2424・40

18	梵網經 古迹記 資講鈔詳述	5卷			存	寫本, 龍大2424・11
19	梵網經 古迹記資講鈔引據增 補	1卷	通玄		存	享保 12年刊(1727), 光明院
20	梵網經 古迹記 玄談	1卷	上田照遍述	1823-1907	存	照遍和尚全集 第5, 高野山大, 奇・1・23
21	梵網經 古迹記 開蒙	1卷	上田照遍述	1823-1907	存	照遍和尚全集 第5, 高野山大, 奇・1・23
22	梵網經 古迹記 末釋偶降	1卷	上田照遍述	1823-1907	存	照遍和尚全集 第5, 高野山大, 奇・1・23 正大1182・83・84
23	梵網經 古迹記 義略	8卷	寶巖興隆 編		存	寫本, 駒大
24	梵網經 古迹記 鈔	8卷	亡名			
25	梵網經 古迹記 蛙鳴鈔	5卷	活善編		存	寫本, 駒大266-12
26	梵網經 古迹記 下卷聞書	2卷	高榮述		存	存寫本, 上野圖書館 821・304
27	梵網經 古迹記 上卷綱義	3卷				寫本, 龍大2424・37
28	梵網經 古迹記 略抄	2帖			存	奈良朝時代, 寫本高野山 寶龜完
29	梵網經 古迹記 目錄	1卷				寫本, 哲學館
30	梵網古迹聞書	2帖		1526寫	存	大永 6年(1526), 寫本 高野山 寶龜院
31	梵網古迹鈔	8卷		1644刊	存	寶永 21年刊(1644), 龍大2424・70, 正大1182・75
32	梵網古迹綱要	1帖			存	徳川時代 存本, 高野山 寶龜完
33	梵網古迹私記 上下	2卷	完識		存	天文 15年(1564), 寫本
34	梵網古迹戒題鈔	1卷	面山瑞方	1683-1796	存	駒大266・43
35	梵網菩薩戒 廻蒙	3卷	戒山記		存	建治 元年刊(1275), 龍大2424・77, 正大1182・185

36	梵網古迹翫珠鈔	1卷			存	元德 3年(1332), 寫本 高野山大
37	梵網古迹要文鈔	1卷	宗性	1231 自筆本	存	寛喜 3年(1231), 東大寺
38	梵網古迹心車鈔	1卷			存	寫本, 六地藏寺
39	梵網古迹聞書末本	1卷			存	嘉暦 2年(1329), 寫本 東大寺
40	梵網經 古迹 聽聞抄	1卷		實弘寫	存	延暦 2年(1240)寫本, 東 大寺
41	梵網經 古迹集解	1卷				寫本, 延命寺
42	梵網經 古迹記 撮要冠註	6卷	淨嚴		存	寫本, 延命寺
43	梵網經 古迹記 引據玄談	1卷			存	寫本, 戒學院
44	梵網經 古迹記 聞書本末	2卷			存	正徳 6年(1716)寫本, 高 野山大
45	梵網經 惣尺 (太賢意)	1卷	湛睿手澤本		存	金澤文庫
46	梵網私鈔 (古迹論 題釋)	110卷	徳初寫		存	寫本, 南山宗文庫
47	増冠 梵網經 古迹記	4卷	吉田義山輯		存	明治 20年刊(1887), 京都出雲寺書鋪
48	梵網戒本要義鈔 第5	1卷			存	寛元 2年(1244)寫本, 高 野山大
49	梵網菩薩戒 諺註	1卷	淨嚴		存	延寶 3年刊(1675), 東大寺
50	梵網菩薩戒 諺註 自叙	1卷	淨嚴		存	寫本, 新大佛寺
51	古迹論讀門 題抄	1卷	朝秀寫		存	元龜 2年(1571)寫本, 東 大寺
52	梵網古迹三聚問答 (雪護篇)		洞空間, 円鏡答		存	貞亨 3年(1686) 今井刊, 高野山大
53	梵網古迹抄一, 五, 七, 八	4冊	南北朝, 寛盛寫			東大寺
54	梵網經 戒品錄	1卷	隨譽察玄寫		存	大正大

55	梵網經 古迹文集	19卷	海住山寺 禪觀 長聖		否	
56	梵網經 古迹文集	4卷	知足院覺澄		否	
57	梵網經 古迹文集	10卷	寶塔院繼尊		否	
58	梵網經 古迹料簡	1卷	賴瑜		否	
59	梵網經 古迹講要	3卷	蓮體		否	
60	梵網經 古迹鈔	1卷	經瑜朝稀		否	
61	梵網經 述迹	30卷			否	

이상과 같이 태현의 『범망경고적기』에 관한 주석서만 하여도 60여 부나 되니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예로부터 『범망경』을 연구할 때, 그 많은 소초(疏鈔) 가운데에 단연 『범망경고적기』를 가장 많이 의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헤아려 볼 수 있다. 태현은 처음 화엄을 연구하여 원융의 법문을 깊이 수행한 뒤에 다시 법상의 학리(學理)를 연찬하였던 까닭에 범망계의 계상(戒相)과 지범(持犯) 등을 판석(判釋)하는 데 있어서도 성종과 상종의 양편을 겸비하고 있다.

또 『범망경』을 소석함에 있어 화엄 계통의 소석가(疏釋家)들은 경전의 조직이 소화엄(小華嚴)이라고 별칭되는 만큼 화엄적인 내용이 짙은 상권만을 해석하였고, 율종의 소석가들은 계경의 내용을 지닌 하권만을 해석하는 것이 보통인 데 비하여,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는 상권과 하권을 모두 소석하고 있다. 소석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보살계본종요』를 찬술하여 대승계율사상의 대강(大綱)을 제시한 다음에 『범망경고적기』를 저작하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종횡무진으로 인용하면서도, 여러 대가들의 견해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는 『범망경』에 관하여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그저 남의 학설을 소개하거나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대목에서는 뚜렷하게 자신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후세의 학자들 특히 『범망경』 연구가들에게 다시 없는 귀중한指南書(指南書)로서 존중되었던 것이다.

4) 태현의 범망경보살계관과 효은(孝恩)의 문제

태현은 『보살계본중요』의 능소성문(能所成門)에서 성문계와 보살계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즉 보살계는 받는 것과 범하는 것, 잃는 것의 세 가지 점에서 성문계와 다르다고 하였다. 우선 보살계는 일곱 가지의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이외에 범사의 말을 알아듣기만 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데 대하여 성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受不同分相].¹⁰⁾ 또한 보살계는 신(身)·어(語)·심계(心戒)인 데 비하여 성문계는 신·어계인 지라 동기와 방편에 상관없이 죄를 규정하는 성문계와, 이타정신을 강조하는 보살계는 지키고 범하는 경우를 판별하는 것이 다르다고 보았다[犯不同分相].¹¹⁾ 그리고 계를 잃게 되는 것도 성문계는 5종의 연(緣)에 의해, 보살계는 4종의 연(緣)에 의한 것이 다르고, 성문계는 총수(總受)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죄를 범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지만 보살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捨不同分相].¹²⁾

태현은 또한 『중요』의 수행차별문(修行差別門)에서 보살계를 잘 수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사와 친근해야 하고[親近善士門], 정법을 들어야 하며[聽聞正法門], 제행무상(諸行無常)·제법무아(諸法無我) 등의 이치를 따

10) 태현(太賢), 『보살계본중요(菩薩戒本宗要)』, 韓3 p.479c

11) 태현, 『보살계본중요』, 韓3 pp.479 c-480a

12) 태현, 『보살계본중요』, 韓3 pp.480c-b

라 생각하고[如理作意門] 끝으로 말씀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고[如說修行門] 하였다.¹³⁾ 그리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데에도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고[護正念門], 바라밀을 닦아야 하며[波羅蜜多攝門], 계의 경중을 알아야 하며[輕重性門], 지키고 어기는 것도 알지 않으면 안 된다[持犯相門]고 보았다.¹⁴⁾ 그런데 계의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하여 10중계 가운데 뒤의 4중계 즉 『유가론』에 설해져 있는 4중 타승처법(他勝處法)이 근본 중계라고 하였다.¹⁵⁾ 이는 곧 태현이 유가계에 바탕을 두고 범망계를 해석한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계를 지키거나 어기는 데 대해서도 총상(總相)과 별상(別相), 구경문(究竟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특히 구경문은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의 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¹⁶⁾

태현의 보살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범망경고적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태현은 고적기에서 보살계에는 받는 것[受得門]과 지키는 것[護持門], 잃는 것[犯失門]의 3門이 있음을 말하고¹⁷⁾ 각각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계를 받는 것에 관하여 우선 육도 중생 가운데 단지 법사의 말을 알아 듣고 먼저 위없는 보리를 얻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대보리심을 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⁸⁾ 그리고 계를 받는 방법에도 일부분만을 받는 일분수(一分受)와 전체를 다 받는 전분수(全分受)의 두 가지가 있는데, 보살계

13) 태현, 『보살계본중요』, 韓3 pp.480c-481a

14) 태현, 『보살계본중요』, 韓3 pp.481a-483a

15) 태현, 『보살계본중요』, 韓3 p.482a “所以後四, 爲根本重.”

16) 조명기(趙明基),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 신태양사, 1962, p.185

17) 태현, 『범망경고적기』, 韓3 p.443c “然菩薩戒, 略有三門, 一受得門, 二護持門, 三犯失門.”

18) 태현, 『범망경고적기』, 韓3 p.443c “初受得者, 六道衆生, 但解師語, 要須先發大菩提心, 謂誓定取無上菩提, 窮未來際利樂有情.”

에서는 일부분만을 받더라도 계를 얻은 것으로서 보살이라고 하지만, 성문계에서는 반드시 전부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분만 받으면 비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살계를 받는 방법으로 일분수와 전분수를 들고있는데, 일분수를 인정하는 태현의 견해는¹⁹⁾ 3중계 가운데 십율의계를 받는 방법에 총수(總受)와 별수(別受)가 있다고 한 의적의 그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의적은 율의계를 받는 방법에 십선법계·십중생계와 함께 받는 총수(總受)와 율의계만을 따로 받는 별수(別受)가 있다고 하였다.²⁰⁾ 아마도 태현은 의적의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별수(別受)를 일분수(一分受)로 발전시켰던 것이 아닐까 한다.²¹⁾

계를 잃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태현은 성문계와 달리 보살계는 일부분만 받아서 지킬 수 있듯이 하나를 어겼다고 해서 나머지 다른 것까지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본업경』을 이끌어 와서 보살계는 마음을 체(體)로 삼는데 마음은 다함이 없으므로 계 또한 다함이 없다고 보았

19) 태현, 『범망경고적기』, 韓3 p.444a “發此心已, 有二種受, 一者一分受, 隨其受者意樂所堪, 或受一戒惑多, 皆得成戒, 名爲菩薩. 不同聲聞必總受持, 若其一分, 不名比丘. … 二者全分受, 謂三聚戒 ….”

20) 의적(義寂),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韓2 p.254b “七衆總別者, 三種戒中, 攝生道俗相多同, 攝律儀戒七衆儀各異. 今就律儀辦其總別, 受律儀戒方軌有二. 一與餘二總受, 二與餘二別受, 總受方軌七衆無別. … 若別受者七衆法異.”

21) 태현이 의적의 견해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또 하나의 예로는 48경계를 삼취정계(三聚淨戒)로 해석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즉 의적은 48경계를 모두 5단으로 나누어 각 단이 모두 3취정계에 통하는 이악(離惡)과 십선(攝善益生)과 익생(益生)의 뜻으로 설하고 있다. (의적,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韓2 p.272 b). 이에 대하여 태현은 48경계의 모든 계목 하나하나가 3취정계의 뜻을 갖추고 있다고(태현, 『범망경고적기』, 韓3 p.458b) 보았으므로 의적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²²⁾ 다만 대보리심을 고의로 버리면 계를 잃게 된다고 하여²³⁾ 보리심을 대단히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계를 범하는 데에는 2종이 있는데, 상품인(上品人)의 경우 범한 경우에 따라 계율의(戒律儀)를 잃게 되는 파(破)와 중(中)·하품인(下品人)의 경우 오직 더럽힐 뿐 잃는 것이 아닌 오(汚)가 된다고 하였다.²⁴⁾

『범망경』의 제 40경계에서는 7역죄(七逆罪)를 지은 사람이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10중계의 결론에서는 만약 10중계를 범하면 현신(現身)으로 보리심을 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관해서 태현은 7역죄를 지은 경우 참회하면 죄가 없어지므로 계를 받을 수 있다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병기(並記)할 뿐 어느 쪽이 옳다고는 하지 않았다.²⁵⁾ 아울러 10중계를 범하면 보리심을 발할 수 없다는 데 대하여 태현은 10중계를 범하고 7역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다시 보살계를 받을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논거로 『유가론』과 『본업경』에서 다시 받는 ‘중수’를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다.²⁶⁾ 10중

22) 태현, 『범망경고적기』, 韓3 p.445a “第三犯失者, 謂菩薩戒無餘犯. 如有一分受, 有一分持故, 不同聲聞犯一重時, 便破一切失比丘性. 如本業經, 一切菩薩凡聖戒, 盡心爲體, 是故心盡戒亦盡, 心無盡故戒亦無盡. 心謂期心, 若不放捨無盡戒願, 無有盡犯, 無邊戒故. 由此轉生, 戒亦恒隨, 運運增長, 乃至成佛…”

23) 위와 같음, “唯除放捨大菩提心, 彼既心盡, 戒亦盡故.”

24) 태현, 『범망경고적기』, 韓3 p.445 a-b “然犯重戒, 略有二種, 一破二汙. 若以上品煩惱纏犯, 隨所犯支, 失戒律儀. 若中下纏, 唯汙不失.”

25) 태현, 『범망경고적기』, 韓3 p.474a “言不得與七逆人現身受戒者, 有說, 未懺七逆, 猶罪現存. 古言現身不得戒, 若依教懺, 罪滅應得. 如集法悅經, 辨誦陀羅尼, 滅五逆罪, 有說不然, 無文懺已得受戒故.”

26) 태현, 『범망경고적기』, 韓3 pp.457c-458a “此中若犯, 不得現身發菩提心者, 若犯十重入七遮者, 更不能受菩薩戒故. 所餘不爾, 瑜伽本業 許重受故.” 10중계를 범하면 보리심(菩提心)을 발할 수 없다는 경문(經文)을 7역죄와 관련시켜 보살계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태현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시다 미즈마로(石田

계에 다시 7역죄를 더하여 보살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한하고 또 중수(重受)를 허용한 것은 결국 태현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쉽게 보살계를 받아 지니게 하려는 의도로 추측한다. 더구나 태현이 보살계의 일부분만을 받더라도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일분수(一分受)를 말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보살계를 널리 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태현의 이러한 해석은 법장이나 지의·의적 등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보살계를 더 많이 더 쉽게 받아 지니게 하려는 태현의 의도는 불교 대중화로 늘어난 재가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성장을 결과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되었다.

태현 또한 제 16경계의 주석에서 ‘불성론(佛性論)’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열반경』을 이끌어 와서 “만약 중생에게 결정코 불성이 있다거나 결정코 불성이 없다고 설하면 모두 불·법·승보를 비방하는 것이 된다.”²⁷⁾ 고 하였다. 이는 의적의 주석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²⁸⁾ 태현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범망경』의 경문에 대하여 『범망경고적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불성(佛性)의 종자(種子)란 계(戒)의 실다운 성품[實性]이다. 의(意)는 말나(末那)를 일컫는 것이며 식(識)은 곧 육식(六識)이고 심(心)은 제8식을 말하며, 색(色)은 곧 오근(五根)이다. 무릇 이 같은 정(情)과 심(心)이 있기 때문에 모두 불성(佛性)에 들어가 마땅히 부처가 될 수 있다. ... 일체중생계(一切衆生戒)의 본원(本源)으로 자성(自性)이 청정(淸

瑞鷹)가 그의 『佛典講座 14·梵網經』, pp.124-125에서 주목한 바 있다. 한편 태현이 보리심을 보살계를 받는 것과 관련시켜 해석했다는 점은 그만큼 보리심을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27) 태현, 『범망경고적기』, 韓3 p.464a

28) 의적,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韓2 p.281a

淨)하다는 말은 계(戒)의 실성(實性)을 들어서 모든 중생이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그러므로 성불(成佛)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태현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불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태현의 이러한 견해는 중국에서 활동한 신라의 유식학승이었던 승장(勝莊)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승장은 『범망경』을 설하는 대상은 보살성(菩薩性)과 부정성(否定性)이고 일체중생 가운데에는 성불이 불가능한 부류가 있다는 5성각별설(五性各別說)의 입장에 서 있었다.²⁹⁾ 이에 비해 원측은 일천제(一闡提)도 성불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³⁰⁾ 불성론에 있어서는 태현이 원측과 경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사실 태현은 일천제도 불성이 있으므로 성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른 저술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³¹⁾ 또한 태현이 중생에게 결정코 불성이 있다거나 없다고 설하면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한 점은 원효가 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유성(有性), 무성(無性)의 견해에 집착하는 단견(斷見)을 비판했던 것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어서 성불할 수 있다고 보는 태현의 이러한 견해는 원측과 원효, 의적 등과는 맥락을 같이 하지만 승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현의 불성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그가 보살계의 중수와 일분수를 허용했던 점과 관련시켜 볼 때 인간은 본질적인 면에서 모두 평등하고 또 누구나 보살계를 수지할 수

29) 최원식(崔源植), 「신라 승장(勝莊)의 범망보살계관(梵網菩薩戒觀)」, 『신라보살계사상사연구』, 민족사, 1999, pp.103-129.

30) 정영근(丁永根), 「원측(圓測)의 일천제성불론(一闡提成佛論)」(제1회 한국철학자대회요지문, 1989), pp.365-370.

31) 이만(李萬), 『신라태현(新羅太賢)의 유식사상연구』, 동쪽나라, 1989, pp.148-150.

있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은 효은(孝恩)과 국왕 등 현실문제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자

『범망경』은 5세기 무렵, 당시까지 유포되어 있던 여러 경론과 계율을 참조하여 중국에서 성립된 경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적인 효(孝) 사상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범망경』이 가지는 하나의 특색이기도 하다.³²⁾ 원효나 승장, 의적 등에 비하여 태현은 효(孝)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우선 효와 관련한 태현의 발언을 『범망경고적기』에서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효(孝)란 양육(養育)을 말하며 순(順)이란 공경(恭敬)인데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효도(孝道)이다. 은(恩)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 몸을 낳아 기른 은혜로 부모를 말하며, 둘은 법신(法身)을 길러준 은혜로 사승(師僧) 등이니 재시(財施)와 법시(法施) 둘로써 마땅히 공경하고 봉양해야 한다. … 효(孝)를 계(戒)라고 이름하고 또 제지(制止)라고 한다는 것은,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본(根本)으로 선왕(先王)의 요도(要道)이며, 계(戒)는 모든 선(善)의 기틀이자 모든 부처의 본원(本原)이다. 선(善)이 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효(孝)를 이름하여 계(戒)라고 하고, 악(惡)은 이에 따라 없어지기 때문에 또한 제지(制止)라고 한다. 그러므로 효(孝)와 계(戒)는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 (韓3 p.447b)

문(問) : 세속의 체(禮)에서는 군부(君父)의 원한을 갚지 않는 것은 효(孝)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왕친(王親)을 해친 데 대해 보복하는 것이 효(孝)를 거스르는 것이라 하는가.

답(答) : 효(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세간(世間)의 효(孝)는 원한을 원

32) 大野法道, 『大乘戒經の研究』, (理想社1954), pp.262-264, pp.274-283.

한으로 갚아서 풀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고 승의(勝義)의 효(孝)는 자비로써 원한을 갚으므로 마치 물로 불을 끄는 것과 같다. 이미 6도의 중생이 모두 나의 부모(父母)라는 것을 믿으면서 어찌 일친(一親)을 위해 다시 일친(一親)을 해칠 수 있겠는가. 상대방이 지금의 친속(親屬)을 죽이면 뒤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단지 슬프고 가엾이 여길 뿐 다시 갚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자애로운 마음과 평등으로 원한을 풀어 속히 끊게 하는 것이 효(孝) 중의 효(孝)이다. (韓3, p.465b)

효순(孝順)에는 두 가지 은(恩)이 있는데 하나는 몸을 길러주신 은혜로 즉 부모(父母)이고, 둘은 법신(法身)을 키워주신 은혜로 곧 사승(師僧)이다. 효순(孝順)이 인(因)이 되고 대원(大願)이 연(緣)이 되어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는 것이 이 뜻이다. (韓3, p.470a)

태현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효도(孝道)인데,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즉 이 몸을 낳아서 키워주신 생신은(生身恩)과 법을 가르쳐준 법신은(法身恩)이 그것으로, 부모와 사승(師僧)의 은혜를 꿰고 있다. 또한 태현은 효를 모든 행동의 근본이자 선왕(先王)의 요도(要道)이며,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보살의 본행으로서 죽어도 오히려 그만둘 수 없는 것(知恩報恩 菩薩本行 死尙不辭)”³³⁾ 이라고 하였다. 즉 효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태현은 효를 세간의 효와 승의(勝義)의 효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보았다. 세간의 효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어서 마른 풀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고, 승의의 효는 자비로써 원수를 갚는 것이어서 물로 불을 끄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자심평등(慈心平等)으로 원한을 푸는 것이 곧

33) 태현, 『범망경고적기』, 韓3 p.463a

효 중의 효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그가 말한 승의의 효를 일컫는 것이라 하겠다.

태현은 이처럼 생신은(生身恩)과 법신은(法身恩)의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비해, 법장은 부모생육은(父母生育恩)과 사승훈도는(師僧訓導恩), 삼보구호은(三寶救護恩)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³⁴⁾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법장이 말한 부모생육은과 사승훈도는 태현의 생신은·법신은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태현은 법장의 세 가지 은혜 가운데에서 삼보구호은을 제외하고 두 가지 은(恩)만을 들고 있는 셈이다. 법장이 세 가지 은(恩)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 태현이 두 가지 은(恩)만을 꼽고 있는 것은³⁵⁾ 이 두 사람의 은혜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는 태현이 법장의 주석을 참고하면서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이를 정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하다.

태현은 또한 효를 세속의 효와 승의의 효, 두 종류로 분명히 구분하였다. 사실 범망경 자체에도 원한을 원한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여러 주석가들이 세속에서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불효(不孝)라고 한다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원한을 갚는 문제와 관련하여 태현처럼 세속과 불교의 효(孝)를 분명히 구분하여 주석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태현이 이처럼 효(孝)나 은(恩)의 문제를 강조한 것은 원효나 승장, 의적

34) 법장,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大40 p.607b), “孝者, 謂於上位起厚至心, 念恩崇敬樂慕供養. 順者, 捨離已見順尊救命, 於誰孝順, 略出三境. 一父母生育恩, 二師僧訓導恩, 三三寶救護恩.” 또한 같은 책, p.650b “初中 應常發孝順, 於三處孝順. 一父母生育恩, 二師僧訓導恩, 三三寶是福田恩, 皆是重恩故, 成孝順之境也.”라고 하였다.

35) 태현이 이은(二恩)만을 들고 있는 것은 고익진, 『한국의 불교사상』(동국대 출판부, 1987) p.272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과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태현은 왜 이와 같은 문제에 비중을 두었던 것인지 당시 신라 사회와 관련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권5) 효선편(孝善篇)에 전하는 5조목의 사화(史話) 가운데 진정사(眞定師)와 대성(大城), 향등사지(向得舍知)의 얘기는 모두 경덕왕대 이전이거나 경덕왕대의 것이다. 손순(孫順)과 빈녀(貧女)의 이야기나 『삼국유사』(권48) 열전에 나오는 성각(聖覺)의 경우는 모두 신라 하대를 배경³⁶⁾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화(史話)들은 이기백(李基白)에 의하면 세속적인 윤리와 불교적인 신앙과의 충돌 혹은 조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는 결국 효의 문제에 관하여 당시 유교로부터 받은 비판에 대한 불교 측의 응답이었다고 보는 견해이다.³⁷⁾ 즉 효선편의 사화들은 통일신라 시대에 효의 문제를 놓고 불교와 유교측의 비판과 대응이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덕왕대에 활동한 태현은 세속적인 효와 불교신앙과의 이와 같은 갈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원효나 승장, 의적 등과는 달리 『범망경』을 주석하면서 효에 비중을 두고 언급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태현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세속의 효보다는 승의의 효가 훨씬 뛰어나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즉 원한을 자심평등으로 풀게 하는 것이 효중의 효라고 한 태현의 설명은 바로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태현이 효은을 강조하고 승의의 효를 말한 것은 당시 사회의 효를 둘러싼 마찰을 인식하고 결국은 유교의 효나 불교의 효가 다름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36) 부모의 약으로 쓰기 위해 자신의 허벅다리 살을 자른 향덕(向德, 向得) 성각(聖覺)이 있으며 스스로 몸종이 되어 부모를 봉양(奉養)코자 했던 지은(知恩), 또 부모를 위해 자식을 땅에 묻으려 했던 손순(孫順)의 효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37) 이기백(李基白), 『신라 불교에서의 효관념(孝觀念)』(『동아연구(東亞研究)』 2, 1983 : 『신라사상사연구(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一潮閣), 1986) pp.278-285.

『범망경』 제40경계에는 계를 줄 때 7역죄를 지은 사람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가리지 말 것과 출가자는 국왕이나 부모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현은 특히 후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국왕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말은, 말하자면 국왕 등이 계(戒)를 받았든 그렇지 않은 간에 출가(出家)한 공덕(功德)과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가자(出家者)가 만약 재가자(在家者)에게 예배를 하게 되면 재가자는 한량없는 죄(罪)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범망경고적기』, 韓3 p.474b)

출가의 공덕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결국 태현은 재가자보다는 출가자를 우위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출가사문은 세속의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의 입장에 서 있었다. 그 예로 제 42경계에는 이양(利養)을 위해서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외도악인(外道惡人)이나 사견인(邪見人) 앞에서는 보살계를 설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왕 앞에서는 설해도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태현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국왕을 제외한 것은 불법(佛法)을 두 곳에 부촉(付囑)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불제자(佛弟子)로서 내호(內護)해야 하고 둘은 여러 국왕(國王)이 외호(外護)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한 것이다. 또한 왕은 힘이 있어 마땅히 계·율·의에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권책(勸策)하여 힘써 행하게 해야 하므로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범망경고적기』, 韓3 p.476a)

즉 국왕에게 불법의 유통을 부촉했기 때문에 국왕 앞에서는 보살계를 설

해도 된다고 보았다. 태현의 이 주석은 법장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³⁸⁾ 불법부축의 이유를 들어 국왕의 지위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망경』 자체에도 이처럼 국왕에 대하여 예배하지 말 것을 설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국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양면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태현 또한 이러한 양면적 인식을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범망경』 제1경계에는 국왕이나 백관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마땅히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현은 이렇다 할만한 주석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47경계는 국왕과 백관 사부 제자 등이 자신의 고귀함을 믿고 불법과 계율을 파괴하거나 출가와 탑상(塔像) 건립을 막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태현은 “만약 악인을 출가하지 못하게 하고 상(像)을 만들어 사고 파는 것을 불허(不許)하는 것 등은 이치상 응당 범한 것이 아니며 나머지는 모두 범한 것이 된다.”³⁹⁾ 고 총 58개의 계율 조목 가운데 가장 짙막하게 주석하였다. 즉 태현은 이 조목을 주석하면서 오히려 제한을 가하더라도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닌 무범(無犯)의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 주석도 법장의 설명에 공감하여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⁴⁰⁾

『범망경』 제10경계(第十輕戒)에는 살생하는 도구를 쌓아두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태현은 다음과 같이 예외의 경우를 말하고 있다.

경구죄(輕垢罪)를 범한다고 하는 말은 만약 정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열반경 중에 재가자가 호법을 위해서는 무기를 가지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범망경고적기』, 韓3

38) 법장, 『범망경보살계본소』, 大40 p.653b

39) 태현, 『범망경고적기』, 韓3 p.477b

40) 법장, 『범망경보살계본소』, 大40 p.654c

즉 정법을 수호할 목적으로 병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허용한 셈이다. 이러한 견해는 일찍이 의적도 피력한 바 있다.⁴¹⁾ 아마도 태현은 의적의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법장도 불법을 지키고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열반경』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다.⁴²⁾ 의적과 태현은 무기소지의 예외 경우를 말하면서 똑같이 『열반경』을 인용하였으므로 태현이 의적 주석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11경계에는 나라의 사신이 되거나 군중(軍中)에 왕래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태현은 예외의 경우를 들고 있다.

만약 조복하거나 서로 살상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는 이치로 보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범망경고적기』, 韓3 p.462b)

이에 비해 의적은 피차를 서로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재가자에게는 금하지 않으며 또 재가자로서 무관이 된 경우에도 군중에 왕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⁴³⁾ 의적과 태현이 예외의 경우를 언급한 점은 같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른 셈이다. 그런데 법장 또한 예외조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 선심으로 상대방을 조복시키거나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군중(軍中)이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⁴⁴⁾ 그러므로 태현의 주석은 오히려 법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41) 의적, 『보살계본소』, 韓2 p.278a

42) 법장, 『범망경보살계본소』, 大40 p.639b

43) 의적, 『보살계본소』, 韓2 p.278b

활동한 시대 상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일전쟁 직후에 활동했던 의적의 경우 무관의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했겠지만, 신라 중대의 안정과 평화기에 살았던 태현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범망경』 제12경계에서는 양인(良人)이나 노비(奴婢), 육축(六畜), 관재(棺材) 등을 판매하거나 만드는 것을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는 것이라 하였다. 태현은 이 조목을 너타판매계(惱他販賣戒)라 이름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천업(賤業)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른 판매(販賣)의 경우에 출가자는 금하지만 속인들에게는 허용한다. 마치 우바새계경에 재가인(在家人)이 재물(財物)을 얻으면 마땅히 사분(四分)하여 일분(一分)은 부모(父母)와 처자(妻子)를 공양(供養)하고 이분(二分)은 여법(如法)하게 판매하며 나머지 일분(一分)은 간직하여 둔다고 한 것과 같다. (『범망경조목기』, 韓3 p.462c)

『우바새계경』을 이끌어 와서 속인들의 상행위(商行爲)를 허용한 견해는 일찍이 의적이 피력한 바 있다.⁴⁵⁾ 이에 비해 법장은 삼보를 위하거나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또는 조복시키기 위하여 매매하는 것은 모두 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⁴⁶⁾ 그렇다면 태현이 『우바새계경』을 인용하여 계율 조목을 해석한 것은 주목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통일 전쟁 후 약 1세기에 걸친 신라 중대의 안정과 번영은 자연 국내 상업뿐만 아니라 해외

44) 범장, 『범망경보살계』, 大40 p.640a

45) 의적, 『보살계본소』, 韓2 p.278c

46) 범장, 『범망경보살계본소』, 大40 p.640a

무역의 번창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결과 태현은 일반사회의 이러한 상황을 수용하여 속인들의 바른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현은 또한 재가자들의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도량형의 단위를 속이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즉 제32경계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릇을 속여 적게 주고 많이 취하여 범하는 것이 심하므로 제지(制止)한 것이다. 지금은 재물(財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장(刀杖)을 쥘아두는 것이니 앞의 살상(殺傷)을 좋아하여 쥘아두는 것과 는 구별된다. 이는 재가자에게는 비록 판매를 허용하되 단지 저울이나 말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범망경고적기』, 韓3 p.469a)

태현이 재가자의 상행위를 인정하는 의적의 주석을 따르면서도 굳이 도량형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은 태현 당시의 사회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통일 후의 상업 번창에 따라 도량형을 속이는 등 여러 가지 부정이 나타나게 되자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계율이란 일상생활의 규범이고 특히 보살계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함께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상황과 밀접한 관련 하에서 주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보살계본종요』를 통해 본 대승계율사상

태현의 계율사상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는 『범망경고적기』보다 앞서 저술되었고, 보살계에 대한 견해의 대강(大綱)이 정립되어 태현의 대승계율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는 『보살계본종요』를 의지하여 그의 계율사상을 알아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불교학자들은 원효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만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에만 연구 범위를 국한시키는 일 없이 불교 전체의 경론들을 폭넓게 연구하여 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런데 그의 많은 저술 가운데서 그 대부분이 일실(逸失)하여 현재에는 겨우 4종의 『고적기』와 『중요』 한 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 가운데 태현이 대승계에 관하여 지은 『범망경고적기』와 『보살계본중요』의 두 저술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의지하여 태현의 계율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불교 계율 사상의 일단까지 엿볼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요』는 태현이 『고적기』를 저술하기에 앞서 자기의 보살계에 대한 의견의 대요(大要)를 밝힌 것인데, 이 『중요』에 대하여, “이것이야말로 율문의 주요(樞要)을 설하고 지범개차(持犯開遮)에 관한 일을 간결하게 설해 마친 것이라고 할 만하다.”는 찬평(讚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저술은 찬술된 신라에서만뿐만 아니라 그 당시부터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고적기』와 함께 대승계학 연구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문헌으로써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온 불후의 명저(名著)이다.

이 『중요』를 연구하면서 13세기 무렵 일본의 저명한 학승 가쿠운(覺盛)은 법을 일으키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보살계본중요잡문집(菩薩戒本宗要雜文集)』을 저술한다고 하였고, 또 같은 시대의 코세이(興正)는,

발원하옵건대 ‘계본중요(戒本宗要)’의 깊은 뜻[深旨]에 대한 학자(學者)나 초심자(初心者)들의 의문(疑問)을 풀어주기[消散] 위하여 팔순이 넘은[八旬有餘] 노구의 남은 힘[老力]을 채찍질하여

라고 하며 『중요』에 대한 『보살계본중요보행문집(菩薩戒本宗要輔行文集)』을 저술하였다고 하는 등의 글을 보더라도 당시 일본의 남도(南都)인 나

라(奈良) 불교계의 율문에서 얼마나 중요시되었던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태현의 『보살계본중요』에 대한 주석서가 『범망경고적기』의 주석서에 못지않을 정도로 많이 저술된 것을 보더라도, 예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연구하여 왔던가를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에서 저술된 태현의 『보살계본중요』에 관한 주석서류들을 각 문헌 목록에서 조사하여 작성해 본 주석서표는 다음과 같다.

■ 도표 12. 태현 『보살계본중요』에 관한 주석서

	書名	卷數	著者	著作年代	存否	現所藏
1	菩薩戒本宗要	一卷	太賢	742-764	存	大45·915 叢1·60·2
2	菩薩戒本宗要 雜文集	一卷	大悲覺盛	1229	存	大74·40 日本大藏經 20·585
3	菩薩戒本宗要 科文	一卷	興正觀尊	1285	存	鎌倉刊 唐招提試戒學院 文庫藏
4	菩薩戒本宗要 輔行 文集	二卷	興正觀尊	1285	存	大74·63 日本大藏經 20·601
5	菩薩戒本宗要 聞書 第一	一卷			存	1295 雙照寫 東大寺藏
6	菩薩戒本宗要 拾遺抄	二卷	堯戒定泉	1293-1298	存	寫本 戒學院藏 東大寺藏
7	菩薩戒本宗要 拾義鈔	一卷	如空英心	1306-1307	存	寫本 東大寺藏
8	菩薩戒本宗要 聞書	一卷	公基	1374	存	1861 禪寂寺 寫 正法寺藏
9	菩薩戒本宗要足翼勘文集	二卷			存	1345 常福寺 寫 戒學院藏
10	菩薩戒本宗要 抄 第一, 第三, 第四	三冊			存	1559 興福寺 寫
11	菩薩戒本宗要 序抄	一卷			存	1611 長尊寫 東大寺藏
12	菩薩戒本宗要 拾義	一卷	高印		存	1662 寫 野中寺藏
13	菩薩戒本宗要 抄	二卷			存	1647 中野刊 戒學院藏 大谷大 龍谷大2424·20

14	菩薩戒本宗要 簡註	三卷	玄心正亮	1684-1687	存	1690 刊 東大寺藏 龍谷大2424・16
15	菩薩戒本宗要 纂註	二卷	宗覺正直	1639-1719	存	1690 刊 日本大藏 21・1
16	菩薩戒本宗要 關解	三卷	寂隱		存	1680 刊 戒學院藏 龍谷大2424・15
17	菩薩戒本宗要 助講	二卷	法俊	1698	存	1732 寫 延命寺藏
18	菩薩戒本宗要 資量鈔	一卷	通玄	1731	存	刊 戒學院藏 龍谷大2424・18-9
19	菩薩戒本宗要 資量鈔 引據	二卷	通玄		存	寫本 松林寺藏
20	菩薩戒本宗要 贊成記	二卷	泰州	1743	存	自筆本 新大佛寺藏
21	菩薩戒本宗要 見聞集上	一卷			存	南北朝 寫本 金澤文庫藏
22	菩薩戒本宗要 樞要 門集	一卷			存	室町 寫本 金澤文庫藏
23	菩薩戒本宗要 抄物	四卷			存	寫本 戒學院 東大寺 藏
24	菩薩戒本宗要 二卷抄	二卷			存	寫本 高貴寺藏
25	菩薩戒本宗要 分科	一卷	道峯		存	1675 刊本 龍谷大2424・23 1695 刊本 龍谷大2424・22
26	菩薩戒本宗要 序解 并略解	一卷	思玉			寫本 西山
27	菩薩戒本宗要 箋要	一卷				寫本 法然院
28	菩薩戒本宗要 科	一卷				平安朝末 寶壽院刊本
29	菩薩戒本宗要 序記	一卷	凝然		否	
30	菩薩戒本宗要 科文	一卷	凝然		否	
31	菩薩戒本宗要 略抄	一卷	賴瑜		否	
32	菩薩戒本宗要 七日鈔					

태현의 『보살계본종요』는 중요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망경의 하권에서 설한 보살계본에 의거하여 대승보살계에 대강을 정립하며 율문의 주요(樞要)를 밝히고 있다.

즉 대승보살도를 수행하며 구경의 불도를 성취하려는 사람이 먼저 보살계를 수지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것이 지범(持犯)의 세상

(細相)이다. 태현은 『중요』에서 전체 내용을 3문으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수행차별문(修行差別門)에서 전문의 약 절반 이상을 들여 수행론을 편다. 그 가운데 특별히 지범상문(持犯相門)을 마련하여 지범의 추요를 밝혀 지범개차(持犯開遮)에 관한 것을 한 눈에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센뉴지(泉涌寺)의 가쿠운(覺雲)이 보문(寶文) 11년(1671)에 “태현의 『보살계본중요』를 간행함에 즈음하여, 곧 진사제계(塵沙諸戒)의 이치가 저절로 분명해졌다.”고 칭찬하고 있듯이 보살계의 심리(深理)와 지범(持犯)을 지극히 간편하게 정리해서 계율을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범망경』에는 보살의 삼취정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범망계에 있어서도 각각의 조문에 대하여 첫째 그 체(體)를 명시하고 있는 점은 섭율의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둘째 그것을 수지하여 수호하는 것이 선(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은 섭선법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셋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서 실행하기를 권하는 것은 섭중생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태현은 이미 『중요』에서 범망의 보살계는 삼취정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삼취정계 가운데 육도(六度, 육바라밀)와 사섭법(四攝法) 등의 만행(萬行)이 모두 들어 있다고 하여 중중무진(重重無盡)·삼제원융(三際圓融)의 묘리(妙理)로써 삼취정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묘류(妙龍)는 『범망경요해계문(梵網經要解戒問)』 1권에서 다음 같이 밝히고 있다.

문(問) : 삼취(三聚)에 대해서 삼문(三門)의 부동(不同)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이 어떠한가?

답(答) : 일(一)은 현요문(顯了門), 이(二)는 단악문(斷惡門), 삼(三)은 계구문(戒具門)이다. 맨 처음의 현요문(顯了門)이라고 하는 것은 『선계경(善戒經)』에서 말하기를, 재가(在家)와 출가(出家)의 계(戒)에 삼종(三種)이 있으니, 일(一)은 섭율의계(攝律儀戒), 이(二)는 수선법계(受善法戒), 삼(三)은 위리중생계(爲利衆生戒)이다. 섭율의계(攝律儀戒)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칠중계(七衆戒)를 말함이니, 즉 비구계(比丘戒)·비구니계(比丘尼戒)·식차마니계(式叉摩尼戒)·사미계(沙彌戒)·사미니계(沙彌尼戒)·우바새계(優婆塞戒)·우바이계(優婆夷戒)이다. 그리고 보살계(菩薩戒)를 약분(略分)하면 2종이 있으니, 일(一)은 재가분계(在家分戒), 이(二)는 출가분계(出家分戒)이며 이것을 일체계(一切戒)라고 이름한다.

다시 이 재가(在家)와 출가(出家)의 이분정계(二分淨戒)를 의지하여 3종을 약설(略說)한다면 일(一)은 율의계(律儀戒), 이(二)는 섭선법계(攝善法戒), 삼(三)은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이니 율의계(律儀戒)란 제보살(諸菩薩)이 수지(受持)하는 바 칠중(七衆)의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를 말한다. 섭선법계(攝善法戒)란 제보살(諸菩薩)이 율의계(律儀戒)를 받은 뒤에는 소유하는 모든 것이 대보리(大菩提)가 되니 신어의(身語意)가 제선(諸善)을 적집(積集)하게 하는 까닭이니, 그러므로 총설(總說)하여 이름하기를 섭선법계(攝善法戒)라 한다.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에는 간략히 꼽으면 열하나의 상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제보살(諸菩薩)이 제유정(諸有情)들을 능히 이로운 대로 인도(引導)해 감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율의(律儀)가 현연(顯然)하여 의문(疑問)이 명료(明了)한 까닭에 현료문(顯了門)이라고 한다.

다음에 단악문(斷惡門)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본업경』 하권에서 말하기를,

불자여, 내가 이제 제보살(諸菩薩)들을 위하여 일체계(一切戒)의 근

본(根本)을 맺어 주노니 이른바 삼수문(三受門)이니라. 섭선법계(攝善法戒)는 이른바 팔만사천법문(八萬四千法門)이며, 섭중생계(攝衆生戒)는 이른바 자비희사(慈悲喜捨)이니 교화(教化)를 일체중생(一切衆生)에게 퍼서 모두 다 안락(安樂)을 얻게 함이라. 섭율의계(攝律儀戒)는 이른바 십바라이(十波羅夷)니라.

라고 하였고, 또 의적의 『보살계본소』에서 말하기를,

십중계(十重戒)를 판별(判別)하여 율의(律儀)로 하고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나누어서 두 가지[餘二]를 삼으니, 즉 사십팔계(四十八戒) 가운데 앞의 삼십계(三十戒)는 섭선(攝善)이 많고 뒤의 십팔계(十八戒)는 이생(利生)이 많다.

라고 하였다. 십중금계는 이미 십악(十惡)을 끊었으므로 따라서 단악문의 삼취(三聚)라고 한다. 그런데 삼취라고 하더라도 따로 섭율의의 일취(一聚)를 주로 잡아서 단악(斷惡)이라는 이름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계(菩薩戒)의 자분(自分)에 삼취(三聚)가 스스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앞의 현료문(顯了門)에서 7중(七衆)의 공계(共戒)로써 섭율의(攝律儀)를 삼은 것과는 같지 않다.

끝으로 계구문(戒具門)이라고 하는 것은 낱낱의 계로 인하여 악을 버리게 하는 것은 율의요, 선(善)을 내게 하는 것은 섭선법이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섭중생으로 보는 문이다.

태현은 『범망경고적기』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은 제계(諸戒)의 낱낱에 다 삼취를 구족하고 있다.”고 부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후세에 있어서 삼취정계에 관한 해석이 현저하게 발전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6) 삼취계설을 통해 본 계율사상

대승불교에서 궁극적으로 목적 삼는 바는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두 가지 행[二行]을 원만히 하는 데 있으며 이 이리원만(二利圓滿)의 사상은 삼취정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삼취정계⁴⁷⁾란 섭율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등의 삼중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삼취계는 불교의 일체 계율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취정계는 대승불교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악(止惡), 작선(作善), 이타(利他)의 세 가지로 개괄한 것이다.

47) 삼취계(三聚戒)의 사상은 보살계의 특색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섭율의계(攝律儀戒)는 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해진 규율을 준수하는 자기본위의 계이고, 섭선법계(攝善法戒)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선(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와 더불어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계이며, 섭중생계(攝衆生戒)는 타자를 완전히 자기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그들을 교화하고 구제함을 목표로 하는 계이다. 그런데 『범망경』에는 이러한 3취계(三聚戒) 자체가 설해져 있지 않다. 즉 이것을 설하는 것은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과 『영락본업경(纓絡本業經)』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영락본업경(纓絡本業經)』은 『범망경(梵網經)』과 그 10중계(十重戒)의 모양이 일치하며, 수계(受戒)의 방식과 계(戒)의 이해 등 상응하는 점이 있다. 이들 사상을 도입하여 범망계(梵網戒)를 3취(三聚)의 보살계로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범망계는 도처에서 자비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자비심에 의해 세상 사람을 구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섭중생계의 성격이 극히 두드러진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섭율의계가 중심이 되고 그것이 동시에 다른 것을 포섭한다고 하는 능소(能所)의 관계이다. 이렇게 보면 10중(十重)은 어디까지나 섭율의(攝律儀)를 주체로 하고, 섭중생계와 섭선법계를 부차적으로 동반하는 데 불과하다. 의적(義寂)은 10중(十重)을 섭율의(攝律儀)에, 그리고 48경(輕)은 섭선(攝善)과 섭생(攝生)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세분하면 48경계(48輕戒) 중의 전(前) 30계가 섭선, 그리고 후(後)의 11계가 섭중생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즉 여기서는 섭선, 섭중생이 주체이고, 섭율의는 포섭되는 것이라는 관계가 설정되며 범망계는 삼취계의 성격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게 되는 것이다.

제1의 섭율의계는 모든 악한 일을 결코 행하지 않는다. 제2의 섭선법계는 모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이상의 두 가지 계는 지악과 작선, 즉 개인의 수행향상에 결부되는 것이므로 자리적(自利的)인 것이다. 제3의 섭중생계[利益衆生戒]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이도(利導)하여 지악하고 수선(修善)케 해서 다함께 불도에 나아가게 하니 바로 이타적인 것이다. 자리(自利)만 있고 이타가 없는 도덕은 결코 올바른 윤리도덕이 아니며, 참된 불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자리와 이타의 두 가지 이행(利行)이 함께 원만하여야 비로소 불행(佛行)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문의 계는 자리인 율의(律儀)뿐만 아니라 비하여 보살의 계에는 스스로 선행을 하는 적극적인 자리와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의 섭중생계가 합쳐져 있으므로 이것이 대승보살계 율의의 특이성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자리와 이타하려는 대승보살사상이 발달함에 따라 당연히 귀결로써 자리만을 중요하게 보려는 성문도(聲聞道)의 좁은 심정을 초극하기 위하여 소승율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던 대승계도 보살의 이념이 전개됨에 따라서 역사적인 진전, 지리적인 변천, 또는 사회적인 조류의 추이 등과 함께 그 대승계학이 구체적으로 현저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⁴⁸⁾ 대승계의 근본이 되는 삼취계의 계의가 “하나 가운데 일체이며 많

48) 삼취(三聚)와 삼신(三身)의 인과관계가 그것이다. 남산율종(南山律宗)의 시조인 도선(道宣, 596-667)에서 시작하여 원효, 법장, 태현 등에게 도입되고, 섭율의를 법신(法身)의 인(因), 섭선법을 보신(報身)의 인(因), 섭중생을 화신(化身)의 인(因)에 배대하는 것이다. 명광(明曠)은 이 관계를 다시 사홍서원으로 전개시키고, 섭율의는 번뇌를 끊는 것으로서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섭선법은 불도를 완성하고 법문을 배우는 것으로서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내지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섭중생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서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에 각각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섭율의는 살생을

은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가 곧 일체이며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하나의 미진 가운데 시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체의 티끌 가운데도 또한 그러하다[一中一切多中一 一 卽一切多卽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라고 하는 원융무애(圓融無碍)하면서 호섭상통(互攝相通)하는 무진연기관(無盡緣起觀)에서 모든 것을 보는 화엄제가(華嚴諸家)들에 의하여 하나하나의 계가 모두 다 삼취의 뜻을 구족한다고 하는 원융호섭의 경지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삼취정계의 계의(戒義)가 이와 같이 발전한 것은 태현의 『범망경고적기』와 『보살계본종요』가 참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도 어디까지나 삼취정계 안에 있어서의 율의계와 다른 두 가지 계의 상관관계라든가 각 계사이의 융화적 관계를 말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지만, 후세에는 이 삼취정계에 여러 가지 다른 교의를 배대하여 관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다음은 삼취정계의 발전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한다.

삼취정계는 『화엄경』이나 『유가론』 등의 대승경전에서 처음으로 설해진 것이다. 『화엄경(華嚴經)』에는 삼종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십선도(十善道)를 기본으로 하는 지극히 원시적인 형태로 삼취정계의 사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화엄의 이와 같은 삼취정계의 사상은 대승계의 입장에서 고려된 것이다.

따라서 이 『화엄경』에서의 삼취정계 사상을 이어받아 발전하게 된 대승계경인 『범망경』과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앞에서 말한 단약문의 삼취

하지 않는 등 악을 짓지 않아 두루 염오(染汚)를 떠나게 하기 때문에 법신(法身)의 인(因)이며, 섭선법은 선을 행하고 법문을 깊이 탐구하고 불도를 증(證)하기 때문에 보신(報身)의 인(因)이며, 섭중생은 지악행선(止惡行善)으로 자비심에 입각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응신(應身)의 인(因)이라고 설해진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살계 자체가 삼취정계로 나누어져 있는 까닭에 소승 율장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유가론』에서는 소승 율장을 대승계에 포섭하기 위해서 삼취정계를 설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론』의 삼취정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보살지지경』이나 『보살선계경』 등에서는 앞에서 말한 현료문(顯了門)의 삼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승보살의 삼취정계 가운데 섭율의계는 소승율제의 율의계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취정계설은 두 계통으로 나뉘는데, 차츰 대승보살사상이 성행하자 계율사상도 대승계사상이 유행하게 된다. 따라서 율종에서도 율종을 대승의 위치로 끌어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소승율로써 삼취정계의 섭율의계를 삼는 『유가론』을 전거로 하여 소승율장과 대승계를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대승보살의 삼취정계의 섭율의계에 율장이 포함된다면 자리를 위주로 하는 성문의 율의가 이타를 위주로 하는 보살의 삼취정계 율의계가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 정신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같은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삼취정계에는 통수(通受)와 별수(別受)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삼취정계의 수법(受法)에 통수와 별수의 2법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도 태현이었다.

후세에 이 보살의 삼취정계의 통수와 별수에는 다 같이 수득(受得), 호지(護持), 참회의 세 가지 법이 있다고 하였고 별수하는 데 있어서의 수득, 호지, 참회의 세 가지 법에서는 별다른 큰 이견이 없었으나 통수의 범규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일본불교에 있어서는 사이초(最澄)가 북령(北嶺)인 히에이잔(比叡

山)에서 소승의 계율을 버리고 범망계를 단수(單受)하는 대승계만을 따로 세우는데 이르자, 이와는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남도(南都), 나라(奈良)의 율종(律宗)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통수와 별수에 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별수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통수에 관해서는 종래로 계학연구의 대가들 사이에 이론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가쿠세이(覺盛, 1194-1249)와 코세이(興正, 1201-1290)의 양 대가는 더욱 크게 견해를 달리하였다.

그들은 태현의 대승계에 관한 저술인 『범망경고적기』와 『보살계본중요』에 대하여 코세이(興正)는 『범망경고적기보행문집』 10권과 『보살계본중요보행문집(菩薩戒本宗要輔行文集)』 2권을 저작하고 가쿠세이(覺盛)는 『보살계본중요잡문집(菩薩戒本宗要雜文集)』 1권을 저작하는 등 각기 태현의 계율사상을 부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태현이 밝힌 통수와 별수의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독자적인 견해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범(持犯)의 상을 판석(判釋)하는 데 있어서도 의견을 달리하였다.

양편이 모두 일리가 있어서 조금도 양보가 없었던 까닭에 이로 인하여 마침내 사이다이지(西大寺)와 도쇼다이지(唐招提寺)를 의지해서 두 학파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이 같은 태현의 『보살계본중요(菩薩戒本宗要)』를 해석하여 부연하고 있으나 『보행문집(輔行文集)』과 『잡문집(雜文集)』의 양서를 비교 대조해 본다면 지범의 판석에 있어서 두 사람의 견해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뒤에 교넨(凝然, 1240-1321)이 나와서 『통수비구참회양사부동기(通受比丘懺悔兩寺不同記)』 1권을 저술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 보살이 삼취정계를 통수하는 수득, 호지, 참회의 삼법 가운데 특히 참회의 일문에 대한 양사의 견해가 같지 아니한 점을 기록함으로써 두 학파의 주장을 명확

하게 가려서 보여주었다.

일본불교 계율계(戒律界)의 이와 같은 상황에 비하여 신라의 계율사상은 초기불교부터 출가 사문은 구족계를 수지했고, 일반적으로는 오계와 팔관계 그리고 대승보살계가 행해졌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원광(圓光, ?-630)의 전기에서 비로소 그가 구족계를 받은 것이라든가, 또 보살계라는 명칭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원광은 중국에 유학하여 대소승의 두 가지 뜻에 두루 밝았고 신라에 돌아와서는 대승불교사상을 선양하였다. 자신은 출가 사문으로서 본분을 엄격하게 지켜 많은 도속(道俗)들의 존경을 받고 이양(利養)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는 일 없이 모두 사찰경영에 충당하였으며, 자신은 오직 의발(衣鉢)만을 남길 뿐이었다. 한편 중생을 이끌어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편도 버리지 않았으며 이타를 위주로 하는 대승보살계의 정신으로 교화에 진력하였다. 원광은 왕명에 의하여 걸사(乞師)의 상표문(上表文)을 제술(製述)할 때에 보인 것처럼, 사문의 한 사람으로서 엄격하게 자기를 단속하여 율신(律身)하며 대승적인 입장에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해야만 하는 일을 확실하게 구별하였다. 또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면서도 중생교화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고원한 교리만을 설법하는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특히 세속의 사람들에게 맞는 계율을 주어 그것을 실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니 그대로 삼취정계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이었다. 가장 뚜렷한 예가 바로 그가 귀국한 지 얼마 후 신라의 화랑들을 위하여 설해 준 세속오계(世俗五戒)라 할 것이다.

원광의 이 같은 계율정신을 이어서 신라에 널리 계법을 펴서 승니(僧尼)의 규율을 바로잡고 설계를 행하며 최초로 계단을 세워 사방에서 오는 승니에게 여법한 수계를 하는 등 율의계의 정비와 정착에 큰 공을 이룬

이는 자장(慈藏)이다.

자장도 자신의 엄정한 지계행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뜻을 두었다.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써 계율에 의한 교화에 기본을 두고 대승보살에 의한 교화를 넓혔는데, 그는 범망보살계와 승율의계(僧律儀戒)를 별수하는 대소겸수(大小兼受)의 계풍(戒風)을 확립하여 오늘날까지 계승되는 한국불교 계율전통의 기반을 이루었다.

그런데 삼취정계가 발전을 거듭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본은 명(名)과 의(義), 그리고 명상(名相)을 확립한 유가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유가계는 성문소제(聲聞所制)의 율의를 그 섭율의계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같은 특징을 갖는 유가계가 『유가론』 『보살지』의 별역인 『보살지지경』을 통하여 『점찰경(占察經)』의 소의계(所依戒)가 되었다.

이것이 신라에서 진표(眞表, 景德王時代)가 이룩한 점찰참회계법(占察懺悔戒法)의 근본소의계(根本所依戒)가 되었다. 이 참회계법은 보살죄의 유무는 업도의 시비선악에 있기 보다는 그 행위에 있어서 보살 자신의 보리심의 유무에 있다고 하는 유가보살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신라에는 다시 진표에 의하여 보살계에 성문율의를 겸용하여 적극적으로 일체중생을 섭수하려는 유가계의 보살정신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유가삼취정계(瑜伽三聚淨戒)를 근본으로 하는 점찰참회계법에 의한 교화가 널리 펼쳐짐에 따라 신라의 계율사상은 자장에 의하여 확립된 엄숙한 승율의계, 그리고 범망보살계와 이 승율의계를 별수(別受)하는 대소겸수의 계풍(戒風)에, 삼취정계에 의하여 이러한 계들을 총수(總受)하는 유가계(瑜伽戒)라고 하는 계류(戒流)가 병행하게 되었다.

이는 『보살계본지범요기』를 통해서 나타나 있듯이 유가계 계통으로 보살계를 보는 원효 계율사상의 영향이 있었다. 또 『범망경고적기』나 『보살

계본종요』 등을 통해서 보여준 태현의 원융한 계율사상이 훌륭한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이루어진 통불교적인 신라의 계율사상 안에서는 일본처럼 승율의계를 버리고 대승계만을 따로 독립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신라의 계율사상 발전을 고찰하여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신라인의 윤리관의 근본을 이루는 불교계율사상은 어디까지나 대승보살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상(戒相)에 사로잡히지 않고 중생들의 근기에 응하여 만들어진 원광의 세속오계를 바탕으로 자장에 의하여 대소승을 겸비한 견고한 지계전통을 구축한 신라의 계율은 원효, 태현, 그리고 진표 등에게 이어졌으며 그밖에도 구체적인 보살계관으로 발전하였다.

『범망경고적기』와 『보살계본종요』에서 보여주는 태현의 보살계관은 신라불교의 계율사상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4. 마무리 말

이와 같이 신라가 교학의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저변에 철저한 계율 연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신라인들은 대사회적 윤리를 불교 안에서 찾으려 하였고, 올바른 국가관도 불교 교리에서 발견하려는 국가적 목적이 뚜렷하였다. 원광은 세속오계를 창안하여 신라 청소년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데 앞장섰고, 자장은 계단(戒壇)을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교단을 창도하였다. 대승보살계로써 『화엄경』의 사상을 이어받은 범망계가 널리 수지되었고 7부(七部)대중은 모두 보살계를 받으면서 또 각자

의 율의계를 별수(別受)하여 호지(護持)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신라 불교는 전래 수용 시부터 교학진흥에 못지않게 계율 중심의 불교에 나아가도록 진력하였다고 하겠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학승들이 교학 연구에 비중을 두면서도 계율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게 된 것이다. 즉 원효·태현·승장·의적 등의 제사(諸師)가 위의 과정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신라는 대승계 특히 『범망경』의 연구가 활발하였다. 원효는 『범망경종요』·『범망경소』·『범망경약소』·『범망경보살계본사기』 등을 남겨 『범망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적·태현 등의 주석서가 남아 있어 『범망경』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한다.

승장도 『범망경술기』라는 주석서를 남기고 있는데 10중 48경계의 『범망경』 하권만을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건은 어떤 경론을 의지하여 해석하는가에 있는데 『유가사지론』 90여 회, 『대지도론』 29회를 인용하여 그의 사상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거의 모든 계목을 해설하는데 『유가사지론』의 입장에서 『유가사지론』을 토대로 하여 『범망경』을 해설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가사지론』에 대한 절대적인 인용은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였던 태현과 의적에게서도 엿볼 수가 있다. 태현도 『범망경보살계본종요』와 『범망경고적기』를 남기고 있는데 특히 『범망경고적기』는 『범망경』 상·하권에 대한 온전한 주석서로 후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저술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범망경고적기』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승계경인 『범망경』을 소석함에 있어서 상종과 성종의 두 가지 판석을 다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입수할 수 있는 동서고금의 각 대가들의 연구 성과를 남김없이 정밀하게 연구 조사하여 그 좋은 점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교과서적인 성격

을 지니기 때문에 후세의 학자들에게 가장 적당한 지남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것은 태현 자신의 계율사상보다는 여러 대가들의 계율사상을 집대성한 면이 더 크다고 하겠다.

태현 또한 이를 해설하는 데 『유가사지론』을 절대적으로 인용하고 있어 유가대덕(瑜伽大德)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또한 동일한 경론을 빌려와 계율조목을 해석한 점을 미루어 보건대 태현은 승장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승장과 비슷한 시기에 신라에서 활약했던 의적 또한 『범망경』의 주석을 『유가사지론』에 의거하여 해석하고 있다. 유가학승이라 평가되어지는 태현 역시 『유가사지론』에 의거하여 『범망경』을 해석했다. 이와 같이 『범망경』의 해석에 있어 『유가사지론』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승장 또한 그러하였던 것이다. 단지 원효만이 특정 경론에 의지하지 않고 『범망경』을 해석했던 예외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유가사지론』을 중심으로 『범망경』을 해석하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원측의 제자로서 수당시대에 널리 연구되고 있던 범망계가 현장에 의해 다시 주목된 유가계(瑜伽戒)와 다른 것이 없으며, 유가계에 포섭 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믿어진다. 즉 승장은 유식학승의 입장에서 당시 유행했던 범망계를 유가계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가계를 선양하고자 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태현은 유식학에만 머물지 않고, 경율론의 삼장에 걸친 연구 성과가 있으므로 ‘해동의 자은(慈恩)’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칭송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예를 좋아하지 않고 은둔적 수행과 학문을 한 까닭에 그의 행적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경주 남산에 있었던 용장사에 주로 주석하면서 신라 경덕왕 시대(742-764)에 활약한 것만은 확실하다. 그의 저술은 대

부분 ‘고적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쇼엔(照遠)은 ‘고적기’라고 한 것에 대하여, 각 제사(諸師)들이 해석한 종적에 의거하여 그 요점을 취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며, 전거가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겸손함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유식은 원측과 도증의 자취를 이었으며, 성상(性相)은 법장과 원효의 자취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범망은 의적과 승장의 자취를 이었음을 『고적기』를 통해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고인(古人)에게 의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강을 말하는 것이며 그가 전적으로 남의 견해를 따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또한 뛰어난 일가견을 지니고 있어 다른 스승들의 잘못을 설파하여 자기의 바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을 그의 저술을 통하여 밝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여러 종의 경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일 없이 여러 선사들을 의지하여 잘못된 점을 가리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만을 취하고 있으며 성·상의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니, 지금도 중국·일본에서는 태현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범망경고적기』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의의 『의소(義疏)』 이후에 천태·화엄·법상 등 각 종파의 학자들이 다투어서 소식을 저술하였으나 대개는 상권만 주석 하거나, 혹은 하권의 계본만 해석하여 상·하 양권을 다 소식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예컨대 잘 알려져 있는 소(疏) 가운데도 승장(勝莊), 법선(法銑), 도선(道璿), 전오(傳奭), 이섭(利涉), 박양(撲揚) 등은 하권만을 주석하고 있으며, 지의(智顗), 법장, 의적(義寂), 명광(明曠) 등은 하권 가운데서도 계송 이하만을 해석하고 있으나, 태현은 상·하의 양권에 걸쳐서 남김없이 그 깊은 뜻을 잘 밝혀 내고 있다.

둘째, 『범망경』의 하권 가운데 계송 이하의 계상만을 따로 내어서 여기

에 수계갈마(受戒羯磨)와 설계서(說戒序)를 두고, 또 최후에 유통계(流通偈)를 붙여서 포살용(布薩用)으로 체제를 갖춘 것이 보살계본이다. 이것을 『보살계경』, 『범망계경』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 계본에 있는 10중 48경계의 계문에 제명이 붙여져 있지 않은 까닭에 각 소가(疏家)들이 계문을 해석할 때에 그 계상(戒相)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각각의 계에 나름대로 내용을 요약한 제명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각 소가(疏家)의 계제(戒題)를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 태현이 붙인 계제가 각계의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으므로, 후세의 소가(疏家)들은 대개가 태현의 계제를 쓰고 있다.

셋째, 『범망경』에 문면상으로 삼취정계설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범장은 여기에 대해서 『범망경』의 십바라이(十波羅夷)가 지악(止惡)에 중점을 둔 까닭에 율의계라고 하지만 남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자비와 이타의 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에서 이미 자리아타하는 소욕(少欲)의 청정행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지악하는 생활이 그대로 작선(作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뜻으로 볼 때 삼취정계가 악을 여의고 있는 면에서 모두가 율의계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중생들을 위하는 것이 되므로 모든 것이 십중생계의 실천행 아님이 없다고 보아 십계가 그대로 삼취의 계상(戒相)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태현은 십중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십팔경계 더 나아가 일체의 계에 있어서도 다 그러한 까닭에, 모든 계가 낱알이 모두 삼취계를 구족(具足)하고 있다고 하는 한층 더 진보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는 이와 같은 특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선사들의 고적(古迹)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도 그 이전의 제소석류(諸疏釋類)들보다 뛰어나므로 신라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국외까지 전해져 널리 알려졌다.

일본은 태현의 『범망경고적기』에 관한 주석서만 하여도 60여 부나 된다. 예로부터 『범망경』을 연구할 때 그 많은 소초 가운데에 단연 『범망경고적기』를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헤아려 볼 수 있겠다. 태현은 처음 화엄을 연구하여 원융의 법문을 깊이 수행한 뒤에 다시 법상의 학리(學理)를 연찬하였던 까닭에 범망계의 계상과 지범 등을 판석하는데 있어서도 성종과 상종의 양편을 겸비하고 있다.

또 『범망경』을 소석함에 있어 화엄 계통의 소석가(疏釋家)들은 경전의 조식이 소화엄(小華嚴)이라고 별칭되는 만큼 화엄적인 내용이 짙은 상권만을 해석하였고, 율종의 소석가들은 계경의 내용을 지닌 하권만을 해석하는 것이 보통인데 비하여,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는 상권과 하권을 모두 소석하고 있다. 소석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보살계본종요』를 찬술하여 대승 계율사상의 대강을 제시한 다음에 『범망경고적기』를 저작하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종횡무진으로 자유로이 인용하면서도, 대가들의 견해를 잘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망경』에 관하여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그저 남의 학설을 소개하거나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자신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후세의 학자들 특히 『범망경』 연구가들에게 다시없는 귀중한 지남서로서 존중되었던 것이다.

태현의 범망보살계관을 살펴보면 보살계와 성문계를 받거나 범하고 버리게 되는 것이 경우가 다르다고 보았다. 특히 보살계를 받는 방법에 일분수(一分受)와 전분수(全分受)가 있는데 일부분만을 받는 일분수를 인정하고 아울러 다시 받는 중수(重受)를 허용한 것은 태현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쉽게 보살계를 받아 지니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나아가서 태현의 이러한 의도는 불교 대중화로 늘어난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성장을 결과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더구나 태현은 중생은 불성이 있는 까닭에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 당시 늘어난 신도들을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었다.

그뿐 아니라 태현은 효을을 대단히 강조하여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갚는 것은 보살의 본행으로서, 죽어도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또 부모와 사승(師僧)의 두 가지 은(恩)만을 들고 세속과 불교의 효를 구분하기도 했는데, 통일신라시대에 효의 문제를 둘러싼 유·불간의 비판과 대응이 있었던 점과 관련시켜 볼 때 매우 주목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세속의 효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 효 가운데 효라고 보아 불교의 효가 세속의 효보다 더 뛰어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태현이 효은(孝恩)을 강조한 것은 당시 효의 문제를 둘러싼 마찰을 인식하고 불교의 효를 말함으로써 결국은 유교의 효나 불교의 효가 다름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왕에 대한 일단의 견해도 보이는데 재가자가 출가자의 예배를 받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게 된다고 하여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법부족(佛法付屬)’의 이유를 들어 국왕의 지위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양면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왕과 같은 세속적인 권위를 초월하려는 의지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면이 더 강했으므로 왕궁에 초청되어 비를 빌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태현은 호법을 위한 재가자의 무기소지와 군중(軍中) 왕래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의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그들이 활동한 시대 상황의 상이(相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속인들의 상행위를 인정하고 도량형을 속이지 말 것 등을 말한 것은 신라 중대 상업의 성장을 반영한 데서 나온 주석으로 볼 수 있다.

또 태현은 이미 자신의 저서인 『중요』에서 범망 보살계는 삼취정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삼취정계 속에 육도(六度)와 사섭법(四攝法) 등 만행이 모두 들어 있다고 하여 중중무진·삼제원융의 묘리로써 삼취정계를 설명하고 있다. 성문의 계는 자리인 율의계 뿐인데, 보살의 계에는 스스로 선행을 하는 적극적인 자리와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이타의 섭중생계가 합쳐져 있다. 이것은 대승보살계 율의의 특이성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자리이타의 대승보살사상이 발달함에 따라 당연한 귀결로써 자리만을 중요하게 보려는 성문도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던 대승계도 보살의 이념이 전개됨에 따라 역사적인 진전, 지리적인 변천, 또는 사회적인 추이 등과 함께 대승계학이 구체적으로 현저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삼취정계가 이와 같이 발전됨에 있어 태현의 『범망경고적기』와 『보살계본중요』가 참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신라인의 윤리관의 근본을 이루는 불교계율사상은 어디까지나 대승보살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중생들의 근기에 응하여 만들어진 원광의 세속오계를 바탕으로 자장에 의하여 대소승을 겸비한 건고한 지계전통을 구축한 신라의 계율은 원효, 태현, 그리고 진표 등에게 이어지며 그밖에도 구체적인 보살계관으로 발전하였다. 『범망경고적기』와 『보살계본중요』에서 보여주는 태현의 보살계관은 신라불교의 계율사상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한마디 부언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선행에 대한 기본 가치관의 혼란 때문이다. 삶에 대한 바른 안목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깊은 사유를 통하여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덕적인 삶에 대한 바른 생활규범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

면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극심한 개인주의 경향, 폭력과 생명 경시 풍조, 환경문제, 윤리와 도덕적 해이, 부정부패,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이러한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대승불교의 청정한 생활규범인 『범망경』 10중 48경계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론과 실재를 겸비하여 구체적으로 고구정녕하게 설파해 놓은 것이 태현스님의 『범망경고적기』이다. 희망적인 미래를 위하여 대사회적, 아니 전 인류적으로 대승보살계 실천이 확산되어 행복으로 가는 새로운 삶의 물결을 출렁이게 하는 데, 『범망경고적기』가 도움이 되기를 발원해 본다.

도표 목록

- 도표1. 대현(大賢)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증
- 도표2. 태현(太賢)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증
- 도표3. 신라 태현의 저서에 관한 자료
- 도표4. 태현 저술의 현존서(現存書)
- 도표5. 신라 『범망경』 연구 장소(章疏)
- 도표6. 『범망경고적기』에 인용된 경
- 도표7. 『범망경고적기』에 인용된 율
- 도표8. 『범망경고적기』에 인용된 론
- 도표9. 『범망경고적기』에 인용된 인명(人名)과 소기(疏記)
- 도표10. 범망십중계제(梵網十重戒題)의 비교대조
- 도표11. 태현 『범망경고적기』의 일본 주석서
- 도표12. 태현 『보살계본중요』에 관한 주석서

참고문헌

- 『高麗大藏經』律部 14 『梵網經』(高麗藏527, 14, 동국대학교, 1957년 간행본)
- 『梵網經菩薩心地品』 총 2권 (大24, 997)
- 太賢, 『梵網經古迹記』(韓3, 418, 大40, 689, 卍1, 60)
- 太賢, 『菩薩戒本宗要』(韓3, 478, 大45, 915, 卍1, 60)
- 『日本大藏經』 第19, 第12 第21권
- 『國譯一切經』 和漢撰述 78, 史傳部 10
- 『菩薩善戒經』(大30, 982)
- 『菩薩瓔珞本業經』(大24, 1020)
- 『菩薩戒本疏』(大40, 670)
- 『大方廣佛華嚴經』 27권 (大10, 149)
- 『瑜伽師地論』 40권 (大30, 510)
- 『菩薩地持經』 4권 (大30, 910)
- 『十地經論』 4권 (大26, 145)

- 『解深密經』 4권 (大16, 705)
- 『瑜伽論記』 (大42, 523)
- 『三國遺事』 4권 ‘圓光西學條’, 권四 ‘賢瑜伽條’, 5권 ‘大城孝二世父母條’, (大49, 50)
- 『三國史記』 4권 ‘新羅本紀’ (이강래 교감, 원본 p.64, 서울;한길사, 1998)
- 列傳 第八 ‘向德 外’ (이강래 교감, 원본 p.480, 서울;한길사, 1998)
- 『佛國寺古今歷代記』 (1767年刊, 1954年 騰寫本)
- 『佛國寺事跡』 (1917年刊 石刷版의 謄寫本)
- 『宋高僧傳』 4권 (大50)
- 『海東高僧傳』 2권 (大50)
- 大薦福寺僧道峯撰 『太賢法師義記序』 (大45)
- 『出三藏記集』 11권 ‘菩薩婆羅提木叉後記’ (大55)
- 元曉, 『梵網經菩薩戒本私記』 2권 (韓1)
- 元曉, 『菩薩戒本持犯要記』 1권 (韓1)
- 元曉, 『菩薩纓珞本業經疏』 3권 (韓1)
- 太賢, 本願樂師經古迹記』 (大38, 卅1, 35, 2)
- 太賢, 『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大44, 卅1, 71, 4)
- 太賢, 『成唯識論學記』 (卅1, 80, 1)
- 義寂, 『菩薩戒本疏』 권上 (韓2, 大40)
- 慧遠, 『大乘義章』 (大44)
- 智顗, 『梵網經菩薩戒義疏』 2권 (大40)
- 法藏, 『梵網經菩薩戒本疏』 6권 (大40)
- 唐 義淨 譯, 『金光明最勝王經』 10권 (大16)
- 道宣, 『釋門歸敬儀』 (大45)
- 道宣,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大40)
- 凝然, 『律宗綱要』 권上 (大74)
- 明曠, 『天台菩薩戒疏刪補』 (大40)
- 宗覺正直 編 『菩薩戒本宗要纂註』, (大21)
- 清算, 『梵網經古迹記 上권 綱義』 10권 (大20)
- 叡尊, 『梵網經古迹記 下권 科文補行文集』 10권 (大19)
- 叡尊, 『菩薩戒本宗要輔行文集』 2권 (大20)
- 定泉, 『梵網經古迹記補忘抄』 10권 (大19)
- 照遠, 『梵網經古迹記述迹鈔』 (大20)
- 石田瑞鷹, 『菩薩戒本宗要輔行文集解題』 (『國譯一切經』諸宗部16)
- 大悲覺盛, 『菩薩戒本宗要雜文集』의 奥書 (大20)
- 平川 彰, 『律宗綱要解題』 (『國譯一切經』 4)

- 高麗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3권, 高麗 宣宗 七年 (1090造, 大55, 『大日本佛教全書』 第1권, 佛教書籍目録 第一)
- 興隆, 『佛典疏鈔目錄』 2권 (『大日本佛教全書』 第1권, 佛教書籍目録 第一)
- 謙順, 『增補諸宗章疏』 2권 (寬政二年, 1790撰, 『大日本佛教全書』 第1권, 佛教書籍目録 第一)
- 永超, 『東域傳燈目錄』 2권 (寬治八年, 1094集, 大55, 『大日本佛教全書』 第1권, 佛教書籍目録 第一)
- 文雄, 『連門類聚經籍錄』 2권 (寬保年間, 1741~1743編, 『大日本佛教全書』 第1권, 佛教書籍目録 第一)
- 榮隱, 『律宗章疏』 1권 (延喜十四年, 914錄, 大No.2182)
- 藏俊, 『註進法相宗章疏』 1권 (安元二年, 1176撰, 大55, 『大日本佛教全書』 第1권, 佛教書籍目録 第一)
- 石田茂作 編,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 1권 (1930, 東洋文庫刊)
- 石田茂作, 『寫經에서 본 奈良朝佛教』의 研究 (1930, 東洋文庫刊)
- 小野玄妙 編, 『佛書解説大辭典』 第1권-第4권 (大東出版社, 1964, 改訂版)
- 大野法道, 『大乘戒經の研究』 (山喜房佛書林, 1954)
- 石田瑞鷹, 『三聚淨戒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1권 2호)
- 小寺文穎, 『傳教大師に關する 明曠疏의 影響』 (『印度學佛教學研究』 15권 1호)
- 佐藤達云, 『禪の戒律觀』 (『印度學佛教學研究』 5권 1호)
- 忽滑谷快天, 『朝鮮禪教史』 (‘太賢書表’, 1930年刊)
- 權相老, 『朝鮮佛教略史』 (서울, 新文館, 1917)
-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서울, 慶喜, 1918)
- 閔泳珪, 『新羅章疏錄長編』 (『白性郁頌壽紀念 佛教學論文集』, 1959)
- 趙明基, 『新羅佛教의 理念과 歷史』 (서울, 新太陽社, 1962)
- 朴鍾鴻, 『韓國思想史』古代編, (서울, 螢雪, 1966)
- 禹貞相·金煥泰, 『韓國佛教史』, (서울, 信興, 1968)
- ‘新羅統一期 學僧의 著述一覽’ 太賢條
- 東國大佛教文化研究所 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東國大出版部, 1976)
- 蔡印幻, 『新羅佛教戒律思想研究』 (國書刊行會, 1977)
- 崔源植, 『新羅菩薩戒思想史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 崔源植, 『太賢의菩薩戒 理解와 現實問題 인식』 (韓國思想論文選集, 고양, 불함문화사, 2005)
- 金英美, 『新羅佛教思想史研究』 (서울, 민족사, 1994)
- 丁永根, 『圓測의 一闡提成佛論』 (제1회 韓國哲學者大會要旨文, 1989)
- 李萬, 『新羅太賢의 唯識思想研究』 (서울, 동쪽나라, 1989)



목차

• 간행사	004
• 완간사	008
• 화보	012
• 일러두기	018
• 해제	021

1. 【梵網經古迹記 범망경고적기】

과목 115

범망경고적기 1권 129

■ 십발취심 170

1. 사심捨心 170 2. 계심戒心 174 3. 인심忍心 176 4. 정진심進心 178
5. 정심定心 182 6. 혜심慧心 184 7. 원심願心 188 8. 호심護心 191
9. 희심喜心 194 10. 정심頂心 196

■ 십장양심 201

1. 자심慈心 201 2. 비심悲心 203 3. 희심喜心 205 4. 사심捨心 207
5. 시심施心 208 6. 호어심好語心 209 7. 이익심利益心 210
8. 동심同心 213 9. 정심定心 214 10. 혜심慧心 217

■ 십금강심 220

1. 신심信心 220 2. 염심念心 223 3. 심심深心 227 4. 달조심達照心 228
5. 직심直心 230 6. 불퇴심不退心 232 7. 대승심大乘心 234





8. 무상심 無相心 236 9. 혜심 慧心 237 10. 불괴심 不壞心 239

범망경고적기 2권 245

■ 십지 247

1. 체성평등지 體性平等地 247 2. 체성선혜지 體性善慧地 254
3. 체성광명지 體性光明地 267 4. 체성이염지 體性兩焰地 273
5. 체성혜조지 體性慧照地 280 6. 체성화광지 體性華光地 285
7. 체성만족지 體性滿足地 289 8. 체성불후지 體性佛吼地 295
9. 체성화엄지 體性華嚴地 302 10. 체성입불계지 體性入佛界地 305

범망경고적기 3권 311

■ 십중대계 373

1. 쾌감을 느끼며 살생하지 말라 快意殺生戒第一經 382
2.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劫盜人物戒第二經 391
3. 자비 없이 음욕을 행하지 말라 無慈行欲戒第三經 404
4. 일부러 거짓말하지 말라 故心妄語戒第四經 415
5. 중생에게 술을 팔지 말라 酤酒生罪戒第五經 420
6.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談他過失戒第六經 421
7.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自讚毀他戒第七經 427
8.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을 헐뜯지 말라 慳生毀辱戒第八經 431
9. 사과하는 것에 대해 성내어 물리치지 말라 瞋不受謝戒第九經 440
10. 삼보를 헐뜯고 비방하지 말라 毀謗三寶戒第十經 444





범망경고적기 4권 455

■ 사십팔경계 457

1.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라 不敬師長戒第一經 459
2. 술을 마시지 말라 飲酒戒第二經 465
3. 고기 먹지 말라 食肉戒第三經 470
4. 오신채를 먹지 말라 食五辛戒第四經 473
5. 드러내어 참회하도록 가르치라 不舉教懺戒第五經 475
6. 머무름에 법을 청하라 住不請法戒第六經 480
7. 유행하며 법을 배우라 不能遊學戒第七經 482
8. 대승을 등지고 소승에 나아가지 말라 背正向邪戒第八經 486
9. 병든 이를 돌보아 주라 不瞻病苦戒第九經 487
10. 살생하는 도구를 쌓아 두지 말라 畜殺生具戒第十經 490
11.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通國使命戒第一經 492
12.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장사하지 말라 惱他販賣戒第二經 493
13.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헐뜯지 말라 無根謗毀戒第三經 494
14. 불을 놓아 생명을 손상하지 말라 放火損生戒第四經 496
15. 법으로 교화함에 가르침을 어기지 말라 法化違宗戒第五經 498
16. 재물을 탐하여 그릇되게 설하지 말라 貪財惜法戒第六經 501
17. 세력을 의지하여 나쁜 방법으로 구하지 말라 依勢惡求戒第七經 503
18. 속여서 스승이 되지 말라 虛僞作師戒第八經 506
19. 두 가지 말로 다투게 하지 말라 鬭諍兩頭戒第九經 507
20. 살아 있는 이와 죽은 이를 구제하라 不救存亡戒第十經 508





21. 인욕하여 어기고 범하지 말라 不忍違犯戒第一經 512
22. 사람을 업신여기고 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慢人輕法戒第二經 514
23. 새로 배우는 자를 경멸하지 말라 輕蔑新學戒第三經 515
24. 수승한 것을 두려워하고 열등한 것을 따르지 말라 怖勝順劣戒第四經 519
25. 주인이 되어 위의를 잃지 말라 爲主失儀戒第五經 522
26. 객스님인 줄 알면서 혼자만 이양을 받지 말라 領賓違式戒第六經 523
27. 다른 사람의 별칭을 받지 말라 受他別請戒第七經 527
28. 스스로 스님을 별칭하지 말라 自別請僧戒第八經 529
29. 사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말라 邪命養身戒第九經 530
30. 거짓으로 친한 척하며 중생을 해치지 말라 詐親害生戒第十經 532
31. 존귀한 이를 액난에서 구해 내라 不救尊厄戒第一經 534
32.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지 말라 橫取他財戒第二經 535
33. 헛되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 虛作無義戒第三經 537
34.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말라 退菩提心戒第四經 539
35. 발원을 세워라 不發願戒第五經 543
36. 스스로 중히 여겨 서원을 세워라 不生自要戒第六經 544
37. 일부러 험난한 곳에 들어가 유행하지 말라 故入難處戒第七經 550
38. 앉음에 차례를 어기지 말라 坐無次第戒第八經 561
39. 복과 지혜를 닦아 중생을 이롭고 행복하게 하라 不行利樂戒第九經 565
40. 교화하여 받아들임에 가려서 계를 일러주지 말라 攝化漏失戒第一經 568
41. 나쁜 목적을 위하여 스승이 되지 말라 惡求弟子戒第二經 574
42. 법답지 않은 곳에서 계를 설하지 말라 非處說戒第三經 584
43. 고의로 성인의 금계를 어기지 말라 故違聖禁戒第四經 588
44. 경율계를 소중히 여기고 공양하라 不重經律戒第五經 589





- 45.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不化有情戒第六經 591
- 46. 여법하게 설법하라 說法乖儀戒第七經 595
- 47. 옳지 못한 법으로 제한하지 말라 非法立制戒第八經 596
- 48. 스스로 내법을 파괴하지 말라 自破內法戒第九經 597

2. 【菩薩戒本宗要 보살계본종요】

해제 607

태현법사의기서 621

보살계본종요 627

- 부록 665
 - 태현에 관한 자료 검색표 667
 - 범망경 고적기 관련 일본 자료 680
- 찾아보기 685
- 역주자 703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705
- 한국전통사상총서 707





◀ 梵網經古迹記 범망경고적기 ▶





科目 과목

범망경고적기 1권

■ 해설구조 將釋此經

1. 때와 장소 時處
2. 근기 機根
3. 장섭 藏攝
4. 번역 翻譯
 - 1) 분량 頌品
 - 2) 중국과의 인연 中國 因緣
 - (1) 숙연 宿緣
 - (2) 개연성 蓋然
 - (3) 대승과 소승을 겸하여 수행 大小兼行
5. 중취 宗趣
 - 1) 총괄적 요지 總
 - 2) 심행 心行
 - (1) 총 總
 - (2) 바른 행 正行
 - (3) 악행을 경계 誠惡行



3) 돌아가야 할 바 취지 歸趣

(1) 여래성의 문 如來性門

- ① 진여성 眞如性
- ② 여래장 如來藏

(2) 발취상의 문 發趣相門

- ① 서원 誓
- ② 행상 行相
- ③ 머무르지 않는 도에 올라 乘不住道
- ④ 보살행 菩薩行

6. 제명 題名

1) 제목 題目

7. 본문 本文

[서분 序分]

1) 본사의 설 本師說

(1) 처소와 대중 處衆

- ① 모인 장소 處所
- ② 모인 대중 大衆
- ③ 설한 바 所說

(2) 경각시킴에 警覺

- ① 빛을 놓다 放光
- ② 대중이 기뻐하다 衆喜
- ③ 의아스럽게 여기다 疑念

(3) 질문하다 啓問

- ① 정에서 일어나다 起定
- ② 대중이 운집하다 集衆
- ③ 질문하다 啓問

(4) 친견하고 여쭙다 見聞

- ① 친견하다 見
- ② 여쭙다 問

ㄱ. 예경하고 禮敬

ㄴ. 바로 물음에 正問

- 간략하게 묻다 舉略
- 자세하게 가르쳐주다 指廣

③ 대답해 주심 答

ㄱ. 과로 답함 答果

- 과 果
- 인 因
 - ◇ 간략하게 하다 略
 - ◇ 자세히 하다 廣

ㄴ. 인행을 제시 舉因行

- ◇ 십발취심 十發趣心
- ◇ 십장양심 十長養心
- ◇ 십금강심 十金剛心
- ◇ 십지 十地
- ◇ 결론 結論

④ 자세히 여쭙다 廣問

⑤ 대답해주심 答

ㄱ. 십발취심 十發趣心

- ① 사심捨心 ② 계심戒心 ③ 인심忍心 ④ 정진심進心
- ⑤ 정심定心 ⑥ 혜심慧心 ⑦ 원심願心 ⑧ 호심護心
- ⑨ 희심喜心 ⑩ 정심頂心

ㄴ. 십장양심 十長養心

- ① 자심慈心 ② 비심悲心 ③ 희심喜心 ④ 사심捨心
- ⑤ 시심施心 ⑥ 호어심好語心 ⑦ 익심益心 ⑧ 동심同心
- ⑨ 정심定心 ⑩ 혜심慧心

ㄷ. 십금강심 十金剛心

- ① 신심信心 ② 염심念心 ③ 회향심廻向心 ④ 달조심達照心
- ⑤ 직심直心 ⑥ 불퇴심不退心 ⑦ 대승심大乘心
- ⑧ 무상심無相心 ⑨ 혜심慧心 ⑩ 불괴심不壞心

범망경고적기 2권

〈1권 다. 십금강심에 이어지는 과목이나 번호를 새로 시작한다.〉

1. 십지 十地

1) 체성평등지 體性平等地

- (1) 시작하는 말 舉章門
- (2) 행상 行相
 - ① 나타내다 標
 - ② 이롭게 하는 덕 利德
 - ③ 과덕의 즐거움을 밝히다 明果德樂
 - ④ 무애상을 나타내다 顯無礙相

(3) 결론 지어 간략하게 서술 結敍略出

2) 체성선혜지 體性善慧地

- (1) 시작하는 말 舉章門
- (2) 십지행 地行
 - ① 총히 나타내다 總標
 - ② 따로 해석하다 別釋
 - ㄱ. 지혜 慧
 - 관찰 觀察
 - 교화하여 이끌어주다 化導
 - ㄴ. 평등하게捨
 - ㄷ. 자애롭게 慈

(3) 자세하게 가리키다 指廣

3) 체성광명지 體性光明地

- (1) 시작하는 말 舉章門
- (2) 행상 行相
 - ① 자기를 이롭게 自利
 - ㄱ. 능진 能證
 - ㄴ. 소진 所證
 - ② 남을 이롭게 利他

- ㄱ. 좋은 방편을 사유하며 善巧思念
- ㄴ. 마땅히 설법을 나타내다 應現說法

(3) 자세히 가리키다 指廣

4) 체성이염지 體性爾焰地

- (1) 시작하는 말 舉章門
- (2) 십지행 地行
 - ① 자본행 自分行
 - ㄱ. 이제를 합하여 해석 二諦合釋
 - ㄴ. 마땅히 설법을 나타내다 應現說法

② 승진행 勝進行

- ㄱ. 바로 밝히다 正明
 - 교화하는 가피 能化加
 - 교화를 받다 所化受
 - 경각 警覺
 - 덕품 德品

③ 문장을 결론짓다 結文

- ㄱ. 합하여 해석 合釋
- ㄴ. 다른 품을 가리키다 指餘品

5) 체성혜조지 體性慧照地

- (1) 시작하는 말 舉章門
- (2) 십지행 地行
 - ① 자본행 自分行
 - ㄱ. 지혜의 힘 智力
 - 총히 나타내고 總標
 - 따로 나타내다 別顯
 - 문장을 결론짓다 結文

ㄴ. 신통력 通力

② 승진분 勝進行

6) 체성화광지 體性華光地

- (1) 시작하는 말 舉章門

(2) 십지행 地行

① 총히 나타내다 總標

② 따로 해석하다 別釋

ㄱ. 천안지 天眼智 ㄴ. 천이지 天耳智 ㄷ. 천신지 天身智

ㄹ. 천타심지 天他心智 ㄴ. 천인지 天人智 ㅂ. 천해탈지 天解脫智

ㅅ. 천정심지 天定心地 ㅇ. 천각지 天覺智 ㅈ. 천념지 天念智

ㅊ. 천원지 天願智

③ 문장을 결론짓다 結文

ㄱ. 바로 해석하고 正釋上

ㄴ. 다른 품을 가리키다 指餘品

7) 체성만족지 體性滿足地

(1) 시작하는 말 舉章門

(2) 십지행 地行

① 실천행 實行

② 교화하는 상 化相

(3) 변화를 나타내다 現變化

8) 체성불후지 體性佛吼地

(1) 시작하는 말 舉章門

(2) 행상 行相

① 선정의 행 定行

② 지혜의 행 慧行

③ 신통의 행 通行

④ 설법하는 행 說行

⑤ 비추어보는 행 照行

9) 체성화엄지 體性華嚴地

(1) 시작하는 말 舉章門

(2) 십지행 地行

① 안으로 증득하고 內證

② 밖으로 교화하다 外化

ㄱ. 총히 나타내고 總標

ㄴ. 따라서 해석하다 隨釋

10) 체성입불계지 體性入佛界地

(1) 시작하는 말 舉章門

(2) 십지행 地行

① 수행의 공덕 行功德

ㄱ. 총히 나타내고 總標

ㄴ. 따로 나열하다 別列

- 여래如來 ■ 응공應供 ■ 정변지正徧智 ■ 명행족明行足
- 선서善逝 ■ 세간해世間解 ■ 무상사無上士
- 조어장부調御丈父 ■ 천인사天人師 ■ 불佛 ■ 세존世尊

② 수행의 수승한 이익 行勝利

ㄱ. 바로 밝히다 正明

- 이마를 어루만지며 수기를 주시다 授記摩頂
- 따라서 기뻐하며 법을 청하고 隨喜請法
- 법의 품류를 나타내다 顯法品

ㄴ. 다른 품을 가리키다 指餘品

ㄷ. 총히 결론짓다 總結

범망경고적기 3권

1. 계문 戒文

1) 부촉 付囑

(1) 총히 자세하고 간략하게 나타내다 總標廣略

① 바로 나타내다 正標

② 인용하다 引證

(2) 따로 진불과 화신불을 밝히다 別明眞化

① 스스로 닦아 증득하고 自修證

② 다른 이를 점차로 가르치다 他轉敎

2) 화신불에게 전하여 설하게 하심 化佛傳說

(1) 은혜를 갚으려 따로 교화 報恩別化

① 뛰어난 현성에게 내문의 행을 전하다 傳上賢聖內門行

- 선정에 들어서 돌아오시다 禪歸入定
- 선정에서 나와 법을 설하시다 出定說法

② 초발심자에게 외문의 행을 전하다 傳初發心外門行

(2) 꾸짖어 분발하게 함 策發

(3) 믿기를 권함 勸信

[보살계]

(1) 받는 문 受得門

① 일부분만 받기도하고 一分受

② 모두 받기도 全分受

(2) 보호하여 잘 지키는 문 護持門

① 마음으로 따르는 문 隨心門

② 두루 배우는 문 徧學門

③ 성계를 따르는 문 隨性門

④ 은밀한 문 隱密門

⑤ 수승함을 따르는 문 順勝門

⑥ 하고자 하는 문 意樂門

⑦ 두려워하는 문 怖畏門

⑧ 수승함을 이루는 문 成勝門

⑨ 장애에서 보호하는 문 護障門

⑩ 구경문 究竟門

(3) 범하여 잃는 문 犯失門

3) 계송으로 해석하다 釋頌

(1) 본사의 것을 전수하여 외우는 문 傳誦本師門

① 주존의 수승함을 계송으로 나타내는 문 頌顯主尊勝門

ㄱ. 몸의 본말을 나타내는 문 現身本末門

ㄴ. 법의 본말을 설하는 문 說法本末門

② 계의 공능을 찬탄하는 문 讚戒功能門

(2) 말주가 드러내는 문 末主顯揚門

① 더욱 교화하는 문 展轉開化門

② 계상을 이루는 문 所成戒相門

③ 유정들이 받는 문 能受有情門

④ 자세히 설할 것을 허락하는 문 開許廣說門

4) 계를 결성하는 서 結戒序

(1) 경가 서 經家序

(2) 세존 서 世尊序

① 스승의 서 師序

② 법의 서 法序

③ 제자의 서 弟子序

[정종분 正宗分]

5) 바로 설하는 분 正說分

(1) 십중대계 重

① 총히 나타내다 總標

ㄱ. 수를 들어 제정 舉數制持

ㄴ. 상을 보여 지니기를 권하는 문 示相勸持門

㊦ 쾌감을 느끼며 살생하지 말라 快意殺生戒第一經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④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劫盜人物戒第二經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 자비 없이 음욕을 행하지 말라 無慈行欲戒第三經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④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 일부러 거짓말하지 말라 故心妄語戒第四經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 ④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⑤ 중생에게 술을 팔지 말라 酤酒生罪戒第五經

-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 ① 총總
 - ②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⑥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談他過失戒第六經

-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 ②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⑦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自讚毀他戒第七經

-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 ④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⑧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을 헐뜯지 말라 慳生毀辱戒第八經

-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⑨ 사과하는 것에 대해 성내어 물리치지 말라 瞋不受謝戒第九經

-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⑩ 삼보를 헐뜯고 비방하지 말라 毀謗三寶戒第十經

-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6) 결성 문 結成門

- (1) 궤범하지 말기를 권하다 勸不毀犯
- (2) 범하면 계를 잃어버림을 보이다 示犯失壞

범망경고적기 4권

1. 사십팔경계 서문 輕戒 序文

1) 앞의 것을 결론짓고 뒤의 것을 일으킴에 結前生後

2) 차례대로 외워 내다 次第誦出

(1) 열 가지로 계를 나누다 判十戒

① 자기의 심념을 지키는 문 護自心念門

⊖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라 不敬師長戒第一經

⊖ 술을 마시지 말라 飲酒戒第二經

② 다른 사람의 심행을 보호하는 문 護他心行門

⊖ 고기 먹지 말라 食肉戒第三經

⊖ 오신채를 먹지 말라 食五辛戒第四經

⊖ 드러내어 참회하도록 가르치라 不舉教懺戒第五經

③ 우리러 불법을 닦는 문 仰修佛法門

⊖ 머무름에 법을 청하라 住不請法戒第六經

⊖ 유행하며 법을 배우라 不能遊學戒第七經

⊖ 대승을 등지고 소승에 나아가지 말라 背正向邪戒第八經

④ 중생을 구호하는 문 救護衆生門

⊖ 병든 이를 돌보아 주라 不瞻病苦戒第九經

⊖ 살생하는 도구를 쌓아두지 말라 畜殺生具戒第十經

⑤ 총히 결론 總結

(2) 열 가지 계를 나누다 判十戒

① 자기의 선을 보호하는 문 護自善門

⊖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通國使命戒第一經

⊖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장사하지 말라 惱他販賣戒第二經

⊖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헐뜯지 말라 無根謗毀戒第三經

⊖ 불을 놓아 생명을 손상하지 말라 放火損生戒第四經

②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문 護攝他門

⊖ 법으로 교화함에 가르침을 어기지 말라 法化違宗戒第五經

⊖ 재물을 탐하여 그릇되게 설하지 말라 貪財惜法戒第六經

⊖ 세력을 의지하여 나쁜 방법으로 구하지 말라 依勢惡求戒第七經

- ㉔ 속여서 스승이 되지 말라 虛僞作師戒第八經
- ㉕ 두 가지 말로 다투게 하지 말라 鬪諍兩頭戒第九經
- ㉖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를 구제하라 不救存亡戒第十經

③ 총히 결론지움 總結

(3) 열 가지 계를 가려냄 判十戒

① 삼업으로 함께 닦음 三業同修

- ⊖ 인욕하여 여기고 범하지 말라 不忍違犯戒第一經
- ⊖ 사람을 업신여기고 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慢人輕法戒第二經
- ⊖ 새로 배우는 자를 경멸하지 말라 輕蔑新學戒第三經

② 견해를 함께하여 수행 見解同修

- ⊖ 수승한 것을 두려워하고 열등한 것을 따르지 말라 怖勝順劣戒第四經

③ 이양을 균등하게 利和同均

- ⊖ 주인이 되어 위의를 잃지 말라 爲主失儀戒第五經
- ⊖ 객스님인 줄 알면서 혼자만 이양을 받지 말라 領賓違式戒第六經
- ⊖ 다른 사람의 별칭을 받지 말라 受他別請戒第七經
- ㉔ 스스로 스님을 별칭하지 말라 自別請僧戒第八經

④ 계로써 화합하여 함께 닦음 戒和同修

- ⊖ 사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말라 邪命養身戒第九經
- ⊖ 거짓으로 친한 척하며 중생을 해치지 말라 詐親害生戒第十經

⑤ 총히 결론지움 總結

(4) 아홉 가지 계를 가림 判九戒

① 바르게 베푸는 것을 격려하심 開正施故

- ⊖ 존귀한 이를 액난에서 구해 내라 不救尊厄戒第一經

② 마음대로 갖지 못하도록 遮橫取故

- ⊖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지 말라 橫取他財戒第二經

③ 사된 인연을 피해서 避邪緣故

- ⊖ 헛되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 虛作無義戒第三經

- ④ 대승 법에 바로 나아감에 趣正乘故
 ⊖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말라 退菩提心戒第四經
- ⑤ 여의지 않기를 발원 不離發願故
 ⊖ 발원을 세워라 不發願戒第五經
- ⑥ 서원을 세워야 立誓願故
 ⊖ 스스로 중히 여겨 서원을 세우라 不生自要戒第六經
- ⑦ 험난한 곳을 저 멀리 離難故
 ⊖ 일부터 험난한 곳에 들어가 유행하지 말라 故入難處戒第七經
- ⑧ 혼란스럽지 않게 無亂故
 ⊖ 앉음에 차례를 어기지 말라 坐無次第戒第八經
- ⑨ 이롭고 안락하게 利樂故
 ⊖ 복과 지혜를 닦아 중생을 이롭고 행복하게 하라 不行利樂戒第九經
- ⑩ 총히 결론 짓다 總結
- (5) 아홉 가지 계를 나누다 判九戒
- ① 계로써 받아들이다 以戒攝受
- ㄱ. 근기를 포용하다 攝機故
 ⊖ 교화하여 받아들임에 가려서 계를 일러주지 말라 攝化漏失戒第一經
- ㄴ. 아닌 자를 가려내다 簡非故
 ⊖ 나쁜 목적을 위하여 스승이 되지 말라 惡求弟子戒第二經
- ㄷ. 밖으로 외호 外護故
 ⊖ 법답지 않은 곳에서 계를 설하지 말라 非處說戒第三經
- ㄹ. 안으로 외호 內護故
 ⊖ 일부터 성인의 금계를 어기지 말라 故違聖禁戒第四經
- ㅁ. 공경하라 恭敬故
 ⊖ 경율계를 소중히 여기고 공양하라 不重經律戒第五經

② 자비로써 교화 以悲教化

ㄱ. 창도하여 이끌어 주라 唱導故

⊖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不化有情戒第六經

ㄴ. 설법하여 교화 說化故

⊖ 여법하게 설법하라 說法乖儀戒第七經

ㄷ. 악을 막아내는 遮惡故

⊖ 옳지 못한 법으로 제한하지 말라 非法立制戒第八經

ㄹ. 바른 것을 수호 護正故

⊖ 스스로 내법을 파괴하지 말라 自破內法戒第九經

③ 총히 결론 짓다 總結

[유통분 流通分]

3) 결론 지어 봉행하기를 권하는 문 結勸奉行門



梵網經古迹記 卷第一 범망경고적기 1권



범망경고적기 1권

梵網經古迹記¹⁾

청구사문 태현²⁾이 편집하다

靑丘沙門太賢集

■ 해설구조 將釋此經

이 경을 해석함에 일곱 문[門, 부문]으로 나누고자 한다. 시처(時處)·근기[機根]·장섭(藏攝, 二藏과 三藏)·번역(翻譯)·종취(宗趣)·제명(題名)·본문(本文)이다.

將釋此經，七門分別。時處故，機根故，藏攝故，翻譯故，宗趣故，題名故，本文故。

1)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번역작업에 있어 저본(底本)은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教全書)』(동국대학교출판부, 1979)이며, 『한국불교전서』의 저본(底本)은 북경(北京) 각경처간본(刻經處刊本)이다. 갑본(甲本)은 만속장경(卍續藏經) 제1편(第一編) 60투(六十套) 3책(三冊)이고 을본(乙本)은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 제40권(第四十卷) 관문 8년 간(寬文八年刊) 종교대학 장본(宗教大學藏本)이며 병본(丙本)은 원록 2년 간(元祿二年刊) 약사사 장본(藥師寺藏本)이다. 이에 준하여 교감하였음을 밝혀두며 이하 한(韓)과 만(卍)과 대(大)로 약칭한다. 비교적 상세하게 과목(科目)을 달았으며 과목의 참고 문헌은 『범망경고적기상회본(梵網經古迹記上會本)』 건곤(乾坤), 『범망경고적기촬요(梵網經古迹記撮要)』 1권(一卷)-5권(五卷), 『만속장경』(中國, 藏經書院版, 新文豐刊)을 참고하여 계을 팀이 산보(刪補)하였음을 밝혀둔다.

2) 태현법사(太賢法師)는 신라유가(新羅瑜伽)의 개조(開祖)로 추앙을 받으며, 불교

1. 때와 장소 時處

시처(時處)란 처음[本] 노사나불이 연화대장세계에 계시면서 설하신 것이고 마지막[末]은 석가모니불께서 처음 성불하였을 때 마가다국(摩伽陀

학의 여러 분야를 연구하여 다양한 불교사상에 통달하였으며, 경·율·론의 삼장(三藏)에 걸친 많은 저술로 후세에 해동(海東)의 자은(慈恩)이라고 칭송된다. 박학다재(博學多著)하고 천성(天性)이 명민(明敏)하여 기품(氣品)을 갖춘 현인(賢人)이면서도 명예를 좋아하지 않고 숨어서 덕행을 한 까닭에 행적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경주 남산의 용장사(甬長寺)에 머물면서 신라 경덕왕(景德王, 742-764) 시대에 활약한 것만은 확실하나, 승전(僧傳)의 기록이 없다. 태현에 관한 문헌으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 4권 ‘현유가조(賢瑜伽條)’와 5권 ‘대성효이세부모조(大城孝二世父母條)’와 「경상도 강좌대도호부경주동령토함산대화엄종불국사고금역대제현계창기(江左大都護府慶州東嶺吐含山大華嚴宗佛國寺古今歷大諸賢繼冊記)」에 약간의 행적이 전해지고 있을 뿐 생물연대나 관향(貫鄉) 등은 알 수 없다. 청구사문(靑丘沙門)이라고 자호(自號)하였는데 청구(靑丘) 혹은 청구(靑邱)는 해동(海東)이라는 명칭과 함께 신라(新羅)의 고칭(古稱)이다. 한국과 중국의 문헌자료에는 거의 다 태현(大賢)으로 쓰고 있는 데 반하여 유독 『범망경고적기』에서 태현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영향으로 인하여 일본에서 전해지는 문헌자료의 대부분은 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불교전서』에 실린 『범망경고적기』에 근거하여 태현(太賢)으로 통칭한다. 태현의 저술에 관해서는 민영규(閔泳珪), 「신라장소록장편(新羅章疏錄長編)」(『백성옥송수기념불교학논문집』, 1959) pp.375-378, 조명기(趙明基),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신태양사, 1962) pp.191-194에서는 각각 45종, 54종을 들고 있으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편,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동국대출판부) pp.72-82에서는 52종을 들고 있다. 또 채인환(蔡印幻), 『신라불교계율사상연구』(국서간행회, 1977) pp.378-386에서는 43종을 들고 있다. 태현 저술의 현존하는 서명(書名)은 『범망경고적기』 2권(大40,689, No.1815, 卍1, 60, 3), 『보살계본중요』 1권(大45, No.1906, 卍1, 9, 2), 『약사경고적기(藥師經古述記)』 2권(大38,257, No.1770, 卍1, 35, 2), 『성유식론고적기(成唯識論古述記)』 8권(일명 성유식론학기, 卍1·80·1), 『기신론고적기(起信論古述記)』 1권(일명 기신론내의약탐기, 卍1·71·4)이 있다.

國) 적멸도량(寂滅道場)에서 설하신 것이다.

言時處者，本卽盧舍那佛，在蓮華臺藏世界說，末卽釋迦，初成佛時，於摩伽陀國，寂滅道場說。

2. 근기 機根

근기[機根]는 보살의 성품이 있어 발심한 자들이니 비방(誹謗)하면서 믿지 않으면 설해주지 말아야 한다.³⁾

言機根者，有菩薩性得發心者，爲謗不信，不得說故。

-
- 3) 『법망경고적기』 제 4권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가운데 ‘범답지 않은 곳에서 계를 설함을 경계하는 비처설계 제삼경(非處說戒第三經)’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1권(大30 p.1014c25)에서 ‘반드시 저 믿지 않는 자에게 설해주지 말며 그 밖에 대승을 비방하는 자에게 설해주어서는 안 된다. 既受戒已，不應向彼不信者說，乃至不向謗大乘者說.’”고 하였고 또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5b8)에 “대승을 비방하는 이와 믿지 않는 이에게 갑자기 가르침을 펴서 깨달음을 열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듣고 나서 능히 신해(信解)하지 못하며 크게 무지하여 장애에 덮이고 가려 문득 비방하게 된다. 비방으로 인하여 마치 보살이 정계율의에 머물러 한량없는 대공덕장을 성취하는 것과 같이 저 비방하는 사람도 또한 한량없는 대죄업장(大罪業障)이 따르기 때문이다. 又諸菩薩於受菩薩戒律儀法，雖已具足受持究竟，而於謗毀菩薩藏者無信有情，終不率爾宣示開悟。所以者何。爲其聞已不能信解，大無知障之所覆蔽，便生誹謗。由誹謗故，如住菩薩淨戒律儀，成就無量大功德藏，彼誹謗者，亦爲無量大罪業藏之所隨逐。乃至一切惡言惡見及惡思惟，未永棄捨終不免離。”라고 한다.

3. 장섭 藏攝

장섭(藏攝)은 보살장(菩薩藏)⁴⁾에 통하고 비나야(毘奈耶)에 속하는 것이다.

藏攝故者, 通菩薩藏, 毘奈耶攝.

-
- 4) 보살장(菩薩藏)은 성문장(聲聞藏)과 보살장(菩薩藏)으로 구분하는 이장(二藏)의 하나이다. 삼장(三藏)의 분류는 가장 오래된 분류이나 이 외에도 사장(四藏)·오장(五藏)·팔장(八藏)·십장(十藏)의 다양한 불전의 분류가 있다. 사장(四藏)은 경장(經藏)·율장(律藏)·논장(論藏)·잡장(雜藏) 또는 경장(經藏)·율장(律藏)·대법논장(對法論藏)·명주장(明呪藏)이며 오장(五藏)은 『대승이취육바라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에서 말한 경장(經藏)·율장(律藏)·논장(論藏)·반야바라밀다장(般若波羅蜜多藏)·다라니장(陀羅尼藏)과 법장부(法藏部)에서 말하는 경장(經藏)·율장(律藏)·논장(論藏)·주장(呪藏)·보살장(菩薩藏)과 대중부(大眾部)에서 세운 경(經)·율(律)·논(論)·잡집장(雜集藏)·금주장(禁呪藏)과 『성실론(成實論)』 권14 「악각품(惡覺品)」에 의거한 경(經)·율(律)·론(論)·잡장(雜藏)·보살장(菩薩藏)이다. 팔장(八藏)은 『보살처태경(菩薩處胎經)』 권7 「출경품(出經品)」의 태화장(胎化藏)·중음장(中陰藏)·마하연방등장(摩訶衍方等藏)·계율장(戒律藏)·십주보살장(十住菩薩藏)·잡장(雜藏)·금강장(金剛藏)·불장(佛藏)과 대소승(大小乘) 각각을 경(經)·율(律)·논(論)·잡(雜)의 사장(四藏)으로 분류하는 경우이다. 최근 대만 불광산사(臺灣 佛光山寺)에서 아함장(阿含藏)·선장(禪藏)·반야장(般若藏)·정토장(淨土藏) 등을 단계적으로 간행하고 있는데 신수대장경에서 부(部)로 분류한 것을 장(藏)으로 분류하여, 불전 분류(佛典 分類)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4. 번역 翻譯

번역은 후진(後秦)의 서역(西域) 삼장(三藏)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하였다. (구마라집은) 중국어로 동수(童壽)라고 하며 보살계를 수지하고 이 품(品)만을 지송[受持讀誦]하였다고 한다. 의학(義學)사문 삼천여명과 함께 소요원(逍遙園)과 장안 초당사(草堂寺)에서 경론 50여부를 번역하였는데 『범망경』⁵⁾이 마지막 번역본이다.⁶⁾ 진주(秦主, 後秦 姚興)가 금계(禁戒)를

-
- 5) 『범망경』이라는 이름의 경전은 2종이 있다. 하나는 초기경전에 속하는 것으로서, 팔리어로 씌어진 남방 상좌부의 경장(經藏)인 장부(長部)니까야의 제1경인 『범망경(梵網經, Brahmajala-sutta)』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의 번역으로 되어 있는 『범망경』(大24-997)이다. 이 경은 보통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 혹은 『보살계본(菩薩戒本)』으로 불리는데 정확한 제명(題名)은 『범망경』 「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이다. 이러한 제명(題名)이 붙은 이유는 “『범망경』의 광본(廣本)에서 보살의 계위(階位)와 계율에 관한 제십보살심지(第十菩薩心地)의 1품만을 송출(誦出)한 것이 이 경이다.”라고 하는 라집역(羅什譯) 『범망경』 서문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전의 이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경록(經錄)인 승우삼장(僧祐三藏)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권11에 수록된 작자 미상(未詳)의 「보살바라제목차후기(菩薩波羅提木叉後記)」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천축(天竺)의 구마라집 법사가 이 계본(戒本)을 송출한 점, 그리고 이것이 『범망경』 중에 수록되어 있는 점 등이 기록되어 있다. 라집역(羅什譯) 『범망경』은 대승보살계를 설한 경전으로서 대장경 중에서는 대승율부(大乘律部)에 속하며, 상하(上下) 2권으로 되어 있다. 상권에서는 십발취(十發趣), 십장양(十長養), 십금강(十金剛), 십지(十地) 등 보살수도(菩薩修道)의 사십위(四十位)가 설해지며, 하권에서는 십중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經戒)가 설해지고 있다. 법장(法藏) 등이 모두 이 하권(下卷)을 인용하여 주소(註疏)를 지은 것은 본경(本經)의 주된 취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 범망계(梵網戒)의 특성은 재가와 출가 모두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며, 자기의 불성을 개발하려는 불자(佛子)의 자각에 입각하여 보살도 실천을 기본으로 하는 불성계(佛性戒)이다. 본 계법은 가정과 사회에서 발

받고자 하므로 특별하게 외우면서 번역해 내니 혜관(慧觀)과 도융(道融)⁷⁾

생하는 중생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유리되지 않으나 다만 방비지악(防非止惡)의 한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소극적인 자리행(自利行)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범망경』 하나하나는 대승계의 진면목인 섭율의계(攝律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요익중생계(饒益衆生戒) 등 삼취정계(三聚淨戒)의 본의를 구비하고 적극적인 작선(作善)을 강조하며 타인을 교화하려는 대방편의 참된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론(經論)에 대하여 『고승전(高僧傳)』 「구마라집전(鳩摩羅什傳)」은 31부 300여권이라 하며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은 35부 294권,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은 74부 384권,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는 97부 425권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많은 의경(疑經)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범망경』은 구마라집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 근거한 『범망경』의 번역연대는 홍시(弘始) 8년(406)으로, 그 후 홍시 11년까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등 10여 종류의 경전이 더 번역되므로 홍시(弘始) 8년(406)에 마지막으로 번역된 번역본이라는 의미이지 라집(羅什) 생애의 최후 번역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천(定泉)의 『보망초(補忘鈔)』에서도 ‘50여 부라는 것은 홍시 3년부터 8년 사이에 번역된 권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7)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권11의 ‘보살바라제목차후기(菩薩波羅提木叉後記, 大55 p.70b)’에 “삼천학사(三千學士)와 라집이 참여하여 대소승 50부를 정(定)하고, 보살십중사십팔경(菩薩十重四十八輕)을 최후에 송출(誦出)하였다. 그때 융(融)·영(影) 300인 등은 일시(一時)에 받아 행하여 보살도를 닦았다.”고 하며, 또 승조(僧肇)가 지은 『범망경』의 경서(經序)에는 ‘라집이 의학사문(義學沙門) 300여 승(僧)과 함께 손에 범문(梵文)을 들고 입으로 번역 해석한 것이 50여 부인데, 다만 『범망경』 120권 61품 가운데 「보살심지품(菩薩心地品)」 제십(第十)만이 오로지 보살행지(菩薩行地)를 밝힌 것이다. 이때에 도융(道融)·도영(道影) 300인 등은 곧 보살계를 받고 사람들이 각각 이 품을 외워서 마음에 으뜸으로 삼았다.’고 실려 있으나, 라집의 전기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여기서는 ‘융(融)·영(影)’ 대신 ‘혜융등필수(慧融等筆受)’라고 하였다. 당시 라집 문하 삼천인(羅什門下三千人)중 관중(關中)의 사성(四聖)이라고 불리우던 이는 승조(僧肇), 승예(僧叡), 도생(道生), 도융(道融)이다. 여기에 도항(道恒), 담영(曇影), 혜관(慧觀), 혜엄(慧嚴)을 더하여 팔숙(八宿)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가운데 혜관(慧觀)과 도융(道融)으로 보았다. 혜관은 원래 혜원(慧遠)의 문하(門下)이나 도생(道生)등과

등이 필수(筆受)⁸⁾하였다고 한다.

翻譯故者，後秦有西域三藏鳩摩羅什。此云童壽，持菩薩戒，偏誦此品。與義學沙門三千餘人，遂於逍遙園，及長安草堂寺，翻譯經論 五十餘部，最後，因秦主欲受禁戒，別誦譯出，慧融等筆受。

1) 분량 頌品

법장(法藏)스님은 “서역(西域)에 십만 송 육십일 품이 있었는데 모두 번역하면 삼백여 권이 된다.”고 하였고 이 경의 서문에서는 “가히 백이십 권이 있다.”⁹⁾고 하였다.

法藏師云，“西域有十萬頌六十一品，具譯成三百餘卷。”此經序云，“可有一百二十卷。”

함께 라집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교오시(二敎五時)의 중국 교상판석(敎相判釋)의 창시자이며, 『돈오점오의(頓悟漸悟義)』로 최초 돈점문제를 거론하였다.

- 8) 필수(筆受)는 불전을 한역하는 경우, 역주가 읽은 범어를 그대로 한자로 음역한 것을 다시 한어(漢語)로 옮기는 자를 말한다. 번역을 필기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 9) 승조의 서문(序文)에서는 “梵網經，一百二十卷 六十一品，其中菩薩戒心地品第十，專明菩薩行地.”라고 하였고 의적(義寂)의 소(疏)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천태의기(天台義記)』와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서(序)에서는 112권 61품 설, 명광(明曠)이 산보(刪補)한 『천태보살계소(天台菩薩戒疏)』에서는 152권 61품, 법장(法藏)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에서는 ‘십 만 송 61품으로 갖추어 한역하면 300권’이라고 한다. 『범망경보살계본소』 6권(大40 p.605a11) 「제팔명교본말(第八明敎本末)」에 “先明此戒後，顯餘類。初此戒來處者，此三世諸佛本戒法界法爾，非新所制，舍那菩薩修行此戒位滿成佛，於蓮華臺藏世界之中，爲欲利樂諸衆生故，還自誦出傳授化身，令各就機於閻浮提，爲諸衆生方便誦顯。是故得有如斯戒本，若論具本，什公相傳云，西域有十萬頌 六十一品，具翻應成三百卷，未至此土故不具也，”라고 했다.

2) 중국과의 인연 中國 因緣

(1) 숙연 宿緣

또 율대의 대덕들이 전하기를 “진제삼장(眞諦三藏)¹⁰⁾이 보살율장(菩薩律藏)을 갖고 오고자 하였다. 이때 남해에서 배에 실었는데 가라앉으려 하므로 다른 물건을 던져내었으나 그래도 배가 뜨지 못하였다. 다만 율본(律本)만을 내려놓으니 배가 비로소 움직이므로 진제삼장이 탄식하기를 ‘보살계율이 중국과 인연이 없으니 매우 슬프다.’¹¹⁾고 하였다.” 한다.

10) 양무제(梁武帝)가 부남국(扶南國)에 명승(名僧) 초빙(招聘)을 의뢰함으로 인하여 ‘진제삼장(眞諦三藏, 499-569)’이 대동(大同) 12년 546년 남해(南海)에 이르고, 그 2년 후 건강에 당도하여 양무제를 접견하게 된다.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 근거하면 구마라집의 『범망경』 번역 연대는 홍시(弘始) 8년(406)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중국에는 『범망경』 범본이 들어와 번역된 상태이며 충분히 유통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유석암(柳錫巖)스님의 『범망경』 설법집 p.80과 석성우 스님의 『범망경보살심지계품(梵網經菩薩心地戒品)』 강의 초안(講義鈔安) p.7에서는 위의 ‘진제삼장(眞諦三藏)’ 대신 ‘축법호삼장(竺法護三藏, 265-290)’을 들고 있다. 이는 구마라집의 한역 이전 범본유입 과정으로 보아 연대상의 하자는 없으나 서진 무제(西晉武帝, 239-316)때의 돈황보살 축법호(竺法護)는 스승 축고좌(竺高座)를 따라 돈황에서 서역남도(西域南道)를 거쳐 우전(于闐)으로 가 다시 사륙(沙勒)에 이르고, 마침내 서역북도(西域北道)인 천산남로(天山南路)로 길을 바꾸어 구자국(龜茲國)을 통과하여 돈황(敦煌)으로 돌아왔으므로 완전하게 서역을 일주한 육로의 길이었다. 그 여정에 36개국 말을 정통하고 범본경전(梵本經典)을 많이 가지고 돌아와 한평생 번역에 종사하였으니(266년~313년사이) 『정법화경(正法華經)』 등 165부이다.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해로(海路)는 세일론, 자바, 말레이반도, 베트남 경유, 중국남부 교지(交趾)나 광주 남해(廣州 南海)에 도달하는 것으로 구나발타라, 진제, 불타발타라 등은 남쪽 해로를 이용한 경우이나 축법호는 육로로 가서 육로로 돌아온 경우이므로 여기에 이의가 있다. 鎌田茂雄, 『중국불교사(中國佛教史)』 1, 서울, 장승, 1993. pp.91-96

11) 『범망경보살계본소』(大40 p.605a21) “又上代諸德相傳云, 眞諦三藏, 將菩薩律藏,

又上代諸德相傳云, “眞諦三藏, 將菩薩律藏擬來. 此時於南海上船, 船即欲沒, 省去餘物, 仍猶不起. 唯去律本, 船方得進, 眞諦歎曰, ‘菩薩戒律, 漢地無緣, 深可悲矣.’”

(2) 개연성 蓋然

또 담무참(曇無讖) 삼장(三藏)이 서량주(西涼州)에 있을 때 사문 법진(法進) 등이 담무참에게 보살계 받기를 구하고 계본(戒本)도 청(請)하였다. 담무참이 말하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거친 까닭에 어찌 보살도를 행할 그릇이 될 수 있으리오.” 하며 끝내 주지 않았다. 법진 등이 간절하게 청하였으나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불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계를 구하였다. 칠일을 막 채우자 꿈에 미륵(彌勒)이 나타나서 친히 계를 주시고 아울러 계본(戒本)도 받아 모두 외웠다. 깨어난 후 담무참을 만나게 되었는데 담무참이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찬탄하기를 “중국 땅에도 사람이 있었구나!”하며 계본을 번역하여 법진 등에게 주니 꿈에 외웠던 글과 뜻이 같았다. 요즈음 별행(別行)되는 『보살지지계본(菩薩地持戒本)』¹²⁾으로 첫 머리에 귀경계(歸敬偈)를 둔 것이 이것이다.¹³⁾

擬來此土, 於南海上船, 船便欲沒, 省去餘物, 仍猶不起. 唯去律本, 船方得進. 眞諦歎曰, 菩薩戒律, 漢土無緣, 深可悲矣.”

12) 약칭(略稱) 『보살계본(菩薩戒本)』으로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하였다. 『보살지지경』 권4 「방편품(方便品)」의 계만을 독송용으로 별도 편집한 것으로 귀경계(歸敬偈)가 앞에 있다.

13) 이에 대한 기사는 『법망경보살계본소』(大40 p.605a24)의 “又曇無讖三藏, 於西涼洲有沙門法進等, 求讖受菩薩戒, 并請翻戒本. 讖曰, 此國人等, 性多狡猾, 又無剛節, 豈有堪爲菩薩道器. 遂不與授. 進等苦請不獲, 遂於佛像前立誓, 邀期苦節求戒. 七日纔滿夢見彌勒, 親與授戒并授戒本, 並皆誦得後覺已見讖, 讖睹其相異, 乃昌然歎曰, 漢土亦有人矣. 卽與譯出戒本一卷, 與進夢誦文義扶同. 今別行地持戒本, 首安歸命偈者是也.”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梁高僧傳』 권2 「曇無讖」 권7

又曇無讖三藏，於西涼州有，沙門法進等，求讖受菩薩戒，并請戒本。讖曰，“此國人羸，豈有堪爲菩薩道器。”遂不與授。進等苦請，不獲所願，於佛像前，立誓求戒。七日纔滿，夢見彌勒，親與授戒，並受戒本，並皆誦得。覺已見讖，讖觀其相異，喟然歎曰，“漢地亦有人矣！”則與譯出戒本與進，夢誦文義相同。今別行地持戒本，首安歸敬偈者是。

(3) 대승과 소승을 겸하여 수행 大小兼行

또 들으니 “서역의 여러 소승사찰에서는 빈두로(賓頭盧)를 상좌로 모시고, 여러 대승사찰에서는 문수사리(文殊師利)를 상좌로 모셨다. 대중이 함께 모일 때는 모두 보살계(菩薩戒)를 수지하였으며, 갈마(羯磨)하고 설계(說戒, 布薩)할 때에도 다 보살법사(菩薩法事)를 행하고 보살율장(菩薩律藏)을 늘 외워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又聞，“西域諸小乘寺，以賓頭盧爲上座，諸大乘寺，以文殊師利爲上座。合衆共持菩薩戒，羯磨說戒，皆作菩薩法事，菩薩律藏，常誦不絕。”

(大50 p.336c20)의 기사에 “初讖在姑臧，有張掖沙門道進，欲從讖受菩薩戒。讖云，且悔過乃竭誠七日七夜，至第八日詣讖求受，讖忽大怒。進更思惟，但是我業障未消耳。乃戮力三年，且禪且懺。進卽於定中，見釋迦文佛與諸大士，授已戒法。其夕同止十餘人，皆感夢如進所見。進欲詣讖說之，未及至數十步，讖驚起唱言，善哉善哉，已感戒矣。吾當更爲汝作證。次第於佛像前，爲說戒相。時沙門道朗，振譽關西，當進感戒之夕，朗亦通夢，乃自卑戒臘求爲法弟。於是從進受者千有餘人。傳授此法迄至于今，皆讖之餘則。有別記云，菩薩地持經，應是伊波勒菩薩傳來此土，後果是讖所傳譯。”이라 하여 두 기사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5. 종취 宗趣

1) 총괄적 요지 總

종취(宗趣)란 말로 표현한 것을 종(宗)이라 하고, 종이 돌아가야 할 바를 취(趣)라고 한다. 이 경은 바른 심행(心行)을 종으로 삼고 깨달음을 증득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그 취를 삼았다.

言宗趣者，語之所表曰宗，宗之所歸曰趣。此經正以心行為宗，證覺利生以爲其趣。

2) 심행 心行

(1) 총 總

심행(心行)에는 간략하게 두 개의 문[二門]이 있으니, 첫 번째 바른 행을 가르치는 문[敎正行門]이고 두 번째 악행을 경계하는 문[誡惡行門]이다.

言心行者，略有二門，一敎正行門，二誡惡行門。

(2) 바른 행 正行

바른 행을 가르치는 문이란 곧 경의 앞부분(上, 1권 2권)에서 설한 삼현(三賢)과 십성(十聖)¹⁴⁾의 자내증(自內證)의 행이다.

14) 십성(十聖)은 십지(十地)의 다른 말이다. 『범망경』의 삼현십지(三賢十地)는 『화엄경』 등과 명칭이 다르다. 삼현(三賢)은 십발취(十發趣)·십장양(十長養)·십금강(十金剛)이며 십지(十地)는 체성평등지(體性平等地)·체성선혜지(體性善慧地)·체성광명지(體性光明地)·체성이염지(體性爾焰地)·체성혜조지(體性慧照

教正行者, 卽經初說, 三賢十聖, 內證之行.

(3) 악행을 경계 誠惡行

악행을 경계하는 문이란 경의 뒷부분(下, 3권 4권)에서 설한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의 행(行)이다. 경에서 자세하게 설하였으니 후에 마땅히 알지니라.

誠惡行者, 卽經後說, 十重四十八輕戒行. 經自廣說, 如後應知.

3) 돌아가야 할 바 취지 歸趣

돌아가야 할 바 취지[所歸趣]에도 두 개의 문이 있다. 첫 번째 여래성의 문[如來性門]이고 두 번째 발취상의 문[發趣相門]이니 소취(所趣)와 능취(能趣)는 다음과 같이 알지니라.

所歸趣者, 亦有二門. 一如來性門, 二發趣相門, 所趣能趣, 如次應知.

(1) 여래성의 문 如來性門

① 진여성 眞如性

여래성(如來性)¹⁵⁾이란 곧 진여성(眞如性)이다. 경(經)에 적멸(寂滅)이라 한 것은 일심(一心)이니, 일심이란 여래장(如來藏)¹⁶⁾이다. 중생심(衆生心)

地)·체성화광지(體性華光地)·체성만족지(體性滿足地)·체성불후지(體性佛吼地)·체성화엄지(體性華嚴地)·체성입불계지(體性入佛界地)이다.

15) 여래성(如來性, tathāga-tadhātu)은 여래의 법성, 여래의 진여와 동일한 의미이다.

16) 여래장(如來藏, tathāgata-garbha)은 번뇌 속에 있어도 번뇌에 물들지 않고 본래 청

은 생겨나는 듯[生] 하여도 생겨남이 없는 성품이 고요한 일심(一心)의 바다라고 하며, 생겨나는 듯한 상(相)이 유전하여 육도(六道)의 파도를 이루는 것이다. 가령 『부증불감경(不增不減經)』에서 말하기를 “이 법신(法身)이 생사를 따라 흘러 다니면 중생이라 이름하고 이 법신이 여러 바라밀(波羅蜜)을 수행하면 보살이라 이름하며 이 법신이 피안(彼岸)에 머무르면 제불(諸佛)이라 이름한다.”¹⁷⁾ 고 한 것과 같다.

如來性者，卽眞如性。如經寂滅者，名爲一心，一心者名如來藏。謂衆生心，似生無生之性，寥爲一心之海，似生之相，流成六道之波。如不增不減經云，“卽此法身 飄流生死 名爲衆生，卽此法身 修行諸度 名爲菩薩，卽此法身 住於彼岸 名爲諸佛。”

② 여래장 如來藏

이것은 다시 무엇인가? 생사의 꿈은 다만 미(迷)한 마음에 있고 허망한

정하고 영원하여 변함이 없는 깨달음의 본성이다. 염정(染淨) 등 모든 현상이 여래장에서 연기한다고 하는 것을 여래장연기(如來藏緣起)라고 하며 『여래장경(如來藏經)』(大16 pp.457a~460b)에서는 아홉 가지 비유를 들어 해석하고 있다. 여래는 ‘오염되지 않은 나의 법성’, 혹은 ‘여래지(如來智)’, ‘여래안(如來眼)을 갖춘 여래’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제2의 비유에서는 ‘여래의 지견(知見)’, ‘여래법성(如來法性)’, ‘태아의 상태에 있는 여래의 법성’, ‘여래의 종성(種姓)’, ‘법장(法藏)’, ‘불체(佛體)’, ‘불괴(不壞)의 것’, ‘지장(智藏)’, ‘여래신(如來身)’, ‘여래지(如來智)’, ‘시방사무의(十方四無畏)’ 등 불타의 모든 덕성의 장(藏)을 말한다.

- 17) 『불설부증불감경(佛說不增不減經)』(大16 p.467b6) “舍利弗，卽此法身，過於恒沙無邊煩惱所纏，從無始世來 隨順世間波浪漂流，往來生死名爲衆生。舍利弗，卽此法身，厭離世間生死苦惱，棄捨一切諸有欲求，行十波羅蜜，攝八萬四千法門，修菩提行名爲菩薩。復次舍利弗，卽此法身，離一切世間煩惱使纏，過一切苦，離一切煩惱垢，得淨得清淨，住於彼岸清淨法中，到一切衆生所願之地，於一切境界中，究竟通達更無勝者，離一切障離一切礙，於一切法中得自在力，名爲如來應正遍知。”

습기(習氣)¹⁸⁾가 마음을 요동하여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또는 눈[眼] 등과 비슷하며 또는 색(色) 등과 비슷한 것이 마치 눈병 난 눈으로 허공 꽃[空華]을 보는 것과 같다. 천지산하(天地山河)가 비록 끝이 없으나 마치 꿈에 본 바와 같아 의거(依據)할 곳[方, 方所]이 없다. 색 등 경계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장식(藏識)¹⁹⁾의 바다에서 전식(轉識)²⁰⁾의 파도를 일으켜 육처

-
- 18) 습기(習氣, *vāsanā*)는 유식설에서는 종자(種子)의 다른 이름으로 훈습(薰習)이나 행위(行爲) 등의 일체 유위법(一切 有爲法)을 산출하는 공능(功能) 혹은 능력(能力)으로 아뢰야식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 종자의 이명(異名)인 습기는 『유가사지론』 권52(大30 p.589a9-11)에 기술되어 있으며, 『성유식론』 권8(大31 p.43b2-18)에는 삼중(三種)의 습기에 대한 기술이 있다. 즉 ① 명언습기(名言習氣)는 명언에 의해서 훈습된 종자, 곧 명언종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체 유위법을 각각 생기게 하는 직접적인 인(因)으로, 곧 등류과를 이끌어 내는 점에서 등류습기(等類習氣)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표의명언(表義名言)에 의한 습기와, 현경명언(顯境名言)에 의한 습기의 2종으로 나뉜다. ② 아집습기(我執習氣)는 아집에 길들여진 습기이며 ③ 유지습기(有支習氣)는 삼유(三有)의 인(因)인 선악의 업에 훈습된 업종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숙과(異熟果)를 초래하는 점에서 이숙습기(異熟習氣)라고도 한다.
- 19) 장식(藏識, *ālaya-vijñāna*)은 8식의 하나로 곧 제8아뢰야식을 가리킨다. 제8식에는 능장(能藏)·소장(所藏)·집장(執藏)의 뜻이 있다고 하여 현장(玄奘)은 장식(藏識)이라고 번역했고, 진제(眞諦)는 제8식이 중생의 근본심식(根本心識)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물식(無沒識)이라고 했다.
- 20) 전식(轉識, *pravṛti-vijñāna*)은 제7식을 가리키는데 유식사상사에서는 네 단계로 전개하고 있다. 제1단계는 미륵(彌勒)의 사상으로 제7식은 맹아(萌芽)라고 하는 자아(自我)이다. 식을 본식(本識)과 전식(轉識)으로 나누었을 때 제7식은 전식에 포함되며, 제6 의식과는 작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제2단계는 무착(無着)의 사상으로 제7식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염오(染汚)의 뜻이다. 여기서 그것은 전식에서 본식(本識)으로 바뀌어도 아뢰야식과는 작용이 다르다. 제3단계는 세친(世親)의 사상으로 제7식은 말나식(末那識)이다. 본식이 아뢰야식과 말나식으로 이분(二分)되어 있는데, 작용(作用)과 체성(體性)이 다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제4단계는 안혜(安慧)와 호법(護法)의 사상이다. 안혜도 제7식 말나식을 말하나, 호법에게 와서 비로소 제7식으로서 분명하게 언

(六處)에 속구쳐서 육진(六塵)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색과 소리 등은 다만 꿈속의 경계[塵]와 같아 심행상(心行相)을 제외하고는 다 얻을 바가 없으니 경계가 곧 마음이며 마음이 경계와 같아서 공(空)하다. 미(迷)하기에 나고 죽으며, 깨닫기에 열반이라 하니, 이 때문에 공(空)한 성품을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한다.

此復云何? 生死之夢, 唯有迷心, 虛妄習氣擾濁心故. 或似眼等, 或似色等, 猶如瞽²¹⁾眼所見空華. 天地山河雖無邊際, 如夢所見, 莫據之方. 色等境風之所擊動, 藏識海中, 轉識浪起, 涌於六處, 分別六塵. 然色聲等, 唯如夢塵, 除心行相, 都無所得, 境既即心, 心如境空也. 迷故生死, 悟故涅槃, 是以空性, 名如來藏.

(2) 발취상의 문 發趣相門

① 서원 誓

두 번째 발취문(發趣門)이란 이와 같이 안에 여래성(如來性)이 있으므로 ‘모든 유정(有情)들이 여래장은 같으나 망념에 나부끼어 괴로운 윤회[苦輪]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말을 듣고, 생사의 대해(大海)에서 배를 짓는 노[楫]가 되리라는 서원(誓願)을 세우고 그 속에서 받는 큰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너짐 없고 걸림 없이 기꺼이 뜻[意樂]²²⁾을 발하는 것을 대보리(大菩

급된다. 말하자면 안혜는 말나식을 전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호법의 제7식을 전식으로 설명한다. 즉 안혜는 아뢰야식과 말나식이 작용이 다르다고 여기고, 호법은 아뢰야식과 제7식이 체성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21) 卍60 p.369a2와 大40 p.689c23과 藥師寺藏本에는 ‘가릴 예(翳)’로 되어 있으나 韓 3 p.419b13에는 ‘눈에 백태 낄 예(瞖)’로 되어 있다.

提)라고 한다. 만약 법을 얻는다면 나 또한 대장부라. 삼대아승기야(三大阿僧企耶) 동안 단절되었더라도 그것을 기약하는 사람은 반드시 벗어날 수 있으며,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가 비록 멀다 하여도 서원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

第二發趣門者，如是內有如來性故，聞‘諸有情同如來藏，妄念所飄，苦輪無際’，生死大海，誓爲舟楫，不畏其中所受大苦。發不可壞無礙意樂，謂大菩提。若可得法，我亦丈夫。三大阿僧企耶雖絕，期之者，要可出之，無上正等菩提雖遠，誓之者，定有至也。

② 행상 行相

어찌 무명의 곱질을 깨뜨리고 법계(法界)의 대웅[大雄]²³⁾과 융화[融化]

22) 의요(意樂, āśaya)는 아세야(阿世耶)라고 음역하며 한글 음으로 ‘의요’라고 통일한다. 휴식처(休息處)·주처(住處)·사의(思意)·의향(意向)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의요(意樂)’·‘의욕(意欲)’·‘지원(志願)’이라고 한역한다. 무엇인가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므로 이 번역본에서는 일반적 이해를 위하여 ‘의욕’과 ‘의지’ 또는 ‘하고자 함’으로 번역하였다. 『구사론』 권14(大29 p.75a13-15)에는 선의요(善意樂)와 불선의요(不善意樂)로 나누어서 “즉 악불선(惡不善)을 짓고자 하는 의요가 상속하여 사기(捨棄)되지 않음을 불율의(不律儀)라고 이름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그 후 비록 선심(善心)이 일어나더라도 불율의를 성취한 자라고 이름 하게 되니, 이러한 아세야(阿世耶)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卽欲造惡，不善意樂，相續不捨，名不律儀。由此後時，善心雖起，而名成就不律儀者，以不捨此阿世耶故。”라고 하였고, 또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권3(大30 p.493a16-19)에서는 “此貪行貪阿世耶，此瞋行瞋阿世耶，此癡行癡阿世耶，此等分行等分阿世耶。此昇進阿世耶，此不昇進阿世耶，此微薄塵垢賢善阿世耶。”라고 설명하고 있다.

23) 대웅(大雄)은 세웅(世雄)과 같은 뜻으로 부처님의 존칭이다. 부처님은 대정력(大定力)이 있어 큰 지혜를 갖추시며 세간에서 가장 융맹스럽게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큰 덕으로 중생을 교화하므로 대웅이라 부르고 그를 모신 곳을 대웅전(大雄殿)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량수경(無量壽經)』 권상에 “今

하지 않겠는가! 보살을 가까이 하여 정법(正法)을 들으며 지혜로 어머니를 삼고 방편으로 아버지를 삼으며, 널리 중생을 거두어 자기 권속(眷屬)을 삼고 공적(空寂)으로 집을 삼으며, 법희(法喜)로 아내를 삼고 자심(慈心)으로 딸을 삼으며 지성(至誠)으로 아들을 삼는다.²⁴⁾

蓋決無明之蔽，常²⁵⁾融法界之雄！親近善士，聽聞正法，智慧爲母，方便爲父，廣攝衆生爲自眷屬，空寂爲家，法喜爲婦，慈心爲女，至誠爲男。

③ 머무르지 않는 도에 올라 乘不住道

비록 집에 있더라도 삼유(三有)²⁶⁾에 집착하지 않고 오욕락(五欲樂)을 누리는 모습을 보이나 항상 범행(梵行)에 머무른다. 거리에 노닐되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내며 남을 의롭게 하고자 자신의 목숨도 능히 버린다. 강론하는 곳에 나아가서는 대승으로 이끌어주고 학당(學堂)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을 이끌어 깨우쳐준다.²⁷⁾ 혼란한 가운데 친구를 사귀되 받드

日世雄住佛所住.”이라 하였고, 『법화경(法華經)』 「방편품(方便品)」에 “世雄不可量”이라 한다.

24) 『유마힐소설경』 「불도품(佛道品)」 제8(大14 p.549c1-5)에서 유마힐이 계승으로 답하기를 “지혜 바라밀로 보살의 어머니를 삼고 방편으로 아버지를 삼으니 일체 중생을 이끌어 주는 스승이 이로 인하여 나지 아니함이 없도다. 법희로 아내를 삼고 자비심으로 딸을 삼으며 선심과 성실로 아들을 삼고 필경에 공적한 것으로 집을 삼노라. 維摩詰以偈答曰，智度菩薩母，方便以爲父，一切衆導師，無不由是生。法喜以爲妻，慈悲心爲女，善心誠實男，畢竟空寂舍。”라고 하였다.

25) 卍60 p.369a12와 大40 p.690a5와 藥師寺藏本에는 ‘掌’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19c3에는 ‘常’으로 되어 있다.

26) 삼유(三有, 卍trayo-bhavāh)는 중생이 생사에 윤회하는 미혹의 생존계인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의 삼계(三界)를 오가는 중생을 총칭하는 말로 삼유생사(三有生死)라고도 한다. 그 중에서 색계와 무색계는 욕계보다 위에 있으므로 상이계(上二界) 또는 상계(上界)라고 한다.

시 그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고, 달빛 아래에서 생각을 잊어버리되 그림자 속에서 도(道)를 맞본다. 초계(草繫)²⁸⁾의 공덕에도 본래 풍운(風雲)이 있고, 미색(美色)과 사귀면서도 또한 그 공(空)함을 안다. 대비와 반야의 도움으로 머무르지 않는 도에 올라[乘不住道] 마음의 실제(實際)에 이르러[至] 다만 모든 마음에서 자성을 반조(返照)하게 하나니 어두운 지위[位]를 밝혀주는 불보살로 서기 때문이다.

雖在居家，不著三有，雖現受欲，常住梵行。遊於衢路，利物爲心，欲成他義，能捨自命。詣講論處，導以大乘，入諸學堂，誘開童蒙。風前交友，必簡其師，月下忘懷，影中味道。草繫之功，自有風雲，交遊美色，亦知其空。大悲般若之所輔翼，乘不住道，至心實際，但於諸心，返照自性，明昧位立佛菩薩故。

④ 보살행 菩薩行

무엇을 머무르지 않는 도[不住道]라고 하는가? 공(空)과 유(有)의 양 극단[邊]에 머무르지 않는 지혜이다. 말하자면 전도된 연(顛倒緣)으로 세간

27) 『유마힐소설경』 「방편품(方便品)」 제8(大14 p.539a27-28) “강론하는 곳에 나아가서는 대승으로 이끌어 주고 학당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을 이끌어 깨우쳐준다. 入講論處導以大乘，入諸學堂誘開童蒙.” 이 구절을 전후하여 전체가 똑 같은 문장은 아니어도 중도적인 대승보살도를 나타내는 『유마경(維摩經)』에서 뜻만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초계(草繫)’는 『대장엄경론(大莊嚴經論)』 3권(大4 pp.268c5-269c24)에 나오는 일화로 ‘옛날 인도에서 비구들이 길을 가다가 도적떼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벗은 채로 풀에 묶이게 되었다. 도둑이 다 가버린 후에도 비구들은 풀이 끊어져 상할 것을 염려하여 묶인 채로 뜨거움과 굶주림을 참고 있었다. 그때 마침 사냥 나왔던 왕이 비구들을 보고 풀어 주고는 비구들의 행에 감동하여 귀의하였다.’ 이 이야기는 금계의 중요하고 엄격함을 비유한 것으로 『범망경』 권下(大12 p.1007c), 『열반경』 26권(大12 p.520a) 등에도 나온다.

상(世間相)이 있고, 이미 전도됨이 있기에 유(有)와 무(無)를 벗어나야 한다. 성천(聖天)보살이 “유(有)는 진유(眞有)가 아니고 무(無) 또한 진무(眞無)가 아니다.”²⁹⁾라고 한 것과 같다.

망식(妄識)³⁰⁾에서는 마치 있는 듯 나타나도 증지(證智)에서는 얻을 바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승의(勝義)에서는 필경 없는 것[畢竟無]이 아니니, 승의에서 무(無)라면 속제(俗諦)에서도 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유(有)를 떠난 성품으로 반야의 공(空)을 증득하며, 무를 떠난 성품으로 대비의 유(有)를 제거한다. 유를 제거하므로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공(空)을 증득하므로 생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변(二邊, 涅槃과 生死)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범부와 이승(二乘, 小乘)이 다르며, 범부와 이승(二乘)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보리(菩提)를 증득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 “공(空)의 성상(性相)에서 잃어버림이 있으면 곧 일체 대승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로써 보살이 육바라밀을 행할 때에 모두 얻을 바가 없는 것으로써 방편을 삼는다.”³¹⁾고 한 것과 같다.

얻을 바가 없다는 것[無所得]은 곧 머무르지 않는 도[不住道]이다. 만약 공(空)과 유(有)를 얻을 것이 없다면, 공(空)또한 공하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는 것이다.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삼륜(三輪)이 청정하니 이것이 구경

-
- 29) 『광백론(廣百論)』 「파변집품제육(破邊執品第六)」(提婆菩薩著 玄奘譯 大30 p.186c15)
- 30) 망식(妄識)은 중국의 지론종(地論宗)에서는 제8 아뢰야식의 순정무구(純淨無垢)한 진식(眞識)으로, 섭론종(攝論宗)에서는 이것을 진망화합(眞妄和合)의 식(識)으로, 법상종(法相宗)에서는 망식(妄識)으로 각각 다르게 보았다.
- 31) 『유가사지론』 彌勒菩薩說 玄奘譯 卷第77 「攝決擇分中菩薩地」 6(大30 p.727a13)에 “善男子, 若諸菩薩, 於空性相有失壞者, 便爲失壞一切大乘. 是故汝應諦聽諦聽. 當爲汝說總空性相. 善男子, 若於依他起相及圓成實相中, 一切品類雜染清淨, 遍計所執相畢竟遠離性, 及於此中都無所得, 如是名爲於大乘中總空性相.”이라 한다. 태현은 『유가사지론』에 나타난 공(空)의 성상(性相)의 실천을 육바라밀 수행과 결합하여 낱말이 설명하고 있다.

의 보살행을 닦는 것이라고 한다.

云何名爲不住道耶? 於空有邊不住慧也. 謂顛倒緣, 有世間相, 旣顛倒有, 卽離有無. 如聖天言, “有非真有故, 無亦非真無.” 謂於妄識似有而現, 卽於證智似無所得. 然於勝義, 非畢竟無, 諸勝義無, 俗亦無故. 旣離有性, 般若證空, 亦離無性, 大悲拔有. 拔有之故, 不住涅槃, 證空之故, 不住生死. 不住二邊, 異凡二乘, 異凡小故, 自證菩提. 如瑜伽云, “於空性相有失壞者, 便爲失壞一切大乘. 是以菩薩行六度時, 皆無所得以爲方便.” 無所得者, 卽不住道. 若唯空有, 便可得無, 而復空空, 故無所得. 無所得故, 三輪清淨, 是名究竟修菩薩行.

6. 제명 題名

1) 제목 題目

□ 『범망경』 「노사나불설보살심지법문품」 제십

『梵網經』 「盧舍那佛說菩薩心地法門品」 第十

■ 제명(題名)이란 『범망경』³²⁾은 한 부(部) 전체의 이름이며 「노사나불설보살심지법문품(盧舍那佛說菩薩心地法門品)」 제십(第十)이란 이 품(品)의 다른 이름이다. ‘범(梵)’이란 능히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며 ‘망(網)’이란 유

32) 『범망경』의 ‘범망(梵網)’은 견망(見網)의 법문(法門)과도 통하는데, 이는 곧 어부

정(有情)을 포섭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이 경은 유정천(有頂天, 아가니 타천·色究竟天)에 이르기까지 생사의 대해(大海)에서 유정을 꺼안아 마침

가 그물로 고기를 잡아 올리듯 모든 사된 견해를 끌어올려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제석(帝釋)의 인드라망 구슬이 서로 비추어 중중무진의 세계를 나타내듯 계를 의지하여 육도윤회의 업(業)을 맑혀 해탈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도 분석할 수 있다. 다른 경전과 연관성을 살펴보면 십중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輕戒)를 설하는데 있어서 연화장세계의 노사나불이나 천엽(千葉)의 석가(釋迦), 그리고 천백억석가(千百億釋迦)의 금강천광왕좌(金剛千光王座)를 비롯하여 마해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에 이르는 설법회좌(說法會座)의 조직은 『화엄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보살계경(菩薩戒經)』으로 별행(別行)되는 것은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보살계본(菩薩戒本)』의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십중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輕戒)가 설해지기 이전의 이 계를 ‘불성계(佛性戒)’ 혹은 ‘불계(佛戒)’ 등으로 부르는 것은 『열반경』의 영향으로, 십발취(十發趣) 이하의 사십심(四十心)은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계를 ‘효(孝)’라고 이름 한 것은 유교사상(儒敎思想)을 도입한 것이며 더구나 이 ‘효순심(孝順心)’이 불교의 ‘자비심(慈悲心)’과 병용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십중계는 『보살지지경』,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열반경』 등과 관련이 있다. 즉 『보살지지경』의 사중(四重)은 『범망경』 십중(十重) 가운데 제7 이하의 네 개 조항과 합치하고, 『보살선계경』의 팔중(八重)은 『범망경』의 제5, 제6의 이계(二戒)를 제외한 나머지 것이며 『우바새계경』의 육중계(六重戒)는 『범망경』 최초의 육중(六重), 『열반경』의 성중계(性重戒)는 『범망경』의 처음 사중(四重)과 같다. 또한 소승율의 사바라이죄(四波羅夷罪)도 『범망경』의 처음 사중(四重)에 상응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소극적인 금지사항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작선(作善)이나 구제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보살계로서의 삼취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사십팔경계도 선행경전의 영향이 적지 않다. 예컨대 『열반경』의 식세기험계(息世譏嫌戒), 『보살지지경』의 사십이중다범(四十二衆多犯), 『우바새계경』의 이십팔실의죄(二十八失意罪), 『보살선계경』 사십칠계(四十七戒)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해 『범망경』은 『금광명경(金光明經)』, 『유수장자품(流水長者品)』, 『보량경(寶梁經)』, 『비구품(比丘品)』,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비구응공경(比丘應供經)』 등의 경전에 의거했음이 밝혀졌으며, 소승 율문(小乘律文)과도 적지 않은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보살지지경』과 『우바새계경』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내 위없는 적멸(寂滅)의 언덕에 이르게 하며, 모든 굶주리고 목마른 무리들을 끝없이 이롭게 함이 마치 세상의 그물과 같다고 하여 이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범왕(梵王)들이 망라당[羅網幢]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법을 듣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로 인해 “세계의 차별이 마치 그물의 구멍과 같다.” 하였으니 부처님의 교문(敎門)도 또한 이와 같다. 세계의 차별(差別)이란 수미산(須彌山)은 나무의 형상을 하고 세계를 고르게 덮어 두루 미치기[涉入] 때문이며, 부처님의 교문(敎門)이란 비록 일미법(一味法)이나 오온(五蘊)과 십팔계(十八界)와 십이처(十二處)³³⁾ 등의 법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범주(梵主)의 그물에 구멍이 많아도 그물은 하나이듯 범왕의 계법도 마땅히 그러한 줄 알아야 한다. 비록 티끌처럼 많은 문(塵沙門, 방편)일지라도 마침내 하나의 길로 돌아가며, 온갖 행도 하나의 문으로 뜻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뜻을 얻고 나서 실

33) 오온(五蘊)과 십팔계(十八界)와 십이처(十二處)는 삼과(三科)를 말하며 곧 오온(五陰)·십이입(十二入)·십팔계(十八界)라고도 하며 간략하게 온(蘊)·처(處)·계(界)라 한다. 구역(舊譯)에서는 음입계(陰入界) 또는 음계입(陰界入)이라 한다. 오온은 색온(色蘊, rūpa-skandha, 물질)·수온(受蘊, vedanā-skandha, 인상 감각)·상온(想蘊, saṃjñā-skandha, 지각표상)·행온(行蘊, saṃskāra-skandha, 의지 등의 마음 작용)·식온(識蘊, vijñāna-skandha, 의식)으로 모두 만유제법을 분류한 이름이다. 『구사론』 권1(大 29 p.5b3.)의 계송에 “어리석음과 근기와 즐기는 것의 세 가지 때문에 온과 처와 계의 세 종류를 설하게 된 것이다.”라고 한다. 즉 색(色)과 심(心) 등에 어리석음의 차이가 있고 근기에 따라 이둔(利鈍)의 차이가 있고 즐기는 것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삼과(三科)를 따로 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리석음의 차이란, 심소에 어리석은 자에게는 심소를 자세하게 하여 오온을 설하고, 색법에 어리석은 자에게는 색법을 상세히 하여 12처를 설하고, 색심이법(色心二法)에 어리석은 자에게는 색과 심의 법을 상세히 하여 18계를 설한다고 한다. 근기의 차별이란 이근자(利根者)에게는 5온, 중근자(中根者)에게는 12처, 둔근자(鈍根者)에게는 18계를 설한다. 즐기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도 간략하게 설할 자에게는 5온, 중간으로 설할 자에게는 12처, 자세하게 설할 자에게는 18계를 설해 준다는 뜻이니 이것을 삼과법문(三科法門)이라고 한다.

천하는 것이 모두 법성(法性)³⁴⁾에 알맞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비유를 따라 『범망경』이라 이름한 것이다.

‘경’이란 계경(契經)이니 꿰어서 지속시킨다[貫持]는 뜻이다. 뜻을 꿰어 지속시켜 흩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노사나(盧舍那)’는 중국말로 청정하고 원만함[淨滿]이니 장애를 깨끗하게 하지 않음이 없고, 덕(德)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법장(法藏) 대사가 이르기를 “범본(梵本)에는 전부 비로사나(毘盧舍那)라 하였으니 중국말로로는 광명변조(光明徧照)이다. 지혜로 법계를 비추고 몸으로 대기(大機)에 응하기 때문이다. 범망(梵網)이라는 글자 아래에 이 명호를 표한 것은 석가모니불이 설한 다른 품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³⁵⁾라고 하였다.

‘불(佛)’은 각자(覺者)이니 세 가지 뜻[三義, 自覺·覺他·覺行圓滿]이 항상 같다. ‘말씀(說, 法門)’은 원음(圓音)이니 좋은 솜씨로 (근기에) 응하여 이해 시키는 것이다. 유식(唯識)³⁶⁾의 온갖 덕이 이로부터 성장하므로 심지

34) 법성(法性, dharmatā)은 법의 체성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이 지니고 있는 진실 불변한 본성을 말한다. 진여법성, 진법성, 진성이라고도 하고, 진여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한다. 또 일반적으로 법성을 여래장과 구별하여 일체법의 실성(實性)이라는 넓은 뜻으로 사용한다.

35) 『범망경보살계본소』(大40 p.604c25) “梵本, 經中皆名毘盧舍那, 此云光明徧照. 然有二義, 一內以智光照眞法界, 此約自受用義. 二外以身光照應大機, 此約他受用義. 何故經首別標此名. 爲簡餘經是釋迦化身所說. 又梵網字下標此名者, 別餘品也. 梵網一部大本之中, 唯此品等是舍那說, 餘品應是釋迦說故.”

36) 유식(唯識, vijñapti-mātra)이라는 용어는 『해심밀경(解深密經)』 「분별유가품(分別瑜伽品)」(大16 p.698a-c)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유가실천(瑜伽實踐)의 체함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유식(唯識)’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가를 닦는 마음속에 나타나는 갖가지 영상은 다만 식(識)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각적인 체험이 유식설을 형성하는 내면적인 원동력이 된 것이며 여기서는 심의식설(心意識說)의 범주에서 사용하고 있다. 위빠사나

(心地)라고 하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나루요, 청정에 들어가는 문이므로 그것을 법문이라고 부른다. 본문의 내용이 다르므로 품(品)이라고 한다.

言題名者，梵網經，一部都名也，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第十者，此品別名也。梵者 能淨之義，網者 攝有情義。謂此經者，乃至有頂，生死大海，拘持有情，終致無上寂滅之岸，無盡饒益諸飢渴類，如世網故，爲顯此義。故諸梵王，持羅網幢，供佛聽法。佛因此說，“世界差別，猶如網孔。”佛教門亦如是。世界別者，須彌樹形，覆世界等，徧涉入故，佛教門者，雖一味法，蘊界處等，法門別故。是則如梵主網，孔多網一，法王戒法，當知亦爾。雖塵沙門，終歸一道，萬行一門，所謂得意，得意而行，皆稱法性。是故從喻，名梵網經。經謂契經，貫持爲義。貫義持生，不散失故。盧舍那者，此云淨滿，無障不淨，無德不圓故。法藏師云，“梵本皆名毘盧舍那，此云光明徧照。智照法界，身應大機故。梵網字下，標此名者，爲簡餘品釋迦說故。”佛謂覺者，三義如常。說謂圓音，巧應生解。唯識萬德，從此生長，名爲心地³⁷⁾，出苦之津，入淨之戶，稱之法門。文義差別，故名爲品。

(vipaśyanā, 觀)도 유가(瑜伽, yoga) 실천법의 한 종류이다.

37) 大40 p.690b15와 藥師寺藏本에는 ‘也’로 되어 있으나 韓3 p.419a7에는 ‘地’로 되어 있다.

7. 본문 本文

[서분]

■ 이 「심지품(心地品)」에는 모두 두 개의 문이 있다. 처음에는 본사(本師, 노사나불)의 설(說, 心地法門品)이고 두 번째는 화불(化佛, 석가모니불)이 전해받아 설하신 것이다. 처음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처중(處衆)과 경각(警覺)과 계문(啓問)과 견문(見問)과 부촉(付屬)이다.

此心地品，總有二門．一本師說故，二化傳說故．初中有五，處衆故，警覺故，啓問故，見問故，付屬故．

1) 본사의 설 本師說

(1) 처소와 대중 處衆

□ 그때에 석가모니불께서 제사선지(第四禪地) 가운데 마해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에 계시면서 한량없는 대범천왕(大梵天王)과 불가설불가설(不可說不可說)의 보살대중에게 연화대장세계(蓮華臺藏世界)의 노사나불(盧舍那佛)께서 말씀하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을 설하셨다.

爾時，釋迦牟尼佛，在第四禪地中，摩醯首羅天王宮，與無量大梵天王，不可說不可說菩薩衆，說蓮華臺藏世界，盧舍那佛所說心地法門品．

■ 처중(處衆)에 세 가지가 있으니 장소[處所]와 대중(大衆)과 설한 법문[所說]이다. 본문(本文)과 같이 알지니라.

述曰, 處衆之中有三, 處所故, 大衆故, 所說故. 如文可解.

(2) 경각시킴에 警覺

□ 이때 석가모니불의 몸에서 지혜의 빛을 놓아 이 천왕궁으로부터 연화대장세계까지 비추시니 그 가운데 모든 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각자 서로 쳐다보며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이 빛들이 무슨 인연인지 알지 못하여 모두 의아스럽게 여기고 한량없는 천인(天人)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是時, 釋迦身放慧光, 所照從此天王宮, 乃至蓮華臺藏世界, 其中一切世界, 一切衆生 各各相視, 歡喜快樂. 而未能知此光光, 何因何緣, 皆生疑念, 無量天人, 亦生疑念.

■ 두 번째 경각(警覺)에 또한 세 가지가 있으니 빛을 놓음[放光]과 대중이 기뻐함[衆喜]과 의아스런 생각[疑念]이다. 본문과 같이 알지니라.

述曰, 第二警覺中, 亦有三, 放光故, 衆喜故, 疑念故. 如文可知.

(3) 질문하다 啓問

□ 그때 대중 가운데 현통화광왕보살(玄通華光王菩薩)이 대장엄화광명삼매(大莊嚴華光明三昧)로부터 일어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금강백운색광명(金綱白雲色光明)을 놓아 일체세계를 비추었다. 이 가운데 모든 보살들이 다 한 회상(會上)에 모여 한마음으로 서로 “이 광명들은 무슨 상(相)입니까?” 하고 물었다.

爾時衆中, 玄通華光王菩薩, 從大莊嚴華光明三昧起, 以佛神力, 放金剛白雲色光, 照一切世界. 是中一切菩薩, 皆來集會,

與共同心異口，問“此光光爲何等相？”

■ 세 번째 질문[啓問]에도 세 가지 문(文)이 있으니 선정(禪定)에서 일어남[起定]과 대중의 운집[集衆]과 질문[啓問]이다.

‘현통화광왕(玄通華光王)’이란 증득한 바[所證]의 진리를 ‘현(玄, 그윽하다)’이라고 하고, 증득한[能證] 참된 지(智)를 ‘통(通, 통달)’이라고 하며, 능히 커다란 열매[大果]를 내기 때문에 ‘화(華, 꽃)’라고 하고, 어둠의 장애를 제거하므로 ‘광(光, 빛)’이라고 하며, 삼승(三乘) 가운데 수승하므로 ‘왕(王)’이라고 한다. 저 왕이 일으킨 선정의 불빛[火光]도 또한 그러하여 많은 덕(德)으로 장엄하였으므로 ‘대장엄(大莊嚴)’이라고 한다.

‘금강백운색(金綱白雲色)’이란 무너뜨릴 수 없고 새지 않는 맑고 깨끗한 빛깔로서 많은 공덕수(功德水)를 포함한 까닭에 이 빛으로 표현한 것이다. 광명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광광(光光)’이라고 하였다. ‘무슨 상(相)입니까?’라고 한 것은 나타난 (빛의) 상[所爲相]을 물은 것이다.

述曰，第三啓問，亦有三文，起定故，集衆故，啓問故。玄通華光王者，所證眞理名玄，能證眞智曰通，能生大果名華，能除闇障名光，三乘中勝名王。彼所起定，華光亦爾，衆德莊嚴，名大莊嚴。金剛白雲色者，以不可壞無漏清白，含衆德水，故標此色。光明非一，故言光光。爲何等相者，問所爲相。

(4) 친견하고 여쭙다 見問

① 친견하다 見

□ 이때 석가모니불께서 이 세계의 대중을 들어올려[擎接] 연화대장세계의 백만억자금강광명궁(百萬億紫金剛光明宮) 안으로 돌아가 이르시어[還至], 백만 연꽃이 밝게 빛나는 광명좌대(光明座臺) 위에 앉아 계시는

노사나불을 친견하게 하였다.

是時釋迦，卽拏接此世界大衆，還至蓮華臺藏世界，百萬億紫金剛光明宮中，見盧舍那佛坐，百萬蓮華赫赫光明座上。

■ 네 번째 친견하고 여쭙는 것[見問] 가운데에 두 가지가 있으니 친견[見]과 여쭙[問]이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친견이다. 화신(化身)이 본체(本體)로 돌아감을 ‘돌아가 이르시어[還至]’라고 한다. 가피력으로 수승한 것을 보는 것은 『계본소(戒本疏)』와 같다. ‘백만억자금강광명궁(百萬億紫金剛光明宮)’은 도솔천(兜率天) 미륵보살(彌勒菩薩)의 오백억궁(五百億宮)과 같다. ‘백만의 연꽃’은 좌대의 연꽃이다.

述曰，第四見問中有二，見故問故。此初也。化歸本體，言還至也。加力見勝，如戒本疏。百萬億紫金剛光明宮者，如兜率天彌勒菩薩五百億宮也。百萬蓮華者，座蓮華也。

② 여쭙다問

□ 때에 석가모니불과 모든 대중들이 일시에 비로자나불의 발 아래에 예경하고 난 다음, 석가모니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계의 땅과 허공에 사는 일체중생들은 무슨 인연으로 보살 십지(十地)의 도(道)를 얻으며, 장차[當來] 불과(佛果)를 이루면 어떤 모습이 되나이까?” 하니 「불성본원품(佛性本源品)」 가운데 일체보살종자(一切菩薩種子)를 자세하게 물은 것과 같다.

時釋迦及諸大衆，一時禮敬盧舍那佛足下已，釋迦佛言，“此世界中地及虛空，一切衆生，爲何因緣，得成菩薩十地道，當成佛果，爲何等相？”如佛性本源³⁸⁾品中，廣問一切菩薩種子。

■ 두 번째 여쭙는 것[問]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문(問)과 답(答)이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물음이다.

어떤 사람이 세 가지를 물었으니 “땅[地]이란 유위행(有爲行)인가? 허공이란 무위(無爲) 가운데 행인가? 중생이란 위의 두 가지 행(行)을 갖춘 중생인가?” 하였으니 잘못된 질문이다. 사는 곳에 의거하여 그 인과를 물었기 때문이다.

‘보살종자(菩薩種子)’³⁹⁾는 다른 품(品)에서 자세하게 물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묻지 않았다. 『구소(舊疏)』에서는 ‘육처(六處)가 수승하므로 이름을 종자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보살지지경』⁴⁰⁾에서 설한 것과 같다.

述曰, 第二問中有二, 問故答故. 此初也. 有云三問, “地者 問有爲行? 虛空者, 問無爲中行? 衆生者, 備上二行衆生也?” 非也. 據所居處, 問彼因果故. 菩薩種子, 餘品廣問, 故今不問. 舊疏云, 六處殊勝, 名爲種子, 如地持說.

38) 卍60 p.371b4에는 ‘原’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21b9에는 ‘源’으로 되어 있다.

39) 종자(種子, ṣubhīja)는 『성유식론(成唯識論)』 2권(大31 p.8a5-6)에 의하면 아뢰야식 속에 있으며 스스로 자기 결과를 일으키는 공능차별(功能差別)로 ‘특수한 힘’이라고 한다. 따라서 종자는 ‘특별한 힘’ 곧 ‘특수한 정신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종자를 저장하는 심층심리를 ‘일체종자식(一切種子識)’이라고도 한다. 종자는 또 과거 행위인 업(業, karma)의 ‘잠재적인 결과’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불교의 인과법칙은 ‘업의 상속(相續)’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생명이 있는 것, 즉 유정(有情, sattva)의 본질은 행위 곧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이 있어 유정은 갖가지 업을 지으면서, 또한 그 업의 영향을 받으면서 존재한다. 업이 당장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나, 업의 잠복상태를 ‘종자(種子)’라고 한다.

40) 『보살지지경』 1권 「초방편처중성품(初方便處種性品)」 제1(大30 p.888b3)에 “云何爲種性, 略說有二, 一者性種性, 二者習種性, 性種性者, 是菩薩六入殊勝.”이라 한다. 『구소(舊疏)』에서 ‘處’라 한 것을 여기에서는 ‘入’이라고 한다.

③ 대답해주심 답

ㄱ. 과로 답함 答果

□ 그 때 노사나불께서 곧 크게 환희하시며 허공광체성본원성불상주법신삼매(虛空光體性本原成佛常住法身三昧)를 나타내시어 여러 대중들에게 보이셨다.

불자들이여! 자세하게 듣고 잘 생각하여 수행하라. 나는 이미 백아승지겁(百阿僧祇劫)에 이르도록 심지법(心地法)을 수행하여 그것으로 인(因)을 삼아 초지에서 범부(凡夫)를 버리고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어 노사나(盧舍那)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연화대장세계해(蓮華臺藏世界海)에 머무르니 그 대(臺)에 두루 천 개의 잎이 있고, 하나의 잎마다 하나의 세계이므로 일천 개의 세계가 되나니 내가 천 명의 석가를 만들어 천 개의 세계에 의거(依據)하게 하였다. 후일 한 잎의 세계에 나아가 다시 백억 개의 수미산과 백억 개의 해와 달과 백억 개의 사천하와 백억 개의 남염부제(南閻浮提)에 백억 명의 보살석가(菩薩釋迦)가 백억 개의 보리수 아래 앉아서 각각 그대가 물은 보리살타(菩提薩埵)의 심지법[心地]을 설하게 하였나니, 그 나머지 구백구십구 명의 석가가 각각 천백억 석가를 나타낸 것 또한 그와 같나니라. 일천 개 꽃 위의 부처들은 나의 변화한 몸이요, 천백억 석가는 천 명의 석가 화신(化身)이고 나는 본원(本原)이므로 노사나불이라 이름하나니라.

爾時，盧舍那佛，卽大歡喜，現虛空光體性本原成佛常住法身三昧，示諸大衆。是諸佛子，諦聽善思修行。我已百阿僧祇劫，修行心地，以之爲因，初捨凡夫，成等正覺，號爲盧舍那。住蓮華臺藏世界海，其臺周徧有千葉，一葉一世界，爲千世界，我化爲千釋迦，據千世界。後就一葉世界，復有百億須彌山，百億日月，百億四天下，百億南閻浮提，百億菩薩釋迦，坐百億菩

提樹下，各說汝所問菩提薩埵心地，其餘九百九十九釋迦，各現千百億釋迦，亦復如是。千華上佛，是吾化身，千百億釋迦，是千釋迦化身，吾以爲本原，名爲盧舍那佛。

■ 두 번째 답에 두 가지가 있으니 과(果)와 인(因)이다. 이 부분은 과에 대한 답이다.

‘크게 환희[大歡喜]’하였다는 것은 큰 이익을 보았기 때문이다. 무분별지(無分別智)⁴¹⁾는 ‘허공의 빛[虛空光]’이라고 부르니 법성(法性)의 공함을 비추기 때문이다. 바른 요인(了因)의 체(體)를 ‘체성(體性)’이라고 하니 지(智)가 정인(正因)이 되기 때문이다. 그가 의지한 선정[定]을 ‘본원(本原)’이라고 하니 이것은 능히 상주법신(常住法身)을 나타낸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정(定)을 나타내어 대중에게 보인 것은 근본인(根本因)을 나타내려

41) 무분별지(無分別智, ㉟nirvikalpa-jñāna, avikalpa-jñāna)는 분별을 여윈 지혜로 보살이 초지(初地)인 환희지(歡喜地)에서 견도(見道)에 들어갈 때 일체법의 진여를 반연하고 능취(能取)·소취(所取) 등의 차별을 끊으며 대상과 지혜가 하나되어 분별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 진여를 인식대상으로 하는 순수(純粹)한 직관지(直觀智)로서 제일의지(第一義智)라고 한다. 『섭대승론식』 권7(大31 p.205b2-25)에 “무분별지를 명(名)이라 하니, 이 명(名)의 행상은 어떠한가? 일체의(一切義)를 분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義)’란 경계이니, 이 지혜에는 모든 경계에 대한 능취·소취 등 두 가지 분별이 없다. 무분별지의 생(生)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열 가지 평등에 의해서 능연(能緣)과 소연(所緣)이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무분별지가 생긴다. 또한 무분별지는 두 가지 평등에 의해서 생기니, 지(智)는 인식의 주체·경(境)은 인식의 대상이며 능연·소연이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무분별지가 생긴다고 한다. 無分別智是名, 此名其相云何. 謂不分別一切義. 義即是境, 此智於一切境, 無復能取所取二種分別, 無分別智生. 有何相貌, 依十種平等. 能緣所緣悉平等故, 無分別智生. 又無分別智依二種平等, 謂智及境. 能緣所緣悉平等故, 無分別智生.”고 하였다. 『섭대승론(攝大乘論)』 권7下(大31 pp.23-27)에는 가행무분별지(加行無分別智), 근본무분별지(根本無分別智), 후득무분별지(後得無分別智)의 세 가지 무분별지를 기술하고 있다.

는 까닭이다. ‘심지법[心地]을 수행하여 그것으로 인을 삼아 범부의 지위를 버렸다’고 한 것 등은 인(因)을 들어 과(果)에 답한 것이다.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어’ 이하는 성불하신 모습을 나타낸 것이니 정보(正報)와 의보(依報)와 화신(化身)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세계해(世界海)’는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헤아려 항하의 모래알과 같아지면 일세계종(一世界種)이 된다. 이 종을 헤아려 다시 항하의 모래알 만큼 되면 일세계해(一世界海)가 되고, 이 해(海)를 헤아려 다시 십만 항하의 모래알 만큼 되면 일불세계(一佛世界)가 된다.”⁴²⁾고 한 것과 같다.

비록 ‘천개 앞 중앙 좌대 위에 있으나 다시 세계해(世界海)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화신(化身)이 한 염부주(閻浮洲)⁴³⁾에 있으면서도 사바세계(娑婆世界)⁴⁴⁾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일불국토(一佛國土)를 위하여 두

42) 『대지도론』 「석발취품(釋發趣品)」 第二十之餘(25 p.418c10) “始作因緣者，復次三千大千世界，名一世界，一時起一時滅，如是等十方，如恒河沙等世界，是一佛世界。如是一佛世界數，如恒河沙等世界，是一佛世界海。如是佛世界海數，如十方恒河沙世界，是佛世界種。如是世界種，十方無量，是名一佛世界。”

43) 염부주(閻浮洲, 𑖦jambu-dvīpa)는 남염부제(南閻浮提, 𑖦dakṣiṇa-jambu-dvīpa) · 염부제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천하(四天下)의 하나. 수미산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르기도 한다. 『화엄경삼보장원통기(華嚴經三寶章圓通記)』 권上(韓4 p.187a14)에서 “복덕의 수승함과 하열함을 묻는다면 복주는 수승하고 남염부제는 하열하다. 선근을 묻는다면 복주는 즐거움이 많고 고통이 적으므로 오히려 선근이 적고 남염부제는 고통이 많고 즐거움은 적어도 불법의 인을 즐겨 구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수승하다. 若問福之勝劣，北洲則勝，南閻浮提則劣也。若問善根，北洲則樂多苦小故劣，南閻浮提則苦多樂小，多有樂求佛法之因故勝也。”고 한다.

44) 사바세계(娑婆世界, 𑖦sahā-loka-dhātu)는 인토(忍土) · 인계(忍界) · 감인토(堪忍土)라고도 한다. 인간이 머무는 현실세계. 곧 이 현실세계를 살고 있는 중생은 탐 · 진 · 치 3독과 모든 번뇌를 참고 견디어 내며 또한 모든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피로와 권태를 참고 견디어 내야하므로 감인세계라고 한다.

가지의 몸[二身]으로 노닐며 교화하는 화신의 양(量)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천백억 석가의 몸과 불토(佛土)는 『계본기(戒本記)』의 해석과 같다.⁴⁵⁾

述曰, 第二答中有二, 果故因故. 此答果也. 大歡喜者, 見大利故. 無分別智, 名虛空光, 照法性空故. 正了因體, 亦名體性, 智爲正因故. 彼所依定, 名爲本原, 此能顯成常住法身也. 佛現此定, 示大衆也, 根本因故. 修行心地, 以之爲因, 捨凡夫等, 舉因答果也. 成等正覺已下, 顯成佛相也, 顯正依報及化相故. 世界海者, 如智論云, “數此三千大千世界, 如恒河沙, 爲一世界種. 數此種復至恒沙, 爲一世界海. 數此海復至十萬恒沙, 爲一佛世界.” 雖在千葉中央臺上, 而言在於世界海者, 如化身在一閻浮州, 言在娑婆. 爲一佛土二身遊, 化量亦爾故. 千百億釋迦身土, 如戒本記釋.

ㄴ. 인행을 제시 擧因行

□ 그 때에 연화대장좌에 계시던 노사나불께서 천 석가와 천 백억 석가들이 물은 「십지법문품」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해주셨다.

爾時, 蓮華臺藏座上, 盧舍那佛, 廣答告千釋迦千百億釋迦, 所問心地法品.

◇ 십발취심 十發趣心

□ 제불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견고한 신인[堅信忍]⁴⁶⁾ 가운데 십발취

45) 『보살계의소(菩薩戒義疏)』(大40 p.563a)에 “천백억석가(千百億釋迦)”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

46) 신인(信忍)은 오인(五忍)의 하나이다. 오인보살이 법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이 편안하게 머무는 정도에 따라 세운 계위로 복인(伏忍)·신인(信忍)·순인(順

심(十發趣心)의 향과(向果)는 ① 사심(捨心, 평등하게 버리는 마음)이요, ② 계심(戒心, 계의 마음)이요, ③ 인심(忍心, 참는 마음)이요, ④ 진심(進心, 정진하는 마음)이요, ⑤ 정심(定心, 선정의 마음)이요, ⑥ 혜심(慧心, 지혜로운 마음)이요, ⑦ 원심(願心, 원력의 마음)이요, ⑧ 호심(護心, 보호하려는 마음)이요, ⑨ 희심(喜心, 기뻐하는 마음)이요, ⑩ 정심(頂心, 으뜸가는 마음)이니라.

諸佛當知。堅信忍中，十發趣心向果，一捨心，二戒心，三忍心，四進心，五定心，六慧心，七願心，八護心，九喜心，十頂心。

◇ 십장양심 十長養心

□ 제불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이 십발취심(十發趣心)으로부터 견고한 법인[堅法忍] 가운데 십장양심(十長養心)의 향과(向果)에 들어가나니, ① 자심(慈心, 자애로운 마음)이요, ② 비심(悲心,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요, ③ 희심(喜心, 기뻐하는 마음)이요, ④ 사심(捨心, 평등한 마음)이요, ⑤ 시심(施心, 보시하는 마음)이요, ⑥ 호어심(好語心, 사랑스럽고 진실한 말을 하는 마음)이요, ⑦ 익심(益心, 이익을 주려는 마음)이요, ⑧ 동심(同心, 함께 일을 하려는 마음)이요, ⑨ 정심(定心, 선정의 마음)이요, ⑩ 혜심(慧心, 지혜의 마음)이니라.

諸佛當知。從是十發趣心，入堅法忍中，十長養心向果，一慈心，二悲心，三喜心，四捨心，五施心，六好語心，七益心，八同心，

忍)·무생인(無生忍)·적멸인(寂滅忍)의 다섯 가지 인을 말한다. 복인(伏忍)에는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迴向)이 해당되고, 신인(信忍)에는 초지(初地)와 이지(二地), 삼지(三地)가 해당되는데 초지는 하품(下品)이며 이지(二地)는 중품(中品)이며 삼지(三地)는 상품(上品)이다. 순인(順忍)에는 사지(四地), 오지(五地), 육지(六地)가 해당되고 무생인(無生忍)에는 칠지(七地), 팔지(八地), 구지(九地)가 해당되며 적멸인(寂滅忍)에는 십지(十地)와 불지(佛地)가 해당된다.

心, 九定心, 十慧心.

◇ 십금강심 十金剛心

□ 제불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이 십장양심(十長養心)으로부터 견고한 수인[堅修忍] 가운데 십금강심(十金剛心)의 향과(向果)에 들어가나니, ① 신심(信心, 믿는 마음)이요, ② 염심(念心, 법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③ 회향심(廻向心, 깊이 회향하는 마음)이요, ④ 달심(達心, 법을 통달한 마음)이요, ⑤ 직심(直心, 곧은 마음)이요, ⑥ 불퇴심(不退心, 물러남이 없는 마음)이요, ⑦ 대승심(大乘心, 대승의 마음)이요, ⑧ 무상심(無相心, 형상 없는 마음)이요, ⑨ 혜심(慧心, 지혜로운 마음)이요, ⑩ 불괴심(不壞心,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니라.

諸佛當知. 從是十長養心, 入堅修忍中, 十金剛心向果, 一信心, 二念心, 三迴向心, 四達心, 五直心, 六不退心, 七大乘心, 八無相心, 九慧心, 十不壞心.

◇ 십지 十地

□ 제불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이 십금강심(十金剛心)으로부터 견고한 성인[堅聖忍] 가운데에 십지(十地)의 향과(向果)에 들어가나니, ① 체성평등지(體性平等地, 평등한 지혜의 체성지)요, ② 체성선혜지(體性善慧地, 계를 범하는 악을 여윈 온갖 공덕의 근본인 선혜의 체성지)요, ③ 체성광명지(體性光明地, 보리살타의 지혜의 광명으로 온갖 법을 아는 체성지)요, ④ 체성이염지(體性爾焰地, 진제와 속제에 대하여 아는 체성지)요, ⑤ 체성혜조지(體性慧照地, 혜로써 온갖 공덕의 행을 일으키는 체성지)요, ⑥ 체성화광지(體性華光地, 반야의 정인으로 경계를 비추어 열 가지 신통명지로 중생에게 갖가지 변화를 보이는 체성지)요, ⑦ 체성만족지(體性滿足地, 십팔불공의 지

혜에 들어 앞의 여섯 가지가 만족하여 온갖 복과 지를 내는 체성지)요, ⑧ 체성불후지(體性佛吼地, 法王位の 삼매에 들면 그 지혜가 부처님의 사자후 삼매와 같아지는 체성지)요, ⑨ 체성화엄지(體性華嚴地, 부처님의 위의인 네 가지 장엄 행과 설법 자재에 마음대로 노닐며 교화하는 체성지)요, ⑩ 체성입불계지(體性入佛界地, 성인이 머무시며 일체중생을 교화하는 체성지)이니라.

諸佛當知. 從是十金剛心, 入堅聖忍中, 十地向果, 一體性平等地, 二體性善慧地, 三體性光明地, 四體性爾焰地, 五體性慧照地, 六體性華光地, 七體性滿足地, 八體性佛吼地, 九體性華嚴地, 十體性入佛界地.

◇ 결론 結

□ 이 사십 가지 범문품은 내가 먼저 보살이었을 때 닦아서 불과(佛果)에 들어가게 된 근원이었나니, 이와 같이 일체중생도 발취(發趣)와 장양(長養)과 금강(金剛)과 십지(十地)에 들어가게 되면 마땅히 지(地)에 올라 [蹬] 과(果)를 이루게 되어, 함이 없음[無爲]과 모양이 없음[無相]과 크게 원만함[大滿]과 항상 머무름[常住]과 십력(十力)⁴⁷⁾과 십팔불공행(十八不共

47) 십력(十力)은 여래만이 갖춘 열 가지 지력(智力)이니 곧 ① 처비처지력(處非處智力)은 모든 이(理)와 비리(非理)를 아는 힘이며 ② 업이숙지력(業異熟智力)은 삼세의 업과 그 과보의 인과관계를 아는 힘이다. ③ 정려해탈등지등지력(靜慮解脫等持等至力)은 모든 선정이나 삼매의 순서와 깊고 얕음을 아는 힘이고 ④ 근하지력(根上下智力)은 중생의 능력이나 성질의 수승함과 하열함을 아는 힘이다. ⑤ 종중승해지력(種種勝解智力)은 중생의 요해단정(了解斷定)을 아는 힘이며 ⑥ 종중계지력(種種界智力)은 중생의 소질과 성품이나 그 행위 등을 아는 힘이다. ⑦ 변취행지력(遍趣行智力)은 인천(人天) 등의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행의 인과를 아는 힘이며 ⑧ 숙주수념지력(宿住隨念智力)은 과거세의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해 내어 모두 아는 힘이고 ⑨ 생사지력(生死智力)은 천안(天眼)을 가지고 중생의 생사와 미래생의 선악의 세계 등을 아는 힘이다. ⑩ 누진지력(漏盡智

行)⁴⁸⁾의 법신(法身)과 지신(智身)을 원만하게 갖추게 될 것이니라.

是四十法門品，我先爲菩薩時，修入佛果之根原，如是一切衆生，入發趣長養金剛十地，證當成果。無爲無相，大滿常住，十力，十八不共行，法身智身滿足。

■ 두 번째 인(因)을 답하는 가운데에 두 가지가 있으니, 간략함[略]과 자세함[廣]이다. 이 부분은 첫 번째 간략함에 대한 것이다.

『소(疏)』에서 ‘견고한 신인(堅信忍)’은 습종성(習種性)⁴⁹⁾을 밝힌 것으로 해덕법문(解德法門)이니 문혜(聞慧)⁵⁰⁾라고도 하며, ‘견고한 법인(堅法忍)’

力)은 스스로 모든 번뇌가 다하여 다음 생존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번뇌 끊은 것을 분명하게 아는 힘이다. 『구사론』 권27(大29 p.140b)과 『잡아비담심론(雜阿毘曇心論)』 권6(大28 p.921c) 등에 기술되어 있다.

48) 십팔불공행(十八不共行)은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 또는 십팔불공불법(十八不共佛法)이라고 한다. 여래의 십력(十力)·사무소의(四無所畏)·삼념주(三念住)와 여래의 대비(大悲)를 합한 것으로 여래에게만 있는 18가지 행을 말한다.

49) 습종성(習種性)은 육종성(六種性)의 하나로 보살을 행위에 의해서 6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종성(種性, ᄇgotra)은 종성(種姓)이라고도 한다. 성문·연각·보살 등의 삼승이 각각의 깨달음을 얻은 종자[種]가 되는 본래 소질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와 후천적인 수행에 의해서 얻는 2종의 종성이 있다. 『유가사지론』 권2(大30 p.284c)에서는 본성주종성(本性住種性)과 습소성종성(習所成種性)의 두 가지를 세우고 있다. 법상종에서는 오성(五性)이 선천적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여 성종성을 설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또 별도의 습종성을 설하는데, 이것은 호법의 학설에 속한다.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권上에서는 습종성(習種性)·성종성(性種性)·도종성(道種性)의 3종성을,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권上(大24 p.1012b25)에서는 ① 습종성(習種性, 十住의 보살) ② 성종성(性種性, 十行的 보살) ③ 도종성(道種性, 十回向의 보살) ④ 성종성(聖種性, 十地의 보살) ⑤ 등각성(等覺性, 等覺의 보살) ⑥ 묘각성(妙覺性, 妙覺의 보살)을 설하고 있다.

50) 문혜(聞慧)는 문사수(聞思修, ᄇśruta-cintā-bhāvanā, śruta-prayoga, śrutādi, ᄇsuta-cintā-bhāvanā) 수행의 하나로서 교법을 듣고[聞] 그 이치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은 성종성(性種性)을 밝힌 것으로 행덕법문(行德法門)이니 사혜(思慧)라고도 한다. ‘견고한 수인[堅修忍]’은 도종성(道種性)을 밝힌 것으로 행실법문(行實法門) 또는 수혜(修慧)라고도 하며, ‘견고한 성인[堅聖忍]’은 성종성(聖種性)을 밝힌 것으로 친증법문(親證法門)이니 출세혜(出世慧)라고도 한다.

이 가운데 삼현(三賢)과 십성(十聖)의 사십 가지는 나중에 차례대로 설명할 것이므로 해석하지 않았다. ‘등(躋)’이란 오르다[登]는 뜻이다. ‘무위(無爲)’란 번뇌의 업으로 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요, ‘무상(無相)’이란 법신(法身)이기 때문이요, ‘대만(大滿)’이란 지신(智身)이기 때문이며, ‘상주(常住)’란 자성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述曰，第二答因中有二，略故廣故。此初也。疏云，堅信忍者，明習種性，解德法門，亦名聞慧，堅法忍中，明性種性，行德法門，亦名思慧。堅修忍中，明道種性，行實法門，亦名修慧，堅聖忍中，明聖種性，親證法門，名出世慧。此中三賢十聖四十，後次第解，故不釋之。躋者登也。言無爲者，非煩惱業之所爲故。無相者，法身故。大滿者，智身故，常住者，自性無間及相續故。

[思] 실제로 닦고 익히는 것[修]을 뜻하니 무루(無漏)의 지혜를 얻기 위한 기본 방법이다. 즉 수행자는 경전에서 전래되는 교설을 들은 다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계기로 하여, 다시 교설의 의미와 이치를 사유하게 되고, 나아가 실제로 명상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진리에 대한 판단력이 점차로 고양됨과 동시에 불선(不善)과 탐욕을 제거하여 무루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문사수에 의해 얻어진 지혜의 본성은 유루의 세속지이지만 이는 무루의 지혜를 낳는 근본이기도 하다.

④ 자세히 여쭙다 廣問

□ 그 때 연화대장세계의 노사나불께서 빛나는 대광명좌에서 천 연꽃 위에 계신 부처님과 천 백억 부처님과 모든 세계의 부처님과 함께 계시었다.

이 자리에 화광왕대지명보살(華光王大智明菩薩)이라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노사나불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위에서 간략하게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의 이름[名相]을 말씀하셨으나 그 낱말의 의미를 아직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그것을 설명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그것을 설명해 주시옵소서.”

묘극금강보장(妙極金剛寶藏)의 일체지문(一切智門)은 「여래백관품(如來百觀品)」에서 이미 밝혔느니라.

爾時，蓮華臺藏世界盧舍那佛，赫赫大光明座上，千華上佛，千百億佛，一切世界佛。是座中，有一菩薩，名華光王大智明菩薩。從座而立，白盧舍那佛言。“世尊，佛上略開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名相，其一一義中，未可解了。唯願說之。唯願說之。”妙極金剛寶藏一切智門，如來百觀品中，已明。

■ 두 번째 자세하게 설명한 것[廣]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청함[請]과 대답[答]이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청함이다. 제불 회상에 있던 보살이 물은 것이니 이름은 앞에 해석한 것을 따른다. 이 경문을 ‘알기 어렵다’고 한 것은 부처님이 부처님을 상대하시어 범어로 교묘하게 설하신 것이니 마치 세간의 오언시 등과 같다. 한어로 번역하면서 미묘함을 잃어 알기 어려워진 것이다.

述曰，第二廣中有二，請故答故。此初也。諸佛會中有菩薩問，釋名準前。凡此經文難可解者，佛佛相對，梵語巧妙，猶如此

間, 五言詩等. 以漢語翻, 失妙難解.

⑤ 대답해주심 답

ㄱ. 십발취심 + 發趣心

□ 그 때 노사나불께서 말씀하셨다. “천불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이 먼저 ‘무슨 뜻입니까?’하고 물었느니라.”

爾時, 盧舍那佛言, “千佛諦聽. 汝先言云何義者.”

① 사심 捨心

□ 십발취(十發趣) 가운데 불자들이여! 일체를 버린다는 것[一切捨]은 국토와 성읍(城邑)과 밭과 집, 금은과 밝은 구슬과 아들⁵¹⁾과 딸과 자신의 몸과 소유한 모든 물건 일체를 버리되, (버렸다는) 행위도 없으며[無爲] (버렸다는) 상도 없다[無相]. 아(我)와 인(人)의 지견(知見)은 임시로 화합

51) 『태자수달라경(太子須達拏經)』 『한글대장경』 제5권에 아들과 아내를 보시한 예가 다음과 같다. “수달라(須達拏)는 부처님이 전생에 보시행을 할 때의 이름이다. 과거 제화갈라 부처님 때 수달라 태자는 바라문의 아들이로서 이름을 비다위라고 하였다. 그때 수타라라고 하는 바라문의 딸에게 꽃 일곱 송이를 은전 오백에 사서 부처님에게 올리고자 하여 세 번을 청하니 수타라는 다섯 송이의 꽃을 팔고 두 송이는 자신의 뒤통으로 부처님께 올려주기를 청한다. 그리고 서원을 세워 말하기를 ‘원하건대 저의 후생에 항상 그대의 아내가 되어 좋든지 추하든지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때 비다위는 ‘나의 아내가 되고자 할진대 마땅히 나의 뜻에 따라 보시하되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아니하며, 다만 부모만 보시하지 않고 그 나머지 보시는 모두 나의 뜻에 따르라.’고 하였다. 다음 생에 그들은 수달라 태자와 태자비가 되었다. 수달라 태자는 부왕과 떨어져서 태자비와 두 아들과 살고 있는데 하루는 추한 바라문이 와서 아이들을 노비로 줄 것을 요구하자 태자는 선뜻 내어주고 끌려가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타이른다. 이에 제척이 시험하고자 태자비를 요구함에 선뜻 보시하니 이와 같이 보시하는 마음이 한량에 없었다.”고 한 내용에 의거한다.

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주인이란 것은 조작된 나[我]라는 견해일 뿐, 십이 인연(十二因緣)의 합함도 없고 흠어짐도 없는 것이니라.

받아들임이 없다[無受]는 것은 십이입(十二入)과 십팔계(十八界)와 오음(五陰)의 일체가 하나로 합한 상이어서 아(我)와 아소(我所)의 상(相)이 없으며 임시로 이루어진 모든 법이므로, 안의 일체 법과 밖의 일체 법을 버릴 것도 없고 받아들일 것도 없다. 보살은 그때 임시로 모인 것을 이름 붙여 눈앞에 있는 것처럼 관(觀)하니, 그러므로 사심(捨心, 평등하게 버리는 마음)으로 공삼매(空三昧)⁵²⁾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發趣中, 若佛子! 一切捨, 國土城邑, 田宅金銀明珠, 男女己身, 有爲諸物, 一切捨, 無爲無相. 我人知見, 假會合成, 主者造作我見, 十二因緣, 無合無散. 無受者, 十二入十八界五陰, 一切一合相, 無我我所相, 假成諸法, 若內一切法, 外一切法, 不捨不受. 菩薩爾時, 名如假會觀現前, 故捨心入空三昧.

■ 두 번째 답 가운데 네 가지가 있으니 차례대로 사십 가지 법문을 차례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또한 열 가지가 있다. 이 발취(發趣) 가운데 첫 번째 사심(捨心)이다. 보살이 청한 것은 천불의 가피력을 입은 것이다. 지금 노사나불께서 천불에게 ‘자세히 들으라.’고 하신 것은 천불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심(捨心)에 세 가지 문장이 있으니[三文] 장문(章門)⁵³⁾과 행상(行相)과

52) 공삼매(空三昧, śūnyatā-samādhi)는 삼삼매(三三昧)의 하나. 일체의 모든 법은 모두 인연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아(我)도 없고 아소(我所)도 없으며, 또한 그 실체와 자성(自性)이 없는 것이라고 관찰하는 삼매이다. 『구사론』 권28(大29 p.149c18-19) “공(空)과 비아(非我)라는 두 가지 행상과 상응하는 등지(等持)이다. 空三摩地, 謂空非我, 二種行相, 相應等持.”

53) 장문(章門)은 『범망경고적기』에서 ‘문장을 든다’는 뜻의 거장문(擧章門)·거장

결성(結成)이다. ‘일체를 버린다는 것[一切捨]’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두 번째 행상(行相) 가운데 ‘국토 등 일체를 버리되, (버렸다는) 행위도 없으며[無爲] (버렸다는) 상도 없는[無相] 것’이라고 한 것은 버릴[捨] 때와 버려질[所捨] 때[時]에 삼륜(三輪)⁵⁴⁾마저 떠났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위(無爲)⁵⁵⁾’란 인공(人空)⁵⁶⁾이기 때문이며 ‘무상(無相)⁵⁷⁾’이란 법공(法空)이기 때문이다.

(舉章)으로도 표현된다. 이 말은 ‘문장을 시작하는 부분’ 또는 ‘문장의 시작’,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 54) 삼륜(三輪)이란 보시할 때에 공관(空觀)에 머물러 시자(施者)와 수자(受者)와 시물(施物)의 세 가지에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삼륜체공(三輪體空)·삼륜청정(三輪淸淨)·삼사개공(三事皆空)이라고 하며 주로 『반야경』에 설해져 있다.
- 55) 무위(無爲, ㉠saṃskṛta)는 조작(造作)·작위(作爲)함이 없다는 뜻으로 인연화합에 의해 생멸(生滅)하는 모든 법을 유위(有爲, ㉡saṃskṛta)라고 하는 데 대하여, 유위법이 가진 생주이멸(生住異滅)의 사상(四相)을 떠난 것을 무위(無爲)라고 한다.
- 56) 인공(人空)은 아공(我空)이라고도 한다. 아견(我見)에 의해 인식되고 집착된 인아(人我)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반야경』은 일체법이 공함을 밝힘으로서 인공(人空)과 법공(法空)을 모두 설한 대표적인 경전으로 간주된다. 소승에서는 인공만을 설하고 법공은 설하지 않았으나, 대승은 인법이공(人法二空)을 설한다. 또 삼공(三空)이 있으니 아공(我空)·법공(法空)·구공(俱空)이다. 『금강경찬요간정기(金剛經纂要刊定記)』(大33 p.176b24-27)에 “세 가지의 공(空)이란 곧 아공·법공·구공이다. 아래 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 아상과 인상 등이 없기 때문에 곧 아공(我空)이다. 아상이 곧 상(相)이 아니기 때문에 법공(法空)이다. 모든 상(相)을 여윈 것을 제불(諸佛)이라 하며 구공(俱空)이라 한다. 三空者, 卽我空法空俱空也. 如下經云, 無我相人相等, 卽我空也. 我相卽是非相等, 卽法空也. 離一切相, 卽名諸佛, 是俱空也.”
- 57) 무상(無相, ㉢animitta)은 이상(二相)이 없다는 뜻으로 공(空)과 같은 맥락이다. 모든 존재의 대대적인 차별상으로서의 이상(異相)이 없는 제법 실상, 곧 공이라는 일상(一相)의 도리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차별상과 별도로 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상 그대로가 무상이며, 다양한 상(相)을 갖추고 있는 것을 무상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 논리이다. 진여(眞如)·보리(菩提)·열반(涅槃) 등의 본질적 속성을 묘사하는 말로도 쓰인다.

다음에는 삼륜(三輪)에 대하여 해석하겠다. ① 베푸는 자[施者]가 공하니 곧 ‘아(我)와 인(人)의 지자(知者)와 견자(見者)’라는 것은 ‘십이인연(十二因緣)이 임시로 모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부러 저 주인에게 집착하는 것은 조작된 나[我]라는 견해[見]일 따름이다. 그 반연한 바[所緣]⁵⁸⁾ 십이인연(十二因緣)이 합함도 없고 흠어짐도 없는 것’이다. 경계(境界)에 대해서도 아(我)가 없으므로 ‘합함이 없다.’고 말하나 아(我)와 비슷한 것이 있으므로 또한 ‘흠어짐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

② 받는 자[受者]가 공하니, ‘받는 자가 없다[無受者]’고 하는 것은 ‘오온(五蘊)과 십팔계(十八界)와 십이처(十二處)’가 하나로 합쳐진 공상(空相)으로 ‘아(我)와 아소(我所)⁵⁹⁾의 상(相)’이 없기 때문이다.

③ 베푸는 물건이[施物] 공하니 ‘임시로 이루어진 모든 법’은 안의 몸이나 밖의 재물 등 일체의 법이 공하므로 스스로 버릴 것도 없고 남에게 받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 말하자면 ‘그때 경계가 임시로 모인 것을 관(觀)’하니 능히 앞에 나타난 것을 관하는 것이다.

述曰, 第二答中有四, 如次廣說四十法門故. 初亦有十. 此發趣中, 初捨心也. 菩薩請者, 千佛所加故. 今告言千佛‘諦聽’, 知千佛衆未解了故. 捨心三文, 章門故, 行相故, 結成故. 言一切捨者, 舉章門也. 次行相中, 謂國土等, 一切捨之, 無爲無相者,

58) 소연(所緣, 5ālamāna)이란 마음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말한다.

59) 아(我)와 아소(我所)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즉 ① 아(我)는 자기 자신, 아소(我所)는 자기의 소유로 보거나 자신에게 속한 것. 변함없는 영원의 주체아(主體我)로서 그 주체에 소속한 것. ② 아견(我見)과 아소견(我所見). 아견이란 자아가 실재(實在)한다고 여기는 그릇된 견해. 아소견이란 자아에 속하는 것이 실재한다고 여기는 그릇된 견해이다. 『유가사지론』 권2(大30 p.284b14), 『섭대승론』 권상(大31 p.133c21) 등에서 기술하고 있다.

標捨所捨之時，離三輪也。無爲者人空故，無相者法空故。次釋三輪。初施者空，謂卽我人知者見者，十二因緣，假會合成，故能執彼主者，造作之我見者。於彼所緣十二因緣，無合無散。於境無我，故言無合，而有似我，亦言無散。次受者空，謂無受者，以蘊界處，一合空相，無我我所相故。後施物空，假成諸法，若內身等，若外財等，一切之法空，無自之所捨，無彼受故。第三結言，爾時觀成如境假會，能觀現前。

② 계심 戒心

□ 불자들이여! 계는 비비계(非非戒)이니 받는 자가 없으므로 십선계(十善戒)를 스승이 설법해 줌도 없느니라. 속이고 흠침에서 사건에 이르기까지 (죄가) 쌓이거나 (죄를) 받는 자가 없는 것이다. 자애[慈]와 어짐[良]과 청정[淸]과 곧음[直]과 바름[正]과 진실[實]과 바른 견해[正見]와 버림[捨]과 기쁨[喜]등이 이 십선계의 체성이니 팔전도(八顛倒)⁶⁰⁾를 그치게 하여 일체 성품에서 벗어나 일도(一道)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若佛子! 戒非非戒，無受者，十善戒無師說法。欺盜乃至邪見，無集受者。慈良淸直正實正見捨喜等，是十戒體性，制止八倒，

60) 팔전도(八顛倒)는 팔도(八倒)라고도 하는데 유위사전도(有爲四顛倒)와 무위사전도(無爲四顛倒)를 말한다. 유위사전도(有爲四顛倒)는 범부가 이 세계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무상을 상(常)이라 하고 고(苦)의 현실을 락(樂)이라고 여기며, 부정을 정(淨)이라 하고, 무아를 아(我)라 하여 집착하는 것이다. 무위사전도(無爲四顛倒)는 성문(聲聞)·연각(緣覺)은 유위(有爲)의 사전도(四顛倒)에 대해서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깨달음의 경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제멸되어 없는 무존재(無存在)의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는 상(常)·락(樂)·아(我)·정(淨)임을 알지 못하고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부정(不淨)이라고 하는 것이다.

一切性離，一道清淨.

■ 두 번째 계심(戒心)이니 ‘계’는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비비계(非非戒)’는 유(有)와 무(無)의 극단[邊]을 떠난 것이므로 중복해서 ‘비비(非非)’라고 한다. 왜냐하면 받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십선계(十善戒)를 스승이 설법해 줌도 없다.’는 것은 능히 설하는[能說] 자가 없거늘 어찌 설하는 바[所說]가 있겠는가! 받는 자[受者]와 주는 자[授者]와 받아야 할 계[所受戒]가 없기 때문에 삼륜(三輪)이 공(空)한 것이다.

‘속이고 흠침에서 사건에 이르기까지 (죄가) 쌓이거나 (죄를) 받는 자가 없는 것’이란 막아야 하는 악의 체성이 공(空)하여 쌓이지 않음을 밝힌 것이니 도리어 모든 연에 속하여 정해진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속인다[欺]’는 것은 업신여김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이니 생명을 해치기 때문이다.

‘자애와 어짐[慈良] 등’이란 능히 막고 경계하는 체성(體性) 또한 공함을 밝힌 것이니, ① ‘자애’는 살생을 막는 것이요, ② ‘어짐’은 도둑질을 막는 것이며, ③ ‘청정’은 음행을 막는 것이요, ④ ‘곧음[直, 정직]’은 거짓말을 막는 것이며, ⑤ ‘바름[正]’은 술 파는 일[酤酒]을 막는 것이요, ⑥ ‘진실’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함을 막는 것이며, ⑦ ‘바른 견해[正見]’는 사된 견해[邪見]를 막는 것이요, ⑧ ‘버림[捨]’은 인색함[慳]을 막는 것이고, ⑨ ‘기쁨[喜]’은 성냄을 막는 것이다.

『구소(舊疏)』에서 ‘등(等)’이라고 말한 것은 비(悲)를 동등하게 취하여 (남의) 허물 말하는 것[說過]을 막는 것이다. 열 가지 악을 막을 때 유위와 무위의 팔전도(八顛倒)가 그치게 되므로 유무(有無)의 성품에서 벗어나 한결같이 청정해지는 것이다.

述曰，第二戒心，戒者舉章。非非戒者，離有無邊，重言非非。何者無受者故。及十善戒無師說法，謂無能說，寧有所說！受

者授者, 及所受戒, 不可得故, 三輪空也. 欺盜乃至邪見, 無集受者, 明所防惡體空無集, 還屬衆緣, 無定性故. 欺者, 蔑中⁶¹⁾之極, 謂害命故. 慈良等者, 明能防戒體性亦空. 一慈防殺也. 二良防盜也, 三清防婬也, 四直防妄也, 五正防酤酒, 六實防讚毀, 七正見防邪見, 八捨防慳也, 九喜防瞋也. 舊疏云, 等言, 等取悲, 防說過. 防十惡時, 制止有爲無爲八倒, 有無性離, 一味清淨也.

㉓ 인심 忍心

□ 불자들이여! 인(忍)은 유무의 상[有無相]과 혜의 체성[慧體性]이니라. 일체의 공도 공하다는 인[一切空空忍]과 일체처의 인[一切處忍]과, 생겨남이 없는 행의 인[無生行忍]과 일체처에서 이름 얻음이 괴로움과 같은 인[一切處得名如苦忍]이라고 하나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行) 낱낱을 인(忍)이라고 부르나니라. 받아들임도 없고 때림도 없고 칼이나 몽둥이질에 화내는 마음도 없으므로 모두 여여(如如)하며 낱낱이 무(無)이니 진리가 한 모양이다. 모양 없음도 없되[無無相] 모양 없음이 있기도 하며[有無有相] 비심(非心)의 상이 아니며[非非心相] 연과 연이 없는 모양[緣無緣相]이다. 서거나 머무르거나 움직이거나 그치거나 아(我)와 인(人)과 속박과 해탈의 일체 법에 여여하면 가히 얻을 인상(忍相)조차 없는 것이니라.

若佛子! 忍有無相, 慧體性. 一切空空忍, 一切處忍, 名無生行忍, 一切處得名如苦忍, 無量行, 一名忍. 無受無打, 無刀杖瞋心, 皆如如, 無一一, 諦一相. 無無相, 有無有相, 非非心相,

61) 卍60 p.374b3과 大40 p.691b2-3과 藥師寺藏本에는 '者蔑也蔑中'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22c13에는 '者 蔑中'으로 되어 있다.

緣無緣相. 立住動止我人縛解, 一切法如, 忍相不可得.

■ 세 번째 인심(忍心)이니 ‘인(忍)’이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유무상[有無相]과 혜의 체성[慧體性]’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니 진(眞)과 속(俗)의 인체(忍體)이다.

다음은 행상(行相)의 차별을 분석하겠다. ‘공도 공하다는 인[空空忍]’이라고 말하는 것은 승의제(勝義諦)를 반연(攀緣)한 인(忍)이니, 아래에서 이것을 ‘생겨남이 없는 행의 인[無生行忍]’이라고 하였다. ‘일체처의 인[一切處忍]’이란 세속을 반연한 인(忍)으로 아래에서 이것을 ‘일체 처에서 이름 얻음이 괴로움과 같은 인[一切處得名如苦忍]’이라고 하였다. 모든 곳에 세속의 고통의 상[苦相]이 두루 한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다. ‘이름 얻음이 괴로움과 같다[得名如苦]’는 것은 원한이나 해침 등을 견디어내므로 경계를 따라 지목(指目)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진속(眞俗)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상(行相)을 낱알이 다 인(忍)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니 진속(眞俗) 밝힘을 마친다.

다음에는 삼륜(三輪)을 밝히겠다. 자신이 공(空)하므로 ‘받아들임이 없고[無受]’, 대상이 공(空)하므로 ‘때림도 없고[無打]’, 법성이 공(空)하므로 ‘칼이나 몽둥이질도 없고 화내는 마음조차 없으며[無瞋心]’, 삼륜(三輪)이 한 맛[一味]이므로 ‘모두 여여하다.’고 한다. 일마다 실체가 없으므로 ‘낱알이 무[無一一]’라 하고 진리가 둘이 아니므로 ‘진리가 한 모양[諦一相]’이라고 한다. 이치가 실제로 공(空)하므로 ‘모양 없음[無相]’이라고 하나 세속적으로 없는 것도 아니므로 ‘모양 없음이 있기도 하며[有無有相]’라고 한다.

다음은 능(能)과 소(所)의 상대문(相對門)이다. ‘비심도 아니며[非非心]’ 등은 인(忍)의 공(空)한 모양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능인심(能忍心)은 완전하게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심(非心)의 모양이 아니다[非非心

相].’라고 하고, 연려(緣慮)가 있는 듯하나 진실한 연려(緣慮)가 아니므로 ‘연과 연이 없는 모양[緣無緣相]’이라고 한다. ‘서거나 머무르거나’ 하는 것 등은 인(忍)의 경계가 공한 것이니 능히 사람을 때리는 것 등 네 가지 몸가짐 가운데 염정(染淨)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이다. ‘일체법에 여여(如如)’한 것은 이미 능(能)과 소(所)가 공하므로 ‘가히 얻을 인상(忍相)조차 없다’는 것이다.

述曰, 第三忍心, 忍者舉章. 有無相慧體性者, 總標眞俗忍體. 次辨行相差別. 言空空忍者, 緣勝義忍, 下此名爲無生行忍. 一切處忍者, 緣世俗忍, 下名此爲一切處得名如苦忍. 徧一切處如俗苦相, 而忍解故. 得名如苦者, 耐怨害等, 隨境目故. 如是眞俗, 無量行相, 一一皆名忍者, 結也, 明眞俗已. 次明三輪, 自空無受, 彼空無打, 法性空故, 無刀杖無瞋心, 三輪一味, 言皆如如. 事事無實, 言無一一, 諦理無二, 言諦一相. 理亦實空, 名無相, 而俗非無, 言有無有相. 次能所相對門. 非非心等, 明忍空相. 謂能忍心, 非都無故, 言非非心相, 似有緣慮, 無實緣故, 言緣無緣相. 立住等者, 空所忍境, 能打人等, 四威儀中, 染淨性空故. 言一切法如, 既能所空, 忍相不可得.

④ 정진심 進心

□ 불자들이여! 사위의(四威儀)⁶²⁾인 일체 때[時]에 행(行)하라는 것이니

- 62) 사위의(四威儀)란 일상의 거거동작(起居動作)인 행(行)·주(住)·좌(坐)·와(臥)에서 지켜야 할 제약을 계율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행법(行法)은 여인(女人)이나 혹은 술 취한 사람과 함께 가지 말며, 손을 드리우거나,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7척 전방의 땅을 곧바로 보라는 등이다. 주법(住法)은 똑바로 앞에 서지도 말고, 똑 바로 뒤에 서지 말라는 등으로 정해져 있다. 좌법(坐法)은 좌구(坐具)를 깔고 결가부좌(結跏趺坐)하거나 혹은 반가부좌(半跏趺坐)하는 등 여러

라. 공(空)과 가(假)⁶³⁾를 조복하여 법성을 알면 생겨남이 없는 산[無生山]에 올라 일체 유(有)와 무(無)를 보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대지(大地)와 청황적백(靑黃赤白)등이 일체에 들어있듯이 이에 삼보지성(三寶智性)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라.

일체 믿음으로 도에 나아감에[信進道], 공하여 생겨남이 없고[無生], 지음이 없고[無作], 지혜[無慧]가 없으므로, 공(空)에서 일어나 세제법(世諦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두 가지 모양이 없으므로 공심(空心)을 상속시켜 통달하게 되는 것이 정진분[進分]의 선근이니라.

若佛子! 若四威儀, 一切時行. 伏空假會法性, 登無生山, 而見一切有無, 如有如無. 大地靑黃赤白一切入, 乃至三寶智性. 一切信進道, 空無生無作無慧, 起空入世諦法. 亦無二相, 續空心通達, 進分善根.

가지가 있는데, 피로하여 다리를 뻗을 때에도 한 다리만 뻗어야 하고, 두 다리를 같이 뻗지 못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와법(臥法)은 와구(臥具)를 깔고 바른 손을 베개로 하고 우협(右腋)을 바닥에 대고 누워야 하며, 두 발은 겹쳐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 63) 천태종의 삼제삼관(三諦三觀)중 공(空)과 가(假)는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를 말한다. 공(空)은 인연으로 생긴 모든 존재가 자성이 없음을 관(觀)하여 하나의 성품(性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며, 가(假)는 공(空)에 머무르지 않고 연기의 차별된 세계로 전개하여 나가는 것이다. 중(中)은 공(空)과 가(假)의 양단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것으로 공(空)·가(假)·중(中)의 개념은 용수(龍樹)가 『중론(中論)』에서 사용한 이후 삼론종(三論宗)·천태종(天台宗) 등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중론』의 「관사제품(觀四諦品)」(大30 p.33b15-18)에 대한 청목(靑目)의 주석에, “여러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나는 공이라고 설한다. 왜 그러한가.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사물이 생길 경우 이 사물은 여러 인연에 속하므로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으므로 공이며, 공 또한 공하다. 다만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명(假名)으로 설하고, 유·무 이변(二邊)을 떠난 까닭에 중도(中道)라고 한다. 衆因緣生法, 我說卽是空. 何以故. 衆緣具足和合而物生, 是物屬衆因緣, 故無自性. 無自性故空, 空亦復空. 但爲引導衆生故, 以假名說, 離有無二邊故, 名爲中道.”

■ 네 번째 정진심(精進心)이다. ‘사위의(四威儀)의 일체 때에 행(行)하라는 것’은 정진행(精進行)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니고[行] 머무르는[住] 등의 몸가짐에서 때를 따라 책려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행상(行相)을 밝힌다. ‘공(空)과 가(假)를 조복(調伏)한다’는 것은 먼저 두 가지 성품을 조복하는 것이니 공(空)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⁶⁴⁾을 말하고 가(假)는 의타기성(依他起性)⁶⁵⁾을 말한다. ‘법성(法性)을 안다.’는 것은 원성실성(圓成實性)⁶⁶⁾을 아는 것이니 먼저 사상(事相)⁶⁷⁾을 조복하여 진리를 회통하기 때문이다. 공(空)의 지(智)와 덕(德)이 모였으므로 ‘무생산(無生山)’이라 하며 ‘유(有)와 무(無)를 보되’라고 하는 것은 상(相)이 있는 것을 유(有)라고 하고 상(相)이 없는 것을 무(無)라고 하

64)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㉔parikalpita-svabhāva)은 이리저리 억측(臆測, 주변계탁)한다는 뜻이며, 계탁(計度)은 자기의식의 작용으로서 선악의 여러 가지 사물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차별적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 이 집착은 일체 사물에 대하여 주관적 색채를 띠고 보는 것이므로 주변(周遍)이라 한다. 소집(所執)은 변계(遍計)에 의하여 잘못 보이는 대상, 곧 주관의 눈으로 대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항상 잘못 분별하는 것을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라고 한다.

65) 의타기성(依他起性, ㉕paratantra-svabhāva)은 자기의 원인만으로는 생기기 어렵고 반드시 다른 연(緣), 곧 갖가지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정된 영원불변의 속성이 아니므로 가유(假有)의 실무적인 것으로 유식설의 백법(百法) 가운데 94법이 여기에 속한다. 또 색법은 인연과 증상연(增上緣)으로 생기고 심법은 4연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66) 원성실성(圓成實性, ㉖pariṇiṣpanna-svabhāva)은 의타기성의 진실한 체(體)인 진여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에 원만하게 두루 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그체가 거짓이 없는 진실성(眞實性)이므로 원성실(圓成實)이라고 한다. 진여는 모든 상(相)을 여의어 무상(無相)이고, 모든 것의 본체(本體)로서 진실하기 때문에 진공묘유(眞空妙有)이며, 진리(眞理)를 깨달은 지혜로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유평무(理有情無)이다.

67) 사상(事相)은 본체(本體)인 진여(眞如)에 대하여 현상계(現象界) 하나하나의 차별(差別)된 모양을 말한다.

니 용수(龍樹)의 논(論)에서 ‘유위(有爲)는 유(有)라 하고 무위(無爲)는 무(無)라 한다.’는 것과 같다. ‘있는 것 같다[如有]’는 것은 세속에서는 있는 것과 같고, ‘없는 것 같다[如無]’는 것은 승의(勝義)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니 이상에서 일체법을 총히 관(觀)한 것이다.

‘대지(大地)와 청황적백이 일체에 들어 있듯이’라는 것은 십변처(十徧處)⁶⁸⁾이다. 승처해탈(勝處解脫)⁶⁹⁾ 등을 포함하므로 ‘그 밖에[乃至]’라고 한다. 이상에서는 그 공덕문(功德門)을 따로 관한 것이다. ‘삼보지성(三寶智性)’이란 대승(大乘)의 공덕문(功德門)이니 삼보는 일체 법을 포섭하여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경계에 대한 설명은 마친다.

다음은 공덕(功德)을 밝히리니 ‘일체의 믿음으로 정진도에 오르면’ 반드시 삼삼매(三三昧)의 공혜(空慧)로 문을 삼는다. ‘생겨남이 없는 것[無生]’은 상이 없고[無相], 상(相)이 있는 것은 반드시 생겨나기 때문이다.

68) 십변처(十徧處, 𑖦daśa-kṛtsna-āyatanāni)란 지(地)·수(水)·화(火)·풍(風)·청(靑)·황(黃)·적(赤)·백(白)·공(空)·식(識)의 열 가지가 온갖 곳에 두루 한다는 뜻이다.

69) 승처해탈(勝處解脫)은 팔승처(八勝處)와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8승처는 육계의 색처(色處)를 관찰하고 이것을 이겨내서 탐심(貪心)을 제거하는 8단계의 과정을 말한다. ① 색(色)과 형상의 상(想)의 내심(內心)에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색처(色處)의 소분(少分)을 관찰하고 이것을 이겨서 탐욕(貪欲)을 멸한다. ② 다시 색처(色處)의 다분(多分)도 이겨낸다. ③ 내심(內心)에 색처(色處)가 멸하였으나 다시 색처(色處)의 소분(少分)을 관찰하여 이것을 이겨낸다. ④ 다시 이와 같이 색처(色處)의 다분(多分)도 이겨낸다. ⑤ 이와 같이 내심(內心)의 색상(色想)이 없고 다시 대상의 색채(色彩)의 청(靑) ⑥ 황(黃) ⑦ 적(赤) ⑧ 백(白)을 관찰하여 이것도 이겨낸다. 이 중에서 앞의 넷은 모두 초선(初禪)과 제이선(第二禪)에 의한 것, 뒤의 넷은 제사선(第四禪)에 의한 것. ①과 ②는 팔해탈(八解脫)의 제1, ③과 ④는 제2, ⑤·⑥·⑦·⑧은 제3에 해당한다. 8해탈은 탐심(貪心)을 버릴 뿐 자재(自在)를 얻지 못하고 팔승처(八勝處)는 대경(對境)을 제복(制伏)하여 자재(自在)를 얻는다는 차이가 있다.

승의를 관(視)하여 세속에 나아가므로 ‘공(空)에서 일어나 세제법(世諦法)에 들어간다.’고 한다. 진제가 곧 속제임을 요달하므로 또한 ‘두 가지 모양이 없다[無二相].’고 한 것이다. 세 번째 결론 지어 말하면 ‘공심(空心)을 상속시켜 통달(通達)하는 정진분[進分]의 선근’이라는 것은 도(道)에 나아감에 있어 모두 공을 으뜸으로 여기므로 앞에서 공심(空心)을 상속시켜 통달하는 정진선근을 ‘정진심(精進心)’이라고 한다.

述曰, 第四精進心. 若四威儀一切時行者, 以精進行舉章門也. 行住等位, 無時不策故. 次明行相. 伏空假者, 伏初二性, 空謂徧計, 假謂依他. 會法性者, 會圓成實, 伏初事相, 會眞理故. 空智德聚, 名無生山, 見有無者, 有相名有, 無相名無, 如龍樹論, 有爲名有, 無爲名無. 如有者, 世俗似有, 如無者, 勝義似無, 已上總觀一切法也. 大地青黃赤白一切入者, 十徧處也. 包勝處解脫等, 故言乃至. 已上別觀其功德門也. 三寶智性者, 大乘功德門也, 以具三寶攝一切法故. 明境界已. 次明功德, 以一切信上昇進道, 必三三昧空慧爲門, 無生者無相, 相必生故, 從勝義觀, 趣世俗故, 言起空入世諦法. 了眞卽俗, 言亦無二相. 第三結言, 續空心通達, 進分善根者, 所有進道, 皆空爲首. 故言續前空心, 通達而進善根, 名進心也.

⑤ 정심 定心

□ 불자들이여! 적멸무상(寂滅無相)은 무상무량행무량심삼매(無相無量行無量心三昧)이다. 범부와 성인이 삼매에 들지 않음이 없으니 체성과 상응하는 일체 선정의 힘을 쓰기 때문이다.

아(我)와 인(人)과 작자(作者)와 수자(受者)와 모든 얽매임[繫縛]과 견해의 성품[見性]이 장애의 인연이니라. 산란한 바람이 마음을 흔들어 고

요하지 못하게 하므로 제멸시켜 공한 것까지 공하게 하여[滅空空] 팔전도(八顛倒)에 반연됨이 없도록 해야 하리니, 고요한 해를 의지하여 관하면 모든 임시로 모인 것들이 생각 생각에 사라질 것이다. 일체 삼계(三界)의 과보를 받게 하는 죄의 성품[罪性]이 선정(禪定)으로 인하여 다 사라지게 되면 일체선(一切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니라.

若佛子! 寂滅無相, 無相無量行無量心三昧. 凡夫聖人, 無不入三昧, 體性相應, 一切以定力故. 我人作者受者, 一切縛, 見性, 是障因緣. 散風動心不寂, 而滅空空, 八倒無緣, 假靜慧觀, 一切假會念念滅. 受一切三界果罪性, 皆由定滅, 而生一切善.

■ 다섯 번째 정심(定心)이다. ‘적멸무상(寂滅無相)’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산란하게 동요하는 것이 고요하게 사라져 상이 없음을 비추기 때문이다.

다음 행상(行相) 가운데 ‘무상무량행삼매(無相無量行三昧)’는 생공의 정[生空定, 즉 我空의 선정]이니 다만 모든 행만 있고 실아(實我)가 없기 때문이다. ‘무상무량심삼매(無相無量心三昧)’는 법공의 정[法空定]이니 다만 모든 식(識)만 있을 뿐 실법(實法)이 없기 때문이다. 둘 다 진공(眞空)에 나아가므로 총히 무상(無相)이라고 한다.

‘범부와 성인이 삼매에 들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팔선정이니, 저 두 종류의 선정[二類定, 生空定 法空定]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체성과 상응한다.’고 하였으며, ‘일체행에 선정의 힘을 쓰기’ 때문에 온갖 장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我)와 인(人)과 수자(受者)’는 인집(人執)이요, ‘모든 얽매임[繫縛]’은 그 밖의 번뇌요, ‘견해의 성품[見性]’이란 법집(法執)을 들어 소지장(所知障)에 포함한 것이니 다 선정을 ‘장애하는 인연’이다. ‘산란한 바람이 마음을 흔든다.’는 것은 바르지 못한 사유이니 모

두 ‘마음을 고요하지 못하게 하므로 제멸(除滅)하여 공한 것까지 공하게 하여 팔전도(八顛倒)에 반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요한 혜(靜慧)를 의지하여 관한다.’는 것은 관법(觀)을 배우는 유정이 여법하게 정혜를 의지하며, 이 정혜로 인하여 모든 임시로 모인 고제(苦諦)를 조복하여 없애는 것이다. 능히 삼계과보를 받게 하는 죄의 성품[罪性]인 집(集)이 제멸되면 ‘일체 선(善)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 도(道)의 자량[資糧]이다.

述曰, 第五定心. 寂滅無相者, 舉章門. 寂滅散動, 照無相故. 次行相中, 無相無量行三昧者, 生空定也, 唯有諸行, 無實我故. 無相無量心三昧者, 法空定也, 唯有諸識, 無實法故. 並趣眞空, 總名無相. 凡夫聖人, 無不入三昧者, 八禪定也, 彼二類定得淳熟故, 言體性相應, 於一切行, 以定力故, 諸障滅也. 謂我人受者, 人執也, 一切縛者, 餘煩惱也. 見性者, 且舉法執, 攝所知障也, 皆是障定因緣. 散風動心者, 不正⁷⁰⁾思惟, 皆心不寂, 而滅空空及以八倒, 無攀緣也. 假靜慧觀者, 學觀有情, 法假定慧, 由此定慧, 一切假會, 苦諦伏滅. 能受三界, 罪性集滅, 言而生一切善者, 道資糧也.

⑥ 혜심 慧心

□ 불자들이여! 공혜(空慧)는 연(緣)이 없지 않다. 지의 체성[知體]을 마음이라고 부르며 일체법을 분별하는 것을 임시로 주인이라고 부르나니 도(道)와 통함이 같느니라.

과(果)를 취하고 인(因)을 행하여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 범부의 지위를

70) 卍60 p.376b2와 大40 p.691c22와 藥師寺藏本에는 ‘生’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23c23은 ‘正’으로 되어 있다.

버리고, 죄를 없애고 복을 일으켜 업매임을 풀어 다하는 것이 체성의 공용(功用)이다. 일체견(一切見)과 상락아정(常樂我淨)⁷¹⁾과 번뇌는 지혜의 성품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니, 혜(慧)를 으뜸으로 삼아 불가설한 관혜(觀慧)를 닦아서 중도(中道)의 한 진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그 무명이 혜를 장애함에 모양이 아니며[非相] 오는 것도 아니고[非來] 연이 아니며[非緣] 죄도 아니고[非罪] 팔전도도 아니며[非八倒] 생멸이 없는지라[無生滅] 지혜의 광명으로 즐거이 (허)공을 비추는 것이다. 방편과 전변(轉變)과 신통은 지(智)가 체성이 되며 혜(慧)가 작용이 되기 때문이니라.

若佛子! 空慧非無緣. 知⁷²⁾體名心, 分別一切法, 假名主者, 與道通同. 取果行因, 入聖捨凡, 滅罪起福, 縛解盡是體性功用. 一切見, 常樂我淨煩惱, 慧性不明故, 以慧爲首, 修不可說觀慧, 入中道一諦. 其無明障慧, 非相非來, 非緣非罪, 非八倒無生滅. 慧光明焰, 爲照樂虛. 方便轉變神通, 以智體性所爲, 慧用故.

■ 여섯 번째 혜심(慧心)이다. ‘공혜(空慧)’란 여섯 번째 바라밀을 든 것이다.

행상을 밝히는 가운데 ‘연(緣)이 없지 않다.’고 한 것은 의지할 연[所依緣]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니 혜(慧) 또한 성품이 없으므로 타를 의지해 일

71) 상락아정(常樂我淨, ㉟nitya-sukha-ātma-sūbha) ① 상(常)은 범부(凡夫)가 자기와 세계의 진실상(眞實相)을 알지 못하여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② 락(樂)은 즐겁다고 여기는 것. ③ 아(我)는 항상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④ 정(淨)은 청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네 가지 뒤바뀐 생각[四顛倒]을 말한다.

72) 卍60 p.376b10에는 ‘智’로 되어 있으나 韓3 p.424a5는 ‘知’로 되어 있다.

어나기 때문이다. 무엇을 의지하는 바[所依]⁷³⁾라고 하는가? 말하자면 능히 아는 체이니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름한다. ‘일체법을 요별(了別)하는 것을 임시로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왕(心王)의 성품’ 때문이다. ‘도와 통함이 같다’는 것은 혜(慧)가 상응하기 때문이니 이미 성인의 태[聖胎]에 머무는 것이다.

반드시 ‘성인에 든다.’는 등은 다 이 혜심(慧心)의 ‘체성 공용’이다. 일체에 능히 집착함과 네 가지 전도된 번뇌[四倒煩惱]⁷⁴⁾는 모두 ‘지혜의 성품[慧性]이 더럽혀져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대치(對治)⁷⁵⁾

73) 소의(所依, ⑤āśraya)는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에서 아홉 가지 의미로 나누고 있는데, 아홉 가지란 ① 기체(基體)·지지(支持), ② 근저(根底), ③ 귀의소(歸依所), ④ 근원(根源)·원천(源泉), ⑤ 문법(文法)상의 주어로서 동작의 주체, ⑥ 육체(肉體) 때로는 육근(六根), ⑦ 인간의 총체적인 존재방식, ⑧ 법계(dharmadhātu), ⑨ 전의(轉依), 전환되어야 할 존재의 근저(根底)이다. 여기서 소의(所依)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나, 전의(轉依)는 해탈(mokṣa), 자유(svatantra), 완성(pariniṣpanna)의 의미이다. 나아가 견도(見道)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도의 정점에 위치하여 불지(佛地)에 이르고 법신을 달성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섭대승론』에서 소의(所依)는 의타기성의 별명이라고 하고 있으며 『유가사지론』의 「보살지」 이후에는 소의가 아뢰야식과 관련되어 법신 또는 진여로서의 소의로 기술되고 있다.

74) 사도(四倒)는 사전도(四顛倒)라고도 하며 유위사전도(有爲四顛倒)와 무위사전도(無爲四顛倒)를 합하여 팔전도(八顛倒) 또는 팔도(八倒)라고도 한다. ① 유위사전도(有爲四顛倒)는 범부가 이 세계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무상(無常)을 상(常)이라 하고 고(苦)의 현실을 락(樂)이라고 하며, 부정(不淨)을 정(淨)이라고 하고, 무아를 아(我)라고 집착하는 것. ② 무위사전도(無爲四顛倒)는 성문·연각은 유위의 4전도에 대해서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깨달음의 경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없어진 무존재(無存在)의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는 상·락·아·정임을 알지 못하고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부정(不淨)이라고 하는 것이다.

75) 대치(對治, ⑤pratipakṣa)는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크게 지(止, śamatha)와 관(觀, vipaśyanā) 또는 정(定, dhyāna)과 혜(慧, prajñā)로 나누어진다.

함에 혜(慧)를 으뜸으로 삼아 불가설한 여러 가지 문혜(聞慧)를 닦는 것으로써 방편을 삼아 ‘중도(中道)의 한 진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공(空)의 장애를 밝힌다. ‘무명(無明)이 혜(慧)를 장애한다.’ 고 말하는 것은 많은 연이 합함을 떠나서는 자상(自相)이 없기 때문이요, ‘모양이 아니라[非相]’고 한 것은 연(緣)에 즉(卽)하지 않기 때문이요, ‘오는 것이 아니고, 연(緣)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팔전도가 아니며, 생멸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혜의 광명으로 인하여 즐거이 공을 비추는[照樂空]⁷⁶⁾’ 것이니 진실지(眞實智)를 설명하여 마쳤다. 다시 지(智)의 ‘방편과 전변(轉變)⁷⁷⁾과神通(神通)도 또한 지(智)가 체성이 되며 혜가 작용’이 되기 때문이다.

述曰, 第六慧心. 空慧者, 舉第六度. 明行相中, 非無緣者, 標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를 포함한 불교의 주류전통에서는 번뇌는 관(觀) 또는 혜(慧)에 의해 제거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유가론(瑜伽論)』 본지분의 「성문지」에서 수행도를 크게 세간도와 출세간도로 구분한다. 세간도는 하추상정(下麤上靜)의 방식에 따라 상승하는 방식으로 주로 선정의 힘에 의해 획득되는 것으로 보는데 비해, 출세간도는 견도(見道) 16행상에 대한 분석적인 혜의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 방식은 선경류(禪經類)의 수행문헌에서 보이는데 출세간도를 얻기 위해서는 혜(慧)의 중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선정은 번뇌의 현실적 작용을 단지 억압할 수 있을 뿐이고, 번뇌의 완전한 제거는 다만 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유가사지론』의 「섭결택분(攝決擇分)」(大30 p.669a12-21)에서는 대치를 4종으로 나누는데 염환대치(厭患對治), 단대치(斷對治), 지대치(持對治), 원분대치(遠分對治)를 작의(作意)하고 사유(思惟)하는 것을 대치수행(對治修行)이라 한다.

76) ‘요공(樂空)’은 ‘요허(樂虛)’와 같은 말이다. ‘요허(樂虛)’는 『호국인왕반야바라밀경(護國仁王般若波羅蜜經)』 「교화품」(大8 p.827c18)에 “圓照三世恒劫事, 返照樂虛無盡原”이라 하였는데 이 경의 글과 비슷하다.

77) 전변(轉變)은 불·보살이 정자재력(定自在力)에 의해 제법의 모든 것을 자유자재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有所依緣也, 慧亦無性, 依他起故. 何爲所依? 謂能知體, 名之爲心. 了別一切法, 假名主者, 心王性故. 與道通同者, 與慧相應故, 既住聖胎. 當入聖等, 盡是慧心體性功用也. 一切能執, 四倒煩惱, 皆由染慧性不明故. 故對治之, 以慧爲首, 修不可說種種聞慧, 以爲方便, 入於中道一眞諦也. 次明障空. 謂其無明能障慧者, 離衆緣合, 無自相故, 言非相, 不卽緣故, 非來非⁷⁸⁾緣, 既無自性故, 非罪非八倒, 無生滅也. 由此慧明, 照而樂空, 明眞實智已. 更智方便, 轉變神通, 亦智體性, 所爲以慧用故.

⑦ 원심 願心

□ 불자들이여! 원원(願願)으로 크게 구(求)하며 일체를 구할지니라. 과(果)로써 인(因)을 행하므로 원하는 마음(願心)이 이어지고, 원심이 이어져 상속되므로 백겁이면 부처가 되어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구하고 구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생겨남이 없는 공[無生空]과 하나 되어 원(願)을 관(觀)할지니, 관하여 정(定)에 들어가 비추어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견해의 얽매임[見縛]에서 구(求)하는 마음 때문에 해탈하게 되느니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행도 구하는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고 보리의 무량 공덕도 구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처음 구하는 마음을 내고, 중간에 도를 닦아 수행하여 원(願)이 원만해지므로 불과(佛果)가 문득 이루어지느니라. 한 진리[一諦]의 중도(中道)를 관(觀)하는 것은 비추는 것이 아니고 계가 아니며[非界]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非沒] 견해들[見見]이 나지만 알음알이의 헤가 아니니 원(願)의 체성(體性)이 모든 행의 본원(本原)이니라.

78) 卍60 p.377a6과 大40 p.692a8과 藥師寺藏本에는 ‘於’로 되어 있으나 韓3 p.424b1에는 ‘非’로 되어 있다.

若佛子! 願願大求, 一切求. 以果行因, 故願心連, 願心連相續, 百劫得佛滅罪. 求求至心, 無生空一, 願觀, 觀入定照, 無量見縛, 以求心故解脫. 無量妙行, 以求心成, 菩提無量功德, 以求爲本. 初發求心, 中間修道, 行滿願故, 佛果便成. 觀一諦中道, 非照非界非沒, 生見見, 非解慧, 是願體性, 一切行本原.

■ 일곱 번째 원심(願心)이다. ‘원원(願願)으로 크게 구하며 일체를 구하라.’는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두 가지 이로움(二利, 自利 利他)을 함께 구하므로 ‘원원(願願)’이라 한다. 끊기[斷]를 구하는 것을 크게 구한다[大求]고 하고, 지혜[智]를 구하는 것을 일체를 구한다[一切求]라고 한다.

행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원대한 과(果)를 구함으로써 인(因)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願心)이 이어지고’ 반드시 ‘원하는 마음이 이어져 상속’되기 때문에 ‘백겁이면 부처가 되어 곧 죄가 사라지게(滅除)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백(百)’은 많다는 뜻이고 ‘죄(罪)’는 생사이니 재앙과 근심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오로지 집중하여 법공(法空)의 일상(一相)을 구한다. 그러므로 ‘구하고 구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생겨남이 없는 공(無生空)과 하나 되어’라고 하였으니 ‘하나’란 일상(一相)이며 무상(無相)이다.

‘원(願)을 타고 관(觀)을 더하여 정(定)에 들어가 비추어 보면 해아릴 수 없는 견해의 얽매임[見縛]⁷⁹⁾에서 구하고 원하는 마음[求願心] 때문에 해탈을 얻는 것’은 그 능증(能證)의 행(行)이 ‘구하는 마음[求心] 때문에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보리의 무량공덕도 원(願)으로써 근본을 삼는 것’이다. 이미 성불하고 나면 원만하게 법계를 증득하여 유(有)와 무(無)의 치

79) 견박(見縛, 5dr̥ṣṭi-kṛta-bandhana)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미혹(迷惑), 삼계의 견혹(見惑)이다. 우리를 속박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하므로 박(縛)이라고 한다.

우친 견해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일체중도(一諦中道)를 관(觀)한다.’고 하였다. 만덕(萬德)이 서로 융합하여 능히 비추는[能照] 지분(智分)과 비추어진[所照] 법계(法界)가 비록 차별이 없더라도 이승(二乘)의 회신멸지(灰身滅智)와는 같지 않으므로 또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非沒].’라고 하며, 친히 원만하게 증득하고 나면 후득지(後得智)⁸⁰⁾에서 한량없는 작용을 일으키므로 ‘견해들[見見]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我)의 작용하는 바[所作]가 있다고 하지 않고 ‘알음알이의 해가 아니라’고만 하였으니 문장의 결론을 알지니라.

述曰，第七願心。願願大求，一切求者，舉章門也。雙求二利，故言願願。求斷名大求，求智名一切求。明行相中，以求遠果，修行因故，願心連也，必由願心連相續故，百劫得佛，卽滅罪也。百謂多義，罪卽生死，災患聚故。專注連求法空一相。故言求求至心，於無生空一，一者一相，所謂無相。乘願增觀而入定照，則無量見縛，以求願心故得解脫，其能證行，以求心成，由

80) 후득지(後得智, 卽pr̥ṣṭha-labdha-jñāna)는 무분별지(無分別智) 이후에 얻는 지혜로서 무분별후지(無分別後智)라고도 한다. 이는 여량지(如量智)·권지(權智)·속지(俗智)라고도 하며, 근본지에 의하여 진리를 깨달은 뒤 다시 분별하는 얇은 지혜를 일으켜서 의타기성의 속사(俗事)를 환하게 아는 지혜이다.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권8(大31 p.207b12-14)에서는 “무분별후지로 인하여 일체법의 상(相)에 대해 보살은 스스로 전도된 망상이 없고, 스스로 증득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제법의 인과를 설하니, 이 두 가지 작용을 얻기 위해서 보살은 무분별후지를 닦아야 한다. 由無分別後智，於諸法相中，菩薩自無顛倒，如自所證，亦能爲他，說諸法因果，爲得此兩用故，菩薩修無分別後智。”라고 했다. 안혜(安慧)의 『대승장엄경론석소(大乘莊嚴經論釋疏)』에 의하면 근본무분별지(根本無分別智)와 후득지(後得智)와의 상위(相違)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근본무분별지(根本無分別智)는 극청정(極淸淨)의 출세간지(出世間智)로서 일체법을 허공같이 보는 것이고, 후득지는 청정한 세간지로서 세간계의 일체 사물을 허깨비[幻], 아지랑이[陽], 불꽃[焰]과 같이 보는 것이다.”

此菩提無量功德，以願爲本。旣成佛已，圓證法界，離有無邊，言觀一諦中道也。萬德相融，能照智分，所照法界，雖無差別，非如二乘灰身滅智，亦言非沒，親圓證已，於後得智，起無量用，言生見見。然不謂言我有所作，言非解慧，結文可解。

⑧ 호심 護心

□ 불자들이여! 삼보를 보호하는 것이 일체행의 공덕을 보호하는 것이니 외도와 팔전도와 나쁜 사건[惡邪見]으로 하여금 바른 믿음[正信]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의 얽매임[我縛]이 사라지고 견의 얽매임[見縛]이 생겨나지 않아야 이제(二諦)를 비추어 통달하여 관하는 마음[觀心]이 앞에 나타나게 되느니라.

근본을 보호함으로써 무상(無相)을 보호하며 공(空)과 무작(無作)과 무상(無相)을 보호함으로 심혜(心慧)가 이어지며, 혜(慧)가 이어지므로 무생(無生)에 들어가 공도(空道)와 지도(智道)가 다 밝게 빛나고, 밝게 빛나게 되나니, 관(觀)을 보호해 공(空)에 들어가면 임시로 된 것이 분분(分分)해져서 환화(幻化)와 환화가 일어나는 바가 없는 듯하고 없는 듯하다. 법체의 모이고 흩어짐을 보호할 수 없으니 관법 또한 그러한 것이니라.

若佛子! 護三寶，護一切行功德，使外道八倒惡邪見，不燒正信。滅我縛，見縛 無生，照達二諦，觀心現前。以護根本，無相護，護空無作無相，以心慧連，慧連入無生，空道智道，皆明光明光。護觀入空，假分分，幻化幻化所起，如無如無。法體集散不可護，觀法亦爾。

■ 여덟 번째 호심(護心) 가운데 ‘삼보를 보호하는 것이 일체 행의 공덕을 보호하는 것’이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의지하는 바와 자신의 행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행상을 밝히겠다. 먼저 외도로부터 보호함이니 ‘바른 믿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삼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무상행(無相行)으로 전도된 마음을 조복하기 때문에 ‘아의 얽매임[我縛]과 견의 얽매임[見縛]이 사라져 생겨나지 않는’ 등은 자신의 행[自行]을 보호하는 것이다. 번뇌장(煩惱障)⁸¹⁾의 조복은 ‘아의 얽매임[我縛]이 사라진 것’을 말하고 소지장(所知障)의 조복은 ‘견해의 얽매임[見縛]이 생겨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행상으로 이와 같이 보호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근본삼보(根本三寶)를 보호함으로써 무상행을 보호’하는 것이며 자신의 ‘삼공문(三空門)을 보호함으로써 심혜(心慧)가 이어지고 혜(慧)가 이어지는’ 등이다. 이공(二空)이 서로 도우므로 ‘혜가 이어지고 혜가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와

81) 번뇌장(煩惱障, 𑖦kleśa-āvaraṇa)과 소지장(所知障, 𑖦jñeya-āvaraṇa)의 이장(二障)이 있는데 이 가운데 번뇌장은 혹장(惑障)이라 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 곧 성도(聖道)를 방해해서 열반을 얻지 못하게 하는 번뇌를 뜻한다. 『구사론』 권17(大29 p.131b22-c9), 『구사론』 권25(大29 p.131c11-16)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무루의 지혜가 생기는 것을 방해하여, 혜해탈(慧解脫)을 얻지 못하게 하는 번뇌를 번뇌장이라고 하고, 번뇌장을 여의어 혜해탈을 얻어도 멸진정 얻는 것을 방해하여 구해탈(具解脫)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를 해탈장(解脫障)이라고 한다. 또 『성유식론』 권9(大31 p.48c6-11)에서는, 중생의 신심을 교란시켜 열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번뇌를 번뇌장이라 하고 업을 일으키어 삼계에 나게 하는 작용이 없지만, 알아야 할 대상을 덮어서 바른 지혜가 생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번뇌를 소지장이라고 한다. 이 이장은 어떤 것이나 살가야견(薩伽耶見)을 비롯해 128가지의 근본번뇌와 20가지의 수번뇌(隨煩惱)를 체(體)로 한다. 그 가운데 ‘실체의 사람, 실체의 중생이 있다’고 하며 나를 집착하는 아집(我執)을 번뇌장이라 하며, ‘사물의 실체가 있다’고 하여 법에 집착하는 법집(法執)을 소지장이라 한다. 그러므로 번뇌장은 아집을 근본으로 하고, 소지장은 법집을 근본으로 한다. 그 작용에 대해서 말하면 번뇌장은 열반을, 소지장은 보리를 장애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이 서로 ‘이어지므로 무생(無生)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도(止道)와 관도(觀道)가 곧 ‘밝게 빛나고 밝게 빛나서’ 이장(二障)⁸²⁾을 조복하여 결림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觀)을 보호해 공한 경지에 들어가면’ 세속의 ‘임시로 모인 상’이 낱낱 다르기 때문에 ‘분분(分分)’이라고 한다. 아(我)인 듯하고 법(法)인 듯하여 망식(妄識) 가운데 있는 듯하므로 ‘환화(幻化)와 환화가 일어나는 바’라고 한다. 세속의 상(相)은 성품이 공하여 공한 지[空智] 가운데 없는 것과 같으므로 ‘없는 듯하며 없는 듯하다.’고 한다.

아래에서 결론 지어 말하자면 연(緣)이 화합하여 일어나는 바는 ‘법체(法體)의 모임’이라 하고, 다시 많은 연에 속하는 것은 ‘법체(法體)의 흩어짐’이라 한다. 정(定)해진 자성이 없으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 관하는 바[所觀]의 이치와 능히 관함[能觀]⁸³⁾도 또한 그러하다.

述曰，第八護心之中，護三寶護，一切行功德者，舉章門也。以護所依及自行故。次明行相。初護外道，不令燒正信者，護三

82) 이장(二障)은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을 말한다.

83) 능관(能觀)은 관찰의 주체로서 능취(能取, grāhaka)를 말하며 소관(所觀)은 이취(二取)의 하나로서 관찰대상의 소취(所取, grāhya)를 말한다. 이취는 『유가사지론』에서 십삼중도(十三中道)의 11번째에 ‘앞의 무아성(無我性)은 뒤의 무아성이 되고’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취를 관찰하는 것으로 부정의 의미는 아니다. 또 『유가사지론』의 「섭결택분」에서 오사(五事)를 논하는 곳이나 또는 삼성(三性)을 논하는 곳에 능취·소취의 말이 서술되고 있어도(大30 pp.700c-701; 704b), 이취를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면, 「성문지」의 제3 유가처에 설해진 사중소연(四種所緣) 중에 정행소연(淨行所緣)에 관한 설명에서 이취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산스크리트본에 의해서 ‘grāhya-grāhaka’임을 확인할 수 있다.(大30 p.431b-c) 또 『해심밀경』의 「분별유가품(分別瑜伽品)」에서 17종의 공(空)을 가지고 제상(諸相, nimitta)을 제거함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소취와 능취의 의미를 열거하여도, 이취를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다.(大16 p.701a) 허망분별을 가리기 위하여 이취의 부정을 설하는 사상은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변중변론(辨中邊論)』 이후에 성립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寶也. 以無相行, 伏倒心故, 滅我縛見縛, 無生等者, 護自行也. 伏煩惱障, 言滅我縛, 伏所知障, 言見縛無生. 以何行相如此護耶? 謂護根本三寶, 以無相行護, 護自三空門, 以心慧連慧連等也. 二空相資故, 言慧連慧連. 如是相連入無生者, 止道觀道, 則明光明光, 以伏二障, 無罣礙故. 如是護觀, 入於空境, 俗假相別, 故言分分. 似我似法, 妄識中似有, 故言幻化幻化所起. 俗相性空, 空智中似無, 故言如無如無. 以下結云, 緣合所起, 言法體集, 還屬衆緣, 言法體散. 無定自性, 言不可護, 如所觀理, 能觀亦爾.

⑨ 희심 喜心

□ 불자들이여!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항상 기쁨[喜悅]을 낼지니라. 일체 물(物)에 이르러서 가(假)와 공(空)으로 고요히 비추어 보며, 유위(有爲)에 들지 않으므로 적연함이 있다. 큰 즐거움에도 합하지 않고, 받아들임이 있으면 교화하고 법이 있으면 보느니라.

그윽하게 법성(法性)의 평등함을 의지하여 한결같은 마음과 마음의 행을 관할지니라. 모든 부처님의 행을 많이 듣는 공덕[多聞功德]과 형상 없이 (따라) 기뻐하는 지(智)로 마음마다 생각이 나서 고요히 비추어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체법을 반연할지니라.

若佛子! 見他人得樂, 常生喜悅. 及一切物, 假空照寂, 而不入有爲, 不無寂然. 大樂無合, 有受而化, 有法而見. 玄假法性平等, 一觀心心行. 多聞一切佛行 功德, 無相喜智 心心生念而靜照, 樂心緣一切法.

■ 아홉 번째 희심(喜心)이다.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항상

기쁨을 내라.’는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일체에 이르러서’ 아래는 행상을 밝힌 것이다. ‘가(假)’는 의타기성(依他起性)을 말하고 ‘공(空)’은 변계소집성(徧計所執性)을 말한다. 가(假)와 공(空) 두 상을 두루 조복하므로 ‘일체에 이르러서’라고 하였고, 두 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고요히 비추어 보며(照寂)’라고 하였다. 처음 두 성(性)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유위(有爲)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진여(眞如)의 그림자가 나타나므로 ‘적연(寂然)함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안으로 증득한 즐거움 가운데 경계와 지혜가 모두 공(空)하므로 ‘큰 즐거움[大樂]에도 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비록 반야로 공을 증득하나 오히려 대비로 중생을 교화하며 유(有)의 경계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받아들임이 있으면 교화하고 법이 있으면 본다[見]’고 한 것이다.

‘그윽하게 법성(法性)의 평등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二諦)의 성품이 평등함을 보고 한결같이 마음과 마음 가운데 행을 관하는 것’이다. ‘현(玄)’은 승의(勝義)이고 ‘가(假)’는 세속이니 반야와 대비가 서로 융합하기 때문이다. ‘일체 부처님의 행을 많이 들은 공덕[多聞功德]’ 등이란 다문(多聞)의 과덕(果德)과 인행의 덕[因行德]이다. 널리 ‘형상 없이 따라 기뻐하는 지혜’로써 정념(正念)을 연이어 내어 오롯하게 비추니 이미 한결같이 생겨남이 없으면[無生] 부처가 곧 나이기 때문이다.

결론 지어 말하자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체 법을 반영하라.’는 것은 질투 등에서 벗어나 기쁨[喜悅]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述曰, 第九喜心. 見他人得樂, 常生喜悅者, 舉章門也. 及一切下, 明行相也. 假謂依他, 空謂徧計. 徧伏二相, 言及一切, 二相不現, 名爲照寂. 不見初二性, 言不入有爲, 眞如影現, 言不無寂然. 內證樂中, 境智俱空, 故言大樂無合, 般若雖證空, 大悲猶化物, 攀緣有境. 故言有受而化, 有法而見也. 玄假法性等

者，見二諦性平等，一觀心心中行也。玄者勝義，假者世俗，般若大悲而相融故。多聞一切佛行功德等者，多聞果德及因行德，普以無相隨喜之智，連生正念而專照也，旣一無生，佛卽我故。以下結云樂心緣一切法者，離嫉妒等喜悅緣故。

⑩ 정심 頂心

□ 불자들이여! 이는 사람으로서 최상의 지(智)이니라.

아륵(我輪, 我執으로 輪廻)·견(見, 62견)·의(疑, 법에 대한 의심)·신(身, 身見)과 모든 성념 등(瞋等, 貪·瞋·癡·慢·疑 等)이 사라져 없어진 것이 마치 꼭대기[頂]와 같고, 관(觀)이 이어지고 관이 이어지는 것도 꼭대기와 같나니 법계 가운데 인과의 여여(如如)⁸⁴⁾한 하나의 도[一道]가 가장 수승하고 높은 것이 마치 꼭대기와 같으며, 사람의 정수리와도 같나니라.

비비(非非, 뒤의 두 종류의 견을 구별하기 위하여 非非라고 함) 신견(身見)과 육십이견(六十二見)⁸⁵⁾과 오중(五衆, 五蘊)의 생멸에서 신아(神我)의

84) 여여(如如, ⑤tathātā)는 5법의 하나로서 진여를 가리킨다. 만유제법의 이체(理體)는 동일하고 평등하므로 여(如)이다. 하나의 여(如)에 하나의 법계가 만 가지 차별법[一法界萬差別法]을 갖추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든지 체(體)에서 보면 여(如)이고, 여(如)의 뜻이 하나만이 아니므로 여여(如如)라고 한다.

85) 육십이견(六十二見)은 62가지의 잘못된 견해로 자기와 세계에 관하여 불교의 정도에서 빗나간 잘못된 견해의 총칭. 본래는 부처님 재세시(在世時)에 주장한 이 교도의 사상을 모은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① 본겁본견(本劫本見)·말겁말견(末劫末見)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62종으로 나눈 것이다. 본겁은 과거시, 본견은 과거에 상견(常見)을 일으킨 것. 말겁말견은 미래에 단견(斷見)을 일으키는 것. 본겁본견의 설이 18종, 말겁말견의 설이 44종이어서 합하면 62견이다. ② 과거·현재·미래의 3세에 각각 5온이 있어, 곱하여 15가 되고, 날 날이 4구의 이견(異見)이 있어 합하여 60견이 된 것에 근본인 단(斷)·상(常) 2견을 더한 것을 말한다. 『장아함경(長阿含經)』 권14(大1 pp.89c23-94a13),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열반경』 등에 기술되어 있다.

주인이 움직이고[動] 구르고[轉] 구부리고[屈] 펴[伸]에 느낌[受, 受蘊]이 없고 이어지는 생각[行, 行蘊]을 잡아 묶는 것[捉縛]이 없으므로 이 사람은 그 때 내공(內空)의 바른 도[直道]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심심중생(心心衆生)을 연(緣)으로 보지 않고, 연이 아니라고도 보지 않으며, 정삼매적멸정(頂三昧寂滅定)에 머물러 행을 일으켜 도에 나아간다. 성품이 실재한다거나, 아인(我人)의 상견(常見)과 팔전도(八顛倒)가 생겨나더라도 불이법문(不二法門)을 반연하여 팔난(八難)⁸⁶⁾을 받지 않고 환화(幻化)의 과(果)도 결코 받지 않는, 다만 하나의 중생이니라.

가고[去]·오고[來]·앉고[坐]·섬[立]에 수행하여 죄를 없애고 십악(十惡)을 제거하며 십선(十善)을 내는 것이 도(道)에 들어간 바른 사람[正人]의 바른 지[正智]이며 바른 행[正行]인 것이다. 보살은 현전에 달관(達觀)하여 육도(六道)의 과(果)를 받지 않고 반드시 불종성(佛種性)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날 때마다 불가(佛家)에 들어가 바른 믿음[正信]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위의 「십천광품(十天光品)」에서 자세하게 실했느니라.

若佛子! 是人最上智. 滅無我輪見疑身, 一切瞋等如頂, 觀連觀連如頂. 法界中因果 如如一道, 最勝上如頂, 如人頂. 非非身見, 六十二見, 五衆生滅, 神我主人動轉屈伸, 無受無行可捉縛者, 是人爾時入內空直道. 心心衆生, 不見緣, 不見非緣, 住頂三昧寂滅定, 發行趣道. 性實我人常見八倒生, 緣不二法門, 不受八難, 幻化果畢竟不受, 唯一衆生. 去來坐立, 修行滅罪, 除十惡, 生十善, 入道正人正智正行. 菩薩達觀現前, 不受六道果, 必不退佛種性中, 生生入佛家, 不離正信, 上十天

86) 팔난(八難)은 지옥난(地獄難)·아귀난(餓鬼難)·축생난(畜生難)·장수천난(長壽天難)·변지난(邊地難)·맹롱음아난(盲聾瘡癡難)·세지변총난(世智辯聰難)·불전불후난(佛前佛後難)이다.

光品, 廣說.

■ 열 번째 정심(頂心)이다. ‘이는 사람으로서 최상의 지(智)’라는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다음은 명과 의[名義]를 해석하였으니 앞의 아홉 가지 마음[九心]⁸⁷⁾보다 뛰어난 세 가지 뜻으로 최상[頂]과 같다고 한 것이다.

첫째 장애를 없애는 것이 최상[頂]과 같다. ‘아윤(我輪)’이란 아(我)에 대한 집착이 앞서므로 번뇌하고 윤회(輪廻)하는 것을 말하며 ‘예리한[利, 五利使로 끊기 쉬운 다섯 가지 번뇌] 견(見)과 의(疑) 신(身)과 둔한[鈍品, 五鈍使로 끊기 어려운 다섯 가지 번뇌] 성냄 등[瞋等] 번뇌가 다 제멸되어 없어지는 까닭’에 수승하기가 꼭대기 같은 것이다. 둘째 지(智)가 수승함이 꼭대기와 같음은 ‘최상의 지(智)’가 이어짐이 꼭대기와 같기 때문이다. 셋째 경계의 수승함이 꼭대기와 같음은, 법계에 두루한 인과가 원용하며 ‘여여(如如)한 하나의 도가 가장 수승한 것이 꼭대기와 같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의 정수리와도 같다는 것’은 위의 세 가지를 총괄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다음에는 행상을 설명하겠다. ‘신견(身見)과 육십이견(六十二見)’이 같지 않으므로 두 종류의 견(見)을 구별하기 위하여 ‘비비(非非)’라고 한다. ‘오중(五衆)’은 곧 오온(五蘊)이다. 오온이 찰나 찰나마다 생멸하여 ‘신아(神我)’의 체(體)가 항상 유전(流轉)한다고 잘못 집착하므로 식온(識蘊)의 공(空)함을 관하는 것이니 다분히 식온을 헤아려 아상(我相)을 삼기 때문이다. ‘느낌이 없고[無受]’라고 한 것은 수온(受蘊)이 공(空)하다고 관하는

87) 구심(九心)은 『범망경교적기』 앞부분에서 설명한 아홉 가지 마음으로 사심(捨心)·계심(戒心)·인심(忍心)·진심(進心)·정심(定心)·혜심(慧心)·원심(願心)·호심(護心)·희심(喜心)이다.

것이며, ‘이어지는 생각[行, 行蘊]을 잡아 묶는 것[捉縛]이 없다.’는 것은 나머지 세 가지 온(蘊)이 공(空)함을 관하는 것이다. ‘행(行)’은 곧 행온(行蘊)이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색온(色蘊)이 공하기 때문이요, ‘묶을 것이 없다’는 것은 상온(想蘊)이 공(空)하기 때문이니 망상(妄想)이 계박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계경(契經)에서 “식(識)은 환화(幻化)와 같고 그 밖의 색(色)은 거품무더기[聚沫]와 같다.”⁸⁸⁾ 고 한 것과 같다. ‘내공(內空)의 바른 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내문(內門)의 순수한 한 맛의 도[一味道]에 들어가는 것이다.

위에서는 반야를 밝혔으니 다음에는 대비(大悲)를 설명하겠다. 찰나 찰나마다 ‘모든 중생에게 연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연이 아니라고도 보지 않으며’ 항상 무연대비(無緣大悲)를 반연하여 ‘정삼매적멸정(頂三昧寂滅定)’에 머무르며 또한 가행(加行)을 일으켜 도를 증득하는 데 나아간다. 그때 설령 성품이 실재한다는 아인(我人)의 상견(常見)과 팔전도가 생겨나면 곧 불이법문(不二法門)을 반연하는 것이다. ‘성품이 실재한다는 견해’는 법집(法執)이며 ‘아인견(我人見)’이라는 것은 생집(生執, 我執, 衆生執)이다. ‘이로 인하여 팔난(八難)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삼악도(三惡道) 등이다. ‘환화(幻化)의 과(果)도 마침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도분(道分)의 선근(善根)’이니 생사에 끌리는 업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동체대비(同體大悲)는 나를 떠나 교화할 수 없으므로 ‘다만 하나의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위의(四威儀) 가운데서 ‘악을 제멸하고 선을 내므로 도(道)에 들어간다.’는 것은 총구(總句)이고 나머지 셋은 별구(別句)이다. 십해(十解)의 위(位)가 원만해지면 ‘바른 사람[正人]’이라 하고, 복(福)과 지(智)의 자량(資

88) 『대장엄경론(大莊嚴經論)』 권12에 나오는 오온 각각의 자성이 공하다는 비유 중 식(識)과 신(身)에 대한 두 가지를 인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색여취말(色如聚沫)”이라 하였는데 『대장엄경론』에서는 “신여취말(身如聚沫)”이라 한다.

糧)이 성립되면 ‘바른 지[正智]’와 ‘바른 행[正行]’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행(行)은 곧 복(福)이다.

아래는 총히 결론 지은 말[總結]이다. ‘보살이 현전에 달관(達觀)하여 육도(六道)의 과(果)를 받지 않고 반드시 불종성(佛種姓)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전(流轉)을 등지고 환멸문(還滅門)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날 때마다 불가(佛家)에 들어간다.’는 것은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 “진여로써 불가(佛家)를 삼는다.”⁸⁹⁾고 한 것이며 상응하는 견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십천광품(十天光品)’은 앞의 품명(品名)을 가리킨다.

述曰, 第十頂心. 是人最上智者, 舉章門也. 次釋名義, 前九心上, 三義如頂. 一滅障如頂. 言我輪者, 執我爲首, 輪迴煩惱. 利見疑身, 及以鈍品瞋等煩惱, 皆滅無故, 勝如頂也. 二智勝如頂, 最上智連如頂故. 三境勝如頂, 周徧法界, 因果圓融, 如如一道, 最如頂故. 如人頂者, 總喻上三也. 次明行相. 不同身見六十二見, 簡二類見, 故言非非. 五衆卽五蘊也. 於蘊剎那剎那生滅, 謬執神我體常流轉, 觀識蘊空也, 多計識蘊爲我相故. 無受者, 觀受蘊空, 無行可捉縛者, 觀餘三蘊空也. 行卽行蘊. 無可捉者, 色蘊空故, 無可縛者, 想蘊空故, 妄想縛本故. 如契經云, “識如幻化, 乃至色如聚沫.” 言入內空直道者, 卽入內門純一味道. 上明般若, 次明大悲. 剎那剎那, 於諸衆生, 不見有緣, 不見非緣, 恒以無緣大悲攀緣, 住頂三昧寂滅定, 亦發加行, 於趣證道. 爾時設有性實我人常見八倒生者, 則緣不二法門. 性實見者法

89)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는 “불가(佛家)” 또는 “여래가(如來家)”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도 “진여로써 불가로 삼는다.”는 말과는 차이가 있다.

執也, 我人見者, 生執也. 由此不受八難者, 三途等也. 幻化果畢竟不受者, 道分善根, 不造生死引業故. 同體大悲, 離我無化, 故言唯一衆生. 四威儀中, 滅惡生善, 言入道者總句, 餘三別句. 滿十解位, 名爲正人, 立福智資糧, 名正智正行, 行卽福也. 下總結言. 菩薩達觀現前故, 不受六道果, 必不退於佛種姓中也, 以背流轉, 向還滅故. 生生入佛家者, 十住毘婆沙云, “以眞如爲佛家.” 相應解成, 故言入也. 十天光品者, 指上品也.

ㄴ. 십장양심 + 長養心

❶ 자심 慈心

□ 노사나불께서 말씀하셨다.

천불들이여,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이 먼저 열 가지 장양심에 대하여 물었나니, 불자들이여! 항상 자애로운 마음[慈心]을 행하면 즐거움의 인(因)이 생기나니 무아(無我)의 지(智)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상응하는 관(觀)으로 법에 들어간다. 수상행식색(受想行識色) 등의 대법(大法) 중에는 생겨남이 없고, 머무름이 없으며, 사라짐도 없어서 환화(幻化)와 같다. 여여하여 돌이 없는 것으로 일체를 수행하며 법륜을 이루어 일체에 교화를 입히고 능히 바른 믿음[正信]을 내어 마군[魔]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한다. 또한 능히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자애로움과 즐거움의 과를 얻게 하나니 실(實)이 아니며 선악의 과가 아닌, 공체성삼매(空體性三昧)를 알게 하는 것이니라.

盧舍那佛言. 千佛諦聽! 汝先問長養十心者, 若佛子! 常行慈心生樂因已, 於無我智中, 樂相應觀入法. 受想行識色等大法中, 無生無住無滅, 如幻如化. 如如無二故, 一切修行 成法輪, 化被一切, 能生正信, 不由魔教. 亦能使一切衆生得慈樂果, 非

實非善惡果, 解空體性三昧.

■ 두 번째 십장양(十長養) 가운데 거듭 묻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자심(慈心) 가운데 ‘항상 자애로운 마음[慈心]을 행하면 즐거움의 인(因)이 생긴다.’고 한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자애로움(慈)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반연할 것이 없는 자애[無緣慈]로 자비로운 행이 바로 이루어지면 자신도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다. 반연할 바 법에 들어가면 곧 오온(五蘊)의 크고 참된 법[大眞法] 가운데 공한 온[空蘊]의 삼상(三相)⁹⁰⁾이 환(幻)과 같고 화(化)와 같아서 진여와 둘이 아니므로 곧 성도법륜(聖道法輪)을 감당할 수 있다.

‘교화를 입혀서’ 이하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믿음을 내게 하는 대비문(大悲門)이다. ‘실(實)이 아니며’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되는 신심이 공(空)하기 때문이며 ‘선악의 과가 아닌 것’은 안락하다고 여기는 즐거움의 과(樂果)도 공(空)하기 때문이다. ‘공체성삼매(空體性三昧)를 안다’는 것은 자애로운 행의 성취를 결론지은 것이다.

述曰, 第二十長養中, 牒問可知. 此初慈心中, 常行慈心生樂因已者, 舉章門也. 慈與樂故, 此無緣慈, 慈行旣成, 自亦樂俱. 入所緣法, 謂卽五蘊大眞法中, 空蘊 三相, 如幻如化, 眞如無二故, 則堪當成聖道法輪. 言化被已下, 教他生信大悲門故. 言非實者, 謂所利益, 信心空故, 非善惡果者, 謂所安樂, 樂果空故. 言解空體性三昧者, 結慈行成也.

90) 삼상(三相)은 모든 존재에게 있는 세 가지 상으로 ① 가명상(假名相)은 거짓된 것으로 실체가 없는 상(相), ② 법상(法相)은 5온·12처·18계의 제법으로서의 상(相), ③ 무상의 상을 말한다. 공온(空蘊)의 삼상(三相)은 무생(無生)·무주(無住)·무멸(無滅)이다.

② 비심 悲心

□ 불자들이여! 슬픔[悲, 衆生에 대한 惻隱之心]이 공(空)하니 공하여 모양이 없는 것이다[空無相]. 슬픔을 반연하여 도를 행하여 스스로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야 하느니라. 일체중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 지혜를 내야하나니, 중생을 죽이지 않는 연, 법을 죽이지 않는 연, 아(我)에 집착하지 않는 연으로, 항상 죽이지 않음[不殺]과 도둑질하지 않음[不盜]과 음행하지 않음[不婬]을 행하여 한 중생도 괴롭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라.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공에서 일체법의 여실한 상(相)을 보나니, 중성행(種性行) 가운데에서 도에 대한 지혜의 마음[道智心]을 내나니라. 육친(六親)과 육악(六惡)의 친근하고 악한 삼품(三品, 上中下) 가운데 상품의 즐거움을 주는 지[上樂智]와 가장 악한 인연[上惡緣] 가운데 구품(九品)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니, 과보의 공함[果空]이 나타날 때 자신과 다른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여겨 한결같은 마음으로 즐거이 대비심[大悲, 中생을 가없이 여기는 큰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若佛子! 以悲空, 空無相. 悲緣行道, 自滅一切苦. 於一切衆生無量苦中生智, 不殺生緣, 不殺法緣, 不著我緣故, 常行不殺不盜不婬, 而一衆生不惱. 發菩提心者, 於空見一切法如實相, 種性行中生道智心. 於六親六惡親惡三品中, 與上樂智, 上惡緣中, 九品得樂. 果空現時, 自身他一切衆生平等, 一樂起大悲.

■ 두 번째 비심(悲心) 가운데 ‘슬픔[悲]이 공(空)하니 공하여 모양이 없는 것이다[空無相]’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유(有)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공(空)’이라 하고 공도 공하기 때문에 ‘공하여 모양이 없다[空無相]’고 한 것이다.

다음에는 행상을 밝히겠다. ‘슬픔을 반연하여 도를 행하여 스스로 일체

의 괴로움을 없애야 하는 것'은 구절을 나타낸 것이다. '연'은 반연(攀緣)을 말하는 것이니 아래 유정연(有情緣) 등의 세 가지와 같다. 어떻게 괴로움을 없애는가? 먼저 '중생이 고통 가운데에서 지혜를 내야 하나니'라고 하였으니 어떠한 지혜를 내야하는가? 세 가지가 있으니 ① 유정연(有情緣)으로 경에서 '중생을 죽이지 않는 연[不殺生緣]'이라 한 것과 같다. ② 법연비(法緣悲)이니 경에서 '법을 죽이지 않는 연[不殺法緣]'이라 한 것과 같다. ③ 무연비(無緣悲)이니 경에서 '아(我)에 집착하지 않는 연[不著我緣]'이라 한 것과 같다. 이로 인하여 모든 중생이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행상을 밝힌다. 대저 '대비심(大悲心)을 일으킨다.'는 것은 공성(空性) 가운데 일체법의 여실한 성(性)을 보는 것이니, 만약 공성(空性)을 잃어버리면 모든 대승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종성행(種性行) 가운데에서 도에 대한 지혜의 마음[道智心]을 낸다.'는 것은 이 위(位)에서 벗어난 수행이다. 『호국인왕반야경(護國仁王般若經)』에서 말하기를 “은륜(銀輪)⁹¹⁾은 삼천축(三天主)의 성종성(性種性)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아버지 등 '육선(六善)'은 나에게 '친근(親)'하고 그것을 뒤집으면 '육악(六惡)'이 되니 나에게 악(惡)이 된다. 저 두 가지가 각각 상중하품이 있는데 '상품의 즐거움[樂]'을 주어서 고통[苦]에서 빼내고자 함이다. 또한 '상품의 악(惡)'도 근기에 따라 각각 '구품(九品)으로 즐거움을 얻게 한다.'는 것은 곧 과보의 공함[果空]을 관하게 하여 상품의 즐거움[上樂]을 주고자 함이다. 그러나 구품(九品)으로 차별된 즐거움도 도리어 근기에 속할 뿐이니

91) 은륜(銀輪) : 이상적인 정치를 하는 위대한 통치자로 금륜(金輪), 은륜(銀輪), 동륜(銅輪), 철륜(鐵輪)의 사왕(四王)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인 은륜왕(銀輪王)은 즉위할 때 하늘에서 은(銀)으로 된 보배바퀴를 얻어서 사주(四洲) 가운데 동(東), 서(西), 남(南)의 삼주(三洲)를 지배한다. 『호국인왕반야경(護國仁王般若經)』과 『구사론(俱舍論)』 12권 참조.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즐거운 과보의 공한 모양’이 자애로운 마음[慈心] 가운데 나타나므로 ‘한결같이 즐거운 행으로써 대비심을 이끌어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述曰, 第二悲心中, 以悲空空無相者, 舉章門也. 有性空故言空, 空亦空故, 言空無相. 次明行相. 悲緣行道自滅一切苦者, 標句也. 緣謂攀緣, 如下有情緣等三故. 如何滅苦? 先於衆生苦中生智. 生何等智? 謂有三種, 一有情緣, 如經, 不殺生緣故. 二法緣悲, 如經, 不殺法緣故. 三無緣悲, 如經, 不著我緣故. 由此於一切衆生不惱也. 次明行相, 夫發大悲心者, 於空性中見一切法如實性, 若失壞空性則失一切大乘故. 種性行中生道智心者, 出斯位行也. 如仁王云, “銀輪三天性種性故.” 父等六善, 於我爲親, 翻彼六惡, 於我爲惡. 彼二各有上中下品, 欲與上樂而拔苦也, 且上品惡, 隨器各得九品樂者, 卽觀果空, 欲與上樂. 而九品別樂, 還屬器, 無自性故, 樂果空相, 慈心中現, 以一樂行, 引起大悲也.

㉓ 희심 喜心

□ 불자들이여! 기쁨[悅喜]으로 생겨남이 없는 마음[無生心]인 때[時], 중성(種性)과 체상(體相)과 도지(道智)가 공공(空空)이므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我)와 아소(我所)에 집착하지 않고 삼세에 출몰하지만 인과가 모인 것[集]이 없다. 일체유(一切有)에서 공에 들어가 관하는 행이 이루어져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공을 일으켜 도에 들어가 악지식을 버리고 선지식을 구하며 나의 좋은 도를 보여주어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불법의 집[家]에 들어오게 한다. 법가운데서 항상 환희를 일으켜 법위(法位)에 들어가게 하며 다시 모든 중

생들이 바른 믿음[正信]에 들어가 사건을 버리고 육도(六道)의 괴로움을 등지게 되므로 기쁜 것이니라.

若佛子! 悅喜無生心時, 種性體相道智, 空空喜心. 不著我所, 出沒三世, 因果無集. 一切有入空, 觀行成, 等喜一切衆生. 起空入道, 捨惡知識, 求善知識, 示我好道, 使諸衆生入佛法家. 法中常起歡喜, 入法位中, 復是諸衆生, 入正信 捨邪見, 背六道苦故喜.

■ 세 번째 희심(喜心) 가운데 ‘기쁨[喜悅]으로 생겨남이 없는 마음[無生心]인 때[時]’는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기쁜 마음으로 공을 관하는 것을 ‘생겨남이 없는 마음[無生心]’이라고 한다.

‘종성(種性)과 체상(體相)과 도지(道智)’라고 하는 것은 위(位)의 체상(體相)이다. 자타가 공하므로 ‘공공(空空)’이라 하고, 남을 따라 기뻐함을 ‘희심(喜心)’이라 한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①성품이 공한 것이니 아(我)와 아소(我所)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법이 공한 것이니 유전함에 ‘모인 것이 없음[無集]’을 통달하였기 때문이다. ‘출몰(出沒)’은 유전한다는 뜻이다. 여러 연이 일어나서 다시 많은 인연에 속하므로 일정한 상이 없다. 그러므로 모인 것이 없다[無集]고 한다. 그때 ‘일체 만유가 공에 들어가 곧 관하는 행이 이루어지면’ 동체의 기쁨으로써 ‘평등하게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관(空觀)을 일으켜 유상(有相)의 도(道)에 들어가 샅된 것은 멀리 하고 바른 것을 가까이 하니 바로 ‘나의 좋은 도를 보여주어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불법의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법을 얻어 생각에 두면 수행의 체(體)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므로 ‘법 가운데서 항상 환희를 일으켜 스스로 법위(法位)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바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따라 기뻐한다.’고 하였다.

述曰, 第三喜心中, 喜悅無生心時者, 舉章門也. 喜心觀空, 名無生心. 種性體相道智者, 位體相也. 自他空故, 名爲空空, 猶隨喜他, 名爲喜心. 此有二種, 一者性空, 不著我及所故. 二者法空, 達流轉無集故. 出沒卽流轉義. 諸緣所起, 還屬衆緣, 無一定相. 故言無集. 爾時一切萬有入空卽觀行成, 以同體之喜, 等喜一切. 起此空觀, 入有相道, 遠邪近正, 正謂示我好道, 及使衆生入佛法家. 得法在懷, 行體怡悅, 故言法中常起歡喜, 自入法位, 復於他入正中隨喜也.

④ 사심 捨心

□ 불자들이여! 항상 평등한 마음[捨心]을 낼지니라. 지을 것도 없고 형상도 없는 공한 법은 마치 허공과 같나니 선(善)과 악(惡), 유견(有見)과 무견(無見), 죄(罪)와 복(福)의 두 가지 가운데에서 평등하게 한결같이 비출지니라. 타인[人]도 아니며, 아소(我所)의 마음도 아니어서 자타(自他)의 체성(體性)을 얻을 수 없는 것을 크게 버린다[大捨]고 하는 것이니 자신의 몸과 살과 손발과 아들과 딸과 나라와 성에 이르기까지, 환화(幻化)나 흐르는 물[水流]이나 등불의 불꽃[燈焰]처럼 여겨 일체를 버려서 생겨남이 없는 마음으로[無生心] 항상 그 사(捨, 평등)⁹²⁾를 닦을지니라.

若佛子! 常生捨心. 無造無相, 空法中如虛空, 於善惡有見無見罪福, 二中平等一照. 非人非我所心, 而自他體性, 不可得爲

92) 사(捨, 𑖦upekṣā)는 『구사론』에서 심소(心所) 중 대선지법(大善地法)의 하나이다. 유식설에서는 선심소(善心所) 가운데 하나로,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혼침과 도거를 여의어서 생각에 잠기거나 들뜨지 않고, 평등·평정을 유지하는 평등한 마음 작용을 말한다.

大捨, 及自身肉手足男女國城, 如幻化水流燈焰⁹³⁾, 一切捨, 而無生心, 常修其捨.

■ 네 번째 사심(捨心) 가운데 ‘항상 평등한 마음[捨心]을 낼지니라.’라고 한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지을 것도 없고 형상도 없는 공한 법 가운데’라고 한 것은 삼공의 문[三空門]이다. ‘허공과 같다.’는 것은 삼공의 무장애행을 비유한 것이다. ‘선(善) 등’ 가운데 법공(法空)과 인공(人空)을 ‘크게 버린다[大捨]’고 한다. ‘사(捨)’는 염오심을 다스리며 또 탐욕심을 다스리는 것을 나타낸다. ‘환(幻) 등’은 차례대로 허망하게 유전하는 것과 찰나에 사라지는 것을 비유하였다. ‘생겨남이 없는 마음[無生心]’이란 평등한 마음[捨心]이 공하기 때문에 비록 공하여도 늘 정진하여 ‘항상 그 사(捨)를 닦으라.’는 것이다.

述曰, 第四捨心中, 常生捨心者, 舉章門也. 無造無相空法中, 三空門也. 如虛空者, 喻於三空無障礙行. 於善等中, 法空人空爲大捨. 捨謂治染, 且顯治貪. 幻等如次, 喻虛流轉及剎那滅. 無生心者, 捨心空故, 雖空恒進, 言常修捨.

⑤ 시심 施心

□ 불자들이여! 능히 베푸는 마음[施心]으로써 일체 중생들에게 (교화를) 입혀야 하느니라. 몸의 보시[身施]와 입의 보시[口施]와 뜻의 보시[意施]와 재물 보시[財施]와 법 보시[法施]로 일체중생을 이끌어 가르치되 안의 몸[內身]과 바깥 몸[外身]인 나라와 성(城)과 아들과 딸, 밭과 집이 다 여여한 모양이며, 그 밖에 재물(財物)과 받는 자[受者]와 베푸는 자[施者]

93) 卍60 p.382a4에는 ‘炎’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27a12에는 ‘燄’으로 되어 있다.

도 생각할 것이 없느니라. 안이거나 밖이거나 모인 것도 없고 흩어진 것도 없나니 무심하게 교화를 행하여 이치에 통달하고 보시에도 통달하여 일체 모양으로 현재 행하게 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能以施心, 被一切衆生. 身施, 口施, 意施, 財施, 法施, 教導一切衆生, 內身外身, 國城男女田宅, 皆如如相, 乃至無念財物, 受者施者. 亦內亦外, 無合無散, 無心行化, 達理達施, 一切相現在行.

■ 다섯 번째 시심(施心) 가운데 ‘능히 베푸는 마음[施心]’으로써 일체 중생에게 (교화를) 입힌다.’고 한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무심하게 교화를 행한다.’는 것은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 ‘이치에 통달하고 보시에도 통달한다.’는 것은 진(眞)과 속(俗)의 성품을 아는 것이다. ‘일체 모양으로 현재 행하게 하는 것’이란 보시행의 성취이다.

述曰, 第五施心中, 能以施心, 被一切衆生者, 舉章門也. 無心行化者, 無執著故. 達理達施者, 了眞俗性. 言一切相現在行者, 施行成就也.

⑥ 호어심 好語心

□ 불자들이여! 체성애어삼매(體性愛語三昧)에 들어가면 제일의제(第一義諦)인 법어(法語)의 뜻과 일체 실다운 말들이 모두 순일한 말들이므로 일체중생을 조화롭게 하여 마음에 성냄이 없고 다툼이 없게 하는 것이니라. 일체법의 공한 지[空智]는 반연할 것이 없으므로 항상 애심(愛心)을 낸다. 행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또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따라주면서 성스러운 법어로써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항상 진여의 마음을 행하여 선근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若佛子! 入體性愛語三昧, 第一義諦法語義, 一切實言, 皆順一語言, 調和一切衆生, 心無瞋無諍. 一切法空智, 無緣常生愛心. 行順佛意, 亦順一切他人, 以 聖法語, 教諸衆生, 常行如心, 發起善根.

■ 여섯 번째 애어심(愛語心) 가운데 ‘체성애어삼매(體性愛語三昧)에 든다.’고 하는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체성(體性)’이란 진성(眞性)이다. 거친 말과[麤語] 부드러운 말[軟語]이 모두 승의(勝義)에 나아가면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므로 ‘애어(愛語)’라고 부른다.

실다운 진리 가운데 법어(法語)의 뜻과 실다운 말이, 다 순수하고 깨끗한 한마디 말을 따르는 문(門)이다. ‘능히 일체를 조화롭게 하여 그 외에 다툼이 없게 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지혜이니 법이 공하여 반연할 것이 없어도 은애(恩愛)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총히 결론 지어 말하기를 ‘항상 진여의 마음을 행하여 선근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진심(眞心)에 칭합하는 것이다.

述曰, 第六愛語心中, 入體性愛語三昧者, 舉章門也. 體性者眞性也. 麤語軟語, 皆趣勝義, 可愛樂故, 名愛語也. 實諦之中, 法語之義, 實語之言, 皆順純淨一語之門. 能調一切, 乃至無諍, 發語之智, 法空無緣, 而生恩愛之心. 下總結言, 常行如心, 發起善根者, 稱眞心也.

⑦ 이익심 利益心

□ 불자들이여! 이익심(利益心)인 때 진실한 지혜의 체성으로써 널리 지혜의 도를 행하여 일체의 밝은 불꽃 같은 법문을 모으고, 관행(觀行)의 일곱 가지 재물[七財]⁹⁴⁾을 모은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얻게 하였기

때문에 몸과 목숨을 받은 이익삼매에 들어가 일체의 몸과 일체의 입과 일체의 뜻을 나타내어 큰 세계를 진동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하는 바와 짓는 바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종(法種)과 공종(空種)과 도종(道種) 가운데 들어가서 이익과 즐거운 과보를 얻게 한다. 형상을 욕도에 나타내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뇌도 근심거리로 여기지 않고 다만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이익을 삼느니라.

若佛子! 利益心時, 以實智體性, 廣行智道, 集一切明焰法門, 集觀行七財. 前人得利益故, 受身命而入利益三昧, 現⁹⁵⁾一切身, 一切口, 一切意, 而震動大世界. 一切所爲所作, 他人入法種空種道種中, 得益得樂果. 現⁹⁶⁾形六道, 無量苦惱之事, 不以爲患, 但益人爲利.

■ 일곱 번째 이행심(利行心)이다. ‘이익심(利益心)인 때’는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진실한 지혜의 체성’이란 반연하는 바[所緣]의 진여이며, ‘널리 지혜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반연하는[能緣] 지혜이다. ‘일체의 밝은 불꽃 같은 법문을 모은다.’는 것은 지혜의 자량[資糧, 양식]을 모으는 것이며 ‘관행(觀行)의 일곱 가지 재물[七財]⁹⁷⁾을 모으는 것’은 복(福)의 자량(資糧)을

94) 관행(觀行)이란 자신의 마음 본성을 관하는 관심수행(觀心修行)을 말하는 것이다. 관행을 통하여 일곱 가지 재물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칠성재(七聖財), 칠덕재(七德財)라고도 하며 이로써 마침내 성과(聖果)를 얻게 된다. 칠재(七財)는 신재(身財)·계재(戒財)·참재(慚財)·괴재(愧財)·문재(聞財)·사재(捨財)·혜재(慧財)이다. 『유마경』, 『구사론』, 『사석집(沙石集)』 참조.

95) 卍60 p.383a2에는 ‘疑’로 되어 있으나 韓3 p.427b24에는 ‘現’으로 되어 있다.

96) 卍60 p.383a10에는 ‘隨’로 되어 있으나 韓3 p.427c2에는 ‘現’으로 되어 있다.

97) 지옥(智旭, 1599-1655)의 『불설범망경보살십지품합주(佛說梵網經菩薩心地品合)』

모으는 것이다. 그것을 써서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므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얻게 하였기 때문에, 때에 도리어 자기의 법신(法身)과 혜명(慧命)에 이익이 되어 ‘몸과 목숨을 받은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체의(一切意)’란 작용이 많기 때문이니 모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차례대로 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법종(法種)’이란 습종(習種)으로 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공종(空種)’이란 성종(性種)으로 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도종(道種)’이란 도종으로 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니 모두 불과(佛果)를 내게 하므로 ‘종(種)’이라고 말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이 서른 가지 마음(三十心, 십발취·십장양·십금강)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이익’을 얻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십지[地]를 증득한 즈음에 행하는 까닭이며, ‘즐거운 과보를 얻게 한다.’는 것은 부처라는 후세(後際)의 과(果)를 얻게 하기 때문에 형상이 육도에 살면서 고통에 처하여도 달게 여기는 마음이다.

아래에서 결론 지은 뜻은 ‘다만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는 것’이다.

述曰, 第七利行心也. 利益心時者, 舉章門也. 實智體性者, 所緣眞如也, 廣行智道者, 能緣智慧也. 集一切明焰法門者, 集智資糧故, 集觀行七財者, 集福資糧故. 用之益人, 言前人得利, 時還益己法身慧命, 言益受身命. 言一切意者, 作用多故, 皆令他人, 次第行成也. 言法種者, 習種行成故, 空種者, 性種行成故. 道種者, 道種行成故, 皆生佛果, 故言種也. 令他人入此三十心中, 次云得益者, 證地上際行故, 得樂果者, 得佛後際果也, 形居六道, 處苦甘心. 下結意者, 但益他人, 爲己利故.

註)』(卍38 p.628c8)에 의하면 관행칠재(觀行七財)란 신(信)·진(進)·계(戒)·참괴(慚愧)·문(聞)·사(捨)·정혜(定慧)이다.

⑧ 동심 同心

□ 불자들이여! 도성지(道性智)는 공(空)과 무생(無生)의 법(法)과 같다. 무아(無我)의 지(智)로써 똑같이 무이(無二)를 낸다. 공하여 근원과 경계가 같으므로 제법의 진여상이 항상 나고[常生] 항상 머무르며[常住] 항상 사라지는[常滅] 것이니라.

세간법을 상속하여 헤아릴 수 없이 유전하므로, 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과 색심 등의 업을 나타내어 모두 육도에 들어가 일체의 일을 함께 한다. 공하여 생겨남이 없음과 같고 아(我)는 중생이 없음과 같나니, 몸을 나누고 형상을 흠어서 법과 같은 삼매[同法三昧]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若佛子! 以道性智, 同空無生法中. 以無我智, 同生無二. 空同原境, 諸法如相, 常生常住常滅. 世法相續, 流轉無量, 而能現無量形色心等業, 入諸六道, 一切事同. 空同無生, 我同無物, 而分身散形故, 入同法三昧.

■ 여덟 번째 동사심(同事心) 가운데 ‘도성지(道性智)는 공(空)과 무생(無生)의 법과 같다.’는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이 위(位)의 지(智)는 공의 이치에 칭합한 것이다.

다음은 행상(行相)을 밝힌다. ‘무이(無二)를 낸다.’는 것은 생공진여(生空眞如, 생공은 我空)이니 지(智)와 행(行)이 상응하여 저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법공(法空)의 행(行)은 가장 본원의 법공인 진여상과 같다. 세간의 모든 법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항상 나고[常生] 항상 머무르며[常住] 항상 사라진다[常滅]’고 말하며 이에 ‘유전하므로 (육도에) 따라 들어가 (일체의) 일을 함께 한다.’고 한다.

비록 법공(法空)을 요달(了達)하여 함께해도 ‘생겨남이 없으며[無生]’ 또 자타(自他)의 ‘아(我)는 중생이 없음[無物]과 같나니’ 오히려 중생을 이

롭게 하기 위하여 일과 같은 삼매[同事三昧]에 들어가는 것이다.

述曰, 第八同事心中, 以道性智, 同空無生法者, 舉章門也. 謂此位智, 稱空理也. 次明行相. 生無二者, 生空眞如也. 智行相應, 言同於彼. 又法空行, 同最本原法空如相. 世間諸法, 以恒轉故, 言常生常住常滅, 於此流轉, 隨入事同. 雖了法空, 同而無生, 及自他我, 同而無物, 猶爲益物, 入同事三昧.

⑨ 정심 定心

□ 불자들이여! 다시 정심(定心)을 따라야 하느니라. 관혜(觀慧)로 공을 증득하면 마음과 마음의 반연이 고요하여 아소법(我所法)이 식계(識界)와 색계(色界)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다.

역순(逆順)으로 출몰(出沒)하기 때문에 항상 백삼매(百三昧)와 십선지(十禪支)⁹⁸⁾에 들어간다. 한 생각의 지혜로써 이러한 견해를 짓되 일체 아

98) 십선지(十禪支)는 심(尋)·사(伺)·희(喜)·락(樂)·정(定)·내등정(內等淨)·사(捨)·념(念)·정지(正知)·사수(捨受)인데 초기불교나 부파불교 등에서는 선(禪)을 십선지(十禪支)의 유무에 의해서 4단계로 나누어 사선(四禪)이라고 한다. 『구사론』 권28(大29 p.146c2-18)의 십팔정려지(十八靜慮支)를 예로 들자면 초선정에 심(尋), 사(捨), 희(喜), 락(樂), 등지(等持)의 오지(五支)가 있고, 제2선정에 내등정(內等淨), 희(喜), 락(樂), 등지(等持)의 사지(四支)가 있고, 제3선정에 행사(行捨), 정념(正念) 정혜(正慧), 수락(受樂), 등지(等持)의 오지(五支)가 있고, 제4선정에 행사청정(行捨淸淨), 념청정(念淸淨), 비고락수(非苦樂受), 등지(等持)의 사지(四支)가 있다. 이것을 모두 합하여 십팔지(十八支)라고 한다. 그리고 『유가사지론』 권28(大30 p.330c14-19)에서는 초선정에 심(尋), 사(伺), 희(喜), 락(樂), 심일경성(心一境性)의 오지(五支)가 있고, 제2선정에 내등정(內等淨), 희(喜), 락(樂), 심일경성(心一境性)의 사지(四支)가 있고, 제3선정에 사(捨), 념(念), 정지(正知), 락(樂), 심일경성(心一境性)의 오지(五支)가 있고, 제4선정에 사청정(捨淸淨), 념청정(念淸淨),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 심일경성(心一境性)이 있다고 한다. 또 『유가사지론』 권11(大30 pp.330c14-331a4) 등에도 보인다.

(我)와 인(人)에 안팎의 중생 중자가 다 합하거나 흩어짐이 없으며, 쌓이고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지음도 없느니라.

若佛子! 復從定心. 觀慧證空, 心心靜緣, 於我所法, 識界色界中而不動轉. 逆順出沒故, 常入百三昧十禪支. 以一念智作是見, 一切我人, 若內若外, 衆生種子, 皆無合散, 集成起作而不可得.

■ 아홉 번째 정심(定心) 가운데 ‘다시 정심(定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다음은 행상을 밝힌다. 정(定)⁹⁹⁾으로부터 혜(慧)가 발현하여 생각 생각에 고요하게 비추면 희론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아소법(我所法)’이란 ‘십팔계(十八界)’를 두루 헤아리는 것이다. 이 글에서 가히 ‘아법(我法)과 소법(所法)’을 말해 보면 칠심계(七心界)¹⁰⁰⁾를 이룸하여 ‘아법(我法)’이라 하니 대부분 식온(識蘊)을 헤아려 “아(我)”를 삼기 때문이다. 십근진색(十根塵色)¹⁰¹⁾과 법처색(法處色)¹⁰²⁾ 등을 이룸하여 ‘소법(所法)’이라고 하

99) 정(定, ㉟samādhi)은 『유가사지론』 권11(大30 p.328c)에 정려(靜慮, 禪)·해탈(解脫)·등지(等持, 定)·등지(等至)의 네 가지 이명(異名)이 등장한다. 『유가략찬(瑜伽略纂)』 권5(大43, p.66c)와 『성유식론요의등(成唯識論了義燈)』 권5(大43, p.753b)에는 정(定)의 이명(異名)에 대해서 7종을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삼마히다(三摩呬多, samāhita 等引) ② 삼마지(三摩地, samādhi 等持, 定, 三昧) ③ 삼마발제(三摩鉢底, samāpatti 等至) ④ 태연나(駄衍那, dhyāna, ㉟jhāna) ⑤ 질다예가갈라다(質多翳迦羯羅多, cittaikāgratā, ㉟cittakagrātā 心一境性) ⑥ 사마타(奢摩他, samāhita, ㉟samatha 止) ⑦ 현법락주(現法樂住, dṛṣṭadharma-sukhavihāra, ㉟diṣṭhadhamma-sukhavihāra)

100) 칠심계(七心界)는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와 의계(意界)이다.

101) 십근진색(十根塵色)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과 색(色)·성(聲)·

니, 아래에서 체를 드러내어 말하기를 ‘식계(識界)’와 ‘색계(色界)’에서 이들에 집착하지 않음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십선지(十禪支)’란 ① 심(尋), ② 사(伺)¹⁰³⁾, ③ 희(喜), ④ 낙(樂)¹⁰⁴⁾, ⑤ 심일경성(心一境性)¹⁰⁵⁾, ⑥ 내등정(內等淨)¹⁰⁶⁾, ⑦ 사(捨)¹⁰⁷⁾, ⑧ 염(念)¹⁰⁸⁾, ⑨ 정지(正知)¹⁰⁹⁾, ⑩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¹¹⁰⁾이다. ‘한 생각의 지혜로써’ 쌍으

향(香)·미(味)·촉(觸)이다.

102) 법처색(法處色)은 극략색(極略色)·극향색(極遍色)·수소인색(受所引色)·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정자재소생색(定自在所生色)이다.

103) 심사(尋伺)는 심(尋, ㉠vitarka)과 사(伺, ㉠vicāra)로 『구사론』에 의하면 심소유법(心所有法) 가운데 부정지법(不定地法)에 속한다. 심(尋)은 대상을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대해서, 사(伺)는 대상을 미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구역에는 등관심사(覺觀尋伺)라고 한다. 『성유식론』에서는 사부정(四不定, 悔·睡眠·尋·伺)에 속한다.

104) 희(喜, ㉠pīti)와 락(樂, ㉠sukha)은 안(眼) 등의 오식(五識)이 부분별로 부르는 것은 즐거움이라 한다. 의식이 분별에 의해서 부르는 것을 기쁨이라고 한다.

105) 심일경성(心一境性, ㉠citta-eka-agrātā)으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정(定)에 드는 것.

106) 내등정(內等淨)은 내정정(內澄淨)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내정(內淨)이라고도 한다. 제2정려가 가진 4지분[四支, 內等淨·喜·樂·等持] 중 첫 번째 지분. 제1정려까지는 존재하는 심사(尋伺)를 여의고 신근(信根)을 본질로 하며 외부대상으로 향하는 산란한 마음이 내부로 향하는 것이다.

107) 사(捨)는 평정(平靜), 고려(顧慮)라 한다. 『구사론』의 심소법 중에서 대선지법(大善地法)의 하나이다. 유식설(唯識說)에서는 선심소(善心所)의 하나인데,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혼침과 도거를 여의어서 생각에 잠기거나 들뜨지 않고, 평등·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의 작용.

108) 념(念, ㉠smṛti)은 기억하는 것, 또는忆념을 말한다. 유식설에서 념(念)은 별경심소(別境心所)의 하나로서 기억을 뜻한다.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大31 p.60b), 『성유식론』(大31 p.27b)에 기술되고 있다.

109) 정지(正知)란 제3선정의 오지(五支)인 사(捨), 념(念), 정지(正知), 락(樂), 삼매 중의 하나이다.

로 이공(二空)을 관한다. ‘일체 아(我)와 인(人)에 모두 합하거나 흠어짐이 없다.’고 한 것은 생공(生空)을 관하기 때문이며, ‘안팎으로 현행하는 중자가 모이거나 흠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공(法空)을 관하기 때문이다. ‘중생’이라 말한 것은 모든 현행(現行)하는 것이다. 일정한 성품이 없으므로 ‘합하지 않는다’고 하고, 연(緣)이 합(合)하면 있는 것 같으므로 ‘흠어짐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저 실다운 성품을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述曰, 第九定心中, 復從定心者, 舉章門也. 次明行相. 從定發慧, 念念寂照, 離戲論故. 於我所法者, 卽所徧計十八界也. 此文可言我法所法, 謂七心界, 名爲我法, 多計識蘊, 以爲我故. 十根塵色, 法處色等, 名爲所法, 下出體云, 識界色界, 於此不著, 言不動轉. 十禪支者, 一尋, 二伺, 三喜, 四樂, 五心一境性, 六內等淨, 七捨, 八念, 九正知, 十不苦不樂受. 以一念智, 雙觀二空. 一切我人無合散者, 觀生空故, 內外現種, 無合散者, 觀法空故. 言衆生者, 諸現行也. 無一定性, 言無合, 緣合似有, 言無散. 所以者何, 衆緣集成之所起作, 求彼實性, 不可得故.

⑩ 혜심 慧心

□ 불자들이여! 혜견심(慧見心, 지혜로운 소견의 마음)을 지어 모든 사건(邪見)과 결(結)·환(患) 등의 얽매임은 결정된 체성이 없는 줄 관하라. 순인(順忍)의 공(空)¹¹¹⁾과 같으므로 오음[陰]도 아니고 십팔계[界]도 아니고

110)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는 삼수(三受)인 고수(苦受)·락수(樂受)·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의 하나이며 수(受)란 대상을 받아 들어 괴로움이나 즐거움, 혹은 괴로움이나 즐거움도 아닌 것을 느끼는 정신작용이다.

십이입[入]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일아(一我)도 아니고 인과(因果)도 아니며 삼세의 법도 아니니라. 혜(慧)의 성품이 빛나는 광명[光光]을 일으키니 한줄기 불꽃이 밝고 밝아 허공이 받아들임 없음을 본다. 그 혜의 방편으로 장양심을 내나니 이 마음이 공공(空空)을 일으키는 도에 들어가 생겨남 없는[無生] 마음을 내느니라. 위의 「천해명왕품(千海明王品)」에서 이미 심백법명문(心百法明門)을 설하였노라.

若佛子! 作慧見心, 觀諸邪見結患等縛, 無決定體性. 順忍空同故, 非陰非界非入, 非衆生非一我, 非因果非三世法. 慧性起光光, 一焰明明, 見虛無受. 其慧方便, 生長養心, 是心入起空空道, 發無生心. 上千海明王品, 已說心百法明門.

■ 열 번째 혜심(慧心) 가운데 ‘혜견심을 짓는다.’는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전문(纏門, 번뇌)¹¹²⁾은 결(結), 수면(隨眠)¹¹³⁾은 환(患)이라고 부

111) 순인공(順忍空)은 순인(順忍)과 공(空)의 조어이다. 순인은 여실하게 제법을 관찰하여 어기지 않는 것으로 순순히 요지(了知)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수지품(受持品)」의 십삼관문(十三觀門) 중 하나이다. 십삼관문(十三觀門)은 복인(伏忍)·신인(信忍)·순인(順忍)·무생인(無生忍)의 사인(四忍)에 각각 상·중·하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열세 번째로 적멸인(寂滅忍)을 더한 것이다.

112) 전(纏, 𑖦 paryavasthāna)은 마음을 얹어서 선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구사론』 권21(大29 p.109b14-18)에서는 무참(無慚)·무괴(無愧)·질(嫉)·간(慳)·회(悔)·수면(隨眠)·도거(掉舉)·혼침(昏沈)의 팔수번뇌(八隨煩惱)를 팔전(八纏)이라 한다. 여기에 분(忿)·부(覆)를 더해서 십전(十纏)이라고도 한다. 또한 경량부에서는 번뇌의 종자를 수면이라고 하며 번뇌의 현행을 전(纏)이라 한다. 또한 『유가사지론』 권89(大30 p.803b3-11)에서도 보인다.

113) 수면(隨眠, 𑖦 anuśāya)은 ‘본래 행위로서 표면에 나타났던 번뇌에 대하여, 아직 행위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마음 속에 잠재한 불선(不善)의 경향’을 의미한다. 초기경전인 니까야(Nikāya)에서 수면의 용어가 경장 중에 단독으로 나타나는

르니 모든 고통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순인(順忍)¹¹⁴⁾’이라 말한 것은 경계가 지(智)를 따르기 때문이다. ‘혜의 성품이 빛나는 광명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이어서 계속 비추기 때문이다. ‘한줄기 불꽃이 밝고 밝다’는 것은 체는 하나이나 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허공이 받아들임 없음을 본다.’는 것은 허공이 반영은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총히 결론 지어 ‘혜의 방편’이라 한 것은 혜의 행이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능히 이 위(位)에서 ‘십장양심(十長養心)’을 내는 것이다. ‘이 마음이 공의 이치에 들어가 공한 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비(智悲)를 닦아 능히 ‘생겨남이 없는 성스러운 마음[無生聖心]’의 인(因)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述曰, 第十慧心中, 作慧見心者, 舉章門也. 纏門¹¹⁵⁾爲結, 隨眠名患, 衆苦本故. 言順忍者, 境順智故. 慧性起光光者, 運運照故. 一焰明明者, 一體多用故. 見虛無受者, 緣空不執故. 總結云, 其慧方便者, 慧行善巧故, 能生此位十長養心也. 是心入空理, 起空道故, 雜修智悲, 堪發無生聖心之因也.

경우 모든 ‘잠재되어 있는 악의 경향’이라고 한다. 수면은 업과 함께 중생을 생사·윤회시키는 근본원인이다. 유부에서는 108번뇌설로서, 이것은 98종의 수면에 10종의 전(纏)을 더해 이루어진 것이다. 유가행파는 유부와 달리 128종의 수면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 128종의 수면설은 유가행파의 최초기 논서인 『유가사지론』 권8(大30 p.313b7-16) 등에서 분류, 설명되고 있고 뒤를 이은 논서들에 의해 유가행파의 정통설로서 수용되고 있다.

- 114) 순인(順忍)이란 보살이 감내해서 얻은 10종의 안주심(安住心) 중에 하나이다. 『화엄경(華嚴經)』 권28 「십인품(十忍品)」에는 수순음성인(隨順音聲忍), 순인(順忍), 무생법인(無生法忍), 여환인(如幻忍), 여염인(如焰忍), 여몽인(如夢忍), 여향인(如響忍), 여뢰인(如雷忍), 여화인(如化忍), 여허공인(如虛空忍)이 보인다.
- 115) 卍60 p.384a17과 大40 p.693c2에는 ‘名’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28b17에는 ‘門’으로 되어 있다.

ㄷ. 십금강심 十金剛心

① 신심 信心

□ 노사나불께서 말씀하셨다.

천불들이여, 자세히 들을지니라. 그대들이 먼저 말한 금강(金剛)의 종자(種子)에도 십심(十心)이 있나니라. 불자들이여! 믿음[信]이란 모든 행은 믿음으로써 으뜸을 삼나니 중덕(衆德)의 근본이 되므로 외도들의 사견심(私見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견해를 집착이라 부르는데 유(有)에 매여 업을 짓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야 공한 무위법[空無爲法]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삼상(三相, 生 住 滅)이 없으므로 무생이 없고, 생이 없음도 없기 때문에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으며, 없어지되 없어지는 바도 또한 없는 것이다.¹¹⁶⁾

일체법의 공함이 있으니 세제(世諦)와 제일의제(第一義諦)의 지(智)이다. 없어져 다한 것은 공과는 다르다. 색공(色空)과 세심심공(細心心空)과 세심심(細心心)의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믿음과 믿음도 적멸하며 체성의 화합도 없고 또한 의지함도 없다. 그러나 주(主)인 아인(我人)의 명(名)과 작용은 삼계의 가아(假我)로서의 아(我)이니 모으는 상[集相]이 없기 때문에 상 없는 믿음[無相信]이라고 하느니라.

盧舍那佛言, 千佛諦聽. 汝先言金剛種子, 有十心. 若佛子! 信者, 一切行以信爲首, 衆德根本, 不起外道邪見心. 諸見名著, 結有造業, 必不受, 入空無爲法中. 三相無, 無無生, 無生無,

116) 지옥(智旭)의 『범망경보살십지품합주(梵網經菩薩心地品合註)』의 문장 표점은 다음과 같이 떨어진다. ‘三相無, 無無, 生無生, 無住住, 無滅滅.’ 여기에 준해 보면 ‘삼상(三相)도 없으니 무무(無無)하며 생(生)하나 무생(無生)이며 무주(無住)하나 주(住)하며 무멸(無滅)하나 멸(滅)한다.’고 볼 수도 있다.

住¹¹⁷⁾住無, 滅滅無. 有一切法空, 世諦第一義諦智. 盡滅異空.
色空, 細心心空, 細心心心空故, 信信寂滅, 無體性和合, 亦無
依. 然主者, 我人名用, 三界假我我, 無得集相, 故名無相信.

■ 세 번째 십금강(十金剛)이다. 처음은 십발취심[發心趣], 다음은 십장양심[十長養心]을 마쳤고,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금강(金剛)에 비유한 것이다.

이 처음 마음 가운데 ‘믿음’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모든 견해를 집착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견의 뜻을 훈석(訓釋)한 것이다. ‘집착’하기 때문에 ‘유에 매여 업을 짓는다.’는 것은 고(苦)를 불러 집(集)에 나아가기 때문이니 ‘이에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야 비로소 공한 무위[空無爲]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삼상(三相, 生·住·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총히 삼상의 적멸을 표시한 것이다. ‘무생이 없다[無無生].’ 이하에서는 삼상을 따로 파(破)하였으니 말하자면 ‘생주멸(生住滅)’에 능소(能所)의 상(相)을 두어서 이에 두가지가 공(空)한 까닭에 거듭 ‘무무(無無)’라고 말한 것이다. 능소(能所)의 생겨남[生]을 보내려고 ‘무생이 없다[無無生].’고 하나 이 문장은 생겨남이 없음도 없기 때문에 생겨나 머무름도 없고, 생겨나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머무르고 머무는 바도 없다. 머무르되 머무르는 바가 없기[住住無故] 때문에, 없어지되 없어지는 바도 또한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일체법의 공함이 있다는 것’은 범무아(法無我)의 진여가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니 허물을 막아 덜어주기 위함이다. ‘멸하여 다한 것은 공과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二諦)의 지(智)가 없기 때문에 ‘멸하여 다함’이라고 하였어도 아직 분별하는 소견이 있으므로 또한 ‘공과는 다르다.’

117) 卍60 p.383b18에는 ‘住生’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28c5에는 ‘無住’로 되어 있다.

고 한다. ‘색공(色空)’이라는 것은 색음(色陰)이 공한 것이며 ‘세심심공(細心心空)’이란 네 가지 음[四陰, 수상행식]이 공한 것이다. 삼세의 마음이 공하므로 이제(二諦)도 ‘믿음이 적멸하여 체성의 화합이 없다.’고 한다. 도리어 모든 인연에 속하여 일정한 성품이 없으므로 속한 바 연(緣)도 또한 공하다. 그러므로 ‘또한 의지함도 없다.’고 한 것이다.

다음에 총히 결론 지어 말하면 ‘그러나 주(主)인 아인(我人)의 명(名)과 작용’이라 한 것은 실아(實我)의 체와 명자(名字)의 공능을 든 것이다. ‘삼계의 가아(假我)의 아(我)’라는 것은 인(人)과 법(法)의 두 가아(假我)이다. ‘모으는 상[集相]이 없다.’는 것은 실아(實我)이든 가아(假我)이든 한결같이 ‘모으는 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인(人)과 법(法)이 공하므로 ‘상이 없는 믿음[無相信]’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述曰, 第三, 十金剛也. 初發心趣, 次長養已, 今不可壞, 喻金剛故. 此初心中, 信者, 舉章門也. 諸見名著者, 訓釋見義. 以執著故, 結有造業者, 招苦造集故, 於此必不受, 方入空無爲. 言三相無者, 總標三相寂滅. 無無生下, 別破三相, 謂生住滅有能所相, 今雙空故, 重言無無. 遣能所生, 言無無生, 此文可言無無生故, 無生之住, 無生住故, 住所住無. 住住無故, 滅滅亦無. 言有一切法空者, 存法無我真如也, 遮滅過故. 言盡滅異空者, 二諦智泯, 故言盡滅, 猶有分見, 亦言異空. 色空者, 色陰空也, 細心心空者, 四陰空也. 三世心空故, 二諦信寂滅, 無體性和合. 還屬衆緣, 無一定性故, 所屬緣亦空. 故言亦無依. 次總結言, 然主者我人名用者, 舉實我體, 名字功能也. 三界假我我者, 人法二假我也. 無得集相者, 實我假我, 無可得一聚集相故, 既人法空, 名無相信.

② 염심 念心

□ 불자들이여! 생각을 짓는 것은 육념(六念)이니 항상 깨어 있거나 그 밖에 항상 보시함과 제일의제(第一義諦)이니라. 공하여 집착할 것도 없고 벗어날 것도 없어서 생주멸(生住滅)의 상(相)에 움직이지 않으며 가고 오는데 이르지도 않느니라. 그러나 모든 업을 받은 사람은 일합상(一合相)으로 회향하여 법계의 지(智)에 들어가는 것이다.

혜와 혜[慧慧]가 서로 어우러져 떠오르다가[乘乘, 생각이 일어나는 모양] 고요하게 사라지고, 불꽃처럼 타다가도[焰焰, 지혜의 모양 光光과 같다] 항상하지 않다. 빛이 이어지다가 사라지며 나뉘 일어나지 않으며 점점 바뀌는[轉易] 공의 도는 앞의 것을 변화시키면서, 뒤의 것을 변화시키고 변화하고 바뀌어[化化轉轉] 변화하기를 더욱 하여[變變轉化], 변하면서 동시에 함께 머물기도 한다. 불꽃 같은 하나의 상이 나고 없어짐이 동시에 이루어 지니 이미 변했고[已變] 아직 변하지 않았으며[未變] 지금 변화하나니[變化] 일념의 용화[一受, 一은 一念이며 受는 容受이니 포용하여 받아드림] 도 이와 같도다.

若佛子! 作念六念, 常覺乃至常施, 第一義諦. 空無著無解, 生住滅相, 不動不到去來. 而於諸業受者, 一合相迴向, 入法界智. 慧慧相乘, 乘乘寂滅, 焰焰無常. 光光無無生生不起, 轉易空道, 變前轉後, 變變轉化, 化化轉轉, 變同時同住. 焰焰一相, 生滅一時, 已變未變, 變變化, 亦得一受亦如是.

■ 두 번째 염심(念心) 가운데 ‘생각을 짓는 것[作念]’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육념(六念)¹¹⁸⁾ 가운데 ‘항상 깨어 있음’은 ‘염불(念佛)’이며 그 밖에

118) 육념(六念)은 염불(念佛)·염법(念法)·염승(念僧)·염계(念戒)·염시(念施)·염

‘염법(念法)’과 ‘염승(念僧)’과 ‘염계(念戒)’의 세 가지가 포함된다. ‘항상 보시함’은 ‘염시(念施)’이다. 저 실다운 성품을 관하므로 모두 ‘상(常)’이라고 말한다. ‘제일의제(第一義諦)’란 ‘염천(念天)’이니 부처님의 항상 하신 열반과(涅槃果)가 제일의천(第一義天)이기 때문이다.

‘공하여 집착할 것도 없고 벗어날 것도 없다.’는 것은 염(念)하는 바의 경계를 관해 보면 공하므로 묶을 것[縛著]¹¹⁹⁾도 없는데 하물며 벗어날 것

천(念天)이다. 『장아함경(大1 p.12a12-16.)』에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이르셨다. 또 여섯 가지 불퇴법(不退法)이 있어 법을 증장시키고 손실이 없게 한다. 첫 번째 염불(念佛), 두 번째 염법(念法), 셋째 염승(念僧), 네 번째 염계(念戒), 다섯 번째 염시(念施), 여섯 번째 염천(念天)이다. 이 육염수(六念修)를 닦으면 법이 증장되고 손실이 없게 된다. 佛告比丘，復有六不退法，令法增長，無有損耗。一者念佛，二者念法，三者念僧，四者念戒，五者念施，六者念天。修此六念，則法增長，無有損耗。”라고 했다. 『증일아함경』(大1 p.779c26-28)에서는 “所謂十念 念佛，念法，念比丘僧，念戒，念施，念天，念休息，念安般，念身，念死。”라 하여 십념(十念)이 보인다.

- 119) 박(縛, ㉠bandhana)은 번뇌의 다른 표현으로 중생의 마음을 속박하여 자재(自在)하지 못하게 한다. 구사(俱舍)·유식종(唯識宗)에서는 모든 번뇌를 결(結, ㉠saṃ-yogana)·박(縛, ㉠bandhana)·수면(隨眠, ㉠anusāya)·수번뇌(隨煩惱, ㉠upakleśa)·전(纏, ㉠pariyavasthāna)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 이 중에서 ‘박(縛)’이란 번뇌가 중생들로 하여금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선행을 지으려는 욕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박(二縛)·삼박(三縛)·사박(四縛) 등으로 구분된다. (1) 삼박(三縛)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을 가리킨다. 이것들이 고, 락, 사(苦樂捨)의 삼수(三受)를 따라 증가하면서 중생을 번뇌의 세계에 속박시키므로 ‘삼박(三縛)’이라 한다. (2) 이박(二縛)은 두 종류가 있는데 ① 상응박(相應縛)과 소연박(所緣縛)이다. 상응박이란 번뇌가 마음과 동시에 상응하여 일어나 마음 자체를 구속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소연박이란 번뇌가 마음을 대상에 집착하게 만듦으로써 대상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상박(相縛)과 추중박(麤重縛)을 이박이라고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각 논서마다 조금씩 다르다. 제7말나식이 이상(我相)에 집착하는 것을 상박(相縛)이라 하고 제6의식의 번뇌를 추중박(麤重縛)이라 하기도 하며, 객관의 대상인 모든 경계의 상에 집착하는 것을 상박(相縛)이라 하고 그 번뇌의

[解]인들 있겠는가? 이미 공의 삼상(三相)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가고 오는데 이르지도 않으니 이는 자취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을 짓는 사람은 ‘한결같이 참된 상(相)에 합하여’ 다시 본제(本際)로 돌아가 법계지(法界智)에 들어가므로 연이어서 더욱 밝아진다. ‘혜혜(慧慧)가 서로 어우러져’라고 말하는 것은 연이어 공을 아는 것이며 ‘떠오르다가 고요하게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 생각이 사라지는 모양이다. ‘불꽃같이 타다가도 항상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고(上古)부터 전하여 말하기를 “혜와 혜[慧慧]가 머무르는 모양을 광광(光光)이라 하며 저 없어지는 모양을 무무(無無)라 하고, 뒤를 이어 나는 모양을 생생(生生)이라 한다.”고 하였다. 모양이 비록 변하면서 옮겨갔어도 성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훈습해서 수행한 힘 때문이다.

‘점점 바뀌는[轉易] 공(空)의 도(道)는’ 변화하면서 앞의 하열함을 버리고 더욱 뒤의 수승한 것을 얻는다.¹²⁰⁾ 옮겨질수록 증장(增長)하여 본래 있

중자를 추중박(麤重縛)이라 하기도 한다. 『구사론』 권21(大29 p.109a27-28)에는 탐박(貪縛)·진박(瞋縛)·치박(癡縛)의 삼박(三縛)이 보이고, 『유가사지론』 권89(大30 p.802b4-8)에도 기술되어 있다.

- 120) ‘변화하면서 앞의 하열함을 버리고 더욱 뒤의 수승한 것을 얻는 번사전열 전득후승(變捨前劣, 轉得後勝)’은 『유가사지론』의 전사 전득(轉捨 轉得)의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유가사지론』(大30 p.284c15-17)에서는 염법(染法) 종자와 선(善)·무기법(無記法) 종자에 대하여, “또 열반에 들어서 이미 전의(轉依)를 얻은 여러 청정한 행을 하는 이는 온갖 더러움에 물드는 법의 종자가 소의를 전환하여 버리고, 온갖 선(善)과 무기법의 종자는 반연이 없게 하며, 안으로 반연의 자재함을 전환하여 얻는다고 한다. 又般涅槃時, 已得轉依, 諸淨行者, 轉捨一切染汚法種子所依, 於一切善無記法種子, 轉令緣闕, 轉得內緣自在.” 그리고 『섭대승론(攝大乘論)』 권下(大31 p.148c17-18) 이분(二分)의타기성(二分依他起性)에 대하여, “전이는 의타기성의 대치가 일어날 때 잡염분(雜染分)을 전환하여 버리고 청정분(清淨分)을 전환하여 얻는 것이다. 轉依謂即依他起性, 對治起時, 轉捨雜染分, 轉得清淨分.” 이것이 이론적으로 발전하여 삼성설과 결합되고, ‘전식득지(轉識

던 하열한 것이 사라지므로 ‘변한다[變變]’고 하였고, 본래 없던 수승한 것이 생기게 되므로 ‘바뀌고 변화한다[轉化].’고 하였다. 더욱 수승한 것이 나기 때문에 ‘변화하고 바뀐다[化化轉轉]’고 한 것이니, 이와 같이 뒤가 바뀌고 앞이 변화할 때 마치 저울의 양끝이 동시에 머무르는 것과 같다. ‘불꽃같은 하나의 상[燄燄一相]’이란 생각 생각 비록 달라지기는 하나 항상 한 하나의 형상이므로 이른바 ‘상이 없다[無相]’고 한 것이다. ‘나고 없어짐이 동시[生滅一時]’라고 하는 것은 생멸(生滅)이 비록 다르지만 한 생각에 융화하는 것이다. 다음은 생멸의 예와 같이 삼세도 이와 같은 것이니 ‘이미 변했고[已變]’라고 한 것은 과거이고, ‘아직 변하지 않았으며[未變]’라고 한 것은 미래이며, ‘변화(變化)하나니’라고 한 것은 지금 변하는 것이니 현재이다. 삼세가 동시이므로 ‘변화(變化)’라고 한다. ‘일수(一受)’의 수(受)는 포용하여 받아들임이니 한 생각에 융화되기 때문이다.

述曰, 第二念心中, 作念者, 舉章門也. 六念中常覺者, 念佛也, 乃至攝法僧戒三也. 言常施者, 念施也. 觀彼實性, 皆言常也. 第一義諦者, 念天也, 佛常涅槃果, 第一義天故. 言空無著, 無解等者, 觀所念境空, 無可縛著, 況有解脫耶? 旣空三相之所不動, 不到去來, 以迹絕故. 然於作者, 一合真相, 還歸本際, 入法界智, 運運增明. 言慧慧相乘, 運運會空, 言乘乘寂滅, 念念泯相. 言焰焰無常, 上古傳說, “慧慧住相名光光, 卽彼滅相名無無, 後後生相名生生.” 相雖遷流, 然性不起, 熏修力故. 轉易空道, 變捨前劣, 轉得後勝. 運運增長, 本有劣無, 故言變變, 本無勝有, 故言轉化. 展轉勝生, 言化化轉轉, 如是後轉前變之時, 如稱兩頭同時住也. 焰焰一相者, 念念雖別, 而恒一相, 所

得智)’ 사상으로 한층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謂無相。生滅一時者，生滅雖異，融於一念。次例生滅，三世亦如是，已變者過去，未變者未來，變者正變，卽現在也。三世同時，故言變化。亦得一受，受謂容受，一念融故。

③ 심심 深心

□ 불자들이여! 심심(深心)¹²¹⁾이란 제일의공(第一義空)이니라. 실다운 법공(法空)의 지(智)에서 실다운 진리를 비춤이 있다. 업도(業道)를 상속하는 인연의 중도(中道)를 이룸하여 ‘실다운 진리[實諦]’라고 하며 가명인 모든 법과 아인(我人), 주자(主者)를 이룸하여 세제(世諦)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두 가지 진리가 있어 더욱 깊이 공에 들어가나 오고 감이 없고, 환화(幻化)로 과(果)를 받아도 받음이 없다. 그러므로 심심(深深)한 마음으로 해탈(解脫)하느니라.

若佛子! 深心者，第一義空。於實法空智，照有實諦。業道相續，因緣中道名爲實諦，假名諸法我人主者，名爲世諦。於此二有諦，深深入空而無去來，幻化受果而無受。故深深心解脫。

■ 세 번째 심심(深心) 가운데 ‘심심(深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곧 회향하는 마음이니 멀고 깊은 것을 기약하기 때문이다.

‘제일의공(第一義空)’이란 구절을 표(標)한 것이다. 공한 지혜를 두루 분별하여 ‘중도(中道)’를 비춤이 있으니, ‘십이지(十二支)가 상(常)도 아니고

121) 심심(深心)은 모든 선행 닦기를 좋아하여 물러섬이 없는 굳은 마음을 말한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는 십신위(十信位)의 마지막 위인 초주위(初住位)의 보살이 일으키는 삼심(三心, 直心·深心·大悲心)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다. 『유마경』 「불국품(佛國品)」에서도 직심(直心), 심심(深心), 대승심(大乘心)의 삼심(三心)을 들고 있다.

단(斷)도 아닌 것’을 ‘실제(實諦)’라고 하고, 유정이 집착함을 ‘속제(俗諦)’라고 한다.

이 이제(二諦)에서 이공(二空)을 요달하므로 거듭하여 ‘심심(深深)’이라 하였으며 출입하는 모양이 고요한 것을 ‘오고 감이 없다[無去來]’고 한다. 중도를 결론 지어 말하자면 십이인연의 ‘환화(幻化)로 과(果)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감변(減邊, 줄어드는 쪽)을 떠나서 실제로 ‘받음이 없으며’ 증변(增邊, 늘어나는 쪽)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장애를 조복하여 ‘마음이 해탈한다.’고 하였다.

述曰, 第三深心中, 深心者, 舉章門也. 卽迴向心也, 期遠深故. 第一義空者, 標句. 於徧計空智, 照有中道, 謂十二支非常非斷, 名爲實諦, 餅¹²²⁾有情等名爲俗諦. 於此二諦, 了二空故, 重言深深, 出入相寂, 言無去來. 結中道言, 十二因緣幻化受果, 故離減邊, 而無實受, 故離增邊. 是故伏障心解脫也.

④ 달조심 達照心

□ 불자들이여! 달조(達照, 마음을 비추어 통달함)는 일체의 실다운 성품을 인순(忍順)¹²³⁾하여 성품과 성품을 묶을 것도 없고 풀 것도 없으며 걸림

122) 韓3 p.429c3에는 ‘餅’로 되어 있으나 大40에는 ‘執’으로 되어 있다.

123) 인순(忍順)은 사선근(四善根)의 하나로서 설일체유부에서 처음으로 무루의 지혜가 생겨서 4제의 이치를 명확하게 보는 자리를 견도(見道)라고 한다. 그것은 무루의 성자위(聖者位)로서 견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적 수행단계이고 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 한다. 사선근위(四善根位)는 난위(煖位, uṣmagata) · 정위(頂位, mūrdhan, mūrdhāna) · 인위(忍位, kṣānti) · 세제일법위(世第一法位, laukikāgradharma)의 선근이 생기는 위(位)를 말한다. 사선근(四善根)은 『근본설 일체유부비내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권35(大23 p.819a5-6)에서 처음으로 인용어가 보인다. 특히 『구사론』 권23(大29 pp.119b-121a5)에서는 사선근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유가사지론』 권28(大30 p.439b17) 등에서도 보인다.

도 없어서 법(法)에 통달하고 의(義)에 통달하고 사(辭)에 통달하며 교화(教化)에 통달한 것이니라.

삼세의 인과와 중생의 근행(根行)이 여여하여 합하지 않고 흠어지지도 않으며, 실제 작용도 없고 거짓 작용도 없으며 이름뿐인 작용도 없어 작용마다 일체가 공하다. 공한 것까지 공하여[空空], 비추어 공에 통달함을 이룸하여 일체 법공(法空)에 통달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공한 것까지 공하여[空空] 여여(如如)하므로 상(相)을 얻을 수 없느니라.

若佛子! 達照者, 忍順一切實性, 性性無縛, 無解無礙, 法達義達, 辭達教化達. 三世因果, 衆生根行如如, 不合不散, 無實用無假用無名用, 用用一切空. 空空照達空, 名爲通達一切法空. 空空如如, 相不可得.

■ 네 번째 달심(達心) 가운데 ‘달조(達照)’는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일체의 실다운 성품을 인순(忍順)한다.’는 것은 진(眞)과 속(俗)이 뒤바뀌지 않은 성품을 인순(印順)하는 것이다. 속성(俗性)은 묶을 것이 없고 진성(眞性)은 풀 것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법에 통달하고’ 등의 네 가지는 따로 낸 구절로 차례를 보면 ‘법(法)과 의(義)와 사(辭)와 변(辨)의 무애(無礙)’이니 걸림이 없는 것을 ‘통달(通達)’이라고 한다.

통달하여 ‘삼세의 인과’와 교화할 바 ‘중생의 근행(根行)이 여여하여’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체성이 이미 공하여 실다운 법의 작용이 없고 거짓된 법의 작용도 없으며 거짓된 이름[假名]의 작용도 없는 것이다. 이미 세 가지 작용이 없으므로 ‘작용마다 일체가 공하다.’고 하였다. 체와 용이 공한 것까지 또한 공하므로 ‘공공(空空)’이라 한다. 연에 처한 공과 같아서 능히 비추는 것[能照] 또한 공하므로 이에 ‘모든 법의

공(空)에 통달한다.’고 하였다. 지(智)의 행상(行相)을 결론 지어 말하면 ‘공한 것까지 공[空空]하여 여여(如如)하므로 상(相)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述曰, 第四達心中, 達照者, 舉章門也. 忍順一切實性者, 印順眞俗無倒性也. 俗性無縛, 眞性無解, 言無礙者, 總標也. 法達等四, 別出也, 如次法義辭辨無礙, 無礙名達. 所達三世因果, 所化衆生, 根行如如, 不增不減. 體性既空, 無實法用, 無假法用, 無假名用. 既無三用, 故言用用空. 彼體用空亦空, 故言空空. 如處緣空, 能照亦空, 是名通達一切法空. 結智行相, 云空空如如, 相不可得.

⑤ 직심 直心

□ 불자들이여! 직(直)이란 곧게 비추는 것[直照]이니, 신아(神我)의 반연을 취(取)하여 무생지(無生智)¹²⁴⁾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명의 신아가 공공(空空) 가운데 공(空)하니, 공공(空空)의 이심(理心)은 유(有)에도 있고

124) 무생지(無生智, Śānūtpāda-jñāna)는 십지(十智)의 하나. 아비달마 교학에서는 진지(眞智)와 더불어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로 간주한다. 사제(四諦)의 이치를 깨달아 더 이상 사제를 알고 끊으며, 증득하고 닦아야 할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지혜이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권10(大31 p.742c22-27)에 “무생지란 이 결과를 얻는 지혜이며 혹은 이 결과를 반연하여 불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무생으로 인하여 얻는 지혜를 무생지라 한다. 혹은 무생을 반연하여 대상으로 하는 지혜를 무생지라 한다. 이것은 뜻으로 말한 것이다. 미래의 모든 고과(苦果)가 궁극적으로 불생법(不生法)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는다. 비록 다른 제(諦)를 반연하여 대상으로 하더라도 역시 무생지라 한다. 혹은 고제(苦諦)의 무생(無生)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생지라 한다. 無生智者, 謂由果斷所得智, 或緣果不生爲境. 所以者何. 由有無生, 故所得智, 名無生智. 或緣無生爲境, 名無生智. 此義意言. 由有當來一切苦果, 畢竟不生法性故, 而得此智. 雖緣餘諦爲境, 亦名無生智. 或緣苦諦無生爲境, 故名無生智.”

무(無)에도 있어서 도종자(道種子)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무루중도(無漏中道)의 일미관(一味觀)으로 일체 시방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니라. 일체중생들을 변화시킴에 모두 살바야공(薩婆若空)¹²⁵⁾의 곧고 바른 성품을 쓰나니 바로 공을 닦아서 삼계의 주인이 되는 결박(結縛)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直者, 直¹²⁶⁾照, 取緣神我, 入無生智. 無明神我, 空空中空, 空空理心, 在有在無, 而不壞道種子. 無漏中道一觀, 而教化一切十方衆生. 轉一切衆生, 皆薩婆若空直直性, 直行於空, 三界主者, 結縛而不受.

■ 다섯 번째 직심(直心)가운데 ‘직(直)’이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행(行)에 샅되고 왜곡됨이 없으므로 ‘직심(直心)¹²⁷⁾’이라고 부른다. ‘곧게 비춘다[直照]’는 것은 ‘직심’을 해석한 것이다. 다음은 경계의 체를 드러낸 것이다. ‘아(我)를 반영하는 경계를 가지고 생겨남이 없는 진리의 지(智)에 들어감’을 직심(直心)이라고 한다. 무명의 힘으로 인하여 분별하는 신아(神我)는 이공(二空) 속에는 없다. 비록 그 이공의 이치를 반영하는 마음일지라도 무아(無我)의 유(有)가 있고 실아(實我)의 무(無)도 있다. 그러나 유와 무에 집착하지 않으며, 공의 이치[空理]를 무너뜨리지도 않나니,

125) 살바야공(薩婆若空)은 일체지공(一切智智空)이라 한다. 지옥의 『범망경합주(梵網經合註)』에서는 ‘皆以薩婆若, 空直, 直性, 直行.’으로 표점을 찍었으나 아래 『고적기(古迹記)』의 해석 ‘二空正性, 名直直性’에 의지하여 ‘곧고 바른 성품’이라고 한다.

126) 卍60 p.387a8에는 ‘直心者’로 되어 있으나 韓3 p.430a4에는 ‘直者’로 되어 있다.

127) 직심(直心)은 순일(純一)해서 섞이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뜻하며 보리심과 동일한 의미이다. 『화엄경(華嚴經)』 권23(大9 p.544c) 『유마경』(大14 p.538b) 등에 기술되어 있다.

공의 이치를 이름 하여 불(佛)의 ‘도종자(道種子)’라고 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진여(眞如)의 소연연(所緣緣)이 종자이다.”¹²⁸⁾라고 한 것과 같다. 공의 이치를 무너뜨리지 않음을 대승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무루중도(無漏中道)와 비슷한 일미관(一味觀)으로 시방중생을 교화하여 일체중생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범부를 바꾸어서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중생들을 변화시킬 때 모두 살바야공의 곧고 바른 성품’을 써서 보리의 진공성(眞空性)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공(二空)의 바른 성품을 ‘곧고 바른 성품[直直性]’이라고 한다.

다음 총체적인 결론은 ‘바로 공을 닦아서 삼계의 결박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니 번뇌의 근본을 ‘주인[主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述曰，第五直心中，直者，舉章門也。行無邪曲，故名直心。言直照者，釋直心名。次出境體。言取緣我境，入無生理之智，名直心也。由無明力，所計神我，二空中泯。雖其緣二空理之心，在無我有，在實我無。然不著有無，不失壞空理，空理名爲佛道種子。如瑜伽云，“眞如所緣緣，種子故。”不失壞空，名大乘故。相似無漏中道一味觀，而教化十方，轉一切衆生者，轉凡向聖也。轉衆生時，皆以薩婆若空直直性也，以趣菩提眞空性故，二空正性，名直直性。次總結言，直行於空，故三界縛而不受也，煩惱根本，名爲主者。

⑥ 불퇴심 不退心

□ 불자들이여! 불퇴심(不退心)이란 일체 범부지(凡夫地)에 들어가지 않

128) 『유가사지론』 52권 「攝決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地之二」(大30 p.589a14) “問若此習氣攝一切種子，復名遍行麤重者，諸出世間法從何種子生。若言麤重自性種子爲種子生，不應道理。答諸出世間法，從眞如所緣緣種子生。”

고 새로이 여러 견해를 키우지도 않는 것이다. 또한 다시 습인(習因)과 비슷한 아인(我人)을 일으키지 않으며, 삼계의 업에 들어가더라도 공을 행하는 위(位)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해탈하여 제일중도(第一中道)에 한결같이 부합되게 수행하므로 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본제(本際)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염(念)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공(空)으로 관하는 지혜[觀智]를 내어 여여하게 상속하여 승승한 마음[乘乘心]으로 불이(不二)에 들어간다. 항상 공하다는 마음을 내어 일도(一道)가 오로지 청정하면 일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한결같이 비추는 것이니라.

若佛子! 不退心者, 不入一切凡夫地, 不起新長養諸見. 亦復不起習因相似我人, 入三界業, 亦行空位而不退. 解脫於第一中道, 一合行故不行退, 本際無二故, 而不念退. 空生觀智, 如如相續, 乘乘心入不二. 常空生心, 一道一淨, 爲不退一道一照.

■ 여섯 번째 불퇴(不退) 가운데 ‘불퇴심(不退心)이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다만 나아가기만 할 뿐 다른 생각이 없는 것을 ‘불퇴심’이라 부른다. 옛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부에 두 가지가 있다. 습중(習種) 이전은 외범부(外凡夫)라 하니 십지(十地) 이전의 삼십심(三十心)이다. 내범부(內凡夫)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범부(外凡夫)에서 물러나지[退入] 말아야 한다.’¹²⁹⁾ 고 하였다.

129) 『대승의장(大乘義章)』(大44 p.499c11) “次就位論, 位別有五. 一外凡位, 小乘法中念處已前. 二內凡位, 小乘法中暖頂已上, 大乘法中習種已上. 三見道位, 四修道位, 五無學道.”라 한 가운데 “二內凡位, … 大乘法中習種已上”에서 뜻만 취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여러 견해를 장양하여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惑(分別惑)을 조복하였기 때문이며 ‘습인(習因)과 비슷한 아인(我人)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점차로 구생惑(俱生惑)을 조복하기 때문에 ‘비록 삼계의 업 가운데 들어가 유전하나 또한 공을 행하는 위(位)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현행하는 장애를 해탈하여 ‘제일중도(第一中道)에서’ 경계와 지(智)의 수행이 부합되어 ‘행에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본성의 공에서 정념(正念)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공을 증득하여 해(解)를 내므로 ‘공으로 관하는 지혜를 낸다.’고 하고, ‘여여하게 상속하여’ 이와 같고 이와 같이 수승한 마음에 올라가서 ‘불이(不二)’에 들어가는 것이다.

결론 지어 말하자면 ‘늘 공하다는 마음을 내면’ 일승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니 이것이 ‘일도(一道)에서 물러나지 않고 한결같이 비추는 것’이다.

述曰, 第六不退中, 不退心者, 舉章門也. 唯進無慮, 名不退心. 古師云, 凡夫有二, 習種已前, 名外凡夫, 地前三十心. 名內凡夫, 今不退入於外凡也. 不起新長養諸見者, 伏分別惑故, 不起習因相似我人者, 漸伏俱生故, 雖入三界業中流轉, 而亦行空位不退也. 又解脫現行障, 於第一中道, 境智合行故, 行不退也, 又於本性空, 正念不退也. 證空生解, 言空生觀智也, 如如相續, 如是如是, 乘勝心入於不二. 結云, 常時於空生心, 一乘純淨, 此爲不退一道一照也.

⑦ 대승심 大乘心

□ 불자들이여! 독대승심(獨大乘心)이라는 것은 해해(解解, 二空이 의지한 법계의空함을 아는 것)가 한결같이 공(空)하기 때문이니 일체행심(一切行心)을 일승(一乘)이라 한다.

일공(一空)의 지(智)에 오른 것은 지승(智乘)이며 행승(行乘)이니, 지(智)에 올라 마음마다 뜻대로 신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다. 마음대로 실어서 뜻대로 일체중생을 삼계의 강과 결박의 강과 생멸의 강에서 건네준다. 수행하는 자는 수레[乘]에 앉아 마음대로 쓰고 신고 지혜의 마음을 써서 부처님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들이 아직 공한 지혜[空智]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 대승(大乘)이라 하지 않고 다만 수레를 얻어 고해(苦海)를 건넌다고 할 따름이다.

若佛子! 獨大乘心者, 解解一空故, 一切行心名一乘. 乘一空智, 智乘行乘, 乘智心心, 任載任用. 任載任一切衆生, 度三界河, 結縛河, 生滅河. 行者坐乘, 任用載用智心, 趣入佛海. 故一切衆生, 未得空智任用, 不名爲大乘, 但名乘得度苦海.

■ 일곱 번째 대승심에서 ‘독대승심(獨大乘心)’이라는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독(獨)’은 함께하지 않는다[不共]는 뜻이다. 다음은 ‘타고 다님[乘行]’과 ‘실어서 운반[運載]’하는 공(功)을 밝히는 가운데 ‘해해(解解)가 한결같이 공하다[一空]’는 것은 쌍으로 이공(二空)을 의지하여 일진법계(一眞法界)를 증득하기 때문이다. 법계가 같기 때문에 삼승의 행이 모두 일승(一乘)을 요달(了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살은 한결같이 공한 지(智)를 타고 짝하여 복(福)과 지(智)를 닦으므로 ‘지승(智乘)’이며 ‘행승(行乘)’이라고 한다. ‘지에 오른다[乘智]’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운반[運]’을 거듭 나타낸 것이다. ‘승(乘)’이란 위에서 거론한 닦은 바 복(福)과 지(智)를 거듭 밝힌 것이며, ‘지(智)’란 위의 ‘공지(空智) 닦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심심(心心)’이란 염염(念念)이다. 찰나찰나에 ‘마음대로 신고 행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쓰는 것[任用]’은 자리(自利)이며 ‘뜻대로 실어 주는[任載] 행(行)’은 마음대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삼계의 강[三界河]을 건넌다.’고 말하는 것은 고해를 건너는 것이고 ‘결박의 강[結縛河]을 건넌다.’는 것은 미혹(迷惑)을 건너는 것이요, ‘생멸의 강[生滅河]을 건넌다.’는 것은 업(業)을 건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수행하는 자는 수레[乘]에 앉아’ 위와 같이 ‘마음대로 쓰고[任用]’, ‘뜻대로 실어[任載]¹³⁰⁾’ 지(智)와 상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바다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이 아직 타고 올라서 쓰는 것을 얻지 못했으므로 ‘다만 수레를 얻어 고해(苦海)를 건넌다고 이름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述曰, 第七大乘心中, 獨大乘心者, 舉章門也. 獨謂不共義. 次明乘行運載功中, 解解一空者, 雙依二空, 證一眞法界故. 法界同故, 了三乘行, 皆一乘也. 如是菩薩, 乘一空智, 雙修福智, 名智乘行乘也. 言乘智者, 牒上顯運. 謂乘者, 牒上所修福智, 智者, 牒上能修空智. 言心心者念念也. 剎那剎那任載行者, 任用自利, 任載行者, 任度衆生. 言度三界河者, 度苦也, 度結縛河者, 度惑也, 度生滅河者, 度業也. 是故行者坐乘, 如上任用任載, 智相應心, 趣入佛海也. 故諸衆生, 未得乘用, 但名乘所得度之海.

⑧ 무상심 無相心

□ 불자들이여! 무상심(無相心)이라는 것은 상(相)을 잊은 해탈이니, 반야바라밀과 둘이 아님(無二)을 비추어 보고 모든 결업(結業)과 삼세법(三

130) ‘任載’는 卍과 大, 元祿二年 刊 藥師寺藏本에는 ‘戴用’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韓3 p.430c16에 입각하여 ‘任載’로 한다.

世法)이 여여(如如)하여 하나의 진리라. 남이 없는 공[無生空]을 실천하는 것이다. 스스로 성불하여 모든 부처가 나와 동등한 줄 아는 것이며 모든 현성(賢聖)들이 나와 동학(同學)이므로 다 생겨남이 없는 공[無生空]을 함께 한다. 그러므로 상이 없는 마음[無相心] 이라고 하느니라.

若佛子! 無相心者, 忘相解脫, 照般若波羅蜜無二, 一切結業三世法, 如如一諦, 而行於無生空. 自知得成佛, 一切佛是我等者, 一切賢聖是我同學, 皆同無生空, 故名無相心.

■ 여덟 번째 무상심(無相心) 가운데 ‘무상심(無相心)’이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다음에 행상을 밝힌다. ‘상(相)을 잊은 마음이니 실상반야(實相般若)와 둘이 아님을 비추어 봄’을 말한다. 다시 ‘모든 번뇌의 업과(業果)에서 여여한 하나의 진리인지라 또한 남이 없는 공[無生空]을 실천한다.’고 한 것이다.

스스로 성불하면 마침내 평등한 줄 알기 때문에 ‘부처도 나와 성품이 같은 자이며 현인과 성인도 나의 동행자’라고 하는 것이다. 결론 지어 말하면 ‘다 생겨남이 없는 공[無生空]을 함께 하기 때문에 상이 없는 마음[無相心]’ 이라고 하는 것이다.

述曰, 第八無相心中, 無相心者, 舉章門也. 次明行相. 謂忘相心, 照實相般若無二. 復於一切煩惱業果, 如如一諦, 亦行無生空. 自知成佛, 了平等故, 佛是我性等者, 賢聖是我同行者. 結言, 皆同無生空, 故無相心.

⑨ 해심 慧心

□ 불자들이여! 여여혜(如如慧)라는 것은 한량없는 법계에 모으는 것[集]이 없고 생을 받는 것[受生]이 없으므로 생생(生生, 세세에 과보로 받

는 생)토록 번뇌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일체 법문과 모든 현인이 행하는 도와 일체 성인이 관하는 법과 존재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모든 부처님의 교화 방편 법을 내가 다 마음 가운데 모아두었으므로 외도의 일체 논(論)과 삿된 정[邪定]의 공용(功用)과 환화(幻化)와 마설(魔說)과 불설(佛說)을 모두 분별하는 것이니라. 이제처(二諦處)에 들어가면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며, 오음(五陰), 십팔계(十八界), 십이입(十二入)도 있지 않다. 이것이 지혜의 빛이니, 지혜의 빛으로 성품을 비추어 일체법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若佛子! 如如慧者, 無量法界, 無集無受生, 生生煩惱而不縛.¹³¹⁾ 一切法門, 一切賢所行道, 一切聖所觀法, 所有亦如是. 一切佛教化方便法, 我皆集在心中, 外道一切論, 邪定功用, 幻化魔說, 佛說皆分別. 入二諦處, 非一非二, 非有陰界入. 是慧光明, 光明照性, 入一切法.

■ 아홉 번째 혜심(慧心) 가운데 ‘여여혜(如如慧)’라는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다음에 반연(攀緣)하는 바를 들어 말하기를 ‘무량(無量)한 법계에 모으는 인[集因]이 없고’ 생을 받을 과[受生果]가 없으므로 또한 ‘생생(生生)토록 번뇌에 묶이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승의의 경계를 알게 되면 세속의 모든 법문과 삼현이 행하는 도와 심성이 관하는 법도 또한 이와 같이 알게 된다. 비단 알 뿐만 아니라 밖으로 교화하는 방편도 모두 마음 가운데 모아두어 바른 방편에 도달하기 때문에 ‘외도의 삿된 견해와 공용(功用)과 환화(幻化)와 마설(魔說)과 불설(佛說)’을 차별 가운데 다 분별하는 것이다.

131) 卍60 p.369a9에는 ‘不可縛’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31a9에는 ‘不縛’으로 되어 있다.

‘이제처(二諦處)에 들어가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해(解)이기 때문에 ‘둘도 아니며, 오음(五陰), 십팔계(十八界), 십이입(十二入)도 있지 않다.’ 곧 이것이 지혜의 빛에 빼앗김을 당한[映奪] 것이다. 그리하여 ‘지혜의 빛으로 성품을 비추어 곧 일체법에 들어가는 것’이니, 진(眞)을 증득할 때 온갖 법을 사유(思惟)하기 때문이다.

述曰, 第九慧心中, 如如慧者, 舉章門也. 次舉所緣云, 無量法界, 無集因, 無受生果, 亦非生生煩惱所縛. 如知勝義境, 世俗一切法門, 三賢所行道, 十聖所觀法, 亦如是知. 非但所知, 外化方便, 皆集心中, 達正方便故, 外道邪見功用, 幻化魔說, 及與佛說, 差別之中, 皆分別也. 入二諦處, 諦故非一, 解故非二, 非有陰界入. 卽是慧光之所映奪. 然慧光照性, 卽入一切法, 以證眞時, 思惟一切法故.

⑩ 불괴심 不壞心

□ 불자들이여! 불괴심(不壞心,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란 성인의 지위[地]에 들어가는 지(智)이니 해탈위(解脫位)에 가까워진 것이다. 다만 도를 얻는 바른 문으로 보리심(菩提心)을 밝혀서 복인(伏忍)¹³²⁾ 가운데 공을 따르니 팔마(八魔)¹³³⁾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많은 성인들이 정수리를 어루

132) 복인(伏忍)은 오인(五忍)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복’은 숨기고 누르는 것, ‘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견디는 것, 인가(忍可)하는 것을 뜻한다. 지전(地前)의 삼현(三賢)은 아직 무루지(無漏智)를 얻지 못하여, 과(果)를 증득하였으나 번뇌를 모두 끊어 없애지는 못했다. 단지 관해(觀解)를 수습하여 유루(有漏)의 뛰어난 지혜로써 번뇌를 숨기고 눌러 일어나지 않도록 할 뿐이다. 그래서 복인이라 한다.

133) 팔마(八魔)란 고(苦)·공(空)·무상(無相)·무아(無我)·생(生)·노(老)·병(病)·사(死)이다.

만져 주시며 제불(諸佛)이 권발(勸發)하여 마정삼매(摩頂三昧)에 드나니, 몸에서 빛을 내어 지방 불토(佛土)를 비추면서 부처님의 법다운 신통에 들어가면 출몰(出沒)이 자재(自在)하여大千세계(大千世界)를 진동시킨다.

평등지(平等地)의 마음과 둘이 아니며 다름이 없으나, 중관지(中觀智)의 도(道)는 아니다. 부처님께서 삼매력(三昧力)으로 빛 속에서 한량없는 국토에 나타나시어 법을 설하는 것을 보느니라. 그때 곧 정삼매(頂三昧)를 얻어 허공의 평등한 지(地)에 올라가 총지법문(總持法門)으로 성행(聖行)을 만족케 하느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공을 행하며 공공혜(空空慧)의 중도(中道)로 무상(無相)을 비추므로 일체상이 사라져 금강삼매법문(金剛三昧法門)을 얻어 일체행문에 들어가며 허공평등성지(虛空平等性智)에 드나니, 『불화경(佛華經)』 가운데 자세하게 설한 것과 같나니라.

若佛子! 不壞心者, 入聖地智, 近解脫位. 但得道正門, 明菩提心, 伏忍順空, 八魔不壞. 衆聖摩頂, 諸佛勸發, 入摩頂三昧, 放身光光, 照十方佛土, 入佛儀神, 出沒自在, 動大千界. 與平等地心, 無二無別, 而非中觀智道. 以三昧力故, 光中 見佛無量國土, 現爲說法. 爾時, 卽得頂三昧, 登虛空平等地, 總持法門, 聖行滿足. 心心行空, 空空慧中道, 無相照故, 一切相滅, 得金剛三昧門, 入一切行門, 入虛空平等地, 如佛華經中廣說.

■ 열 번째 ‘불괴심(不壞心)’이란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다. 다음 행상(行相)을 밝히는 가운데 능히 ‘성인의 지(智)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까이는 이장(二障)을 분별하여 ‘해탈위(解脫位)에 가까워지는 것’이니 다만 성도(成道)의 방편을 얻는 바른 문[正門]이다.

이 마지막 마음에서 사선근(四善根)¹³⁴⁾의 명득(明得)¹³⁵⁾과 명증(明證)¹³⁶⁾이 열리기 때문에 ‘보리심(菩提心)을 밝혀 복인[伏忍] 가운데’에서 공(空)의 이치를 지극하게 따르게 되는 것이다. ‘팔마(八魔)’란 ① 고(苦)이고, ② 공(空)이며, ③ 무상(無相)이고, ④ 무아(無我)이며, ⑤ 생(生)이고, ⑥ 노(老)이며, ⑦ 병(病)이고, ⑧ 사(死)이니, 이 여덟 가지의 혼란(惑亂)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해오는 말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생사를 싫어하고 소승의 열반을 기뻐하므로 보리심에서 물러나 곧 마(魔)가 된다.’고 한다. 자

134) 사선근(四善根)은 설일체유부에서 처음으로 무루의 지혜가 생겨서 사제(四諦)의 이치를 명확하게 보는 자리를 견도(見道)라고 한다. 이것은 무루의 성자위로서 견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적 수행단계이므로 순결택분이라 한다. 유가행과의 5위설에서는 가행위(加行位)라고도 부른다. 사선근위는 난위(煖位, uṣmagata) · 정위(頂位, mūrdhan, mūrdhāna) · 인위(忍位, kṣānti) · 세제일법위(世第一法位, laukikāgradharma)의 선근이 생기는 위(位)를 말한다. 사선근(四善根)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내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권35(大23 p.819a5-6)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가 보인다. 특히 『구사론』 권23(大29 pp.119b-121a5)에서 사선근위(四善根位)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유가사지론』 권28(大30 p.439b17) 등에도 보인다. 또 『성유식론』 권9(大31 p.49a25)에 의하면, “논하여 말한다. 보살(菩薩)은 먼저 무수겁 동안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잘 비축하여 순해탈분을 이미 원만하게 마쳤다. 견도에 들어가서 유식의 성품에 안주하기 위하여 다시 가행(加行)을 닦아 이취(二取)를 조복하고 제거한다. 곧 난(煖) · 정(頂) · 인(忍) · 세제일법(世第一法)을 말한다. 이 네 가지를 총히 순결택분이라고 한다. 論曰, 菩薩先於初無數劫, 善備福德智慧資糧, 順解脫分既圓滿已. 爲入見道, 住唯識性, 復修加行, 伏除二取, 謂煖頂忍世第一法. 此四總名順決擇分.”

135) 명득정(明得定)은 4정(定)의 하나이다. 4선근위(善根位)의 난위(煖位)에서 하품(下品) 심사관(尋伺觀)을 발하여 취할 바 대상경계가 공무(空無)한 것을 관하는 선정이다. 정(定)에 의하여 처음으로 무루지혜의 전상(前相)을 얻으므로 명득정이라고 한다.

136) 명증정(明證定)은 4선근위(善根位)의 정위(頂位)에서 상품(上品) 심사관(尋伺觀)을 발하여 취할 바 대상경계가 공무(空無)한 것을 관하는 선정으로 이 정에서 지혜의 밝은 모양이 점점 성하여지므로 명증정이라고 한다.

분(自分)의 행을 설명해 마친다.

다음에는 승분(勝分)으로 여러 성인이 힘을 주심을 밝히겠다. ‘제불이 권발(勸發)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깨달음을 내게 하기 때문이다. 저가 가피를 받고 나서 ‘마정정(摩頂定)’¹³⁷⁾에 들어 삼업(三業)의 가피력을 얻는다. 처음은 몸의 가피력이니 ‘몸에서 빛을 내며 부처님의 법다운 신통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해오는 말로는 “부처님의 위의를 익히는 행”이라고 한다. 다음은 뜻의 가피력[意加力]이니 지(地)를 증득한 마음과 비슷하여 차별이 없으며, 진실로 이 ‘중관지(中觀智)의 도(道)’를 증득한 것은 아니지만 참된 문(眞門)인 것이다. 또 선정(禪定)의 힘으로 세속문(世俗門) 속에서 ‘한량없는 국토에 나투심’을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語]의 가피력이니 ‘나타나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때 정선소의삼매(頂善所依三昧)로 소취공(所取空)의 평등지(平等地) 가운데 올라가서 상(相)을 받아들여 식(識)에 돌아가 총지(總持)¹³⁸⁾가 만족되

137) 마정정(摩頂定)은 마정삼매(摩頂三昧)를 말한다. 불괴심(不壞心)을 가진 보살(菩薩)이 드는 삼매(三昧)로서 부처님과 여러 성인이 정수리를 매만지며 장려하는 삼매이다. 이 삼매에 들면 삼업(三業)의 가피력을 받는데 신가피력(身加被力)으로 몸에서 광명을 내고 부처님의 위의를 배우며, 의가피력(意加被力)으로 평등한 지위의 마음과 차이가 없게 되며, 어가피력(語加被力)으로 설법을 하게 된다고 한다.

138) 총지(總持, dhāraṇī)는 선법(善法)을 호지(護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고, 악법(惡法)을 억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에 법(法)·의(義)·주(呪)·인(忍)의 사다라니(四陀羅尼)가 있다. 법다라니(法陀羅尼)는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 지녀서 잊지 않는 것이다. 의다라니(義陀羅尼)는 일체법의 의취(意取)를 총지(總持)하여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다라니(呪陀羅尼)는 주문을 총지하여 잊지 않으며, 선정에 들어가서 부사의한 주술을 일으켜서 남을 구제하는 것이다. 인다라니(忍陀羅尼)는 일체법의 실상(實相)을 깨닫고 인지(忍持)하여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 네 가지 다라니가 지닌 주술적 기능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유가사지론』권45(大30 p.542c17-18)으로, 법다라니(法陀羅尼)·의다라

어진다.

‘마음과 마음으로 공(空)을 행(行)한다.’는 것은 하품인[下忍]일 때는 소취공(所取空)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공공혜(空空慧)의 중도로 무상을 비춘다.’는 것은 초공(初空)은 중품인[中忍]으로 능취공(能取空)을 따르는 것이다. 후공(後空)은 상품인[上忍]으로 능취공(能取空)을 인가해서 다시 다른 상(相)이 없음으로 ‘무상을 비춘다.’고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제일법위(世第一法位) 가운데에 쌓으로 이공(二空)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체상이 사라진다.’고 한다. 이 무간정(無間定)¹³⁹⁾에서 영원히 물러나 돌아감이 없으므로 ‘금강삼매문(金剛三昧門)’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성인에 들어가 한 몸 가운데 일체의 행을 닦기 때문에 ‘일체행문(一切行門)’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며 곧 초지(初地)의 ‘허공평등지(虛空平等地)’에 들어간다.’고 한 것이다. 『불화경(佛華經)』이란 다른 경전을 가리킨다.

述曰，第十不壞心者，舉章門也。次明行相中，堪入聖智，近於分別二障解脫，但得聖道方便正門。於此終心，開四善根明得明增故，名明菩提心，伏忍之中，極順空理。八魔者，一苦，二空，三無常，四無我，五生，六老，七病，八死。非此八種之所惑亂。傳說如此，應厭生死，欣小涅槃，退菩提心，立爲魔也。明自分行已。次明勝分，衆聖與力。言諸佛勸發者，佛見此人而發

니(義陀羅尼)·주다라니(呪陀羅尼)·능득보살인다라니(能得菩薩忍陀羅尼)의 네 가지 다라니가 열거되어 있다.

- 139) 무간정(無間定, ānantarya-samādhi)이란 유식학파에서 주장하는 가행위 중에서 마지막 단계로 견도 직전의 지위이다. 무간삼마지(無間三摩地)라고도 한다. 이전의 계위인 인순정(印順定)에서 소취(所取)뿐만 아니라 능취(能取)도 공하다는 것을 관하고 이어서 소취와 능취가 함께 공하다는 것을 관하는 정이다. 이는 아비달마불교(阿毘達磨佛教)의 순결택분(順決擇分) 곧 사선근위 중에 세제일법(世諦一法)에 해당한다.

悟故。彼受加已，入摩頂定，得三業加力。初身加力中，自身放光，入佛儀神者。傳說，“習佛威儀行”也。次意加力，與證地心相似無別，而非實證中觀智道，此真門也。又以定力，世俗門中，見無量土。後語加力，現爲說法。爾時，頂善所依三昧，登所取空平等地中，攝相歸識，總持滿足。心心行空者，下忍之時，印所取空故。言空空慧中道，無相照者，初空中忍，順能取空。後空上忍，印能取空，更無餘相，言無相照。由此世第一法位中，雙印二空，故言一切相滅。此無間定永無退還，言金剛三昧門。從此入聖，於一身中，修一切行，故言入一切行門，卽入初地虛空平等地也。佛華經者，指餘經也。

梵網經古迹記 卷第一 終



梵網經古迹記 卷第二 범망경고적기 2권



범망경고적기 2권

梵網經古迹記

1*. 십지 十地

1) 체성평등지體性平等地

□ 노사나불께서 말씀하셨다. 천불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이 앞서 묻기를 ‘십지(十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였나니, 불자들이여! 보리살타(菩提薩埵)가 평등한 지혜의 체성 경지[平等慧體性地]에 들어가면 진실한 법으로 교화하여 일체의 행이 꽃과 같은 빛으로 만족해지고, 사선천[四天]의 과(果)가 어우러져 교화에 임하나니 견줄 수 없는 이치[無方理, 최상의 이치·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이치]로 교화하는 것이니라.神通(神通)과 십력(十力)과 십호(十號)와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으로 부처님의 정토에 머무르며, 한량없는 대원과 두려움 없는 변재와 일체 논과 일체 행에 내가 다 들어가, 불가에 태어나 불성지(佛性地)에 앉으니, 온갖 장애와 범부의 인과를 마침내 받지 않는구나! 하며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 1권 ㄷ : 십금강심에 이어지는 과목이나 번호를 새로 시작한다.

것이니라.

일불토(一佛土)로부터 무량불토(無量佛土)에 들어가며, 일겁으로부터 무량겁에 들어가서 설할 수 없는 법으로 법을 설한다. 돌이켜 일체법을 비추어 보고 역과 순으로 모든 법을 보며, 항상 이제(二諦)에 들어가지만 제일의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의 지혜로써 십지의 차례를 알아 낱알의 일을 중생들에게 보이지만 항상 마음과 마음은 중도(中道)이며, 하나의 지혜로써 모든 불국토의 빼어난 품류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아서 몸과 마음이 변하지 않느니라. 하나의 지혜로써 십이인연과 십악종성(十惡種性)을 알아서 항상 선도에 머무르고, 하나의 지혜로써 유와 무의 이상(二相)을 보며, 하나의 지혜로써 십선지(十禪支)¹⁾에 들어갈 줄 알며,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²⁾을 행하여 일체색신을 육도(六道)에 나타내며, 하나의 지혜로써 시방의 색(色)과 색(色)이 분분(分分)하게 일어나 색의 과보를 받는 곳으로 들어가 마음과 마음에 속박이 없이 빛나는 광명으로 일체를 비추므로 무생(無生)이라 하느니라.

신인(信忍)의 공혜(空慧)가 항상 앞에 나타나 일지(一地)와 이지(二地)로부터 불계(佛界)에 이르도록 그 가운데 일체법문이 일시에 행하여진다. 평등한 지위의 공덕해장[平等地功德海藏]으로 행(行)과 원(願)을 간략하게 나타내니 마치 털끝으로 바다의 물 한 방울을 찍어 낸 것에 불과하느

1) 1권 97) 주(註) 참조.

2)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 37 bodhi-pāṣika-dharma)의 조도품(助道品)은 보리분(菩提分)·각지(覺支)·각분(覺分)이라고도 번역한다. 불교 최고의 목적인 깨달음의 경지[涅槃]를 실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실천도라는 뜻으로, 여기에 37항이 있으므로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이라 하며,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삼십칠각지(三十七覺支)·삼십칠각분(三十七覺分)이라고도 한다. 사념처(四念處, 4念住)·사정근(四正勤, 四正斷)·사여의족(四如意足, 四神足)·오근(五根)·오력(五力)·칠각분(七覺分)·팔정도(八正道, 八聖道)를 합한 것이다.

나라.

盧舍那佛言. 千佛諦聽. 汝先問, ‘地者有何義.’ 佛子, 菩提薩埵, 入平等慧體性地, 眞實法化, 一切行, 華光滿足四天果, 乘用任化, 無方理化. 神通十力十號, 十八不共法, 住佛淨土, 無量大願, 辯才無畏, 一切論一切行, 我皆得入, 生出佛家, 坐佛性地, 一切障礙, 凡夫因果, 畢竟不受! 大樂歡喜. 從一佛土, 入無量佛土, 從一劫入無量劫, 不可說法爲可說法, 反照見一切法, 逆順見一切法, 常入二諦, 而在第一義中. 以一智知十地次第, 一一事示衆生, 而常心心中道, 以一智知一切佛土殊品, 及佛所說法, 而身心不變. 以一智知十二因緣, 十惡種性, 而常住善道. 以一智見有無二相, 以一智知入十禪支, 行三十七道, 而現一切色身六道, 以一智知十方色色, 分分了起, 入受色報, 而心心無縛. 光光照一切, 是故無生. 信忍空慧, 常現在前, 從一地二地乃至佛界, 其中間一切法門, 一時而行故. 略出平等地功德海藏行願, 如海一滄毛頭許事.

■ 십지(十地)를 설명하는 가운데 거듭 질문한 것을 알아야 한다. 초지(初地) 가운데 문장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평등혜체성지(平等慧體性地)’의 ‘평등혜’는 능히 증득한 지혜이며 ‘체성’이란 증득한 바의 진여이고 ‘지(地)’는 총괄하는 말이다.

다음 행상 가운데 ‘진실한 법’이란 안으로 증득하는 문이며, ‘진실한 교화’란 밖으로 교화하는 문이다. 이 두 가지 이로움을 갖추었으므로 ‘일체행’을 진실한 무루의 행이라고 한다. 바로 불과(佛果)를 감득하는 것을 ‘꽃[華]’이라고 하고 실제로 어둠의 종자를 파괴하는 것을 ‘빛[光]’이라 하며, 두루 법계를 증득하는 것을 ‘만족(滿足)’이라고 한다. ‘사천(四天)의 과

(果)’는 과보[報果]에 포섭된다. ‘어우러져 교화에 임한다.’는 것은 세속문으로 교화하는 것이며, ‘견줄 수 없는 이치[無方理]로 교화하는 것’은 승의문(勝義門)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십력(十力)’ 등에 ‘모두 들어간다.’는 것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 말하기를 ‘초지(初地) 이상에서 백사십 가지 불공법(不共法)³⁾을 부분적으로 얻는다.’⁴⁾고 하였다. ‘정토대원(淨土大願)이란’ 능히 타수용토(他受用土)에 머무를 만한 원력이다. ‘일체론(一切論)’이란 오명론(五明論)⁵⁾이며 ‘일체행’이란 저 오명에 있는 여러 가지 행위이다. ‘불성지(佛性地)에 앉는다.’고 한 것은 이미 큰 지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모든 장애’는 분별기(分別起)⁶⁾의 장애이며 ‘범부의 인과’란 악취(惡趣)⁷⁾

3) 백 사십 가지 불공법은 부처님만이 갖추고 있는 140가지의 뛰어난 특징을 말한다. 범부나 여타의 수행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공(不共)’이라 한다. 삼십이상(三十二相)·팔십종호(八十種好)·십력(十力)·사무외(四無畏)·삼념처(三念處)·삼불호(三不護)·대비(大悲)·무망실법(無忘失法)·단번뇌습(斷煩惱習), 영해습기(永害習氣), 일체종지(一切種智), 일체묘종지(一切妙種智) 등을 말한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권49(大30 p.566c8),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권3(大30 p.975c26)

4) 『유가사지론』 卷第三十八「本地分中菩薩地第十五初持瑜伽處菩提品」第七(大30 p.499a9) “復有異門，謂百四十不共佛法，及如來無諍願智無礙解等，是名無上正等菩提。百四十不共佛法者，謂三十二大丈夫相，八十隨好，四一切種清淨，十力，四無所畏，三念住，三不護，大悲，無忘失法，永害習氣，一切種妙智。”라 한다.

5) 오명론(五明論)은 성명(聲明)과 공교명(工巧明)과 의방명(醫方明)과 인명(因明)과 내명(內明)이다.

6) 분별기(分別起)는 후천적으로 일으키는 번뇌. 분별기로 발생하는 번뇌장(煩惱障)·소지장(所知障) 등 두 가지 장애를 견혹(見惑)이라 한다. 반면에 태어남과 동시에[俱生] 갖추어지는 선천적인 번뇌[俱生起, 任運起]에도 번뇌장 소지장의 두 가지 장애가 있으며 이 두 가지 장애는 수혹(修惑) 또는 사혹(思惑)이라 한다. 분별기의 번뇌는 견도위(見道位)에서 끊어지는데 이것은 주로 잘못된 교설이나 스승 또는 그릇된 사유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별에 따라 발생하므로 후천

와 북취(北趣)⁸⁾, 무상천(無想天) 등이다. ‘일불토로 부터 무량불토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국토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러 나라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 겁으로부터 무량겁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념 속에 삼재를 포함하기 때문이며, 혹은 일겁을 펴서 다겁을 삼기 때문이다. ‘가히 설할 수 없는 법으로 법을 설한다.’는 것은 능히 안으로 깊은 법을 증득했기 때문에 설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을 받아들여 지(智)에 돌아가게 하므로 ‘돌이켜 일체 법을 비추어 본다.’고 하였으며 ‘항상 이제(二諦)에 들어간다.’고 하는 등은 이제에서 자유자재하게 비추어보며 참된 마음⁹⁾을 지키기 때문이다. ‘십지(十地)의 차례를 안다.’는 것은 지위이며, ‘날날의 일을 중생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지

적이라 한다. 곧 『유가사지론』 권58(大30 p.621b8-10)에는 “분별기는 여러 외도들이 헤아려 일으킨다. 分別起者, 諸外道等, 計度而起.”라고 하고 있으며 또 『성유식론(成唯識論)』 권9(大31 p.48c26-29)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장애를 분별기는 견도위에서 끊을 대상으로 포섭하고, 임운기는 수도위(修道位)에서 끊을 대상으로 포섭한다. 이승은 다만 번뇌장만 끊을 뿐이며, 보살은 두 가지 모두 끊으며, 영원히 두 종류를 끊는 것은 오로지 성도(聖道)일 뿐이다. 如是二障, 分別起者, 見所斷攝, 任運起者, 修所二斷攝. 二乘但能斷煩惱障, 菩薩俱斷, 永斷二種, 唯聖道.”라고 했다.

- 7) 악취(惡趣, durgati)는 악업에 의해 태어나는 세계. 삼악취(三惡趣)·사악취(四惡趣)·오악취(五惡趣)·육악취(六惡趣)가 있다. 악취는 고통과 우치 때문에, 복구로주는 무상(無常)을 감득할 기회가 없어서, 무상천은 외도(外道)가 최고의 단계로 믿기 때문에, 능히 성도(聖道)와 그 가행(加行)으로 나아가는 것을 장애한다.
- 8) 북취(北趣)는 북구로주(北俱盧洲), 즉 사주(四洲) 가운데 즐거움이 가장 수승하므로 고통이 없어 불법을 만나지 못하므로 오히려 도에는 장애가 되는 곳이다.
- 9) 『대일경소(大日經疏)』 2권의 육십심(六十心) 가운데 35번째 실택심(室宅心)이다. 한결 같은 뜻으로 자신을 지키는 마음이다. 행자(行者)가 지계(持戒)하며 선(善)을 닦는 것은 다만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요, 이것은 악도(惡道)의 중고(衆苦)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마치 세간 사람들이 집을 지어 몸을 지키는 것과 같은 데는 대치의 도로써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수단이며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행(地行)이다. ‘몸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맛[一味]인줄 아는 것이며 ‘십악(十惡)’이란 살생(殺生) 등이니, 악업[黑品]을 알므로 선업[白品]에 머무르는 것이다. ‘하나의 지혜로써 유(有)와 무(無)의 두 상[二相]을 본다.’는 것은 삼성(三性)¹⁰⁾을 통달했기 때문이다. ‘분분(分分)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색(色)을 아는 것이니, 여러 가지 색(色)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색의 과보[色報]를 받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형상 있는 몸의 과보를 받아 들어가므로 곧 무색계(無色界)에는 태어날 수 없다. ‘마음에 속박이 없다.’는 것은 비록 정려(靜慮)에 머무르나 욕계 등에 태어나는 것이다. 해광이 항상 비추는 것은 진리가 두루 가득 차는 것이다. ‘생겨남이 없는 진리 속에 신인(信忍)의 공혜(空慧)가 항상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오인(五忍)¹¹⁾에서 두 번째의 초지(初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10)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과 의타기성(依他起性)과 원성실성(圓成實性)이다.

11) 오인(五忍)은 『호국인왕경(護國仁王經)』에서 보살(菩薩)의 계위(階位)를 5종류로 나눈 것이다. 보살이 법리를 깨닫고 마음이 편안하게 머무는 정도에 따라 세운 계위로 복인(伏忍), 신인(信忍), 순인(順忍), 무생인(無生忍), 적멸인(寂滅忍)을 말한다. 복인(伏忍)은 번뇌를 끊지 못하였으나 관혜(觀慧)를 익혀 이것을 굴복시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지위(地位)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에 해당된다. 신인(信忍)은 관(觀)하는 마음이 더욱 진전(進展)되어 증득(證得)할 법(法)을 믿고 의심치 않는 지위로 곧 초지(初地), 이지(二地), 삼지(三地)의 보살(菩薩)이 여기에 속한다. 순인(順忍)은 앞에서의 믿음에 의지하여 다시 더 나은 지혜를 연마하여 무생(無生)의 증과(證果)를 순(順)하는 지위(地位)로 사지(四地), 오지(五地), 육지(六地)의 보살이 여기에 해당된다. 무생인(無生忍)은 제법무생(諸法無生)의 진리(眞理)를 깨달아 아는 지위(地位)로 칠지(七地), 팔지(八地), 구지(九地)의 보살(菩薩)이다. 적멸인(寂滅忍)은 갖가지 번뇌(煩惱)를 끊어버리고 청정무위 담연적정(淸淨無爲 湛然寂靜)에 안주(安住)하는 지위로 곧 십지(十地), 등각(等覺), 묘각(妙覺)의 지위를 말한다. 『열반경(涅槃經)』 16권(大12 p.462a), 『법원주립(法苑珠林)』 66권(大53 p.793a) 참조.

일체법문'이라는 것은 십바라밀이다. '간략하게 나타내니' 이하는 초지(初地)의 대해(大海)를 결론지은 것이니, 지금 간략히 발췌한 것이다.

述曰, 明十地中, 牒問可知, 此初地中舉章門. 言平等慧體性地者, 平等慧者, 能證智也, 體性者, 所證真也, 地卽總也. 次行相中, 眞實法者, 內證門也, 眞實化者, 外化門也. 具此二利, 言一切行, 眞無漏行. 正感佛果言華, 實破闇種名光, 徧證法界言滿足. 四天果者, 攝報果也. 乘用任化者, 世俗門化, 無方理化者, 勝義門化. 於十力等皆得入者, 如瑜伽云, 初地已上, 分得百四十不共佛法故. 淨土大願者, 堪住他受用土願故. 一切論者, 五明論也, 一切行者, 於彼五明多有所作. 坐佛性地者, 已入大地故. 一切障礙, 分別起障, 凡夫因果, 惡趣北趣無想天等. 從一佛土入無量土者, 不動一國至諸國故. 從一劫入無量劫者, 於一念中攝三際故, 或舒一劫爲多劫故. 不可說法爲可說者, 堪說內證甚深法故. 攝法歸智, 名反照見一切法, 常入二諦等者, 遊照二諦, 宅心眞故. 知十地次第者, 地位也, 一一事示衆生者, 地行也. 身心不變者, 會一味故, 十惡者, 殺生等也, 雖知黑品住白品故. 一智見有無二相者, 達三性故. 分分了起者, 別別了知色故, 別別生起色故. 入受色報者, 趣入領受有色報故, 卽不生無色也. 而心無縛者, 雖住靜慮, 生欲界等. 慧光恒照, 徧滿眞故. 無生理中, 信忍空慧常現前也, 卽五忍之第二初故. 其中間一切法門者, 十度也. 略出下, 結初地大海, 今略出也.

2) 체성선행지 體性善慧地

□ 불자들이여! 보리살타의 계를 잘 지키는 착하고 지혜로운 체성지[善慧體性地]니라.

若佛子! 菩提薩埵善慧體性地.

■ 두 번째 지(地)에 세 가지가 있으니 장문(章門)과 지행(地行)과 지광(指廣)이다. 이는 처음 문장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선행(善慧)’라고 말하는 것은 계를 범하는 악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述曰, 第二地中有三, 章門故, 地行故, 指廣故. 此初舉章. 言善慧者, 離犯戒惡故.

□ 청정명달한 모든 선근은 소위 자애[慈]와 슬픔[悲, 측은지심]과 기쁨[喜]과 평등[捨]¹²⁾이며 혜(慧)는 일체 공덕의 근본이니라.

清淨明達一切善根, 所謂慈悲喜捨, 慧一切功德本.

■ 이지(二地)의 행(行)에 두 가지가 있으니 총표(總標)와 별석(別釋)이

12) 자비희사(慈悲喜捨)는 사무량심(四無量心)으로서 사무량(四無量)이라고도 한다. 자(慈, maitrī), 비(悲, karuṇā), 희(喜, muditā), 사(捨, upekṣā)의 네 가지 마음이 한없이 일어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한없이 많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苦)의 미혹을 없애주기 위해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네 가지 마음을 일으키며, 혹은 자(慈) 등의 네 가지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곧 자무량심(慈無量心)·비무량심(悲無量心)·희무량심(喜無量心)·사무량심(捨無量心)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慈), 고(苦)를 없애는 것을 비(悲),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희(喜), 타인에 대해 애증친원(愛憎親怨)의 마음없이 평등한 것이 사(捨)이다.

다. 이 부분은 첫째이다. ‘청정명달(淸淨明達)한 모든 선근’이란 행의 체[行體]를 든 것이니 세 종류가 있다. ①자(慈)는 즐거움 주는 것을 으뜸으로 여긴다. ②사(捨)는 더러움의 근본을 떠난 것이다. 혹 어떤 경본에는 사무량을 다 말하기도 한다. ③혜(慧)이니 통달하여 증득하는 근본이다.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온 ‘선근(善根)’의 이름[名]과 뜻[義]을 해석한 것이다.

述曰, 第二地行中有二, 總標故別釋故. 此初也. 淸淨明達, 一切善根者, 舉行體也, 謂有三種. 一慈與樂爲最故. 二捨離染之本故. 或有經本, 具四無量. 三慧 證達之原故. 一切功德本者, 釋上善根名義也.

□ 처음 관(觀)함으로부터 대공혜방편도지(大空慧方便道智) 속에 들어가 모든 중생들을 보니 고제(苦諦) 아님이 없는지라, 모두 식심(識心)이 있어서 삼악도의 칼과 몽둥이로 일체를 괴롭게 하는 것을 반연하여 식(識)이 일어나므로 고제(苦諦)라고 한다. 세 가지 고의 상[三苦相]¹³⁾이란 같기로 말하자면 마치 몸으로 처음 느끼는 감각[身初覺]과 같아서 칼과 몽둥이와 몸의 색음(色陰)인 두 가지 연을 따라서 생기는 느낌을 행고(行苦)의 연이라고 한다.

다음은 의지각(意地覺, 意識覺)이니 몸의 느낌[身覺]의 소연(所緣)을 반연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칼과 몽둥이 및 몸의 상처 등 법을 얻은 까닭으로

13) 삼고(三苦)는 살아 있는 존재가 느끼는 세 가지의 괴로움으로 고고(苦苦)는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게서 느끼는 괴로움, 행고(行苦)는 세상이 세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괴로움, 괴고(壞苦)는 좋아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괴로움을 말한다. 『무량수경(無量壽經)』(大12 p.266a), 『구사론(俱舍論)』 권22(大29 p.114b5-22),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권15(大31 p.551a-b) 등에서 설명하고 있다.

고고연(苦苦緣)을 느끼게 되나니 거듭되기 때문에 고고(苦苦)라고 한다.

다음은 수행각(受行覺)이니, 이심(二心, 行苦·苦苦)의 연(緣)으로 몸의 색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난 곳을 향하여 괴롭다는 느낌[苦覺]을 내기 때문에 괴고(壞苦)의 연(緣)이라 하나니 이 세 가지 느낌[三覺, 身初覺·意識覺·受行覺]이 차례대로 삼심(三心, 苦苦·行苦·壞苦)이 나게 하므로 고고고(苦苦苦)라고 하는 것이니라.

從初觀，入大空慧方便道智中，見諸衆生，無非苦諦，皆有識心，三惡道刀杖，一切苦惱，緣中生識，名爲苦諦。三苦相者，如者如身初覺，從刀杖身色陰，二緣中生覺，爲行苦緣。次意地覺，緣身覺¹⁴⁾所緣，得刀杖及身瘡腫等法故，覺苦苦緣，重故苦苦。次受行覺，二心緣向，身色陰壞瘡中，生苦覺故，名爲壞苦緣，是以三覺，次第生三心故，爲苦苦苦。

■ 따로 해석함에[別釋]에 세 가지가 있으니 차례를 거슬러 혜(慧)와 사(捨)와 자(慈)를 해석한 것이다.

첫 번째에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관찰과 교화로 이끄는 것[化導]인데 이 부분은 첫째이다. ‘대공혜(大空慧)에 들어가 관한다.’는 것은 처음 최승진여대공혜(最勝眞如大空慧)에 들어가 관찰하는 것이니, 처음 마음이 들어가 드디어 후득지(後得智)¹⁵⁾의 교묘한 방편도지[巧方便道智]를 일으키는 가운데 모든 중생들을 보니 고제 아님이 없다. 왜냐하면 모두 괴로움을 인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삼도(三途, 三惡道)에서 선취(善趣, 三善道)에 이르기까지 고(苦)의 연(緣) 가운데 식이 일어남을 알기 때문이다.

14) 卍 p.392b16에는 ‘覺重’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33a10에는 ‘覺’으로 되어 있다.

15) 1권 79) 주(註) 참조.

무엇이 고인가? 말하자면 삼고(三苦,苦苦·行苦·壞苦)가 있다. ‘같다(如)’고 하는 것은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비슷[相似]하여 같은 것’이니, 현상[事]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몸으로 처음 느낀다[身初覺]’는 것은 오식(五識)이요, ‘칼과 몽둥이를 따르는’ 것은 외연(外緣)이며, ‘몸을 따라서[從身]’라고 한 것은 내연(內緣)이니 근(根)과 경(境)이 모두 색(色)이므로 색음(色陰)이라고 한다. 이연(二緣, 내연과 외연) 속에서 느낌이 생겨나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식(識, 앎)의 이름을 행고(行苦)의 연(緣)이라고 하니, 이로부터 여러 가지 사수(捨受)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음은 의식각(意識覺)이다. 마찬가지로 칼이나 몽둥이 및 몸의 상처 등을 함께 반연하여 오식(五識)을 이끌어 내고 고수(苦受)와 함께 자신의 근심에 상응하므로 고고(苦苦)의 연이라고 한다. 거듭해서 고고(苦苦)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 거듭됨을 해석하여 고고(苦苦)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 세 번째 추념의식(追念意識)을 일으키는 것을 수행각(受行覺)이라 하니 앞에서 느낀 연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앞의 이각(二覺)에 반연한 몸 등은 일찍이 미묘하던 것이 무너지는 속에 근심과 괴로움을 내므로 괴고(壞苦)의 연이라고 한다.

이로써 삼위(三位)의 식(識)이 점차로 삼고(三苦)를 발생시키므로 고고고(苦苦苦)라고 한다. 이 세 개의 고자는 차례대로 앞의 행고(行苦) 등의 삼고(三苦)를 결론지은 것이다.

別釋有三，逆次第釋慧捨慈故。初亦有二，觀察故化導故，此初也。言觀入大空慧者，謂初觀入於最勝真如大空之慧，從初入心，遂起後得巧方便道智中，見諸衆生，無非苦諦。何以故，皆有識苦之心。三途乃至善趣，苦緣中生識領故。何等爲苦？謂有三苦。言如者，相傳云，相似如也，指事言故。言身初覺者，五識也，從刀杖者外緣也，從身者內緣也，根境並色，故言色

陰. 二緣中生識覺故, 此識名爲行苦之緣, 率爾多分起捨受故. 次意識覺. 同緣刀杖及身瘡等, 引生五識, 相應苦受及自憂根, 名苦苦緣. 重故苦苦者, 釋逼迫重, 名苦苦也. 次起第三, 追念意識, 名受行覺. 於前所受, 追緣行故. 於前二覺所緣身等, 曾妙壞中, 生憂惱故, 名壞苦緣. 是以三位識, 漸生三苦故, 爲苦苦. 此三苦字, 如次結前行等三苦.

□마음이 있는 모든 중생은 이 삼고(三苦)를 한량없는 고뇌를 일으키는 인연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서 교화도삼매(敎化道三昧)에 들어가 일체색신을 육도 속에 나타내어 열 가지 번재(辯才)로 온갖 법문을 설하리라.

말하자면 고의 식별[苦識]과 고의 연[苦緣]인 칼과 몸둥이의 연이 갖추어지고, 고의 식별[苦識]이 몸에 행해져서 상처가 생겨 썩기 시작하면 내외의 촉(觸) 중에서 혹은 갖추어지기도 하고 갖추어지지 않기도 한다. 두 가지 연을 갖춘 속에 식별을 일으키고, 식별을 짓고[識作] 식별을 느끼며[識受] 접촉으로 식별[觸識]하는 것을 고통의 식별[苦識]이라 하느니라. 두 가지 연[二緣]이 행해지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색(色)을 반연하고, 마음이 부딪쳐 괴로워져서 번뇌의 독을 받을 때를 고고(苦苦)라고 한다. 마음이 식을 반연함에 처음 감각이 알아차리는 연이 있으므로 고의 알아차림이라 이름한다.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느끼며 부딪치고 식별하여 부딪힘을 알아차리나[覺知] 아직 번뇌의 독을 받지 않았을 때를 바로 행고(行苦)라고 하느니라.

핍박으로 알아차림(覺知)이 생기는 것이 마치 돌을 쪼갤 때 일어나는 불꽃과 같아서 신심이 순간순간 생멸하여 몸이 부서져 흩어지고 변화하면, 식(識)이 무너지는 연에 들어간다. 연(緣)이 모이고 흩어지면 마음이

괴롭고 번뇌스러워 받아들이는 생각마다 염착(染著)을 반영하여 마음에
서 버리지 못한다. 이것이 괴고(壞苦)가 되나니, 삼계가 모두 고제니라. 다
시 무명을 관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음이 모여 일체 업을 짓나니 습
기의 인[習因]과 업을 모으는 인[集因]이 서로 이어지고 연결된 것을 집제
(集諦)라고 한다. 바른 견해로 해탈하여, 공한 것 까지 공[空空]한 지도(智
道)의 심심(心心)은 지도(智道)로써 도제(道諦)라고 이름한다. 유(有)의 과
보도 다하고 유(有)의 인(因)도 다하여 청정하므로 한결같이 체성을 비추
면 묘한 지혜가 적멸한 하나의 진제가 된다. 혜품(慧品)이 구족한 것을 근
(根)이라 이름하고, 온갖 혜의 성품이 공(空)에서 일어나 관(觀)에 들어가
니 이것이 첫 번째 선근이니라.

一切有心衆生，見是三苦，起無量苦惱因緣故，我於是中入教
化道三昧，現一切色身於六道中，十種辯才，說諸法門。謂苦
識苦緣，刀杖緣具，苦識行身，瘡腫發壞，內外觸中，或具不具。
具二緣中，生識識作，識受觸識，名爲苦識。行二緣故，心心緣
色，心觸觸惱，受煩毒時爲苦苦。心緣識，初在根¹⁶⁾覺緣，名爲
苦覺。心作心受，觸識覺觸，未受煩毒時，是名行苦。逼迫生
覺，如斷石火，於身心念念生滅，身散壞轉變化，識入壞緣。緣
集散，心苦心惱，受念後緣染著，心心不捨。是爲壞苦，三界一
切苦諦。復觀無明，集無量心，作一切業，相續相連，習因集因，
名爲集諦。正見解脫，空空智道心心，名以智道道諦。盡有果
報，盡有因清淨，一照體性，妙智寂滅一諦¹⁷⁾。慧品具足名根，
一切慧性，起空入觀，是初善根。

16) 卍60 p.393b18에는 ‘煩’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33b18에는 ‘根’으로 되어 있다.

17) 卍60 p.394b6에는 ‘識’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33c4에는 ‘諦’로 되어 있다.

■ 두 번째 ‘교화하여 이끄는 것’에서 ‘마음이 있는 모든 자’는 이 삼고(三苦)나 팔고(八苦)¹⁸⁾ 등이 일어나는 인연을 보기 때문이다.

이 지(地)의 보살은 ‘교화도삼매(教化道三昧)’에 들어가 여러 가지 재난을 설하므로 싫어함이 생겨서 버리게 된다. 그 가운데 선정에 들어가 의업(意業)이 자재해지고, 몸을 육도에 나타내므로 신업(身業)이 자재해지며, 열 가지 번재로 법을 설하므로 어업(語業)이 자재해진다.

‘열 가지’는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①자상(自相)이니 현상[事]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②동상(同相)이니 이치[理]의 상을 말하는 것이며, ③행상(行相)이며, ④설상(說相)이며, ⑤지상(智相), ⑥무아만상(無我慢相), ⑦대소승상이며, ⑧보살지상(菩薩地相), ⑨여래지상(如來地相), ⑩작주지상(作住持相)이니 곧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러한 모습[相]이다.¹⁹⁾

‘고통의 식별[苦識]’이란 고의 체성[苦體]이니, 여기에서는 우선 사제문(四諦門)을 설하기 때문이다. ‘고의 반연[苦緣]’이란 의지하는 것이니, 자신의 심왕(心王)²⁰⁾과 근에 의지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칼이나 몽둥이 등의 연이 갖추어진다.’는 것은 외촉(外觸)의 경계[境]이다. ‘고의 식별[苦識]이 행해져 상처가 생겨 찌는다.’는 것은 내촉(內觸)의 경계[境]이다. 고의 식별을 알아차리므로 행(行)해지는 집수(執受)로써 내신(內身)이 접촉되기 때문이다. ‘칼’ 등은 몸을 무너뜨리므로 두 가지 촉[二觸]이 ‘갖추어

18) 팔고(八苦)란 생(生)·노(老)·병(病)·사(死)의 사고(四苦)와 애별리고(愛別離苦)·원증회고(怨憎會苦)·구부득고(求不得苦)·오음성고(五陰盛苦)를 합한 것이다. 『열반경(涅槃經)』 권12(大12 p.435a3-5)에 보인다.

19) 원주(原註)에 “십지경론(十地經論)과 같다[如十地論].”라고 했는데, 『십지경론(十地經論)』(大26 p.190b6)에 보면 구업성취(口業成就)를 설명하면서 “十種差別, 一依自相, 二依同相, 三行相, 四說相, 五智相, 六無我慢相, 七小乘大乘相, 八菩薩地相, 九如來地相, 十作住持相. 後五是淨相.”의 열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0) 심왕(心王)은 마음작용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마음의 본체를 말한다.

지나, ‘창(瘡, 종기나 상처)’ 등은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지하는 연[所依緣]을 갖추면 요별이 생기기 때문에 ‘식별을 일으킨다[生識]’고 하고 ‘식별을 짓는 것[識作]’은 생각[思]이고 ‘식별을 느끼는 것[識受]’은 수(受)이며 ‘접촉하여 식별하는 것[觸識]’은 촉(觸)이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모여 합해진 것을 ‘고의 식별[苦識]’이라고 한다. 수승하게 나타난 것을 따라 다만 세 가지 의지처[三心所]²¹⁾만 들었을 뿐이다.

述曰, 第二化導, 諸有心者, 見是三苦, 起八苦等之因緣故. 此地菩薩, 入教化道三昧, 說諸過患, 令生厭背. 於中入定, 意業自在, 現身六道, 身業自在, 十辯說法, 語業自在. 十者傳說, 一自相說事相故, 二同相說理相故, 三行相, 四說相, 五智相, 六無我慢相, 七大小乘相, 八菩薩地相, 九如來地相, 十作住持相, 卽古今恒爾相也. 苦識者苦體也, 於此且說四諦門故. 苦緣者所依也, 依自心王及根起故. 刀杖緣具者, 外觸境也. 苦識行瘡腫發壞者, 內觸境也. 以覺苦識所行執受, 內身觸故. 刀等破身, 故具二觸, 瘡等自生, 故言不具. 具所依緣, 生了別故, 名爲生識, 識作思也, 識受受也, 觸識觸也. 如是一聚, 合名苦識. 以隨顯勝, 且舉三心所.

■ 그러나 이 고제의 차별에 세 가지가 있다. ① ‘고고(苦苦)’이니 근(根)과 경(境)에 의지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연[二緣, 根은 內緣·境은 外緣]의 고를 행한다.’고 하며 이 생각마다 몸의 상처를 반연하기 때문에 ‘마음과

21) 『구사론(俱舍論)』의 심소(心所) 중에 십대지법(十大地法)인 수(受)·상(想)·사(思)·촉(觸)·욕(欲)·혜(慧)·념(念)·작의(作意)·승해(勝解)·삼마지(三摩地)에서 수(受)·사(思)·촉(觸)의 세 가지로 설명한다.

마음이 색을 반연한다.’고 하였고 ‘이 마음이 부딪치는 번뇌의 경계에 닿아 번뇌의 독(毒)을 받아들이므로 고고(苦苦)’라고 한다.

② 행고(行苦)이니 두 가지 고[二苦]의 근본이므로 중간에 설명한 것이다. ‘마음이 식(識)을 반연한다’고 말하는 것은 차별된 이름이다. 처음 감관[根]이 발할 적에 다분히 이로부터 소연(所緣)의 경계를 깨닫는 것을 행고(行苦)의 알아차림이라 부른다. ‘사(思)와 수(受) 및 촉(觸)으로 겨우 경계에 닿음을 느끼고 아직 독(毒)을 받지 않았을 때’ 사수(捨受)가 현전함을 이름하여 행고(行苦)라고 한다.

③ 괴고(壞苦)이니, 경계의 절박으로 고(苦)가 생겨나는 것이 ‘마치 돌을 쪼갤 때의 불꽃 같다.’고 하였다. 연(緣)이 꺾박하여 행고(行苦)의 돌을 쪼개는 것으로 인하여 부서지는 것 같은 고(苦)가 발생하여 신심(身心)을 태우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찰나의 생멸은 곧 미세한 괴고(壞苦)이다. 만약 어느 한 기간에 몸이 무너지고 흩어져 변해서 환화와 같아지면 식이 그 안에서 알게 되기 때문에 ‘식은 무너지는 연에 들어간다.’고 한 것이다. 아내와 자식과 보배 등이 존재함을 ‘연이 모인다.’고 하고 그것이 나중에 무너지는 것을 ‘연이 흩어진다’고 한다. 그 때 마음의 고뇌가 더욱 증가하여 마음을 괴롭히나니, 비록 현재에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연이 흩어져 무너지면 전(前)에 있을 때를 연연하고 집착하면서 ‘생각마다 버리지 못하므로 괴고(壞苦)’라고 한다. 위의 것을 총히 결론 지어 말하면 ‘삼계는 모두 고제(苦諦)’인 것이다.

다음에는 집제(集諦)를 밝힌다. 무명을 관해 보니 무명은 한량없는 선악의 마음을 끌어 모아 일체 업을 지으므로 습기²²⁾가 상속²³⁾된다. 번뇌는

22) 1권 18) 주(註) 참조.

23) 상속(相續, ㉠saṃtati)은 인과(因果)가 차례로 연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업의 잠재적인 힘의 훈습에 의해 남겨진 세력으로 연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습(習)의 인(因)이다. ‘모든 업을 모으는 인’을 집제라고 한다.

다음은 도제(道諦)를 밝히겠다. ‘바른 견해’는 인이며 ‘해탈’은 과이며, ‘공한 것까지 공[空空]한 지도(智道)’는 체이다. 두 가지 공의 지(智)란 세간의 ‘정견(正見)’을 인(因)으로 삼고 출세간의 ‘해탈’을 과로 삼는 것이다. 여러 성인들의 자취를 ‘도(道)’라고 하며 견도(見道)나 수도(修道) 등은 달리 ‘심심(心心)’이라 한다. 총히 결론 지어 ‘지도(智道)로써 도제(道諦)’라고 이름한 것이다.

다음으로 멸제(滅諦)를 밝히겠다. ‘유(有)의 고과(苦果)’를 다하고 ‘유(有)의 업을 모으는 인[集因]’을 다하여 장애에서 벗어나 ‘청정해져서 한 맛으로 체성을 비추면 성묘지(聖妙智)의 택력(擇力)으로 적멸한 하나의 진제’라고 한다.

‘해품이 구족하다.’고 한 것 아래는 총결이니, ‘첫 번째 해의 선근’을 결론지었다. ‘공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속지(俗智)이며, ‘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지(眞智)이다.

然此苦諦差別有三。一者苦苦，依根境故，言行二緣，由此念念緣身瘡等故，言心心緣色，此心觸對觸惱之境，領受煩毒，爲苦苦也。二者行苦，二苦本故處中說。言心緣識者，名之差別。初在根發，多分率爾覺所緣境，名行苦覺。思受及觸，纔覺境觸，未受毒時，捨受現前，名爲行苦。三者壞苦，境切生苦，如斲石火。謂由緣逼，斲行苦石，出壞等苦，燒身心也。此有二種，剎那生滅，卽細壞苦。若一期身散壞，轉變如幻化，識於中了故，言識入壞緣也。妻子珍等，存名緣集，彼後敗壞，名爲緣散。爾時心苦轉增心惱，雖現受念，後散壞緣，戀著前存，念念不捨，是爲壞苦。總結上云三界一切苦諦也。次明集諦。謂觀無明，引集無量善惡之心，作一切業，習氣相續。煩惱習因。諸業集因名

爲集諦. 次明道諦. 正見因也, 解脫果也, 空空智道體也. 謂二
空智, 以世間正見爲因, 出世解脫爲果. 羣聖之迹名道, 見修
等別名心心. 總結名以智道道諦. 次明滅諦. 盡有苦果, 盡有集
因, 離障清淨, 一味所照體性, 以聖妙智擇力, 寂滅一諦也. 慧
品具足已下, 總結初慧善根. 起空者俗智, 入觀者眞智.

□ 두 번째 일체 탐착을 버리고 일체 평등한 공을 행하는 사(捨)를 관하
는 것이다. 반연이 없는 모든 법의 공한 경계[空際]를 하나의 상으로 관하
는 것이다. ‘내가 모든 시방의 땅을 관하니 모두 나의 옛 몸이 쓰던 옛 흙
이며, 네 개의 큰 바다 물은 내가 옛날에 쓰던 물이며, 일체의 겁화(劫火)
도 나의 옛 몸이 쓰던 불이며, 모든 바람은 내가 예전에 쓰던 기운이니,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들어가니 법신이 만족하다. 나의 옛 몸을 버리
되 마침내 사대(四大)로 분단(分段)된 깨끗하지 않은 옛 몸을 받지 않으리
라.’ 하시니 이것이 사품(捨品)의 구족이니라.

第二觀捨一切貪着, 行一切平等空捨. 無緣而觀諸法空際一
相.²⁴⁾ ‘我觀一切十方地土, 皆吾昔身所用故土, 四大海水, 是
吾故水, 一切劫火, 是吾昔身故所用火, 一切風輪, 是吾故所
用氣, 我今入此地中, 法身滿足. 捨吾故身, 畢竟不受四大分段
不淨故身.’ 是爲捨品具足.

■ 거꾸로 두 번째의 버리는 선근[捨善根]을 관하는 것이다. 처음은 충히
표시하여 말하기를 ‘두 번째는 일체 탐착하는 장애를 버려 평등한 공을 행

24) 卍60 p.394cb16에는 ‘一切相’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34b8에는 ‘一相’으로 되어 있다.

하는 사(捨)를 관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에는 행상을 밝히겠다. '반연함이 없는 행(行)으로써 법의 공한 경계가 하나의 진여상인줄 관하는 것'은 또한 세속의 평등을 관찰하는 문(門)이니 말하자면 땅을 관하기를 '나의 옛 몸이 쓰던 옛 흙'이라고 한 것 등은 사대(四大)가 모두 그렇다는 말이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이구지(離垢地)²⁵⁾이다. '마침내 깨끗하지 않은 몸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²⁶⁾에서 “초지보살(初地菩薩)은 오욕(五欲) 가운데서 번뇌로 근심하나 상지(上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 것과 같다. 비롯함이 없는 음애(婬愛)로 수태(受胎)하여 몸이 태어났다가 버려진 시신으로 대지를 이루는 것 등이다. 이제는 오욕의 잘못을 짓지 않으므로 다시 태(胎)로 태어나는 몸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述曰，逆次第第二，觀捨善根。初總標云，第二觀彼捨一切貪障，而行平等空之捨也。

次明行相。以無緣行，觀法空際一眞如相，又觀世俗平等之門，

25) 이구지(離垢地, 𑖦vimalā-bhūmih)는 보살 수행위의 10지 가운데, 제2위(位)로 수혹(修惑)을 끊고 범계(犯戒)의 더러움을 제거하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지위.

26)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2권(大26 p.30a21) 「정지품(淨地品)」 제4에 “菩薩在初地，勢力未足，善根未厚，修習善法未久故，眼等諸根，猶隨諸塵心，未調伏。是故諸煩惱，猶能爲患，如人勢力未足，逆水則難。又此地中，魔及魔民，多爲障礙故，以方便力，勤行精進。是故此地，名爲難治。”라 하여 초지(初地)의 상태를 “번뇌가 오히려 근심이 된다.”고 했으나, 여기 인용된 이지(二地)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구지(離垢地)를 해석하면서(大26 p.95a15) “一離垢者，地名也。二離垢者，於此地中，離十不善道，罪業之垢。三離垢者，離貪欲瞋恚等諸煩惱垢故，名爲離垢。”라 하여 탐욕(貪欲) 등 모든 번뇌(煩惱)에서 벗어난 단계라고 한다. 『법망경고적기』에서는 위 초지(初地)에 관한 해석과 이지(二地)의 세 번째 해설을 뜻만 취한 것 같다.

謂觀地土，吾所已用舊故土等，四大皆然。我今入此地者，離垢地也。畢竟不受不淨身者，如十住論，“初地菩薩，於五欲中，煩惱作患，上地不然。”無始姪愛，受胎生身，所棄尸身，成大地等。今於五欲不作過患，更不應受胎生身故。

□ 세 번째는 차례로 교화할 일체중생에게 인천의 즐거움과 십지의 즐거움과 십악의 두려움을 여원 즐거움[離十惡畏樂]과 묘화삼매를 얻은 즐거움[得妙華三昧樂]에서 부처님의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겠다고 관하나니, 이렇게 관하는 것은 자품(慈品)을 구축한 것이니라. 보살은 그 때 이 지(地) 가운데 머무르며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탐욕도 없어지고 성냄도 없어져서 평등한 하나의 진리인 지(智)로 일체행의 근본에 들어가 부처님의 일체세계에 노닐면서 한량없는 법신을 변화시켜 나타내느니라.

第三次觀於所化一切衆生，與人天樂，十地樂，離十惡畏樂，得妙華三昧樂，乃至佛樂，如是觀者，慈品具足。菩薩爾時住是地中，無癡無貪無瞋，入平等一諦智，一切行本，遊佛一切世界，現化無量法身。

■ 거꾸로 세 번째 자선근(慈善根)을 관하는 것이다. ‘묘화삼매(妙華三昧)’라는 것은 일승의 삼매이니 총괄적으로 인(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즐거움은[佛樂]’은 과[果]이다.

뒤에 결론 지어 말하기를 ‘어리석음도 없어지고 탐욕도 없어지고 성냄도 없어진다.’고 한 것은 차례대로 앞의 혜품(慧品)과 사품(捨品)과 자품(慈品)의 선근이 이루어졌음을 결론지은 것이다. 평등지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보살행의 근본이다. ‘한량없는 법신을 변화시켜 나타낸다.’는 것은 물 가운데 달과 같아서 법신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述曰, 逆次第三, 觀慈善根. 妙華三昧者, 一乘三昧, 總攝因也. 佛樂, 果也. 後結成言無癡無貪無瞋, 如次結前慧捨慈品善根成也. 入平等智, 諸菩薩行本也. 現化無量法身者, 如水中月, 法身影故.

□ 「일체중생천화품(一切衆生天華品)」에서 설한 것과 같느니라.

如一切衆生天華品說.

■ 세 번째 자세하게 설명한 품을 지적한 것이니 다른 지(地)도 이에 준한다.

述曰, 第三指廣, 餘地準此.

3) 체성광명지 體性光明地

□ 불자들이여! 보리살타의 광명을 발하는 체성지[光明體性地]니라. 삼매해료지(三昧解了智)로써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법문과 십이법품(十二法品)의 명미구(名味句)를 아나니, 중송(重誦)과 기별(記別, 授記)과 직어(直語)와 계(偈)와 청하지 않아도 설하는 것[不請說]과 율계(律戒)와 비유(譬喩)와 불계(佛界)와 석사(昔事)와 방정(方正)과 미증유(未曾有)와 담설(談說)이다. 이것은 법의 체성으로서 이름은 하나이지만 뜻은 다르나니라.

若佛子! 菩提薩埵光明體性地. 以三昧解了智, 知三世一切佛法門, 十二法品名味句, 重誦, 記別, 直語, 偈, 不請說, 律戒, 譬喩, 佛界, 昔事, 方正, 未曾有, 談說. 是法體性, 名一切義別.

■ 제삼지(第三地)를 ‘광명(光明)’이라고 부른 것은 ‘발광지(發光地)’이기 때문이다.

다음 행상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자리와 이타이다. 처음의 것에 또 두 가지가 있으니 능전(能詮)을 아는 것과 소전(所詮)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는 처음의 것이다. 삼매해료지(三昧解了智)란 수승한 정(定)에 의하여 세 가지 지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란 십이분교의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²⁷⁾이니 능전(能詮)을 두루 섭하기 때문이다. ‘중송(重誦)’이란 응송(應訟)인데 이것은 불요의(不了義)로서 기별(記別)에 대응 하므로 앞에 두 가지를 세워 두었다. ‘직어(直語)’란 경전으로 이것은 다만 장항(長行, 산문체의 경문)일 뿐이니 풍송(諷誦)과 계(偈)에 대응되므로 차례대로 두 가지를 세웠다. ‘청하지 않아도 설한다[不請說]’는 것은 스스로 설[無問自說, 제자들이 묻지 않아도 부처님 스스로 설하심]하는 것이다. ‘계율’이란 인연이며, ‘불계(佛界)’란 본생(本生)이요, ‘석사(昔事)’는 본사(本事)이며, ‘방정(方正)’이란 바르고 넓은 것[方廣]이고, ‘미증유(未曾有)’란 희귀한 법[希法]이며, ‘담설(談說)’이란 논의(論議)이다.

‘이름은 하나’라는 것은 한 종류의 명구문(名句文)이기 때문이며, ‘뜻이 다르다.’는 것은 펼쳐면 십이분교가 되기 때문이다.

述曰, 第三地名光明者, 發光地故. 次行相中有二, 自利故利他

27) 유부(有部)와 유식설(唯識說)에서 심불상응법(心不相應法)에 해당하는 명(名, nāma)·구(句, pada), ·문(文, vyañjana)으로서 이 세 가지가 각각 두 개 이상 모이게 되면 덩어리라는 뜻의 신(身, kāya)을 붙여서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이라고 한다. 음성의 짜임새에 있어서 임시로 세운 것으로 명(名)은 주어, 구(句)는 주어와 술어, 문(文)은 음소를 말하며, 신(身)은 모임이다. 또 유부(有部)에는 명(名)·구(句)·문(文)의 차제를 실유(實有)라고 주장하나 경량부나 유식설에서는 가유(假有)라고 한다.

故. 初亦有二, 知能詮故知所詮故. 此初也. 三昧解了智者, 以依勝定發三慧故. 三世佛法門者, 十二分教, 名句文身, 徧攝能詮故. 重誦者應頌, 此不了義, 對記別故, 在前立二. 直語者契經, 此唯長行, 對諷頌偈, 故次立二. 不請說者自說. 戒律者因緣, 佛界者本生, 昔事者本事, 方正者方廣, 未曾有者希法, 談說者論議. 言名一者, 一種名句文故, 義別者, 開爲十二分故.

□ 이 명미구(名味句) 가운데에서 모든 유위법을 설하리라. 분분(分分, 分段)하게 생을 받되 처음 식(識)이 태(胎)에 들어가면 사대(四大)가 색(色)과 심(心)을 자라나게 한다. 명색(名色)과 육입(六入)이 근(根) 가운데 머물러서 실제로 알아차림을 일으키나 아직 괴로움과 즐거움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촉식이라 이름하며, 또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아차리는 식(識)을 삼수(三受, 樂과 고통과 不苦不樂)²⁸⁾라고 부르며 잇달아 알아차리고 집착하여 느끼는 것이 끝이 없다. 욕(欲)과 아(我)와 견(見)과 계(戒)와 취(取)와 선악(善惡)의 유(有)를 쓰므로 식(識)의 처음을 생(生)이라 부르며 식(識)의 마침을 사(死)라고 부른다. 이 십품(十品)은 현재의 고(苦)와 인연(因緣)과 과(果)라고 관(觀)하느니라.

是名味句中, 說一切有爲法. 分分受生, 初入識胎, 四大增長色心. 名六住於根中, 起實覺, 未別苦樂名觸識, 又覺苦樂識名三受, 連連覺著受無窮. 以欲我見戒取善惡有, 識初名生, 識終名死. 是十品, 現在苦因緣果觀.

28) 삼수(三受)는 락(樂, sukha)과 고(苦, duḥkha)와 불고불락(不苦不樂, aduḥkha-asukha)의 세 가지 감각이다. 곧 쾌락[樂受]과 불쾌감[苦受]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不苦不樂]이다. 삼수(三受)는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大31 p.60b21), 『성유식론(成唯識論)』 권5(大31 p.27a25-28)에 보인다.

■ 두 번째는 소견(所詮)을 아는 것이다. ‘분분(分分)하게 생(生)을 받는다.’는 것은 분단생(分段生)이다. ‘처음 식(識)이 태(胎)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식지(識支)의 지위이다. ‘사대(四大)가 색(色)과 심(心)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명색지(名色支)이다. ‘명색(名色)과 육입(六入)이 근(根) 가운데 머물러서 실제로 알아차림을 일으킨다.’는 것은 능히 식을 낼만한 자리이므로 육처지(六處支)라고 한다. ‘아직 괴로움과 즐거움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촉식이라 이른다’는 것은 촉지(觸支)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아차리는 식(識)을 삼수(三受)라고 이른다’는 것은 수지(受支)이다. ‘잇달아서 알아차리고 집착하여 느끼는 것이 끝없다.’는 것은 애지(愛支)이니 항상 애욕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욕(欲)’은 욕취(欲取)²⁹⁾이고, ‘아(我)’는 아어취(我語取)이다. ‘견(見)’은 견취(見取)이고 ‘계(戒)’는 계금취(戒禁取)이니 합하여 취지(取支)라고 한다. ‘선악의 유’란 유지(有支)이며 ‘식의 처음을 생이라 부름’은 생지(生支)이며 ‘식의 마침을 사(死)라고 부름’은 사지(死支)이다.

‘이 십품(十品)’이란 무명지(無明支)와 행지(行支)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苦)와 인연과 과(果)라고 관(觀)’한다는 것은 식(識) 등 오지(五支)는 ‘현재의 고(苦)’라고 이름하며, 애(愛)와 취(取)와 유(有)의 세

29) 욕취(欲取)는 사취(四取)의 하나. 취(取, upāpāna)는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 외계의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사취(四取)란 ① 욕취(欲取, Ṭkāmaupāpāna),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의 다섯 가지 대상에 집착하는 애욕(愛欲). ② 견취(見取, Ṭdrṣṭiupāpāna), 오온(五蘊)의 법(法)에 대해서 아견(我見)·변견(邊見) 등을 망집(妄執)으로 하는 그릇된 견해. ③ 계금취(戒禁取, Ṭśīla-vrata upāpāna), 그릇된 계(戒)를 수행하는 것. ④ 아어취(我語取, Ṭātma-vāda upāpāna), 아견(我見)·아만(我慢)에 집착하는 것이다. 『구사론(俱舍論)』에서는 백팔번뇌를 사취(四取)로 나눈다. 『연기경(緣起經)』(大2 p.547c), 『집이문론(集二門論)』 권8(大26 p.399c), 『구사론(俱舍論)』 권20(大29 p.107b24)에 보인다.

가지는 ‘현재의 인연’이라고 이름하고, 생(生)과 노사(老死)의 두 가지는 ‘인연의 과(果)’라고 이름하며, 능히 저들을 잘 관찰하므로 ‘관(觀)한다.’고 한다.

述曰, 第二知所詮也. 分分受生者, 分段生也. 初入識於胎, 卽識支位也. 四大增長色心者, 名色支也. 名六住於根中, 起實覺者, 堪發識位, 爲六處支故. 未別苦樂, 名觸識者, 觸支也. 覺苦樂識, 名三受者, 受支也, 連連覺著, 受無窮者愛支也, 恒著愛故. 欲謂欲取, 我謂我語取. 見卽見取, 戒卽戒禁取, 合取支也. 善惡有者, 有支也, 識初名生, 生支也, 識終名死, 死支也. 言是十品者, 除無明行支故. 現在苦因緣果觀者, 識等五支, 名現在苦, 愛取有三, 名現在因緣, 生老死二, 名因緣之果, 能觀察彼, 名之爲觀.

□ 이 행상을 중도(中道)로써 내가 오래 전에 이미 벗어났으므로 자체의 성품이 없느니라. 신통총지변재(光明神通總持辯才)에 들어가 마음과 마음으로 공(空)을 행하면서 시방 불토 가운데 겹의 변화를 나타내며, 더욱 백 겹 천겹토록 변화하여 국토 가운데서 신통을 기르고 부처님 앞에 예경 드리며 법의 말씀을 물어서 받았느니라. 다시 육도에 몸을 나타내어 한 음성 속에서 한량없는 법품(法品)을 설하였나니, 중생이 각기 자신[自分]의 몫이 있어 마음에 하고자 하는 법으로 고(苦)와 공(空)과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한결같은 진리의 소리를 듣지만, 국토가 같지 않으므로 몸과 마음의 교화가 다르나니라.

是行相中道, 我久已離故, 無自體性. 入光明神通總持辯才, 心心行空, 而十方佛土中現劫化, 轉化百劫千劫, 國土中養神通, 禮敬佛前, 諮受法言. 復現六道身, 一音中說無量法品. 而衆生

各自分分，得聞心所欲之法，苦空無常無我，一諦之音，國土不同，身心別化。

■ 두 번째는 이타(利他)이다. 보살은 ‘이 연으로 생겨나는 행상에 대해 중도지(中道智)를 써서, 내가 오래 전에 이미 유무의 집착을 벗어났으므로 자체의 성품이 없다.’고 생각한다. 증득할 바[所證]를 알고 나서 또한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총지변(總持辯)에 들어가 부처님을 섬기고 법을 받는다. ‘육도에 몸을 나타내어’ 근기에 따라 응하여 법을 설한다고 한 것이다. ‘겁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은 『유마경(維摩經)』에서 “하루를 펴서 칠대 겁(七劫)을 삼는다.”고 한 것 등과 같다. 점차로 변화하기 때문에 ‘더욱 백겁 천겁토록 변화한다.’고 한 것이다. ‘국토가 같지 않으므로 몸과 마음의 교화가 다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욕망을 따라서 삼업을 교화함이 다르다는 것이다.

述曰，第二利他也。菩薩念言，‘於是緣生行相，以中道智，我久已離有無著故，無自體性。’知所證已，亦爲利他，入總持辯，事佛受法。現身六道，隨應說法。現劫化者，如維摩經，“一日舒爲七劫。”等。展轉化故，言轉化百千劫。國土不同，身心別化者，隨其國欲，三業別化。

□ 이는 「묘화광명지(妙華光明地)」 가운데에서 간략하게 한 털끝만큼만 열어서 설명한 것이다. 「법품(法品)」과 「해관법문천삼매품(解觀法門千三昧品)」에서 설한 것과 같아니라.

是妙華光明地中，略開一毛頭許。如法品 解觀法門千三昧品說。

■ 세 번째는 간략히 해두고 자세하게 한 것을 지적하였으니, 저 두 품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하였기 때문이다.

述曰, 第三存略指廣, 如彼二品, 已廣說故.

4) 체성이염지 體性爾焰地

□ 불자들이여! 보리살타의 체성지(體性地) 속에서 진을 아는 것[爾眞]과 속을 아는 것[焰俗]이 단멸하지 않고 항상하지도 않나니, 생(生)에 상즉(相卽)하고 주(住)에 상즉하며 멸(滅)에 상즉하여 일세(一世), 일시(一時), 일유(一有)에 중자가 각기 다르나니라. 나타난 것이 다르므로 인연의 중도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범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 부처의 세계와 범부의 세계 낱낱을 이룸하여 세제(世諦)라고 하는 것이다. 저 지도(智道)로 관(觀)하면 하나도 없고 둘도 없으니, 그윽한 도의 선정 종류가 이른바 제불의 심행(心行)이니라. 처음 깨달음의 정인(定因)을 신각(信覺)과 사각(思覺)과 정각(定覺)과 상각(上覺)과 염각(念覺)과 혜각(慧覺)과 관각(觀覺)과 의각(猗覺)과 낙각(樂覺)과 사각(捨覺)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방편도로 마음과 마음이 정과(定果)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선정 가운데 머물러 밝고 밝게 법을 보고 공을 행하게 된다. 만약 염정(念定)을 일으켜서 중생의 심정에 들어가면 사랑[愛]으로 도(道)를 따르므로 도법으로 중생 교화함을 법락인(法樂忍)과 주인(住忍)과 증인(證忍)과 적멸인(寂滅忍)이라 하느니라.

若佛子! 菩提薩埵體性地中, 爾眞焰俗, 不斷不常, 卽生卽住卽滅, 一世一時一有, 種異異. 現異故因緣中道, 非一非二, 非善非惡, 非凡非佛故. 佛界凡界一一, 是名爲世諦. 其智道觀,

無一無二, 玄道定品, 所謂諸佛心行, 初覺定因, 信覺思覺, 靜覺上覺, 念覺慧覺, 觀覺猗覺, 樂覺捨覺. 是品品方便道, 心心入定果, 是人住定中, 燄燄見法行空. 若起念定, 入生心定, 生愛順道, 道法化生, 名法樂忍住忍, 證忍寂滅忍.

■ 제사지(第四地)의 행상(行相)에 두 가지가 있다. 자분행(自分行)³⁰⁾과 승진행(勝進行)이니 이 부분은 첫 번째[初, 自分行]이다.

범어(梵語)로 ‘이염(爾焰)’은 알아야 할 대상[所知]의 뜻이다. 여기에서는 이제(二諦)에 배대하므로 ‘진(眞)을 아는 것[爾眞]과 속(俗)을 아는 것[焰俗]’이라고 한다. 증감에서 벗어났으므로 ‘단멸하지 않고 항상하지 않다’고 하며 무량겁이 곧 일념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생(生)과 주(住)와 멸(滅)³¹⁾의 일세(一世)와 일시(一時)와 일유(一有)’이겠는가! ‘일유(一有)’는 일묘유(一妙有)이다. 비록 참된 일미[一味]이나 인연에 섞이지 않으므로 ‘중자가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니 인연이 다르면 과도 또한 같지 않으므로 ‘나타난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모습이 없으나 가명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인연의 중도’라고

30) 자분행(自分行)은 자기 자신이 실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1) 생주이멸(生住異滅)은 유부(有部)의 사상(四相)으로 생(生)·주(住)·이(異)·멸(滅)의 네 가지를 말한다. 일체의 유위법은 모두 무상(無常)한 존재로서, 미래의 위(位)로부터 인연의 힘으로 현재의 위(位)에 생겨나지만 그 태어난 다음 순간에 멸하여 과거의 위(位)로 사라져 버린다. 이와 같이 유위법(有爲法)은 무상하며, 미래·현재·과거의 삼세(三世)로 흘러간다. 그 때 미래의 위(位)에서 현재의 위(位)로 태어나는 것을 생(生)이라 하고 생상(生相)이라 한다. 이와 같이 유위법으로서 현재의 위(位)에서 머물게 하는 것을 주(住) 또는 주상(住相), 현재의 자리에서 변이(變異)케 하는 것을 이(異) 또는 이상(異相), 현재의 위(位)가 과거의 위로 멸하는 것을 멸(滅) 혹은 멸상(滅相)이라고 한다. 이 사상(四相)은 자체가 유위법이므로 이것을 생주이멸 시키는 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며, 이미 정해진 성품이 없으므로 ‘중도’라고 부른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라고 한 등은 문장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시로 모인 상을 따라 부처와 범부 등이 낱알이 차별되므로 ‘세제(世諦)’라고 하며 승의(勝義)의 ‘지도(智道)로 관(觀)하면 하나도 없고 둘도 없다’ 고 하였으니 어떤 법으로 저 진(眞)을 관하겠는가? 그러므로 총히 들어서 ‘그윽한 도의 선정 품목[定品]’을 말한 것이다. ‘현(玄)’은 반연할 바이고 ‘도(道)’는 혜(慧)이며 ‘정(定)’은 의지하는 바이다.

‘부처님의 심행’이란 과를 들어서 인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 깨달음의 정인(定因)’이란 처음으로 공의 이치를 깨우침에 정(定)이 곧 인(因)이니, 깨달음의 인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품(品)이라고 부르는가? 열 가지가 있으니, 처음 세 가지는 차례대로 문사수(聞思修)³²⁾의 혜이고, 다음은 칠증위(七證位)의 칠각지(七覺支)³³⁾이다. ‘상각(上覺)’은 정진(精進)이니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요, ‘관각(觀覺)’은 정(定)이니 과(果)를 따라 이름하기 때문이다. ‘의각(猗覺)’은 편안함[安]이니 옛 번역에서는 ‘의(倚)’라고 했으며 낙각(樂覺)은 기쁨[喜]을 말한다.

32) 문사수(聞思修, ㉔ śruta-cintā-bhāvanā, śruta-prayoga, śrutādi, ㉕ suta-cintā-bhāvanā)는 교법을 듣고[聞] 그 이치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思] 실제로 닦아 익히는 것[修]을 뜻한다. 또는 그 문·사·수로 얻어진 지혜를 가리킨다. 문사수란 무루(無漏)의 지혜를 얻기 위한 기본 방법이다. 즉 수행자는 경전에서 전래되는 교설을 듣고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계기로 하여, 다시 교설의 의미와 이치를 사유하게 되고, 나아가 실제로 명상 수행을 한다. 이것을 통해 진리에 대한 판단력이 점차로 고양됨과 동시에 불선(不善)과 탐욕을 제거하고 무루의 지혜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문사수에 의해 얻어진 지혜의 본성은 유루(有漏)의 세속지이지만 이는 무루의 지혜를 낳는 근본이기도하다.

33) 칠각지(七覺支, ㉖ sapta-body-aṅgāni)는 37도품 가운데 제6의 행법으로 각(覺)은 깨달음의 지혜를 의미한다. 니까야(Nikāya)에 기술되고 있는 ① 념(念) ② 택법(擇法) ③ 정진(精進) ④ 희(喜) ⑤ 경안(輕安) ⑥ 정(定) ⑦ 사(捨)이다. 이 7종의 법이 깨달음의 지혜를 도와주므로 각지(覺支)라고 한다.

사지보살(四地菩薩)이 점차로 장애를 끊을 때 방편도의 힘으로 생각마다 선정의 결과[定果]인 깨달음의 해에 들어간다. 이 사람이 정(定)에 머물러서 해의 불꽃을 일으켜 세속법을 보고 승의공(勝義空)을 행한다. ‘만약 염정(念定)을 일으켜서’라고 하는 것은 정(定)이 친인(親因)이나 염(念)을 아울러 든 것이다. ‘일으킨다는 것’은 출생하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 법을 반연하고, 공을 반연하는 정을 내는 것이니, 곧 유정이 마음에 정(定)을 반연하여 자애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내어 도법을 따라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미 법락(法樂)을 사랑하면 ‘법락인(法樂忍)’이라 부르며 덕을 갖추어 물러나지 않으면 ‘주인(住忍)’이라고 하고, 진(眞)에 들어가면 증인(證忍)이라 하며, 허망에서 벗어나면 ‘적멸인(寂滅忍)’이라 부르니 그 이름이 다를 뿐이다.

述曰, 第四地, 行相中有二. 自分行故, 勝進行故, 此初也. 梵云爾焰, 卽所知義. 今配二諦, 故言爾眞燄俗. 離增減故, 言不斷不常, 如無量劫, 卽是一念, 況生住滅, 一世一時一有! 一有者一妙有也. 雖眞一味, 因緣不雜, 故言種異異, 如因緣別, 果亦不同, 故言現異. 旣雖無相, 不壞假名, 故言因緣中道也, 旣無定性, 名中道故. 非一二等, 如文可知. 然隨假相, 佛與凡等, 一一差別, 名爲世諦, 然勝義智道觀, 彼無一二, 如何等法, 觀彼眞耶? 故總舉言, 玄道定品也. 玄卽所緣, 道謂慧也, 定謂所依. 言佛心行者, 舉果顯因. 初覺定因者, 初悟空理, 定卽因也, 覺之因故. 何等名品? 謂有十種, 初三如次, 聞思修慧, 次七證位, 七覺支也. 上覺精進, 以上昇故, 觀覺定也, 從果名故. 猗³⁴⁾覺安也, 舊翻倚故, 樂謂喜也. 四地菩薩, 漸斷障

34) 卍60 p.397b9에는 ‘猗’로 되어 있으나 韓3 p.436a9에는 ‘猗’로 되어 있다.

時，方便道力，念念進入定果覺慧。是人住定，起慧焰故，見世俗法，行勝義空。若起念定者，定之親因，并舉念也。起者出也，出前緣法，緣空定者，卽入有情，緣心定中，生慈心愛，以順道法化生。旣愛法樂，名法樂忍，持德不退，名爲住忍，入眞名爲證忍，出妄名寂滅忍，名之差別也。

□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는 입광광화삼매(入光光華三昧) 속에서 무량불을 나투시고 손으로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한 목소리로 법을 설하신다.

백 천 가지를 일으키나 정(定)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정(定)의 맛에 머물러 정을 즐기며 정에 집착하고 정을 탐하면서, 일겁 천겁 가운데 정에 머무르며 부처님께서 연화좌에서 온갖 법문 설하시는 것을 보나니, 이 사람이 공양을 올리고 법을 들으며, 일겁에 이르도록 정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 때 모든 부처님께서 광명 속에서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정품(定品)의 출상(出相)과 진상(進相)과 거향상[去向相]을 일으키는 연고로, 없어지지 않으며, 물러나지 않으며, 떨어지지 않으며, 머무르지 않으며, 정삼매법(頂三昧法)에서 최상의 낙인[上樂忍]으로 길이 다하여 나머지가 없다.

곧 모든 불토에 들어가 한량없는 공덕품들을 수행하니 행마다 모두 광명이다. 좋은 방편[善權方便]에 들어가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능히 부처님의 체성인 상락아정을 볼 수 있게 하느니라.

이 사람은 이 땅 안에 태어나 머무르면서 교화를 행하고 법문하는 것이 점점 깊고 미묘해지는 공화관지(空華觀智)와 체성중도(體性中道)에 들어가 모든 법문품을 만족하는 것이 마치 금강과도 같나니 위의 「일월도품(日月道品)」에서 이미 이 뜻을 밝혔느니라.

故諸佛於入光光華三昧中，現無量佛，以手摩頂，一音說法。百千起發而不出 定，住定味樂定，著定貪定，一劫千劫中住

定, 見佛蓮華座說百法門, 是人供養聽法, 一劫住定. 時諸佛光中摩頂, 發起定品出相進相去向相故, 不沒不退, 不墮不住, 頂三昧法, 上樂忍, 永盡無餘. 卽入一切佛土中, 修行無量功德品, 行行皆光明. 入善權方便, 教化³⁵⁾一切衆生, 能使得見佛體性常樂我淨. 是人生住是地中, 行化法門, 漸漸深妙, 空華觀智, 入體性中道, 一切法門品滿足, 猶如金剛, 上日月道品, 已明斯義.

■ 두 번째 승진행(勝進行)이니, 저 보살이 들어간 정(定) 속에 모든 부처님이 그림자를 나타내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백 천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정진법문(精進法門)이다. ‘정에 집착한다.’는 것은 정에 머무름을 해석한 것이며 ‘정을 탐(貪)한다.’는 것은 정의 맛을 즐기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선법(善法)의 욕구로서 탐욕의 번뇌가 아니니 이미 정애(定愛)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일으킨다는 것’은 깨우쳐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覺發], 저 정[定品]의 삼종상(三種相)을 깨우치기 때문이다. 보살이 선정의 힘으로 삼유(三有)³⁶⁾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이름하여 ‘출상(出相)’이라 한다.

述曰, 第二勝進行, 於彼菩薩所入定中, 諸佛現影而起發故. 百千起發者, 精進法門也. 著定者, 釋住定也, 貪定者, 釋味樂定也. 然善法欲, 非貪煩惱, 已斷定愛故. 發起者, 覺發也, 警彼定品三種相故. 菩薩定力超三有故, 名爲出相.

35) 卍60 p.398b4에는 ‘化敎’로 되어 있으나 韓3 p.436b3에는 ‘敎化’로 되어 있다.

36) 1권 26) 주(註) 참조.

■ 이승의 적멸을 뛰어넘는 것을 ‘진상(進相)’이라 하고, 대승의 과로 향하게 하는 것을 ‘거향상(去向相)’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출상을 경각케 하였으므로 보살이 생사에 ‘빠지지 않고’, 열반에서 ‘몰려나지 않으며’, 진상(進相)을 경각케 하였으므로 이승에 ‘떨어지지 않으며’, 거향상(去向相)을 경각케 하였으므로 인위(因位)에 ‘머무르지 않나니’라고 한 것은, 이는 정품(定品)의 공덕이 만족해진 것이다. 정수리를 어루만져 일으킴으로 ‘정삼매법(頂三昧法)’이라 하고 ‘몰등(沒等)’의 하열한 것에서 벗어난 것을 ‘최상의 낙인[上樂忍]’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공덕이 원만하게 갖추어졌으므로 ‘길이 다하도록 나머지가 없다’고 한다.

超二乘滅，名爲進相，向大乘果，名去向相。佛光覺發出相之故，菩薩不沒生死，不退涅槃，覺發進相之故，不墮二乘，覺發去向相故，不住因位，是則定品功德滿足。謂摩頂發起，名頂三昧法，離沒等劣，名上樂忍。功德圓備，名永盡無餘。

■ ‘한량없는 공덕품[無量功德品]’은 복(福)이며, ‘행과 행이 모두 광명’인 것은 지(智)이다. ‘부처님의 체성(體性)인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해탈하게 하는 것이다. 나머지 문장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일월도품(上日月道品)]’ 아래는 다른 품(品)을 가리킨다.

無量功德品，福也，行行皆光明，智也。見佛體性常樂我淨者，令心解故。餘文可解。上日月下，指餘品也。

5) 체성혜조지 體性慧照地

□ 불자들이여! 보리살타의 지혜로 비추는 체성지[慧照體性智]니라. 법에는 열 가지의 힘이 나게 하는 품[力生品]이 있어 일체공덕의 행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하나의 지혜 방편으로 선악의 두 가지 업의 각각의 행을 아는 처력품(處力品), 선을 짓고 악을 짓는 업을 아는 지력품[業智力品], 일체 욕구와 욕도에 나기를 구하는 과욕력품(果欲力品), 욕도의 성품이 같지 않음을 분별하여 아는 성력품(性力品), 일체 선악의 근기가 낱낱이 같지 않음을 아는 근력품(根力品), 샅된 정[邪定]과 바른 정[正定]이 일정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니 이것을 정력품(定力品)이라 한다. 일체 인과는 이인을 타고 이 과에 올라 과처(果處)에 이르러 인의 도에 오르는 것을 아는 것이니 이것이 도력품(道力品)이다.

오안(五眼)³⁷⁾으로 일체 법을 알고 일체 생 받는 것을 보는 까닭에 천안력품(天眼力品)이라하며 백겁의 일을 낱낱이 아는 것은 속세력품(宿世力品)이라 하고, 일체 생(生)에서 번뇌가 사라짐과 일체 수(受)에서 무명이 사라짐을 아는 것을 해탈력품(解脫力品)이라고 한다. 이 십력품(十力品)³⁸⁾

37) 오안(五眼)은 다섯 가지 안력(眼力)이다. ① 육안(肉眼)은 육신(肉身)에 있는 눈.

② 천안(天眼)은 색계(色界) 천인(天人)의 눈으로 중생의 미래생사를 아는 능력이 있는 눈. ③ 혜안(慧眼)은 이승인(二乘人)의 안(眼)으로서 진공무상(眞空無相), 곧 일체의 현상은 공(空)에 있어서 결정된 특질이 없다고 꿰뚫어 보는 눈.

④ 법안(法眼)은 보살이 일체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일체의 법문(法門)을 조건(照見)하는 눈. ⑤ 불안(佛眼)은 앞의 네 가지 눈을 전부 갖춘 눈이다. 삼론종(三論宗)의 길장(吉藏)은 ① 육안(肉眼)은 인간(人間) ② 천안(天眼)은 천신(天神)

③ 혜안(慧眼)은 성문(聲聞), 연각(緣覺) ④ 법안(法眼)은 보살(菩薩) ⑤ 불안(佛眼)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

38) 위에서 설명한 일체공덕(一切功德)을 내게 하는 열 가지의 힘을 말하니 처력품(處力品), 업지력품(業智力品), 과욕력품(果欲力品), 성력품(性力品), 근력품(根力

의 지(智)로 스스로 닦은 인과를 알며, 또한 일체 중생의 인과를 알아 분별하느니라.

若佛子! 菩提薩埵慧照體性地. 法有十種力生品, 起一切功德行. 以一慧方便, 知善惡二業別行, 處力品, 善作惡作業, 智力品, 一切欲求願六道生生, 果欲力品, 六道性分別不同, 性力品, 一切善惡根一一不同, 根力品, 邪定正定不定, 是名定力品. 一切因果, 乘是因, 乘是果, 至果處乘因道, 是道力品. 五眼知一切法, 見一切受生故, 天眼力品, 百劫事一一知, 宿世力品, 於一切生煩惱滅, 一切受無明滅, 解脫力品. 是十力品智, 知自修因果, 亦知一切衆生因果分別.

■ 제오지(第五地)의 문장을 시작하는 부분을 ‘혜조(慧照)’라고 말한 것은 처음부터 두 가지로 비추기 때문이다. 지행(地行)에 두 가지가 있으니 자분(自分)과 승진(勝進)이다. 처음에 또한 둘이 있으니 지력(智力)과神通력(神通力)이니 이 부분은 첫째이다.

총히 표해서 ‘열 가지 힘이 나게 하는 품[十種力生品]’이라 한 것은 일체 공덕을 일으키는 행이기 때문이다.

① ‘하나의 지혜’로부터 ‘처력품(處力品)’까지는 이치에 맞음과 맞지 않음을 아는 지혜의 힘[處非處智力]이다. ② 스스로 업을 아는 지력[自業智力]이며, ③ 갖가지를 훌륭하게 아는 지혜의 힘[種種勝解智力]이니 능히 육도에서 행해지는 의지의 수승하고 열등함을 알기 때문이다. 육도에 태어나고 의지대로 하고자 함을 이룸하여 과욕(果欲)이라 한다. ④ 갖가지

品), 정력품(定力品), 도력품(道力品), 천안력품(天眼力品), 숙세력품(宿世力品), 해탈력품(解脫力品)이다.

세계를 아는 지혜의 힘[種種界智力]이니 종성을 알기 때문이다. ⑤근기의 상하를 아는 지혜의 힘[根上下智力]이며 ⑥선정과 해탈을 아는 지혜의 힘[靜慮解脫智力]이다. 능히 범부와 성인의 선정의 차별을 알기 때문이니 올바른 선정이란 성인(聖人)의 정(定)이다. ⑦온갖 취의 행을 아는 지혜의 힘[徧趣行智力]이니 능히 과에 나아가는 방편을 알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인에 의지하여 반드시 과처(果處)에 이르는 줄 안다. 이 과에 오르려면 인의 도에 올라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대법(對法, 俱舍論)』에서 “대소 승교의 경계를 깨달아 들어간다.”고 한 것과 같다. ⑧죽고 사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死生智力]이다. ‘오안(五眼)으로 일체법을 안다.’는 것은 유사한 총수(總數)를 든 것이니 해안과 법안 등으로 모든 법을 알고 천안으로 모든 생 받음을 보기 때문이다. ⑨과거의 일을 기억하여 아는 지혜의 힘[宿住隨念智力]이며 ⑩번뇌의 다함을 아는 지혜의 힘[漏盡智力]이니, ‘일체수(受)’란 순현수(順現受)³⁹⁾ 등이니 생을 윤회하게 하는 번뇌가 사라지면 업을 일으키는 무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述曰, 第五地, 舉章云慧照者, 始雙照故. 地行有二, 自分故勝進故. 初亦有二, 智故通故, 此初也. 總標云十力生品者, 起一切功德行故. 一以一慧至處力品者, 處非處智力也. 二自業智力, 三種種勝解智力, 能知六道意樂勝劣故. 現行意樂, 名爲果欲. 四種種界智力, 知種姓故. 五根上下智力, 六靜慮解脫智力. 能知凡聖定差別故, 正定聖也. 七徧趣行智力, 能知趣果方便故. 謂知乘是因, 必至果處. 及乘是果, 由乘因道故. 如對法云, “悟入大小乘教所攝境故.” 八死生智力. 言五眼知一切法

39) 순현수업(順現受業)의 줄인 말이다. 현재 세상에서 업을 짓고 현재 세상에서 그 과보를 받는 업으로 순생(順生)과 순후(順後)와 함께 삼종 과보라고 말한다.

者，類舉總數，慧法眼等，知一切法，以天眼見諸受生故。九宿住隨念智力，十漏盡智力，一切受者，順現受等，潤生煩惱滅，發業無明滅故。

□ 그러나 신(身)과 심(心)과 구(口)를 쓰는 것이 달라 청정한 국토[淨國土]를 더러운 국토[惡國土]로 만들고 더러운 국토를 미묘하고 즐거운 국토[妙樂土]로 만들며, 능히 좋은 것을 바꾸어 나쁜 것으로 만들고 나쁜 것을 바꾸어 좋은 것으로 만든다. 색(色)이 색 아닌 것[非色]이 되게 하고 색 아닌 것[非色]으로 색(色)이 되게 하며, 남자를 여자가 되게 하고 여자를 남자가 되게 하며, 육도(六道)를 육도 아닌 것이 되게 하고 육도 아닌 것을 육도가 되게 하며, 더 나아가 지수화풍(地水火風)을 지수화풍 아닌 것이 되게 한다. 이 사람이 그때 큰 방편의 힘을 써서 일체중생들에게 불가사의한 것을 보게 하나 아래 지위에서는 능히 발을 들고 발을 내리는 일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느니라.

而身心口別用，以淨國土爲惡國土，以惡國土爲妙樂土，⁴⁰⁾ 能轉善作惡，轉惡轉惡作善，色爲非色，非色爲色，以男爲女，以女爲男，以六道爲非六道，非六道爲六道，乃至地水火風，非地水火風。是人爾時以大方便力，從一切衆生，而見不可思議，下地所不能知，覺舉足下足事。

■ 두번째는 신통력[神通力]이다. 삼업(三業)을 변화시켜 자유롭게 쓰기 때문이다. (삼업의 변화가) 이미 중생에게 불가사의를 나타내므로 ‘아래 지위에서는 발을 들고 발을 내리는 일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40) 卍60 p.399b8에는 ‘樂國土’로 되어 있으나 韓3 p.4137a10에는 ‘樂土’로 되어 있다.

述曰, 第二通力. 三業變化, 自在用故. 既從衆生, 現不可議,
下地不知, 覺攀足下足事.

□ 이 사람은 크게 지혜가 밝아져서 차차 나아가 낱낱의 지혜[分分智]와
온갖 광명이 한량없고 한량없어서 가히 설할 수 없고, 설할 수 없는 법문
이 현재 눈앞에서 행하여지느니라.

是人大明智, 漸漸進, 分分智光光, 無量無量, 不可說不可說法
門, 現在前行.

■ 두 번째 승진분(勝進分)의 행(行)이다. ‘지혜가 크게 밝아졌다.’는 것
은 총괄하여 든 것이다. ‘차차 나아간다[漸漸進]’는 것은 가행도(加行道)이
고, ‘낱낱의 지혜[分分智]’란 무간도(無間道)이다. ‘온갖 광명이 한량없고
한량없다.’는 것은 해탈도(解脫道)이며 ‘가히 설할 수 없고, 설할 수 없는
법문[不可說不可說法門]’은 승진도(勝進道)⁴¹⁾이다.

41) 승진도(勝進道)는 『구사론』 권26(大29 pp.138c17-139c12)에 번뇌를 끊어서 해탈
의 진리를 증득하는 과정(過程)인 사도(四道) 가운데 하나이다. ① 가행도(加行
道)는 방편도라고도 하며, 번뇌를 끊기 위한 예비적 수행단계이다. ② 무간도
(無間道)는 무애도(無礙道)라고도 하며, 바로 번뇌를 끊는 도로서 단도(斷道)
라는 것이다. 이 도의 직후에 번뇌가 끊어지므로 무간격(無間隔)의 의미로 무
간(無間)이라 한다. ③ 해탈도(解脫道)는 번뇌를 끊어서 해탈의 진리를 증득하
는 도(道). ④ 승진도(勝進道)는 승도(勝道)라고도 하며, 다시 나아가서 다른 이
의 번뇌를 끊기 위하여, 혹은 만족하게 이미 끊어진 것을 관찰하는 도(道). 유식
설에서는 수행과정을 아홉단계로 나누어 설하고 있는데, 『유가사지론』 권13(大
30 p.346c25-28)에서는 “一世間道, 二出世道, 三方便道, 四無間道, 五解脫道, 六
勝進道, 七軟品道, 八中品道, 九上品道.”라고 하고,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권
100 (大30 p.881a21-24)에서는 “一世間道, 二出世道, 三加行道, 四無間道, 五解脫
道, 六勝進道, 七下品道, 八中品道, 九上品道.”라고 한다. 또 수도(修道)에 대하
여 『대승아비달마집론(大乘阿毘達磨集論)』 권5(大31 p.683a27-29)에서는 다음과

述曰, 第二勝進分行. 大明智者, 總舉也. 慚慚進者, 加行道也, 分分智者, 無間道也. 光光無量無量者, 解脫道也, 不可說不可說法門, 勝進道也.

6) 체성화광지 體性華光地

□ 불자들이여! 보리살타의 반야의 정인(正因)인 화광으로 무명을 깨뜨리는 체성지[體性華光地]에서는 능히 일체세계 가운데서 열 가지 신통명지품(十神通明智品)⁴²⁾으로 모든 중생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인다.

천안명지(天眼明智)로써 삼세국토의 미진과 같은 온갖 물질이 낱낱이[分分] 육도중생의 몸을 이루며, 낱낱 몸의 미진과 미세한 물질이 큰 물질을 이루는 것을 낱낱이[分分] 아느니라.

천이지(天耳智)로써 시방삼세 육도중생의 고락 음성과 비비음(非非音)과 비비성(非非聲)과 온갖 법의 소리를 아느니라.

천신지(天身智)로써 일체색(一切色)의 색(色)과 비색(非色)과 비남(非

같이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세간도(世間道, laukiko mārga), ② 출세간도(出世間道, lokottaramārga), ③ 탄도(數道, mṛdumārga), ④ 중도(中道, madhyamārga), ⑤ 상도(上道, dhimātro mārga), ⑥ 가行道(加行道, prayogamārga), ⑦ 무간도(無間道, ānantaryamārga), ⑧ 해탈도(解脫道, vimuktimārga), ⑨ 승진도(勝進道, viśeṣamārga).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권10(大31 p.737c28-738a6)에서는 번뇌의 제거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 가行道에서는 번뇌가 부분적으로 제거되고, 무간도에서는 완전하게 제거된다. 그리고 모든 번뇌가 배제된 다음 단계인 승진도에서는 완전한 해탈의 수행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 42) 체성화광지(體性華光地)에서 십신통명지(十神通明智)로 모든 중생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써 아래에서 밝힌 열 가지이다. 천안명지(天眼明智), 천이지(天耳智), 천신지(天身智), 천타심지(天他心智), 천인지(天人智), 천해탈지(天解脫智), 천심지(天心智), 천각지(天覺智), 천념지(天念智), 천원지(天願智)의 열 가지이다.

男)과 비녀(非女)의 형태를 알고, 일념(一念) 가운데 시방삼세에 두루한 국토의 겁 수량과 크고 작은 나라의 미진(微塵) 같은 몸을 다 아느니라.

천타심지(天他心智)로써 삼세의 중생들이 마음속으로 행하는 것과 시방 육도(十方六道) 가운데 일체중생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괴로움과 즐거움, 선과 악 등의 일을 아느니라.

천인지(天人智)로 시방삼세의 국토 가운데 일체중생들이 과거세에 받은 괴로움과 즐거움과 받은 수명을 알며 수명이 이어진 백겁을 낱알이 아느니라.

천해탈지(天解脫智)로써 시방삼세 중생이 해탈하여 일체번뇌를 끊어 없앤 것이 혹은 많고 적은 것을 알며, 일지(一地)부터 십지(十地)에 이르도록 멸(滅)하고 멸(滅)하여 모두 다한 것을 아느니라.

천정심지(天定心智)로써 시방 삼세의 국토 가운데 중생심의 정과 정에 들지 못함과, 비정(非定)과 정에 들지 않음이 없음과 정을 일으키는 방법과 받아들이는 삼매와 백삼매(百三昧)가 있음을 아느니라.

천각지(天覺智)로써 모든 중생이 이미 성불한 것과 아직 성불하지 못한 것과 그 외에 모든 일체 육도(六道)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을 알며 또 시방의 부처님 마음 속과 말씀하신 법을 아느니라.

천념지(天念智)로써 백겁 천겁 대겁 소겁 가운데 일체 중생이 받은 수명과 수명의 길고 짧음을 아느니라.

천원지(天願智)로써 모든 중생과 현성인(賢聖人)의 십지(十地)와 삼십심(三十心, 십발취심·십장양심·십금강심 또는 십주·십행·십회향) 가운데 낱알 행원(行願)의 고락을 구하며 혹은 법과 비법의 일체를 구하며 십원(十願)과 백 천 가지의 대원품(大願品)이 구족함을 아느니라.

이 사람이 지(地)와 열 가지神通명(神通明) 가운데 머무르며 한량없는 몸과 마음과 말의 차별된 사용을 나타내어 지공덕(地功德)을 설하기를 백

천만겁토록 할지라도 다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통명품(神通明品)을 간략하게 펴서 설하였으니 「관십이인연품(觀十二因緣品)」 가운데서 말한 것과 같나니라.

若佛子! 菩提薩埵, 體性華光地, 能於一切世界中, 十神通明智品, 以示一切衆生種種變化. 以天眼明智, 知三世國土中, 微塵等一切色, 分分成六道衆生身, 一 一身微塵細色成大色, 分分知. 以天耳智, 知十方三世, 六道衆生, 苦樂音聲, 非 非音非非聲, 一切法聲. 以天身智, 知一切色, 色非色, 非男非女形, 於一念中, 徧十方三世國土劫量, 大小國土中微塵身. 以天他心智, 知三世衆生心中所行, 十 方六道中, 一切衆生, 心心所念, 苦樂善惡等事. 以天人智, 知十方三世國土中, 一切衆生, 宿世苦樂受命, 一一知命續百劫. 以天解脫智, 知十方三世衆生解脫, 斷除一切煩惱, 若多若少, 從一地乃至十地, 滅滅皆盡. 以天定心智, 知十方三世 國土中, 衆生心定不定, 非定非不定, 起定方法, 有所攝受三昧百三昧. 以天覺智, 知一切衆生, 已成佛未成佛, 乃至一切六道人心心, 亦知十方佛心中所說法. 以天 念智, 知百劫千劫大小劫中, 一切衆生受命, 命久近. 以天願智, 知一切衆生, 賢聖十地, 三十心中, 一一行願, 若求苦樂, 若法非法一切求, 十願百千大願品 具足. 是人住地中, 十神通明中, 現無量身心口別用, 說地功德, 百千萬劫不可 窮盡. 而爾所釋迦, 略開神通明品, 如觀十二因緣品中說.

■ 제육지(第六地)의 문장을 시작하는 말에 ‘화광(華光)’이라 한 것은 반야의 정인(正因)이니 경계를 비추어 어두움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다음 지행(地行)은 먼저 총괄적으로 표해 마쳤다.

‘천안명(天眼明)’ 이하는 따로 십통(十通)을 나타낸 것이다. ‘십통(十通)’이란 ① 천안통(天眼通)이니 미진수(微塵數) 대색(大色)의 부분이 나누어져 육도 중생의 몸을 이루며, 낱알 몸의 미세한 부분이 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낱알이 아는 것이다.

② 천이통(天耳通)이니 ‘비비음(非非音)과 비비성(非非聲)’이라는 것은 전해오는 말로는 “음성이 공함을 모두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온갖 법의 소리’란 그 밖의 모든 소리이니, 어떤 사람은 “법으로 이어진 가르침을 듣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천신통(天身通)이니 곧 신경통(神境通)이다. 일체 색을 알며 색과 비색(非色)의 성품을 안다. 일념 가운데에 시방 국토의 양(量)과 삼세 겁의 양(量)을 통달하여 나라의 크고 작음에 따라 때에 맞게 미진수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述曰，第六地，舉章云華光者，般若正因，照境破闇故。次地行中，初總標已。天眼明下，別顯十通。十通者，一天眼通，知微塵數大色，分成六道衆生身，及一身細分成大，亦分分知。二天耳通，言非非音非非聲者，傳說，并知音聲空故。一切法聲者，餘一切聲，有說，聞法蠡等教也。三天身通，卽神境通。知一切色及知色之非色等性。於一念中，通於十方國土之量，三世劫量，隨國大小，現齊爾所時塵數身故。

■ ④ 천심통(天心通)이니 곧 타심지(他心智)이다. ⑤ 천인통(天人通)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아는 것이니 숙주지(宿住智)라고도 한다. ⑥ 천해탈통(天解脫通)으로 곧 누진지(漏盡智)이니, 여러 중생의 해탈방편(解脫方便)을 아는 것이다.

‘멸(滅)하고 멸(滅)하여 다 했다.’는 것은 열 가지 장애가 사라졌기 때문

이다.

四天心通, 卽他心智. 五天人通, 知人事故, 卽宿住智. 六天解脫通, 卽漏盡智, 知諸衆生解脫方便故. 滅滅皆盡者, 滅十障故.

■ 이 후 네 가지 신통은 모두 타심통의 다른 것들이니, 차례대로 다른 사람의 정(定)과 혜(慧)와 염(念)과 원(願)을 아는 것이므로 네 가지를 세웠다. ‘정(定)이 아님’과 ‘정(定)에 들지 않음이 없다.’고 한 것은 위 두 마음의 체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삼십십’이란 십지(十地) 이전의 마음이다. ‘일체를 구한다.’는 것은 법과 비법을 닦아 끊기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여기를 밝힌 것이고, ‘십통명(十通明)’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설하신 것이다.

已後四通, 皆是他心通之差別, 如次知他定慧念願, 立爲四故. 非定非不定者, 以上二心, 體性空故. 三十心者, 地前心也. 一切求者, 於法非法求修斷也. 言而爾所者, 但明爾所, 十通明者, 於釋迦略說也.

7) 체성만족지 體性滿足地

□ 불자들이여! 보리살타의 실천과 교화가 만족스러운 체성지[滿足體性地]이다. 이 법 가운데 ‘열여덟 가지 성인의 지혜[十八聖人智品]’에 들어가면 낮은 지위와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른바 몸에 번뇌의 허물이 없고 입에 말의 죄가 없으며 생각에는 잊어버림[失念]이 없으며, 팔법(八法, 팔풍)⁴³⁾

43) 팔법(八法)은 팔풍(八風)이라고도 한다. 이양[利]·명예[譽]·칭찬[稱]·즐거움

에서 벗어나 모든 법 가운데서 평등하며[捨], 항상 삼매(三昧)에 있으므로 이 지(地)에 들어가면 육품(六品)이 구족(具足)하여 이 지(智)로부터 여섯 가지 족한 지[六足智, 欲具足·進心足·念心足·智慧足·解脫足·大明具足]를 내느니라.

① 삼계(三界)의 번뇌와 습기를 끝내 받지 않으므로 욕(欲)이 구족한 것이며, ② 일체공덕과 일체법문을 구하는 것마다 만족하게 하므로 진심(進心)이 구족한 것이다. ③ 일체 법의 일과 일체 겁의 일과 일체 중생의 일을 일심(一心) 가운데서 일시(一時)에 알기 때문에 염심(念心)이 구족한 것이며, ④ 이 이제(二諦)의 모습이 육도(六道) 중생의 일체 법이므로 지혜가 구족한 것이며, ⑤ 십발취인(十發趣人)으로부터 그 밖의 모든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번뇌가 없고, 습기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해탈이 구족한 것이다. ⑥ 일체중생을 보되, 다른 사람이나 본래 나의 제자들이 번뇌가 없고 모든 번뇌의 습기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몸을 아는 해탈이 구족되느니라.

이 사람이 여섯 가지 만족으로 밝은 지혜 가운데에 들어가면 문득 지(智)를 일으켜서, 몸은 육도중생의 심행을 따르며, 입으로는 한량없는 법 문품을 설하여 일체중생들에게 보이며, 일체 중생의 심행을 따라 항상 삼매에 들어가니 시방대지가 진동하고 허공이 꽃으로 변하여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행하게 하며, 대명(大明)이 구족하여 과거 일체겁 가운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심을 보게 하며, 또한 일체 중생심을 보고 집착함이 없는 지혜로써 현재 시방의 모든 국토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의 마음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하며,神通한 도의 지혜[神通道

[樂]의 네 가지 순(順)하는 것과 쇠퇴[衰]·헛뜯음[毀]·비방[譏]·괴로움[苦]의 네 가지 어기는 것[違]을 말한다.

智]로써 미래의 일체 겁 동안에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고 일체중생들이 이 부처님들을 따라 도를 받고 법을 듣는 것을 보게 하느니라.

若佛子! 菩提薩埵滿足體性地. 入是法中, 十八聖人智品, 下地所不共. 所謂身 無漏過, 口無語罪, 念無失念, 離八法, 一切法中捨, 常在三昧, 是入地六品具足, 復從是智生六足智. 三界結習畢竟不受故, 欲具足, 一切功德, 一切法門, 所求滿 故, 進心足. 一切法事, 一切劫事, 一切衆生事, 以一心中一時知故, 念心足. 是 二諦相, 六道衆生一切法故, 智慧足, 知十發趣人, 乃至一切佛, 無結無習故, 解脫足. 見一切衆生, 知他人自我弟子, 無漏無諸煩習故, 以智知他身, 解脫足. 是 人入六滿足明智中, 便起智, 身隨六道衆生心行, 口辯說無量法門品, 示一切衆生 故, 隨一切衆生心行, 常入三昧, 而十方大地動, 虛空化華故, 能令衆生心行, 以 大明具足, 見過去一切劫中佛出世, 亦是示一切衆生心, 以無着智, 見現在十方一 切國土中, 一切佛一切衆生心心所行, 以神通道智, 見未來中一切劫, 一切佛出世, 一切衆生從是佛, 受道聽法故.

■ 제칠지(第七地) 가운데 문장을 시작하는 곳에 ‘만족(滿足)’이라 한 것은 공용이 만족하기 때문이다. 지행(地行)에 두 가지가 있으니 실천행[實行]과 교화하는 상[化相]이니 이 부분은 첫째이다.

‘열여덟 가지 성인의 지혜[十八聖人智]’라고 하는 것은 분(分)을 따라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을 얻기 때문이다. 옛날에 지은 소(疏)에서는 ① ‘여섯 가지 가운데 ‘몸에 번뇌의 허물이 없다.’고 한 것은 살도음업(殺盜婬業)의 습기를 떠났기 때문이며 ② ‘입에 말의 죄(語罪)가 없다.’는 것은 망어 등 네 가지 죄가 되는 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③ ‘생각에서 잊어버

림이 없다.’는 것은 탐욕에서 벗어나고 성냄과 사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십악은 앞의 제이지(第二地, 菩提薩埵善慧體性地)에서 이미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지금 해석하기를 ‘몸에 번뇌의 허물이 없다’는 것은 몸에 잘못과 실수가 없다는 것이며 ‘입에 말의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거나 난폭한 소리가 없다는 것이며 ‘생각에 실념(失念)이 없다.’는 것은 잊어버린[忘失]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팔법(八法, 팔풍)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가리거나 버리지 않음이 없는 것으로 아라한은 세간의 팔법(八法)에 집착함으로 인하여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버리나, 보살은 팔법성[八法性]에서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법 가운데서 평등하다.’는 것은 가지가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생사와 열반에 차별상이 없는 연유로 제일의 큰 평등[第一大捨]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항상 삼매에 있다.’는 것은 정심(定心) 아님이 없다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로 칠지(七地, 菩提薩埵滿足體性地)에 들어가 만족하게 된다.

두 번째의 여섯 가지는 ① 욕(欲)의 구족(具足)이니 삼계의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소지장(所知障)⁴⁴⁾의 청정을 구할 만하기 때문에 ‘구족’이라 하나 지금은 모자람이 없다[無減]는 말을 쓴다. ② 정진의 구족이

44) 소지장(所知障, ⑤jñeya-āvaraṇa)이란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일체의 소지(所知)에 대해서 지혜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염오(不染汚)의 무지(無知)를 말한다. 이것을 제멸 했을 때 일체의 지자(智者)가 되는 것이요, 또는 보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소지장(所知障)이란 변계소집인 실체의 법으로 집착하는 아견(我見)을 첫 번째로 하는 악견(惡見)·의심·무명·탐애·성냄·교만 등이다. 인식의 대상과 뒤바뀐이 없는 성품을 덮어서 능히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한다. 『성유식론(成唯識論)』권9 (大31 p.48c9-11) “所知障者, 謂執遍計所執實法, 薩迦耶見而爲上首, 見疑無明愛恚慢等, 覆所知境無顛倒性, 能障菩提, 名所知障.”

니 구하는 것을 능히 만족하게 하기 때문이다. ③념(念)의 구족이니 모든 법과 겁과 사람의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때문이다. ④혜(慧)의 구족이니 ‘중생’이란 세제(世諦)이고 일체법(一切法)이란 제일의제(第一義諦)이다. 사중(四重) 가운데서 우선 첫 번째만 들었다. ⑤해탈구족이니 모든 해탈을 얻지 못한 줄 알면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⑥다른 사람의 해탈을 아는 구족이니 곧 정(定)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선정의 힘[定力]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마음이 몰들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이 속에서 여섯 가지 구족에 들어가 다시 다음의 만족분인 여섯 가지를 일으키려고 할 때 문득 지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①몸이 육도의 심행을 따라 나타난다. ②입으로 법을 설하여 중생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③중생의 마음을 따라 정(定)에 들어가면 진동하니, ‘허공(虛空)이 꽃으로 변한다.’는 것은 ‘꽃비가 내려 능히 중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세 가지는 차례와 같이 삼업(三業)이 지혜를 따라 행(行)하여지기 때문이다. ④대명지(大明智)가 구족하니 옛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심안(心眼)으로 볼 수 있게 한다. ⑤무착지(無著智)로써 현재의 부처 등을 보는 것이다. ⑥신통지(神通智)로써 미래의 부처 등을 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명(大明)’, ‘무착(無著)’, ‘신통(神通)’이란 삼세를 통달한 지혜로서 이름이 다를 따름이다.

述曰，第七地中，舉章云滿足者，功用滿故。地行有二，實行故化相故，此初也。言十八聖人智者，以隨分得十八不共法故。古有作疏云，“初六中身無漏過者，離殺盜婬業及習故，二口無語罪者，離妄語等四罪語故，三念無失念者，離貪離瞋及邪見故。”乃至廣說，非也。如此十惡，前第二地，已永離故。今解身無漏過者，身無誤失也，口無語罪者，無卒暴音也，念無失念者，無忘失念也。離八法者，無不擇捨，羅漢由執世間八法，專

求自利, 捨利他事, 菩薩遠離八法性故, 一切法中捨者, 無種種想也. 於生死涅槃, 無差別想由, 住第一大捨故. 常在三昧者, 無不定心也. 此六入地之所滿足. 第二六者, 一欲具足, 於三界結無所怖畏, 堪求所知障清淨故, 言具足者, 今云無減也. 二精進具足, 所求能滿故. 三念具足, 遠憶諸法劫人事故. 四慧具足, 衆生者世諦也, 一切法者, 第一義諦也. 四重之中, 且舉初故. 五解脫具足, 知諸解脫未得, 不退故. 六知他解脫足, 卽定不退也. 必由定力, 知弟子心亦無染故. 是人入此中六足中, 更欲起後滿分六故, 便起智也. 一身隨六道心行而現. 二口辨說法示衆生故. 三隨衆生心, 入定振動, 言虛空化華者, 以雨華故, 能令衆生心有所行. 上三如次三業隨智行也. 四以大明具足, 見過去佛, 亦令衆生心眼得見. 五以無著智見現在佛等. 六以神通智見未來佛等. 此中大明無著神通者, 達三世智, 名之差別也.

□ 이 열여덟 가지 성인의 지혜 가운데에 머무르며 심심삼매(心心三昧)로 ‘삼계의 미진(微塵)과 같은 색(色)이 바로 나의 옛 몸이요, 일체중생이 나의 부모’라고 관한다. 지금 이 지(地) 가운데 들어가서 온갖 공덕과 온갖 신광(神光)과 모든 부처님이 행하시는 법과 팔지(八地)와 구지(九地) 가운데 일체 법문품(一切法門品)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미 다 들어왔기 때 문이다.

일체 불국토에서 부처가 되어 성도하여 법륜 굴리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고, 멸도에 드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며 타방의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국토에서 교화하느니라.

住是十八聖人中, 心心三昧, 觀三界微塵等色, 是我故身, 一切

衆生，是我父 母。而今入是地中，一切功德，一切神光，一切佛所行法，乃至八地九地中，一切 法門品，我皆已入故。於一切佛國土中 示現作佛成道，轉法輪，示入滅度，轉化他 方過去來今一切國土中。

■ 둘째, 교화하는 상[化相] 가운데 처음에는 평등한 자비문을 관하고[觀平等慈悲門], 다음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헤아리며, 나중에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능력[力能] 가운데 ‘온갖 공덕’이란 복품(福品)이고 ‘온갖 신광(神光)’이란 지품(智品)이다. ‘모든 부처님이 행하시는 법’이라는 등은 증과(證果) 법문이며, 승진(勝進) 법문 가운데 이미 들어갔으므로 아는 것이다.

述曰，第二化相中，先觀平等慈悲門，次量自力能，後現變化。力能之中，一切功德者，福品也，一切神光者，智品也。一切佛所行法等者，證果法門，及勝進法門中已入解也。

8) 체성불후지 體性佛吼地

□ 불자들이여! 보리살타의 법왕 위 삼매에 들어간 사자후체성지[佛吼體性地]이니, 법왕위삼매(法王位三昧)에 들어가면 그 지혜가 부처님의 불후삼매(佛吼三昧)와 같기 때문에 열 가지 크게 밝은 선정의 문이 항상 앞에 나타나며 화광음(華光音)으로 심삼매(心三昧)에 들어간다.

若佛子！菩提薩埵佛吼體性地，入法王位三昧，其智如佛，佛吼三昧故，十品大明定門，常現在前，華光音入心三昧。

■ 제8지 가운데 오종행이 있다. 여기는 첫째 정행(定行)이니, 처음에는

공용이 없으므로 ‘법왕위삼매(法王位三昧)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 지혜는 과(果)와 유사하게 법을 설하는 정(定)이기 때문이다. 비록 설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무상(無相)과 무공용(無功用)⁴⁵⁾에 머무르기 때문에 ‘불(佛)과 같다.’고 한다. 다음의 내공(內空) 등은 열 가지 크게 밝은 지혜에 들어가는 선정의 문이니 마음대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과를 얻고 어둠을 제거하는 가르침의 음성으로 보살심정(菩薩心定)에 들어가게 한다. 꽃은 능히 열매를 맺고 빛은 어둠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述曰，第八地中，有五種行。此初定行，初無功用名，入法王位三昧也，其智似果，說法定故。雖有所說，而於無相無功用住，故言似佛。下內空等，十大明慧所入定門，任運流故。諸佛得果，除闇教音，入菩薩心定也。華能得果，光除闇義。

□ 그 공혜(空慧)란 내공혜문(內空慧門)과 외공혜문(外空慧門)과 유위공혜문(有爲空慧門)과 무위공혜문(無爲空慧門)과 성공혜문(性空慧門)과 무시공혜문(無始空慧門)과 제일의공혜문(第一義空慧門)과 공공혜문(空空慧門)과 공공부공혜문(空空復空空慧門)과 공공부공공혜문(空空復空空慧門)이다. 이러한 열 가지 공문(空門)은 낮은 지(地)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니,

45) 무공용(無功用, ㉔anābhoga); 공용(功用)이란 신(身) 구(口) 의(意)로 의식적인 조작이나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무공용(無功用)은 이러한 조작을 하려는 마음과 의도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살의 십지(十地) 중 제8 부동지(不動地)에 오른 보살은 수행력과 본원력을 원만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히 수행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이타행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살의 제8지 이상을 무공용지라고 부른다. 또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어떤 의도나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히 이루어지는데 역시 무공용의 한 예이다. 무공용은 마음의 평정[捨]을 이름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허공과 같이 평등한 경지[虛空平等地]이므로 가히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느니라.

其空慧者，謂內空慧門，外空慧門，有爲空慧門，無爲空慧門，性空慧門，無始空慧門，第一義空慧門，空空慧門，空空復空慧門，空空復空空慧門，如是十空門，下地所不知，虛空平等地，不可說不可說。

■ 둘째 혜행(慧行)이니, 내공(內空)⁴⁶⁾ 등이라 한 것은 『변중변론(辨中邊論)』과 『대지도론(大智度論)』⁴⁷⁾에서 자세하게 논한 것과 같다. 제십지(第

46) 내공(內空, ādhyātma-sūnyatā, [ajjhatta-suñña)은 십팔공(十八空)의 하나이다. 단 십팔공(十八空)은 경전에 따라 십공(十空)·십일공(十一空)·십삼공(十三空)·십육공(十六空)·이십공(二十空) 등 숫자가 다양하지만, 집착을 낳는 일을 총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같다. 내공(內空)은 감각기관인 육근(六根)이 공한 것을 말한다. 『대지도론(大智度論)』 권31(大25 p.285b11-13)에서는 “내공(內空)이란 내법(內法)이 공(空)하다는 것이다. 내법(內法)이란 육입(六入)으로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등을 말한다. 안(眼)이 공(空)하여 아(我)도 없고 아소(我所)도 없으며 안법(眼法)도 없다. 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등도 이와 같다. 內空者，內法空。內法者，所謂內六入，眼耳鼻舌身意，眼空，無我無我所，無眼法，耳鼻舌身意，亦如是。”라고 한다.

47) 『변중변론(辨中邊論)』 상권 「변상품(辯相品)」 1(大31 p.465c28)에서는 공성(空性)의 차별을 열여섯 가지로 분석하면서 “論曰，空性差別，略有二種，一雜染，二清淨。此成染淨，由分別，謂有垢位，說爲雜染，出離垢時，說爲清淨。雖先雜染，後成清淨，而非轉變成無常失，如水界等，出離客塵。空淨亦然，非性轉變。此空差別，復有十六，謂內空，外空，內外空，大空空，勝義空，有爲空，無爲空，畢竟空，無際空，無散空，本性空，相空，一切法空，無性空，無性自性空。此等略義，云何應知。”라 하였고 『대지도론』 30권 『석초품중십팔공의(釋初品中十八空義)』 48(大25 p.285b11)에서는 『대반야경』을 인용하여 공성(空性)을 해설하면서 “內空者內法，內法空。內法者，所謂內六入，眼耳鼻舌身意。眼空無我無我所無眼法，耳鼻舌身意亦如是。外空者外法，外法空。外法者，所謂外六入，色聲香味觸法。色空者無我無我所無色法，聲香味觸法亦如是。內外空者內外法，內外法空。內外法者，所謂內外

十地) 중에서 제구지(第九地)는 없다. 열 가지 공성의 평등지를 전체적으로 결론지었는데, 열 가지 문으로 임시 설하였으니 집착할 것이 아니며 또한 가히 설할 것도 아니다.

述曰, 第二慧行, 謂內空等, 如辨中邊智論廣說. 於此第十, 泯第九也. 總結十空性平等地, 可以十門假說, 而不著故, 亦不可說.

□ 신통도지는 한 생각의 지혜로써 일체법이 나누어져 낱낱이 다른 줄 알아서 한량없는 불토 가운데 들어가 낱낱의 부처님 앞에서 법을 묻고 받는 것이다.

법을 굴려 모든 중생들을 건지고, 법의 약[法藥]을 일체중생들에게 베풀어 주며, 대법사와 대도사(大導師)가 되어서 사마(四魔)를 물리친다. 법신이 구족하므로 변화하여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며 이 모든 부처님의 수(數)와 구지(九地)와 십지(十地)의 수(數) 속에서 법신을 기르는 것이다.

백천다라니문과 백천삼매문과 백천금강문과 백천신통문과 백천해탈문으로 이와 같이 백천의 허공평등문(虛空平等門) 속에서 크게 자재하여 일념으로 일시에 수행하느니라.

神通道智, 以一念智, 知一切法分分別異, 而入無量佛國土中, 一一佛前諮受法. 轉法度與一切衆生, 而以法藥施一切衆生, 爲大法師爲大導師, 破壞四魔. 法身具足, 化化入佛界, 是諸佛數, 是諸九地十地數中, 長養法身. 百千陀羅尼門, 百千三昧門, 百千金剛門, 百千神通門, 百千解脫門, 如是百千虛空平等門中, 而大自在, 一念一時行.

十二入, 十二入中無我無我所, 無內外法.”이라고 한다.

■ 셋째 신통행[通行]이니, 신통지(神通智)로 모든 일을 두루 알아 한량 없는 국토에 들어가 신통으로 경계를 비추는데 눈으로 색을 보는 것과 같다. 그 밖에 진실지⁴⁸⁾로 현상[事]에 통달하고 이치에도 통달하여 수행과 깨달음이 깊고 미세해져서 뜻대로 아는 것이다.

‘범을 굴려 모든 중생들을 건져 준다.’는 것은 자기가 이해한 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보살이 범신으로 여러 변화를 나타내 보여주어 과(果)가 비슷하므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수(數)’이니 하물며 ‘구지(九地)와 십지(十地)의 수’ 이겠는가! ‘평등문’이란 다라니문 등이니 행하는 바 진여문에서 ‘크게 자재(自在)하여 일념으로 일시에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述曰, 第三通行, 謂神通智徧知諸事, 入無量土, 神通照境, 如眼見色. 餘眞實智, 達事達理, 行解深細, 如意識了. 轉法度與一切衆生者, 以己之解, 授與衆生也. 菩薩法身示現諸化, 與果相似, 言入佛界⁴⁹⁾. 是諸佛數, 況是九地十地數也! 平等門者, 陀羅尼門等, 所行眞如門中, 而大自在, 一念一時而修行也.

□ 겁(劫)을 겁이 아니라고 말하고, 겁이 아닌 것을 겁이라고 말하며, 도(道) 아닌 것을 도라고 말하며, 도를 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육도중생이 아닌 것을 육도중생이라고 말하며, 육도중생을 육도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부처가 아닌 것을 부처라고 말하며, 부처를 부처가 아니라고 말하느니라.

劫說非劫, 非劫說劫, 非道說道, 道說非道. 非六道衆生說六道

48) 진실지(眞實智)는 근본지(根本智)와 마찬가지로 무분별지(無分別智)의 이명(異名)이다.

49) 卍60 p.404a3과 大40 p.698b19와 藥師寺藏本에는 ‘果’로 되어 있으나 韓3 p.439 b15에는 ‘界’로 되어 있다.

衆生，六道衆生說非六道衆生，非佛說佛，佛說非佛。

■ 넷째는 설하는 행[說行]이다. 겁이 공하므로 겁이 아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없는 것도 아니어서 ‘겁 아닌 것을 겁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모든 이것에 준한다.

述曰，第四說行。劫空非劫。然不都無，非劫說劫。餘皆準此。

□ 모든 부처님의 체성삼매 가운데 출입하며 돌이켜 비추어 보되, 수순하여 비추기도 하고, 거슬러서 비추기도 하며, 앞에서 비추기도 하고, 뒤에서 비추기도 하며, 원인으로 비추기도 하며, 결과로 비추기도 하고, 공으로 비추기도 하며, 유(有)로 비추기도 하고, 제일중도의제로 비추기도 하나니, 이 지(智)는 다만 팔지(八地)에서만 증득하는 것이요. 낮은 지(地)들은 미치지 못하며, 움직이지 않고, 이르지 않으며, 벗어나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며, 생겨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느니라.

이 지(地)의 법문품은 한량없고 한량없어 가히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지금 간략하게 팔지(八地) 가운데 백천 분의 한 터럭만큼의 일만 설명하였으니 「아라한품(阿羅漢品)」에서 이미 밝혔느니라.

而出入諸佛體性三昧中反照，順照逆照，前照後照，因照果照，空照有照，第一中道義諦照，是智唯八地所證。下地所不及，不動不到，不出不入，不生不滅。是地法門品，無量無量，不可說不可說。今以略開地中，百千分一毛頭許事，羅漢品中已明。

■ 다섯째는 비추는 행[照行]이니 ‘모든 부처님의 체성삼매’란 전해오기를 ‘과덕이 상응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돌이켜 비춘다[反照]’고 하는 것은 돌이켜 자신을 비추기 때문이며 ‘순역’이란 순과 역으로 연기를 관하

는 것과 같다. 나머지도 모두 경계를 따른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 것 아래는 지행력(智行力)을 밝힌 것으로 공용에서 벗어났으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길이 물듦[染汚]을 조복 받았으므로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고, 항상 생공(生空)을 증득하므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법공(法空)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고 영원히 다시 분단생사(分段生死)⁵⁰⁾를 받지 않으므로 ‘불생불멸’이라고 하였다. 문장의 결론은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述曰, 第五照行, 諸佛體性三昧者, 傳說, 果德相應故. 反照者還照自故, 言順逆者, 如順逆觀緣起. 餘皆隨境. 不動已下, 明智行力, 離功用故言不動, 永伏染故言不倒⁵¹⁾, 恒證生空言不出, 法空不續言不入, 永不復受分段生死故, 言不生不滅也. 結文可解.

50) 분단생사(分段生死)는 육도윤회(六道輪廻)하는 범부들의 생사로 분단생사(分段生死)라고도 한다. 유루(有漏)의 선악업(善惡業)을 인(因)으로 하고 번뇌장(煩惱障)을 연(緣)으로 하여 삼계 내에서 거친 과보를 받는데 그 과보는 수명의 장단(長短)과 신체의 대소(大小) 등 일정한 한계를 갖기 때문에 분단(分段)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단신(分段身)을 받아 윤회하는 것을 분단생사(分段生死)라고 한다. 변역생사(變易生死)와 함께 이중생사(二種生死)로 불린다. 『대승의장(大乘義章)』 권8(大44 p.615c3)에 의하면 “두 가지 생사(生死)는 『승만경(勝鬘經)』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는 분단생사(分段生死)라 하고 다른 하나는 변역생사(變易生死)라 한다. 분단생사(分段生死)란 육도(六道)의 과보(果報)가 삼세(三世)로 나뉘어 다르게 되는 것을 분단(分段)이라 하며 분단(分段)의 존재가 처음 일어나는 것을 생(生)이라 하고 마지막 흠어지는 것을 사(死)라고 한다. 二種生死, 出勝鬘經. 名字是何. 一分段生死, 二變易生死. 言分段者, 六道果報, 三世分異, 名爲分段. 分段之法, 始起名生, 終謝稱死.”라고 하였다.

51) 韓3 p.439c3. 경문(經文)에는 ‘이르를 도(到)’자로 나왔으나 기문(記文)(韓3 p.439 c11.)에는 ‘전도될 도(倒)’자로 나와 있다. 기문의 오자를 감안하여 경문을 따라 번역하였으나 문장의 의미상 ‘倒’자를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9) 체성화엄지 體性華嚴地

□ 불자들이여! 보리살타의 사무애(四無碍)의 꽃으로 장엄한 체성지[佛華嚴體性地]는 부처님의 위의로 여래삼매자재왕왕정(如來三昧自在王王定)에 무시(無時)로 출입하나니라.

若佛子! 菩提薩埵佛華嚴體性地, 以佛威儀, 如來三昧自在王王定, 出入無時.

■ 제구지(第九地) 가운데 ‘불화엄(佛華嚴)’이란 네 가지 걸림 없는 장엄행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구지(九地)의 행에 두 가지가 있으니 안으로 증득하는 것[內證]과 밖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처음이다. ‘부처님의 위의’를 나타내는 정(定)과 설법자재왕정(說法自在王定)이 항상 현전하기 때문에 다시 출입함에 특별한 때가 없다.

述曰, 第九地中, 言佛華嚴者, 具四無礙莊嚴行故. 地行有二, 內證故, 外化故. 此初也. 現佛威儀定, 及說法自在王定, 恒現前故, 更無出入別時也.

□ 시방의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백억의 일월(日月)과 백억의 사천하에서 일시에 성불하여 범륜을 굴리며 멸도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불사(佛事)를 일심 가운데, 일시에 일체중생들에게 나타내 보인다.

일체색신의 팔십종호와 삼십이상이 자재하여, 허공을 즐기는 것[樂虛空]과 같아서 한량없는 대비 광명으로 상호를 장엄한다.

하늘도 아니며 사람도 아니며 육도도 아니어서 온갖 법 밖에 있으나, 항상 육도(六道)에서 행하며, 한량없는 몸과 한량없는 입과 한량없는 뜻을 나타내어 한량없는 법문을 설한다. 능히 마구니의 세계를 굴러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고, 부처님의 세계를 마구니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며, 또 온갖 지건을 굴러 부처님의 지건에 들어가게 하고, 부처님의 지건으로 온갖 지건에 들어가게 하며, 부처님의 성품을 중생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고 중생의 성품을 부처님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기도 한다.

그 지(地)의 광명은 밝게 비추며 슬기롭게 비추며 불꽃처럼 밝아서 열 가지 무외[無畏]와 사무량심[無量]과 십력(十力)과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으로 해탈열반(解脫涅槃)하여 함이 없는 하나의 도[無爲一道]가 청정하게 된다.

모든 중생들을 부모와 형제를 삼아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기를 모든 겁이 다하도록 하여 도과(道果)를 얻게 하고 또 일체국토에 나투어 일체 중생이 서로 보기를 부모처럼 여기며, 천마외도가 서로 보기를 부모처럼 여기게 하느니라.

이 지(地) 가운데 머무르며 생사의 끝[際]에서 일어나 금강에 이르기까지 한 생각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어 능히 한량없는 중생계에 변화하여 들어간다. 이와 같은 것이 한량 없으나 간략하게 설하였나니 바다의 물 한방울[滯]과 같을 뿐이니라.

於十方三千世界⁵²⁾, 百億日月, 百億四天下, 一時成佛轉法輪, 乃至滅度, 一切 佛事, 以一心中一時, 示現一切衆生. 一切色身, 八十種好三十二相, 自在樂虛空 同, 無量大悲光明, 相好⁵³⁾莊嚴. 非天非人非六道, 一切法外, 而常行六道, 現無 量身, 無量口, 無量意, 說無量法門. 而能轉魔界入佛界, 佛界入魔界, 復轉一切 見入佛見, 佛見入一切見, 佛性入衆生性, 衆生性入

52) 卍60 p.404b16에는 ‘十世界中’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39c21에는 ‘三千世界’로 되어 있다.

53) 卍60 p.405a4에는 ‘相’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0a4에는 ‘好’로 되어 있다.

佛性. 其地光光光照, 慧慧照, 明燄明燄, 無畏無量, 十力十八不共法, 解脫涅槃, 無爲一道清淨. 而以一切衆生, 作父母兄弟, 爲其說法, 盡一切劫得道果, 又現一切國土, 爲一切衆生相視如父如母, 天魔外道相視如父母. 住是地中, 從生死際起, 至金剛際, 以一念心中, 現如是事, 而能轉入無量衆生界. 如是無量略說, 如海一滄.

■ 둘째는 밖으로 교화하는 것[外化]이다. ‘십세계’란 시방의 대천세계이다. 나타낸 몸이 특별히 상호를 구축하여 자재하게 걸림이 없으므로 허공과 같다는 것이다. ‘한량없는 대비와 지혜광명’은 복상(福相)과 지상(智相)으로 법신을 장엄하는 것이다.

‘온갖 법 이외 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취에 나는 법[趣生法]은 아니나 육취에 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마구니의 세계 등을 굴러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한 것 등은 성품이 평등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음을 설한 것이다. ‘밝게 비춘다’는 것은 이공(二空)이기 때문이고 ‘슬기롭게 비춘다’는 것은 그 후득지[後智]이기 때문이며, ‘불꽃같이 밝다[明燄]’는 것은 무간해탈(無間解脫)이기 때문이다. ‘십무외[十無畏]와 사무량[四無量]과 십력(十力)과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과 팔해탈(八解脫)’ 등을 갖춘 것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두 극단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함은 없는 하나의 도’는 소지장(所知障)이 깨끗한 것이다.

‘모든 중생들로써 부모를 삼는’ 등은 법 설하기를 겁이 다하도록 하여 도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생사의 끝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초발심으로부터 금강심에 이르기까지 있는 바 원행(願行)을 한 마음 속에 나타내어 중생계에 들어가서 교화하는 것이다.

述曰, 第二外化. 十世界者, 十方大千故. 所現身別, 相好具足,

自在無礙，與虛空同。無量大悲智慧光明，福相智相，莊嚴法身。言一切法外等者，非趣生法而行趣生。轉魔界等入佛界等，性平等故，說無礙也。光光照者，二空故，慧慧者，彼後智故，明焰明焰者，無間解脫故。備四無畏，四無量十力，十八不共法，八解脫等，無住涅槃，不住二邊。無爲一道，所知障淨。爲諸衆生作父母等，說法窮劫，令得道果。從生死際起者，從初發心至金剛心，所有願行，於一心現，入衆生界而教化也。

10) 체성입불계지 體性入佛界地

□ 불자들이여! 보리살타의 불과에 들어가는 체성지[佛界體性地]에 들면 그 대혜공(大慧空)으로 공이 다시 공하여 공한 것까지 다시 공하므로 허공과 같다. 성품의 평등한 지혜는 여래성이 있어서 열 가지 공덕품(功德品, 如來十號)을 구축하느니라.

공하여 동일한 모양이며 체성이 함이 없고[無爲] 신령스럽게 텅 비어 바탕이 하나이며, 법과 법성이 같기 때문에 여래라고 하느니라. 마땅히 사제(四諦)와 이제(二諦)를 따라 생사윤회의 끝이 다하고, 법으로 법신을 장양함이 둘이 아니니 이것을 응공이라고 한다. 두루 모든 세계의 모든 일을 덮어주고 바른 지혜[正智]와 성스러운 해탈지로서 일체법의 유무와 일체 중생의 근기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정변지(正遍知)라고 하느니라.

밝고 분명하게[明明] 불과[佛果]를 수행할 때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명행족(明行足)이라 한다. 삼세 부처님들의 법에 잘 나아가니 법이 과거 부처님들과 같으며, 부처님께서 돌아가심[去佛]에 돌아가실 때에도 선(善)하고 선하며, 오실 때[來時]도 선(善)하고 선하므로 이것을 선서(善逝)라고 한다. 이 사람은 뛰어난 덕을 행하여 세간 가운데 들어가 중생을 교

화합에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결박에서 해탈하게 하므로 세간해탈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모든 법이 으뜸이며 부처님의 위신(威神)에 들어가 몸가짐과 모습이 부처님과 같아 대사(大士)의 행처(行處)로 세간을 해탈하게 하나니 무상사(無上士)라고도 하느니라.

모든 중생들을 잘 조복하여 길들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장부라고 하며, 천인(天人) 가운데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법의 말씀을 묻거나 가르침을 받게 하므로 천인사(天人師)라고 한다. 묘한 근본이 둘이 없고 그윽하게 불성을 깨달아 항상 크고 원만하여 일체중생이 예배하고 공경하므로 불세존(佛世尊)이라고도 하나니, 온갖 세상 사람들이 물어 가르침을 받들기 때문에 이것을 불지(佛地)라고 하고, 이 지(地) 가운데 일체성인(一切聖人)들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불계지(佛界地)라고 하느니라.

若佛子! 菩提薩埵入佛界體性地, 其大慧空, 空復空空復空, 如虛空. 性平等智, 有如來性, 十功德品具足. 空同一相, 體性無爲, 神虛體一, 法同法性, 故名如來. 應順四諦二諦, 盡生死輪際, 法養法身無二, 是名應供. 徧覆一切世界中一切事, 正智聖解脫智, 知一切法有無, 一切衆生根故, 是正遍知. 明明修行佛果時, 足故是明行足. 善逝三世佛法, 法同先佛, 去佛去時善善, 來時善善, 是名善逝. 是人行是上德, 入世間中, 教化衆生, 使衆生解脫一切結縛, 故名世間解脫. 是人一切法上, 入佛威神, 儀形如佛, 大士行處, 爲世間解脫, 名無上士. 調順一切衆生, 名爲丈夫, 於天人中, 教化一切衆生, 諮受法言故, 是天人師. 妙本無二, 佛性玄覺, 常常大滿, 一切衆生, 禮拜故尊敬故, 是佛世尊, 一切世人, 諮受奉教故, 是佛地, 是地中, 一切聖人之所入處故, 名佛界地.

■ 제십지(第十地) 가운데 문장을 시작하는 곳에 ‘불계(佛界)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직위를 받기 때문이다. 다음 지행(地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행공덕(行功德)과 행의 수승한 이익[行勝利]이니 이 부분은 처음이다.

먼저 체용을 드러내어 ‘대혜공(大慧空)’이라 한다. 그러나 이공(二空)의 용(用)도 또한 다시 공하기 때문에 ‘공이 공한 것까지 다시 공하다’고 하며, 다시 능취(能取)와 소취(所取)도 공(空)하므로 이미 평등한 공이기 때문에 허공과 같다고 한다. ‘성품의 평등한 지혜’에는 과덕의 성품이 있어 십덕(十德)을 구축하니 이는 총표이다. ‘십(十)’은 여래의 십호(十號)이다.

① ‘여래(如來)’이니 청정한 법계⁵⁴⁾에 한 모양도 ‘함(無爲)’이 없으니 여래(如來)라고 부른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뜻을 들어 뒤에 이름을 배치한 것이다. ② ‘응공(應供)’이니 지(智)가 마땅히 경계를 따라 끊어서 반드시 후유(後有)를 받지 않으니 ‘법으로 법신을 장양함이 돌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 ‘정변지(正遍知)’이니 유

54) 청정법계(淸淨法界, ⑧dharma-dhātu-viśuddhi)는 법계가 청정하다는 뜻. 법계(法界)란 분절된 의식에 의해 왜곡되기 이전의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말한다. 법계 청정이란 이러한 세계의 청정성을 형용한 말이다. 『유가사지론』 권73(大30 p.701c4-9)에 의하면 “어떤 것을 법계청정(法界淸淨)이라 하는가? 바른 지혜를 닦아서 모든 상(相)을 여의고 진여를 증득한 것을 말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잠에서 꿈을 꾸면서 스스로 그 몸이 크고 사나운 물결 속에 떠다니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사나운 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크게 정진하려는 마음을 발하니, 곧 크게 정진하려는 마음을 발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곧 깨어났다. 깨고보니 저 사나운 물결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상(相)을 제거하는 도리도 이와 같다. 云何名爲法界淸淨? 謂修正智, 故永除諸相, 證得眞如. 譬如有人, 於眠夢中, 自見其身, 爲大暴流之所漂溺, 爲欲越渡如是暴流, 發大精進, 卽由發起大精進故, 欸然便覺. 既得覺已, 於彼暴流, 都無所見, 除相道理, 當知亦爾.”고 한다.

정과 기세간(器世間)의 일을 ‘두루 덮고’ 제법과 유정을 ‘두루 알기 때문에’ 정각으로 아는 것을 이름 하여 정지(正知)라 하고 물들어 집착함이 없는 것을 ‘성해탈지(聖解脫智)’라고 한다.

④ ‘명행족(明行足)’이니 인행이 더욱 밝아져 이미 원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⑤ 선서(善逝)이니 삼세의 불법에 잘 나아가 그 이른 바[所至]의 법이 ‘과거 부처님들과 같고’ 부처가 세상을 떠날 때 다분히 (중생을) 이익 되게 함이 있어서 ‘돌아가실 때도 선(善)하고 선하다.’고 하였으며, 와서 세간에 나타날 때도 또한 이익 되게 함이 있어 ‘올 때도 선하고 선하다’라고 한 것이니 ‘선선’이라 이름 한 것은 선서(善逝)를 결론지은 것이다. ⑥ ‘세간해(世間解)’이니 보살이 수행(修行)에서 다섯 가지 덕행(德行)을 설하여 세간 가운데 들어가 중생을 교화하여 해탈하게 하기 때문이다. ⑦ ‘무상사(無上士)’이니 제행법에서 ‘위신[威神]에 들어가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뜻과 형상과 처소’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⑧ ‘조어장부(調御丈夫)’이니 ‘세간을 해탈’하게 하기 위하여 중생의 억세고 강한 번뇌를 ‘조복하여 길들이기’ 때문이다. ⑨ ‘천인사(天人師)’이니 그 ‘법언을 몰아서 가르침을 받는’ 스승이므로 사(師)라고 말하는 것이다. ⑩ 불세존이니 법신(法身)이 둘이 아니고 지신(智身)이 항시 크게 원만하기 때문에 불이라 부르며 일체가 ‘예배하며 또 존경하므로 세존’이라고 부른다.

述曰，第十地中，舉章云入佛界者，受職位故。次地行中有二，行功德故，行勝利故，此初也。先出體用，言大慧空。然二空用，亦復空故，言空空復空，復空所取能取，既平等空故，言如虛空。性平等智，有果德性，十德具足，此總標也。十者十號。一者如來，清淨法界，一相無爲。其中法身，神虛體一，一切事法，泯同法性，無所去來，名如來故。然經舉義，末後配名。二者應

供, 智應順境, 斷應不受後有, 法身無二, 應正法養故. 三者正偏智, 徧覆有情及器世事, 周知諸法及有情故, 正覺所知, 名爲正知, 無所染著, 名聖解脫智. 四者明行足, 因行增明, 已到滿故. 五者善逝, 善逝於三世佛法, 其所至法, 同於先佛, 佛去世時, 多有所益, 言去時善善, 來現世時, 亦有所益, 言來時善善, 名善善者, 結善逝也. 六者世間解, 菩薩修行上說五種德行, 入世間中, 教化衆生, 令解脫故. 七者無上士, 諸行法上入威神, 似佛所行義形處故. 八者調御丈夫, 爲世間解脫, 調順衆生剛強煩惱故. 九者天人師, 彼所諮受法言師故. 十者佛世尊, 法身無二, 智身恒時大滿名佛, 一切禮拜及所尊敬, 名世尊故.

■ 다음은 충히 결론 지어 ‘불계지(佛界地)’라는 이름을 해석하였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地)는 깨달음의 지위[覺地]이다. 낮은 지에서 들어가도 또한 계지(界地)라고 이름 하는 것은 능히 여러 성인(聖人)들의 원만한 곳[圓滿處]이기 때문이다.

次總結釋佛界地名. 一切世人, 受教之處, 是故此地, 是覺地也. 下地來入, 亦名界地, 能持羣聖圓滿處故.

□ 그 때 보련화에 앉은 일체 모든 이들에게 수기를 주시니 환희하였다. 법신불께서 손으로 그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지견이 같고 배움이 같은 보살들이 이구동음으로 둘이 없음[無二]을 찬탄하였다. 또 백 천억 세계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있어, 일시에 구름같이 모여들어 가히 말할 수 없는 법륜을 굴려 허공장화도법문(虛空藏化導法門)을 청하였다.

이 지(地)에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기묘한 법문품과 기묘한 삼명삼매문

(三明三昧門)과 다라니문(陀羅尼門)이 있으니 낮은 지위의 범부 심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처님과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몸과 입과 마음과 뜻이라야 그 근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광음천품(光音天品)」 가운데 설한 것과 같으니 열 가지 무외[十無畏]와 불도(佛道)가 같다.

爾時坐寶蓮華上，一切與授記歡喜。法身手摩其頂，同見同學菩薩，異口同音，讚歎無二。又有百千億世界中，一切佛一切菩薩，一時雲集，請轉不可說法輪，虛空藏化導法門。是地有不可說奇妙法門品，奇妙三明三昧門，陀羅尼門，非下地凡夫心識所知。惟佛佛無量身口心意，可盡其原。如光音天品中說，十無畏與佛道同。

■ 둘째는 수행이 수증해지는 이익이니 십지보살이 ‘보련화에 앉으니’ ‘법신불(法身佛)께서 수기하며 이마를 어루만져 주심’을 입었고 ‘지견이 같고 배움이 같은 보살들의 찬탄’을 받은 것이다.

‘법신(法身)’이란 마치 얇은 명주로 가려진 것처럼 과보의 몸을 나타낸 것이니 안으로 덕[內德]이 이미 원만해진 것을 말한다. 다시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법륜 굴리기를 청하는 것은 세간을 넉넉히 이익 되게 하기 위하여 굴리는 법륜이다. 허공장(虛空藏)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두루 포용하여 받아들이고 이끌어 교화하는 문[周徧容受化導門]이기 때문이다.

述曰，第二行勝利，十地菩薩，坐蓮華上，蒙法身佛授記摩頂，及蒙同見同學讚歎。言法身者，如隔輕縠見報身故，內德已滿。更得一切佛菩薩，請轉法輪，饒益世間，所轉法輪。名虛空藏，周徧容受，化導門故。

梵網經古迹記 卷第二 終



梵網經古迹記 卷第三 범망경고적기 3권



범망경고적기 3권

梵網經古迹記

1. 계문 戒文

1) 부촉 付囑

□ 그때 노사나불께서 이 대중들을 위하여 백천향하사의 불가설(不可說) 범문 가운데 심지범문(心地法門)을 터럭 끝만큼 간략하게 열어 보였습니다.

“이는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설하셨고 미래 부처님께서도 설할 것이며 현재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고 계시며, 삼세보살(三世菩薩)들이 이미 배웠고 미래에도 배울 것이며 지금도 배우고 있느니라. 내가 이미 백겁에 이르도록 이 심지(心地)를 닦았으므로 나를 노사나(盧舍那)라고 부르나니, 그대들 모든 부처들이여! 내가 설한 것을 옮겨서 모든 중생들에게 심지의 도[心地道]를 열어주어라.”

그때 연화대장세계(蓮華臺藏世界)의 혁혁천광사자좌(赫赫天光師子座)의 노사나불께서 광명을 놓으시며 일천 꽃 위의 부처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심지범문품(心地法門品)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다시 천백억 석

가와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차례로 내가 앞에서 설한 십지법문품을, 그대들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한마음으로 행할지니라.”

爾時，盧舍那佛，爲此大衆，略開百千恒河沙，不可說法門中心地，如毛頭許。“是過去一切佛已說，未來佛當說，現在佛今說，三世菩薩已學，當學今學。我已百劫，修行是心地，號吾爲盧舍那，汝諸佛！轉我所說，與一切衆生開心地道。”時蓮華臺藏世界赫赫天光師子座上，盧舍那佛放光光，告千華上佛。“持我心地法門品而去！復轉爲千百億釋迦，及一切衆生，次第說我上心地法門品，汝等受持讀誦，一心而行。”

■ 다섯 번째 부속(付屬)이다. ‘불가설(不可說)’은 수(數)의 이름이다. 이 수 하나가 쌓여서 백천항하사법문(百千恒河沙法門)에 이른다. ‘항하(恒河)’는 향산(香山) 정상의 열뇌가 없는 연못[無熱惱池]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 가운데, 이것은 동쪽 강물로 너비가 사십 여리에 미친다. 범어(梵語)로 궁가(菴伽)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바른 번역이 없고 천당에서 흘러온다는 뜻이다. 강의 근원이 산꼭대기여서 사람들이 볼 수 없다. 『구사론(俱舍論)』에서 “신통(神通)¹⁾이 없으면 도달할 수 없으므로, 다만 그 물이 높은 데서 흘러내려오는 것만 볼 뿐이다.”²⁾라고 하였으니, 당시 세상[俗]

1) 신통(神通, ㉔abhiijñā); 선정(禪)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무애자재하고 초인간적인 부사의한 작용. 여기에 신족(神足)·천안(天眼)·천이(天耳)·타심(他心)·숙명(宿命)의 5신통이 있다. 또 누진통(漏盡通)을 합해서 6신통이라고도 한다. 『구사론』 권27(大29 pp.142c-143b)에 의하면 6신통은 모두 혜(慧)를 본질로 하는데, 그 가운데 5신통은 사선(四禪)을 닦으면 증득할 수 있으므로 성자뿐 아니라 범부도 얻을 수 있으나, 누진통(漏盡通)은 오로지 성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대지도론(大智度論)』 권28(大25 p.264a22-23)에 보살은 오통(五通), 부처님은 육통(六通)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에서는 그 말을 따라 ‘천당(天堂)에서 흘러온다.’고 하였다. 이 한 강물의 모래알을 일(一) 수량(數量)으로 삼아 백 천(百千)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그 문(門)에 나아가면 지금 이 열 번째 심지품(心地品)은 털끝 정도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부촉(付屬)하여 말씀하시기를 ‘삼제(三際, 과거·현재·미래)의 불보살(佛菩薩)들이 이미 설하셨고 배운 것이며 나도 이미 오랜 겁 동안 닦았기 때문에 성불하였다.’고 한다. 빛을 놓는 것이 하나가 아니므로 ‘광광(光光)’이라고 한다. 일천 꽃잎[千葉] 위의 정토(淨土)와 예토(穢土)의 부처들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은 각각 모든 중생들을 변화시키고 교화하라.’하시니 부처님들이 차츰 법을 펴서 설하셨다.

述曰, 第五付屬也. 不可說數名也. 此數爲一, 積至百千恒沙法門. 恒河者, 香山頂, 無熱惱池, 流出四河, 此東河水, 寬四十餘里. 梵語應言殑伽, 無別正翻, 義天堂來. 河源山頂, 人所不見. 如俱舍云, “無通不能至, 但見彼水高澍而下.” 時俗遂言天堂來也. 此一河沙, 爲一數量, 至百千故, 就彼門中, 今此第十心地品者, 如毛頭許. 佛付屬言, “三際佛菩薩之所說學, 我已多劫修故成佛.” 放光非一故言光光. 告千葉上淨穢土佛, “汝各轉化一切衆生.” 佛等展轉說也.

-
- 2) 『구사론(俱舍論)』 11권 「이세간품(分別世品)」 3-4(大29 p.58a18) “論曰, 此瞻部洲從中向北, 三處各有三重黑山. 有大雪山 在黑山北, 大雪山北有香醉山, 雪北香南有大池水, 名無熱惱. 出四大河, 一殑伽河, 二信度河, 三徙多河, 四縛芻河. 無熱惱池縱廣正等, 面各五十躡繕那量, 八功德水盈滿其中, 非得通人無由能至. 於此池側有瞻部林, 樹形高大其果甘美, 依此林故名瞻部洲, 或依此果以立洲號, 復於何處置奈落迦, 大奈落迦何量有幾.”라 한다.

2) 화신불에게 전하여 설하게 하심 化佛傳說

□ 그때 일 천 꽃잎 위의 부처님들과 천백억 석가모니불께서 연화장세계의 혁혁사자좌(赫赫師子座)에서 일어나시어 각각 인사하고 물러나시며 온 몸에서 불가사의한 광명을 놓으시었다. 모든 광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으로 변화하여 일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황적백의 꽃으로 노사나불께 공양올리고 앞에서 말씀 하신 십지법문품을 받아 지니고 각각 이 연화장세계에서 사라지셨다.

爾時，千華上佛千百億釋迦，從蓮華藏世界，赫赫師子座起，各各辭退，舉身放不可思議光光，皆化無量佛，一時以無量青黃赤白華，供養盧舍那佛，受持上說心地法門品竟，各各從此蓮華藏世界而沒。

(1) 은혜를 갚고 따로 교화함 報恩別化

■ 아래 대단(大段)부터는 두 번째 화신이 전하는 설법에 두 가지가 있으니, 은혜를 갚는 것[報恩]과 따로 교화[別化]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첫 번째이니 법을 거듭 설하는 것이다.

述曰，自下大段，第二化傳說中有二，報恩故別化故。此初也，法可重故。

□ 사라지면서 체성허공화광삼매(體性虛空華光三昧)에 들어가시어 노사나불의 본래 근원이 되는 세계인 염부제보리수(閼浮提菩提樹) 아래로 돌아가신 뒤 체성허공화광삼매로부터 깨어나셨다.

삼매에서 나오신 후 곧 금강천광왕좌(金剛千光王座)와 묘광당(妙光堂)에 앉아 십세계해(十世界海)를 설하시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제석궁(帝

釋宮, 欲界 第二 忉利天)에 이르러 십주(十住)를 설하시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焰天(焰天, 第三 夜摩天)에 이르러 십행(十行)을 설하시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천(第四天, 兜率天)에 이르러 십회향(十迴向)을 설하시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락천(化樂天, 第五天)에 이르러 십선정(十禪定)을 설하셨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第六天)에 이르러 십지(十地)를 설하시고, 다시 일선(一禪, 色界 初禪三天인 梵衆·梵輔·大梵天)에 이르러 십금강(十金剛)을 설하시고, 다시 이선천(二禪天, 色界 二禪三天인 小光·無量光·極光天)에 이르러 십인(十忍)³⁾을 설하시고, 다시 삼선천(三禪天, 色界 三禪三天인 小淨·無量淨·遍淨天)에 이르러 십원(十願)을 설하시고 다시 사선천(四禪天, 色界 四禪九天인 無雲·福生·廣果·無想·無煩·無熱·善現·先見·色究竟天) 가운데 마해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 大自在天)에 이르러 우리의 본래 근원인 연화장세계의 노사나 불께서 설하신 「십지법문품(心地法門品)」을 설하셨다.

그 나머지 천백억 석가모니불도 다시 이와 같아서 둘이 없고 다름이 없으니, 「현겁품(賢劫品)」에서 설한 것과 같나니라.

沒已, 入體性虛空華光三昧, 還本源世界閻浮提菩提樹下, 從體性虛空華光三昧出. 出已, 方坐金剛千光王座及妙光堂, 說十世界海, 復從座起, 至帝釋宮說十住. 復從座起, 至焰天中說十行, 復從座起, 至第四天中說十迴向, 復從座起, 至化樂天說十禪定. 復從座起, 至他化天說十地, 復至一禪中說十金剛,

3) 십인(十忍)이란 보살이 감내(堪耐)해서 얻은 10종의 안주심(安住心)이다. 『화엄경(華嚴經)』 권28(大9 p.580c6-10)의 「십인품(十忍品)」에는 수순음성인(隨順音聲忍), 순인(順忍), 무생법인(無生法忍), 여환인(如幻忍), 여염인(如焰忍), 여몽인(如夢忍), 여향인(如響忍), 여뢰인(如雷忍), 여화인(如化忍), 여허공인(如虛空忍)의 열 가지 인(忍)이 보인다.

復至二禪中說十忍，復至三禪中說十願，復至四禪中摩醯首羅天王宮，說我本源蓮華藏世界盧舍那佛所說心地法門品。其餘千百億釋迦，亦復如是無二無別，如賢劫品中說。

■ 둘째 따로 교화함이니, 각각 본토로 돌아가 중생들을 따로따로 교화하기[別化] 때문이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뛰어난 현성에게 내문(內門)의 행(行)을 전하는 것과 초발심 자에게 외문(外門)의 계(戒)를 전하는 것이다. 처음에 또 두 가지가 있으니 경가(經家)의 총서(總序)와 별석(別釋)이다. 이 부분은 처음이다. 그 ‘삼매’의 이름은 앞에서 이미 해석한 것과 같다. 대소승의 근기가 보는 것[所見]이 같지 않으므로 보살대중[菩薩衆]이 처음 성불하고 나서 ‘제사선(第四禪)’의 대자재천왕궁(大自在天王宮)에 가서 빛을 놓아 대중을 제접(提接)하고 나서, 노사나를 모시고 십지품을 들은 다음, 다시 나무 아래로 돌아와 선정에서 깨어나 십세계해(十世界海) 설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보리수(菩提樹)’란 필발라수(畢鉢羅樹)이니 가야성(伽耶城) 서남쪽 이십사 리에 있다.

금속(金屬) 가운데 정밀하고 단단한[硬] 것을 ‘금강(金剛)’이라고 하는데 가히 금강체(金剛體)의 자리라고 함이 마땅하다. 빛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것을 ‘광왕좌(光王座)’라고 부른다. ‘묘광당(妙光堂)’이란 곧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광당(普光堂)⁴⁾이니 부처님께서 빛을 놓으심으로 인하여 붙인 이름이다. 마가다국(摩伽陀國) 적멸도량(寂滅道場) 경계에 있으며 보리수에서 거리가 삼 리(三里)이며, 생사가 사라진 곳을 적멸도량이라고 한다. ‘십세계해(十世界海)’는 『화엄경』 2권에서 말하기를 “연화장세계해의

4)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 3(大9 p.418a26)에서는 ‘보광법당(普光法堂)’이라 하였고, 80권본 12권 「여래명호품」 7(大10 p.57c24) 등에서는 ‘보광명전(普光明殿)’으로 나온다. 여기에서는 ‘보광당(普光堂)’이라 한다.

다음 동방에 세계해(世界海)가 있으니 이름이 정승광장엄(淨勝光莊嚴)이다. 그 가운데 불찰(佛刹)이 있으니 중보금강장(衆寶金剛藏)⁵⁾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에 각각 다른 이름을 설명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저 설(說)과 같다. 연화장을 제외한 십세계해(十世界海)를 말한 것이다. 세계해의 양(量)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다.

‘십주(十住)’와 ‘십행(十行)’과 ‘십회향(十迴向)’이란 앞에서 말한 십발취(十發趣) 등이다.

‘십선정(十禪定)’이란 이 경문의 차제로는 사선근(四善根)⁶⁾에 해당하며 한결같이 혜(慧)만 닦으므로 일부러 치우쳐 정(定)이라고 한다. 선나(禪那)는 중국말로는 적정(寂靜)이다. 저 십(十)은 무엇인가? 『화엄경』 「십정품(十定品)」에서 설한 것⁷⁾과 같다.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제오(第五) 「선품(禪品)」에 있는 십적정정선(十寂靜淨禪)이나 일세법적정청정선(一世法寂靜清淨禪)⁸⁾ 등과 같다. 저 십(十)이 무슨 의미인지 계송으로 말하겠다.

5)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2권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 2-1(大9 p.405c26) “爾時蓮華藏莊嚴世界海東，次有世界海，名淨蓮華勝光莊嚴，中有佛刹，名衆寶金剛藏。”이라 하고 그 아래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 2-2(大9 p.407a15)에서 십법계(十法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연화장(蓮華藏)’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6) 1권 133) 주(註) 참조.

7) 『대방광불화엄경』 40권 「十定品」 27-1(大10 p.212c9)의 十三昧 “普光大三昧，妙光大三昧，次第遍往諸佛國土神通大三昧，清淨深心行大三昧，知過去莊嚴藏大三昧，智光明藏大三昧，了知一切世界佛莊嚴大三昧，衆生差別身三昧，法界自在大三昧，無礙輪大三昧.”

8)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14 「선품(禪品)」(大30 p.988c6) “寂靜禪者有十種，一者世法寂靜淨，二者出世法寂靜淨，三者方便寂靜淨，四者根本寂靜淨，五者上寂靜淨，六者入寂靜淨，七者住寂靜淨，八者起寂靜淨，九者自在寂靜淨，十者煩惱智慧二障寂靜淨。如是十種寂靜淨，名爲淨禪。”이라 했다. 이 경에서는 일체선(一切禪)을 크게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으로 나누고 다시 이들을 공능으로 입선현재수락(入禪現在受樂)과 입선증장보리(入禪增長菩提)와 입선이익중생현재수락

루(漏)와 무루(無漏)와 근분(近分)과
근본(根本)과 승진(勝進)이며
입(入)과 주(住)와 출(出)과 변제(邊際)와
결택분(決擇分)의 열 가지니라.

述曰, 第二別化也, 各還本土, 別化衆故. 於中有二, 傳上賢聖, 內門行故, 傳初發心外門戒故. 初亦有二, 經家總序故, 別釋故. 此初也. 其三昧名, 如前已釋. 大小乘機, 所見不同, 菩薩衆見初成佛已, 往第四禪大自在天王宮, 放光接衆, 事盧舍那, 聽心地品, 還來樹下出定, 而說十世界海. 菩提樹者, 畢鉢羅樹, 在伽耶城, 西南二十四里. 金中精牢, 名曰金剛, 可宜金剛體之座也. 光中最勝, 名光王座. 妙光堂者, 卽華嚴云普光堂也, 因佛放光而立名也. 在摩伽陀國寂滅道場界, 去菩提樹三里也, 滅生死處, 名寂滅道場. 十世界海者, 華嚴第二云, “蓮華藏世界海, 次東方有世界海, 名淨勝光莊嚴. 中有佛刹, 名衆寶金剛藏.” 如是十方各說異名. 廣如彼說. 除蓮華藏, 言十世界海, 世界海量, 如前已說. 十住十行十迴向者, 卽前所說十發趣等. 十禪定者, 此文次第當四善根, 一向修慧, 故偏說定. 禪那此云寂靜. 其十者何. 如華嚴經十定品說. 善戒經, 第五禪品中, 有十寂靜⁹⁾淨禪, 一世法寂靜淨禪等. 彼十何義, 頌曰, 漏無漏近分, 根本與勝進, 入住出邊際, 決擇分爲十.

■ 이 상권(上卷)에 기준하면 ‘십금강(十金剛)’이란 곧 십회향(十迴向)이

(入禪利益衆生現在受樂)으로 분석한다. 여기에서 인용한 십적정정선(十寂靜淨禪)은 입선이익중생현재수락(入禪利益衆生現在受樂)에 포함된다.

9) 卍60 p.409b15에는 ‘淸’으로 되어 있으나 韓3p.442c2에는 ‘淨’으로 되어 있다.

다. ‘사천(四天, 도솔천)’에서 섰거늘 무엇 때문에 색계(色界)에서 ‘십회향’에 대하여 거듭 설하였는가? 북 병주(北井州)의 진장(眞藏)스님은 “색계에서 설한 것이 모든 지위에 공통으로 행해진다.”고 하였다. 『화엄경』 삼십구품(三十九品, 入法界品)에서 설하기를 “십금강심(十金剛心)이란, 보살이 이와 같은 마음을 내는 것이니 ‘내가 마땅히 삼세의 일체제법을 모두 남김없이 깨달아 요달하겠다.’ 하니 이것이 첫 번째 금강심을 일으키는 것이다.”¹⁰⁾ 라고 한 것과 같이 그 밖의 것도 자세히 설해져 있다.

‘십인(十忍)’이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인품(忍品)」에서 “청정한인(淸淨忍)에 열 가지가 있다.”¹¹⁾고 하였으니, 그곳에서 자세하게 설한 것과 같으며 또한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인품(忍品)」¹²⁾에서 설한 열 가

10)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39권 「이세간품(離世間品)」 33-4에(大9 pp.645a17-646a1) “佛子, 菩薩摩訶薩, 有十種發金剛心莊嚴大乘, 何等爲十. 所謂菩薩摩訶薩, 作如是念, 一切諸法無有分際, 不可究竟. 菩薩發如是心, 我當覺了三世一切諸法, 悉無有餘, 是爲菩薩摩訶薩第一發金剛心莊嚴大乘.”이라 하고, 이하 9종의 발금강심장엄대승(發金剛心莊嚴大乘)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11) 『유가사지론』 42권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 인품(本地分中菩薩地 15 初持瑜伽處 忍品)」 11(大30 p.525b15)에 “云何菩薩淸淨忍, 當知此忍略有十種. ① 謂諸菩薩, 遇他所作不饒益事, 損惱違越, 終不返報. ② 亦不意憤, 亦無怨嫌意 ③ 樂相續恒常現前, 欲作饒益先後無異 ④ 非一益已捨而不益 ⑤ 於有怨者自往悔謝 ⑥ 終不令他生疲厭已然後受謝, 恐其疲厭纔謝便受 ⑦ 於不堪忍, 成就增上猛利慚愧 ⑧ 依於堪忍於大師所, 成就增上猛利愛敬 ⑨ 依不損惱諸有情故, 於諸有情, 成就猛利哀愍愛樂 ⑩ 一切不忍并助伴法皆得斷故, 離欲界欲, 由此十相, 當知菩薩所修行忍淸淨無垢.”라고 한다.

12) 『보살선계경』 5권 「인품(忍品)」(大30 p.985b2)에서는 출가인(出家忍)과 재가인(在家忍)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공통적인 범주로 각각에 ① 능히 중생이 때리고 욕하는 등 일을 참음[忍衆生打罵等事] ② 능히 모든 고통을 참음[能自堪忍一切諸苦] ③ 참는것을 즐기는 선법[忍樂善法]이 있다고 한다. 또 보살이 관(觀)할 때 닦아야 할 인행으로써 ① 원수와 친한 이에 대하여 원친을 내지 않고 수행하는 인[於怨於親非怨親中修行於忍] ② 상중하인을 수집하는 인[於上中下人修集於忍]

지도 같다. ‘십원(十願)’은 『화엄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¹³⁾ 『발보리심경(發菩提心經)』은 아래에서 인용하여 해석하겠다.

準此上卷，十金剛者，卽十迴向。四天中說，何故色界重說迴向。北并州眞藏師云，“色界所說，諸位通行。”如華嚴三十九說，“十金剛心，謂菩薩發如是心，‘我當覺了三世一切諸法，悉無有餘。’是第一發金剛心。”乃至廣說。十忍者，瑜伽忍品云，“清淨忍有十。”如彼廣說，又善戒經，忍品說十。十願者，如華嚴說。發菩提心經，下當引釋。

□ 그 때 석가모니불께서 처음 나타내신 연화장세계로부터 동방에 오시어 천왕궁(天王宮)에 들어가 『마수화경(魔受化經)』을 설하여 마치시고 남염부제(南閻浮提) 가이라국(迦夷羅國)에 내려와 탄생[下生]하셨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야(摩耶)이시고 아버지의 자(字)는 백정(白淨)이시며 나의 이름은 싯달(悉達)이니라. 칠 년 동안 출가 수행하여 서른 살에 성도(成道)¹⁴⁾하니 나를 부르기를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라 하느니라.”

③ 괴로움,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수집하는 인[者於受苦受樂不苦不樂人中修集於忍] ④ 복덕이 있고 복덕이 없고 복덕이 없지도 않고 복덕이 없지도 않은 사람 가운데 수집하는 인[於有福德無福德非有福德非無福德人中修集於忍] ⑤ 일체악인 가운데 수집하는 인[於一切惡人中修集於忍]을 설하고 19종의 일체인(一切忍)과 9종의 자리아타인(自利利他忍)과 6종의 적정인(寂靜忍)을 설하고 결론에서 “이와 같은 십인을 구족한 보살은 능히 팔정도를 닦아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는다. 具足如是十忍菩薩，能修八正道，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고 하였다.

- 13)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현수보살품(賢首菩薩品)」 8-1(大9 p.433a12)에서는 발보리심의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於佛及法僧，深起清淨信敬三寶故，能發菩提心。不求五欲樂寶貨諸財利，亦不求自安希望世名聞，滅除衆生苦，令盡無有餘誓度。斯等類菩薩初發心，常欲令衆生，離苦永安樂，嚴淨一切刹，供養無量佛，樂立佛正法，欲得無上道，淨修一切智，菩薩初發心。”이라고 하였다.

하시었다.

적멸도량(寂滅道場)의 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에 앉은 이래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차례대로 열 곳의 머무른 곳에서 설한 것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범천왕(大梵天王)의 망라당(網羅幢)을 관찰하시고 이로 인하여 말씀하셨다. “한량없는 세계가 마치 무량세계의 그물코[網孔] 같아서 낱알의 세계가 각각 같지 않아 그 다름을 헤아릴 수 없나니 부처님 가르침의 문도 또한 다시 이와 같나니 내가 지금 이 세계에 팔천번을 다시 돌아왔느니라.”라고 하셨다.

爾時，釋迦牟尼佛，從初現蓮華藏世界，東方來入天王宮中，說魔受化經已，下生南閻浮提迦夷羅國，“母名摩耶，父字白淨，吾名悉達。七歲出家，三十成道，號吾爲釋迦牟尼佛。”於寂滅道場，坐金剛華光王座，乃至摩醯首羅天王宮，其中次第十住處所說。時佛，觀諸大梵天王網羅幢因爲說。“無量世界，猶如網孔，一一世界，各各不同，別異無量，佛教門亦復如是。吾今來此世界八千返。”

■ 두 번째 따로 해석함[別釋]이다. 어떤 이가 의심하여 말하기를, “처음 성불(成佛)하시고 나서 언제 설하신 것인가?”라고 물으므로 지금 해석하겠

14) 홍찬(弘贊)스님의 해석을 참조해 보면, ‘칠세출가 삼십성도(七歲出家 三十成道)’는 ‘일곱 살에 출가하여 서른 살에 성도(成道)하니’라고 새기면 안 된다고 한다. 7년의 수행 가운데 처음 1년은 여러 선지식을 참예하고 그 후 6년간은 고행하였으므로 합하여 7년간의 출가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근거하면 24세에 첫 출가설이 해당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뒤에 나오는 태현스님의 『범망경고적기』에서도 “일곱 살에 출가하였다 함은 이 경전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니 이미 결혼한 뒤 비로소 출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다. ‘이 화신(化身)이신 석가모니께서 처음 연화계의 본불(本佛)을 따라 나투어 동쪽으로 와서 도솔천궁에 들어가시어 『마수화경(魔受化經)』을 설해 마치시고 하생(下生)하여 모태에 들어가서, 나를 부르기를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라고 하느니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성도(成道)를 든 것이다.

다른 여러 경전에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마(魔)를 항복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경에서는 “『마수화경(魔受化經)』을 설해 마치시고 비로소 하생(下生)하였다.”고 하는가? 이를 해석하면 마(魔)의 무리가 하나가 아니므로 교화에도 앞뒤가 있는 것이다. 『대집경(大集經)』에서도 “마왕(魔王)이 백억이나 있다.”고 함과 같다. 만약 한꺼번에 이미 조복(調伏)하여 다시 다른 마(魔)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누가 결집(結集)을 어지럽혔단 말인가? 힘의 수승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때때로 마군을 항복받는 것[降魔]이니 마치 『화엄경』에서 “보살 공덕의 힘은 무너뜨릴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다.”¹⁵⁾라고 한 것과 같다.

‘염부제(閻浮提)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태에 드는 모습[入胎相]이다. 범어(梵語)로 ‘점부(瞻部)’인데 중국어로 승금(勝金)이다. 『아함경(阿含經)』의 「염부제품(閻浮提品)」에 ‘염부수(閻浮樹) 아래에 금(金)이 있는데 두께가 사십유순(四十由旬)이므로 이름을 승금(勝金)이라 한다.’ 하니 금(金)가운데 뛰어나기 때문에 곧 염부단금(閻浮檀金)이라 한다. ‘마하마야(摩訶摩耶)’는 중국어로 대술(大術, 큰 환술)이다.

‘일곱 살에 출가하였다’는 것은 이 경전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니 이미 결혼한 뒤 비로소 출가하였기 때문이다. 「서역전(西域傳)」¹⁶⁾에서 말하기

15)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23권 「십지품(十地品)」 22-1(大9 p.545a3) “念諸菩薩力, 不可壞故, 生歡喜心.”이라 하여 환희심(歡喜心)은 제보살을 생각하는 염력이 끊어지지 않는 집중력에서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6) 「서역전(西域傳)」은 『북사(北史)』 제97편의 「서역전(西域傳)」을 말한다. 『북사(北

를 ‘모든 부(部)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그 바른 뜻[正義]은 『금광명경(金光明經)』의 기록과 같다.

‘적멸도랑(寂滅道場)’ 이하는 때[時]를 나타낸 것이다. 성불하고 나서 제사전(第四禪)¹⁷⁾에서 노사나불을 섬기며 심지법(心地法)을 받고는 도랑으로 돌아와서 십세계해(十世界海)를 차례대로 앞에 설한 것처럼 ‘열 곳의 머무른 곳[十住處]’을 지나면서 설하시고, 그 밖에 열 번째 마해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¹⁸⁾에 이르러 심지(心地)를 설할 때 여러 대범왕(大梵王)들이 망라당(網羅幢) 공양을 올린 것이다. 이로 인하여 법을 설하시고, 내지 ‘내가 지금 이 세계에 팔천 번을 다시 돌아왔다.’고 말한 것이다.

述曰，第二別釋，謂有疑云，“從初成佛，何時說耶。”故今釋云，此化釋迦，初蓮華界從本佛現，自東來入兜率天宮，說魔受化經已，下生入胎，乃至號吾釋迦牟尼佛，此舉成道也。餘諸經云樹下降魔，云何此經魔受化已，方始下生。解云，魔衆非一，化有前後，如大集經云，“魔王有百億。”若一已伏，更無餘者，

史)』는 총 일백 권으로 당(唐) 나라 때 이연수(李延壽)가 지은 책으로 북조(北朝)의 위(魏)나라에서 수(隋)나라에 이르는 4대 240여 년간의 역사서이다. 이 책은 “우전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불법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사찰과 탑과 승려들이 대단히 많았다. 특히 왕은 불법을 신봉하여 육제일을 지키고 제단에 바칠 곡물이나 과일을 손수 씻었다고 한다.”는 등의 기록을 예로 들어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서역 불교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大漢和辭典 02-0450 참조)

17) 제사전(第四禪)은 색계 사선천(色界 四禪天)이다. 여기에 무운(無雲)·복생(福生)·광과(廣果)·무상(無想)·무번(無煩)·무열(無熱)·선현(善現)·선견(善見)·색구경(色究竟)의 9천이 있다. 곧 이 하늘은 심(尋)·사(伺, 思慮分別)와 수(受, 喜樂情) 등을 버려서 마음이 평정(平靜)·등정(等正)한 경계인 제4선정에 의해 태어나는 하늘이다.

18) 마해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은 마해수라천의 궁전을 말한다. 마해수라천은 색계 사선천(色界 四禪天)의 제일 위에 있는 색구경천(色究竟天, ㉔Akaṇiṣṭhadeva)으로 음역해서 아가니타천이라고도 한다.

佛滅度後，誰亂結集。爲顯力勝，時時降魔，如華嚴云，“爲顯菩薩功德之力，不可壞故。”下閻浮提者，入胎相也。梵云瞻部，此云勝金。如阿含經閻浮提品，閻浮樹下有金，厚四十由旬，號曰勝金。金中勝故。卽閻浮檀金也。摩訶摩耶，此云大術。七歲出家等者，此經應錯，旣說娶婦，方出家故。西域傳云，“諸部見聞不同也。”其正義者，如金光明記。寂滅道場已下顯時。謂成佛已，從第四禪，事盧舍那，受心地法，還來道場，說十世界海，如次前說歷十住處，乃至第十摩醯首羅天王宮中，說心地時，諸大梵王供網羅幢。因此說法，乃至告言，吾今來此世界八千返。

□ 이 사바세계를 위하여 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에 앉아 그 밖에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을 열어 마쳤노라.

다시 천왕궁으로부터 염부제의 보리수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땅 위의 모든 중생과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근본이신 노사나불의 심지 가운데서 초발심(初發心) 때에 항상 외우시던 일계(一戒)를 설하였느니라.

爲此娑婆世界，坐金剛華光王座，乃至摩醯首羅天王宮，爲是中一切大衆，略開心地法門品竟。復從天王宮，下至閻浮提菩薩樹下，爲此地上一切衆生凡夫癡暗之人，說我本盧舍那佛心地中，初發心中，常所誦一戒。

■ 큰 단락인 두 번째 악행을 경계하는 문[誠惡行門]이다. 그 가운데 세가지가 있으니 개서분(開序分)과 정설분(正說分)과 유통분(流通分)이다.

첫 번째에 세 가지가 있으니 시처(時處)와 권책(勸策)과 결계(結戒)이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경가(經家)의 서(序)로서 시(時)와 처(處)이다. 이 사바세계를 교화하기 위하여 ‘금강좌(金剛座)’로부터 ‘제사선(第四禪)’에 이르기까지는 교화할 무리이기 때문이다. 심지(心地)를 설해 마치시고 다시 나무 아래로 돌아와 비로소 아래와 같은 보살계본(菩薩戒本)을 설하신 것이다. 계(戒)는 죄의 어두움을 깨뜨리므로 광명이라고 한다.

述曰，大段第二誡惡行門．於中有三，開序故，正說故流通故．初亦有三，時處故，勸策故，結戒故．此初經家序時處也．爲化此娑婆界，從金剛座，乃至四禪，所化類故．說心地竟，復還樹下，始說如下菩薩戒本．戒破罪闇，名爲光明．

(2) 꾸짖어 분발하게 함 策發

□ 광명금강보계(光明金剛寶戒)는 모든 부처의 본원(本源)이며 모든 보살의 본원이며 불성종자(佛性種子)니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니, 일체 의(意)와 식(識)과 색(色)과 심(心)과 정(情)과 심(心)이다. 모두 불성계(佛性戒)에 들어가 당당하게 항상하는 인(因)이 있으므로 당당하게 항상 머무르는(住) 법신(法身)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열 가지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¹⁹⁾가 세상에 나왔으니, 이 법

19)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rātimokṣa, [p]ātimokkha)란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의 조문을 모아 놓은 것. 계율의 조문 하나하나를 학처(學處, [p]sikkhāpada)라고 하며, 이 학처들을 모아 놓은 조문집을 바라제목차라 한다. 바라제목차(波羅帝墓叉)라고도 음사하며, 계본(戒本)·계경(戒經)·해탈계경(解脫戒經), 혹은 조문 하나하나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행인 살생·도둑질·음행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행인 양설·악구·기어·망어로 부터 벗어나 번뇌를 떨치고 해탈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별해탈(別解脫)·처처해탈(處處解脫)이

다운 계[法戒]를 삼세 모든 중생이 정수리에 이고 받아 지닐지니라[頂戴受持]. 내가 지금 마땅히 이 대중들을 위하여 거듭 「십무진장계품(十無盡藏戒品)」을 설하리니, 이것은 일체중생의 계(戒)로써 본원자성(本源自性)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니라.

光明金剛寶戒，是一切佛本源，一切菩薩本源，佛性種子。一切衆生，皆有佛性，一切意識色心，是情是心。皆入佛性戒中，當當常有因故，有當當常住法身。如是十波羅提木叉，出於世界，是法戒，是三世一切衆生，頂戴受持。吾今當爲此大眾，重說十無盡藏戒品，是一切衆生戒，本源自性清淨。

■ 두 번째 범왕이 권하시고 책려함[法王勸策]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꾸짖어 분발케 함[策發]과 믿기를 권하는 것이다[勸信]. 이 부분은 첫 번째이다. 부처님께서 계를 들어 ‘금강보(金剛寶)’라 한 것은 능히 모든 공덕을 견고하게 지니어 새거나 잃어버리지[漏失] 않게 하며 온갖 악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인과의 만 가지 덕은 계(戒)로써 처음을 삼기 때문에 ‘본원(本源)’이라고 이름하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해석한 것과 같다. ‘불성종자(佛性種子)’란 계(戒)의 실다운 성품[實性]이다.

‘의(意)’는 말나식(末那識)²⁰⁾이고 ‘식(識)’은 곧 육식(六識)²¹⁾이며 ‘십

라 한역한다. 각 부파의 율장마다 조문 수에 차이가 있는데, 『사분율(四分律)』의 경우에는 비구 250 계, 비구니 348 계이다. 비구 250 계는 사바라이(四波羅夷, Ṭpārājikā), 십삼승잔(十三僧殘, Ṭsaṃghādisesā), 이부정(二不定, aniyatā), 삼십사타(三十捨墮, Ṭnissaggiyā pācittiya), 구십바일제(九十波逸提, Ṭpācittiya), 사바라제제사니(四波羅提提舍尼, Ṭpāṭidesaniyā), 백중학(百衆學, Ṭsekkhiyā), 칠멸쟁(七滅諍, Ṭadhikaraṇasamathā)으로 이루어지며, 비구니 348 계는 8바라이, 17승잔, 30사타, 178바일제, 8바라제제사니, 100중학, 7멸쟁으로 이루어진다.

20) 의(意, Ṭmanas)는 제7식으로서 사랑(思量)이라는 뜻으로, 제6의식과 혼란을 피

(心)’은 제팔식(第八識)²²⁾이며 ‘색(色)’은 곧 오근(五根)이다. 대체로 이와 같은 정(情)과 심(心)이 있으므로 다 불성(佛性)에 들어가 장차[當來]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당하게 항상하는 인(因)이 있으므로, 당당하게 항상 머무는[住] 법신이 있다.’ 삼보리(三菩提)의 인(因)이므로 거듭 ‘당당(當當)’이라 말하며 그 당연한 과(果)와 인(因)이 으레 있기 때문에 보신(報身)과 화신(化身)과 상주하는 법신(法身)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열 가지 계가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하는 말이 세간에 나온 것이니, 이것이 곧 법다운 계(戒)이므로 마땅히 받아 지녀야 한다. 이로 인하여 스스로 불성과(佛性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대중들을 위하여 전하여 설하기를 ‘일체중생이 계(戒)로써 본원자성(本源自性)을 청정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한 것이니 계의 실다운 성품을 들어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佛性)이 있으므로 성불

하기 위하여 범어를 음역해서 말나식(末那識)이라 한다. 근본식인 아뢰야식을 자아(自我)라고 집착하고, 결국 아치(我癡)·아견(我見)·아만(我慢)·아애(我愛)의 네 가지 번뇌와 상응하는 심층적 자아의식이다.

- 21) 의식(意識, ⑧mano-vijñāna)이란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는 우리의 의식(意識)을 6종으로 분류하였다. 시각적 지각인 안식(眼識), 청각적 지각인 이식(耳識), 후각적 지각인 비식(鼻識), 미각적 지각인 설식(舌識), 촉각적 지각인 신식(身識)의 다섯 가지 지각을 종합해서 다음 찰나에 하나의 개념지로 형성하는 판단적 인식으로서 의식을 말한다.
- 22) 심(心, ⑨citta)은 제8식으로서 아뢰야식(阿賴耶識, ⑩ālayavijñāna) 또는 아리야식이라고 한다. 아뢰야식은 현행하는 번뇌가 그의 잠재력을 저장해 놓은 창고라는 의미에서 장식(藏識)이나 택식(宅識)이라고 번역하거나, 또한 일체의 종자를 가진 식이라는 의미에서 일체종자식, 과거업의 과보의 담당자라는 의미에서 이숙식으로도 불린다. 아뢰야식은 마나스에 의해 자아로서 집착하나 결코 자아가 아니다. 아뢰야식 자체도 항상 조건에 따라 생멸하는 식의 흐름으로서, 비록 상대적으로 지속적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하더라도 결코 시간적 경과 속에서 불변하는 동일자로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다.

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述曰, 第二法王勸策. 於中有二, 策發故, 勸信故. 此初也. 佛舉戒云, 金剛寶者堅牢, 能持一切功德, 令不漏失, 破諸惡故. 因果萬德, 以戒爲初, 名曰本源, 如下廣釋. 佛性種子者, 戒實性也. 意謂末那,²³⁾ 識卽六識, 心謂第八, 色卽五根. 凡有如是情及心者, 皆入佛性, 當得作佛. 所以者何, 當當常有因故, 有當當常住法身. 三菩提因, 重言當當, 其當果因, 法爾有故, 有當當報化及常住法身. 如是十戒, 出於世界等者, 釋迦傳說, 出現於世, 則是法戒. 應受持也. 由此顯自佛性果故. 故今爲此大衆傳說, 言一切衆生戒, 本源²⁴⁾ 自性清淨者, 舉戒實性, 表諸衆生皆有佛性, 故得成佛也.

(3) 믿기를 권함 勸信

■ 이 아래 십일 송 반(十一頌半)은 두 번째 믿기를 권하는 것[勸信]이다. 믿음은 법에 들어가는 근본이며 계는 법에 머무르는 근원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계송을 설해서 계(戒)를 믿게 한다. 그러나 보살계에 간략하게 삼문(三門)이 있으니 ①수득문(受得門)이고 ②호지문(護持門)이며 ③범실문(犯失門)이다.

已下十一頌半, 第二勸信. 信爲入法之本, 戒爲住法之原. 所以說偈, 更令信戒. 然菩薩戒, 略有三門, 一受得門, 二護持門, 三犯失門.

23) 卍60 p.410b17과 大40 700a7-8에는 '那末'로 되어 있으나 韓3 p.443c4에는 '末那'로 되어 있다.

24) 卍60 p.411a8과 大40 p.700a15와 藥師寺藏本에는 '原'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3c13에는 '源'으로 되어 있다.

(1) 받는 문 受得門

■ 첫 번째 받는 자[受得者]는 육도(六道)의 중생으로서 ‘다만 법사(法師)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이다. 반드시 먼저 대보리심(大菩提心)을 내어야 하니 ‘결정코 위없는 보리[無上菩提]를 가지고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유정(有情)을 이롭고 즐겁게 하겠다.’고 맹서(盟誓)해야 한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 “보리심은 결정코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 써 행상을 삼는다.²⁵⁾ 그러므로 위없는 보리는 모든 유정의 의로운 이익[義利]을 경계로 삼는다.”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 마음을 내고 나면 두 가지로 받을 수 있다.

初受得者，六道衆生，但解師語。要須先發大菩提心，謂誓定取無上菩提，窮未來際利樂有情。如瑜伽云，“菩提心者，決定希求以爲行相，故無上菩提，一切有情義利爲境。”發此心已，有二種受。

25) 『유가사지론』 35권 「本地分中菩薩地」 15 「初持瑜伽處發心品」 2(大30 p.480b25)
“復次菩薩最初發心，於諸菩薩所有正願，是初正願善能攝受。其餘正願是故發心，以初正願爲其自性。又諸菩薩起正願心，求菩提時發如是心，說如是言，願我決定當證無上正等菩提，能作有情一切義利，畢竟安處究竟涅槃，及以如來廣大智中，如是發心定自希求無上菩提，及求能作有情義利。是故發心以定，希求爲其行相。又諸菩薩緣大菩提，及緣有情一切義利，發心希求非無所緣。是故發心以大菩提，及諸有情一切義利爲所緣境。又諸菩薩最初發心，能攝一切菩提分法，殊勝善根爲上首故。是善極善是賢極賢是妙極妙，能違一切有情處所，三業惡行功德相應。又諸菩薩最初發心，所起正願於餘一切，希求世間出世間義妙善正願，最爲第一最爲無上。”

① 일부분만 받기도 하고 一分受

■ 첫 번째 일부분만 받는 것[一分受]은 그 받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의지[意樂]에 따라 혹 일계(一戒)만 받거나 혹 여러 계를 받기도 한다. (부분이건 전체건) 모두 계(戒)가 성립되면 ‘보살(菩薩)’이라고 이름 한다. 이는 성문이라면 반드시 모든 계를 수지해야 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만약 일부분의 계만 받는다면 ‘비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현재 몸[現身]으로 아라한과를 얻어 궤칙(軌則)을 원만하게 하고 학처(學處)를 건립하려면 십계(十戒)와 구족계(具足戒)를 각자 반드시 모두 받아야 한다. 만약 범부거나 성인이 하나의 궤칙[一軌]만 수학(受學)하면 이 뜻으로 인하여 사람됨의 그릇을 간택(簡擇)하게 된다. 차난(遮難)²⁶⁾이 있는 이와 다른 취[餘趣]의 중생은 제외된다.

보살은 그렇지 아니하여 분에 따라 계를 받는데[隨分戒], 반드시 현신(現身)에 성불하려고 하지 않고 무수대겁(無數大劫)을 지나면서 닦기를 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말을 알아듣는 단계부터 금강위(金剛位)에 이르기까지 그 위(位)와 능력을 따라 차차 수행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마치 산과 바다가 티끌과 거품으로부터 시작하여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이미 대보리(大菩提)가 덕(德)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으니, 그 무더기

26) 차난(遮難)이란 승가에 입단을 허락할 수 없는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차(遮)는 십육경차(十六輕遮)를 말하고 난(難)은 십삼중난(十三重難)을 말한다. 차난은 『사분율산변보결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上(大40 p.28c)의 말이다. 『사분율』 권35(大22 p.814c)에는 십삼난사(十三難事)가 있으며, 그 외에 난사가 열 가지 더 있으므로 『사분율산변보결행사초』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이것을 십차(十遮)라고 부르고, 십삼난사(十三難事)와 합해서 십차(十遮), 십삼난(十三難)이라고 하였다. 『십송율(十誦律)』 권21(大23 p.156a)에는 이들의 난사를 ‘차도법(遮道法)’이라 부르고 있고,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권23(大22 p.413b)에는 ‘차법(遮法)’이라 하고, 『오분율(五分律)』 권17(大22 p.119c)에는 ‘난사(難事)’라고 한다.

[聚]를 이루려 함에 어떤 선(善)인들 인(因)이 아니겠는가? 곧 이 뜻으로 인하여 육취의 중생을 가리지 않고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듣고 마음을 내면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²⁷⁾

비록 말을 알아듣고 오직 일계(一戒)만 받는다 하여도 이승(二乘)의 일체공덕보다 수승하다고 하였으니, 아라한의 공덕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므로 유정계(有情界)에 조그마한 은혜[恩分]도 없으나, 보살의 일계는 일체를 제도하므로 한 중생도 은혜를 입지 않음이 없다.

一者，一分受，隨其受者意樂所堪，或受一戒或多，皆得成戒，名爲菩薩。不同聲聞，必總受持。若其一分，不名比丘。謂令現身得阿羅漢，圓滿軌則，建立學處，十戒具戒，各必總受。若凡若聖，受學一軌，卽由此義簡擇人器。除有遮難及餘趣也。菩薩不爾，隨分戒故，謂凡必無現身成佛，要經無數大劫修故。從但解語，乃至金剛，隨其位力，漸漸修滿。如成山海，塵滯爲初。旣大菩提無德不攝，欲成彼聚，何善非因。卽由此義，不擇趣生，但解師語，發心皆得。雖但解語，唯受一戒，猶勝二乘一切功德。羅漢功德，但爲自身，於有情界，無有恩分，菩薩一戒爲度一切，無一衆生不荷恩故。

27) 태현의 『보살계본중요』(大45 pp.915a13-918a24, No.1906)에서는 이 부분을 “첫째, 능히 이룬다는 것은 경에 이르기를 ‘모든 마음을 가진 자는 다 마땅히 불계(佛戒)를 섭지(攝持)해야 한다.’ 이를테면 무상승(無上乘)은 지극히 심오하고 지극히 광대하니, 지극히 심오하기 때문에 다하기가 진실로 어렵고, 지극히 광대하기 때문에 일체가 인을 이룬다. 하나의 티끌과 작은 물방울이 산과 바다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제불께서 계를 제정하심에 결림이 없으니, 다만 말을 알아듣는 이들이 일으킨 마음은 종성의 힘[種姓力]으로 인하여 다 인(因)을 이루기 때문이다. 一能成者，如經曰，一切有心者，皆應攝佛戒。謂無上乘，至深至廣，以至深故，極之良難，由至廣故，一切成因。一塵微滯山海本故。由此諸佛制戒無礙，但解語者，所發之心，由種姓力，皆成因故。”라고 한다.

② 모두 받기도 全分受

■ 두 번째 모두 받는 것이니[全分受] 삼취계(三聚戒)²⁸⁾를 말한다. 섭율의(攝律儀)란 모든 악(惡)을 끊는 것이다. 악은 모두 당연히 끊어 버려야 할 법이다. 초발심에서 살생 등을 끊는 일에서 시작하여, 삼현(三賢)과 십성(十聖)에서 이장(二障)²⁹⁾을 끊고, 부처에 이르러 생사법(生死法)을 버리기 때문이다.

섭선계(攝善戒)란 온갖 선(善)을 닦는 것이다. 선은 모두가 당연히 닦고 증득해야 할 법이며 초발심부터 분(分, 처지)을 따라 배워야 할 것이다. 삼현(三賢)과 십성(十聖)은 각각 십승행(十勝行)³⁰⁾을 하며, 그 밖의 부처는

28) 삼취계(三聚戒)는 삼취정계(三聚淨戒) 또는 삼종정계(三種淨戒)라고도 한다. 삼취정계는 초기불교에서 부파불교에 걸친 전통적인 교단에서 재가신자는 삼귀·5계를 받고, 사미·사미니는 10계를 받고, 정학녀는 6계, 비구·비구니는 구족계를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성문계가 율의계(律儀戒) 뿐인 것에 대하여, 보살계는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가 첨가된다. 이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선(善)을 행하는 계의 입장이다. 『화엄경』 권27(大10 p.149b22-c8)의 제2 이구지(離垢地)에 삼취정계라는 말이 있다. “항상 스스로 삼종정계에 안주하며 또한 중생에게 이와 같이 안주하게 한다. …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삼취정계에 머물러 영원히 살업(殺業)을 끊은 선근회향이라 한다. 常自安住三種淨戒, 亦令衆生如是安住, … 是爲菩薩摩訶薩, 住三聚淨戒永斷殺.” 그리고 『유가사지론』 권40(大30 p.511a14-20)에 “즉 재가와 출가의 둘로 나눈 정계(淨戒)를 간략히 세 가지로 요약하여 설하면 ① 율의계 ② 섭선법계 ③ 요익유정계라고 한다. 율의계란 이른바 모든 보살이 받은 칠중(七衆)의 별해탈율의이니 즉 이것은 비구계·비구니계·정학계·근책계·근책녀계·근사남계·근사녀계이다. 이와 같은 7종을 의지하여 재가·출가로 이분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 이것을 보살의 율의계라고 한다. 卽依此, 在家出家二分淨戒, 略說三種, 一律儀戒, 二攝善法戒, 三饒益有情戒. 律儀戒者, 謂諸菩薩所受, 七衆別解脫律儀, 卽是苾芻戒, 苾芻尼戒, 正學戒, 勤策男戒, 勤策女戒, 近事男戒, 近事女戒. 如是七種依止, 在家出家二分, 如應當知, 是名菩薩律儀.”라고 하였다.

29) 1권 80) 주(註) 참조.

이전의(二轉依)³¹⁾를 증득(證得)하기 때문이다.

요익유정(饒益有情)이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초발심(初發心)부터 분(分)에 따라 교화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체를 제도(濟度)하기 때문이다. 모든 범부가 금방[卽] 일체에 능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삼취정계를 단번(頓)에 맹서해도 점차로 닦아서 완만해진다.

이와 같이 걸림 없이 일으킨 원행(願行)은 모든 원행 가운데 가장 위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곳마다 마음이 그 가운데 왕(王)이 된다. 그러나 필경에 과(果)를 삼을 만한 것은 없다. 다만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만은 제외된다.

30) 십승행(十勝行)은 보살이 행하는 수승한 십바라밀이다. 보살이 초지에서 십지(十地)까지 수습위에서 닦는 수승한 행이므로 십승행이라고 한다.

31) 이전의(二轉依)는 2종의 전의(轉依, āśrayaparivṛtti / āśrayaparāvṛtti)로 소의(所依)의 변화과정을 의미하며 나아가 깨달음의 최종 목표로서 궁극의 상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번뇌 또는 번뇌와 결합된 제법이며, 또는 아뢰야식에서 소의를 찾을 수 있다. 깨달음의 범은 열반 또는 보리를 말한다. 소의(所依)라고 하는 것은 신체·개체·개인존재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나, 개체의 중심원리인 점에서 아뢰야식과 일치한다.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述記)』는 『성유식론(成唯識論)』 권9의 이전의(二轉依)를 대열반(大涅槃)과 대보리(大菩提)로 이해하는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번뇌라는 장애를 배제하고 열반을 획득하고,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장애를 배제하고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또 유식을 성립시키는 것은 수행자가 두 가지 전의(轉依)의 과(果)를 증득하는 것이다. 『성유식론(成唯識論)』 권9(大31 p.51a7-9)에 의하면, “번뇌를 전환하여 대보리를 얻고, 소지장을 전환하여 대열반인 무상각(無上覺)을 증득한다. 유식의 뜻이 성립된 것은 유정에게 이와 같은 두 가지 전의(轉依)의 과(果)를 증득토록 하기 때문이다. 由轉煩惱得大涅槃, 轉所知障證無上覺, 成立唯識意爲有情, 證得如斯二轉依果.” 그리고 『성유식론(成唯識論)』 권9(大31 p.51a20-21)에 “무엇이 두 가지의 전의를 증득하는 것인가? 십지(十地) 가운데 열 가지 뛰어난 수행인 십승행(十勝行)을 닦고, 열 가지 무거운 장애인 십중장(十重障)을 끊어 열 가지 진여를 증득한다. 두 가지의 전의에 의거하여 깨달음을 증득한다. 云何證得二種轉依, 謂十地中修十勝行, 斷十重障證十眞如, 二種轉依由斯證得.”라고 했다.

二者, 全分受, 謂三聚戒. 攝律儀者, 斷一切惡. 惡謂一切應斷捨法. 從初發心, 斷殺生等, 三賢十聖, 伏斷二障, 乃至佛捨生死法故. 攝善戒者, 修一切善. 善謂一切應修證法, 從初發心隨分所學. 三賢十聖, 各十勝行, 乃至佛證二轉依故. 饒益有情者, 度一切衆生. 從初發心, 隨分教化, 窮未來際, 度一切故. 非諸凡夫即能一切, 三聚頓誓, 漸修滿故. 如是無礙所發願行, 於諸願行最無上故, 隨所生處必³²⁾其中王. 然無畢竟堪爲其果, 唯除無上正等菩提.

(2) 보호하여 잘 지키는 문 護持門

① 마음을 따르는 문 隨心門

■ 두 번째, 수호하여 지니는 문[護持門]이니 간략히 열 가지 문(門)이 있다. 첫 번째, 마음으로 따르는 문[隨心門]이니 저 속세의 습기를 따라 마음이 즐겁게 머무르기 때문이다. 마치 세간이 그 본래의 색[本色]을 따름에, 비록 한 방울의 물이라 하더라도 쌓이면 녹색(綠色)과 푸른색[碧色] 등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먼저 한 가지를 견고하게 해야 점점 다른 행도 갖추어진다.

『본업경(本業經)』에서 “만약 일계(一戒)만 받으면 일분보살(一分菩薩)이라고 이름하며, 그 밖에 갖추어 받으면(具受) 구분보살(具分菩薩)이라고 한다.”³³⁾고 한 것과 같다. 그러나 부처님이 제정하신 것은 점차적으로

32) 大40 p.700b25와 藥師寺藏本에는 ‘心’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4b6에는 ‘必’로 되어 있다.

33)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하권 「대중수학품(大衆受學品)」 7(大24 p.1021b16)에 “有受一分戒, 名一分菩薩, 乃至二分三分四分, 十分名具足受戒.”라 하여 십중대계를 십분 구축하게 갖춘 자라는 의미로써 ‘구분보살(具分菩薩)’이라고 한다.

두루 배워야 하는 것이다.

第二護持者，略有十門。一隨心門，隨其宿習，心樂住故。猶如世間，隨其本色，雖一蘊水綠碧等異。故先固一漸具餘行。如本業云，“若受一戒，名一分菩薩”乃至具受，名具分菩薩故。然佛所制，應漸徧學。

② 두루 배우는 문 徧學門

■ 이로 인하여 두 번째, 두루 배우는 문[徧學門]이 있다. 『유가사지론』에서 “성문(聲聞)의 자리(自利)조차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거늘, 하물며 보살로서 이타(利他)를 우선 함이라.”³⁴⁾ 하였다. 그러므로 마땅히 여러 비방과 혐의하는 것을 막는 계[譏嫌戒]³⁵⁾마저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는 “새로 배우는 보살[新行菩薩]은 한 생[一世]에서 일시(一時)에 다섯 바라밀[五度]을 모두 행할 수는 없다. 마치 삼의(三衣)를 지키면서 보시 등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³⁶⁾ 고 한다.

由此第二有徧學門。如瑜伽說，“聲聞自利，尚護他心，況諸菩

34) 『유가사지론』(大30 p.517a11) “以諸聲聞自利爲勝，尚不棄捨將護他行，爲令有情未信者信，信者增長學所學處。何況菩薩利他爲勝 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

35) 식세기혐계(息世譏嫌戒)는 그 성품은 본래 죄가 아니나 세간의 비방을 막기 위하여 제정한 계로서 성계(性戒)를 제외한 것이다.

36) 지계행(持戒行)과 보시행(布施行)의 실천에 따른 충돌을 상정한 질문이다. “계를 지키려 할 때, 누군가 와서 삼의(三衣) 가운데 한 가지를 요구하나 주지 않으면, 계는 지키는 것이 되나, 보시행은 지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여기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답의 내용을 연결해서 뜻만 취한 것이다. 『대지도론』 16권 「석초품중비리아바라밀의(釋初品中毘梨耶波羅蜜義)」 27(大25 p.179b23)에 “問曰，若行戒波羅蜜時，若有人來，乞三衣鉢盂，若與之則毀戒。何以故。佛不聽故若不與則，破檀波羅蜜。精進云何遍行五事。答曰，若新行菩薩，則不能一世一時遍行五波羅蜜。” 라고 했다.

薩，利他爲先。”故應徧護，諸譏嫌戒。然智論云，“新行菩薩，不能一世一時徧行五度，如護三衣，不能施等。”

③ 성계를 따르는 문 隨性門

■ 이로 인하여 세 번째, 성계(性戒)를 따르는 문[隨性門]이 있으니 서로 다른[相違] 학처(學處)가 앞에 나타날 때에는 다만 성계(性戒)만 지키고 차계(遮戒)는 놓아두기 때문이다. 마치 『섭대승론(攝大乘論)』에서 “보살의 성죄(性罪)는 현행(現行)하지 않으므로 성문과 함께 하나, 차죄(遮罪)는 서로 비슷하게 현행하므로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³⁷⁾고 한 것과 같다. 그러나 『유가사지론』은 “만약 수증한 이익이 있다면 성죄(性罪)도 현행(現行)할 수 있다.”³⁸⁾고 한다.

由此第三有隨性門，相違學處，現在前時，唯護性戒，縱遮戒故。如攝大乘，“菩薩性罪，不現行故，與聲聞共，相似遮罪有現行故，與彼不共。”然瑜伽云，“若有勝利 性罪現行。”

37) 『섭대승론(攝大乘論)』에서 계학(戒學)의 차별(差別)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살과 성문의 공계(共戒)와 불공계(不共戒)를 성죄(性罪)와 차죄(遮罪)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타선다(佛陀扇多)역 『섭대승론』 하권 「입인과수차별승상(入因果修差別勝相)」 5(大31 p.126c28) “共學處戒者，是菩薩遠離性罪戒。不共學處戒者，是菩薩遠離制罪所立戒。此戒中或聲聞是處有罪，菩薩於中無罪。或菩薩是處有罪，聲聞於中無罪。菩薩有治身口意，三品爲戒。聲聞但有治身口爲戒，是故菩薩有心地犯罪，聲聞則無此事。若略說所有身口意業事，能生衆生利益無有過失。此業菩薩，皆應受學修行。如此應知共不共戒差別。”이라 하였고, 현장(玄奘) 역 『섭대승론』 하권 「괴수차별분(彼修差別分)」 6(大31 p.146a28)에서는 “本共不共學處殊勝者，謂諸菩薩一切性罪不現行故，與聲聞共相，似遮罪有現行故，與彼不共。”이라 한다.

38)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5b) “善權方便爲利他故，於諸性罪少分現行。由是因緣於菩薩戒，無所違犯生多功德。”

④ 은밀한 문 隱密門

■ 이로 인하여 네 번째, 은밀한 문[隱密門]이 있으니 『섭대승론(攝大乘論)』에서 “십악(十惡)을 행(行)한다.”³⁹⁾고 함과 같다.

이에 『유가사지론』에서는 칠비(七非)⁴⁰⁾만 전개(展開)한다. 그러나 세번째만은 성죄(性罪)가 아니니, 남편이 없는 여인[無屬女]에게는 음행[欲行]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섭대승론』에서는 통상적으로 사행(邪行)을 허락하는데 이는 십악(十惡)을 말함으로써 이로온 행을 보여주려는 것이니 마치 살생계 등 하나를 따라 포섭하기 때문이다.⁴¹⁾ 그러나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에서는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뜻에서 탐욕(貪欲)을 일으키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화를 내는 것은 그와 달리 항상 남에게 손해[損]를 입힌다.”⁴²⁾라고 한다.

由此，第四有隱密門。如攝大乘，“行十惡故。”就中瑜伽，但開七非。然其第三，但非性罪，於無屬女，許欲行故。攝大乘論，

39) 십악(十惡)은 신구의(身口意)의 삼업으로 짓는 살생(殺生)·투도(偷盜)·사음(邪淫)·망어(妄語)·양설(兩舌)·악구(惡口)·기어(綺語)·탐욕(貪欲)·진에(瞋恚)·사견(邪見)을 말한다. 『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 下권 「증상심학분(增上心學分)」 8(大31 p.146b28) “甚深殊勝者，謂諸菩薩由是品類方便善巧，行殺生等十種作業，而無有罪生無量福，速證無上正等菩提。”

40) 칠비묘법(七非妙法) 또는 칠비법(七非法)이라고도 한다. 깨달음의 경지인 해탈·열반을 향하여 가지 않는 법이라는 뜻에서 비묘법(非妙法)이라고 하며, 불신(不信)·무참(無慚)·무괴(無愧)·해태(懈怠)·실념(失念)·부정(不定)·악혜(惡慧)의 7종을 말한다.

41) 『섭대승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상(戒相)을 나열하지 않고 사행(邪行) 또는 살(殺) 등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2)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6권 「인법품(忍法品)」 13(大31 p.623a16)의 “諸菩薩愛諸衆生，此名爲貪。”에 대한 중송(重頌)이다. 즉 보살이 중생을 사랑하는 것도 탐(貪)이지만 중생을 위한 것이므로 계(戒)를 어기는 등의 허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通開邪行，以言十惡，見利行故，如殺生等，隨一攝故。然莊嚴云，“由利羣生意，起貪不得罪，瞋則與彼違，恒欲損他故。”

⑤ 수승함을 따르는 문 順勝門

■ 이로 인하여 다섯 번째, 수승함을 따르는 문[順勝門]이 있다. 사랑[愛]은 대비(大悲)로 따르기 때문에 죄가 약하나, 성냄[瞋]은 그것과 서로 달라서 죄가 무겁다. 『유가사지론』에서 “이 여러 보살이 다분히 상응⁴³⁾하여 성냄을 함께 일으키면 범죄가 되나 탐욕으로 일으킨 것은 그렇지 않다.”⁴⁴⁾ 하니 그 외에 자세하게 설명한 것과 같다. 또 『대지도론』에서 “보살은 중생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으로 계를 삼기 때문에, 성문이 현세에 열반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음욕은 비록 중생을 괴롭히지는 않으나 마음을 얹어매기 때문에 대죄(大罪)로 삼은 것이다. 보살은 현세에 열반을 구하지 않고 생사를 오가며 자량(資糧)을 갖추기 때문이다.”⁴⁵⁾라고 한다.

그러나 『유가사지론』에서는 “만약 그것을 끊고자 기꺼이 뜻[意樂]을 일으켜 부지런히 정진(精進)하는데 번뇌가 치성하여 그 마음을 억눌러 화를

43) 상응(相應)이란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반드시 상응하여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44)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21b19) “又於菩薩犯戒道中，無無餘犯。如世尊說，是諸菩薩，多分應與瞋所起犯。非貪所起，當知此中所說密意，謂諸菩薩愛諸有情，憐諸有情增上力故，凡有所作，一切皆是菩薩所作，非非所作，非作所作可得成犯。若諸菩薩憎諸有情，嫉諸有情，不能修行自他利行，作諸菩薩所不應作，作不應作可得成犯。又諸菩薩軟中上犯，如攝事分應當了知。”

45) 『대지도론』 46권 「釋摩訶衍品」 18(大25 p.395c3) “持戒不惱衆生，不加諸苦常施無畏，十善業道爲根本。餘者是不惱衆生遠因緣，戒律爲今世取涅槃故。婬欲雖不惱衆生，心繫縛故爲大罪，以是故戒律中婬欲爲初。白衣不殺戒在前，爲求福德故。菩薩不求今世涅槃，於無量世中往返生死修諸功德。”

낸다면 여기는 것이 아니다.”⁴⁶⁾라고 한다.

由此第五有順勝門. 愛順大悲, 故罪爲劣, 瞋彼相違, 罪爲重故. 如瑜伽云, “是諸菩薩, 多分應與瞋所起犯, 非貪所起.” 乃至廣說. 又智論云, “菩薩不惱衆生爲戒, 不同聲聞求現涅槃. 姪欲雖不惱衆生, 繫縛心故, 立爲大罪. 菩薩不求現世涅槃, 往返生死, 具資糧故.” 然瑜伽云, “若欲斷彼, 生起意樂, 發勤精進, 煩惱熾盛, 蔽抑其心, 起瞋蓋等, 無所違犯.”

⑥ 하고자 하는 문 意樂門

■ 이로 인하여 여섯 번째, 기꺼이 하고자 하는 문[意樂門]이 있다. 하고자 하는[意樂]⁴⁷⁾ 힘으로 인하여 악을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 “간탐심(慳貪心)을 해결하지 못해 보시(布施)하지 못할 때, 미숙(未熟)함을 사죄하고 훗날 반드시 보시해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나 경에서는 또한 계(戒)를 보호하는 마음을 말하기를, ‘마치 부낭(浮囊)⁴⁸⁾을 아끼는 것’이나 ‘초계(草繫)비구⁴⁹⁾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

46)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계품」 10-2(大30 p.518a 10) “無違犯者, 若爲除遣生起樂欲, 發勤精進, 煩惱熾盛蔽抑其心, 時時現起.”의 무위범(無違犯)의 설명을 뜻만 취하였다.

47) 1권 22) 주(註) 참조.

48) 부낭(浮囊, ㉠tara-puta)은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니는 기구로 경론에서는 계율의 공능(功能)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 쓴다. 곧 보살이 계율을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지킴으로써 생사고해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다에 익사하지 않기 위하여 지니는 부낭과 같다는 뜻.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 권 7(大54 p.1170a24)과 『오분율(五分律)』(大22 p.145a11)에는 “지금부터 모든 비구에게 부낭을 지니도록 허용한다.”고 하였고, 『사분율』 권1(大22 p.568a24)에서도 “계율은 마치 사람이 강을 건너려할 때 손과 부낭을 사용하여 비록 깊은 물이라 하더라도 걱정 없이 건너편 언덕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

였다.

由此第六有意樂門。由意樂力，惡無犯故。如十住論，“慳心不解，不能施時，謝今未熟，後當施故。”然經亦說護戒之心，“如惜浮囊及草繫者。”

⑦ 두려워하는 문 怖畏門

■ 이로 인하여 일곱 번째, 두려워하는 문[怖畏門]이 있다. 미세한 차죄(遮罪) 보기를 성죄(性罪)와 같이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⁵⁰⁾ 그러나 『열반경

이 모든 불자도 계율을 굳게 지키면 결코 사된 번뇌의 불길에 휘말리거나 생사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권11권(大12, p.432b4)에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부낭을 지니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 나찰이 그 사람을 따라 다니며 부낭을 달라고 하자 ‘내가 지금 그에게 부낭을 준다면 반드시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끝에 ‘나찰이여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부낭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보살마하살이 계율을 지키는 것도 이와 같이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부낭을 아끼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지도론』 권6(大25, p.107a20)에는 “오직 보살만이 진실 그대로 뛰어난 방편으로 저 언덕을 건널 수 있다. 비유하자면 사공 한 사람은 부낭과 뗏목으로 건네주고 다른 한 사람은 큰 배로써 건네주는 것과 같은데 이들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하였다.

49) ‘초계비구(草繫比丘)’는 풀에 묶인 비구라는 뜻. 『열반경(涅槃經)』 26권(大12 p.520a), 『범망경(梵網經)』 하(大24 p.1007 b) 주(註) 28참조.

50) 살(殺)·도(盜)·음(姪)·망(妄)의 행위는 부처님이 제지(制止)에 앞서서 그 자체가 죄이므로 이것을 ‘성죄(性罪)’라고 한다. 음주(飲酒)·벌목(伐木) 등은 행위 그 자체가 죄는 아니나, 그 행위로 인하여 마침내 성죄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며, 이것은 부처님이 제지로 인하여 범했을 때에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다. 분 바르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 남녀의 교제 등은 다 차죄(遮罪)에 해당한다. 『섭대승론(攝大乘論)』 권下(大31 p.146b16-20)에 “공통되거나 공통되지 않는 계율의 뛰어난이란, 보살은 성죄가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과 공통적으로 서로 비슷하다. 차죄는 현행하기 때문에 성문과 공통하지 않다. 이 계율에서 성문은 범하는 것이나, 보살은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이 있다. 보살은 신체·말·

《涅槃經》에서는 “수레가 느슨한 것은 느슨하다고 하나, 계가 느슨한 것은 느슨하다고 하지 않는다.”⁵¹⁾고 하였다.

由此第七有怖畏門。見微遮罪，如性罪故。然涅槃云，“於乘緩者，乃名爲緩，於戒緩者，不名爲緩。”

⑧ 수승함을 이루는 문 成勝門

■ 이로 인하여 여덟 번째, 수승함을 이루는 문[成勝門]이 있다. 선(善)한 일을 함에 수승함이 있으면 먼저 그치지[放止]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승장엄론(大乘莊嚴論)』에서는 “비록 항상 지옥에 처하여도 대보리(大菩提)에 장애가 되지 않으나, 만약 자신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는 대보리에 장애가 된다.”⁵²⁾고 한다.

由此第八有成勝門。作善有勝，且放止故。然莊嚴云，“雖恒處地獄，不障大菩提，若起自利心，是大菩提障。”

⑨ 장애에서 보호하는 문 護障門

■ 이로 인하여 아홉 번째, 장애에서 보호하는 문[護障門]이 있다. 비록

마음의 계율을 갖추나, 성문은 다만 신체와 말의 두 계율만 있을 뿐이다. 共不共學處殊勝者，謂諸菩薩一切性罪，不現行故與聲聞共相。似遮罪有現行故與彼不共。於此學處有聲聞犯菩薩不犯。有菩薩犯聲聞不犯，菩薩具有身語心戒，聲聞唯有身語二戒。”

51) 『대반열반경』 6권 「의품」(大12 p.641b17-19) “善男子，於乘緩者，乃名爲緩，於戒緩者，不名爲緩。菩薩摩訶薩，於此大乘心，不懈慢是名奉戒。”라 하여 계를 잃지 않고 지키는 태도를 말한다. 계를 받들고 실천하는 태도가 느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2) 『대승장엄경론』 6권 「인법품(忍法品)」(大31 p.622c) “釋曰，菩薩慈悲爲諸衆生，入大地獄不辭大苦，若滅三有功德起小乘心，菩薩以此爲苦，最爲深重。問此義云何，偈曰 雖恒處地獄，不障大菩提，若起自利心，是大菩提障。”라고 하였다.

선(善)을 행하여도 소승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대반야경(大般若經)』에서 “만약 보살이 설령 항하사겁[殍伽沙劫]토록 미묘한 오욕(五欲)을 받더라도, 보살계에서는 어겼다고 하지 않지만,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승(二乘)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어겼다고 한다.”⁵³⁾고 하였다. 해석하자면 비록 탐욕에 물들었더라도 큰마음[大心, 대승보살심]이 없어지지 않으면 무여범[無餘犯, 바라이죄]이 없으므로 범함이 없다고 이른다. 그러나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는 “만약 마음으로 남녀(男女)라고 여기거나 남녀가 아니라는 상(相)을 분별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다.”라고 한다.

由此第九有護障門。雖有作善，護小乘故。如大般若云，“若菩薩設殍伽沙劫受妙五欲，於菩薩戒猶不名犯，若起一念二乘之心，即名爲犯。”解云，雖貪所汙，大心不盡，無無餘犯，故名無犯。然文殊問經云，“若以心分別男女非男女相，是菩薩波羅夷罪。”

⑩ 구경문 究竟門

■ 이로 인하여 열번째, 구경의 문[究竟門]이 있다. 만약 법상(法相)을 취(取)한다면 구경(究竟)이 아니다. 『대반야경(大般若經)』에서 “마땅히 원만 청정한 계바라밀다(戒波羅蜜多)를 보호하지 않으면 범함과 범함이 없는 상(相)을 얻을 수 없다.”⁵⁴⁾고 한 것과 같다.

53)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584권 「第12 淨戒波羅蜜分」 1(大7 p.10 22b11) “如是菩薩，雖處居家，經於殍伽沙數大劫，受妙五欲，而勝意樂常不退壞，謂常趣求一切智智，曾不發起二乘之心，是故不名犯菩薩戒。”

54) 『대반야바라밀경』 「초분(初分)」 「학관품(學觀品)」 2-1(大5 p.11c21)에서 사리불이 부처님께 “云何菩薩摩訶薩，欲於一切法等覺一切相，當學般若波羅蜜多。”라 묻자 부처님께서 “舍利子，諸菩薩摩訶薩，應以無住而爲方便，安住般若波羅蜜多，

由此第十有究竟門。若取法相，非究竟故。如大般若，“應以不護圓滿淨戒波羅蜜多，犯無犯相不可得故。”

(3) 범하여 잃는 문 犯失門

■ 세번째, 범하여 잃는 문[犯失門]이다. 보살계에서는 무여범(無餘犯, 바라이죄)⁵⁵⁾이 없다. 일분 계를 받으면[一分受] 일분 계를 지니는 것[一分持]⁵⁶⁾과 같다. 성문이 하나의 중계(重戒)만 범하여도 곧 일체가 깨뜨려져서 비구성(比丘性)을 잃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

『본업경(本業經)』에서 “모든 보살과 범부와 성인의 계는 마음이 다하는 것으로 체(體)를 삼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하면 계(戒)도 다한다. 하지만 마음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계(戒)도 다함이 없다.”⁵⁷⁾고 하는 것이다.

마음은 기약하는 마음[期心]이니, 만약 다함없는 계에 대한 원[無盡戒願]을 놓아 버리지 않는다면 (이생이) 다하도록 범함이 없으리니, 끝이 없는 계[無邊戒]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생을 바꾼다 하여도 계 또한 항

所住能住不可得故.”라고 종합적으로 답하시고, 이어서 육바라밀(六波羅蜜)을 각각 차례대로 설명하는 가운데 계(戒)에 대하여 “諸菩薩摩訶薩，應以無護而爲方便，圓滿淨戒波羅蜜多，犯無犯相不可得故.”라고 하였다.

55) 무여범(無餘犯)은 바라이(波羅夷)를 중국말로 번역하여 무여(無餘)라 한다. 바라이죄에는 다른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극에 달한 것을 말한다.

56) 태현의 『보살계본중요』(大45 pp.915a13-918a24, No.1906)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처음 잘 달래고 이끌어 일분(一分), 즉 하나의 계목(戒目)을 받음으로 인하여 또 일분을 지니게 되니,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일계(一戒)를 받으면 일분우바세(一分優婆塞)라 한다고 한 것과 같다. 보살도 또한 그러하니 분계(分戒)를 따르기 때문이다. 계경에서 일분의 계를 받음이 있으면 일분보살(一分菩薩)이라 하며, 마침내 십분(十分)에 이르러야 구족수계(具足受戒)라 한다. 又初誘戒，由有一分受，亦有一分持，如世尊言，受一戒，名一分優婆塞，菩薩亦爾，隨分戒故。如契經言，有受一分戒，名一分菩薩，乃至十分，名具足受戒.”

57) 『보살영락본업경』 하권 「대중수학품(大衆修學品)」 7(大24 p.1021b20) 참조.

상 따라 돌고 돌아서[運運] 저절로 증장하여 성불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밤낮 머무르지 않고 돌아 흘러서 저절로 큰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다만 고의로 대보리심(大菩提心)을 버린 경우는 제외된다. 그는 이미 마음이 다하였으므로 계(戒) 또한 다하기 때문이다. 십중계[重戒]를 범하는 데에는 간략히 두 가지가 있다. ① 깨뜨린 것[破]이고 ② 물든[汚] 경우이다. 만약 상품번뇌전(上品煩惱纏)으로 범하면 범한 것의 갈래를 따라서 계와 율의를 잃게 되고, 만약 중하전(中下纏)이면 다만 더럽혀진 것일 뿐 잃은 것은 아니다.

『유가사지론』에서 “만약 보살이 네 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⁵⁸⁾을 범하여 자주 행동으로 나타내면서도 도무지 부끄러움[慚愧]⁵⁹⁾이 없고, 기꺼이 애락(愛樂)을 내어 이것을 공덕으로 본다면 반드시 상품전(上品纏)으로 범한 줄 알아야 한다. 여러 보살들에게 잠깐 한 번 타승처법(他勝處法)이 현행하는 것은 문득 보살의 정계율의(淨戒律儀)를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니, 성문이 한번 범하게 되면 모두 버리는 것과는 다르다.”⁶⁰⁾고 하였다. 또

58) 『유가사지론』에서 말하는 네 가지 타승처(他勝處)는 ①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음[自讚毀他] ② 법사가 와도 필요한 물건을 베풀어 드리지 않는 것[雖現有法而不給施] ③ 원결을 버리지 않는 것[不捨怨結] ④ 비슷한 법에 대해서 혹 스스로 신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따르게 하는 것[於像似法或自信解或隨他轉]이다. 비구에게는 바라이(波羅夷) 죄에 해당하는 것이니 여기에서는 십중대계(十重大戒)로 참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9) 참(慚, 𑖦hri)은 스스로 반성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괴(愧, 𑖦apatrāpa)는 남에 대해 또는 하늘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다.
p.622

60) 『유가사지론』 40권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계품」 10-1(大30 p.515c13)
“若諸菩薩，毀犯四種他勝處法，數數現行，都無慚愧，深生愛樂，見是功德，當知說名上品纏犯。非諸菩薩，暫一現行他勝處法，便捨菩薩淨戒律儀，如諸苾芻犯他勝法，即便棄捨別解脫戒。若諸菩薩由此毀犯，棄捨菩薩淨戒律儀，於現法中堪任更受非不堪任。如苾芻住別解脫戒犯他勝法，於現法中不任更受。”

상전(上纏)으로 범하는 것은 비록 깨끗한 계를 잃었어도 경(經)에서는 “곧바로 참회하면 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성문의 경우처럼 머리가 잘린 것[斬頭]과 같아 이생의 몸[現身]으로 다시 승가[僧數]에 들어 갈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 자세히 교리(敎理)를 인용한 것이 『종요(宗要)』⁶¹⁾의 해석과 같으니 덧붙이는 말은[傍論]은 그만 그치겠다.

第三犯失者，謂菩薩戒無餘犯。如有一分受，有一分持故。不同聲聞犯一重時，便破一切失比丘性。如本業經，“一切菩薩凡聖戒，盡心爲體。是故心盡，戒亦盡，心無盡故，戒亦無盡。”心謂期心，若不放捨無盡戒願，無有盡犯，無邊戒故。由此轉生，戒亦恒隨，運運增長，乃至成佛。猶如河水，日夜不停，運運遷

61) 태현의 『보살계본종요』(大45 pp.915a13-918a24, No.1906)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또 비구가 삼품(三品)의 중죄를 범함은 다 정계를 버리는 것인데 보살은 반드시 상품전(上品纏)으로 인하여 버린다. 자존께서 설하시기를 ‘만약 모든 보살이 네 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을 훼범(毀犯)하여 자주자주 현행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함이 없이 깊이 애락(愛樂)하는 마음을 내어 이것을 공덕이라고 보면, 마땅히 알라. 상품전을 범하면 보살이라고 하지 않는다. 잠시 한번이라도 타승처법이 현행하면 문득 보살의 정계율의(淨戒律儀)를 버리는 것이니 비구들과 같나니라. 又比丘三品犯重，皆捨淨戒，菩薩必由上品纏捨。如慈尊說，若諸菩薩，毀犯四種他勝處法，數數現行，都無慚愧，深生愛樂，見是功德，當知，說名上品纏犯，非諸菩薩。暫一現行他勝處法，便捨菩薩淨戒律儀，如諸苾芻。” “또 비구계는 반드시 전체를 수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중죄를 범하면 문득 일체를 잃게 되나 보살은 그렇지 않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계 속에는 무여범(無餘犯)이 없다.’라고 하여 그 밖에 널리 설한 것과 같다. 이를테면 상품전은 비록 하나의 중죄를 깨뜨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계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마치 근사(近事)가 통틀어 하나를 수지함과 같으니 비록 이름은 범계(犯戒)이나 그 성(性)이 이루어진 것이다. 계경에 설하기를 ‘(계가) 있는데 범하는 자는, 범하지 않는 자보다 수승하니, 유범(有犯)은 보살이요 무범(無犯)은 외도라고 한다.’고 한 것과 같다. 又比丘戒，必總受持故，犯一重，便失一切，菩薩不爾。如瑜伽言，菩薩戒中，無無餘犯，乃至廣說。謂上品纏，雖破一重，不失餘故。猶如近事總受持一，雖名犯戒而成其性。如契經言，有而犯者，勝無不犯，有犯名菩薩，無犯名外道.”

流, 自到大海. 唯除故捨大菩提心. 彼旣心盡, 戒亦盡故. 然犯重戒, 略有二種. 一破二汙. 若以上品煩惱纏犯, 隨所犯支, 失戒律儀, 若中下纏, 唯汙不失. 如瑜伽云, “若諸菩薩, 毀犯四種他勝處法, 數數現行, 都無慚愧, 深生愛樂, 見是功德, 當知說名上品纏犯. 非諸菩薩暫一現行他勝處法, 便捨菩薩淨戒律儀, 不同聲聞, 一犯卽捨.” 又上纏犯, 雖失淨戒, 經說, “卽懺亦得重受” 不同聲聞如斬頭者, 現身不能復入僧數. 廣引教理, 如宗要釋, 且止傍論.

3) 계송으로 해석하다 釋頌

■ 계송으로 이문(二門)을 해석한다. 처음 여섯 계송은 본사의 것을 전수하여 외우는 문[傳誦本師門]이니 석가모니불께서 본사(本師)의 서(序)를 전수하여 외우기 때문이다. 뒤 다섯 계송 반은 말주가 교화하는 문[末主顯揚門]이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계(戒)의 중요(宗要)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처음에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다섯 계송은 주존의 수승함을 나타내는 문[頌顯主尊勝門]이고, 뒤의 한 계송은 계의 공능을 찬탄하는 문[讚戒功能門]이다.

처음에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두 계송 반은 몸의 본말을 나타내는 문[現身本末門]이고 뒤의 두 계송 반은 법의 본말을 설하는 문[說法本末門]이다.

釋頌二門. 謂初六頌, 傳誦本師門, 釋迦傳誦本師序故. 後五頌半, 末主顯揚門, 釋迦自演戒宗要故. 初亦有二種. 初五頌顯主

尊勝門，後之一頌，讚戒功能門。初亦有二。初二頌半，現身本末門，後二頌半，說法本末門。

(1) 본사의 것을 전수하여 외우는 문 傳誦本師門

① 주존의 수승함을 계승으로 나타내는 문 頌顯主尊勝門

ㄱ. 몸의 본말을 나타내는 문 現身本末門

□ 나는 노사나불이라. 바르게 연화대에 앉아서

我今盧舍那，方坐蓮華臺

■ 몸의 본말을 나타내는 문[現身本末門]에 간략히 네 가지가 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타수용신(他受用身)이다. 전해 오는 말씀에 “이 몸이 제 이지(第二地)에 상응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계바라밀(戒波羅蜜)이 이 경의 핵심(宗)이기 때문이다. 자수용신(自受用身)이 아닌 것은 『화엄경(華嚴經)』 등에서 그것이 끝이 없음을 설하였기 때문이다. ‘방(方)이란’ 바르다(正)는 말이다. 천엽대(千葉臺)는 모든 이지보살(二地菩薩)이 정토(淨土)를 이룬 곳이다. 이 가운데 대(臺)는 이 몸이 있는 곳이다. ‘천엽(千葉)’은 교화할 부락(部落)이다.

『인왕경(仁王經)』에서는 “신인(信忍) 보살 백 불, 천 불, 만 불이 국토에서 백 개의 몸, 천 개의 몸, 만 개의 몸으로 화현하여 나타난다.”고 하고, 『십지경(十地經)』에서는 “이지보살(二地菩薩)이 천세계(千世界)에 들어가 천불(千佛)을 보기 때문이다.”⁶²⁾라고 한다. 이 대(臺)에 따로 불좌(佛座)가 있으니 이것이 천엽대(千葉臺)이다. 어떤 이는 이것이 자리[座]라고 말하기

62) 『십지경론(十地經論)』 2권 「이구지(離垢地)」 4(大26 p.152c28)에 “於一念間，得千三昧，得見千佛”이라 한다.

도 하나 그렇지 않다. 상권(上卷)에서 별도로 ‘노사나불께서 백만 연꽃의 밝게 빛나는 광명좌대(光明座臺)에 앉아서’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내가 연화대장세계해에 머무르고 있다. 그 대(臺) 둘레에는 천개의 꽃잎을 두르고 하나의 잎 마다 한 세계이니 내가 화현하여 천 명의 석가(釋迦)가 되었으며 다시 백억 개의 수미산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국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떤 이가 힐난하기를 “그 땅이 어찌 미타불(彌陀佛)의 원광(圓光)보다 좁겠는가? 경에 설하기를 ‘그 부처님의 원광(圓光)은 백억삼천대천세계(百億三千大千世界)와 같다.’⁶³⁾고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질문은 옳지 않다. 부처님의 광명[佛光]은 일정하지 않으며 석가모니불도 또한 무량찰(無量刹)을 비추기 때문이다. 혹 이미 ‘같다’고 말했다면 다만 크기만 견준 것으로 반드시 양(量)이 같은 것은 아니니, 마치 눈[眼]을 바다에 비유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백만 개의 연꽃으로 자리를 삼은 줄 알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모든 부처는 연꽃으로 자리를 삼은 것인가? 부처님이 비록 세간에 계신다고 해도 마치 물들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述曰，現身本末門，略有四重。此初他受用身。傳說，“此身應第二地。”戒波羅蜜，此經宗故。非自受用，華嚴等說彼無邊故。方者正也。千葉臺，總成二地菩薩淨土。此中臺上是身所居。千葉卽是所化部落。如仁王云，“信忍菩薩，百佛千佛萬佛國中，化現百身千身萬身。”十地經云，“二地菩薩入千世界，見千佛

63) 『불설관무량수불경(佛說觀無量壽佛經)』(大12 p.343b21)에 “저 부처님의 원광이 백억삼천대천세계와 같다. 彼佛圓光，如百億三千大千世界”라고 한다. 그 빛은 무량수불(無量壽佛)의 모공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 백만억나유타항하사(百萬億那由他恒河沙)의 화신불(化身佛)이 있고 각각의 부처가 무수한 화신보살(化身菩薩)을 거느린다고 한다.

故.” 於此臺上，別有佛座，此千葉臺。有說是座，非也。上卷別說盧舍那佛，坐百萬蓮華赫赫光明座上故。既說我住蓮華藏世界海，其臺周帀⁶⁴⁾有千葉，一葉一世界，我化爲千釋迦，復有百億須彌，明知是土。有難，“彼土豈狹彌陀圓光。經說彼佛圓光，如百億三千大千世界故。”此難不然。佛光不定，釋迦亦照無量刹故。或既言如，但比廣大，未必量同，如眼喻海。故知百萬蓮華爲座。何故諸佛蓮華爲座？表佛雖在世，如不著水故。

□ 둘러싼 일천 꽃 위에 다시 천 석가(千釋迦)가 화현하니
周帀千華上，復現千釋迦，

■ 두 번째 정토화신(淨土化身)이다. 전해 오는 말씀(傳說)에 “이 몸은 십지전의 근기[地前機]에 응한 것이다.”⁶⁵⁾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다만 사선근(四善根, 煖·忍·頂·世諦一位)이라야 비로소 정토(淨土)에 태어난다.”⁶⁶⁾고 하였으나 이치로 보아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정토경(淨土經)』에서 “다른 경우에도 정토에 태어난다.”⁶⁷⁾고 하기 때문이다. 정토(淨土)와 예토(穢土)는 처소[處]가 같되 업에 따라 보는 것[見]이 다르니, 사식(四識)⁶⁸⁾이 마음에 다른 것과 같다. 마치 사리불[鶖子]이 본 산하를 나계범왕

64) 卍60 p.417b13과 大40 p.701b20과 藥師寺藏本에는 ‘匝’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5c14에는 ‘帀’으로 되어 있다.

65) 『범망경고적기촬요회본(梵網經古迹記撮要會本)』 1권 33장 후면에서 “唯識學記曰, ‘實凡二乘, 生淨土, 廣通住前凡夫.’”라고 하였다.

66) 『범망경고적기촬요회본』 1권 34장 전면에 “慈恩則, 三身章云云” 참조.

67) 『불설관무량수불경』(大12 p.341c7) “令未來世一切凡夫, 欲修淨業者, 得生西方極樂國土.”라 하여 서방정토(西方淨土)에 태어나는 조건이 정업을 닦는 것[修淨業]이라 한다.

(螺髻梵王)이 도리어 보토(寶土)로 변화시킨 것과 같다.⁶⁹⁾

述曰, 第二淨土化身. 傳說“此身應地前機.” 有說, “唯四善根方生淨土.” 理未必然. 淨土經說, “餘亦生故.” 淨穢同處, 隨業異見, 猶如四識等事心異, 如說驚子所見山河, 羸⁷⁰⁾髻梵王變⁷¹⁾寶土故.

□ 한 꽃마다 백억 국토요, 한 국토마다 한 분의 석가모니불이라.

一華百億國, 一國一釋迦.

■ 세 번째 예토(穢土)의 화신(化身)이다. ‘한 국토마다’란 하나의 수미산 세계이니, 세계마다 달리 남섬부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가론기(瑜伽論記)⁷²⁾에 “일대천(一大千)에 백구지의 세계[百俱胝界]가 있다.”⁷³⁾ 하였고, 『잡집론(雜集論)』에는 “일구지(一俱胝)의 양은 백억

68) 사식(四識)은 사식주(四識住)로 색식주(色識住)·수식주(受識住)·상식주(想識住)·행식주(行識住)를 말한다. 오온(五蘊) 중 색·수·상·행의 네 가지는 식(識)이 그것에 집착하여 머물며 식의 주처(住處)가 되므로 사식주(四識住) 또는 사식처(四識處)라고 한다.

69)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불국품(佛國品)」(大14 p.538c6)의 내용이다.

70) 卍60 p.418a1과 大40 p.701b24와 藥師寺藏本에는 ‘螺’로 되어 있으나 韓3 p.445c19에는 ‘羸’로 되어 있다.

71) 卍60 p.418a1과 大40 p.701b24와 藥師寺藏本에는 ‘反’로 되어 있으나 韓3 p.419b11에는 ‘變’으로 되어 있다.

72) 『유가론기(瑜伽論記)』는 신라의 승려 둔륜(遁倫)이 주석한 것으로 130여 종에 달하는 유가(瑜伽)의 주소(註疏) 중 가장 충실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73) 『유가론기』(大42 p.330a11)에는 “백구지가 일불토가 된다. 百俱胝爲一佛土”라고 한다. 구지(俱胝)란 인도에서 사용하는 수의 단위로 십만 천만 혹은 억 만억 등으로 쓰이며 경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의 구지(俱胝)가 쓰인 예를 볼 수 있다.

(百億)에 해당한다.”⁷⁴⁾고 하였는데, 왜 여기에서 다만 ‘백억(百億)’이라고만 하였는가. ‘억(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유가론기(瑜伽論記)』에서 또한 “십만(十萬)에 의거한 억(億)”⁷⁵⁾이라고 하였고, 이 경에서는 천만(千萬)이라 하였는데 서로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는 큰 단위(麤相)에 의한 것이다. 또한 수미산 세계 하나를 말할 때, 나무와 사람의 형상이 거꾸로 되었거나 옆으로 눕는 등 각기 그 류(類)를 따라 모든 곳에 두루 가득한데, 이류(異類)에 걸림 없음이 마치 인다라망(因陀羅網)이 겹쳐서 끝이 없는 것[重重無盡]과 같다. 사유와 논의의 표현을 뛰어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연화대장세계해 안에 포섭되어 있고 아울러 노사나불과 함께 법륜을 굴리는 곳이다.

述曰, 第三穢土化身. 言一國者, 一須彌界, 以世界別, 南洲現故. 瑜伽論云, “一大千有百俱胝界.” 雜集云, “一俱胝量當於百億.” 何故此中, 唯言百億. 億有多種. 瑜伽且, “依十萬爲億.” 此經千萬, 故不相違. 此依麤相. 且說一類須彌世界, 據實樹形, 人形倒及側等, 各隨其類徧滿諸方, 異類無礙, 如因陀羅網, 重重無盡. 出過思議之表, 然皆攝在蓮華臺藏世界海中, 並盧舍那轉法輪處.

□ 저마다 보리수 아래에 앉아 일시에 불도(佛道)를 이루니 이는 천백억

74) 『범망경고적기촬요회본』 2권 35장 후면에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11권”이라 했으나 아마 고적기(古迹記)의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여 『잡집론(雜集論)』 「결택분(決擇分)」의 수에 대한 해설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유가론기(瑜伽論記)』(大42 p.330a8)의 “구지는 백억에 당한다. 俱胝當百億”는 말을 인용하면서 전거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75) 『유가론기』(大42 p.330a9) “然西方有四種億, 一十萬爲億, 二百萬爲億, 三千萬爲億, 四萬萬爲億.”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첫 번째만 인용하였다.

불이 노사나 본신(本身)과 같음이다.

各坐菩提樹，一時成佛道，如是千百億，盧舍那本身。

■ 네 번째 정토(淨土)와 예토(穢土)를 들었다. 근기가 단박에 성숙되어 일시에 거듭 교화하여 말(末)을 거두어 본(本)에 돌아가게 한 것이다. 상권(上卷)에서 ‘천 개의 꽃잎 위의 부처들이 나의 화신(化身)이니 천백억 석가는 천(千) 석가(釋迦)의 화신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述曰，第四舉淨穢土。機根頓熟，一時重化，攝末歸本。如上卷云，千華上佛是吾化身，千百億釋迦，是千釋迦化身故。

ㄴ. 법의 본말을 설하는 문 說法本末門

□ 천백억 석가가 각각 셀 수 없이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모두 나의 처소로 와서 내가 부처님의 계[佛戒] 외우는 것을 듣고[聽] 감로문(甘露門)을 열었느니라.

이때 천백억 석가가 본 도량으로 돌아가 각각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본사(本師)의 계인 십중계(十重戒)와 사십팔계(四十八戒)를 외우시네.

千百億釋迦，各接微塵衆，俱來至我所，聽我誦佛戒，甘露門則開。是時千百億，還至本道場，各坐菩提樹，誦我本師戒，十重四十八。

■ 두 번째 법의 본말을 설한 것[說法本末]이다. 노사나불의 몸은 비록 범부의 경지가 아니지만 힘써 보고 듣게 하려고 대중을 이끌고 온 것이다.

이미 삼제(三際)의 법칙을 꿰뚫고 있으나 때에 따라 알맞게 제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설(說)하였다’고 하지 않고 ‘외웠다’고 한 것이다. 맛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감로(甘露)’라고 이름하며, 즐거움 가운데

가장 극진한 것에 비유한 것이다. 열반계칙(涅槃戒則)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증득하는 문(門)이다. 그러므로 ‘외우는 것을 듣고 감로의 문을 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혹은 계경(戒經)을 설하므로 문(門)이라고 하기도 하며, 설명되어지는 계를 감로라고 하기도 한다. 가르침은 능히 이치를 열어 삼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문(門)이므로, 근기에 맞게 나타내 주는 것을 ‘연다[開]’고 한다.

범부의 마음은 다하기 쉽고 빼어난 영상은 머물도록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처로 돌아가 본사(本師)의 계를 외우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본사(本師)’는 본신(本身)을 말한다. 혹은 계법(戒法)을 본사라고도 하니 부처님께서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述曰, 第二說法本末. 盧舍那身, 雖非凡境, 加力見聞, 接衆而至. 既貫三際之則, 非隨時宜所制. 故說我誦, 不言說也. 味中之上, 名爲甘露, 故喻樂中最極. 涅槃戒則, 出苦證樂之門. 故言聽誦甘露門開也. 或說戒經, 名之爲門, 所詮之戒, 名爲甘露. 教能開理出三界門, 對機而顯, 是爲開也. 凡心易竭, 勝影難留. 故歸本處, 誦本師戒. 此中本師, 謂卽本身. 或可戒法, 名爲本師, 佛所師故.

② 계의 공능을 찬탄하는 문 讚戒功能門

□ 계(戒)는 밝은 해와 달 같고 또한 영락(瓔珞) 구슬과 같아 셀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이로 인하여 정각(正覺)을 이루게 되느니라.

戒如明日月, 亦如纓絡珠, 微塵菩薩衆, 由是成正覺.

■ 이 부분은 두 번째 계의 위력을 찬탄하는 문[讚戒威力門]이다. 계(戒)는 죄의 어두움을 없애므로, 마치 해와 달과 같다고 한 것이다. ‘행을 장엄

한다[莊嚴行]’는 것은 ‘영락(瓔珞)구슬’과 같다. 『불유교경(佛遺教經)』에서는 “뉘우침과 부끄러움의 옷은 온갖 장엄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⁷⁶⁾라고 한다. 혹은 “성계(性戒)는 밝기가 해나 달과 같고, 차계(遮戒)는 장엄하기가 영락(瓔珞)구슬과도 같다.”라고 한다. 이는 성죄(性罪)의 어둠을 깨뜨려 성계(性戒)를 장엄하기 때문이다.

만행(萬行)의 시작은 계(戒)를 근본으로 삼고 만행의 마지막은 보리를 과(果)로 삼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삼제(三際)에 모두 계로 인하여 성불하니 삼취(三聚, 三聚淨戒)는 마땅히 삼덕(三德)을 이루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이와 같이 모든 복과 지(智)의 자량(資糧)⁷⁷⁾은 다시 다른 과(果)와 함께 서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오직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⁷⁸⁾만은 제외된다.”⁷⁹⁾고 한다.

76)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大12 p.1111b6) “慚恥之服，於諸莊嚴，最爲第一”

77) 복과 지[福智]의 자량(資糧)은 ‘복덕과 지혜라는 두 가지 근본요소’라는 말. 보살의 실천 행위 중 그 성격상 지를 본질로 하는 것을 지혜라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복덕이라고 한다.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자량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29(大30 p.446b12-16)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들고 있다. ① 복덕자량(福德資糧)은 수행의 도구와 풍부한 재물과 보배를 얻게 되어 참된 복전을 만나 선지식(善知識)이 되며, 모든 장애를 떠나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다. ② 지혜자량(智慧資糧)은 총명한 지혜를 성취하고 선악(善惡)을 분명히 알며, 불법(佛法)의 이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③ 선세자량(先世資糧)은 전생에 선근을 쌓고, 현세(現世)에는 모든 선근을 얻게 된다. ④ 현법자량(現法資糧)은 현세의 선법(善法)이 있어서 모든 선근을 성취하고, 계율의(戒律儀)와 근율의(根律儀)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78)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 5)anuttarā-samyaksambodhi)는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의 다른 이름. 무상정등각이란 위없는 바른 깨달음으로 궁극적인 경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권2 (大3 p.300b28-c1)에 “선남자 선여인들이 대비심을 발하여 무상정등보리를 구하면 자신의 몸과 처자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若有善男子善女人，發

述曰, 此卽第二讚戒威力門也. 戒破罪闇, 猶如日月. 莊嚴行者, 如纓絡珠. 如遺教云, “慚愧之衣, 於諸莊嚴, 最爲第一.” 或說, “性戒明如日月, 遮戒莊嚴如纓絡珠.” 破性罪闇, 嚴性戒故. 萬行之始, 以戒爲本, 萬行之終, 菩提爲果. 是故三際, 皆由戒成佛, 三聚如應成三德故. 如瑜伽云, “如是所集福智資糧, 更無餘果可共相攝, 唯除無上正等菩提.”

(2) 말주가 드러내는 문 末主顯揚門

① 더욱 교화하는 문 展轉開化門

□ 이 계는 노사나불이 외운 것이며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나니 그대 신학보살(新學菩薩)들은 높이 만들어 계를 수지할지니라.

이 계를 수지한 후에는 여러 중생들에게 전하여 줄지어다.

是盧舍那誦, 我亦如是誦, 汝新學菩薩, 頂戴受持戒. 受持是戒已, 轉授諸衆生.

■ 이 아래는 말주가 현양하는 문[末主顯揚門]이다. 여기에 네가지가 있으니 ①더욱 교화하는 문[展轉開化門]이고, ②계상(戒相)을 이루는 문[所

大悲心, 爲求無上正等菩提, 以自妻子, 施與他人, 心無吝惜.” 또 『구사론』 권12(大29 p.63c17-19)에 “보살이 만약 삼무수집(三無數劫) 즉 삼아승가집동안 큰 복덕과 지혜를 닦으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수많은 고행을 행하면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한다. 菩薩, 要經三劫無數, 修大福德, 智慧資糧, 六波羅蜜多, 多百千苦行, 方證無上正等菩提.”라고 한다.

79) 『유가사지론』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혜품(初持瑜伽處慧品)」 14(大30 p.529c12)에 육바라밀(六波羅蜜) 수행의 원만한 상태에 대하여 대백법명(大白法溟), 대백법해(大白法海) 등으로 표현하고 뒤에 ‘又卽如是所集, 無量福智資糧, 更無餘果, 可共相稱. 唯除無上正等菩提.’라고 결론지었다.

成戒相門]이며 ③ 유정들이 계를 받는 문[能受有情門]이고, ④ 자세히 설함을 허락하는 문[開許廣說門]이다. 이것은 곧 처음이다. 말하자면 위의 여섯 구절의 계송은 본사께서 외워내신 것을 내가 전해서 외운 것이므로 그대들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리니, 계의 손[戒手]이 서로 이어지면 불종(佛種)이 곧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述曰, 自下末主顯揚門. 此有四門, 一展轉開化門, 二所成戒相門, 三能受有情門, 四開許廣說門. 此卽初也. 謂上六頌, 本師誦出, 如我傳誦, 汝亦應爾, 戒手相接, 佛種卽不斷也.

② 계상을 이루는 문 所成戒相門

□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불법(佛法)의 계장(戒藏)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외우리니 대중은 마음으로 자세히 듣고 믿으라.

그대들은 장차 성불할 것이며 나는 이미 성불하였다.

항상 이러한 믿음을 내면 계품(戒品)이 이미 갖추어진 것이로다.

諦聽我正誦. 佛法中戒藏, 波羅提木叉, 大衆心諦信. 汝是當成佛, 我是已成佛. 常作如是信, 戒品已具足.

■ 두 번째 문(門)이다. 세존이 제정하신 모든 금계(禁戒)는 상승(上乘)이나 하승(下乘)이나 모두 여기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불법(佛法)의 계장(戒藏)’이라 한 것이다. 도계(道戒)를 가려 정하므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⁸⁰⁾라고 한 것이니, 범어(梵語) ‘바라제(波羅提)’는 중국어로는 별(別)이다. 만약 갖추어 제대로 말하자면 ‘비목차(毘木叉)’라고 해야 하는데 중국어로는 별해탈(別解脫)이라 한다. 각각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

80) 3권 19) 주(註) 참조.

므로 ‘별해탈(別解脫)’이라고 부른다. 또 『불유교경(佛遺敎經)』에서는 “계(戒)는 순해탈(順解脫)의 근본(根本)이다. 그러므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고 한다.”⁸¹⁾ 고 하였다.

만약 보살계를 받고 나서 “이 계로 인하여 내가 미래에 성불 하는 것이 마치 석가모니불께서 계로 인하여 이미 성불한 것과 같으리라.”하며 문득 다른 부동분심(不同分心)⁸²⁾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에 계품이 갖추어진다 [戒品具足]고 한다. 한계[分限]를 잘 생각하는 것을 계(戒)라고 한다. 『본업경(本業經)』에서 “모든 보살과 범부와 성인의 계는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체를 삼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마음이 다하면 계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다함이 없으므로 계도 다함이 없다.”고 한다. 이에 ‘마음’이란 대승심(大乘心)이니 여러 대승에서 물러난[退乘] 이들과 아직 발심(發心)하지 못한 이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述曰，第二門也。世尊所制，一切禁戒，上乘下乘，皆從此出。故言佛法中戒藏也。簡定道戒，故言波羅提木叉，梵云波羅提，

81)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大12 p.1111a3) “戒是正順解脫之本，故名波羅提木叉。”

82) 부동분심(不同分心, 𑖦visabhāga-citta)이란 같이 나눌 수 없는 마음. 무루의 34년과 종류가 다른 유루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구사론』에서 제시하는 부동류심(不動類心)과 같은 말이다.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권153(大27 p.780b7-10)에 “부동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저들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보살이 부동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가? 그러나 보살에게도 부동분심이 있다. 설령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으며, 주장하는 본래의 하고자 하는 의요(意樂)와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問，云何非起不同分心。答，彼說，誰言菩薩不起不同分心。然菩薩有不同分心，設有此言，亦不違理，不違所立本意樂故。” 또 『유가사지론』 권53(大30 p.592c7-8)에는 “마땅히 알라 부동분심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선근이 끊어지기 때문에 부동법을 받은 다음에 다시 버리게 된다. 當知，由起不同分心故，善根斷故，棄捨衆同分故，受已還捨。”고 한다.

此云別也. 若具應言毘木叉, 此云別解脫. 別出非故, 名別解脫. 又遺教云, “戒是順解脫之本. 故名波羅提木叉.” 若受菩薩戒謂, “由此戒, 我當成佛, 猶如釋迦由戒已成.” 便不起餘不同分心, 爾時, 名爲戒品具足. 善思分限, 名爲戒故. 如本業云, “一切菩薩凡聖戒, 盡心爲體. 其心若盡, 戒亦盡, 心無盡故, 戒亦無盡.” 此中心者, 大乘心也, 非諸退乘及, 未發心之所能得.

③ 유정들이 계를 받는 문 能受有情門

□ 일체 마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당연히 부처님의 계를 받아야 하리니 중생이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지위가 대각(大覺)과 같아지면 진실로 이러한 자를 불자(佛子)라고 하느니라.

一切有心者, 皆應攝佛戒, 衆生受佛戒, 卽入諸佛位. 位同大覺已, 眞是諸佛子.

■ 세 번째 문(門)이다. ‘당연히’란 받아들임(容)이다. 장애가 있고 성(性)이 없으면 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계가 가장 뛰어나니 어찌 성문보다 쉽겠는가? 누가 얻기 쉽다 말하는가? 발심(發心)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상보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덕이 없고 발심하여 닦는 것은 선이 인(因)이 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있는 자는 대심(大心)을 내어 있는 바 원행(願行)을 다 인의 성품[因性]으로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지위[佛位]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위(佛位)에 두 가지가 있다. ① 발심이 원만한 위(位)요, ② 행과(行果)가 원만한 위(位)이다. 지금은 첫 번째 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처음 일으킨 원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것이 없으며 부처님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각(大覺)과 같다.’고 한 것이다. 이는 계경(契經)에서 “발심(發心)과 필경(畢竟), 두 가지가 다름이 없다.”⁸³⁾고 한 것과 같다. 이미 이러한 지위를 얻으면 ‘진실한 불자(佛子)’이니 불법으로부터 태어나 불위(佛位)를 잇기 때문이다. 계송(偈頌)으로 말하자면

방편은 아버지요 믿음은 씨앗이며,
반야는 어머니요 선(禪)은 태(胎)이다.
자비는 길러주는 어머니[養母]가 되므로
불자(佛子)의 지위를 이어받아 태어나는 것이다.

자세히 이 뜻을 설명한 것은 『섭대승론』과 같다.

83) ‘발심과 필경이 차별이 없는 연고 [發心畢竟, 二無別故]’란 발심은 위없는 보리를 일으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하며 필경심(畢竟心)은 끝에서 끝까지 다하는 깨달음의 완성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선후가 없고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혜(大慧)의 『정법안장(正法眼藏)』 발보리심(發菩提心)(大82 p.40a)과 공해(空海)스님의 『반야심경비전(般若心經秘鍵)』에는 ‘발심(發心)에는 선후(先後)가 있으나 깨닫는 때는 먼저와 나중에 없다.’ 통현장자가 지은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제16권 「보살문명품(菩薩問明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 무슨 이유로 계송 초(初)에서 ‘문수의 법은 항상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까? [답] 문수는 모든 부처님의 혜(慧)인데, 부동지(不動智)는 체(體)이며 문수는 용(用)이다. 일체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의 근본지(根本智)인 체용문(體用門)을 가지고 일체 신심(信心) 있는 자와 더불어 인과와 체용을 짓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본에 의거하기 때문에 구경과(究竟果)의 원만함에 이르기까지 인(因)과 더불어 다르지 않아 두 가지 성품이 없기에 그 명칭이 ‘초발심과 필경심(畢竟心, 궁극의 마음)의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이니, 이는 십신(十信)의 마음을 발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움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다.

述曰, 第三門也. 應者容也. 有障無性, 不成戒故. 此戒最勝, 何易聲聞. 誰言易得. 難發心故. 無上菩提, 無德不攝, 發心所修, 無善不因. 故有心者, 得發大心, 所有願行, 皆成因性. 卽入諸佛位者, 佛位有二. 一發心滿位, 二行果滿位. 今入初故. 初發之願, 無不周圓, 與佛無異, 言同大覺, 如契經云, “發心畢竟, 二無別故.” 已得此位, 眞是佛子, 從佛法生, 紹佛位故. 頌曰, 方便父信種, 般若母禪胎. 慈悲爲養母, 佛子紹位生. 廣說此義, 如攝大乘.

④ 자세히 설할 것을 허락하는 문 開許廣說門

□ 대중은 모두 공경(恭敬)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내가 외우는 것을 들으라.

大衆皆恭敬, 至心聽我誦.

■ 네 번째 문은 본문과 같이 알 수 있다.

其第四門, 如文可解.

4) 계를 결성하는 서 結戒序

(1) 경가서 經家序

□ 그 때 석가모니불께서 처음 보리수 아래에 앉으시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제정하시니, 이는 부모와 사승(師僧)과 삼보에게 효순하는 것이며 지극한 도에 효순하는 법이라. 효(孝)는 계(戒)라고도 하며, 또한 제지(制止)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곧 입에서 한없는 빛을 놓으시니, 이때 백만 억 대중과 여러 보살들

과 십팔범천왕(十八梵天王)과 육욕천자(六欲天子)와 십육대국왕(十六大國)들이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외우시는 모든 부처님들의 대승계(大乘戒)를 들었느니라.

爾時, 釋迦牟尼佛, 初坐菩提樹下, 成無上覺, 初結菩薩波羅提木叉, 孝順父母師僧三寶, 孝順至道之法. 孝名爲戒, 亦名制止. 佛卽口放無量光明, 是時百萬億大衆諸菩薩, 十八梵天, 六欲天子, 十六大國王, 合掌至心, 聽佛誦一切佛大乘戒.

■ 이 아래 세 번째 결계서(結戒序)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경가서(經家序)요, 뒤는 세존서(世尊序)이다. 이 부분은 처음이다.

‘그 때’라 말한 것은 천왕궁(天王宮)에서 와 응신과 화신(應化)으로 나타난 때이다. ‘석가(釋迦)’는 중국어로는 능(能)이요, ‘모니(牟尼)’는 고요함[寂]이다. ‘보리수’는 마가다국(摩伽陀國)에 있는데, 이 나무 아래에 금강대(金剛臺)가 있다. 이 아래에서 깨달음을 증득하였기에 보리수(菩提樹)라고 부른다.

처음 돈오(頓悟)하시고 제정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삼승(三乘)의 모든 행이 여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며 삼제(三際, 과거 현재 미래)⁸⁴⁾에 결정코 범하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니, 때를 따라 점차로 제정된 성문계(聲聞戒)와는 다르다. 『문수문경(文殊問經)』과 『열반경(涅槃經)』에서 이르기를 “먼저 미리 계를 제정하면 세간에서 의심을 낸다.”고 하며 ‘마치 옷을 꿰맬 때, 떨어진[破] 곳을 따라, 따라가면서 꿰매는 것과 같다.’⁸⁵⁾ 고 하였다.

84) 삼제(三際)는 삼세(三世)의 다른 이름으로 횡변시방 수궁삼제(橫遍時方 豎窮三際)이다. 횡(橫)은 공간적으로 시방에 두루 한 것이고, 수(豎)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한다는 의미이다.

85) 『문수사리문경(文殊舍利問經)』 「잡문품(雜問品)」 16(大14 p.503c10) 가운데 “왜

지금의 보살계는 이와 같지 않아서 성불 하자마자 처음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십지경론(十地經論)』에 의하면 성도하고 첫 칠일 동안은 스스로 법락(法樂)을 받으시고, 두 번째 칠일 동안에 비로소 말씀을 시작하셨다.⁸⁶⁾ 지금 ‘처음으로 제정하였다.’는 것은 당연히 두 번째 칠일간의 일이다.

述曰，自下第三結戒序中有二，初經家序，後世尊序。此即初也。言爾時者，從天宮來應現時也。釋迦此云能，牟尼即寂也。菩提樹者，在摩伽陀國，於此樹下有金剛臺，此下證覺，名菩提樹。何故初頓結者！三乘萬行從此生故，三際決定，不待犯故，不同聲聞隨時漸制。如文殊問經及涅槃經云，“先預制戒，世間生疑。”故如補衣，隨破隨補。今菩薩戒則不如是，故初成佛，初結此戒。依十地論，成道初七日，自受法樂，第二七日，方起言說。今云初結，應第二七。

■ ‘효(孝)’는 양육을 말하며 ‘순(順)’은 곧 공경이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곧 ‘효도’이다. 은(恩)에 두 가지가 있으니, ① 몸을 낳아서 길러주신 은혜로써 부모에 대한 것이고, ② 법신을 길러주신 은혜이니 사승(師僧) 등에 대한 것으로 재산과 법, 두 가지로 마땅히 공경히 모

중생들이 죄 짓기를 기다려서야 계를 제정하시려 하십니까.” 하는 문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북본(北本) 4권 「여래성품(如來性品)」 4-1(大12 p.387a22)에서 부처님에게 대중들이 왜 계를 미리 정하지 않으셨는지 대중이 부처님에게 여쭙었을 때 비유로 답한 내용인 “見衣有孔，然後方補。”이다. 여기에서 『문수문경(文殊問經)』의 내용에서 뜻만 취하고 『열반경』의 비유를 연결했다.

86) 『십지경론(十地經論)』 「초환희지(初歡喜地)」(大26 p.124a11)에 “何故不初七日說云云.”한 곳과 「법운지(法雲地)」(大26 p.203a9)의 “佛在他化自在天中，成道未久，第二七日，自在天王宮摩尼寶藏殿.”이라고 한 설명에서 뜻만 취하였다.

셔야 한다. 이 가운데 사승과 삼보는 지극한 도(道)로 차례대로 모시며 도와야 하며, 의지하고 반연해야 하므로 따로 열거하였다.

‘효(孝)는 계(戒)라고 하며 또한 제지(制止)라고도 한다.’는 것은 효는 모든 행의 근본이며 선왕(先王)의 중요한 도이며, 계는 온갖 선의 기초이며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니 선(善)이 이로부터 발생한다. 효를 ‘계(戒)’라고 하니 악(惡)이 이로부터 사라지므로 또한 ‘제지’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까닭으로 효와 계는 이름은 다르나 뜻은 같다.

‘입에서 빛을 내었다.’고 한 것은 빛을 놓아서 대중을 부른 것으로 한없는 빛을 내어 인연 있는 중생을 부른 것이다. 걸림 없는 문[無礙門]으로 긴 밤을 비추어 인도함을 나타내었다. ‘대계(大戒)’는 대승계이니 이 가운데 성문중(聲聞衆)은 없다.

孝謂養育，順卽恭敬。知恩報恩，卽是孝道。恩有二種，一滋長生身恩，謂卽父母，二長養法身恩，卽師僧等，以財法二，如應敬養。此中師僧三寶，至道如次助伴，所依所緣，所以別舉。孝名戒，亦名制止者，孝爲百行之本，先王要道，戒爲萬善之基，諸佛本原 善從此生。孝名爲戒，惡從此滅，亦名制止。所以孝戒，名異義同。言卽口放等者，放光招衆，放無量光而招有緣。表無礙門照導長夜。言大戒者，大乘戒也，是以此中無聲聞衆。

(2) 세존 서 世尊序

① 스승의 서 師序

□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지금 보름마다 스스로 모든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외우나니, 그대들 모든 발심한 보살들도 또한 외워야 하고,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의 보살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외워야 하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계의

광명이 입에서 나온 것이니 연(緣)만 있고 인(因)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佛告諸菩薩言. “我今半月半月, 自誦諸佛法戒, 汝等一切發心菩薩亦誦, 乃至十發趣, 十長養, 十金剛, 十地諸菩薩亦誦. 是故戒光從口出, 有緣非無因故.”

■ 이 아래는 부처님의 서[佛序]이다. 서(序)에는 차례대로 스승과 법(法)과 제자의 삼륜(三輪)이라는 상(相)이 성립된다. 스승에는 두 종류가 있다. ① 근본[本]이신 부처님이고 ② 지말[末]이니 보살이다. 그러므로 ‘내가 외우므로 그대들도 또한 외우라.’고 하신 것이다.

‘보름마다 외운다.’는 것은 비록 스승이 없다 하여도 의지할 법[依法]은 머무르기 때문이다. 횃수를 늘리면 물러나기 쉽고 횃수를 줄이면 나아가기 어려우므로⁸⁷⁾ 계(戒)에서 물러나지 않고 정혜(定慧)를 닦아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보름에서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았다. 『유교경(遺敎經)』에서 “바라제목차는 그대들의 스승이니 내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것과 다름이 없느니라.”⁸⁸⁾라고 하신 것과 같다.

‘발심’이란 십신위(十信位)이다. 행(行)에서 실제로 물러남이 있으면 삼현(三賢)의 바른 위[正位]가 아니다. ‘십발취(十發趣)’는 십주(十住)이니 삼현(三賢, 十住·十行·十回向)의 처음이기 때문이다. ‘십장양(十長養)’은 십행(十行)이니 성태(聖胎)를 기르기 때문이다. ‘십금강(十金剛)’은 십회

87) 포살 횃수를 늘리면 번거로워서 그만두기 쉽고, 줄이면 잊어버려 실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88)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大12 p.1110c20) “於我滅後, 當尊重珍敬波羅提木叉, 如闇遇明, 貧人得寶. 當知此則, 是汝大師, 若我住世, 無異此也.”

향(十迴向)이니 오력(五力)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하권에서 “다 십지 이전[十地前]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계는 능히 어둠을 깨뜨리고 빛으로써 상서(祥瑞)를 삼나니, 항상 입으로 외워서 지니므로 ‘연(緣)만 있고 인(因)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述曰，自下佛序．如次序成師法弟子三輪相也．師有二種．一本謂佛，二末菩薩．故言我誦，汝等亦誦．半月誦者，雖師隱沒，依法住故．增卽易退，減卽難進，爲不退戒，進修定慧．是故半月，不增不減．如遺教云，“波羅提木叉，是汝等師，若我住世，無異此也．”言發心者，十信位也．行實有退，非三賢之正位．十發趣者，十住也，三賢初故．十長養者，十行也，長養聖胎故．十金剛者，十迴向也，攝五力故．本業下卷，“皆地前故．”戒能破暗，以光爲瑞，常所誦持，從口而出，故說有緣非無因也．

② 법의 서 法序

□ 빛과 빛은 푸른색도, 누른색도, 붉은 색도, 흰 색도, 검은 색도 아니다. 빛[色]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 법도 아니니라. 이것은 제불의 본원이며 보살들의 근본이며 대중과 모든 불자들의 근본이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여러 불자들은 마땅히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잘 배워야 하느니라.

光光，非青黃赤白黑．非色非心，非有非無，非因果法．是諸佛之本源，菩薩之根本，是大衆諸佛子之根本．是故大衆諸佛子，應受持，應讀誦善學．

■ 두번째 법(法)이다. 이 가운데 ‘빛과 빛[光光]’은 모든 계를 말하며 상서로운 모습을 비유한 이름이다. 계(戒)는 비록 명색(名色)⁸⁹⁾이기는 하나

모양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여 분한(分限)을 세워야 한다. 질애(質礙, 막힘)가 없으므로 색(色, 물질)이 아니며, 연려(緣慮)가 없으므로 마음도 아니다. 연(緣)을 떠나지 않기에 있는 것[有]도 아니고, 연(緣)에 즉(卽)하지 않기에 없는 것[無]도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과 법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보살의 근본인 것이다. 인과와 더불어 근본이 되므로 이 때를 인하여 대중도 또한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불자들이 처음 받고서, 후일에 지니며 글을 외우고 뜻을 배우는 것이다.

述曰, 此第二法也. 此中光光, 謂諸戒也, 從喻瑞相而得名故. 戒雖名色, 而非顯形. 以依善思分限立故. 無質礙故非色, 無緣慮故非心. 不離緣故非有, 不卽緣故非無. 以非有故非因果法, 以非無故諸佛本原, 佛本原故菩薩根本. 以與因果作根本故, 由此時衆亦爲根本. 是以佛子初受後持, 誦文學義.

③ 제자의 서 弟子序

□ 불자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불계(佛戒)를 받으려는 이는 국왕과 왕자·백관(百官)·재상(宰相)이며 비구·비구니와 십팔범천(十八梵天)·육욕천자[六欲天子, 육계 육천의 하늘사람]·서민·황문(黃門)⁹⁰⁾·음란한 남자

89) 명색(名色, ㉔ nāma-rūpa)은 십이연기의 제4지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의를 해석하면 명(名)은 심적(心的)인 것, 색(色)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킨다. 유식설에서는 미래세의 응보를 초래하는 힘을 가진 아뢰야식의 명언종자 속에 본식(本識, 육근(六根), 촉(觸), 수(受)의 종자를 뺀 것을 명색(名色)이라 하고 혹은 5온의 종자를 명색(名色)이라고 한다.

90) 황문(黃門)이란 중성자(中性者), 성기(性器)가 제거된 사람. 완전한 남근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 아내는 있어도 아이를 만들 수 없는 자, 내시, 대궐문을 지키는 자를 말한다.

[姪男]·음란한 여자[姪女]·노비·팔부귀신(八部鬼神)·금강신(金剛神)·축생이거나 그 외의 변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들으면 모두 계(戒)를 받을 수 있나니, 이들을 이름하여 제일 청정한 자라고 하느니라.

佛子諦聽. 若受佛戒者, 國王王子, 百官宰相, 比丘比丘尼, 十八梵天, 六欲天子, 庶民黃門, 姪男姪女奴婢, 八部鬼神, 金剛神, 畜生乃至變化人, 但解法師語, 盡受得戒, 皆名第一清淨者.

■ 이 부분은 세 번째 계를 받는 제자[所被弟子]이다.

‘비구’란 먼저 성문계(聲聞戒)⁹¹⁾를 받은 자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을 돌이켜 계를 받을 때에 점차적으로 보살계⁹²⁾가 이루어진다[轉成].”고 하였으나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다른 승[餘乘]의 종자(種子)에 의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이며, 다만 먼저 받은 소승의 계는 대승계를 돕는 힘이 있을 뿐이다.

보살승(菩薩乘)의 마음은 다른 종자에서 생기므로 저기에서 훈습(熏習)된 것과 별도로 무표색(無表色)⁹³⁾을 일으킨다.

91) 성문계(聲聞戒)란 부파불교의 교단에서 전해 내려온 율장에 규정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즉 비구·비구니가 지키는 구족계(具足戒)를 의미한다.

92) 보살계란 대승불교의 출가보살이 지키는 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승계경(大乘戒經)에 언급된 보살계를 말한다. 그런데 대승계경에 나타난 보살계는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의 사중사십이범사(四重四十二犯事), 『유가사지론』의 사중사십삼경계(四重四十三輕戒),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의 육중이십팔실의계(六重二十八失意戒), 『보살내계경(菩薩內戒經)』의 사십칠계(四十七戒), 『범망경』의 십중사십팔경계, 『보살선계경』의 팔중사십팔경계 등이다.

93) 무표색(無表色, ㉔avijñapti-rūpa)은 밖으로 표현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

‘십팔범천(十八梵天)’이란 색계의 무리이다. 세 가지 정려[三淨慮]에 각각 삼천(三天)이 있고 제사선(第四禪)에 구천(九天)이 있기 때문이며 무상천(無想天)의 처음과 끝에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보살선계경』에서 “반드시 먼저 보리심을 내어야 비로소 보살계를 받을 수 있거늘 어떻게 정거천(淨居天)들이 계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십팔(十八)은 종합적으로 말한 것이나 뜻은 다르다. 마치 하나의 비구를 육군(六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무상천(無想天)과 정거천(淨居天)을 제외하고 따로 십팔범천(十八梵天)이 있다.”고 하였다. 『보살본업경(菩薩本業經)』은 “아래 삼정려(三淨慮)에 각각 사천(四天)이 있고 제사선천(第四禪天)에 육천(六天)이 있다.”⁹⁴⁾고 하며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이들 모두 성불할 수 있다.”⁹⁵⁾고 하였다.

그러나 『유식론(唯識論)』에서는 “통틀어 색계에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곁에서 술(述)하여 아직 보리에 회향을 세우지 못한 성문을 가르쳐 말하기를 “만약 반야를 의지하여 대승의 마음[大

로서 물질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구사론』에서는 색법(色法)의 열한 가지 법 가운데 하나로 사대종(四大種)을 만든다 하고, 유식설에서는 제6의식의 사(思)의 심소가 제8식으로 훈습된 종자 위에 거짓으로 세운 심법으로 무표사(無表思)라고 한다. 또 무표색은 ‘사(思)의 종자(種子)’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종자란 행위 후에 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力]으로 이것은 유식설에서 훈습(熏習) 또는 습기(習氣)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부의 무표색은 이것을 실체적으로 파악하나, 경량부에서는 이것을 배척하고 무실체(無實體)의 입장에서 역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94) 『불설보살본업경(佛說菩薩本業經)』(大10 p.447a20)에 부처님의 발바닥 룬(輪)에서 빛으로 비춘 일인세계(日忍世界)의 구성을 뜻만 취하였다.

95) 『범망경고적기촬요(梵網經古迹記撮要)』 2권 p.25 上에는 “실에 의거하는, 據實” 등에 대해 의적(義寂)의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大40 p.663a24)에서 “經說, 淨居下來, 受佛記故, 知亦有發心受.”라 하였다.

心]을 일으키지 않으면, 오정거천(五淨居天)에 나아갈지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요의(了義)는 마음을 돌이킴이 없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다만 불공계(不共戒)를 받아 의지한다면 황문(黃門) 등도 또한 계를 받는 것이 허락된다. 만약 널리 배워 행함에 칠중(七衆)이 따로 받으려면 마땅히 십육경차(十六輕遮)와 십삼중난(十三重難)⁹⁶⁾이 성문의 수계(受戒)와 같은 줄 알아야 한다.

述曰, 此卽第三所被弟子. 言比丘者, 先受聲聞. 有說, “迴心受戒時, 轉成菩薩戒.” 非也. 彼依餘乘種子立故, 但前小戒有助大力. 菩薩乘心, 別種子生, 於彼所熏, 別起無表. 十八梵者, 色界衆也, 謂三靜慮各有三天, 第四有九故. 無想初後, 許有心故. 善戒經云, “要先發菩提心, 方得受菩薩戒, 如何淨居亦得受戒.” 有說, “十八言總意別, 如一比丘名六群.” 有說, “除無想淨居, 別有十八梵.” 如本業經, “下三靜慮各有四天, 第四六故.” 有說, “據實, 亦有成佛.” 然唯識論, “總成色界有迴心已.” 傍述, 未建立迴向菩提, 聲聞教云, “若依般若, 不發大心, 卽五淨居無迴心者.” 不謂了義亦無迴心. 於中且依受不共戒, 許黃門等亦受得戒. 若徧學行, 別受七衆, 當知遮難, 同聲聞受.

■ 어떤 이가 묻되 “만약 황문(黃門) 등도 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경에서 ‘만일 우바새계(優婆塞戒)와 사미계(沙彌戒)와 비구계(比丘戒)를 받

96) 수계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차(遮)는 십육경차(十六輕遮)와 난(難)은 십삼중난(十三重難)이다.

지 않고서 보살계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다. 비유하자면 이층 누각[重樓]이 일층을 말미암지 않고 이층을 올린다면 옳지 않은 것과 같다.’⁹⁷⁾고 하며 그 스스로 해설하기를 “반드시 율의(律儀)로 인하여 뒤의 불공(不共)의 두 보살계를 받아야 하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반드시 보살이 먼저 소승계에 대한 믿음[小心]을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들을 일러 제일 청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대지도론』에서 “모든 아라한보다 뛰어나다.”⁹⁸⁾고 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반야경(般若經)』에서 “이승(二乘, 聲聞 緣覺)의 선근은 반딧불과 같아서 오직 자신만 비출 뿐이요, 대승의 선근은 햇빛과 같아 일체를 인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有問, “若黃門等, 亦受得戒, 何故經云, ‘若言不受優婆塞戒,

97) 『보살선계경』 1(大30 p.1013c24) “菩薩摩訶薩成就戒, 成就善戒, 成就利益衆生戒, 先當具足學優婆塞戒, 沙彌戒, 比丘戒. 若言不具優婆塞戒, 得沙彌戒者, 無有是處. 不具沙彌戒, 得比丘戒者, 亦無是處. 不具如是三種戒者, 得菩薩戒, 亦無是處. 譬如重樓四級次第, 不由初級至二級者, 無有是處. 不由二級至於三級, 不由三級至四級者, 亦無是處. 菩薩具足三種戒已, 欲受菩薩戒, 應當至心以無貪着, 捨於一切內外之物. 若不能捨, 不具三戒, 終不能得菩薩戒也.”라 하였는데 『범망경고적기촬요』 2권 23장 뒷면에는 이것을 근거로 남산율사가 수계 절차를 수립하였다고 한다.

98) 『대지도론』 35권 「석습상응품(釋習相應品)」 3-1(大25 p.322b4)에서 “所以, 十方恒河沙, 舍利弗目連, 不如一菩薩者.”라 한 것을 뜻만 취하였다. 이 인용구는 600부 반야(般若)의 “佛告舍利弗, 菩薩摩訶薩, 能作是念, 我當行六波羅蜜, 乃至十八不共法, 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度脫無量阿僧祇衆生, 令得涅槃. 譬如螢火虫, 不作是念, 我力能照一閭浮提, 普令大明, 諸阿羅漢辟支佛亦如是, 不作是念, 我等行六波羅蜜, 乃至十八不共法,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度脫無量阿僧祇衆生, 令得涅槃.”을 해석한 것이다. ‘이승선근(二乘善根)’이라는 표현은 경에 나오지 않으나 ‘대승선근(大乘善根)’이라는 말과 대비해서 전체적 의미를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沙彌戒，比丘戒，得菩薩戒，無有是處。譬如重樓，不由初級，得第二級，無有是處.’”彼自解云，“必由律儀，得後不共，二菩薩戒。故作是說，未必菩薩先發小心。”皆名第一清淨者，如論，“超勝諸羅漢故。”何故爾者，如般若言，“二乘善根，猶如螢火，唯照自身，大乘善根，猶如日光，導一切故。”

[정종분]

5) 바로 설하는 분 正說分

(1) 십중대계 重

① 총히 나타내다 總標

ㄱ. 수를 들어 제정 舉數制持

□ 부처님께서 여러 불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 가지 중요한 바라제 목차[十重波羅提木叉]가 있느니라. 만약 보살계를 받고 이 계를 외우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며 불종자가 아니므로 나도 이와 같이 외우느니라.”라고 하였다.

佛告諸佛子言，“有十重波羅提木叉。若受菩薩戒，不誦此戒者，非菩薩，非佛種子，我亦如是誦。”

■ 두 번째 정설분(正說分, 본문)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① 중(重, 무거운 계)과 ② 경(輕, 가벼운 계)이다. 처음에 세 가지가 있으니 ① 총표(總標)와 ② 별송(別誦)과 ③ 결성(結成)이다. 다시 총(總)에 두 가지가 있으니, ① 수를 들어 지닐 것을 제정한 것[舉數制持]과 ② 상을 보여주어 배

우기를 권하는 것[示相勸學]이다. 이 부분은 수를 들어 지닐 것을 제정한 부분이다.

『유가사지론』에는 네 가지를 세웠으니 『보살계본중요』의 해석과 같다.⁹⁹⁾ 『선생경(善生經)』에서 재가(在家) 대중을 의지하여 오직 앞의 여섯 가지¹⁰⁰⁾만 설하였으니 거친 것만 드러냈기 때문이다. 『선계경(善戒經)』에

99) 『유가사지론』 42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3(大30 p.522a10)에 “一者正受戒, 二者本性戒, 三者串習戒, 四者方便相應戒.”라 하였고 태현은 『보살계본중요』(大45 p.917b9)에서 “所以後四爲根本重”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셋째 경중성문(輕重性門)이란, 취하고 버리는 것이 비록 일체의 잡염(雜染)과 청정(淸淨)을 포섭하고 있으나 가행업(加行業)에서는 금계(禁戒)를 제정하기 때문이다. 간략히 열 가지 중한 것과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十重四十八輕戒]가 있다. 그러나 보살계는 의지(意地)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니, 만약 수승한 이익을 보면 몸과 말의 계를 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악도 탐진치(貪瞋癡)를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으며, 좋은 것을 이끌어 악을 밀쳐내지 않음이 없으므로 뒤의 넷으로써 근본 중죄를 삼는다. 三輕重性門者, 所取及捨, 雖攝一切雜染淸淨, 於加行業, 制禁戒故. 略有十重四十八輕. 然菩薩戒, 意地爲本, 若見勝利, 縱身語故, 無惡不由貪瞋癡者, 無不爲引好推惡, 所以後四爲根本重.”고 한다. 또 『중요(宗要)』(大45 pp.915a13-918a24)는 “섭선계(攝善戒)에서 심하게 어기는 것이 둘이 있으니, 첫째는 복을 닦고 지혜를 버리는 것이요, 둘째는 대(大)를 버리고 소(小)를 향하는 것이다. 탐은 치우쳐 맨 처음을 끌어내고 어리석고 성냄을 두루 이끌어 내며, 나머지 둘은 뒤를 이끌어 대승을 어기기 때문이다. 섭유정계(攝有情戒) 가운데 심하게 어기는 것이 둘이 있으니, 첫째는 자기를 먼저하고 다른 이를 나중 하는 것이요, 둘째는 친하거나 원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악을 미루어 처음을 이끌고 탐냄과 성냄으로 뒤를 끌어내며, 어리석고 사된 소견으로 통틀어 일체를 끌어낸다. 이로 인하여 따라 응해서 삼취의 근본이 된다. 攝善戒中, 極違有二, 一修福捨智, 二棄大向小. 貪偏引初, 愚癡遍引, 餘二引後, 違大乘故. 攝有情中, 極違有二, 一先自後他, 二有親怨想. 推惡引初, 貪瞋引後, 愚癡邪見通引一切. 由此隨應 爲三聚本”라고 하고 있다.

100) 『선생경(善生經)』이란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이다. 이 경 3권 「섭취품(攝取品)」(大24 p.1049a28)에서 “우바새에 6종 법이 있으니[優婆塞者有六重法]” 살생

의하면 출가보살에게는 팔중법(八重法)¹⁰¹⁾을 세웠는데 바로 이 열 가지 속에 처음의 네 가지 계와 뒤의 네 가지 계이니, 공(共)과 불공(不共)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계이기 때문이다. 이 경과 『본업경(本業經)』에서는 모두 십중계(十重戒)를 세웠으니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述曰，第二正說分。此有二，初重後輕。初中有三。總標故，別誦故，結成故。總中有¹⁰²⁾二，舉數制持故，示相勸學故。此初也。瑜伽立四，如宗要釋。若善生經，依在家衆，唯說前六，以麤顯故。依善戒經，出家菩薩立有八重，卽此十中初四後四，以共不共根本重故。此經本業，總立十重，以通攝故。

■ 계송으로 말하자면

몸으로 짓는 죄에 네 가지[殺·盜·婬·酤酒]가 있고,
 입으로 짓는 죄에 세 가지[妄語·談他過失·自讚毀他]가 있고,
 또 뜻으로 짓는 죄에도 세 가지[慳生毀辱·瞋不受謝·毀謗三寶]가 있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네 가지 죄[盜·婬·酤酒·慳貪]와, 두 가지 죄[殺·瞋]와,

하지 말라[不得殺生]· 훔치지 말라[不得偷盜]· 헛된 말을 하지 말라[不得虛說]·
 사음하지 말라[不得邪婬]· 사부대중의 죄과를 말하지 말라[不得宣說四衆罪過]·
 술을 팔지 말라[不得酤酒]의 여섯을 들고 있는데, 이는 『범망경(梵網經)』의 십중
 (十重) 가운데 순서대로 여섯 가지에 해당한다.

101) 『보살선계경』(大30 p.1015a4)에 “菩薩戒者，有八重法，四重如先。”이라 하여 살(殺)·도(盜)·음(婬)·망(妄)을 수용하고 그 아래에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不自讚他毀]· 탐하고 아껴 베풀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貪惜不施]· 성내어 악을 더하지 말라[瞋不加惡]· 스승과 동학을 비방하면 함께 머물지 못하라[同師同學誹謗不共住]는 계를 더하였다.

102) 卍60 p.422b17에는 ‘三’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8b21에는 ‘二’로 되어 있다.

한 가지 죄[邪見]가 생기며

입으로 짓는 세 가지 죄[談他過失戒·讚他毀戒·毀謗三寶]는

세 가지[妄語·惡口·兩舌]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음욕과 성냄과 그릇된 견해는 유정[有情] 만이 아니다.

열 가지 가운데 네 가지 계[殺·盜·婬·沽酒]는 신업(身業)이 바탕이 된다. 『대지도론』 13권에서는 “고주계(酤酒戒, 술을 팔지 말라)와 앞의 세 가지는 모두 신계(身戒)인 까닭이며, 제사계(第四戒, 故心妄語)와 제육계(六戒, 談他過失), 제칠계(七戒, 自讚毀他)는 어업(語業)의 죄가 되고, 그밖에 말로 짓는 두 가지 악업[二語, 惡口·兩舌]은 내용에 따라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되기도 한다.”¹⁰³⁾라고 하였다. 그러나 업도(業道)에 있어서 타승처(他勝處, 바라이죄)가 아닌 것은 애욕에 물든 노래 등은 기어(綺語)에 포함된다.

이 낱낱의 중계(重戒)는 각각 탐진치(貪瞋癡)를 받아들여 방편을 삼았다. 도(盜)와 음(婬)과 고주(酤酒)와 간탐(慳貪)은 탐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究竟], 살(殺)과 진(瞋)은 진(瞋)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며, 사견(邪見)은 치(癡)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나머지 세 가지 계[三戒, 談他過失戒·自讚他毀戒·毀謗三寶]¹⁰⁴⁾는 셋[三, 綺語를 뺀 나머지]을 말미암은 것이다.

남의 명예와 이익을 질투하여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진(瞋)으로 이루어진다. 음(婬)과 진(瞋)과 사견(邪見)은 혹 비정(非情)을 따르기도 하니

103) 『대지도론』 13권 「석초품중계상의(釋初品中戒相義)」 22-1(大25 p.154c7)의 십중(十重)을 삼업(三業)에 배대(配對)한 내용을 약취(略取)하였다.

104) 여섯 번째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담타과실계[談他過失戒], 일곱 번째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라는 자찬훼타계[自讚毀他戒], 열번째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훼방삼보계[毀謗三寶戒]를 말한다.

아직 썩지 않은 시체에 음행하는 것은 비정(非情)의 유(類)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다만 유정의 편에서만 비로소 중죄가 결정된다. 비록 도(盜)는 비정(非情)의 것이나 주관하는[王] 편에서 (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頌曰, 四身三語意亦三. 由貪瞋癡四二一, 三語由三得究竟, 姪瞋邪見亦非情. 十中四以身業爲體. 智論十三云, “酒及前三, 俱身戒故, 第四六七, 語業爲罪, 餘二¹⁰⁵⁾語, 隨相爲第六七故.” 然有業道, 非他勝處, 謂染歌等綺語所攝. 此一一重, 各容貪瞋癡爲方便. 盜姪酤慳, 由貪究竟, 殺瞋由瞋, 邪見由癡, 餘三由三. 於他名利, 由嫉讚毀, 瞋究竟故. 姪瞋邪見, 或從非情, 姪屍未壞, 是非情類故. 餘唯情邊, 方結重罪. 雖盜非情, 王¹⁰⁶⁾邊結故.

■ 다시 계송으로 말해보면

모두 자기가 남에게 짓고

남도 남에게 그렇게 짓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짓는 것에 다섯가지[殺·姪·慳·瞋·邪見]가 있는데

남이 자기에게 짓는 것에는 다만 음행뿐이다.¹⁰⁷⁾

105) 卍60 p.423a11과 大40 703a17과 藥師寺藏本에는 ‘三’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8 c8에는 ‘二’로 되어 있다.

106) 卍60 p.423b1과 大40 p.703a23과 藥師寺藏本에는 ‘主’로 되어 있으나 韓3 p.448c15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니 다스리는 또는 주관하는 입장의 의미로 보인다.

107) 범장(法藏)은 『범망경보살계소(梵網經菩薩戒疏)』 1권(大40 p.609a20)에서 십중대계(十重大戒)에 대하여 釋名, 明犯因, 明犯具, 顯犯境, 造境自他, 自作教他, 犯相始終, 明犯輕重, 明諸部相攝, 明攝三聚의 열 가지 해석 틀을 제시하였다. 그 다

자기가 남에게 온갖 것을 다 짓기도 하고, 남이 남[他]을 향해서도 또한 열 가지 죄[十罪]를 다 지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남에게 짓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짓는 것에 전해오는 말씀[傳說]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니 살(殺)과 음(姪)과 간(慳)과 진(瞋)과 사견(邪見)이다. 몸을 버려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죽는 것[自殺]도 죄가 되는 것이다.

율(律)에 이르기를 “등을 구부려 스스로 입으로 음행한다.”¹⁰⁸⁾라고 하며, 『선생경(善生經)』은 “스스로에게 베푸는 것은 보시가 되지 않으나 스스로에게 인색한 것은 간계(慳戒)가 성립 된다.”¹⁰⁹⁾고 하였다. 스스로에게 화를 내거나 성품 다스림[理性]을 비방(誹謗)하는 등은 모두 자신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짓는 것은 음행(淫行)이 있을 뿐 다른 것은 없다. 도적에게 능욕 당할 때 쾌감[愛染]이 생기면 또한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復次頌曰，皆自於他造，他於他亦然，自於自有五，他於自唯姪。自於他邊，一切應造，他向於他，亦容具十，謂教他人，向他造故。自於自造，傳說有五，殺姪慳瞋及以邪見。謂捨利他，

첫번째에서 “第五，造境自他中，有四例，一自造他境，二他造自境，三自造自境，四他造他境。”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활용하여 계송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08) 『사분율』 55권 「조부(調部)」 1(大22 p.973a3) “爾時，有比丘體軟弱，以男根內口中，彼疑我將無犯波羅夷耶。佛言犯。”이라고 하였다.
- 109) 『우바새계경』(大24 p.1044b1) “是故菩薩，先應自施，持戒知足，勤行精進，然後化人，菩薩若不自行法行，則不能得教化衆生。”이라 하고 뒤(大24 p.1045c11)에서 “菩薩摩訶薩，見來求者，生一子想，是故任力多少施之，是則名爲施波羅蜜。菩薩施時離於慳心，名尸波羅蜜。”이라 한다.

自死爲罪. 律云, “弱背自姪面門.” 善生經云, “自施不成施, 自慳卽成慳.” 於自發憤, 謗理性等, 皆自犯故. 他於自造, 姪有餘無. 被賊所汚, 順生愛染, 亦爲犯故.

■ 반드시 자기가 짓지 않고 남을 시켜 짓게 한 것도 아닌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따라 기뻐함[隨喜]’ 때문이라고 한다. 꼭 신어의업(身語意業)을 짓지 않았어도 계를 파한 것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이가 이것을 가리켜 ‘짓지 않았어도 마땅히 지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답은 『보살계본중요』의 「지범문(持犯門)」¹¹⁰⁾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덧붙이는 뜻은 마친다.

頗有犯罪自亦不作, 不教¹¹¹⁾他作, 有謂隨喜. 頗有不發身語意

110) 『범망경보살계본중요』(大45 p.917b13)의 「지범상문(持犯相門)」을 말한다. “넷째 지범상문(持犯相門)이란 간략히 세 가지 문이 있으니, 첫째는 총상문(總相門)이요, 둘째는 별상문(別相門)이며, 셋째는 구경문(究竟門)이다. 첫째 총상이란, 만약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범하는 것이라면 범하면서 또한 행동하는 것이다. 사구(四句)로 분별해보면, 혹 행동하지만 범하지 않음은 수승한 이익을 보고 보살계 가운데에서 하열한 범부가 선심으로 지은 것은 다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범함이 있는 것은 따라 기뻐하는 등이니 다른 구절은 마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四持犯相門者, 略有三門, 一總相門, 二別相門, 三究竟門. 一總相者, 若作必犯, 設犯亦作. 四句分別, 或有作而非犯, 謂見勝利, 菩薩戒中, 乃至下凡, 善心所作, 皆非犯故. 或有不作而犯, 謂隨喜等, 餘句應知”, “만약 범한 것은 반드시 물든 것이며 물든 것은 결정코 범한 것이니 여기에 4구가 있다. 제1구는 무부무기(無覆無記)이니 무지하고 방일하여 죄가 악을 도와 그 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요, 제2구는 그가 의요(意樂)를 일으켜서 부지런히 정진을 일으키는 것을 끊고자 함이니, 번뇌가 치성하여 그 마음을 덮고 눌러서 때때로 자주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나머지 구절은 마땅히 알지니라. 若犯必染, 設染定犯, 謂有四句. 第一句者, 無覆無記, 無知放逸, 此罪助惡, 招彼果故. 第二句者, 謂欲斷彼生起意樂, 發勤精進, 煩惱熾盛, 弊抑其心, 時時數起. 餘句應知”

111) 卍60 p.423b16에는 ‘殺’로 되어 있으나 韓3 p.449a5에는 ‘教’로 되어 있다.

業，得犯戒罪，有謂不作所應作等。此等問答，廣如宗要持犯門說。已辨傍義。

ㄴ. 상을 보여 지니기를 권하는 문 示相勸持門

■마땅히 본문을 해석하리라. 이와 같은 십중계(十重戒)를 받았으면서도 외우지 않고, 지켰는지[持], 어겼는지[犯] 알지 못하면 보살행을 잃은 것이니, 이미 보살이 아닌데 어찌 불종자이겠는가? “내가 이미 과(果)가 충만하여도 이와 같이 외우거늘 하물며 새로 배우는 사람이겠는가?”라고 한 뜻이 여기에 있다.

應釋本文，如是十重，受而不誦，卽迷持犯，失菩薩行，旣非菩薩，寧佛種子。“我已果滿，猶如是誦，況新學者。”此中意也。

□ 모든 보살들이 이미 배웠고, 앞으로도 배울 것이며, 지금 배우고 있는 보살의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모양을 이미 간략하게 설하였나니, 반드시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지니라.

一切菩薩已學，一切菩薩當學，一切菩薩今學。已略說菩薩波羅提木叉相貌，應當學，敬心奉持。

■ 두 번째 상을 보여 지니기를 권하는 문[示相勸持門]이다. 『열반경(涅槃經)』에서 “성문계(聲聞戒)는 부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가벼운 계[輕戒]를 무겁다고 하시고, 무거운 계[重戒]를 가볍게 여긴다.”¹¹²⁾고 하였으며

112) 『대반열반경』 권제6 「여래성품(如來性品)」(大12 p.402b21) “善男子，若有人言，如來憐愍一切衆生，善知時宜，以知時故，說輕爲重，說重爲輕。如來觀知，所有弟子，有諸檀越，供給所須，令無所乏。如是之人，佛則聽受，畜奴婢金銀財寶，販賣市易不淨物等。”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는 “비니(毘尼)는 다 세속의 뜻을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지, 실상(實相)만 논(論)한 것이 아니니, 불법(佛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후세에 죄가 어느 정도인지 살피지 않고, 또 후세에 죄가 무거워도 계에서는 가볍게 다루기도 한다. 마치 도인(道人)이 소나 양 등을 죽이고 여인을 찬탄하는 것[讚歎女人]¹¹³⁾이 계에서는 무겁게 다루어지나[重戒] 후세에는 죄가 가벼운 것과 같다.”¹¹⁴⁾고 하며 그 외에 자세하게 설하였다. 보살은 그와 달라서 무거운 것은 무겁다 하고 이치가 가벼운 것은 가볍다고 하나니 법성(法性)이 항상 그러하여 삼제(三際)를 꿰뚫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살의 별해탈상(別解脫相)이니 대과(大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녀야 할 것이다. 『유교경(遺教經)』에서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물이 항상 흘러서 돌을 뚫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한 일 없이 헛되이 죽으면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나니 비유하자면 훌륭한 의사가 병을 알고 약을 처방하지만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닌 것과 같다.”¹¹⁵⁾라고 하였다.

113) 비구계 가운데 승잔법(僧殘法)의 네 번째 여인을 향해서 몸을 찬탄하는 계[向女人歎身戒]이다.

114) 『대지도론』 「석삼혜품」(釋三惠品)(大25 p.648a29) “問曰, 若爾者毘尼中, 何以言殺化人不犯殺戒? 答曰, 毘尼中, 皆爲世間事, 攝衆僧故, 結戒不論實相, 何以故, 毘尼中, 有人有衆生, 逐假名而結戒, 爲護佛法故, 不觀後世罪多少, 有後世罪重戒中便輕, 如道人鞭打, 殺牛羊等罪重而戒輕, 讚歎女人戒中重, 後世罪輕, 殺化牛羊則, 衆人不嫌不譏不論, 但自得心罪, 若殺眞化牛羊, 心不異者得罪等, 然制戒意, 爲衆人譏嫌故爲重.”

115)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大12 p.1111c17)에서 “汝等比丘, 若勤精進則, 事無難者, 是故汝等, 當勤精進. 譬如小水常流則, 能穿石.”이라 하고 뒤(大12 p.1112a18)에서 “常當自勉精進修之, 無爲空死後致憂悔, 我如良醫知病說藥, 服與不服非醫咎也.”라 하였다.

述曰, 第二示相勸持門也. 涅槃經云, “聲聞戒中, 佛知時宜, 說輕爲重, 說重爲輕.” 大智論云, “毘尼皆爲世俗攝意, 不論實相, 爲護佛法. 故不觀後世罪多少, 又後世罪重, 戒中便輕. 如道人殺牛羊等, 讚歎女人, 戒中重, 後世罪輕.” 乃至廣說. 菩薩不爾, 實重說重, 理輕說輕, 法性常然, 貫三際故. 是謂菩薩別解脫相, 欲取大果, 宜敬心持. 如遺教云, “若勤精進, 事無難者, 譬如小水, 常流穿石.” “無爲空死, 後必有悔, 譬如良醫, 知病說藥, 服與不服, 非醫咎也.”

⊖ 쾌감을 느끼며 살생하지 말라 快意殺生戒第一經

□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만약 스스로 죽이거나 사람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으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며 주문으로 죽이는 등, 죽이는 인[殺因]이나 죽이는 연[殺緣]이나, 죽이는 법[殺法]이나 죽이는 업[殺業]에 이르기까지 모든 목숨 있는 것을 일부러 죽이지 말지니라. 보살은 항상 자비심에 머무르고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켜 방편으로 모든 중생들을 구하고 지켜주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제 멋대로 방자한 마음으로 쾌감을 느끼며 중생들을 죽이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니라.

佛言,¹¹⁶⁾ 佛子! 若自殺, 教人殺, 方便讚歎殺, 見作隨喜, 乃至咒殺, 殺因殺緣, 殺法殺業, 乃至一切有命者, 不得故殺. 是菩薩應起常住慈悲心, 孝順心, 方便救護一切衆生, 而反自恣心快意殺生者, 是菩薩波羅夷罪.

116) 卍60 p.424a17과 大40 p.703b20과 藥師寺藏本에는 ‘若’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7b5에는 ‘佛言’으로 되어 있다.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두 번째 별송(別誦)이다. 이 처음 십계(十戒)를 각각 두 가지 문(門)으로 해설한다. 처음에는 제정하신 뜻[制意]을 나타내었고 두 번째는 경문을 해석한 것이다.

먼저 제정하신 뜻[制意]이란 세간에서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괴로움[死苦]을 없애려는 것이다. 남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대지도론』에서 “세상에 보물이 가득 차 있다 해도 목숨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¹¹⁷⁾고 한다. 이러할진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마음먹고서도 지극한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면 이내 그 성(性)을 잃는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은 무엇으로 체(體)를 삼는가.”라고 물으니 바로 답하여 말하기를 “대비(大悲)로 체를 삼는다.”¹¹⁸⁾고 한 것과 같나니, 이로 인하여 가장 먼저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마치 성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117) 『대지도론』 13권 「대지도론석초품(大智度論釋初品)」 「시라바라밀의(尸羅波羅蜜義)」 21(大25 p.155b26)에서 살계(殺戒)를 맨 처음에 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 보물을 모았는데 바다에서 나오니 배가 갑자기 부서져 그 보물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손을 들고 ‘어찌 더 큰 보물을 잃으랴’고 하였다. 곁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의아해서 ‘그대는 재산도 다 잃고 벌거벗은 채 겨우 살아났는데 무엇 때문에 어찌 더 큰 보물을 잃겠는가 라고 외치는가’하고 물었다. 그 때 그 사람이 답하기를 “일체보배 가운데 인명이 제일, 一切寶中人命第一”이라고 말하였다. 즉 살기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지 재산 때문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은 십선계(十善戒)와 오계(五戒)등에서 불살생(不殺生)을 맨 처음에 둔 것이다.

118) 『유가사지론』 78권 「섭결택분」 「보살지」 7(大30 p.732c21) “世尊, 如是一切波羅蜜多, 何因何果有何義利 善男子, 當知一切波羅蜜多, 大悲爲因, 微妙可愛. 諸果異熟, 饒益一切有情爲果. 圓滿無上, 廣大菩提, 爲大義利.” 『범망경고적기촬요』 2권 31쪽 후면에는 『유가사지론』 44권이라 했으나 잘못된 듯하다.

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처럼 먼저 욕탐(欲貪)을 제어(制御)하는 것을 가장 중계(重戒)로 삼은 것이다.

述曰, 第二別誦. 此初十戒, 各二門說. 一顯制意, 二釋經文. 初制意者, 世間所畏, 死苦爲窮. 損他之中, 無過奪命. 如智論云, “設滿世界寶, 無有直身命.” 是則菩薩濟物爲心, 而施極怖, 便失其性. 如瑜伽云, “若問菩薩以何爲體.” 應正答云, “大悲爲體.” 由此最初, 制斯戒也. 猶如聲聞, 出苦爲先, 初制欲貪, 最爲重戒.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 두 번째, 경문을 해석함이니 경에는 네 가지 문이 있다. ① 범하는 상의 문[違犯相門]이요, ② 범하는 성의 문[違犯性門]이며,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境界事門]이고, ④ 죄를 결성하는 문[結成罪門]이다.

第二釋文者, 經有四門. 一違犯相門, 二違犯性門, 三境界事門, 四結成罪門.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 첫 번째 경에서 ‘만약 스스로 죽이거나’ 부터 ‘주문으로 죽게 하는데’ 까지이니, 이는 곧 범하는 차별상[違犯差別相]이다.

初者, 如經, 若自殺至呪殺, 此卽違犯差別相故.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 범하는 성[違犯性]이란 경에서 ‘죽이는 업[殺業]’에서 ‘죽이는 연[殺緣]’까지 이니, 다섯 가지가 갖추어지면 반드시 범함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에 ‘죽이는 업[殺業]’은 곧 구경(究竟, 가장 큰 죄)이다. ‘죽이는 법[殺

法]’은 방편이며, ‘죽이는 인[殺因]’은 죽이려는 욕구[意樂]와 번뇌(煩惱)이며, ‘죽이는 연[殺緣]’은 죽이는 일(事)이다.

이것에 의지하여 어떤 사람은 “업도(業道)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죄를 범한 것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만약 중죄를 지으려 하는 것을 보면 발심해서 사유하기를, ‘내가 만약 저 악한 중생의 목숨을 끊는다면 (나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나, 만일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의 죄업이 이루어져 반드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차라리 그를 죽이고 나락가(那落迦)¹¹⁹⁾에 떨어질지언정 그로 하여금 무간지옥(無間地獄)의 고통은 받지 않게 하리라.’ 이와 같이 그에 대하여 혹은 선심(善心)이나 무기심(無記心)으로 이러한 일을 알고 나서 내세를 위하여 깊이 부끄러워하는 마음[慚愧]을 내어 연민심으로 그의 목숨을 끊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하여 보살계에서는 범하는 것이 없고 많은 공덕이 생기는 것이다.”¹²⁰⁾라고 한다. 이것은 번뇌가 없는 까닭에 어기고 범함이 없으며, 의도[意樂]가 착하기 때문에 많은 공덕이 생기

119) 나락가(那落迦, 𑖅𑖦𑖫𑖞araka, niraya)는 중생이 죄업으로 인하여 태어나 혹독한 고통을 받는 곳이다. 『해심밀경(解深密經)』 권2(大16 p.694c10-13)에 삼무자성(三無自性)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여 온갖 번뇌에 물들어, “생사 속에 길이 치달려 가서, 오랜 세월동안 유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지옥의 중생으로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나거나 아귀가 되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아소락(阿素洛)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든 고뇌를 받는다. 於生死中, 長時馳騁, 長時流轉, 無有休息, 或在那落迦, 或在傍生, 或在餓鬼, 或在天上, 或在阿素洛, 或在人中, 受諸苦惱.”라고 하였다.

120)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보살지」 第15 「初持瑜伽處戒品」 10-2 (大30 p.517b9) “謂如菩薩見劫盜賊, 爲貪財故欲殺多生, 或復欲害大德聲聞獨覺菩薩, 或復欲造多無間業, 見是事已發心思惟, 我若斷彼惡衆生命, 墮那落迦, 如其不斷, 無間業成, 當受大苦. 我寧殺彼, 墮那落迦, 終不令其, 受無間苦. 如是菩薩, 意樂思惟, 於彼衆生, 或以善心, 或無記心, 知此事已, 爲當來故, 深生慚愧, 以憐愍心, 而斷彼命. 由是因緣, 於菩薩戒, 無所違犯, 生多功德.”이라 한다.

는 것이다.

違犯性者，如經，殺因¹²¹⁾至殺業¹²²⁾故，謂具五支，必成犯故。此中殺業，卽究竟也。殺法方便，殺因意樂及煩惱也，殺緣事也。依此有說，“不成業道，不入犯重。”如瑜伽說，“菩薩若見欲作重罪，發心思惟，我若斷彼惡衆生命，當墮地獄，如其不斷，彼罪業成，當受大苦。我寧殺彼，墮那落迦，終不令其受無間苦。如是於彼，或以善心，或無記心，知此事已，爲當來故，深生慚愧，以憐愍心，而斷彼命。由此因緣，於菩薩戒，無所違犯，生多功德。”此闕煩惱，故無違犯，意樂善故，生多功德。

■ 지금 해석하자면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업도(業道)¹²³⁾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한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목숨 있는 것이라면 모두 중처(重處)를 범한 것이니, 비록 생각이 전도(顛倒)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분계(分戒)를 따르고 위(位)에 따라 다르게 제정하겠는가.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 이 계를 설명하면서 “만약 출세간의 보살계를 받고도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

121) 卍60 p.424b14와 大40 p.703c2와 藥師寺藏本에는 ‘業’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9b23에는 ‘因’으로 되어 있다.

122) 卍60 p.424b14와 大40 p.703c2와 藥師寺藏本에는 ‘緣’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9b23에는 ‘業’으로 되어 있다.

123) 업도(業道)란 근본업도(根本業道)를 말하며 선악의 일을 저지른 때를 말한다. 그 업을 지을 때의 표업(表業)과 무표업(無表業)을 근본업도라고 한다. 이는 사업(事業)에 의해서 행하는 장소라는 뜻이다.

니라.”¹²⁴⁾ 라고 한 것과 같다. 모든 죄를 범한 경우[犯處] 세 사람만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논하니, 즉 마음이 광란(狂亂)한 자와 무거운 고통에 시달리는 자와 계를 받지 않은 자이다. 전설(傳說)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나 수승한 이익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生)을 바꾸어도 기억이 없으면 비록 (죄를) 지어도 범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며, 수승한 이익이 있는 것은 모두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今解不然. 不成業道, 亦成犯故. 如諸有命, 皆犯重處, 雖想顛倒而犯重故. 況隨分戒, 隨位制別. 如文殊問經, 說此戒云, “若受出世間菩薩戒, 而不起慈悲心, 是菩薩波羅夷罪.” 於諸犯處, 論除三人, 謂心狂亂, 重苦, 無戒. 傳說, “亦應除無憶念, 及有勝利. 轉生不能憶, 雖作無犯故, 諸有勝利處, 一切無犯故.”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 경계가 되는 일의 문[境界事門, 인연 대상]이란, 경에서 “그 밖에 모든 목숨 있는 것을 일부러 죽이지 말라.”고 한 것과 같다. 성문계(聲聞戒)에서는 살인만은 다루었지만, 여기서는 취생(趣生, 삼악취의 중생)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밖에[乃至]’라고 하였다. 저기서는 사(事)의 중함을 따른 것이요, 여기서는 이치[理]에 의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아사세왕(阿闍世王)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왕 이시여! 그대가 왕궁 안에서 항상 조칙으로 양을 잡으라고 할 때, 마음에 조금도 두려움이라고는 없는데 어찌하여 부왕에 대해서는 유독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십니까. 비록 다시 사람과 짐승에 준비의 차별이 있다 하여도 목숨을 보배로이 여김과 죽음을 무겁게 여기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

124)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출세간계품(出世間戒品)」 11(大14 p.497a15)

습니다. 만약 제가 목숨이 다하려는 찰나에 죽었다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¹²⁵⁾라고 하였다.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 “똑같이 죄를 얻는다.”¹²⁶⁾고 설하니, 그 괴로움의 인연이 거듭 갖추어졌기 때문이니, 자세하게 『문수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가르침을 어기는 죄에는 경중(輕重)이 비록 같으나 마음과 경계[心境] 등을 따르는 업(業)에 경중이 있음은 『론』¹²⁷⁾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문기를, 자기의 번뇌를 구별해 보면[自品煩惱] 그 힘이 마땅히 균등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경(善生經)』에서는 “탐욕으로 살생(殺生)하는 것은 가볍고[輕], 성냄으로 하는 것은 다음이며, 어리석음으로 하는 것은 무겁다[重].”고 하는가? 답하기를, 거칠고 미세한 것[麤細]은 비록 같으나, 어기는 것[違]에는 차이가 있다. 대승의 바른 이치를 벗어나서 어기는[違] 것 데에는 차례대로 탐욕 등이 무거운 것이 되나, 경(經)에서는 서로 통한다고 보았으니, 역시 어리석음이 무거운 것이다.

言境界事門者，如經，“乃至一切有命者，不得故殺故。”聲聞戒中，唯取殺人，今不簡趣，故言乃至。彼隨事重，今約理制。如涅槃經，佛告阿闍世王言，“大王！汝王宮中，常勅屠羊，心初

125) 『대반열반경』 20권 「범행품(梵行品)」(大12 p.484b3)의 내용. 아사세가 부왕(父王)을 죽인 후 부처님과 그 죄(罪)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 중 살생(殺生)에 대한 종합적 결론이다.

126)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하권 「잡문품(雜問品)」 16(大14 p.502a19)에 “命斷於此時，害者得殺罪，若無有壽命，而作壽命心，於此起害想，亦得言有罪。”라 하였다. 목숨 있는 것에 대한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진 행위는 그 순간의 상황 여하에 무관하게 살생(殺生)의 죄(罪)가 성립된다.

127) 『유가사지론』 60 「섭결택분중유심유사등삼지(攝決擇分中有尋有伺等三地)」 3(大30 p.632b14)에 심경(心境) 등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으니 “復次由五因緣，殺生成重。何等爲五 一由意樂，二由方便，三由無治，四由邪執，五由其事。”라 하였다.

無懼，云何於父，獨生懼心。雖復人獸尊卑差別，實命重死，二俱無異。若中彼壽盡剎那殺，如何得罪。”文殊問經說，“得同罪。”以加彼苦緣具足故，廣如彼說。違教之罪，輕重雖同，隨心境等，業有輕重，如論廣說。問自品煩惱，勢力應等，何故善生云，“貪殺生輕 瞋次癡重。”答麤細雖等，所違有異。違於出離大乘正理，如其次第，貪等爲重，經約相通，且癡爲重。

④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 죄를 결성하는 문[結成罪門]은 경에서 ‘이 보살은’부터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바른 행[正行]을 대함으로써 도리어 죄를 결정하기[結罪] 때문이다. ‘항상 자비심에 머문다.’는 것은 아래 중생[群生]을 반연하여 항상 붙잡히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유정법[有情法]이 그러하므로 종성[種性]에 매이게 [繫屬]되는 것이며, 나에게 속하는 종류는 나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다. ‘효순하는 마음’은 위로 수승한 품[勝品]에 반연하여 부끄러워[慚愧]하는 마음이니, 보살들이 나를 제도하기 위하여 무량겁토록 큰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살은 반드시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데, 제멋대로 방만한 마음으로 쾌감을 느끼며 살생을 하면 무거운 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結成罪門者，如經，是菩薩至波羅夷罪。以對正行，翻結罪故。常住慈悲心者，下緣群生，傷愍心也。有情法爾，種性繫屬，屬我之類，由我沒故。孝順心者，上緣勝品慚愧心也，以諸菩薩，爲度於我，無量劫受，大苦行故。菩薩應起，如是二心，而快恣心殺生，犯重。

■ 율(律)에서는 “성문계는 사람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죽이면 바라이

(波羅夷)¹²⁸⁾가 되고, 사람 아닌 것[非人]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면 다만 투란차(偷蘭遮)”라고 하였으나 보살계는 그렇지 않다. 다만 목숨 있는 것에 대하여 고의로 살생하면 모두 바라이가 된다. ‘바라이’란 중국어로는 타승처(他勝處)이니, 선(善)은 자신이요, 악(惡)은 남인데, 악법(惡法)이 이긴 것이다. 계(戒)는 바로 지계[持]와 범계[犯]가 의지하는 것이므로 처(處)¹²⁹⁾라고 한다.

이것이 경문의 간략한 뜻이다. 저 여러 상의 차별된 범함[犯] 가운데 다섯 가지 연[五緣]¹³⁰⁾을 범하면 바른 것[正]을 뒤집은 것으로 죄가 된다. 다른 여러 계문(戒文)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모든 계(戒)는 의주석(依主釋)으로 이름을 붙였다.¹³¹⁾

128) 바라이(波羅夷, Ṭṭh parājika)는 계율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 비구의 250계 중 처음의 4조항으로, 오편칠취(五篇七聚)의 제1科. 단두(斷頭)·타불여(墮不如)·퇴물(退沒)·타법(墮法)·악법(惡法)·타락(墮落)·타승(他勝)·기무여(棄無餘) 등으로 한역한다. 이 죄를 저지르면 교단으로부터 추방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다시 비구가 될 수 없다.

129) 소의(所依, āśraya)는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에서 9종의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기체지지(基體支持) ② 근저(根底) ③ 귀의소(歸依所) ④ 근원(根源)·원천(源泉) ⑤ 문법상의 주어로서 동작의 주체 ⑥ 육체(肉體), 때로는 육근(六根) ⑦ 인간의 총괄적인 존재방식 ⑧ 법계(dharmadhātu) ⑨ 전환되어야 할 존재의 근저(根底)라고 한다. 여기서 소의(所依)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나, 전의란 해탈(mokṣa) 자유(svatantra) 완성(pariniṣpanna)이다. 나아가 견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도의 정점에 위치하여 불지에 이르고, 법신을 달성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섭대승론(攝大乘論)』에는 의타기성(依他起性)의 별명이라고 서술되고 있다. 『유가사지론』의 「보살지(菩薩地)」 이후에는 소의가 아뢰야식과 관련되어 법신 또는 진여로서의 소의를 기술하고 있다.

130) 오연(五緣)은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 중 다섯 가지를 말한다. ① 지계 청정한 것 ② 의식(衣食)을 구족하게 하는 것 ③ 정려(靜慮)에 한거(閑居)하는 것 ④ 모든 연(緣)을 여윈 것 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131) 계명(戒名)을 정할 때 법체(法體)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말이다. 그래서 『고적기』

律云, “聲聞, 人作人想, 得波羅夷, 非人人想, 但偷蘭遮.” 菩薩不爾. 但於有命, 故意殺生, 皆波羅夷. 波羅夷者, 此云他勝處, 善自惡他, 惡法所勝. 戒是持犯所依名處. 此文略意. 謂彼彼相差別犯中, 以五緣犯, 翻正得罪. 餘諸戒文, 準此應釋. 此中諸戒, 依主爲名.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劫盜人物戒第二經

□ 불자들이여!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방편으로 훔치되, 훔치는 인(因)이나 훔치는 연(緣)이나 훔치는 법(法)이나 훔치는 업(業)을 짓거나, 주문으로 훔치되, 그 밖에 귀신의 것이나 주인 있는 것이나 도둑이 훔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물을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라도 일부러 훔치지 말지니라. 보살은 반드시 불성(佛性)에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이 복(福)과 즐거움을 내도록 해야 하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되니라.

若佛子! 自盜教人盜, 方便盜, 盜因盜緣, 盜法盜業, 呪盜, 乃至鬼神, 有主劫賊物, 一切財物, 一鍼一草, 不得故盜. 而菩薩應生佛性孝順慈悲心, 常助一切人, 生福生樂, 而反更盜, 人財物者, 是菩薩波羅夷罪.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이는 첫 번째 계를 제정하신 뜻[制意]이다. 보시는 육바라밀을 받아 들어[攝受]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인데, 훔치게 되면 바로 단바라밀(檀

에서는 행위의 결과를 내세워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요인과 행위와 대상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계명을 통해서 각 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함축하고 있다.

波羅蜜)을 무너뜨려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세간에 추(醜)한 것이 흠치는 것[盜]이라고 한다. 반드시 도(道)를 장애(障礙)하여 오랫동안 괴롭게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몸을 버릴지언정 이 더러움을 피해야 하거늘, 무엇 때문에 적은 재물로 스스로 현세와 내세[二世]를 욕되게 하겠는가? 짐짓 의보(依報)¹³²⁾를 훼손하게 됨으로 다음에 정보(正報)¹³³⁾를 제정하는 것이다.

述曰, 此中第一制意者. 施攝六度, 廣濟羣生, 盜正壞檀, 二利俱喪, 世間醜謂盜也. 如應障道, 廣招苦故. 寧應捨身, 以避斯咎, 何以少財, 自辱二世. 故損依報, 次正報制.

② 경문을 해석 釋文

- 두 번째 경문을 해석[釋經文]함에 네 가지가 있다.

第二釋文, 於中亦四.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 초문(初門)은 경의 ‘스스로 훔치거나’부터 ‘방편으로 훔치되’까지이다. ‘찬탄(讚歎)과 따라 기뻐함[隨喜]은 생략하여 논하지 않았으나, 이치로 보아 반드시 있어야 한다.

初門者, 如經, 自盜至方便盜故. 讚歎隨喜, 略而不論, 理應有故.

132) 의보(依報)는 우리들의 심신이 의지하는 국토·가옥·의복·식물 등을 말한다. 곧 국토(國土), 기세간(器世間)을 의보라고 한다. 『천태사교의주(天台四教儀註)』上 42 불국토의 보배 땅과 보배나무.

133) 정보(正報)는 의보(依報)의 반대로 과거 업인(業因)에 의하여 감득(感得)한 우리들의 심신(心身)을 말한다. 『천태사교의주(天台四教儀註)』上 42, 『입등도수(入登道隨)』下 13, 129 참조.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成門

■ 제이문(二門)은 앞에서처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는 세간의 문(門)이나 혹 출세간[出世]에서는 계(戒)라고 한다.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음으로 훔치려는 생각만 일으켜도 바라이를 범하는 것과 같다.”¹³⁴⁾고 하였다.

其第二門，如前應知。此世間門，若出世戒。文殊問經云，“若於他物，心起盜想，犯波羅夷。”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 경계가 되는 일의 문[境界事門]은 경의 ‘그 밖에 귀신’부터 ‘훔치지 말지니라.’까지이다. 이는 중계(重戒)에 들어가므로 ‘그 밖에’라고 한다.

그러나 ‘주인 있는 물건’에 간략하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니, ① 삼보의 물건이고, ② 사람에게 속한 물건이며, ③ 축생의 물건이고, ④ 귀신의 물건이며, ⑤ 도둑이 훔친 물건이다. 그 ‘주인이 있는 것’이라는 말은 앞뒤의 말에 다 포함된다.

境界事門者，如經，乃至鬼神，至不得盜。此中攝重，故言乃至。然有主物，略有五種。一三寶物，二屬人物。三畜生物，四鬼神物，五劫賊物。其有主言，攝前後也。

■ 『승기율(僧祇律)』은 “절의 일을 맡아 보는 사람[知事人]이 삼보의 물건을 호용(互用)¹³⁵⁾하자, 부처님께서 ‘바라이니라’라고 하셨다.”¹³⁶⁾고 한다.

134)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상권 「출세간계품(出世間戒品)」 11(大14 p.497a19) “若以心起盜想，犯波羅夷。”

135) 호용(互用)이란 ‘다른 것으로 전용하거나 삼보물(三寶物)을 서로 바꾸어 남용(濫用)하는 죄’를 말한다.

『보양경(寶梁經)』에서는 “부처님과 법(法)에 속하는 두 가지 물건은 호용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부처님과 법의 물건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고할 수가 없으므로[無可白] 승가의 물건[僧物]과는 같지 않다. 항상 절[招提]에 두고 서로 취해 쓸 일이 있으면 소임보는 비구에게 허락을 받고 써야 한다. “만약 승가의 물건을 써서 불탑을 고치려고 하는데 승가가 화합하여 돕지 않으므로 속인(俗人)들에게 권하여 수리하게 하였다.”¹³⁷⁾ 고 하면, 만약 이 문장에 의한다면 앞의 『승기율(僧祇律)』에서는 승가가 허락하지 않은 것에 의거하여 모두 중계(重戒)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僧祇律云, “知事人, 互用三寶物, 佛言波羅夷.” 寶梁經云, “佛法二物, 不得互用.” 於佛法物, 無有主故, 復無可白, 不同僧物. 常住招提, 互有¹³⁸⁾取用, 營事比丘, 和僧得用. 若用僧物, 修治佛塔, 僧若不和, 勸俗修理, 若依此文, 前僧祇律, 約僧不和, 皆言犯重.

■ 호용(互用)도 이러한데 하물며 훔치려는 마음으로 취하는 것이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의 물건[佛物]을 훔친 사람은 알고 했거나 모르고 했거나 투란차¹³⁹⁾를 범한 것이다.”¹⁴⁰⁾라고

136)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3권 「명사바라이법(明四波羅夷法)」 3 도계지여(盜戒之餘)(大22 p.251c22) 기사에서 뜻만 취하였다.

137) 『보량경(寶梁經)』은 『대보적경(大寶積經)』 가운데 113권(大11 p.638c7)의 『보량취회(寶梁聚會)』를 말한다. 인용구는 그 가운데 「사문품(沙門品)」에 산재한 내용을 뜻만 취하였다. 이 경은 양(涼)나라 때 도공(道龔)이 북량의 영안 연간(401-410)에 번역한 경으로 두 권이다. 이 경은 따로 유통 되다가 당(唐)나라 때 보리류지가 편역한 『보적경(寶積經)』에 수록되었다.

138) 大60 p.426b10과 大40 p.704a28과 藥師寺藏本에는 ‘所’로 되어 있으나 韓3 p.450 c8에는 ‘取’로 되어 있다.

139) 투란차(偷蘭遮, 𑖀𑖦𑖫𑖞𑖳𑖫𑖼𑖳𑖾𑖿 𑖔𑖩𑖭𑖳𑖫𑖼𑖳𑖾𑖿)란 거칠다·추대(麤大)의 의미이고, 추

했는가? 부처님의 물건에 대하여 내 것으로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괴로움[惱害]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전해오는 말에 “지키는 자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경에서 투란차(偷蘭遮)라고 하였으나, 만약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호용(互用)도 죄가 무겁거늘 하물며 훔치는 것이 어찌 가볍겠는가?”하였다. 그러므로 『선생경(善生經)』에서는 “주인 있는 물건을 훔치면[望護人] 중죄로 정한다.”¹⁴¹⁾ 고 하였다. 그리고 『열반경』에서는 소승계 입장에서 설한 것이나, 보살계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주인 있는 물건이면 중죄를 범한다고 한 것이다.¹⁴²⁾

대체로 삼보의 물건은 그것을 관장하기 어려우니, 제지하고[制] 허락하

죄(麤罪)라고 의역한다. 투란차는 율장의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으나 그 의미의 설명은 적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이 말이 학처 속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라이(波羅夷)·승잔(僧殘)·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바일제(波逸提) 등은 학처 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문해석에서 어구의 설명이 되어 있다. 『비니모경(毘尼母經)』 권7(大24 p.843a9-12)에 “투란차는 무엇인가? 투란차는 추악 죄 주변에서 생기기 때문에 투란차라고 한다. 또 투란차는 큰일을 일으키려고 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란차라고 한다. 또 돌길라에서 악한 말보다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투란차라 한다. 云何名爲偷蘭遮? 偷蘭遮者, 於麤惡罪邊生故, 名偷蘭遮. 又復偷蘭遮者, 欲起大事不成, 名爲偷蘭遮. 又復偷蘭遮者, 於突吉羅, 惡語重故, 名爲偷蘭.”라고 하였다.

140) 『대반열반경』 7권 「여래성품」(大12 p.405c20) “此大乘中, 若有比丘, 犯偷蘭遮, 不應親近. 何等名爲大乘經中偷蘭遮罪. 若有長者造立佛寺, 以諸花鬘用供養佛, 有比丘見花貫中縷, 不問輒取犯偷蘭遮. 若知不知亦如是犯. 若以貪心破壞佛塔, 犯偷蘭遮.”

141) “한지운운(漢地云云).” 한 것은 도선(道宣)의 『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鈔資持記)』 1上 「석편취편(釋篇聚篇)」(大40 p.277b23)에 “望守護者餘人盜也라 하고 그 뒤(大40 p.278a6)에서 “應從守護結重.”라 한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선생경(善生經)』 『우바세계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142) 『열반경』에서 범부와 성문 연각 등의 수행과 교리를 보살과 대비하면서 “보살 불이(菩薩不爾).”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뜻만 취한 듯하다.

고[聽] 지니고[持] 범함[犯]을 가히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에서 “부처님께서 두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으니, ① 아라한(阿羅漢)이고 ② 수다원(須陀洹)이다.”¹⁴³⁾라고 한다.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① 계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고 ② 죄를 두려워하여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¹⁴⁴⁾라고 한다.

互用尙爾，況盜心取。若爾何故，涅槃經云，“盜佛物者，若知不知，犯偷蘭遮。”以佛於物，無我所故，無惱害故。漢地傳說，“約無守護，經說偷蘭，若有守護，互用尙重，況盜何輕？”故善生經，“望護人結重。”然涅槃經，說小乘戒，菩薩不爾，但有主物，皆犯重故。凡三寶物，難可掌之，制聽持犯，難可委故，如大集言，“佛聽二人 一阿羅漢，二須陀洹。”又有二人，一持戒識知，二畏罪慚愧。

■ 그러나 보살계에서는 부처님의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은 먼저 모아 둔 살림도구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한 뜻으로[淨意樂]¹⁴⁵⁾ 시방제불보살들에게 베풀어 주되, 와서 구하는 이

143)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31권 「일밀분(日密分)」 「호법품(護法品)」 1(大13 p.216a25) “大王，僧物難掌，我今惟聽二人掌護。一者羅漢比丘具八解脫，二者須陀洹人。大王，除是二人，更無有人掌護僧物。”

144) 『사분율산번보결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中 편취명보편제집사(篇聚名報篇第十四)(大40 p.0050a18) “更復二種，一能淨持戒識知業報，二畏後世罪，有諸慚愧及以悔心，如是二人。”

145) 정의요(淨意樂)는 『유가사지론』 권49 「보살지(菩薩地)」(大30 pp.564c28-565c12)의 칠지(七地) 가운데 하나이다. 종성지(種姓地)는 미취입(未趣入)의 보살이며, 중생을 성숙시키는 사람[能成熟補特伽羅, paripācakaḥ puḍgalaḥ]으로서, 승해행지(勝解行地)·정의락지(淨意樂地)·행정행지(行正行地)·타결정지(墮決定地)·결정행정지(決定行正地)·도구경지(到究竟地)의 6종의 보살을 말한다. 이것은 나

가 도리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입니다.’라고 부드러운 말로 돌려보내고, 만약 도리에 맞으면 생각하기를 ‘제불보살은 작은 물건이라도 중생에게 베풀지 아니함이 없었다.’고 한 것을 알고 난 뒤 청정하게 베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 바라는 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¹⁴⁶⁾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화상(和尚)은 “궤칙(軌則)이 비록 소승율(小乘律)에서 말한 것과 같다 하더라도 살생에서 보는 것처럼 이로움이 있을 것 같으면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출현은 다 법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며, 법을 일으키려는 뜻은 모두 중생을 위한 것이니, 법을 흥하게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무엇인들 쓰지 못하겠는가? 염심(染心)이 있거나, 수승한 이익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소승계에서 호용(互用)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비록 부처님이 곧 법이라 할지라도 보시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분율』은 “탐을 수리하던 사람은 불탐에 공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¹⁴⁷⁾고 하였고, 『오분율(五分律)』은 “백의(白衣, 속인)가 절에 들어 왔는데 승려가 음식을 주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자 부처님께서

아가 보살십이주(菩薩十二住)와 화엄십지(華嚴十地)에 대응한다. 또 「보살지(菩薩地)」공덕품의 최후는 수행의 진전(進展)에 응해서 보살을 10종으로 나눈다. 『유가사지론』 권46(大30 p.549a7-24)에는 ① 중성에 머무름[住種姓] ② 이미 취입[已趣入] ③ 아직 의요가 청정치 않음[未淨意樂] ④ 이미 의요가 청정[已淨意樂] ⑤ 미성숙(未成熟) ⑥ 이미 성숙[已成熟] ⑦ 미결정(未決定) ⑧ 이미 결정[已決定] ⑨ 일생에 매임[一生所繫] ⑩ 가장 후유에 머무름[住最後有]이다.

146) 『유가사지론』 「본지분(本地分)」 「보살지(菩薩地)」 15 「초지유가처시품(初持瑜伽處施品)」 9(大30 p.508c)의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에 관한 내용을 뜻만 취하였다.

147) 『사분율』 52권 「잡건도(雜犍度)」 2(大22 p.957a2) “彼不知供養塔飲食誰當應食, 佛言, 比丘, 若沙彌, 若優婆塞, 若經營作者, 應食.”

‘마땅히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¹⁴⁸⁾ 『승기율(僧祇律)』은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주어야 한다.”¹⁴⁹⁾고 하였고, 『십송율(十誦律)』은 “국왕과 대신과 도둑들에게도 공급해 주라.”¹⁵⁰⁾고 하였다. 소승의 좁은 마음으로는 오히려 손해나 이익으로 보기도 하는데, 하물며 대승에서야 어찌 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는가?

然菩薩戒，亦用佛物。如瑜伽說，“菩薩先於所畜資具，爲作淨故，以淨意樂，捨與十方諸佛菩薩，見來求者，不稱道理，言‘此他物。’輒言發遣，若當正理，應作是念，‘諸佛菩薩，無有小物，於諸衆生，而不施者。’如是知己，取淨施物，施來求者，令所願滿。”由此等教，和上云，“軌則雖如小乘律說，然如殺生，有利應行。”諸佛出現，皆爲興法，興法之意，皆爲衆生，興法利生，何所不用？除有染心，及無勝利。但小乘戒，不得互用，雖佛卽法，違施意故。然四分云，“供養佛塔食，治塔人得食。”五

148) 『미사색부화해오분율(彌沙塞部和醯五分律)』22권 「삼분지칠 약법(三分之七 藥法)」(大22 p.153a8) “有諸比丘食時，不分與，不得者諸白衣譏呵言，沙門釋子，如貓狸食，不相分與。諸比丘以是白佛，佛言，應相分與，乃至不分與一人，犯突吉羅。有一婆羅門，持糗寄比丘，比丘持着不淨地經宿，明日來取分與比丘，比丘以已着非淨地不敢受食。以是白佛，佛言，本是白衣糗聽受食無犯。復告諸比丘，雖是我所制，而於餘方不以爲清淨者，皆不應用。雖非我所制，而於餘方必應行者，皆不得不行。”

149)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3권 「명사바라이법(明四波羅夷法)」3 「도계지여(盜戒之餘)」(大22 p.252a27) “若比丘知僧物，有應與有不應與，云何應與，若損者若益者應與，云何損者，有賊來詣寺索種種飲食，若不與者或能燒劫寺內。雖不應與畏作損事故，隨多少與，云何益者，若治衆僧房舍，若泥工木工畫工，及料理衆僧物事者，應與前食後食，及塗身油非時漿等。若王及諸大勢力者，應與飲食，是名益者應與。”

150) 『십송율』34권 「팔법중와구법(八法中臥具法)」7(大23 p.250a6) “有衆多王臣，數數詣竹園房舍 觀看，若來時索食薪火燈燭，若與畏犯，不與懼作患，不知云何，以是事白佛。佛言，應立分處人，立分處人已，不白衆僧，得用十九錢供給客。若更須 應白僧竟與。”

分云, “若白衣入寺, 僧不與食, 便起嫌心, 佛言應與.” 又僧祇云, “若損者益者應與.” 十誦, “供給王大臣賊.” 小乘狹小, 猶見損益, 何況大乘, 不可一定.

■ 묻기를 『십송율(十誦律)』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훔쳐서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에게도 스승이며 나에게도 스승이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는 범한 것이 아니지만, 만약 훔쳐서 그것을 팔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¹⁵¹⁾라고 하였거늘, 무슨 까닭에 범을 훔치는 것을 율(律) 가운데서는 중죄로 정했는가? 법도 또한 스승이다.

답하기를, 부처님은 멀리서도 공경을 드릴 수 있으나 법은 마주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살계는 그것을 쓰지 않음을 알고서, 깨끗한 마음으로 흠침을 배운다면 이치로 보아서는 마땅히 범함이 없으나, 그것이 선(善)에 장애되는 줄 알면서 불사리를 훔친다면 역시 중죄인 것이다.

묻기를, 『유가사지론』과 『구사론』¹⁵²⁾에서 “승가의 물건을 훔치면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破和合僧]¹⁵³⁾과 같다.”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대방등

151) 『십송율』(大23 p.380a2) “又問, 若盜佛舍利得何罪? 答曰, 偷蘭遮. 若尊敬心作是念, 佛亦我師, 清淨心取無罪.”

152)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18권 「분별업품(分別業品)」4-6(大29 p.94b23) 본송에서 “汚母無學尼, 殺住定菩薩, 及有學聖者, 奪僧和合緣, 破壞窣堵波, 是無間同類.”라 하였는데 그 해설에서 “論曰, 如是五種, 隨其次第, 是五無間, 同類業體. 謂有於母阿羅漢尼行極污染, 謂非梵行. 或有殺害住定菩薩, 或殺學聖者, 或奪僧和合緣, 或破窣堵波, 是五逆同類.”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和合僧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오역죄와 같다고 했다.

153) 파화합승(破和合僧)은 파승(破僧)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법륜승(破法輪僧)과 파갈마승(破羯磨僧)의 두 가지가 있으며, 율에 따라 파승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파법륜승이란 불설에 위반되는 의견을 주장하는 자가 추종자들을 모아 별개의 승가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파갈마승이란 동일한 경계 안에서 따로 포살 등

대집경(大方等大集經)』은 “승가의 물건을 훔친 사람의 죄가 오역죄보다 더 하다.”고 하며, 『방등경(方等經)』은 “사중금(四重禁)과 오역죄는 내가 구제할 수 있으나 승가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는가?

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마다 다르다. 승가를 깨뜨리는 것은 잠시이고 또한 현전승가(現前僧伽)의 화합승의 재물을 훔치면 삼세에 상주하는 승가의 도[常住僧道]를 널리 장애(障礙)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친히 부처님을 장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류(同類)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問十誦云, “偷佛舍利, 淨心供養, 自作念言, ‘於彼亦師, 於我亦師.’ 如是意者不犯, 若盜賣者犯罪.” 何故盜法, 律中結重. 法亦師故. 答, 佛得遂申敬, 法對方生解. 然菩薩戒, 知彼不用. 淨心盜學, 理應無犯. 知障彼善, 盜佛亦重. 問瑜伽俱舍云, “劫奪僧物, 破僧同類.” 何故大集, “盜僧物者, 罪過五逆.” 方等經云, “四重五逆, 我亦能救, 盜僧物者, 我所不救.” 答所望各別. 破僧暫時, 且現前僧, 盜和合財, 普障三世常住僧道, 非親障聖, 故名同類.

■ ‘도둑이 훔친 물건’이란, 물건이 이미 그에게 속해 있으므로 율에서는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율(律)』에서 “도둑이라야 도둑의 물건을 빼앗는다.”¹⁵⁴⁾ 고 한 것과 같다. 『오분율(五分律)』에서는 “어떤 비구가 도둑이 옷을 벗겨 빼앗으려고 하자 싸워서 옷을 찾았으나, 의심이 생겨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한 것이 아니다.’¹⁵⁵⁾라고 하였으나,

의 갈마와 같은 승가행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설일체유부와 아비달마논서 속에 파승(破僧)에 관한 기술은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권116(大27 p.602b-604a), 『구사론』 권18(大29 p.93b1-c20) 등에 기술되고 있다.

154) 『사분율』 55권(大22 p.976c8) “時有比丘, 他盜取物, 而奪彼盜者, 物疑, 佛言波羅夷.”

보살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가사지론』에서 말하기를 “보살이 (어떤) 지위 높은 관리[宰官]가 모든 유정들에게 포악하게 하며 자비심 없이 꺾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높은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도적이 남의 재물을 빼앗되, 혹은 승가의 물건이나 탑의 물건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보면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뜻에서 (도로) 빼앗는 것을 허용하였으니 (받아야 할 과보로) 오랜 세월의 괴로움을 받지 않게 해주고, 빼앗은 재보는 본래 있던 곳에 돌려주어야 한다.”¹⁵⁶⁾라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보살이 이와 같이 비록 주지 않는 것을 취했을지라도 어기고 범함이 없는 것이 되며,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내는 것이다.

『오분율(五分律)』에서 옷을 가지고 다툼 비구는 보살계에서는 재물을 간담한 죄가 되지만, 만약 상대를 죄에서 지켜준 것이라면 여러 가지 공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言劫賊物者，物已屬彼，律不許奪。如律云，“賊奪賊物。”五分云，“有比丘爲賊所剝，爭得衣物，生¹⁵⁷⁾疑問佛，佛言，‘不犯。’”菩薩不然。如瑜伽云，“菩薩見有增上宰官上品，暴惡於諸有

155) 『미사색부화해오분율(彌沙塞部和醯五分律)』28권 「오분지칠 조복법(五分之七調伏法)」(大22 p.183a4) “有一比丘，爲賊所剝，爭得衣物，生疑問佛，佛言不犯。”

156) 『유가사지론』41권 「본지분중보살지」15 「초지유가처제품」10-2(大30 p.517b18) “又如菩薩，見有增上宰官，上品暴惡，於諸有情，無有慈愍，專行逼惱。菩薩見已，起憐愍心，發生利益安樂意樂，隨力所能若廢若黜增上等位。由是因緣，於菩薩戒，無所違犯，生多功德。又如菩薩，見劫盜賊奪他財物，若僧伽物窣堵波物，取多物已，執爲己有，縱情受用。菩薩見已，起憐愍心，於彼有情，發生利益安樂意樂，隨力所能逼而奪取，勿令受用如是財故，當受長夜無義無利。由此因緣所奪財寶，若僧伽物還復僧伽，窣堵波物還窣堵波，若有情物還復有情。又見業主或園林主，取僧伽物窣堵波物，言是己有，縱情受用。菩薩見已，思擇彼惡起憐愍心，勿令因此邪受用，業當受長夜無義無利，隨力所能廢其所主，菩薩如是雖不與取，而無違犯生多功德。”

157) 卍60 p.427b14와 大40 p.704c6과 藥師寺藏本에는 ‘然’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1b8에는 ‘生’으로 되어 있으니 글의 의미를 잘 드러나게 한다.

情，無慈逼惱，起憐愍心，廢增上位，見劫盜賊，奪他財物，若僧伽物，宰堵波物，執爲己有，利樂意樂，隨力逼奪，勿令受用，受長夜苦，所奪財寶，各還其本。”乃至廣說。菩薩如是，雖不與取，而無違犯，生多功德。如五分云，爭衣比丘，若菩薩戒，由慳財罪，若護彼罪，生多功德。

■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다만 주인 있는 물건을 의리(義利)없이 마음으로 풀 한 포기라도 취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신의 물건이거나 혹은 주인 없는 물건이거나, 주인이 있는데 미혹하여 주인이 없다고 여기거나, 혹 비록 주인이 있을지라도 훔칠 마음이 아니었다면 도둑질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여겨 훔치거나, 혹 주인 없는 물건을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고 여겼다면, 전해오는 말씀에 “마음에 걸리면 중방편(重方便)이다.”라고 하였지만 그 물건은 실제로 중죄를 범한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주인이 있는 줄 모르고 주인이 없다고 여기거나 나중에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혹 다른 물건을 구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과 바꾸었다면 전해오는 말씀에 “다 중죄다.”라고 하였으니, 경계(境界)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如是所說，但有主物，於無義利，盜心取乃至一草，犯波羅夷。若於己物，或無主物，或於有主，迷謂無主，或雖有主，不作盜心，不成盜故。若於己物，謂他而盜，或無主物，謂有主物，傳說，“約心結重方便。”彼物實非犯重境故。若於有主，迷謂無主，後知不還，或於人物，謂非人物，或求餘物，餘人物替，傳說，“皆重。”是犯境故。

■ 무엇을 주인 없는 물건이라 하는가? 다른 사람이 버린 것 등이다.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는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부모가 쫓아냈는데 후일 부모가 죽으면 그 물건들은 주인이 없는 것이다.”¹⁵⁸⁾라고 하였고, 『비바사론(毘婆沙論)』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묻혀 있는 보물 등이다.”¹⁵⁹⁾라고 하였으니 만약 그렇다면 백성들이 산에서 나무를 켜하는 것 등도 당연히 왕의 물건을 훔친 것이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국왕이 그들을 길러서 살아가게 해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성문법(聲聞法)에서는 오전(五錢)부터 중죄라고 하나, 지금 다른 점을 가리고자 하여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라고 하였다.

‘보살’ 아래는 네번째 문이다. 효순과 자비를 불성(佛性)이라고 하니 보살은 이로 인하여 이승(二承)과는 다르다. 복을 내게 하는 것은 이익(利益)때문이며, 즐거움을 내게 하는 것은 안락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그가 번뇌를 내기 때문에 이익에 어긋나고 목숨을 빼앗는 인연이 되므로 안락에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대지도론(大智度論)』 13권에서 계송으로 말하기를

모든 중생은 입고 먹는 것으로 스스로 살아가는데
만약 훔치거나 빼앗으면 목숨을 빼앗는 것이 된다.¹⁶⁰⁾

158)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 9권(大24 p.739a8) “無主人故無罪, 若人兒落度, 父母以水灌頂遣去, 或父母死亡, 比丘取如是人無罪.”

159) 『아비달마대정장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113권 「업온(業蘊)」 4 「악행납식(惡行納息)」 1-2(大27 p.585a2) “問, 若取兩國中間伏藏作盜想者, 復於誰處得根本業道? 答, 若轉輪王出現世時, 輪王處得, 若無輪王都無處得.”이라 했다.

160) 『대지도론』 13권 「초품중시라바라밀의(初品中尸羅波羅蜜義)」(大25 p.156a28)의 계송이다.

云何名爲無主物耶? 如他棄等. 善見論云, “子作惡事, 父母趁出, 後父母死, 其物無主.” 婆沙等云, “二國中間, 伏藏等也.” 若爾, 百姓取山林等, 應盜王物不爾. 國王擬養彼故. 聲聞法中, 五錢方重, 今欲簡異言, “一鍼草.” 言菩薩下, 第四門也. 孝順慈悲, 名爲佛性, 菩薩由此, 異二乘故. 生福者利益故, 生樂者安樂故. 而盜人物, 生彼煩惱, 故違利益, 奪命緣故, 亦違安樂. 如智論十三頌曰, “一切諸衆生, 衣食以自活, 若劫若奪取, 則爲劫奪命.”

㊤ 자비 없이 음욕을 행하지 말라 無慈行欲戒第三經

□ 불자들이여! 스스로 음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음행하게 하거나 모든 여인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음행을 하지 말지니라. 음행하는 인(因)이나 음행하는 연(緣)이나 음행하는 방법이나 음행하는 업(業)으로 그 밖에 짐승의 암컷이나 온갖 천녀(天女)와 귀녀(鬼女)와 더불어 음도(婬道)가 아닌 곳까지 음행을 하겠는가! 보살은 반드시 효순심을 내어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여 깨끗한 법을 사람들에게 일러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음욕을 일으켜 짐승이나 어머니, 딸, 누나, 여동생이나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하면 자비심이 없는 자이니, 이는 보살의 바라이 죄니라.

若佛子! 自婬教人婬, 乃至一切女人, 不得故婬. 婬因婬緣, 婬法婬業, 乃至畜生女, 諸天鬼神女, 及非道行婬! 而菩薩應生孝順心, 救度一切衆生, 淨法與人, 而反更起一切人婬, 不擇畜生乃至母女姊妹六親行婬, 無慈悲心者, 是菩薩波羅夷罪.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첫 번째 제정하신 뜻[制意]은 생사의 감옥[牢獄]에서 음행이 칼과 쇠 사슬이 되어 깊이 유정을 결박하여 벗어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지도론(智度論)』에서 “음욕이 비록 중생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얹어매기 때문에 대죄(大罪)로 삼는 것이다.”¹⁶¹⁾라고 한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는 “모든 애(愛) 가운데 음욕의 애[欲愛]가 으뜸이 되나니, 만약 그것을 능히 다스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힘이 센 이를 제압하면 약한 이들은 저절로 조복되는 것과 같다.”¹⁶²⁾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음욕의 법에는 세 가지 허물이 있다. 괴로운 것인데도 즐거운 것 같고, 맛은 적고 재앙은 많으며, 깨끗하지 않은 것인데도 깨끗하게 여기는 것이다.

述曰，初制意者，生死牢獄，姪爲枷鎖，深縛有情，難出離故。如智論云，“姪欲者，雖不惱衆生，繫縛心故，立爲大罪。”瑜伽論云，“諸愛之中，欲愛爲最，若能治彼，餘自然伏。如制強力，劣者自伏。”然此欲法，有三種過。苦而似樂故，少味多災故，不淨似淨故。

161) 『대지도론』 46권 「석마하연품(釋摩訶衍品)」 18(大25 p.395c1)에서 “持戒不惱衆生，不加諸苦，常施無畏，十善業道爲根本，餘者是不惱衆生遠因緣，戒律爲今世取涅槃故，姪欲雖不惱衆生，心繫縛故爲大罪，以是故戒律中姪欲爲初。” 지계의 공능은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不惱衆生]으로 정의하고, 음행은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는 정의에서는 벗어나나 중(重)하게 본 이유를 설명하였다.

162) 『유가사지론』(大30 p.329c23) “問，此貪欲蓋以何爲食。答，有淨妙相，及於彼相，不正思惟，多所修習，以之爲食。淨妙相者，謂第一勝妙，諸欲之相。若能於此，遠離染心，於餘於餘下劣亦得離染，如制強力餘劣自伏。此復云何。謂女人身上，八處所攝，可愛淨相，由此八處，女縛於男，所謂歌舞笑睔，美容進止，妙觸就禮，由此因緣，所有貪欲，未生令生，生已增長，故名爲食。”

■ 처음 것을 계승으로 읊는다.

번뇌의 병을 참지 못하여
음행을 행하면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지만
마치 옴에 걸린 피부를 긁는 것과 같아
괴로운데도 즐겁다는 생각을 내게 된다.¹⁶³⁾

마치 ‘옴에 걸린 피부를 긁는 것과 같다’는 것은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음욕으로 생기는 즐거움도 반드시 그러한 줄 알아야 한다. 이미 음욕을 여윈 자는 음욕을 보고 괴롭다고 여기나니, 마치 옴이 없는 사람은 옴으로 생기는 즐거움을 괴롭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모든 음욕의 번뇌는 그 성품이 거짓되어 능히 중생을 속일 수 있으며 늘 불에 타는 듯 괴로움을 내게 하니, 세존께서 “음욕은 마른 뼈와, 나무 끝에 매달린 썩은 열매와 같다.”고 하셨다. 마치 뼈를 씹는 것과 같으므로 배부를 기약이 없고, 고기 덩어리[段肉]와 같아 일정하게 속한 주인이 없다. 풀로 만든 횃불 같아서 항상 근심의 불길이 타오르고, 불구덩이 같으므로 갈애(渴愛)만 늘어가며, 이무기의 독 같아서 현인과 성인들은 멀리 피한다. 꿈과 같아서 속히 무너지고 사라지며, 빌린 장신구 같아서 다만 많은 인연(衆緣)에 맡겨지며, 익은 열매(熟果)와 같아서 매달린 곳이 위태롭다. 이와 같이 ‘괴로운 일인데도 즐거운 것과 같다’고 관하는 것이다.

初者頌曰。不忍煩惱病，行婬似樂生，猶如抓疥病，於苦樂想

163) 『대지도론』 31권 「석초품중십팔공의(釋初品中十八空義)」 48(大25 p.286a21)에 “復次如人，患疥 搔之向火，疥雖小樂，後轉傷身，則爲大苦.”라는 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生. 如孤疥者, 以苦爲樂. 欲所生樂, 應知亦然. 已離欲者, 見欲爲苦, 如無疥者, 疥樂爲苦. 然諸欲塵, 其性虛僞, 能誑衆生, 恒生燒害, 如世尊言, “欲如枯骨, 乃至亦如樹端爛果.” 如齧骨故, 令無飽期, 如段肉故, 無定屬主. 如草炬故, 憂火恒燒, 如火坑故, 增長渴愛, 如蟒毒故, 賢聖遠避, 如夢見故, 速趣壞滅, 如借嚴具故, 但託衆緣, 如熟果故, 危所依地. 如是應觀苦而似樂.

■ 어떤 것이 맞은 적고 재앙(災殃)이 많은 음욕인가? 계송으로 읊는다.

마치 나찰녀(羅刹女)와 같고
원수가 거짓으로 친한 척 함과 같아서
마음을 속이고 악업(惡業)을 내어
괴로움을 부르고 열반을 장애하네.

나찰녀는 성교하고 나면 잡아먹고 또 원수가 거짓으로 친한 척하며 해를 입히는 것처럼, 오욕(五欲)의 원적(怨賊)도 이와 같아 미혹한 마음을 태우고 어지럽히며 혜명(慧命)을 해쳐서 한량없는 고통을 초래하며 열반의 즐거움을 장애한다. 『보살장경(菩薩藏經)』 10권에서 “습관적으로 음욕을 가까이할 때, 악을 짓지 않음이 없고, 그 과를 받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음이 없다.”¹⁶⁴⁾ 고 한다.

애욕의 강물과 음욕의 바다에 빠져 떠다니나 기댈 언덕이 없고 사생의

164) 『보살장경(菩薩藏經)』 「보살장회(菩薩藏會)」 12-10 「시라바라밀품(尸羅波羅蜜品)」 7-3 (大11 p.258a16) 가운데 “舍利子, 我說一切習近欲時, 無有少惡而不造者. 彼若報熟, 無有少苦而不攝受.”라 한 것을 가지고 개작하였다.

파도에 쉬지 않고 영원히 휩쓸린다. 온갖 원한과 폐해는 전부 음욕으로부터 발생하니, 어리석은 사람이 탐하는 것이 마치 불나방이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오백 명의 신선¹⁶⁵⁾이 공중을 날다가 신통을 잃고 떨어지고, 일각선인(一角仙人)¹⁶⁶⁾이 여인에게 붙잡힌 것과도 같다. 이러한 까닭에 『율(律, 사분율)』에서는 “두려운 대상으로 여인(女人)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차라리 남근을 독사 주둥이에 넣는 것이 나으니, 독사는 몸만 해치지만 여인은 법신(法身)을 해치기 때문이다.”¹⁶⁷⁾라고 하였다. 또 용수(龍樹)가 설하기를 “사람의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인의 지혜는 다른 득실

165) 일타 편역 『사미니율의(沙彌尼律儀)』 p.69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에 이르되 옛날 즐타연나왕(鷲陀衍那王)이 모든 궁녀를 데리고 산과 물가에 나아가 남자들은 보내고 여인들과 더불어 묘한 향을 사루고 다섯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말가벗고 춤을 추었다. 음악이 맑고 묘하고 향기가 꽃다운지라 때에 오백선인이 신통력으로 위를 지나가다가 어떤 이는 색을 보고 어떤 이는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향기를 맡고는 다 신통력이 사라져서 일시에 땅에 떨어지니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다시 날 수 없는 것과 같더라. 왕이 ‘너희들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신선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선인들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이 ‘너희들은 비비상정을 얻었는가.’라고 묻자 선인이 얻지 못했다고 말하자 ‘그럼 초선(初禪)을 얻었는가.’하고 묻자 ‘일찍이 얻었으나 지금 잃었습니다.’하니 때에 왕이 성을 내며 ‘욕(欲)을 여의지 못한 사람이 나의 궁인과 채녀를 보는가’라고 말하며 즉시 오백선인의 수족을 끊었다는 일화.

166) 일타 편역 『사미니율의』 p.43 옛날 바라나국 산속에 일각 선인(一角仙人)이 있었다. 산에 머무르며 수도하는데 음녀(淫女) 선타의 유혹에 넘어가 여인을 목에 태우고 성에 들어가니 어떤 사람이 계승을 지어 말하기를 ‘당당한 장부가 여색에 빠져 수고로이 신명을 태우되 고통인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167) 『사분율』 1권 『사바라이법(四波羅夷法)』 1(大22 p.570b16) “爾時世尊, 以無數方便呵責言, 汝所爲非, 非威儀, 非沙門法, 非淨行, 非隨順行, 所不應爲. 汝須提那, 云何於此清淨法中行乃至愛盡涅槃, 與故二行不淨耶. 告諸比丘, 寧持男根着毒蛇口中, 不持着女根中. 何以故, 不以此緣墮於惡道, 若犯女人, 身壞命終墮三惡道. 何以故, 我無數方便, 說斷欲法, 斷於欲想滅欲念, 除散欲熱越度愛結. 我無數方便說欲如火, 如把草炬亦如樹果.”

(得失)은 보지 않고 음욕만 가까이 할 뿐이다. 맑은 바람은 잡을 수 있어도 여자의 마음은 가라앉히기 어려우니 결코 싫어할 기약이 없다. 생을 감득(感得)하여 나고 죽는 오랜 시간 동안 만나고 헤어지는 슬픔이 한이 없고 육취(六趣)도 끝이 없다.”¹⁶⁸⁾ 고 하였다. 이것을 일러 ‘맛은 적고 재앙이 많다’고 한 것이다.

云何諸欲少味多災？頌曰，猶如羅刹女，如怨詐示親，誑心生惡業，招苦障涅槃。如羅刹女，交已致食，亦如怨士，詐親加害，五欲怨賊，亦復如此，燒亂迷心，害於慧命，招無量苦，障涅槃樂。如菩薩藏經第十云，“習近欲時，無惡不造，受彼果時，無苦不受。”愛河欲海，漂溺無岸，死生之波，長流莫絕。一切怨害，皆從欲生，愚人所貪，如蛾投火。五百登空，失通而落，一角仙人，被女人捉。是以律云，“可畏之甚，無過女人。寧以男根，納毒蛇口，蛇害一肉身，女害法身故。”又龍樹說，“巧察人意，女人爲智，不觀餘得失，但以欲爲親。清風猶可捉，女心難得定，終無厭。感生無窮生死長夜會離之悲，六趣無已¹⁶⁹⁾。”是謂諸欲少味多災。

■ 어떤 것이 음욕의 번뇌가 깨끗하지 않은 것인데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168) 『대지도론』 14 「식초품중찬제바라밀의제(釋初品中屬提波羅蜜義第)」 24(大25 p.166a20)에서 “巧察人要女人之智，大火燒人是猶可近，清風無形是亦可捉。”라고 하고 뒤 16권 「초품중비리야바라밀의(初品中毘梨耶波羅蜜義)」 27(大25 p.177c4)에 서는 “咄以此無明悲愛法故，乃受此苦，出而復入無窮無已。”라 하였다.

169) 韓3 p.452b17에는 ‘몸 기(己)’로 되어 있으나 의미상 ‘마칠 이(已)’가 옳은 듯 하다.

계송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육신은 비록 깨끗하지 않으나
깨끗한 듯 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속인다.
더러움을 즐기면서 싫어하지 않으니
돼지가 수렁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이 몸은 깨끗하지 않나니 여러 개의 뼈마디로 이루어진 것이요, 피와 살과 똥과 더러운 것들을 얹은 가죽이 지탱하고 있으며, 팔만 개의 구멍 하나하나 마다 구억(九億)마리 벌레가 살고 있느니라. 갖가지 냄새와 더러운 것이 아홉 개의 구멍에서 흘러나오므로 깨끗하지 않은데도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를테면 살갗 위에 흰 기름과 뜨거운 피가 섞여 겹겹이 비치면서 마음을 속이고 눈을 현혹하여 여러 가지로 태우고 해칠 뿐이다. 그러나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은 싫어하여 등진 적이 없으니, 돼지가 종일토록 수렁을 떠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 제정한 것이니, 따라서 범하지 말지니라.

云何欲塵不淨似淨? 頌曰. 肉身雖不淨, 似淨誑愚夫. 樂穢而無厭, 似豬樂淤泥. 此身不淨, 累骨所成. 血肉便穢, 薄皮所持. 八萬戶蟲, 一戶九億. 種種臭穢, 九孔流漏, 不淨似淨. 謂皮上分, 白膏熱血, 交所重映, 誑心媚眼, 種種燒害. 然諸愚夫, 曾無厭背, 似豬竟日, 不離淤泥. 所以今制, 隨應莫犯.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 두 번째 경문을 해석하리라. 그 가운데 범하는 상의 문[違犯相門]이란

경(經)에서 ‘스스로 음행하거나’부터 ‘고의로 음행하지 말지니라.’까지이다. 성문법에서는 스스로 음행을 해야만 마침내 중죄가 되나 지금 보살계에서는 ‘남을 시켜서 하는 것’ 또한 중죄가 된다. 마치 소승교에서는 스스로 행한 것이라야 업도가 되고, 대승교에서는 남을 중매(仲媒)하는 것 또한 업도(業道)가 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

두 대중[二衆]에게 공통으로 제정한 것은 ‘모든 여인’이라고 한 것인데, 사실에 의거해 보면 재가(在家)는 다만 사된 행위[邪行]에 대해서만 제정하였으니 비단 도(道)를 장애할 뿐만 아니라 악취(惡趣)를 부르기 때문이다.

第二釋文中，違犯相門者，如經自姪至不得故姪。聲聞法中，自姪方重，今菩薩戒，教他亦重。如小乘教，自行方業道，大乘教中，媒他亦業道。通制二衆，言一切女人據，實在家唯制邪行，非但障道，招惡趣故。

■ 무엇이 사행(邪行)인가? 『유가사지론』에서는 “여인에게 행해서는 안 되지만 설령 행한다고 하더라도 바르지 못한 부분[非支]과 바르지 못한 때[非時]와 알맞지 않은 장소[非處]와 알맞지 않은 양[非量]과 도리에 맞지 않은 모든 남자나 남자가 아닌 이나 어머니 등에는 마땅히 음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¹⁷⁰⁾

산문(産門, 성기)을 제외한 곳은 모두 바르지 못한 부분[非支]이라고 한다. 월경 할 때, 임신하여 배가 부를 때, 갓난아기에게 젖먹일 때, 재계(齋戒)를 받을 때, 병들었을 때를 바르지 못한 때[非時]라고 한다. 여러 존귀한 분들이 모인 곳이거나, 영묘(靈廟) 안, 대중 앞이거나 딱딱하고 울퉁불

170) 『유가사지론』 59권 「섭결택분중유심유사등삼지(攝決擇分中有尋有伺等三地)」 3(大30 p.630b25) “欲邪行業道事者，謂女所不應行，設所應行非支非處非時非量，若不應理一切男及不男。”

통하여 편안치 못한 이러한 곳을 ‘알맞지 않은 장소[非處]’라고 한다. 혹은 다섯 번이 넘으면 ‘알맞지 않은 양[非量]’이라 하며, 세간의 예법에 의하지 않으면 ‘도리에 맞지 않은 것[非理]’이라고 한다. 재가자는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처[自分]와는 행할 수 있다.

云何邪行? 如瑜伽云, “女不應行, 設所應行, 非支非時, 非處非量, 若不應理, 一切男及不男, 母等名爲所不應行.” 除產門外, 皆名非支. 若穢下時, 胎圓滿時, 飲兒乳時, 受齋戒時, 或有病時, 謂有病不宜姪, 是名非時. 若諸尊重所集會處, 或靈廟中, 或大¹⁷¹⁾衆前, 或堅鞭地, 高下不安, 此等非處. 若過五返, 名爲非量, 不依世禮, 名爲非理. 在家除此, 於自分行.

■ 비록 자신의 아내가 아닐지라도 만약 소속된 곳이 없을 경우 재가자가 보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또한 음행할 수 있다. 『유가사지론』 「보살지(菩薩地)」에서 “현재 소속된 곳이 없는 어떤 여인이 음욕법을 익히면서 재가보살에게 계속해서 범행 아닌 것[非梵行]을 요구하면, 보살은 보고 나서 이렇게 사유하기를 ‘그녀를 화나게 하지 말자. 분명히 복되지 않은 일이 생기리라. 만약 그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주다가 다시 자재(自在)를 얻게 되면 마침내 편안한 곳에서 선을 심고 악을 버리게 하리라.’고 하며 자비로 연민하는 마음에 머물러서 비범행(非梵行)을 행한다면 비록 이와 같이 더러움에 물든 세속법을 익혔다 할지라도 범한 것이 없이 많은 공덕을 내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출가자들은 그렇지 않으니 이는 성문(聲聞)을 수호하기 때문이다.

雖非自婦, 若無所屬, 在家見利, 亦得行姪. 如菩薩地云, “在

171) 卍60 p.430b3에는 ‘人’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2c15에는 ‘大’로 되어 있다.

家菩薩，見有母邑現無繫屬，習姪欲法繼心，菩薩求非梵行，菩薩見已，作意思惟，‘勿令彼恚。多生非福。若隨其欲，便得自在，方便安處，種善捨惡。’住慈愍心，行非梵行。雖習如是，穢染之法，而無所犯，多生功德。”出家不爾，護聲聞故。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 범하는 성의 문[違犯性門]은 경에서 ‘음행하는 인(因)이나 음행하는 업(業)이나 음행하는 방법(法)이나 음행하는 연(緣)’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거친 상[麤相]에 의지하여 처음의 업[初業]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출세간에서 보면 『열반경』에서 설하기를 “비록 여인과 성교하지 않더라도 벽 바깥 멀리에서 여인의 영락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애착을 내면 음욕이 성립되어 과계가 된다.”¹⁷²⁾ 고 한다.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에서는 “보살이 여인 몸에 걸친 영락 목걸이 등을 생각만 해도 모두 바라이가 된다.”¹⁷³⁾ 라고 한다.

마땅히 이것은 모두 십지(十地) 이상을 기준으로 제정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 “보살의 출세간계(出世間戒)에서는 만약 마음으로 남자라거나 여자라거나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거나 하여 모습을 분별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니라.”라고 한 것과 같다.

言違犯性門者，如經，姪因姪業，姪法姪緣，且依麤相，制初業故。若就出世，涅槃經云，“雖不交女，壁外遙聞女纓絡聲，心

172) 『반열반경(般涅槃經)』 31권 「사자후보살품(師子吼菩薩品)」 11-5(大12 p.549a20) “復有菩薩，自言戒淨，雖不與彼女人身合嘲調戲笑，於壁障外遙聞女人璎珞環釧種種諸聲，心生愛着，如是菩薩，成就欲法毀破淨戒。”

173)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大14 p.497a10) “爾時，文殊師利白佛言，世尊，菩薩出世間戒有幾種？佛告文殊師利，若以心分別男女非男非女等，是菩薩犯波羅夷。若以心分別畜生餓鬼男女非男非女，諸天神男女非男非女，是菩薩犯波羅夷。”

生愛著，成欲破戒。”優婆塞戒經云，“菩薩想女人身上纓絡等，皆波羅夷。”當知此皆依地上制。如文殊問經云，“菩薩出世戒，若以心分別男女非男女相，是菩薩波羅夷故。”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 경계가 되는 일의 문[境界事門]이란 경(經)에서는 ‘그 밖에 짐승의 암컷이나’부터 ‘제 길이 아닌 곳[非道, 성기가 아닌 곳]에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까지이다. 여인은 세 군데고 남자는 두 군데이니, 바로 이곳이 경계이다. 다른 곳에 행하면 중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온갖 하늘[諸天]’이라 한 것은 마녀(魔女) 등이 몸을 변화하여 사람이 되어 비구 등과 음욕을 행하기도 하는 따위이다. ‘제 길이 아닌 곳[非道]’이란 법장(法藏)스님은 “산문(産門)을 제외한 나머지 두 군데”¹⁷⁴⁾라고 하였고, 의적스님은 “세 가지 중요한 곳[三重處]을 제외한 그 밖의 곳”¹⁷⁵⁾이라고 하였다. 율문(律文)에 따르면 제 길[道, 성기]에 대하여 제 길이라고 생각하거나, 제 길에 대하여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또 의심하는 것조차 모두 중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만약 경계와 합(合)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넣으면 구경[究竟, 破戒·無餘犯·他勝處·波羅夷]이 성립된다. 만약 원수(怨讐)가 꺾박하여 경계를 만나 개합(開合)하게 되었다라도 즐겁다고 느끼는 것을 금해야 한다. 지금 보살계에서는 음욕을 좋아하지 않아 번뇌가 제어(制御)되어 범함이 없는 것으로 즐거움을 낸다.

174)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3권 「초편음계(初篇淫戒)」3(大40 p.623a22) “謂下部及口，俱是所犯也。”

175)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상권(大40 p.665b14) “又律中，唯女三道，男二處，是重境。餘處非重，若准經文，及非道行姪，故知菩薩於非道亦重。”

境界事門者，如經，乃至畜生女，至及非道行姪。女三男二，正是境也。以行餘處，不犯重故。言諸天者，魔女等變¹⁷⁶⁾身爲人，姪比丘等。言非道者，法藏師云，“除其產門，餘二處也。”義寂師云，“除三重處，餘支分等。”若準律文，於道道想，於道非道想，及疑皆成重。若與境合，入如毛頭，卽成究竟。若爲怨逼，開與境合，禁其受樂。今菩薩戒，雖不樂欲，煩惱所制，生樂無犯。

④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 죄를 결성하는 문[結成罪門]이란 경(經)에서는 ‘보살’부터 ‘바라이죄가 된다.’에 이르기까지 바른 것을 상대로 죄를 결성하는 것이다. 깨끗한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보살은 당연히 중생에게 음욕 여의는 법문을 해주어 생사의 고통을 제도해주는 것이다.

言結成罪門者，如經，而菩薩至波羅夷罪，對正結罪故。淨法與人者，菩薩應以離欲法門，施與衆生，度生死苦。

㉔ 일부러 거짓말하지 말라 故心妄語戒第四經

□ 불자들이여! 스스로 거짓말[妄語]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을 하거나,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라. 거짓말 하는 인(因)과 거짓말 하는 연(緣)과 거짓말 하는 방법(法)과 거짓말 하는 업(業)과 그 밖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妄語]을 하겠는가. 보살은 항상 바른 말

176) 卍60 p.431a6과 大40 p.705c9와 藥師寺藏本에는 ‘反’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3 a15에는 ‘變’으로 되어 있다.

[正語]과 바른 소견[正見]을 내어야 하며 또한 모든 중생들이 바른 말[正語]과 바른 소견[正見]을 내게 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샅된 말[邪語]과 샅된 소견[邪見]과 샅된 업[死業]을 일으키게 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若佛子自妄語，教人妄語，方便妄語，妄語因妄語緣，妄語法妄語業。乃至不見言見，見言不見，身心妄語。而菩薩常生正語正見，亦生一切衆生正語正見，而反更起一切衆生，邪語邪見邪業者，是菩薩波羅夷罪。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첫 번째 계를 제정한 뜻[制意]은 『대지도론』 15권에서 “거짓말[妄語]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 자신을 속인다. 그런 다음 남을 속여 진실을 헛된 것이라고 하고, 헛된 것을 진실로 삼아 진실과 헛됨을 뒤바꾸어 선법(善法)¹⁷⁷⁾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엮어진 병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세존께서도 “거짓말은 엮어진 마음과 같아 도의 물을 담을 수 없다.”¹⁷⁸⁾고 하셨다. 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단정하고 곧아서 벗어나기 쉽나니, 비유하자면 뿔뿔한 숲 속에서 나무를 끌어낼 때 곧은 나무는 쉽게 나오는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 “(망어계를) 범하게 된 학처(學處)를 거둬 수행하는 갈래[支, 계목]는 거짓말을 여의는 것뿐”¹⁷⁹⁾이라고 하였는데, 거짓말은 이 말 조차 뒤집는다. 이미 선

177) 선법(善法)은 자타를 이롭게 하는 법. 세간의 선법은 오계(五戒)·십선(十善)을 말하고, 출세간의 선법은 삼학(三學)·육도(六度)의 선(善)한 교법을 말한다.

178) 『대지도론』 13권 「석초품중시라바라밀의(釋初品中尸羅波羅蜜義)」 21(大25 p.157a10) “問曰，妄語有何等罪？答曰，妄語之人，先自誑身然後誑人，以實爲虛以虛爲實，虛實顛倒不受善法，譬如覆瓶水不得入，妄語之人心無慚愧，閉塞天道涅槃之門，觀知此罪。” 『고적기(古迹記)』에서 15권이라 하였으나 13권이다.

법(善法)을 장애하고 전도(顛倒)되어 악취(惡趣)에 떨어졌다가 후일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항상 비방을 당하리니, 과실(過失)이 무겁기 때문에 두 번째 신업(身業)으로 제정한 것이다.

述曰, 初制意者, 智論十五云, “妄語之人, 先自誑身. 然後誑他, 以實爲虛, 以虛爲實, 虛實顛倒, 不受善法. 譬如覆餅, 水不得入.” 如世尊言, “妄語覆心. 道水不入.” 又實語人, 其心端直, 易得出離, 譬如稠林曳木, 直者易出. 瑜伽云, “所犯學處, 重修行支, 謂離妄語.” 妄語翻此. 既障善法, 顛墜惡趣, 後生人間, 常被誹謗, 過失重故, 次身業制.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 두 번째 경문을 해석함에 첫 번째 범하는 상의 문[犯相門]은 경(經)에서 ‘스스로 거짓말[妄語]을 하거나’부터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는’까지이다. ‘방편’이란 다른 일을 빌려서 남으로 하여금 달리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第二釋文中, 初犯相門者, 如經, 自妄語, 至方便妄語. 言方便者, 假託餘事, 令他異解.

179) 『유가사지론』 53권 「섭결택분중오식신상응지의지(攝決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地)」3(大30 p.591a14) “略說近住律儀, 由五支所攝. 何等爲五? 一受遠離損害他支, 二受遠離損害自他支, 三違越所受重修行支, 四不越所受正念住支, 五不壞正念支. 若能遠離損害他命損壞他財, 是名初支. 離非梵行, 是第二支. 所以者何? 由離此者, 不染習自妻妾故, 不自損害, 亦不染習他妻妾故, 不損害他. 遠離妄語是第三支. 除離諸酒樂放逸處離餘三處, 是第四支. 何以故? 由歌舞伎樂塗冠香鬘昇高大床非時飲食常所串習, 若遠離彼數數自憶, 我今安住決定齋戒, 於一切持堅守正念, 遠離諸酒樂放逸處, 是第五支. 何以故? 彼雖安住正憶念支.” 중 세 번째이다.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 다음 범하는 성의 문(犯性門)은 경(經)에서 ‘거짓말 하는 인(因)’으로부터 ‘거짓말 하는 업(業)’까지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답은 『대론(大論, 大智度論)』¹⁸⁰⁾의 기록과 같다.

次犯性門者, 如經, 妄語因, 至妄語業. 此中問答, 如大論記.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 경계가 되는 일의 문[境界事門]은 경(經)에서 ‘그 밖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거나’부터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겠는가.’까지이다. 성문(聲聞)은 다만 대망어(大妄語)뿐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 밖에’라고 하였다. 혹은 ‘견문(見聞) 등’이라 한 것은 사언설(四言說) 가운데 나머지 세 가지에 포함 된다.¹⁸¹⁾

몸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말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뒤바뀐 것[顛倒] 등이니,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속이려고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경우와 같다. 비록 사실[事]에는 부합하나 알고 있는 것을 덮어두면 이것은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또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출세간품(出世間品)」에 “만약 거짓말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境界事門者, 如經, 乃至不見言見, 至身心妄語. 爲簡聲聞唯大妄語, 故言乃至. 或見聞等, 四言說中, 攝餘三故. 身妄語者,

180) 『범망경고적기촬요회본』 3권 14장 후면에 태현의 『유가사지론찬요(瑜伽師地論纂要)』 3권이라 하였다.

181) 망어(妄語)·악구(惡口)·양설(兩舌)·기어(綺語) 중 망어를 제외한 세 가지를 말한다.

無語動身，心妄語者。謂想倒等，如於不見而起見想，誑言不見。雖稱於事，以覆所知，此卽名爲以心妄語。又如文殊問經，出世間戒品言，“若起妄語心，犯波羅夷。”

④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 죄를 결성하는 문(結成罪門)이란 경(經)의 ‘보살’에서부터 ‘바라이죄 나라’까지이다.

보살은 늘 스스로도 바른 말을 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말을 하도록 권해야 한다. ‘거짓말[妄語]’과 구별하기 위하여 일부러 ‘바른 말[正語]’이라고 하였고, ‘감추려는 생각’과 구별하기 위하여 일부러 ‘바른 소견’이라고 하였는데, 도리어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 된 때에는 중생들이 따라서 말하게 되며, 일부러 샀된 말[邪語]을 하여도 다른 이들이 진실(眞實)하다고 여기게 되므로 사견(邪見)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마음과 말을 따라 짓기 때문에 샀된 업[邪業]을 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 유정들을 구제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을 덮어두었다 할지라도¹⁸²⁾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유가사지론』에서 “어기고 범한 것이 없으면 많은 공덕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말은 타승처(他勝處)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結成罪門者，如經，而菩薩，至波羅夷罪。菩薩應常自行正語，

182) 부(覆, 𑖀mrakṣa)는 가리는 것, 덮는 것을 뜻하며, 부처님의 은덕이 시방세계의 유정과 무정들을 두루 덮는 것이나 무명에 의해 밝은 마음이 가리어지는 것, 죄나 허물을 은폐하는 것 등에 모두 쓰이는 말이다. 아비달마에서 오위칠십오법(五位七十五法) 중 소번뇌지법(小煩惱地法)에 속하는 열 가지 법 중의 하나. 유식설(唯識說)에서는 오위백법(五位百法) 중 수번뇌(隨煩惱)에 속하는 스무 가지 법 중의 하나이다. ‘부(覆)’는 두 학파에서 모두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는 심리작용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亦勸他人, 令生正語. 爲簡妄語, 故言正語, 爲簡覆想, 故言正見, 而反自起妄語之時, 衆生隨說, 故生邪語, 他謂爲實, 故言邪見. 隨此心語, 有所作故, 言生邪業. 若爲救脫多有情故, 覆想正知, 而說妄語. 瑜伽論云, “無所違犯, 生多功德, 不爾妄語, 犯他勝處.”

㉔ 중생에게 술을 팔지 말라 酤酒生罪戒第五經

□ 불자들이여! 스스로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 술을 팔되 술을 파는 인(因)이나 술을 파는 연(緣)이나 술을 파는 방법(法)이나 술을 파는 업(業)으로 모든 술을 팔지 말지니, 이 술은 죄를 저지르는 인연이 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들에게 밝게 통달하는 지혜를 내게 해야 하거늘 도리어 일체중생들에게 뒤바뀐 마음을 내게 한다면, 이것은 보살의 바라이 죄니라.

若佛子! 自酤酒, 教人酤酒, 酤酒因酤酒緣, 酤酒法酤酒業, 一切酒不得酤, 是酒起罪因緣. 而菩薩, 應生一切衆生, 明達之慧, 而反更生一切衆生, 顛倒之心者, 是菩薩波羅夷罪.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첫 번째 계를 제정하신 뜻[制意]이란 술에 빠져서 게으르면[放逸]¹⁸³⁾ 뒷날 반드시 후회하게 되리니 바른 생각을 잃게 된다. 본심을 어기기 때문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며,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게 되어

183) 방일(放逸, ㉔pramāda)은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버려 두어 부지런히 선(善)을 닦지 않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작용인 심소(心所) 중 하나로서 일(逸)이라고도 하며, 방자(放恣)·나타(懶惰)·태타(怠惰)·부주의(不注意) 등과 통하는 개념이다. 산만하여 선한 행위에 몰두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악을 짓지 않음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하였으니, 이것은 불공계(不共戒)이다. 혹 오계(五戒)에 대하여 일부러 지금 다섯 번째로 고주계(酤酒戒)를 제정한 것이다.

述曰, 初制意者, 耽酒放逸, 後必有悔, 失自正念. 違本心故, 作不應作, 言不應言, 無惡不造. 制勿施人, 此不共戒. 或對五戒, 故今第五, 制酤酒戒.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총總

- 나머지는 앞의 설명과 같다.

餘如前說.

②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 연을 갖추어 범죄가 성립된 것 가운데, 욕락(欲樂)이란 술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이익을 구하려는 마음이다. 술이 이미 그에게 속(屬)하면 곧 구경(究竟, 파계)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상(事) 가운데 “이 술이 죄를 저지르게 하는 인연이다.”라고 한 것은 오직 화합승을 파괴하는 것[破僧] 말고도 다른 악(惡)들이 함께 따라 일어나기 때문이다.

具緣成犯中, 欲樂者, 以酒與人, 求利心也. 酒已屬彼, 卽爲究竟. 事中言, “是酒起罪因緣者.” 唯除破僧, 餘惡並起.

③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談他過失戒第六經

□ 불자들이여! 스스로 출가보살이나 재가보살, 비구나 비구니의 죄과(罪過)를 말하거나 남을 시켜 죄과를 말하게 하는 것은 죄과를 말하는 인

(因)과 죄과를 말하는 연(緣)과 죄과를 말하는 법(法)과 죄과를 말하는 업(業)을 짓는 것으로 보살은 외도의 나쁜 사람과 이승의 나쁜 사람들이 불법 가운데 법답지 않은 것[非法]과 계율을 어기는 것[非律]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항상 연민의 마음[悲心]을 내어 이러한 악인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하여 착한 마음을 내게 해야 하거늘 보살이 도리어 스스로 불법의 죄과(罪過)를 말하면 이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若佛子! 口自說出家在家菩薩, 比丘比丘尼罪過, 教人說罪過, 罪過因罪過緣, 罪過法罪過業, 而菩薩聞外道惡人, 及二乘惡人, 說佛法中非法非律, 常生悲心, 教化是惡人輩, 令生大乘善信, 而菩薩反更, 自說佛法中罪過者, 是菩薩波羅夷罪.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첫 번째 계를 제정한 뜻[制意]이란 불법(佛法)의 허물을 말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려 보살이 법을 일으켜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하물며 광대한 괴로운 과보를 초래하는 일에 있어서라. 이러한 까닭으로 타승처법(他勝處法)을 제정하였다.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 이르되, “발설지옥(拔舌地獄)에 들어가 쟁기로 그 혀를 갈게 된다.”¹⁸⁴⁾ 고 한 것 등과 같다. 『대지도론』은 “승의비구(勝意比丘)는 계를 청정하게 지냈는데 희근비구(喜根比丘)는 계(戒)가 없으면서 계승으로 ‘음욕이 바로 도(道)이니, 성내고 어리석음도 또한 그러하다.’고 문득 비방하므로 지옥에 떨어졌다.”¹⁸⁵⁾ 고 하고, 또 『부사의광보살

184)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 9권 「지옥품(地獄品)」 5(大17 p.48c29) 망어자(妄語者)는 “혓바닥을 빼낸다. 拔舌令出” 하며, 또 11권 「지옥품(地獄品)」 7(大17 p.65a 25)에서 “망어업 때문에 염마라인이 그 혀를 보습으로 쟁기질한다. 妄語業故閼魔羅人 犁耕其舌.”고 하였다.

경(不思議光菩薩經)』에서는 “요재보살(饒財菩薩)이 현천보살(賢天菩薩)의 허물을 말하여 구십일 겁 동안 항상 음녀의 태에 들어가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버려져 여우와 이리에게 잡아 먹혔다.”¹⁸⁶⁾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述曰, 初制意者, 說佛法過, 必壞他信, 失壞菩薩興法利生, 況復能招廣大苦果. 是故制爲他勝處法. 如正法念處經云“入拔舌地獄, 耕其舌等.” 大智論云“勝意比丘, 持戒清淨, 聞喜根比丘, ‘無戒.’ 說偈‘姪欲卽是道 患癡亦復然.’ 便生誹謗, 陷入地獄.” 又不思議光菩薩經云“饒財菩薩, 說賢天菩薩過故, 九十一劫, 常墮姪女腹中生, 生已棄之, 爲狐狼所食.” 乃至廣說.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 두번째 경문을 해석[釋文]함에 범하는 상[違犯相]은 저 경에서 ‘스스로’부터 ‘남을 시켜 죄과(罪過)를 말하게 하는 것’까지이다.

지금 이 계 안에서 초문(初門)과 경계가 되는 일의 문[境界事門]을 겹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이 안에서 처음과 둘째는 보살계를 받은 것이고 뒤의 둘은 성문(聲聞, 비구·비구니)이다. 모두 승단 안의 대중이니 사람과 천인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범한 것이 있다면 허물을 말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오히려 복전(福田)을 지을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 범하는 자는(계를 받

185) 『대지도론』 6권 「대지도초품중의무애석론(大智度初品中意無礙釋論)」 12(大25 p.107b23)

186) 『부사의광보살경(不思議光菩薩經)』 1권(大14 p.671c17)

은 적이) 없으면서 범하지 않는 자보다 수승하다. 있으면서 범하는 자는 보살이라고 하나, 없으면서 범하지 않은 자는 외도(外道)라고 한다.”¹⁸⁷⁾ 고 하였다. 또 『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에서는 “점복화(占蔔華)는 시들어도 오히려 다른 꽃들 보다 뛰어나듯, 계를 깨뜨린 비구라도 오히려 여러 외도들 보다 낫다. 출가한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기를, 계를 깬다거나 계를 지녔다거나, 계가 있다거나 계가 없다거나, 허물이 있다거나 허물이 없다거나 말하는 사람은 만악의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낸 것 보다 더하다.”¹⁸⁸⁾ 라고 하였다. 해석하면 피를 내는 것은 도를 장애하지 않으나, 승가의 허물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며, 그들에게 번뇌를 일으켜 성도(聖道)를 장애하기 때문이다.

第二釋文，違犯相者，如經，口自說，至教人說罪過。今此戒中，初門兼攝境界事門。此中初二，受菩薩戒，後二聲聞。俱是內衆，人天師故。若實有犯，說過何失！猶有堪作福田義故。如本業經云，“有而犯者，勝無不犯。有犯名菩薩，無犯名外道。”又十輪云，“占蔔花雖萎，猶勝諸餘花，破戒諸比丘，猶勝諸外道。說出家人過，若破戒若持戒，若有戒若無戒，若有過若無過，說者過出萬億佛身血。”解云，出血不能障道，說僧過時，壞多人

187) 『보살영락본업경』 하권 「대중수학품(大衆受學品)」 7(大24 p.1021b13) “其受戒者，入諸佛界菩薩數中，超過三劫生死之苦，是故應受。有而犯者，勝無不犯，有犯名菩薩，無犯名外道。以是故，有受一分戒，名一分菩薩，乃至二分三分四分，十分名具足受戒。”

188) 『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 3권 「상륜품(相輪品)」 5(大13 p.694b24)에 파계(破戒) 비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파계비구라도 존중하고 공양하라고 하면서 한 계승으로 “瞻蔔華雖萎，勝於諸餘華，破戒諸比丘，猶勝諸外道。”라고 말하였고, 곧이어 “破壞聲聞和合僧事，乃至惡心出佛身血。”(大13 p.694b28)이라 하였다.

信, 生彼煩惱, 障聖道故.

■ 이러한 까닭으로 보살은 그의 덕을 찾기를 좋아하고 허물을 찾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허물을 찾아내고자 하면 인각성사(麟角聖士, 기린의 뿔과 같은 고귀한 성인)일지라도 찾아낼 허물이 있고, 덕을 찾아내고자 하면 선(善)이 끊어진 사람일지라도 몸에 덕의 흔적이 있다. 『열반경』에서 “만약 그 중생들이 칭찬해 줄 만한 선이 없다면 마땅히 불성(佛性)이라도 생각해 내어 그들을 찬탄해야 한다.”¹⁸⁹⁾ 고 한 것과 같다.

세간의 범부들은 잘못이 없는 이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말하려 하면 허물이 자기 몸에 돌아올 뿐이다.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에 새로 뜻을 일으킨 보살[新發意菩薩]의 열여섯 가지 행[十六行]에서 “자신의 덕을 말하면서 우쭐대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여 혐오심을 일으키게 하지 말라.”¹⁹⁰⁾ 고 한 것과 같다. 『제법무행경(諸法無行經)』의 계송에서는

만약 파계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허물을 말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도 오래 지나면
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라.”¹⁹¹⁾

189) 『대반열반경』 26권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10-6 (大12 p.518a3) “如是菩薩, 若見衆生有少善事, 則讚歎之. 云何爲善, 所謂佛性, 讚佛性故, 令諸衆生,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190) 『대방등대집경』(大13 p.237c22) “稱讚己德, 以自貢高, 輕蔑誹謗毀訾他人.”

191) 『제법무행경(諸法無行經)』 상권(大15 p.751c27) “彼人行不純, 常處於憊闇, 是人於佛道, 不能勤修行. 眞求佛道者, 晝夜各三時, 頂禮諸菩薩, 應生恭敬心, 隨其所行道, 不說其過失. 若見着五欲, 不說其過惡, 應當念彼人, 久後亦得道. 次第行業道

是故菩薩樂求彼德，不樂求失。求失之者，麟角聖士¹⁹²⁾，有失可取，求德之者，斷善者身，有德可錄。如涅槃云，“若彼衆生，無善可讚，當念佛性，而讚歎之。”世間無有凡而無失，談人之短，短在己身。如大集經，新發意菩薩十六行中云，“不說己德而起高心，不說他失而起嫌心。”諸法無行經頌云，“若見破戒人，不說其過惡，應當念彼人，久久亦得道。”

②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 죄를 결성하는 문(結成罪門)은 경(經)에서는 ‘보살의’부터 ‘바라이죄’까지이다. ‘항상 연민의 마음[悲心]을 내라’는 것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보살지(菩薩地)」에서 “악인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 바른 행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였고, 또 “계를 범한 것을 미워하면, 수행해도 이익이 없으니, 이것을 보살의 상사공덕(相似功德)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연민의 마음[悲心]으로 나쁜 무리들을 교화해야 한다.”¹⁹³⁾ 고 하였다

문기를, 아래 경계(輕戒)에서 ‘칠역(七逆)과 십중(十重)’¹⁹⁴⁾을 설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여기에서는 무겁다고 하고 저기에서는 가볍다고 하는가? 답하기를, 그것은 같은 법을 추구하는 자들(同法者)에게 말한 것이므로 죄가 가볍다고 하였고, 여기에서는 다른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한 것

不可頓成佛.”

192) 卍60 p.433b4와 大40 p.706b15와 藥師寺藏本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4b18에는 ‘土’로 되어 있다.

193) 『유가사지론』 「보살지」 15권(大30 p.0546c05) “又諸菩薩，略有五種相似功德，當知實是菩薩過失，何等為五？一者於其暴惡毀犯淨戒諸有情所，由是因緣作不饒益，二者許現種種具足威儀，三者於順世間文詞呪術外道書論相應法中，得預智者聰叡者數，四者修行有罪施等善行，五者宣說建立像似正法，廣令流布。”

194) 48경계 가운데 세 번째 ‘무근방훼계(無根謗毀戒)’에 대하여 묻은 것이다.

이므로 허물이 무겁다고 한 것이다.

혹 저기에서는 사실이 없으므로 능히 죄과(罪過)를 입지 않는다고 하나, 여기에서는 실제로 범함이 있으므로 무거운 죄로 제정하였다.

結成罪者，如經，而菩薩，至波羅夷罪。言常生悲心者，如菩薩地云，“憐愍惡人，勝於正行。”又云，“若憎犯戒，行不饒益。是名菩薩相似功德，故說悲心教化惡輩。”問下輕戒云，說七逆十重，如何此重彼爲輕耶？答彼向同法，說故罪輕，此向異道，說故過重。或說彼無事，不能被罪過，此說有實犯，故制爲重罪。

⊙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自讚毀他戒第七經

□ 불자들이여!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서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남을 비방하게 하면, 남을 비방하는 인(因)과 남을 비방하는 연(緣)과 남을 비방하는 방법(法)과 남을 비방하는 업(業)으로 보살이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혈뜰음과 욕됨[毀欲]을 받게 되리니, 나쁜 일은 자기를 향하게 하고 좋은 일은 남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스스로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남의 좋은 일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若佛子! 口自讚毀他，亦教人自讚毀他，毀他因毀他緣，毀他法毀他業。而菩薩應代一切衆生，受加毀辱，惡事自向己，好事與他人。若自揚己德，隱他人好事，令他人受毀者，是菩薩波羅夷罪。

① 제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첫 번째 제정한 뜻(制意)이란 또한 공구(孔丘, 공자의 絜矩之道)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어 중신토록 실천할 만하니,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는 것이다.”¹⁹⁵⁾라고 하셨다. 이 계(戒)도 그러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뜻이 일체에 통한다.

보살은 널리 유정들의 이익을 위하여 무상보리의 대원(大願)을 바르게 내어 생사에 처하여 한량없는 괴로움 받기를 맹세해야 하거늘 하물며 남에게 악행을 하여 대승을 잃게 하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특별히 근본 중죄로 제정한 것이다.

述曰，初制意者，且孔丘云，“吾有一言，可以終身行之，‘己所不欲，勿施於人.’”此戒亦爾，雖言讚毀，義通一切。菩薩普爲饒益有情，正發無上菩提大願，誓處生死，受無量苦，反施惡他，失壞大乘？所以偏制爲根本重。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 두 번째 경문을 해석[釋文]함에 ‘범하는 상[違犯相]’이란, 경(經)에서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반드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함이 있어야 비로소 중죄가 된다. 따로 칭찬하고 따로 비방

195) 『논어(論語)』「안연편(顔淵篇)」에 있는 ‘혈구지도(絜矩之道)’는 공자 사상(孔子思想)의 기본이며 동양 민본주의(東洋 民本主義)의 단서(端緒)이다. 상중하좌가 서로 함께 사는 상관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헤아려 그것을 기준으로 남을 대하라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천하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내가 싫으면 남도 싫고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 나아가 제 마음 하나 바르게 다스린 후 천하를 다스려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자는 유학 이념의 기본 철학인 것이다. “仲弓問仁，子曰，出門如見大賓，使民如承大祭，己所不欲，勿施於人，在邦無怨，在家無怨。仲弓曰，雍雖不敏，請事斯語矣。”

하면, 각각 두 가지 경죄(輕罪)가 되는 것이다. 마치 때를 달리해서 따로 4전(四錢)씩 갖는 것과 같다.¹⁹⁶⁾ 나머지 사구(四句) 등은 『보살계본중요』의 기록¹⁹⁷⁾과 같다.

196) 도인오전(盜人五錢)은 투도죄(偷盜罪)로 인도 형법(印度 刑法)에서는 살생죄에 처해지나 각각 따로 사전(四錢)씩 훔치면 그보다 가벼운 죄가 적용되듯 자찬훼타를 동시에 행하면 무거운 죄가 되고 따로 각각 행하면 가벼운 죄에 해당함을 설명한 것이다.

197) 태현의 『보살계본중요』(大45 pp.915a13-918a24, No.1906)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둘째 별상(別相)이란, 만약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반드시 죄가 된다면,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인가? 4구가 있으니,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와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며 요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와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샷됨을 겪는 따위이며 아침으로 이익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 또한 그러한 경우이니, 이를테면 천하고 작은 것을 따르고 심원하고 원대한 가르침[심광(深廣)]을 어기는 따위이다.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과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이 죄도 안 되고 복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그 마음에 범란(犯亂)을 증상하므로 혹 무거운 고통에 휩박 받으며 혹 계를 받지 않은 이는 무기심(無記心)으로 짓는 것이다. 二別相者, 若於自他讚毀必罪, 設毀讚者, 亦是福耶? 謂有四句, 或有讚毀罪, 毀讚福, 如次他邊損害故, 饒益故, 或有讚毀福, 毀讚罪, 摧邪等故, 佞引利故. 或有讚毀, 亦福亦罪, 毀讚亦爾. 謂順淺小違深廣等. 或有讚毀毀讚, 非罪非福, 謂如彼心增上犯亂, 或重苦逼, 或未受戒, 無記所作.” “만약 칭찬하고 헐뜯는 죄가 반드시 타승처라면, 타승처를 시설하는 것 또한 칭찬하고 헐뜯는 것이 될까? 경중(輕重)의 모습을 결정하기 어려우니, 위(位)를 따라 지키고 범하는 것이 지극히 미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업(初業)에 의하여 4구로 분별해보면 칭찬하고 헐뜯는 것이 중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록 사랑하고 미워함이 있으나 이익 따위를 위하지 않으며, 비록 죄를 범하여 물들었으나 중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구는 마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若讚毀罪, 必他勝處, 設他勝處, 亦讚毀耶? 謂輕重相難可決定, 隨位持犯, 極微細故. 然約初業四句分別, 謂有讚毀而非重罪, 雖有愛

第二釋文中，違犯相者，如經，口自讚毀他。必有讚毀，方重罪故。別讚別毀，別得兩輕。猶如別時，別取四錢。餘四句等，如宗要記。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 범하는 성[違犯性]이란 경(經)에서 ‘남을 비방하는 인(因)’에서 ‘남을 비방하는 연(緣)’까지이니, 앞의 것과 이것은 상(相)에 따라 이간질[離間, 兩舌]과 추악한 말[麤惡語]과 꾸미는 말[綺語]이 들어간다. 이는 곧 구경(究竟, 파계)을 따르는 줄 알아야 한다. 망어는 앞에서 이미 제정했다.

違犯性者，如經，毀他因，至毀他緣故，次前及此，隨相離間麤綺語攝。是即隨應究竟應知，妄語雖通，前已制故。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 세 번째 경계사문(境界事門)은 생략한다. 그러나 『유가사지론』에서 말하기를 “이양과 공경을 탐하여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면, 이것을 제일타승처법(第一他勝處法)이라 한다.”¹⁹⁸⁾ 고 하였으니, 이것은 다분히 탐욕으로 구경(究竟)을 삼은 것이다. 만약 얻는 것 없이 그저 질투 때문이라면 성냄[瞋]이 구경(究竟)이 된다.

略無第三境界事門。然瑜伽云，“爲欲貪求利養恭敬，自讚毀他，是名第一他勝處法。”是即多分以貪究竟。若無所得，但由嫉妒，以瞋究竟。

憎，不爲利等，雖染犯罪而非重故，餘句應知”

198) 제일타승처법(第一他勝處法)은 곧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자찬훼타(自讚毀他)이다. 3권 58) 주(註) 참조.

④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 네 번째, 경(經)의 ‘보살은’부터 ‘바라이죄니라’까지이다. 보살의 본원(本願)은 이타(利他)를 본심(本心)으로 여겨야 하거늘, 좋은 일은 (자기에 게) 이끌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린다면 대승을 잃게 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터무니없이 보살을 헐뜯을 때 어떻게 나쁜 일을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그가 이런 일을 행하였기에 나의 계가 견고(堅固)하게 되었다. 내가 만약 참지 못한다면 악이 나의 몸에 머물게 되리라.”라고 생각해야 한다.

第四門者，如經，而菩薩，至波羅夷罪。菩薩本願，利他爲心。引好推惡，失壞大乘。若人無道，毀菩薩時，如何引惡，好事向他。謂作是念，“彼行此事，堅固我戒，我若不忍，惡在己身。”

㉠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을 헐뜯지 말라 慳生毀辱戒第八經

□ 불자들이여! 스스로 간탐(慳貪, 인색과 탐욕)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탐하게 하면, 간탐하는 인(因)과 간탐하는 연(緣)과 간탐하는 법(法)과 간탐하는 업(業)이 되느니라. 그러나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는 앞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주어야 한다.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한 푼의 돈이나 한 개의 바늘이나 한 줄기 풀 조차 베풀지 않거나, 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한 구절이나 한 계송이나 한 티끌만큼의 법도 설해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꾸짖고 욕설을 하면,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若佛子! 自慳教人慳，慳因慳緣，慳法慳業。而菩薩見一切貧窮人來乞者，隨前人所須，一切給與，而菩薩以惡心瞋心，乃至不施一錢一鍼一草，有求法者，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許法，而反更罵辱者，是菩薩波羅夷罪。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첫 번째 계를 제정한 뜻[制意]이니 보살의 본원은 유정계를 위하여 생사의 몸에 머무는 것이다. 이미 보살의 몸이 중생에게 속하거늘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에 인색한 장애는 만 가지 행을 크게 파괴하고 깊이 의지(意地)에 남아 널리 육도(六度)를 방해 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특별히 근본중죄(根本重罪)로 제정한 것이다. 많이 구하여 널리 베푸는 것은 보살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탐욕은 심하게 어긋난 것이 아니므로 가벼운 죄가 된다.

述曰, 初制意者, 菩薩本願, 爲有情界, 留生死身. 既菩薩身屬於衆生, 況乎財物. 非自所有. 故慳施障, 破萬行甚, 深居意地, 廣毀六度, 是故偏制爲根本重. 多求廣施, 菩薩所宜, 貪不深違, 故爲輕罪.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 경문을 해석[釋經文]함에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이라 한 것은, 『유가사지론』 「보살지(菩薩地)」에서 말하기를 “수승한 이익이 있으므로 와서 구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베풀어 주어야 한다. 재물로써 포용하면 교화하여 인도하기 쉽기 때문이다. 만약 이익이 없다면 설령 안락함이 있더라도 베풀어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베풀어 줄 때에 잠깐 동안 그로 하여금 보살의 처소에서 기쁨을 내게 하지만, 훗날 그로 하여금 널리 갖가지 이익 되지 않는 일을 짓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러 보시로 인하여 그가 교만¹⁹⁹⁾과 게으름과 나쁜 행을

199) 교(橋, ㄱmada)는 스스로를 존대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자기의 재산·지위·재능·학력 등을 믿고 오만(傲慢)한 것을 말한다. 『구사론』에서는 소번뇌지법(小煩惱地法)의 하나로 분류하고, 유식학파에서는 수번뇌(隨煩惱) 중 소수혹(小隨惑)

많이 하게 되어 죽어서 악취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여러 구절은 『유가사지론』 75권과 같으니 간략하게 송하면 다음과 같다.

타인에게 재물과 법의 이익을 베풀더라도

자신의 법이 쇠퇴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은 물질만 쇠(衰)하게 되지만,

타인은 재산과 법이 왕성해진다.

釋文中言，菩薩見一切貧窮人來乞者，菩薩地云，“見有勝利而來乞者，方應施與。欲以財攝，易化導故。若無利益，設有安樂，不應施與。何以故，若施彼時，雖暫令彼，於菩薩所，心生歡喜，而後令彼廣作種種不饒益事。謂因施故，令彼多行憍逸惡行，身壞已後，墮惡趣故。”此中諸句，如七十五，略攝頌曰。“設他財法利，不應自法衰。若自但衰物，他財法盛爲。”

■ ‘앞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주어야 하거늘’ 이라고 한 것은, 『유가사지론』 74권에서 “혹 빈곤하고 궁핍한 자는 자기의 종에게만 주고, 만약 중간 정도 재물이 있는 자라면 그들의 처소에 나누어 주거나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에게 주며, 만약 재물이 많은 자라면 그들의 처소에 주면서 또 그 밖에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각각 잘 나누어서 보시를 행해야 한다.”²⁰⁰⁾ 고 하였다. 지금 이 경의 글 또한 세 번째에 의지한다.

의 하나로 분류한다. 만(慢, māna)은 타인을 의식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교(憍)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도 일어나는 것이다.

200) 『유가사지론』 74권(大30 p.710b12) “六善分布而行惠施，此即遠離非道理垢。謂貧

용수가 『십주심론(十住心論)』에서 “보살의 몸과 마음은 마땅히 약나무[藥樹]와 같아서 모두가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을 가져가지만, ‘나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다.”²⁰¹⁾고 하였다.

言隨前人所須一切給與者，七十四云，“若貧乏者，於自僕從，若中財者，即於彼所，及貧苦所，若大財者，即於彼所，亦於其餘，來求者所，各善分布，而行布施。”今此經文，且依第三也。如龍樹云，“菩薩身心，應如藥樹，一切雖取根莖枝葉，而不分別由我得益。”

■ 만약 그렇다면 많은 재산을 그에게 이익이 있다면 모두 주어야 하는가? 그렇지않는 않다. 계승으로 말하겠다.

부모와 스승과 어른은 허락할 수 없고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이 또한 일체에 대하여
한결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는 “몸과 목숨, 그 밖에 독과 칼과 술 등이라

乏者於自僕從，若中財者，即於彼所及貧苦所，若大財者，即於彼所，亦於其餘來求者所。”라 하였다.

- 201)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6권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10(大26 p.51c16)
“問曰，外物可不畜，身當云何？答曰，常爲利衆生，解身如藥樹，爲利益衆生故。信解身如藥樹，如藥樹，衆生有用根莖枝葉華實等各得差病，隨意而取無有遮護。菩薩亦如是，爲利衆生故，能自捨身作是念。若衆生取我頭目手足肢節脊腹脾膊耳鼻齒舌血肉骨髓等，隨其所須，皆能與之，或舉身盡施。如是降伏其心，修集善根，爲方便所護行檀波羅蜜。”

도 다만 옳은 이익이 있으면 모두 주어야 하나, 부모와 사장(師長)은 결코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항상 머리에 이고 받들어 모셔야 하며 고기를 잡고 팔아서 (봉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²⁰²⁾라고 한다.

‘허락하지 않는 것’에 또한 두 가지가 있다. ① 다른 사람의 소유이니, 『유가사지론』에서 “부모와 처자와 노비 등의 물건을 빼앗아서 보시하면 안 된다.”고 한 것과 같다. 행에는 죄와 복이 있나니, 보살의 상사공덕(相似功德)에 속하기 때문이다. ② 자신의 소유이니, 『유가사지론』에서 “만약 먼저 바른 말로 알아듣게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주도록 하지 못하고, 끝내 억지로 다그치므로,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구하러 온 사람에게 보시할 필요는 없다. 비록 다시 알아듣도록 말하여 즐거운 마음을 낸다고 할지라도 원수거나 악한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 하며, 처자와 몸이 연약한 족성(族姓)의 남녀를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어 노비가 되게 하면 안 된다.”고 설함과 같다. 왜냐하면 이들도 또한 중생이므로 평등하게 연민히 여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若爾多財，但彼有益，一切施耶？不爾。頌曰，父母及師長，未許自無能，此亦於一切，一向不應爲。菩薩地云，“身命乃至毒刀酒等，但有義利，一切施與，父母師長，定不應施。何以故，以有恩者，常生頂戴，任屠賣故。”言未許者，亦有二種，一他所有，謂如論說，“不應侵奪父母妻子奴婢等物，持用布施。”行有

202) 『유가사지론』 39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시품(初持瑜伽處施品)」 9(大30 p.506a5) “又諸菩薩，於外施物，若有衆生，來毒火刀酒等物，或爲自害，或爲害他，卽不應施。若有衆生，來求毒火刀酒等物，或自饒益，或饒益他，是卽應施。”

罪福, 菩薩相似功德攝故. 二自所有, 謂如論說. “若不先以正言, 曉喻令其歡喜, 終不強逼, 令其憂惱施來求者. 雖復曉喻令生樂欲, 而不施與怨家惡者, 不以妻子形容軟弱族姓男女, 施來求者, 令作奴婢.” 此意爲顯此亦衆生平等所愍, 不應爲彼樂, 令此生苦故.

■ ‘만약 그렇다면 어찌하여 수달나태자(須達拏太子)²⁰³⁾는 억지로 꺾박하여 아들과 딸을 바라문(婆羅門)에게 보시했는가?’ 그것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 저기에서 말하길 “두 어린아이가 ‘우리가 숙세에 무슨 죄가 있기에 이 나라 왕의 종성이면서도 노비가 되어 지금 참회를 빌어야 합니까?’ 하니 태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은애(恩愛)는 이별하기 마련이요, 모든 것이 무상(無常)한데 무엇을 보전하고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위없는 평등한 진리를 증득하면 마땅히 너희들을 제도할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문기를, 만약 이미 알아듣도록 말했는데 어찌하여 기꺼이 가지 않았는가? 그 경에서 말하기를 “바라문이 때려서 피가 땅에 흐르자 태자가 눈물을 흘리니, 그 땅이 끓어올랐다.”고 한다. 답하기를, 그들이 기꺼이 노비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만난 후에 헤어지려 한 것 뿐이니, “어머니가 오셨다가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마치 어미 소가 송아지를 잃고 울면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若爾, 云何須達拏太子, 強逼男女, 施婆羅門? 彼亦曉喻, 謂如彼云, “兩兒白言, 我宿何罪, 是國王種, 而作奴婢今乞懺悔?” 太子語言, “天下恩愛, 皆當別離, 一切無常, 何可保守. 我得

203) 1권 50) 주(註) 참조.

無上平等道時，自當度汝。”問若已曉喻，何不肯去？如彼經云，
 “婆羅門打，血出流地，太子淚下，其地卽沸。”答彼非不肯作
 奴婢，唯待阿孃欲面別。如說，“母來不見我，當如牛母失犢子，
 啼哭竟日向東西。”

■ ‘스스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시로 인하여 보
 리행에서 물러 날 것 같으면 곧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리불[鶖子]이 열 가지 해석[十解]을 하여 물러나는 자취를 보인
 것이니, 분(分)에 맞는 지혜로운 보시가 아니면 도리어 물러나게 하기 때
 문이다.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 “출가한 사람이 만약 재물을
 보시하면 그 밖의 다른 선(善)을 방해하리니, 반드시 일이 많아지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출가한 사람에게는 법보시[法施]를 칭찬하였고, 재가자에
 게는 재보시[財施]를 칭찬하였다.”²⁰⁴⁾고 한 것과 같다.

이로 인하여 『결정비니경(決定毘尼經)』에서는 “재가보살은 반드시 두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한다. ① 재산이고 ② 법이다. 출가보살은 반드시 네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한다. ① 종이[紙]이고, ② 먹[墨]이며, ③ 붓[筆]이고,
 ④ 법[法]이다. 법인을 얻은 보살[得忍菩薩]은 세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하
 니, 첫째는 왕의 지위(王位)이고 ② 처자(妻子)이고 ③ 머리와 눈과 피부와
 뼈이다.”²⁰⁵⁾라고 하였다.

204)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大26 p.54b23) “又出家之人，於聽法者，恭敬心勝，
 又出家之人，若行財施，則妨餘善。”이라 하고 뒤에서 “於出家者，稱歎法施，於在
 家者，稱歎財施.”(大26 p.54c7)라 했다.

205) 『대보적경(大寶積經)』 90권 「우바리회(優波離會)」 24(大11 p.515c2) “復次舍利弗，
 在家菩薩，住於慈愍不惱害心，應修二施。一者爲二，一者法施，二者財施。出家菩
 薩應修四施，何等爲四？一者筆施，二者墨施，三者經本施，四者說法施。無生法忍
 菩薩，應住三施，何等爲三？所謂王位布施，妻子布施，頭目支分，悉皆布施，如是

言自無能者，若見由施，退菩提行，則不應施。爲顯此義，鷲子十解，示退之迹，非分惠施，反生退故。如十住論云，“出家之人，若行財施，則妨餘善，必多事故。故於出家，稱讚法施，於在家者，稱讚財施。”由此決定毘尼經云，“在家菩薩，應行二施。一財二法。出家菩薩，應行四施。一紙二墨，三筆四法。得忍菩薩，應行三施，一王位，二妻子，三頭目皮骨。”

■ 그러나 『대집경(大集經)』에서 “새로 발심한 보살[新發意菩薩]은 몸과 목숨과 재산에 대하여 항상 버리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나니 점차 훈습(熏習) 되어 마침내 버리는 데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²⁰⁶⁾라고 한다.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 “매우 아끼는 물건을 구걸하면 때에 반드시 스스로 권유(勸喻)하여야 한다. 마음에 아직 탐내고 아까워한다면 반드시 구걸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빌며 ‘제가 지금 새로 배우는 사람인지라 선근이 성숙하지 못하여 마음이 아직 자재함을 얻지 못하였으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²⁰⁷⁾고 하였다.

‘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도’라고 한 것은 한 구걸의 위력이 능히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법시(法施)가 재시(財施)보다 수승하다. 마치 『유가사지론』 71권과 『금광명경(金光明經)』 2권에서 자

施者，名爲大施.”

206)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15권 「허공장보살품(虛空藏菩薩品)」 8-2(大13 p.101b22) “善男子，云何菩薩不離如來所許念捨者，所謂捨財捨法。復次有捨身及命，捨一切邪道。”라 하고 이어서 계속 깊이를 더하여 行捨를 설명한다.

207) 『십주비바사론』 18권 「입사품(入寺品)」 17(大26 p.59b28) “問曰，在家菩薩，或有貪惜愛着之物，有來求者，此應云何 … 答曰 … 菩薩卽時，應自勸喻而施與之，如是思惟，如是自勸猶貪惜者，應辭謝乞者言，我今是新學，善根未成就，心未得自在，願後當相與.”

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그러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보살지(菩薩地)」에서는 “수승한 지혜[勝智]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베풀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법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와 같이 알면 된다.

然大集云, “新發意菩薩, 於身命財, 常作捨想者, 欲令漸²⁰⁸⁾薰, 至堪捨故.” 如十住論, “乞極惜物時, 當自勸喻. 心猶貪惜者, 應辭謝乞者言, ‘我今是新學, 善根未成就²⁰⁹⁾, 心未得自在, 願後當相與.’” 言有求法者, 一句威力, 能出苦輪, 是故法施勝於財施. 如瑜伽七十一, 金光明經, 第二廣說. 然菩薩地云, “不求勝智, 不應施與.” 廣說法施, 如彼應知.

■ ‘도리어 다시 꾸짖고 욕한다.’고 한 이 구절은 앞에서 말한, 재물과 법을 아끼는 것에도 통한다. 재물에 인색하면서 도리어 꾸짖으면 이내 아귀(餓鬼)에 떨어지고, 법을 아끼면 광혹(狂惑)하게 되어 오랜 세월동안 도(道)에 장애가 된다.

『유가사지론』에서 “현세에 재물이 있고 와서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혐오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품어 베풀지 않으면 물들어 범하는 것(染犯)이나, 게을리서 방일한 것은 물들어 범하여 어기는 것(染犯違)이 아니다.”²¹⁰⁾라고 한다. ‘어기고 범함[違犯]이 없는 것’은 보시할 물건[施物]이 없거나, 구하는 것에 맞는 물건이 없거나, 그를 조복(調伏)하기 위함이기

208) 韓3 p.456a14에는 ‘향내 날 훈(薰)’으로 되어 있으나 ‘훈습할 훈(熏)’자로 바꾸는 것이 옳다.

209) 韓3 p.456a17에는 ‘이를 취(就)’자로 되어 있으나 ‘익을 숙(熟)’자로 볼 수도 있다.

210)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20b6) “若諸菩薩, 安住菩薩淨戒律儀, 有飲食等資生衆具, 見有求者來正憐求飲食等事, 懷嫌恨心懷患惱心而不給施, 是名有犯有所違越, 是染違犯. 若由懶惰懈怠放逸不能施與, 非染違犯.”

나, 또는 그것이 왕의 처소에 맞지 않거나, 승가의 제도[僧制]를 수호하기 위한 것들이다.

묻기를, 무슨 뜻으로 『대집경(大集經)』에서 “몸과 목숨과 재산에 대하여 항상 버리겠다는 생각을 지으라.”는 것인가? 계승으로 말하겠다.

몸을 위하여 재물을 구하면 악행만 쌓이고
장차 죽어 사라지면 은혜조차 알지 못하네.
재물은 목숨을 따라 버려지고 악업만 따르나니
그 과보를 받을 때 함께 받을 자가 없구나.

言而反罵辱者，此句通上慳財法也。慳財反罵，便墮餓鬼，慳法招狂，長夜障道。瑜伽論云，“現有資財，有來求者，懷嫌恨心，懷²¹¹⁾恚惱心，不施染犯。若怠放逸，非染違犯。”無違犯者，若無可施物，若求不宜物，若調伏彼，若彼王所匪宜，若護僧制。問，以何義故，大集經云，“於身命財，常作捨想。”頌曰，爲身求財集惡行，當歸死滅不知恩。財隨命捨惡業隨，受彼果時無共受。

㉠ 사과하는 것에 대해 성내어 물리치지 말라 瞋不受謝戒第九經

□ 불자들이여! 스스로 성을 내거나 남을 시켜 성을 내게 하고 성내는 인(因)과 성내는 연(緣)과 성내는 법(法)과 성내는 업(業)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에게 선근을 내어 다템이 없는 일로 항상 자비심[悲心]을 내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중생들과 중생 아닌 것들에게 이르기까지 나쁜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때리거나 칼과 몽둥이

211) 卍60 p.437a1과 大40 p.707b19와 藥師寺藏本에는 ‘무너질 괴(壞)’로 되어 있으나 韓3 p.456b1에는 ‘품을 회(懷)’로 되어 있다.

를 쓰기도 하며 여전히 뜻을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뉘우쳐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과하여도 성내는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若佛子! 自瞋教人瞋, 瞋因瞋緣, 瞋法瞋業. 而菩薩應生一切衆生中善根, 無諍之事, 常生悲心, 而反更於一切衆生中, 乃至於非衆生中, 以惡口罵辱, 加以手打, 及以刀杖, 意猶不息, 前人求悔, 善言懺謝, 猶瞋不解者, 是菩薩波羅夷罪.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첫 번째 계를 제정한 뜻[制意]이란 중생들이 기쁘게 보지 않는 것으로 성을 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만 착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부른다.

보살이 이승의 열반[二乘涅槃]을 버리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다만 유정계(有情界)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성냄[瞋]은 대비(大悲)를 장애하므로 근본 중죄가 된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보살은 대부분이 성냄과 함께 범하는 것이요, 탐욕[貪]으로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같다.

述曰, 初制意者, 衆生不喜見, 無過瞋恚也. 故唯不善, 必招苦果. 菩薩誓捨二乘涅槃, 但以憐愍有情界故, 瞋障大悲, 爲根本重. 如世尊說, “是諸菩薩, 多分應與瞋所起犯, 非貪所起.”

■ 『유가사지론』에서 “여기에서 말한 비밀스러운 뜻[密意]을 해석하면, 여러 보살들이 유정을 사랑하는 뛰어난 힘 때문에 행한 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보살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범함이 된다. 만약 모든 보살들이 여러 유정들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면 자리행과 이타행을 닦을 수 없으니, 여러 보살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범하는 것이다.”²¹²⁾라고 하였다. 해석하자면 사실 탐욕으로 범하기 때문에 숨겨진 의미[密意]라고 하며, 성냄으로 범하면 실로 모든 것을 파계하는 것은 아니다. 보살은 무여범(無餘犯)²¹³⁾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거칠게 나타나는 상(相)을 들어 깊이 다른 뜻을 보인 것이다.

상품(上品)의 사건(邪見)으로 일체를 비방하면, 그때 어떻게 다른 계(戒)가 남을 수 있겠는가? 그때 다만 하나의 바라이만 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필경 부동분심(不同分心)²¹⁴⁾을 끌어낸 것이다.

論, “釋此中所說密意, 謂諸菩薩, 愛諸有情, 增上力故, 凡有所作, 一切皆是菩薩所作, 非作所作, 可得成犯. 若諸菩薩, 憎諸有情, 嫉諸有情, 不能修行自他利行, 作諸菩薩所不應作. 作不應作, 可得成犯.” 解云, 貪實亦犯, 故云密意, 非謂犯瞋實破一切. 勿菩薩有無餘犯故, 但舉麤顯相, 示深無餘義. 上品邪見, 徧謗一切, 爾時如何殘有餘戒? 爾時唯犯一波羅夷, 然必引生不同分心.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 두 번째 경문을 해석함에 위범상문(違犯相門)과 위범성문(違犯性門)

212) 『유가사지론』 41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계품」 10-2(大30 p.521b19)
“又於菩薩犯戒道中, 無無餘犯. 如世尊說, 是諸菩薩, 多分應與瞋所起犯, 非貪所起. 當知此中所說密意, 謂諸菩薩愛諸有情, 憐諸有情增上力故, 凡有所作一切, 皆是菩薩所作. 非非所作, 非作所作, 可得成犯. 若諸菩薩, 憎諸有情嫉諸有情, 不能修行自他利行, 作諸菩薩所不應作, 作不應作可得成犯. 又諸菩薩軟中上犯, 如攝事分應當了知.”

213)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무여(無餘)라 번역한다. 바라이죄에는 다른 그 밖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극에 달한다고 하는 것이다.

214) 3권 82) 주(註) 참조.

은 앞에서와 같은 줄 알라. 말하자면 ‘보살’부터 ‘항상 자비심을 내어야 하거늘’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성냄이 없는 선근(善根)을 내도록 권하고 스스로도 반드시 항상 크게 자비심을 내는 것이다.

나쁜 사람을 대하면 문득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① 그 사람의 심성이 본래 청정한데, ‘무명의 술에 취하고 번뇌의 귀신에게 붙잡혀 부득이 이런 짓을 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며, ② 근본 서원을[本願]을 생각할 것이니, ‘내가 중생들을 위하여 보리를 증득하기를 맹세하여 생사의 큰 고통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이 작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③ 그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니, ‘반드시 그가 나를 괴롭힘으로 인하여 인욕의 행이 이루어지니 저가 곧 나의 보리의 인[菩提因]을 원만하게 해주는 것이거늘 어찌 은혜를 저버리고 성내고 해치겠는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第二釋文，犯相犯性，如前應知。言而菩薩，至常生悲心者，勸他令生無瞋善根，自亦應常生大悲心。謂對惡人，便作三念。一念彼人心性本淨，‘醉無明酒，著煩惱鬼，不獲己有此所作耳。’二念本願，‘我爲衆生，誓證菩提，生死大苦，尚不生畏，況此小苦，應否忍受。’三念彼恩，‘必由惱害，乃成忍行，彼卽成滿我菩提因，何乃背恩，反生瞋害。’

■ ‘나쁜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부터 ‘성내는 마음을 풀지 않는 것’까지는 차례대로 말과 몸과 뜻의 업이다. 비록 삼업(三業)을 갖추었으나, 지금 뜻으로 짓는 죄[意罪]만을 취한 것은 동등하게 일으키더라도 성냄이 중죄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뜻으로 짓는 죄는 결정적일 때 정해지는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뉘우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비중생(非衆生)들이 와서 참회하고 사죄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을

내고 간언(諫言)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중죄가 성립된다. 어떤 사람은 “사실에 의거하건대 다만 유정의 입장에서 가벼운 것[輕]을 무거운 것[重]에 견주므로 비중생(非衆生)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백가지 법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곧 분노[忿]가 바탕이 된다. 『유가사지론』에서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분노[忿纏]를 길러 쉬지 않고 추악한 말만을 퍼붓다가 성냄으로 인하여 손으로 때리기도 하며 분노의 의지[忿意樂]를 품어서 다른 이가 와서 간언하고 사과하는 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참지 못하며 원한을 버리지 않으면 타승처(他勝處)라고 부른다.”²¹⁵⁾ 고 한 것과 같다.

言以惡口罵辱，至猶瞋不解者，如其次第，語身意業。雖具三業，今取意罪，以所等起，顯瞋重故。此意地罪，決定時結，由此決定，不受悔故。雖非衆生，不來懺謝，瞋不應諫，猶成重罪。有說，“據實唯有情邊，以輕況重，言非衆生。”百法何攝，卽忿爲體。如瑜伽云，“長養如是種類忿纏，不唯發起麤言便息，由瞋蔽故，加以手打，懷忿意樂，他來諫謝，不受不忍，不捨怨結，名他勝處。”

① 삼보를 헐뜯고 비방하지 말라 毀謗三寶戒第十經

□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삼보(三寶)를 비방하게 하면 비방하는 인(因)과 비방하는 연(緣)과 비방하는 법(法)과 비방하는 업(業)이 되느니라. 보살은 외도와 나쁜 사람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음성을 들으면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여 믿는 마음과 효순

215) 3권 58) 주(註) 참조.

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도리어 다시 나쁜 사람과 사건을 지닌 사람을 도와 비방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若佛子! 自謗三寶, 教人謗三寶, 謗因謗緣, 謗法謗業. 而菩薩見外道及以惡人 一言, 謗佛音聲, 如三百鉾刺心, 況口自謗, 不生信心孝順心. 而反更助惡人邪見 人謗者, 是菩薩波羅夷罪.

①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 첫 번째 계를 제정한 뜻[制意]이란 불법승의 삼보는 삿됨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나루터요, 바른 곳에 들어가게 하는 요긴한 문[要門]이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언제나 즐거운 경지를 증득할 것이며 그것을 등지는 사람은 항상 괴로움의 바다에 빠질 것이니, 사견(邪見)으로 어기고 거스르면 죄가 막대하다. 행하는 모양마다 어둡고 사나워서 모든 선을 끊을 뿐이니, 이런 까닭으로 또한 근본중죄를 만든 것이다.

述曰, 初制意者, 佛法僧寶, 出邪之大津, 入正之要門. 順之者必證常樂, 背之者常沈苦海, 邪見違逆, 罪莫大焉. 行相幽猛, 斷諸善故, 是故亦立爲根本重.

② 경문을 해석 釋經文

■ 문장을 해석한 것[釋文]은 앞에 준하여 알지니라.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가사지론』 79권에서 “보살은 무엇을 괴롭다고 하는가? 중생이 해를 입고 다치는 것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하는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곧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것이다.”²¹⁶⁾라고 자세하게 설한다. 중생이 해를 입고 다치는 것이

법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은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하는 것이다. 자애롭지 못한 마음을 익히면 남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되고, 자애로운 마음을 익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된다. 즐거움이 이미 이와 같다면 괴로움 또한 그러하다.

釋文者，準前應知。言如三百鉾刺心者，如瑜伽七十九云，“菩薩當言，以何爲苦？衆生損惱²¹⁷⁾，卽爲自苦。若爾當言，以何爲樂？衆生饒益，卽爲自樂。”乃至廣說。衆生損惱，無過謗法。是以菩薩，如鉾刺心。習不慈心，他苦爲樂，習慈心者，他益爲樂。樂旣如此，苦亦然故。

■ ‘하물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장(菩薩藏)을 비방하고 정법(正法)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건립하기 좋아하여 혹 스스로 믿고 이해하거나 혹 남을 따라 믿으면 이것을 네 번째 타승처법(他勝處法)²¹⁸⁾”이라고 한다. 이는 증익(增益)과 또는 손감(損減)의 샛된 견해와 통하니, 이 샛된 견해의 번뇌[纏]가 결정될 때 아직 선근(善根)²¹⁹⁾

216) 『유가사지론』 79권 「섭결택분중보살지」 8(大30 p.737b8) “問，菩薩當言，以何爲苦？答，衆生損惱爲苦。問，菩薩當言，以何爲樂？答，衆生饒益爲樂。”

217) 韓3 p.457a19에는 ‘두뇌 뇌(腦)’자로 되어 있으나 글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뇌로울 뇌(惱)’자로 해석하였다.

218) 네 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 가운데 보살장을 비방하는 방보살장계(謗菩薩藏戒)를 말한다.

219) 선근(善根, kuśala-mūla)은 선본(善本)·덕본(德本)과 같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 모든 선(善, kuśala)을 낳는다는 것이다. 무탐(無貪)·무진(無瞋)·무치(無癡)를 삼선근(三善根)이라 한다. 『구사론(俱舍論)』에서는 수행자가 견도(見道)에 들어가 무루지(無漏智)를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한다. 『금강경(金剛經)』(大8 p.749b) ; 『아미타경(阿彌陀經)』(大12 p.347b) ; 『보성론(寶性論)』(大31 p.831b) ; 『화엄경(華

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부동분심(不同分心)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보살계에서는 선을 끊어 버림이 없는 것이다.

삿된 견해에 두 가지가 있다. 만약 온전히 일체 인과(因果)를 비방하면, 설령 다른 것들을 비방하지 않더라도 대승을 비방하는 것이므로 한결같이 중죄를 범하게 되고, 혹은 지극한 상전(上纏)일 때도 정계(淨戒)를 잃게 된다. 앞에서 말한 것은 모두 세속문(世俗門)이나, 만일 승의문(勝義門)이라면 곧 삼륜이 청정[三輪淸淨]한 것이니, 『보살계본중요』²²⁰⁾에서 설한 것과 같다.

言況口自謗者，瑜伽論云“謗菩薩藏，愛樂建立像似正法，或自信解，或隨他轉，是名第四他勝處法。”此通增益損減邪見，此邪見纏若決定時，雖未斷善，必起不同分心。故菩薩戒，無斷善捨。邪見有二。若全分謗一切因果，設不謗餘而謗大乘，一向犯重，若至上纏，亦失淨戒。已上所說，皆世俗門，若勝義門，卽三輪淨，如宗要說。

嚴經』(大9 p.395b) 등에서 기술되고 있다.

- 220) 태현의 『보살계본중요』(大45 pp.915a13-918a24, No.1906)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셋째, 구경(究竟)이란 곧 이공(二空)으로써 삼륜상(三輪相)을 없애는 것이니, 계경에서 ‘마땅히 원만한 정계(淨戒)인 바라밀다를 호지하지 않음으로써 범하였으나 범한 모습이 없으니 가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를테면 계·죄·사람의 삼륜의 상은 연(緣)에 즉(卽)하지 않기 때문이며, 비록 상이 없지 않으나 연을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三究竟者 卽以二空，亡三輪相，如契經言，應以不護圓滿淨戒波羅密多，犯無犯相，不可得故。謂戒罪人，三輪之相，不卽緣故，雖相非無，不離緣故.”

6) 결성문 結成門

□ 배우기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여,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이니, 반드시 배워야 하느니라. 그 가운데 반드시 낱알 작은 티끌만큼도 범하지 말아야 하거늘 어찌 열 가지 계[十戒]를 모두 범하겠는가? 범하면 현재의 몸으로는 보리심을 내지 못할 것이며, 또한 국왕의 지위나 전륜성왕의 지위나 또 비구, 비구니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또한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와 불성(佛性)에 항상 머무는 묘한 과위[妙果]도 잃을 것이니라. 모두 다 잃고 삼악도에 떨어져서 이겁(二劫), 삼겁(三劫)을 지내도록 부모와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리니, 이러한 까닭에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대들, 지금 배우고 있고 미래에 배울 것이며 과거에 이미 배운 모든 보살들은,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반드시 배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지니라. 「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에서 널리 밝혔느니라.

善學諸人者，是菩薩十波羅提木叉，應當學。於中不應一一犯如微塵許，何況具足犯十戒？若有犯者，不得現身發菩提心，亦失國王位，轉輪王位，亦失比丘比丘尼位，亦失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佛性常住妙果。一切皆失，墮三惡道中，二劫三劫，不聞父母三寶名字，以是不應一一犯。汝等一切諸菩薩，今學當學已學。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八萬威儀品當廣明。”

■ 이 부분은 세 번째 결성문(結成門)이다. 여기에 세 가지 글이 있으니, 훼손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범하면 계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이며, 배우기를 경책하며 지시하는 연고이다.

述曰，此卽第三也。此有三文，勸不毀犯故，示犯失壞故，誠學

指應²²¹⁾故.

(1) 휘범하지 말기를 권하다 勸不毀犯

■ 첫 번째는 경에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여’부터 ‘열 가지 계[十戒]를 범하겠는가.’까지이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란 외도와 여러 착하지 않은 법을 배우는 사람들과 이승으로서 구경이 아닌 것을 배우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유가사지론』 80권에서 “또한 저 성문들이 비록 구경에 도달하여 온갖 천인들의 공양과 찬탄을 받는 것이 신업(新業)으로 보살행을 닦는 데 머무는 것만 같지 못하다.”²²²⁾고 말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작은 티끌만큼도 범하지 말아야 하거늘’이라고 한 것은 비록 허물이 가볍고 작을지라도 쌓이면 커지기 때문이다. 경에서 계송으로 말한 것과 같다.

작은 악행을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점점 큰 그릇에 가득 차게 되느니라.²²³⁾

혹 다시 어리석은 사람이 작은 것을 범하여도 죄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221) 卍60 p.439a13과 大40 p.708a19과 藥師寺藏本에는 ‘廣’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7b22에는 ‘應’으로 되어 있다.

222) 『유가사지론』 80권 「섭결택분중보살지」 9(大30 p.744b28) “又彼聲聞，雖到究竟，而不爲彼諸天人等供養讚嘆，如住始業修行菩薩。”

223) 『대반열반경』 15권 「범행품(梵行品)」 8-1(大12 p.451c24) “莫輕小罪，以爲無殃，水滯雖微，漸盈大器.”

티끌만큼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니, 또한 응당 범해서는 안 된다. 계송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가 적어도 악도에 떨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죄가 클지라도 고통에서 벗어나나니
마치 쇠덩이는 작아도 물에 가라앉고
쇠 발우는 커도 능히 물에 뜨는 것과 같나니라.

곧 『대지도론』에서 “지혜롭게 마음을 비우는 것은 마치 발우가 능히 물에 뜨는 것과 같다.”²²⁴⁾ 고 하였다.

初者，如經，善學諸人者，至犯十戒。言善學者，簡外道諸不善學，及以二乘不究竟學。如八十云，“又彼聲聞，雖到究竟，而不爲彼諸天人等供養讚歎，如住新業修菩薩行。”此云不應一一犯微塵許者，雖過輕微，積成大故。如經頌曰。莫輕小惡，以爲無殃。水滸雖微，漸盈大器。或復愚人，犯小罪重，故微塵許，亦不應犯。如有頌曰，愚者罪小亦墮惡，智爲罪大亦脫苦，如團鐵小亦沈水，爲鉢鐵大亦能浮。卽智論云，“智慧心虛，如鉢能浮也。”

■ 묻기를, 알면서도 일부러 지으면 세간에서 꾸짖는 것이, 사리분별 못하는 자[狂夫]가 하는 짓을 꺾이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지혜롭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또한 그러하거늘, 어찌 지혜로운 사람

224) 『대지도론』 37권 「석습상응품(釋習相應品)」 3(大25 p.333a16) “菩薩亦如是，能行是般若波羅蜜，得實智慧故，卽入佛種中生。佛種中生故，雖有重罪，云何重受。復次譬如鐵器中空故，在水能浮，中實則沒。”

은 가볍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겁다고 하는가? 답하기를, 이 물음은 마땅치 않다. 자신이 지은 것은 자신이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狂夫]는 칼이 닿으면 해를 입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칼이) 오더라도 칼날을 피하므로 다치지 않는 것과 같다. 또 어두운 방에 기둥이 있는 줄 알면 슬쩍 부딪치나, 기둥이 있는 줄 모르고 부딪치면 크게 다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이와 지혜로운 이가 짓는 죄의 이치 또한 그러하다.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 “지혜로운 이가 지은 죄는 소금을 연못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저 계승에서 말한 것과 같다.

한 말의 소금을 큰 연못에 던지면
그 물맛이 달라지지 않으나
만약 작은 그릇에 담긴 물에 넣으면
쓰고 짜서 마실 수 없다네.²²⁵⁾

問，知而故作，世間所責，非如狂夫，所作無怪。智愚作罪，亦復應然，如何智輕，愚者爲重？答，此難不爾。自作自受，非他制故。謂如狂夫，觸刀被害，智者雖觸，避刀無損。又如闇室，知柱觸輕，不知有柱，打著即重。愚智作罪，道理亦然。十住論中，“智所作罪，如投鹽池。”如彼頌曰。斗鹽投大池，其味無有異，若投小器水，鹹苦不可飲。

225)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6권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11(大26 p.48c29)
“如是人若有罪，不復增長今世現受。譬如人以小器盛水，着一升鹽，則不可飲。若復有人，以一升鹽投於大池，尚不覺鹽味，何況巨飲。何以故，水多鹽少故，罪亦如是。偈說，升鹽投大海，其味無有異，若投小器水，鹹苦不可飲。”

(2) 범하면 계를 잃음을 보이다 示犯失壞

■ 두 번째 ‘범하면 계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저 ‘범하면’부터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까지이다.

이에 ‘만약 범하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심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 십중계를 범하여 칠차(七遮)²²⁶⁾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보살계를 받을 수 없다. 그 밖의 계는 그렇지 않으니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과 『보살본업경(菩薩本業經)』에서 다시 받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문노니, 중죄를 범하면 계를 잃는데, 무슨 까닭에 『보살본업경(菩薩本業經)』에서는 “보살계는 받는 법만 있고 버리는 법은 없다.”²²⁷⁾고 자세하게 밝혔는가?

답하기를, 여기에 많은 해석이 있다. 원효스님은 “만약 삼승의 가르침에서 발심하였다면 계를 잃는 경우가 있으나, 혹 일승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길이 물러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교종(新敎宗)을 의거하면 인정하기 어렵다. 의적스님은 “공능(功能)²²⁸⁾은 비록 잃었더라도 종자의 체성[種體]은 항상 머무른다.”²²⁹⁾고 하였으며, 『유가사지론』과 『보살영락본

226) 칠차(七遮)는 칠차죄(七遮罪)·칠역죄(七逆罪)라고도 하며, 성도(聖道)를 방해하는 7종의 중죄(重罪)로서, 이 중의 하나라도 범하면 보살계를 받지 못하게 하므로 차죄(遮罪)라고 한다.

227) 『보살영락본업경』 하권 「대중수학품(大衆受學品)」 7(大24 p.1021b1) “佛子, 受十無盡戒已, 其受者, 過度四魔越三界苦, 從生至生不失此戒, 常隨行人乃至成佛. 佛子, 若過去未來現在一切衆生, 不受是菩薩戒者, 不名有情識者, 畜生無異. 名爲人, 常離三寶海, 非菩薩非男非女非鬼非人, 名爲畜生名爲邪見. 名爲外道不近人情. 故知, 菩薩戒有受法而無捨法, 有犯不失盡未來際.”

228) 공능(功能)은 유위법(有爲法)의 결과를 산출하는 공용세력(功用勢力)·공용(功用)과 의미가 비슷하다. 그러나 공용이 현재와 미래에만 쓰이는 것에 반해 공능은 과거·현재·미래 삼세(三世)에 공통적으로 쓰인다. 어떤 때는 직접적인 힘을 공용 또는 작용(作用)이라고 하고, 간접적인 힘을 공능이라고 하기도 한다.

업경』에서는 차례대로 다르게 설하였으니, 이 또한 알기 어렵다. 성문계의 종자(種子) 또한 항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해석은 『보살계본중요』²³⁰⁾와 같다.

第二犯失壞者，如經，若有犯者至一一犯。此中若犯不得現身發菩提心者，若犯十重入七遮者，更不能受菩薩戒故。所餘不爾，瑜伽本業，許重受故。問犯重失戒，何故本業經云“菩薩戒有受法，而無捨法。”乃至廣明？答此有多釋。元曉師云“若於三乘教，發心卽有失，若聞一乘教，永無退失故。”然新教宗，難可依定。義寂師云“功能雖失，種體常留。”瑜伽本業，如次說異，此亦難解。聲聞戒種，亦常留故。今解如宗要。

229) 『범망경보살계본소』 상권(大40 p.659b17) “言失戒者，捨要期思所薰種上，運運增上防攝功能。若論種體，一薰永在。若言功能，或違緣失，以體從功故，論言捨戒，以能從體故，經云不失。”

230) 태현의 『보살계본중요』(大45 pp.915a13-918a24)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문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세 종류의 갈래가 갖지 않은 모습[不同分相]이 있다. 첫째 받음의 갈래가 갖지 않은 모습[受不同分相]이다. 이를테면 보살계는 칠차(七遮)를 갖춘 이를 제외하고 모두가 받을 수 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육도중생으로 계를 받은 이는 말을 알아듣기만 해도 계를 얻어 잃어버리지 않는다. 불자여, 삼세 겁 속에 모든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 하신다’고 한 것과 같으니, 이로 인하여 또한 스스로 받는 법이 있게 되었다. 然望聲聞，略有三種不同分相，一受不同分相。謂菩薩戒，除具七遮，一切受得。如本業說，六道衆生，受得戒，但解語，得戒不失。佛子，三世劫中，一切佛常作是說。由此亦有自受之法。” 또 비록 중죄를 범했을지라도 만약 칠차죄가 아니면 현재의 몸[現身]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계율과 다르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십중죄를 범하고 뉘우침이 없어도 거듭 계를 받게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으며, 『유가사지론』에서도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에서는 “칠차(七遮)를 범함을 기준으로 하여 밀의로 전체를 설하여 십중죄를 범한 자는 현신으로는 계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又雖犯重，若非七遮，現身得受，不同餘戒。如本業說，十重有犯無悔，得使重受。瑜伽亦爾。然此經中，約犯七遮，密意總說，犯十重者，現身不得戒。”

■ 또한 ‘국왕의 지위 등을 잃는다.’고 한 것은 인(因)이 없어지므로 과의 이익[果利]도 잃어버리게 됨을 나타낸 것이다. 장차 악취에 떨어져서 세간과 이승의 과(果)조차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물며 대승의 삼현(三賢, 十住 十行 十迴向)과 십성(十聖, 십지)과 삼신(三身, 법신 보신 화신)의 묘과(妙果)이겠는가?

‘불성(佛性)’은 법신을 말하나니 체성(體性)을 쓰기 때문이다. ‘항상 머무는’ 것은 다른 두 가지 몸[二身]에도 통하나니 차례대로 자성이 끊임없이 이어져[無間相續]²³¹⁾ 항상 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에서 능히 구제 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나머지 글은 알 수 있을 것이다.

言亦失國王位等，顯因亡故失果利也。當墮惡趣，失壞世間及二乘果，何況大乘三賢十聖三身妙果？言佛性者，謂法身也，以體性故。言常住者，通餘二身，如次自性無間相續常故。不聞父母三寶名者，謂顯世間及出世間無能救也。餘文可解。

梵網經古迹記 卷第三 終.

231) 상속(相續, saṃtati)은 인과(因果)가 차례로 연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梵網經古迹記 卷第四 범망경고적기 4권



범망경고적기 4권

梵網經古迹記

1. 사십팔경계 서문 輕戒序文

1) 앞의 것을 결론짓고 뒤의 것을 일으킴 結前生後

□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열 가지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다 설하였으니 지금 마흔 여덟 가지 경계[四十八輕戒]¹⁾를 설하리라.

佛告諸菩薩言. 已說十波羅提木叉竟, 四十八輕今當說.

-
- 1) 경계(輕戒)는 경구계(輕垢戒)의 약칭으로 십중대계(十重大戒)나 사바라이(四波羅夷)보다 허물이 가벼우므로 교단에서 쫓겨나지 않고 참회하면 곧 용서를 받아 계상(戒相)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계(戒)이다. 마치 때 묻은 옷을 세탁하여 새 옷이 되게 하는 것과 같다. 곧 십중계(十重戒)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며 삼취정계(三聚淨戒)를 증장시키려는 것이다. 범장(法藏)의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4권(大40 p.634b6)에 사십팔계를 제정한 뜻 여섯 가지를 밝히고 있다. “初制意者, 諸佛何故, 制此輕戒? 謂一爲護世間起譏嫌故, 二光顯菩薩出世道故, 三微細情塵悉制斷故, 四調伏三業制三毒故, 五方便遠護十重戒故, 六增長菩薩三聚戒故.”

■ 이 아래에서 마흔 여덟 가지 경계[四十八輕戒]를 낱낱이 송하겠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①앞의 것을 결론지으면서 뒤의 것을 일으키는 것이요[結前生後], ②차례대로 외워 내는 것이며[次第誦出], ③결론 지어 봉행[結勸奉行]하기를 권하는 것이니 이 부분은 첫 번째이다.

이 모든 경계(輕戒)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범함이 있거나 범함이 없거나 물들거나 물들지 않는 것에 따라, 하품[麁]과 중품과 상품이²⁾ 있음을 분명하게 알지니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보살지(菩薩地)」에서와 같다.

그 가운데 ‘물들거나 범함(染犯)은 나쁜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의지[惡意樂]’라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혹시 번뇌에 상응함이 있어도 물들거나 범하는 것이 아니니[不染犯], 마음과 경계[心境] 등을 따라 세 가지 품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68권에서는 “여섯 가지 차별로 인해 범하는 것은 중죄가 된다. ①가르치고 제지시킴이 중죄가 되고[教制爲重] ②사(事)가 중죄가 되고 ③자주 범함[數犯]이요, ④번뇌가 맹렬한 것이며, ⑤지혜의 힘이 열등한 것이고, ⑥속히 참회하지 않는 것이다.”³⁾라고 한다.

2) 현수법장(賢首法藏)의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에는 다음의 구절이 있다. “이 계(戒)를 범하는 4종의 경중(輕重)이 있는데 먼저 계를 범하는 대상(對象)에 3품이 있으니 스승에 대한 것이 제일 중(重)하고, 웃어른이나 벗에 대한 것이 다음이며, 같은 또래의 동학에 대한 것을 하품(下品)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범할 때의 마음가짐에 3품이 있으니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성내어 저지르는 것이 상품(上品)이고, 미워하는 마음은 없으나 교만한 마음으로 저지르는 것은 중품(中品)이며, 해태한 마음으로 저지르는 것이 하품(下品)에 속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상대에 따른 3품은 위의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앞의 세 가지 경계에 건주어 경중(輕重)을 살피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일에 대해 3품이 있으니 스승을 위해서 몸 등을 팔지 않는 것은 하품(下品)이고 법 다이 공경하지 않는 것은 중품(中品)이며 마중하고 배웅할 때 예배하지 않는 것은 상품(上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든 계가 낱낱이 다 삼취계(三聚戒)의 뜻을 갖추었으나 필요에 따라 열고 함함[開合]에 모든 가르침이 일정하지 않다.

述曰, 此下別誦輕戒. 此中有三, 初結前生後, 次次第誦出, 後結勸奉行, 此初也. 此諸輕戒, 隨其意樂, 有犯無犯, 是染非染, 輕⁴⁾中上品, 應當了知, 如菩薩地. 就中染犯, 謂惡意樂不爾. 設有煩惱相應, 名不染犯, 隨心境等, 三品差別. 如六十八言, “由六差別, 所犯成重. 一教制爲重, 二事重, 三數犯, 四煩惱猛, 五智力劣, 六不速悔.”如此諸戒, 一一皆具三聚戒義, 隨要開合, 諸教不定.

2) 차례대로 외워 내다 次第誦出

(1) 열 가지로 계를 나누다 判十戒

① 자기의 심념을 지키는 문 護自心念門

⊖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라 不敬師長戒第一經

□ 불자들이여! 국왕의 지위를 받으려고 할 때나 전륜성왕의 지위를 받으려 할 때나 온갖 관리의 지위를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보살계를

3) 『유가사지론』 68권 「섭결택분중성문지(攝決擇分中聲聞地)」 2(大30 p.677c18) “由六種差別所犯成重, 一制立差別, 謂於學處而制立故. 二事差別, 謂雖同是波逸底迦, 然殺生等所有性罪於餘遮罪有差別故. 三穿穴差別, 謂如有一數數犯故. 四煩惱差別, 謂如有一用其猛利貪瞋癡纏而毀犯故. 五智差別, 謂如有一善品微少智慧狹劣. 雖等建立等事等穿等煩惱起, 然其所犯成極重障, 非此相違有所犯者, 如小水流少草能偃, 於彼細草, 不能漂沒 如大水流, 聚積草木亦不能偃. 此中道理, 當知亦爾. 六時差別, 謂如有一於其所犯不能速疾如法悔除, 長時習已然後對治, 與此相違, 應知所犯, 名爲輕罪.”

4) 卍60 p.440b7 과 大40 p.708c1과 藥師寺藏本에는 ‘熨’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8b10에는 ‘輭’으로 되어 있다.

받게 해야 하니, 온갖 귀신들이 왕의 몸과 모든 관리의 몸을 보호해주며 부처님들도 기뻐하시기 때문이니라. 계를 받고 나서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야하며, 상좌(上座)⁵⁾와 화상(和尚)⁶⁾과 아사리(阿闍梨)⁷⁾와 동학(同學)과 동견(同見)과, 동행(同行)을 보면 반드시 일어나 맞이하여 예배하고 문안을 드려야 하느니라. 그러나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憍心]과 업신여기는 마음[慢心]⁸⁾과 어리석은 마음[癡心]을 내어 일어나 맞이하여 예배하지 않고 날날이 법답게 공양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자신의 몸을 팔거나⁹⁾ 나라와 성(城)과 아들과 딸과 칠보와 온갖 물건을 공급해야 할 터인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는

5) 대중 가운데 우두머리. 대덕(大德) 또는 상수(上首)이다.

6) 화상(和尚)은 역생(力生)이라는 뜻이다. 제자에게 힘이 나게 하는 어른이라는 뜻으로 경율을 가르치고 계를 주는 분이다. 은사(恩師)나 친교사(親教師) 또는 수계사(授戒師)를 말한다.

7) 아사리(阿闍梨, Śācārya)는 아차리아(阿遮梨耶) 또는 사리(闍梨)라고도 하며 번역하면 궤범(軌範)이다. 즉 제자의 행위와 위의를 바르게 지도하고 수계시 작법(作法)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사분율(四分律)』 상권에서 오종아사리(五種阿闍梨)를 말하고 있는데, ① 십계아사리(十戒阿闍梨)로서, 처음 출가할 때 계를 주는 아사리요, ② 갈마아사리(羯摩阿闍梨)로서 구족계를 수계해 주는 아사리, ③ 교수아사리(教授阿闍梨)로서, 수계할 때에 위의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아사리, ④ 수경아사리(受經阿闍梨)로서, 경전의 뜻과 읽는 법 등을 가르쳐 주는 아사리, ⑤ 의지아사리(依止阿闍梨)로서, 기거를 함께 하며 지도하고 사사해 주는 아사리(阿闍梨)이다.

8) 3권 199) 주(註) 참조

9) 홍찬(弘贊)스님의 『범망경약소(梵網經略疏)』 1권에서 “스스로 몸을 판다.’고 한 것은 어른을 공경하고 법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극하게 가지라는 뜻이니 정성을 다해 극진하게 공양하는 것이다. 옛날에 상제보살(常啼菩薩)이 반야(般若)의 법문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골수(骨髓)를 팔아 담무갈 보살에게 공양한 일과 석가세존께서 여래인지(如來因地)의 보살행(菩薩行)을 닦을 때 대열반경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의 살을 석냥씩 베어 병을 고치려는 환자에게 팔아 한 달 동안 모은 돈으로 부처님께 공양한 일과 같은 일을 말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것이니라.

若佛子! 欲受國王位時, 受轉輪王位時, 百官受位時, 應先受菩薩戒¹⁰⁾, 一切鬼神, 救護王身百官之身, 諸佛歡喜. 旣得戒已, 生孝順心恭敬心, 見上座和上, 阿闍梨大同學, 同見同行者, 應起承迎, 禮拜問訊. 而菩薩反生憍心慢心癡心, 不起承迎禮拜, 一一不如法供養! 以自賣身, 國城男女七寶百物, 而供給之, 若不爾者, 犯輕垢罪.

■아래부터는 따로 송한 것[別誦]이다. 처음 십계(十戒)에는 네 가지 문[四門]이 있다. 처음 두 가지 계¹¹⁾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문[護自心念門]으로 교만하고 게으른 곳에서 경솔하고 교만해짐을 막기 위함이고, 방일한 곳에서 술의 허물을 끊게 하려는 까닭이다. 다음의 세 가지 계¹²⁾는 다른 사람의 심행(心行)을 보호하려는 문[護他心行門]이며, 그 다음 세 가지 계¹³⁾는 불법을 우러러 닦는 문[仰修佛法門]이고, 마지막 두 가지 계¹⁴⁾는 중생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문[救護衆生門]이다. ‘국왕 등의 지위를 받으려고 할 때 먼저 보살계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전해오는 말에 두 가지가 있다.

10) 卍60 p.440b18과 藥師寺藏本에는 ‘戒’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8b20에는 ‘戒’로 되어 있다.

11) 두 가지 계란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계[不敬師長戒第一經], 음주계[飲酒戒第二經]

12) 세 가지 계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食肉戒第三經], 오신채 먹지 말라는 계[食五辛戒第四經], 가르쳐 참회시키지 않는 계[不舉教懺戒第五經]

13) 다음 세 가지 계란 법사에게 법을 청하지 않는 계[住不請法戒第六經], 유학하여 배우지 않는 계[不能遊學戒第七經], 대승을 등지고 소승을 향하는 계[背正向邪戒第八經]이다.

14) 마지막 두 가지 계란 병자를 보고도 돌보아 주지 않는 계[不瞻病苦戒第九經], 살생하는 도구를 비축하는 계[畜殺生具戒第十經]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보살이 비록 일찍이 계를 받았더라도 저 때 다시 받는 것은 마음을 길들여 다스리기 위한 까닭이다. 표(表) 등의 인연이 갖추어지면(緣具) 비록 무표색(無表色)을 이끌지라도, 먼저 받은 계와 같기 때문에 새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대법론(對法論, 俱舍論)』의 설에 “이미 열반을 의지하여 먼저 선근을 일으킨 자는 다시 새로 일으키지 않거늘, 어찌 그가 나중에 난 중자를 훈습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그러하다. 만약 일찍이 계가 없다면 어떻게 불자라고 이름 할 것이며, 어찌 가벼운 죄인들 범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별해탈계(別解脫戒)¹⁵⁾의 궤칙(軌則)은 비구계와 같아 다시 받는 법이 없다. 설령 거듭 받는다고 하여도 옛 계를 증장시킬 따름이니 이로 인하여 보살이 초지(初地)에 들어간 다음 유루계(有漏戒)를 버리고 무루계(無漏戒)¹⁶⁾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성불의 덕을 기르기 위한 까닭이다. 먼저 계가 있으므로 견도(見道)¹⁷⁾에서 계를 받지 않는 것

15) 3권 19) 주(註) 참조.

16) 무루계(無漏戒)는 계를 얻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무루율의(無漏律儀)·도공계(道共戒)·도생율의(道生律儀)라고도 한다. 견도 이상의 지위에 오른 유학과 무학의 성자가 성취하는 계로 유무학의 성자가 무루의 선정을 얻을 때 그 무루심에 악한 신업과 구업을 방호하는 공능이 있어 죄를 방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17) 견도(見道, *ṁdarśana-mārga*)는 견도(見道)·수도(修道)·무학도(無學道)의 세 가지도 가운데 한 개. 여기서 도(道, *ṁmārga*)란 번뇌의 심상속(心相續)의 구생(俱生) 관계를 단절시켜 열반과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뜻한다. 견도는 견소단(見所斷)의 번뇌를 끊는 과정이고, 수도는 수소단(修所斷)의 번뇌를 끊는 과정이며 무학도는 견소단·수소단의 번뇌를 모두 끊었을 때 나타나는 경지이므로 엄밀하게 수행의 과정[道]이 아니라 그 목표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번뇌를 끊는 수행과정은 견도와 수도이다. 처음으로 무루지(無漏智)를 얻어 사제(四諦)를 현관(現觀, *ṁabhisamaya*)하고 그 이치를 비추어 수행하는 지위이다. 견도에 도달하기 이전은 범부이고, 견도에 들어간 뒤는 성자이므로 견도·수도·무학도를 성도(聖道)라고 한다. 수도는 견도 다음에 다시 구체적인 사상(事象)에 대처하여

은, 성문이 먼저 계가 없기 때문에 견도위에 올라 계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는 “거듭 받는 것이지 새로 받는 것이 아니다.”¹⁸⁾라고 하니 ‘그 밖의 법에서 거듭 종자(種子)를 훈습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작법(作法)으로 궤칙(軌則)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 계를 받지 않았지만 불종자(佛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니, 이미 위없는 보리의 원을 내었기 때문이다. 경구죄(輕罪)를 범한 사람은 번뇌로 교만을 내는 것이니 반드시 거듭 받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일찍이 마음을 잘 길들였다면 마땅히 쓸 데가 없다.

‘상좌(上座)’란 대중 가운데 윗사람[上首]이다. ‘화상(和尚)’이란 새로이 가르쳐 주는 스승[教師]으로 수계화상(授戒和尚)이다. ‘아사리(阿闍梨)’란 궤범사(軌犯師)로서 수계(授戒), 갈마(羯磨), 위의(威儀), 교수(教授), 수업(受業) 등을 해주는 스승이다. ‘동학[同學]과 동견[同見]과 동행[同行]’은 차례대로 스승이 같고 종지가 같고[同宗] 승(乘)이 같은 것이다. ‘칠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일지라도 보시해야 하거나 하물며 다른 가벼운 것이겠는가.’라는 뜻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라고 한 것은 공경하고 공양하기를 여법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가사지론』에서는 “교만한 마음과 혐오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은 물들어 범하는 것이나[染犯], 게으르거나¹⁹⁾ 잊어버린 것²⁰⁾은 범하기는 하였

되풀이하여 수습(修習)하는 단계이므로 견도와 수도를 합하여 유학도(有學道, ㉠śaikṣa)라고 한다. 이에 대해 무학도는 무학위(無學位)·무학과(無學果)·무학지(無學地) 등 이라고도 하며, 이미 궁극적 최고의 깨달음에 들어가 배울 것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지위이다.

18) 『유가사지론』 40권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계품」 10-1 (大30 p.515c27) “值遇善友, 爲欲覺悟菩薩戒念, 雖數重受, 而非新受亦不新得.”

19) 교만하고 혐오하여 성내는 마음은 염범(染犯)이고, 게으름과 잊어버림은 비염

으나, 물든 것은 아니다[非染]. 어기고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無違犯]은 병들었거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거나[狂] 잠들었거나 스스로 설법하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하고 있었거나, 스스로 법을 듣고 있었거나 혹은 설법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많은 유정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졌거나 혹은 길들여 다스리거나 승가의 제도를 보호하려는 것이니 이들은 모두 어기고 범함이 없다.”²¹⁾ 고 하였다.

述曰, 自下別誦. 初十有四門. 初二護自心念門, 於憍逸處, 制輕慢故, 於放逸處, 斷酒過故. 次三護他心行門, 次三仰修佛法門, 後二救護衆生門. 受王等位, 先受戒者, 傳說有二. 有說, “菩薩雖曾有戒, 爾時更受, 爲調心故. 表等緣具, 雖引無表, 前戒類故, 說非新得.” 如對法說, “已依涅槃, 先起善根者, 不

(非染)이다. 게으름을 뜻하는 해태(懈怠, 𑖦kausīdya)에 대해 『구사론(俱舍論)』은 모두 오염(汚染)된 마음에 널리 통하여 일어나는 심소(心所)의 하나라고 말하며, 유식설(唯識說)에서는 수번뇌(隨煩惱)의 하나로 간주한다. 선(善)을 닦는 데 소극적인 마음의 상태이다. 또 악(惡)을 행하는 데 적극적인 면도 포함된다. 정진(精進)의 상대어로서, 악을 끊고 선을 닦는 일에 내키지 않아 하는 것이다.

20) 망념(妄念)은 허망한 상념이나 무명이나 미망에 의한 집착된 생각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미혹된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법의 진실한 의미를 모르고 전도된 경계를 두루 마음대로 구획지어 만들어내는 잘못된 사고를 말한다.

21)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6a26) “無違犯者, 謂爲斷彼生起樂欲, 發動精進攝彼對治. 雖勤遮遏而爲猛利性感所蔽, 數起現行. 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 見諸耆長有德可敬同法者來, 憍慢所制懷嫌恨心懷恚惱心, 不起承迎不推勝座. 若有他來語言談論慶慰請問. 憍慢所制懷嫌恨心懷恚惱心, 不稱正理發言酬對, 是名有犯有所違越. 是染違犯, 非憍慢制無嫌恨心無恚惱心. 但由嬾惰懈怠忘念無記之心, 是名有犯有所違越. 非染違犯無違犯者, 謂遭重病, 或心狂亂, 或自睡眠. 他生覺想而來親附, 語言談論慶慰請問. 或自爲他宣說諸法論義決擇, 或復與餘談論慶慰. 或他說法論義決擇屬耳而聽. 或有違犯說正法者, 自爲將護說法者心, 或欲方便調彼伏彼出不善處安立善處. 或護僧制, 或爲將護多有情心而不酬對皆無違犯.”

復新起，豈彼後時，不熏生種。”此亦應爾。若曾無戒，何名佛子，犯何輕罪？有說，“別解脫戒軌則之法，如比丘戒，無再受法。設雖重受，唯增舊戒，由此菩薩，入初地已，捨有漏戒，受無漏²²⁾戒，爲欲長養成佛德故。先有戒故 見道不得，不同聲聞先無戒故，見道得戒。”故瑜伽云，“重受不新得。”不同餘法熏種子。彼非作法制軌則故。雖未受戒，佛子無失，已發無上菩提願故。犯輕罪者，結生憍慢，不必重受，方無犯耶？若曾調心，應無用故。言上座者，衆中上首。和上者，卽新²³⁾教師，受²⁴⁾戒和上也。阿闍梨者，卽軌範師，授戒羯磨，威儀教授，²⁵⁾受業等師也。同學同見同行，如次同師同宗同乘者也。言七寶者，所重猶可施，何況所餘輕，此中意也。言若不爾者，恭敬供養，不如法也。瑜伽論云，“慢心嫌心，恚心染犯，懈怠忘念，是犯非染。無違犯者，或病或狂，或睡或自說法，或與他語，或自聽法，或欲將護說法者心，或爲將護多有情心，或爲調伏，或護僧制，皆無違犯。”

㊦ 술을 마시지 말라 飲酒戒第二經

□ 불자들이여! 고의로 술을 마시게 되면 술로 생기는 과실²⁶⁾이 헤아릴

-
- 22) 卍60 p.441a17과 大40 p.708c20과 藥師寺藏本에는 ‘滿’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8c17에는 ‘漏’로 되어 있다.
- 23) 大40 p.708c26과 藥師寺藏本에는 ‘親’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9a3에는 ‘新’으로 되어 있다.
- 24) 大40 p.708c27과 藥師寺藏本에는 ‘授’로 되어 있으나 韓3 p.459a3에는 ‘受’로 되어 있다.
- 25) 卍60 p.441b8 藥師寺藏本에는 ‘受’로 되어 있으나 韓3 p.458c17에는 ‘授’로 되어 있다.

수 없이 많나니, 만약 자기 손으로 술잔을 건네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 술을 마시게 하는 자는 오백세(五百世) 동안 손이 없는 과보를 받으리니²⁷⁾ 어찌 하물며 스스로 마시겠는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지 않게 하거나, 모든 중생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하거늘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겠는가. 만약 고의로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는 자는 경구죄²⁸⁾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故飲酒而, 生酒過失無量, 若自身手, 過酒器與, 人飲

26)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과실에 대하여 『사분율』 10권의 십과(十過)와 『대지도론(大智度論)』 권13에서는 삼십오실(三十五失)을 들고 있다. 『불설분별선악소기경(佛說分別善惡所起經)』은 음주삼십육실(飲酒三十六失)을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재물이 모이지 않고 돈을 쓰게 되며 ② 질병을 앓게 되고 ③ 술 때문에 싸우게 되고 ④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늘어나고 ⑤ 성내는 마음이 늘어나고 ⑥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⑦ 지혜가 줄어들고 ⑧ 복덕이 늘지 않고 ⑨ 복덕이 줄어들며 ⑩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⑪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⑫ 걱정고통이 많아지고 ⑬ 눈, 귀 등 감각기관이 어두워지고 ⑭ 부모를 욕되게 하고 ⑮ 스님들을 존경치 않으며 ⑯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게 되고 ⑰ 부처님을 공경치 않게 되고 ⑱ 부처님 진리를 공경치 않으며 ⑲ 나쁜 벗들과 어울리고 ⑳ 좋은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㉑ 음식을 버리는 일이 잦고 ㉒ 모습이 단정치 못하고 ㉓ 음욕이 불타듯 하고 ㉔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고 ㉕ 쓸데없는 말과 웃음이 늘고 ㉖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며 ㉗ 친척들이 꺼리고 멀리하며 ㉘ 옳지 못한 일을 따르고 ㉙ 바른 진리를 멀리하고 ㉚ 어질고 착한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㉛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㉜ 열반에서 멀어지며 ㉝ 미치광이 짓이 자꾸 늘게 되고 ㉞ 몸과 마음이 산란하고 ㉟ 나쁜 짓을 하고 게으르게 되어 ㊱ 죽고 나서는 큰 지옥에 떨어진다.

27)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져 축생보(畜生報) 받는 것을 말하니 축생(畜生)이 되면 손[手]이 없기 때문이다.

28) 경구죄(輕垢罪, ^㉔duṣk-ārta, ^㉕dukkata)는 바라이죄(波羅夷罪)의 상대어. 돌길라(突吉羅)라고도 한다. 청정행(淸淨行)을 더럽히는 허물이 비교적 가벼운 죄. 『범망경(梵網經)』 보살계의 58항목 중 무거운 죄에 속하는 10조항을 바라이죄라 하고, 가벼운 죄에 속하는 48항목을 경구죄라고 한다.

酒者, 五百世無手, 何況自飲? 不得教一切人飲, 及一切衆生
飲酒, 況自飲酒. 若故自飲, 教人飲者, 犯輕垢罪.”

■ ‘술’이란 흥미하고 어지럽게 하여 죄를 일으키는 근본이다. 옛날에는
용을 항복시키던[伏龍, 降龍鉢, 용은 才士나 호걸] 기세가 지금은 두꺼비
[蝦蟆, 지혜가 없는 자]조차 막지 못하며, 그 외에 네 가지 역죄[四逆罪]²⁹⁾
가 이것으로부터 일어난다. 다만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破僧]³⁰⁾만은
제외되므로 지금 제정한 것이다.

‘과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은 (술에) 취하게 되면 과실을 내어
마침내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구사론(俱舍論)』에서는 “병을 치료할 때에도 양(量)을 제한한다. 성죄
(性罪)의 상(相)이 없으므로 차죄(遮罪)인줄 알지만, 율을 지키는 자들은
성죄(性罪)라고 한다. 우바리가 말하기를 ‘제가 무엇으로 병자(病子)들에
게 공양하오리까?’ 하였더니, 부처님께서 ‘성죄(性罪)가 되는 것을 제외
하고 무엇이든 공급하여도 좋다.’고 하셨다. 그러나 염병(染病)이 있는 석
종(釋種)이 술을 필요로 하였으나, 부처님께서서는 그가 술 마시는 것을 허
락하지 않으셨다. 또 경에서 ‘태어날 때마다 성자인 사람[生聖者]들도 또
한 범하지 않는다.’고 하며, 모든 대법논사[對法師]들은 성죄(性罪)가 아니
라고 하였다. 병자를 위하여 차계(遮戒)를 모두 열었으나 후에 다른 때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한 것은, 이로써 성죄(性罪) 범함을 막기 위한 까닭이다.

29) 오역죄(五逆罪)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며,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며 마지막이 화합대중(和合大衆)을 파(破)하는 것이다. 여
기서는 다섯 번째의 파화합승(破和合僧)을 뺀 나머지 네 가지 역죄를 말한 것이
니,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제외한 것이다.

30) 3권 153) 주(註) 참조.

또 ‘일체 성인(聖人)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 것은 여러 성인들은 부끄러움[慚愧]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마시면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는 까닭이다. 그 밖에 조금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독약과 같아 양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³¹⁾ 라고 하였다.

述曰, 酒者, 迷亂起罪之本. 昔是伏龍之勢, 而今不禁蝦蟆, 乃至四逆, 從此而生. 唯除破僧, 故今制也. 言過失無量者, 醉生過失, 方犯罪故. 如俱舍云, “治病限量. 無性罪相, 故知遮罪, 持律者, 云性罪也. 鄒波離云, ‘吾如何供養病者?’ 世尊言, ‘除性罪皆可供給.’ 然有染病, 釋種須酒, 世尊無許彼飲酒故. 又經, 生聖者 亦無犯故’ 諸對法師言, 非性罪. 然爲病者, 總開遮戒, 後於異時, 遮飲酒者, 爲防用此犯性罪故. 又一切聖, 不飲酒者, 以諸聖者, 具慚愧故, 飲令失正念故. 乃至小分, 亦不飲者, 以如毒藥, 量不定故.”

■ ‘오백세(五百世) 동안 손이 없으리니’라고 말한 것은 악한 마음의 허물이 극도로 늘어난 까닭이니, 착하지 않은 마음 등이다. 선심(善心)으로

31)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大29 p.77b7) “論曰, 諸飲酒者心多縱逸, 不能守護諸餘律儀. 故爲護餘令離飲酒, 寧知飲酒遮罪攝耶. 由此中無性罪相故. 以諸性罪唯染心行, 爲療病時雖飲諸酒不爲醉亂能無染心. 豈不先知酒能醉亂而故欲飲卽是染心. 此非染心由自知量, 爲療病故分限而飲不令醉亂故非染心. 諸持律者言, 飲酒是性罪. 如彼尊者鄒波離言, 我當如何供給病者? 世尊告曰, 唯除性罪餘隨所應皆可供給. 然有染疾釋種須酒, 世尊不開彼飲酒故. 又契經說, 諸有苾芻稱我爲師不應飲酒, 乃至極少如一茅端所需酒量亦不應飲. 故知飲酒是性罪攝. 又諸聖者雖易多生亦不犯故. 如殺生等. 又經說是身惡行故. 對法諸師言非性罪, 然爲病者總開遮戒. 復於異時遮飲酒者, 爲防因此犯性罪故, 又令醉亂量無定限. 故遮乃至飲茅端所需量, 又一切聖皆不飲者, 以諸聖者具慚羞故. 飲酒能令失正念故, 乃至少分亦不飲者, 以如毒藥量無定故.”

배운 것이라면 『유가사지론』에서 보시바라밀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락한 것과 같다.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은 “재가보살이 술을 보시하여도 죄가 없으니, 그는 반드시 ‘보시바라밀법으로 사람들의 원을 다 만족하게 하고, 후일 반드시 방편으로 교화하여 술에서 벗어나게 하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³²⁾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지 않게 하거나’, 내지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겠는가.’라고 한 것은 먼저 ‘술잔을 건네어’부터 ‘하물며 스스로 마시겠는가.’에서 마친 뒤, 여기에서 곧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마시지 않게 하고’에서 ‘하물며 스스로 마시겠는가.’까지를 든 것이다. ‘만약 고의로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것’은 범하는 것을 모두 결론지은 것[違犯結成]이다.

그러나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만약 약(藥)에 섞여 의사의 말에 따라 많은 약과 같이 섞어서 술이 적고 약이 많으면 복용할 수 있다. 기름을 복용하거나 몸에 바르는 것 등을 하면 안되지만, 만약 인연(因緣, 病)이 있으면 쓸 수 있다. 유(乳)와 락(酪)과 생소(生蘇)와 제호(醍醐)도 쓸 수 있으니, 내가 전에 유미 죽을 먹고 풍병과 담병과 냉병을 고쳤기 때문이다.”³³⁾라고 하였다.

『미증유경(未曾有經)』에서는 오계(五戒)를 제정하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였다면 마셨을지라도 계를 범한 것이 아니다.”³⁴⁾라고 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저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32)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7권 「오계품(五戒品)」 15(大26 p.56c15) “今是行檀波羅蜜時，隨所須與，後當方便教使離酒，念智慧令不放逸，何以故，檀波羅蜜法，悉滿人願，在家菩薩以酒施者是則無罪。”

33)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상권 「서품(序品)」(大14 p.493a19) “若合藥治病則得用，不得飲酒，若合藥醫師所說多藥相和，少酒多藥得用，不得服油及塗身等，若有因緣得用，得用乳酪生酥熟酥醍，我先噉乳糜，爲風痰冷故。”

하물며 보살계이겠는가. 이로움이 있다면 범한 것이 아니니 유마힐(維摩詰)이 여러 술집에 들어가서도 능히 그 뜻을 세운 것과 같다.³⁵⁾

言五百世無手者，以極增上惡心過故，非善心等。若善心施，瑜伽論，許施度攝故。如十住云，“在家菩薩，施酒無罪，應生是念，‘施度之法，悉滿人願，後當方便，教化離酒故。’”言不得教，至況自飲酒者，先以過器，況自飲已，此即第二，以教他飲，況自飲也。若故自飲，教人飲者，總結違犯。然文殊問經云，“不得飲酒，若合藥，醫師所說，多藥相和，少酒多藥得用。不得服油，及塗身等，若有因緣得用。得用乳酪生蘇醍醐，我先噉乳糜，爲風痰冷故。”未曾有經，制五戒云，“若有飲酒，悅心生善，飲不犯戒。”廣如彼說。況菩薩戒。有利無犯，如維摩詰，入諸酒肆，能立其志。

② 다른 사람의 심행을 보호하는 문 護他心行門

㊦ 고기 먹지 말라 食肉戒第三經

□ 불자들이여! 고의로 고기를 먹겠는가? 일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니 대자비의 불성종자(佛性種子)가 끊어져 모든 중생들이 보고 도망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모든 보살들은 일체 중생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게 되나니, 만약 일부로 먹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4) 『불설미증유인연경(佛說未曾有因緣經)』 하권(大17 p.585a18)에서 부처님과 기타의 음주에 관한 기사 중 종신토록 술을 마셔도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35) 『유마힐소설경』 상권 「유마힐소설경방편품(維摩詰所說經方便品)」 2(大14 p.539 a26) “遊諸四衢饒益衆生，入治政法救護一切。入講論處導以大乘，入諸學堂誘開童蒙，入諸婬舍示欲之過，入諸酒肆能立其志。”

若佛子! 故食肉. 一切肉不得食, 斷大慈悲性種子, 一切衆生, 見而捨去. 是故一切菩薩, 不得食一切衆生肉. 食肉得無量罪, 若故食者, 犯輕垢罪.

■ 보살의 도리는 자기 육신을 버려서 중생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 거늘 도리어 남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이는데 이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 제정한 것이다.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 보살을 제지(制止)하여 말하기를 “만약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고기가 나무 막대기 같거나 이미 저절로 썩었다면 먹어도 되나니,³⁶⁾ 고기를 먹고자 한다면 다음의 주문을 세 번 외우라. ‘다냐타³⁷⁾ 아나마 아나마³⁸⁾ 아시바다 아시바다³⁹⁾ 나사나사⁴⁰⁾ 타아타아⁴¹⁾ 바불바불⁴²⁾ 싱가울다미⁴³⁾ 사하.’⁴⁴⁾

문수사리가 여쭙었다. ‘만일 고기를 먹어도 된다면 『사구경(寫龜經)』과 『대운경(大雲經)』과 『지만경(指鬘經)』과 『능가경(楞伽經)』 등 여러 경

36) 소승율(小乘律)에서는 삼정육(三淨肉)의 경우 육식을 허락하였다. 즉 죽이는 것을 보지 않은 것[不見殺], 죽이는 소리를 듣지 않은 것[不聞殺], 나를 위해 죽였는가 하는 의심이 없는 것이다[不疑爲我殺]. 삼정육(三淨肉)에 모든 짐승이 명(命)이 다해 스스로 죽은 것과, 새가 먹다 남긴 것을 덧붙인 오정육(五淨肉)도 있고, 구정육(九淨肉)도 있다.

37) 韓3 p.459c12 原註 “此云 如是.”

38) 韓3 p.459c13 原註 “此云 無我無我.”

39) 韓3 p.459c14 原註 “此云 無壽命無壽命.”

40) 韓3 p.459c14 原註 “此云 失失.”

41) 韓3 p.459c15 原註 “此云 燒燒.”

42) 韓3 p.459c15 原註 “此云 破破.”

43) 韓3 p.459c16 原註 “此云 有爲.”

44) 韓3 p.459c16 原註 “此云 除殺生.”

전에서 무엇 때문에 다 끊으라고 하였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일러주셨다. ‘중생은 자비의 힘이 없으므로 죽이려는 뜻을 품는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문수사리여! 어떤 중생이 분소의(糞掃衣)를 좋아하면 내가 분소의(糞掃衣)를 설하며, 결식(乞食)도 또한 그러하니, 그들을 교화하기 위함ियो. 내가 두타(頭陀)⁴⁵⁾를 설하는 것도 이와 같나니라. 문수여! 중생에게는 살해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식을 끊으라고 설하는 것이다. 만약 해칠 마음을 품지 않으면 대자비심으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죄과(罪過)가 없다.’⁴⁶⁾고 하였다. ‘대자비의 불성종자[大慈悲性種子]가 끊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먹음으로써 살생에 이르기 때문이다. ‘보고 도망친다.’는 것은 매에게 쫓기는 비둘기는 새끼 매의 그림자에도 그 두려움이 풀리지 않거늘 하물며 먹는 위치에 있는 것이겠는가?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얻는다.’고 한 것은 『일체지광명선인불식육인연경(一切智光明仙人不食肉因緣經)』에서 고기 먹는 과실을 자세하게 나타낸 것과 같다. “그 선인(仙人)이 바로 지금의 미륵(彌勒)이니, 미래

45) 두타(頭陀, 𑖔𑖞dhūta)는 두수(抖擻)·두수(抖擻)·두책(抖擻)·수치(修治)·기제(棄除)·사태(沙汰)·완세(浣洗)·분탄(紛彈)·요진(搖振)·제견(除見)·기(棄)·동(動) 등으로 의역한다. 또는 두타행(頭陀行)·두타사(頭陀事)·두타공덕(頭陀功德, 𑖔𑖞dhūta-guṇa)이라고도 한다. 흔들어 떨어 버린다는 뜻을 가진 동사 어근 √dhū에서 파생한 것으로, 심신에 묻은 때를 떨어 없앤다는 뜻이다. 곧 마음을 닦아 의·식·주에 대한 탐욕을 떨쳐버리는 수행을 가리킨다.

46)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大14 p.492c27) “若爲己殺不得噉, 若肉如材木已自腐爛欲食得食. 文殊師利若欲噉肉者, 當說此咒.”라 하고 진언을 설하였다. 그 때(大14 p.493a5) “文殊師利復白佛言, 世尊, 若得食肉者, 象龜經大雲經指鬘經楞伽經等諸經, 何故悉斷, … 佛告, 文殊師利, 以衆生無慈悲力懷殺害意, 爲此因緣故斷食肉. 文殊師利, 有衆生樂糞掃衣, 我說糞掃衣, 如是乞食, … 爲教化彼我說頭陀, 如是文殊師利, … 若衆生有殺害心, 是故我斷肉. 若能不懷害心, 大慈悲心, 教化一切衆生故, 無有過罪.”

에 성불할 때에 고기 먹는 것을 중죄로 제정하리라.”⁴⁷⁾고 하였으니 저 경에 자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述曰, 菩薩理, 應捨自身肉, 而救物命, 而反食他, 必至於殺, 故今制也. 文殊問經, 制菩薩言, “若爲己殺不得噉. 若肉如林木, 已自腐爛, 欲食得食, 若欲噉肉, 三說此呪. ‘多唵他 阿捺摩 阿捺摩 阿視婆多 阿視婆多 那舍那舍 陀呵陀呵 婆弗婆弗 柯慄多拞 莎呵.’ 文殊白言. ‘若得食肉者, 寫龜經, 大雲經, 指鬘經, 楞伽經等諸經, 何故悉斷?’ 佛告文殊, ‘以衆生無慈悲力, 懷殺害意. 爲此因緣, 故斷食肉. 文殊師利, 有衆生樂糞掃衣, 我說糞掃衣, 如是乞食亦爾, 爲教化彼. 我說頭陀如是. 文殊若衆生, 有殺害心故, 我說斷肉. 若能不懷害心, 大慈悲心, 爲教化一切衆生故, 無有罪過.’” 言斷大慈悲性種子者, 由食至殺故. 言見而捨去者, 鷹逐之鵠, 於鷺子影, 未解其惶, 況乎在食之位? 言食肉得無量罪者, 如一切智光明仙人不食肉因緣經中, 廣顯食之失. “彼仙人卽是彌勒, 當成佛時, 制食肉犯重.” 具如彼說.

㊤ 오신채를 먹지 말라 食五辛戒第四經

□ 불자들이여! 다섯 가지 매운 풀[五辛]을 먹지 말지니라. 마늘[大蒜]과 파[革蔥]와 부추[菹蔥]와 달래[蘭蔥]와 흥거(興渠)이니 이 다섯 가지를 어떤 음식에도 넣어서 먹지 마라. 만약 일부러 먹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47) 『일체지광명선인자심인연불식육경(一切智光明仙人慈心因緣不食肉經)』(大3 p.457c15)에 식육과 보살행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若佛子! 不得食五辛, 大蒜革蔥, 韭蔥蘭蔥, 興渠是五種, 一切
食中不得食. 若故食者, 犯輕垢罪.

■ 다섯 가지 매운 것[五辛]은 풀이지만 냄새가 독해서 가까이 하기 어려우므로⁴⁸⁾ 어진 이들은 피하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그것을 제정한 것이다.

법장스님은 “지금 이 다섯 가지 중에 마늘 [大蒜]은 집마늘 [家蒜]”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부추[韭蔥]는 오랑캐 파[胡蔥]이며 달래[蘭蔥]는 집파[家蔥]인데 위 세 가지는 사람들이 늘 먹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파[革蔥]는 『이아(爾雅)』에서 ‘산파[山蔥]’라고 하는데, 줄기는 가늘고 잎이 크므로 마땅히 ‘각[𪎭]’자를 써야 하며 ‘혁(革)’자는 잘못된 것이다. 북쪽 지방에만 있고 강남에는 없다. 흥거(興渠)는 어떤 사람은 ‘운대(芸臺)’라고 하나 아직 문헌을 보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는 잎이 산마늘[野蒜]과 비슷하고 뿌리와 줄기는 구(韭)와 비슷한데, 북쪽 지방에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해석하기를 “아위약(阿魏藥)은 범어인데 흥거(興渠)라고 부른다.”고 하니, 전해오는 말들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매운 것은 자신에게 중병이 있거나 또 이로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먹으면 안 된다.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는 “마늘[蒜]을 먹지 말라. 인연이 있으면 먹을 수 있으니, 약에 섞어 병을 다스릴 적에는 먹을 수 있다.”⁴⁹⁾고 한다.

48) 냄새가 독해서 선신(善神)은 가까이 할 수 없어 싫어하여 떠나고 악신(惡神)은 좋아하여 따라오므로 금한 것이다. 날것으로 먹으면 성냄을, 익혀서 먹으면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므로 신선도를 닦는 이들도 훈신채(薰辛菜)라고 하여 이 다섯 가지 냄새나는 것을 먹지 않았다. 흥거는 중국과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는다.

49)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上권 「서품(序品)」(大14 p.493a17) “不得噉蒜, 若有因緣得噉, 若合藥治病則得用.”

또 『화엄경』에서 “나의 몸에 팔만 개의 털구멍에 벌레[戶蟲]가 있으니, 내 몸이 편안하면 그들도 편안하고 내 몸이 굶주리고 괴로우면 그들도 굶주리고 괴롭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보살이 먹는 것은 다 모든 벌레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 맛을 탐하려는 것이 아니다.”⁵⁰⁾라고 한다.

述曰, 五辛雖草, 臭⁵¹⁾穢難親, 賢良所避, 所以制之. 法藏師云, “今此五中, 大蒜家蒜也.” 有人說, “韭蔥是胡蔥, 蘭蔥是家蔥, 上三是人間常食.” 革蔥爾雅云山蔥也, 莖細葉大, 應爲茗字, 革者非也. 北地有江南無. 其興渠, 有說芸臺, 然未見文. 有說, “江南葉似野蒜, 根莖似韭, 北地所無.” 又釋, “阿魏藥, 梵語名興渠.” 傳說如是. 如是五辛, 除自重病及有利益, 餘不得食. 如文殊問經云, “不得噉蒜. 若有因緣得噉, 若合藥治病得用.” 又華嚴云, “我身中, 有八萬戶蟲,⁵²⁾ 我身安樂, 彼亦安樂, 我身飢苦, 彼亦飢苦, 是故菩薩, 有所服食, 皆爲諸蟲,⁵³⁾ 欲令安樂, 不貪其味.”

㉞ 드러내어 참회하도록 가르치라 不舉教懺戒第五經

□ 불자들이여! 모든 중생들이 팔계(八戒)와 오계(五戒)와 십계(十戒)⁵⁴⁾

50) 『대방광불화엄경』 12권 「보살십무진장품(菩薩十無盡藏品)」 18(大9 p.476b13) “爲我身中, 萬戶蟲故. 我身安樂, 彼亦安樂, 我身飢苦, 彼亦飢苦. 是故菩薩, 有所服食, 皆爲諸蟲. 欲令安樂, 不貪其味.”

51) 卍60 p.443b9과 大40 p.709b27과 藥師寺藏本에는 ‘臭’로 되어 있으나 韓3 p.460 a15에는 ‘臭’로 되어 있다.

52) 韓3 p.460b3 原註 “『정법염처경』에서 한 털 구멍에 구억이라고 하였다. 正法念經云 一戶九億.”

53) 卍60 p.444a3과 大40 p.709c9과 藥師寺藏本에는 ‘蟲’로 되어 있으나 韓3 p.460b6 에는 ‘蟲’으로 되어 있다.

를 범하거나 금계(毀禁)를 헐거나, 칠역(七逆, 일곱 가지 역죄)과 팔난(八難, 불법을 만나지 못하는 여덟 가지 장애)의 모든 계죄(戒罪)를 범한 자를 보면 반드시 참회시켜야 한다. 보살이 참회 시키지 않고 함께 지내며 대중과 이양(利養)을 같이 나누거나 함께 포살하거나, 한 대중으로 머물면서 계를 설하거나, 그 죄를 드러내어 허물을 뉘우치게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見一切衆生, 犯八戒五戒十戒, 毀禁七逆八難, 一切犯戒罪, 應教懺悔. 而菩薩不教懺悔, 共住同僧利養, 而共布薩, 一衆住說戒, 而不舉其罪, 教分悔過者, 犯輕垢罪.

■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청정한 계율을 지닌 유정을 가엾게 여기는 것은 계를 범한 이를 고통의 원인[苦因]으로부터 옮기는 것만 못하다. 만약 싫어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 방편을 버리거나 이롭게 하지 않으면 이는 물들거나 범하는 것(染違犯)이다.”⁵⁵⁾라고 한 것과 같다. 『유마경』에서 “중생의 번뇌병이 곧 보살의 병이 된다.”⁵⁶⁾고 하였으니 이는 곧 보살이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구해내지 않으면 이로움과 즐거움으로 심하게 어긋나

54) 오계(五戒) 팔계(八戒) 십계(十戒)는 경전마다 다소 정의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계는 살·도·음·망·주를 말하며, 8계는 이 5계 위에 ‘노래하고 춤추며 가서 구경하지 말라’,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라’,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 계를 더한 것이다. 특히 대승에서의 10계는 『범망경』의 10 중대계를 가리키고 있다.

55)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6c25) “若諸菩薩, 安住菩薩淨戒律儀, 於諸暴惡犯戒有情, 懷嫌恨心懷患惱心, 由彼暴惡犯戒爲緣, 方便棄捨不作饒益, 是名有犯有所違越, 是染違犯.”

56)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中권 『문수사리문질품(文殊師利問疾品)』 5(大14 p.544b27) “衆生病, 則菩薩病. 衆生病愈, 菩薩亦愈.”

기 때문에 지금 제정한 것이다. 이 팔계(八戒) 등은 모두 성문계와 보살계에 통한다. 『유가사지론』에서 “섭율의계(攝律儀戒)는 칠중(七衆)의 계”⁵⁷⁾라고 하고, 『열반경(涅槃經)』에서는 “위없는 진리를 위하여 팔재계(八齋戒)를 받는다.”⁵⁸⁾고 한다. ‘금계를 범한다.’는 말은 비구의 대계(大戒)와 보살의 섭율의계(攝律儀戒)를 훼손하는 것이다. ‘칠역(七逆)’은 아래와 같다.

‘팔난(八難)’이란 어떤 사람은 ‘팔무가(八無暇)’라고도 한다. 삼악취(三惡趣, 지옥·아귀·축생)와 북주(北洲, 북구로주)와 장수천(長壽天)과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 세간의 지혜가 총명하여 말 잘하는 것과, 부처님께서 오시기 전에 태어나거나, 부처님께서 돌아가

57) 섭율의계(攝律儀戒)는 삼취정계 또는 삼중정계(三種淨戒) 중에 하나이다. 삼취정계는 초기불교로부터 부파불교에 걸쳐 전통적인 교단에서 재가신자는 3귀·5계를, 사미·사미니는 10계를, 정학녀는 6계, 비구·비구니는 구족계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성문계가 율의계(律儀戒) 뿐인 것에 비하여, 보살계는 그 외에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요익중생계(饒益衆生戒)가 첨가된다. 이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선(善)을 행하는 계이다. 『화엄경』 27권 제2 이구지(離垢地)(大10 p.149b22-c8.)에 삼취정계라는 말이 있다. “항상 스스로 삼중정계에 안주하며 또한 중생에게 이와 같이 안주하게 한다. …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삼취정계에 머물러 영원히 살업(殺業)을 끊은 선근회향이라 한다. 常自安住三種淨戒, 亦令衆生如是安住. … 是爲菩薩摩訶薩, 住三聚淨戒, 永斷殺善根迴向.” 그리고 『유가사지론』 40권(大30 p.511a14-20)에 “즉 재가·출가의 둘로 나눈 정계(淨戒)에 의해서 요약하여 세 가지로 설한다. ① 율의계, ② 섭선법계, ③ 요익유정계이다. 율의계란 이른바 모든 보살이 받은 7중(衆)의 별해탈율의이다. 즉 이것이 비구계·비구니계·정학계·근책계·근책녀계·근사남계·근사녀계이다. 이와 같이 7중은 재가·출가의 이분에 의지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것을 보살의 율의계라고 한다. 卽依此在家出家二分淨戒, 略說三種. 一律儀戒, 二攝善法戒, 三饒益有情戒. 律儀戒者, 謂諸菩薩所受七衆別解脫律儀. 卽是苾芻戒, 苾芻尼戒, 正學戒, 勤策男戒, 勤策女戒, 近事男戒, 近事女戒. 如是七衆, 依止在家出家二分, 如應當知, 是名菩薩律儀.”

58)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21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10-1(大12 p.491a28) “若爲無上道, 一日一夜中, 受持八齋戒, 則生不動國.”

신 뒤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수도(修道)할 수 없으므로 ‘겨름이 없다 [無暇]’고 하며, 또한 ‘어렵다[爲難]’고도 한다. 이는 그들이 과보로 받은 장애이므로 참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인(因) 속에 과보의 이름[果名]을 말한 것이다.

이 속에서 열 가지 악업을 지으면 세 가지 악한 갈래[三惡趣]에 태어나는 난(難)을 초래하게 되고, 세간의 선행을 지으면 북구로주[北洲]에 태어나게 되고, 샛된 정[邪定]을 닦으면 장수천(長壽天)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게 되고, 법을 비방하면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자로 태어나게 된다. 사건의 지혜[邪智]로 총명 변재[聰辯]를 얻게 되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나시기 전이나 부처님 입멸 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십삼난(十三難)⁵⁹⁾ 중에 오역죄(五逆罪)는 제외된다.”고 하였으니 그 다섯 가지는 칠역죄(七逆罪)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비록 많을 수를 들어 비구니를 범한 것 등을 취하였으나 전해오는 말이 이와 같을 따름이다.

‘경구죄를 범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섯 가지 덕(아래의 『유가사지론』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이 없는 것은 제외하며, 혹 과실을 지었으나 저기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은 어겨도 범함[違犯]이 없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에서는 “범함이 없다[無違犯]는 것은 그를 치료해줄 수 없고, 말해 줄 수 없는 줄 분명하게 알거나, 혹은 때를 관하며 기다리거나, 혹은 이것으로 인하여 싸우고 소송하여 대중이 어지러워질 것을 관하거

59) 십삼난(十三難)은 ① 이전에 4바라이를 범한 자. ② 일찍이 청정한 비구니를 범한 자. ③ 이전에 남이 계를 설하는 갈마를 훔쳐 듣고 비구라고 하는 자. ④ 외도에서 불법에 들어와 다시 외도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온 자. ⑤ 5종 불남(不男). ⑥ 아버지를 죽인 자. ⑦ 어머니를 죽인 자. ⑧ 아라한을 죽인 자. ⑨ 교단을 분열시킨 자. ⑩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자. ⑪ 사람의 모양으로 변한 8부(部)의 귀신. ⑫ 변하여 인간이 된 축생. ⑬ 남·여의 성기를 둘 다 가진 자.

나, 그가 매우 열심히 참회하여 청정한 상태로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꾸짖거나 벌로 다스리거나 쫓아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다 범함이 없는 것 [無違犯]이다.”⁶⁰⁾라고 한다.

述曰, 如瑜伽說, “菩薩憐愍淨戒有情, 不如犯戒於苦因轉. 若由嫌恨, 方便棄捨, 不作饒益, 是染違犯.” 維摩經云, “衆生煩惱病, 卽爲菩薩病.” 是卽菩薩, 不救苦因, 違利樂深, 故今制也. 此八戒等, 皆通聲聞菩薩戒也. 瑜伽論云, “攝律儀戒, 七衆戒故.” 涅槃經云, “爲無上道, 受八戒故.” 言毀禁者, 比丘大戒, 及以菩薩攝律儀戒. 七逆如下. 八難者, 有說八無暇也. 謂三惡趣, 北洲長壽天, 生盲生聾, 世智辨聰, 佛前佛後. 彼無修道, 故名無暇, 亦名爲難. 彼是報障, 雖非舉懺, 然彼因中, 說果名也. 此中十惡, 招惡趣難, 世善生北洲, 邪定感長壽, 謗法生盲聾. 邪智得聰辨, 不敬三寶, 佛前後生. 有說, “十三難中, 除五逆罪.” 以彼五入七逆中故. 雖舉大數, 取汙尼等, 傳說如此. 言犯輕垢罪者, 除無五德, 或反生過, 彼雖不舉, 無違犯故. 瑜伽論云, “無違犯者, 若了知彼不可療治, 不可與語, 若觀待時, 若觀因此, 鬪頌⁶¹⁾亂衆, 知彼猛利, 慚愧還淨, 而不呵責, 治罰驅擯, 皆無違犯.”

60) 『유가사지론』 41 권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 (大30 p.520c25) “無違犯者, 若了知彼不可療治, 不可與語, 喜出巖言多生嫌恨, 故應棄捨. 若觀待時, 若觀因此鬥訟諍競. 若觀因此令僧誼雜令僧破壞. 知彼有情不懷諂曲成就增上猛利慚愧, 疾疾還淨, 而不訶責乃至驅擯, 皆無違犯.”

61) 卍60 p.444과 大40 p.709과 藥師寺藏本の ‘鬪’를 따랐다. 韓3 p.460c11의 ‘頌’字는 시비곡절을 다투어 대중을 요란케 하는 ‘訟’字를 쓰는 것이 좋겠다.

③ 우러러 불법을 닦는 문 仰修佛法門

⊖ 머무름에 법을 청하라 住不請法戒第六經

□ 불자들이여! 대승법사나 대승의 동학(同學)과 동견(同見)과 동행(同行)이 승방(僧坊)이나 사택(舍宅) 성읍(城邑)에 들어 올 때, 백리나 천리에서 오는 이를 보면, 곧 일어나서 영접하거나 환송하며 예배하고 공양을 올려야 하느니라. 날마다 삼시(三時)로 공양올리고, 하루에 석 량[三量] 값어치의 금으로 법사(法師)에게 온갖 좋은 음식과 앉는 자리와 약(藥)을 마련하여 공양 드려야 하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야 한다.

항상 법사에게 세 때에 설법을 청하여야 하며, 날마다 삼시로 예배드리되 성내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내지 말며 법을 위하여 몸을 멸(滅)하더라도 청법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見大乘法師, 大乘同學同見同行, 來入僧坊舍宅城邑, 若百里千里來者, 卽起迎來送去, 禮拜供養. 日日三時供養, 日食三兩金, 百味飲食, 牀座醫藥, 供事法師, 一切所須, 盡給與之. 常請法師, 三時說法, 日日三時禮拜, 不生瞋心患惱之心, 爲法滅身, 請法不懈. 若不爾者, 犯輕垢罪."

■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法)을 스승으로 삼으셨으니 능히 지혜를 내어 열반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유교경(遺教經)』에서 “지혜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견고한 배며, 무명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며, 모든 병자들의 양약(良藥)이며 번뇌의 나무를 베어내는 예리한 도끼이다. 이러한 까닭에 그대들은 문사수(聞思修)의 지혜로 스스로 이익을 더하라.”⁶²⁾ 고 한다. 반

62)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大12 p.1112a4) “實智慧者, 則是

드시 몸을 멸하더라도 구해내야 하는 것이 보살의 도리어거늘 가볍게 여기면 어기고 범함이 깊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제정한 것이다.

‘승방(僧坊, 절)이란 출가자를 위해 만든 것이며 ‘집’은 재가자를 위한 것이고 ‘성읍’은 국왕 등의 것이다. ‘날마다 삼시’란 새벽과 사시 공양할 때 [齋時]와 때 아닌 때 먹는 약(藥)등이다. ‘하루에 석 량[三量] 값어치 금’은 소중한 보물이라도 아끼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스럽지 않은 재물을 보시해서 성스러운 재물을 얻는 것이니, 두 가지 재물의 차이는 『유가사지론』에서 자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항상 법사에게 세 때 설법을 청해야 한다.’는 것은, 저 법사의 지혜와 행이 자기보다 수승하면 매일 새벽과 정오와 오후에 반드시 설법을 청해야 한다. 설법을 청하므로 말의 업이 선해지고, 세 때 예배드리기 때문에 몸의 업이 선해지며, 성내지 않는 것으로 뜻의 업이 선해지는 것이다.

‘법을 위하여 몸을 멸할지라도 청법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 구절의 계송을 구하기 위하여 혼(魂)을 설산(雪山)에 잠기는 것과 같은 것⁶³⁾이니, 이런 일이 한 가지가 아니다. 병을 앓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거나 법사가

度老病死海堅牢船也. 亦是無明黑闇大明燈也. 一切病苦之良藥也. 伐煩惱樹者之利斧也. 是故汝等, 當以聞思修慧而自增益.”

- 63) 『대반열반경』 14권 「성행품聖行品」 第19下(大12 p.450a12) “爾時獨處, 其中唯食諸果食已, 繫心思惟坐禪, 經無量歲, 亦不聞有如來出世大乘經名. 善男子, 我修如是難行苦行時, 彼帝釋諸天人等, 心大驚怪, 卽共集會, 各各相謂而說, 僞言各各相指示....爾時釋提桓因, 自變其身, 作羅刹像, 形甚可畏. 下至雪山去, 其不遠而便立住. 是時羅刹, 心無所畏 勇健難當, 辯才次第, 其聲清雅, 宣過去佛, 所說半偈. 諸行無常, 是生滅法. 說是半偈已, 便住其前, 所現形貌, 甚可怖畏. 顧眄偏視, 觀於四方, 是苦行者, 聞是半偈, 心生歡喜. 譬如賈客, 於險難處, 夜行失伴, 恐怖推索, 還遇同侶, 心生歡喜踊躍(중략)願坐此座, 我卽於前 叉手長跪, 而作是言. 唯願和上, 善爲我說其餘半偈, 令得具足. 羅刹卽說, 生滅滅已, 寂滅爲樂. 爾時羅刹, 說是偈已, 復作是言, 菩薩摩訶薩, 汝今已聞, 具足偈義, 汝之所願, 爲悉滿足. 若必欲利諸衆生者, 時施我身”

열등하고 자신이 수승하다면 청하지 않아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

述曰, 諸佛所師, 所謂法也, 以能生智, 證涅槃故. 遺教云, “智慧者, 度生死海牢船, 無明闇夜明燈, 一切病者良藥, 伐煩惱樹利斧. 是故汝等, 以聞思修慧, 而自增益.” 菩薩理, 應滅身上⁶⁴⁾求, 而反輕慢, 違犯乃深. 故今制也. 言僧坊者, 制出家也, 舍宅在家也, 城邑國王等也. 日日三時者, 晨旦齋時, 非時藥等. 日食三兩金者, 所重之寶, 亦勿惜之. 何者. 施非聖財, 得聖財故, 二財差別, 廣如瑜伽. 常請法師, 三時說法者, 若彼法師, 慧行勝己, 日初中後, 應請說法. 以請說故語業善, 三時禮故身業善, 不生瞋等意業善. 言爲法滅身請法者, 如求半偈, 魂沈雪山, 其事非一. 有病等難, 彼劣我勝, 不請無違.

㊦ 유행하며 법을 배우라 不能遊學戒第七經

□ 불자들이여! 비니(毘尼)와 경과 율을 강설하거나 큰 집에서 법을 강설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은 반드시 경전과 율문(律文)을 가지고 법사의 처소에 이르러 듣고 물어야 하느니라. 만약 숲속의 나무 밑이나 승방일지라도, 법을 설하는 곳이면(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다 찾아가서 들어야 하리니, 만약 그 곳에 가서 듣지 않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一切處有講毘尼經律, 大宅舍中, 有講法處, 是新學菩薩, 應持經律卷, 至法師所, 聽受諮問. 若山林樹下, 僧地房中, 一切說法處, 悉至聽受, 若不至彼聽受者, 犯輕垢罪.

■ 만 가지 행이 하나의 문[一門]으로 뜻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니, 뜻을

64) 卍60 p.445a7과 大40 p.710a9과 藥師寺藏本에는 ‘尙’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61 a5에는 ‘上’으로 되어 있다.

얻어 행하면 옳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 배우는 보살은 일에 맞닥뜨리면 알지 못하므로 두루 다니며 배워 성인(聖人)의 행을 이루어야 한다.

계경에서 말하기를 “세계가 온통 불바다일지라도 헤치고 지나가서 법을 듣고자 해야 하며, 반드시 불도를 이루어 널리 생사에 유전하는 이들을 구제하리라는 생각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까닭은 『유가사지론』 제79권에서 “무상보리(無上菩提)는 혜(慧)로써 바탕[體]을 삼나니, 혜는 나머지 모든 바라밀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샅된 행이 일어날 때 마땅히 보살은 저 보리와 능히 이끌어 주는 법에 모두 샅된 행이 일어난 줄 지혜로써 알아차려야 한다.”⁶⁵⁾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 까닭으로 보살은 몸을 가벼이 여기고 법을 중하게 여기나니 무엇 때문인가? 계송으로 말하겠다.

지혜는 모든 선행에서

배가 돛대를 가진 것과 같나니

수없이 많은 앞 못 보는 사람 백 천명이 길을 잃음에

단 한 사람의 눈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화엄경』 계송에서

마치 빈궁한 사람이

밤낮으로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려도

자신의 몫은 반 전푼도 없는 것처럼

많이 듣는 것[多聞]도 이와 같다.⁶⁶⁾

65) 『유가사지론』 79권 「섭결택분중보살지」 8(大30 p.739a22) “復次菩提以慧爲體, 慧能引發所餘一切波羅蜜多. 是故於慧起邪行時, 當知菩薩於彼菩提及能引發菩提諸法, 皆起邪行.”

라고 하였는가? 그것은 다문(多聞)⁶⁷⁾을 구경(究竟)으로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함일 뿐, 다문이 성스러운 지혜의 근본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사지론』 제19권 계송에서 말한 것과 같다.

다문(多聞)은 법을 알게 하며

다문(多聞)은 악을 멀리하게 하며

다문(多聞)은 무의미한 것을 버리게 하며

다문(多聞)은 열반을 얻게 한다.⁶⁸⁾

述曰, 萬行一門, 所謂得意, 得意而行, 無非是故. 新學菩薩, 觸事無知理, 應遊學以成聖行. 如契經言, “設滿世界火, 必過要聞法, 念當成佛道, 廣濟生死流.” 所以然者 如七十九云, “無上菩提, 以慧爲體, 慧能引發, 所餘一切波羅蜜多. 是以於慧, 起邪行時, 當知菩薩, 於彼菩提, 及能引法, 皆起邪行. 是故菩薩, 輕身重法, 何者? 頌曰, 慧於諸善行, 如船楫所持. 百千盲失路, 由一眼得存. 問 若爾何故, 華嚴頌曰, “譬如貧窮人, 日夜數他寶, 自無半錢分, 多聞亦如是?” 答. 彼但爲遮聞爲究竟,

66)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5권 「사제품(四諦品)」 4-2(大9 p.429a3) “譬如貧窮人, 日夜數他寶, 自無半錢分, 多聞亦如是.”

67) 다문(多聞, ㉟bahu-śruta, ㉞bahu-ssuta)이란 불교의 진리를 많이 듣고 들은 그대로 지키고 실천한다는 말. 많이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망상분별과 아집을 키우므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모든 경전의 벽두에 ‘나는 이렇게 들었다. [如是我聞]’라는 뜻도 부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뜻인데, 이 역시 이해로서의 문(聞)과 실천으로서의 행(行)이 아우러진 말이다. 단지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다문의 이상적인 뜻에 미치지 못한다.

68) 『유가사지론』 19권 「본지분중사소성지(本地分中思所成地)」 11-4(大30 p.382a9) “多聞能知法, 多聞能遠惡, 多聞捨無義, 多聞得涅槃.”

不遮多聞聖慧本故. 如瑜伽頌曰, “多聞能知法, 多聞能遠惡,
多聞捨無義, 多聞得涅槃.”

■ ‘비니(毘尼)’는 중국어로는 조복(調伏)이니, 능히 삼업의 악이 치연(熾然)해지는 것을 그치게 하기 때문이다.

‘듣고 물어야 한다.’는 것은 『유가사지론』 제30권에서 “처음으로 업을 닦는 사람은 의리(義利)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네 곳의 바른 생각에 안주한 다음 물어야 한다.”⁶⁹⁾ 고 하였다. 무엇이 네 곳인가? 간략하게 계승으로 정리하여 말하겠다.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타의 선(善)에 안립(安立)할 때
비로소 법사에게 청할 수 있나니라.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교만한 마음과 혐오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는 가서 들을 수 없나니, 이것은 (번뇌에) 물들어 범하는 것[染違犯]이나, 게으른 것은 물드는 것이 아니다.”⁷⁰⁾라고 한다.

69) 『유가사지론』 30권 「본지분중성문지(本地分中聲聞地)」 13 「제삼유가처(第三瑜伽處)」 1(大30 p.448c1) “若有自愛補特伽羅初修業者, 始修業時爲隨證得自義利故. 先應四處安住正念, 然後往詣善達瑜伽, 或軌範師, 或親教師, 或餘尊重, 似尊重所. 云何四處? 一專求領悟, 無難詰心處. 二深生恭敬, 無憍慢心. 三唯求勝善, 非顯己能處. 四純爲安立自他善根, 非求利養恭敬名聞處.”

70)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9b27) “若諸菩薩, 安住菩薩淨戒律儀, 聞說正法, 論議決擇. 憍慢所制, 嫌恨心懷, 惱心而不往聽. 是名有犯, 有所違越. 是染違犯.”

‘어기고 범함이 없다[無違犯]’는 것은 병들어 힘이 없거나, 뒤바뀐 말인 줄 알고 있거나, 그가 설한 것을 이미 여러 번 들었다고 여기거나, 혹은 설자(說者)를 보호하려는 마음이거나, 혹은 다른 선(善)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다.

言毘尼者，此云調伏，能止三業惡熾然故。聽受諮問者，瑜伽三十云，“始修業者，爲證義利，先應四處，安住正念，然後請問。”何等四處？略攝頌曰，不嫉無憍慢，非爲顯自能，安立自他善，爾乃請法師。菩薩地云，“慢心嫌心恚心，不往聽受，是染違犯，懶惰不染。”無違犯者，有病無力，若知倒說，及彼所說，數已所聞，若護說者心，若勤修餘善。

㊤ 대승을 등지고 소승에 나아가지 말라 背正向邪戒第八經

□ 불자들이여! 마음이 대승에 항상 머무르게 하는 경과 율[大乘常住經律]⁷¹⁾을 저버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며, 이승과 외도의 악견(惡見)과 일체 금계(禁戒)와 사견(邪見)의 경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心背大乘常住經律, 言非佛說, 而受持二乘外道惡見, 一切禁戒邪見經律者, 犯輕垢罪。

■ 『열반경(涅槃經)』에서 “보살이 이승(二乘, 성문 연각)의 도를 두려워함이 목숨을 아끼는 자가 몸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해야 한

71) 대승상주경율(大乘常住經律)이란 대승의 경율은 노사나불(盧舍那佛)의 심지(心地)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성품의 본성이 상주(常住)하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도리를 여래(如來)께서 일시에 돈설(頓說)하신 가르침이다. 방편(方便)으로 그때 그때 제정한 법이 아니므로 상주경율(常住經律)이라고 한다.

다.⁷²⁾고 하였으니, 대승을 버리고 소승을 향하면 보살도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문기를, 마음이 대승을 저버리는 것과 계를 잃어버리는 것 중 어느 것이 가벼운가? 이것은 별도의 가르침[別敎]을 비방하는 것으로 총히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 곧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만약 비방하지 않고 여래를 우러러 받든다면 비록 믿거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기고 범함이 없는 것이다.”⁷³⁾라고 답한 것과 같다. ‘항상 머무르게 하는 경과 율’이란 ‘항상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소전(所詮)이고, ‘경과 율’은 능전(能詮)이다.⁷⁴⁾ 또 삼세불(三世佛)의 설(說)이 같고 행도 같아서 바꾸고 고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저 이승이 법공(法空) 등을 비방한다면 샛된 견해이다.

述曰, 涅槃經云, “菩薩怖二乘道, 如惜命者, 怖畏捨身.” 棄大向小, 逆菩薩道, 故須制也. 問心背大乘 失戒何輕? 答此謗別敎, 非總背故. 卽菩薩地, “若不誹謗, 仰推如來, 雖無信解, 而無違犯也.” 言常住經律者, 常住所詮, 經律能詮. 又三世佛, 同說同行, 無改易故. 若其二乘, 謗法空等, 名爲邪見.

④ 중생을 구호하는 문 救護衆生門

⊖ 병든 이를 돌보아 주라 不瞻病苦戒第九經

□ 불자들이여! 모든 병든 이를 보면 항상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다름

72) 『대반열반경』 28권 「사자후보살품(師子吼菩薩品)」 11-2(大12 p.534a25) “令我怖畏二乘道果, 如惜命者, 怖畏捨身.”

73)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9b19) “菩薩如是, 自處無知, 仰推如來於諸佛法, 無不現知, 等隨觀見. 如是正行無所違犯. 雖無信解, 然不誹謗.”

74) 능전(能詮)이란 대상에 대한 주관(主觀)의 설명 또는 설명하는 주체(主體). 소전(所詮)이란 설명되는 내용 또는 대상을 가리킨다.

없이 해야 하느니라. 여덟 가지 복전 가운데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복전이 으뜸가는 복전이니라. 만약 부모와 스승과 제자가 병들어 육근이 온전치 못하고 온갖 병고로 괴로워하면 모두 봉양하여 차도가 있게 해주어야 한다. 보살이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승방에 이르지 못하게 하거나 성(城)이나 마을이나 광야나 산림이나 길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도 구제해주지 않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見一切疾病人, 常應供養, 如佛無異. 八福田中, 看病福田, 第一福田. 若父母師僧弟子病, 諸根不具, 百種病苦惱, 皆養令差. 而菩薩以瞋恨心, 乃⁷⁵⁾ 至僧坊中, 城邑曠野, 山林道路中, 見病不救者, 犯輕垢罪.

■ 보살은 대비심으로 고통에서 빼내어 주는 것을 뜻으로 삼나니, 병든 이를 구제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이보다 더함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구제해 주지 않는 것을 제정하여 죄가 된다 하였으니, 병을 돌보아주는 것은 목숨을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공양하는 것과 다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은 부처님은 지극하게 공경해야 할 분이며 병든 이는 지극히 가없이 여겨야 하는 자이니 공경과 연민은 비록 다르나 지극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은 같다. 그러므로 다름이 없는 것이다.

‘여덟 가지 복전’이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①광야에 좋은 우물을 파는 것이고, ②물길[水路]에 다리를 놓는 것이며, ③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며, ④부모를 효도로 섬기는 것이고, ⑤사문에게 공양 올리는 것

75) 卍60 p.446b15와 藥師寺藏本(元祿二年刊)에는 ‘不’로 되어 있으나 韓3 p.461c19에는 ‘乃’로 되어 있다.

이며, ⑥ 병든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며, ⑦ 죽음의 재난에서 구제해주는 것이고, ⑧ 무차회(無遮會)를 베푸는 것이다.”⁷⁶⁾라고 하였다.

이제 해석해 보면 ① 부처님이고, ② 성인(聖人)이며, ③ 화상(和尚)이고, ④ 아사리(阿闍梨)이며, ⑤ 중승(衆僧)이고, ⑥ 아버지이며, ⑦ 어머니이고, ⑧ 병자이다.⁷⁷⁾ 어떻게 그러한 줄 아는가? 바로 아래 글에서 ‘여덟 가지 복전은 모두 부처님과 성인과 낱낱의 사승(師僧)과 부모와 병든 사람’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경구죄를 범하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혐오하고 성내는 마음은 물들어 범하는 것이나,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라면 물들어 범하는 것이 아니다.”⁷⁸⁾라고 한다. ‘어기고 범함이 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병이 있거나 기력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간병해 주기를 부탁하였거나, 혹은 병든 사람이 의지 할 곳이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병든 사람이 스스로 능히 공양 등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거나, 오랫동안 앓았으나 하는 일마다 능히 스스로 지탱할 수 있음을 알고 있거나, 수승한 선을 닦아 부족함이 없거나, 스스로 둔하여 정혜(定慧) 닦기 어려운 줄 알고 먼저 다른 이에게 허락을 받아 공양 짓는 일을 하는 경우이다. 병든 이에게 괴로움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도와주는 도반이 되어 그 괴로움을 제거해 주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것인 줄 알라.

76) 韓3 p.462a9. 원주(原註) “법장스님은 팔복전을 성교(聖敎)에서 보지 못하였다. 法藏師云 未見聖敎”고 본문주에서 기록하고 있다.

77) 복덕(福德)을 심는 밭이란 뜻의 복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 부처님과 성인(聖人), 승중(僧衆)은 경전(敬田), 스승, 부모는 은전(恩田), 병자 걸인 등은 비전(悲田)이라 한다. 경전(敬田) 가운데 불(佛), 성인(聖人), 승(僧)의 세 가지와 은전(恩田) 가운데 화상, 아사리, 아버지, 어머니의 네 가지와 비전(悲田)의 병자를 더하여 팔복전(八福田)이라고도 한다.

78) 위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계 不敬師長戒第一經.” 해석 참조.

述曰, 菩薩大悲拔苦爲義, 病而無救, 難莫過斯焉. 是以不救, 制之爲罪, 以其看病, 卽施命故. 言供養如佛無異者, 佛爲可敬之極, 病是可愍之至, 敬悲雖異, 邊際義同. 故無異也. 八福田者, 有人言, “一造曠野美井, 二水路橋梁, 三平治嶮路, 四孝事父母, 五供養沙門, 六供養病人, 七救濟死⁷⁹⁾難, 八設無遮會.” 今解, 一佛, 二聖人, 三和上, 四闍梨, 五衆僧, 六父, 七母, 八病人. 以何知然? 卽下文云 八福田, 諸佛聖人, 一一師僧, 父母病人故. 言犯輕垢罪者, 瑜伽論云, “若嫌患心, 是染違犯, 若由懈怠, 非染違犯.” 無違犯者, 若自有病, 若無氣力, 若傳請他, 若知病者有依有怙, 若知病者自能供事, 若了知彼長病所觸, 堪自支持, 若修勝善, 令無間缺, 若自知鈍難修定慧, 若先許餘, 爲作供事. 如於病者, 於有苦等, 爲作助伴, 欲除其苦, 當知亦爾.

㊤ 살생하는 도구를 쌓아 두지 말라 畜殺生具戒第十經

□ 불자들이여! 일체 칼이나 몽둥이, 활과 화살, 찌르는 창이나 도끼, 그 밖의 전투에 쓰이는 도구를 쌓아두지 말며, 그물이나 중생을 죽이는 기구를 일체 쌓아두지 말지니라. 보살은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들을 죽이겠는가? 만약 고의로 칼이나 몽둥이를 쌓아두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不得畜一切刀杖, 弓箭鉾斧鬪戰之具, 及惡網羅殺生之器, 一切不得畜. 而菩薩乃至殺父母, 尚不加報, 況殺一切衆

79) 卍60 p.447a5와 大40 p.710c1과 藥師寺藏本에는 ‘厄’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62a9에는 ‘死’로 되어 있다.

生? 若故畜刀杖者, 犯輕垢罪.

■ 보살은 유정을 이롭게 하는 물건을 모아 두어야 하는데, 죽이는 도구를 쌓아두는 것은 깊이 가없이 여겨 구제해 주는 것과는 어긋나는 것이므로 모름지기 제정한 것이다.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거늘’까지는 자기 숙업의 과보를 받은 것이니, 인과법이 그러하기에 성을 내서는 안 되며, 성을 내면 자신을 해쳐 이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란 만약 바른 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기고 범함 없게 해야 한다. 『열반경』에서는 “재가자가 법(法)을 지키려고 무기를 갖는 것은 허락한다.”⁸⁰⁾ 고 하였다.

述曰, 菩薩應聚利有情物, 而畜殺具, 深違愍濟, 故須制也. 乃至殺父母, 尚不加報者, 以彼還受自宿業果, 因果法爾, 不應瞋故, 若瞋自害, 無所益故. 言犯輕垢罪者, 若護正法, 即無違犯. 涅槃經中, “在家護法, 聽持仗⁸¹⁾故.”

⑤ 총히 결론지음 總結

□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는 반드시 배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니 지니 아래 『육도품(六度品)』에서 자세하게 밝혔느니라.

如是十戒, 應當學敬心奉持, 下六品中 當廣明.

80) 『대반열반경』 3권 「대반열반경금강신품(大般涅槃經金剛身品)」 2 (大12 p.384b8)
“若諸國王大臣長者優婆塞等, 爲護法故, 雖持刀杖. 我說是等名爲持戒. 雖持刀杖不應斷命, 若能如是即得名爲第一持戒.”

81) 卍60 p.447b9와 大40 p.710c18과 藥師寺藏本에는 ‘伏’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62b8에는 ‘仗’으로 되어 있다.

(2) 열 가지 계를 나누다 判十戒

■ 아래부터 열 가지 계는 나누면 두 가지 문[二門]이 된다. 처음 네 가지는 자기의 선을 보호하는 문[護自善門]이고, 뒤의 여섯 가지는 다른 이를 보호하는 문[護攝他門]이니 본문과 같이 알지니라.

自下十戒，分爲二門．初四護自善門，後六護攝他門，如文可解．

① 자기의 선을 보호하는 문 護自善門

⊖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通國使命戒第一經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들이여! 이양(利養)을 위하여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명령을 받아서 싸움터에 모여 회의하며, 군대를 일으켜 서로 공격하여 많은 중생을 죽게 하지 말라. 보살은 군대 속에 왕래 하지 말아야 하나니, 하물며 일부러 국가의 적[國賊]이 되겠는가. 고의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佛言．佛子，不得爲利養惡心故，通國使命，軍陣合會，興師相伐，殺無量衆生．而菩薩不得入軍中往來，況故作國賊．若故作者，犯輕垢罪．

■ 반드시 모든 어기고 다투는 것[違諍]을 화합시켜야 하는 것이 보살의 도리이거늘, 나라의 명령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한다면 보살도를 어기는 것이므로 지금 제정한 것이다. 만약 조복하여 오랫동안 서로 죽이는 짓을 그치게 하려고 나라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범하는 것은 아니다. ‘일으켜[興]’란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며, ‘군대[師, 군사 오백 명이 一旅, 五旅가 一師]’는 군사의 무리이다.

述曰，菩薩理應和諸違諍，而通國使命相殺害，違菩薩道，故

今制也. 若爲調伏, 止長相殺入國, 理應無犯. 興者起也, 師者衆也.

㊤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장사하지 말라 惱他販賣戒第二經

□ 불자들이여! 고의로 선량한 서민이나 노비나 여섯 가지 짐승[六畜]을 팔며, 관재(棺材)나 판목(板木), 시체 담는 도구를 파는 것을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남을 시켜 하도록 하겠는가. 만약 일부러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 하도록 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故販賣良人奴婢六畜, 市易棺材版木盛死之具, 尚不應自作, 況教人作. 若故自作教人作者, 犯輕垢罪.

■ 유정물을 판매하는 것을 저가 특별히 즐기거나, 관재(棺材) 파는 일은 반드시 사람이 죽기를 바라게 되므로 하천한 생계 수단으로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죄를 짓지 않고도 연명할 수 있는 일이 세간에 많이 있다. 그러므로 보살에게 제정하여 범하면 죄가 된다고 한 것이다.

‘여섯 가지 짐승[六畜]’이란 『주례(周禮)』에서 “소와 말과 개와 양과 돼지와 닭이 여섯”이라고 하지만 이치로는 실제 일체 축생에 통한다. ‘하물며 남을 시켜 하도록 하겠는가.’는 이타(利他)를 으뜸으로 한 것이니, 자신을 들어서 남에게 견준 것이다. 하천한 직업을 제외하고 달리 바르게 판매하는 것은 출가자에게는 제지하였으나 재가자에게는 허용하였다.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에서 “재가자가 재산을 얻으면 반드시 넷으로 나누어야 한다. 한 몫은 부모와 처자에게 공양하기 위함이고, 두 몫은 법답게 팔기 위한 것이며, 나머지 한 몫은 저축해 두어야 한다.”⁸²⁾ 고 한 것과 같다.

82) 『우바새계경』 3권 「섭취품(攝取品)」 13(大24 p.1048c21) “善男子, 受優婆塞戒, 先

述曰, 販賣有情, 他別爲樂, 市易棺材, 必求人死, 下賤活命, 無過此焉. 無罪命緣, 世間多有. 故制菩薩, 犯卽爲罪. 言六畜者, 周禮云, “牛馬犬羊豕雞爲六.” 理實通於一切畜生. 況教人作者, 以利他爲最, 故舉自況他. 除下賤業, 餘正販賣, 制道開俗. 如優婆塞戒經云, “在家人得財, 應作四分. 一分供養父母妻子, 二分如法販賣, 餘一分藏積.”

㊤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헐뜯지 말라 無根謗毀戒第三經

□ 불자들이여! 악한 마음으로 터무니없이[無事] 착한 사람과 저 어진 사람과 법사(法師)와 사승(師僧)과 국왕과 귀인(貴人)을 비방하여 칠역(七逆)과 십중(十重)을 범하였다고 말하겠는가. 부모와 형제와 육친(六親)에 게도 반드시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야 하거늘, 도리어 거슬러 해롭게 하여 뜻밖의 곳에 떨어지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以惡心故, 無事謗他良人, 善人法師師僧, 國王貴人, 言犯七逆十重. 於 父母兄弟六親中, 應生孝順心慈悲心, 而反更加於逆害, 墮不如意處者, 犯輕垢罪.

■ 현명하고 착한 이를 업신여기고 거역하면서도 곧 뉘우치지 않으면 이로부터 모든 악법이 생기므로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 융성하게 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 하며, 세 가지 근거[三根, 見·聞·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터무니없이[無事]’라고 한 것이다.

學世事. 既學通達如法求財, 若得財物, 應作四分. 一分應供養父母己身妻子眷屬. 二分應作如法販博, 留餘一分藏積擬用.”

이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을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타에 대해 제정하여 경죄를 삼은 것이다. 성문계에서는 근거 없이 비방하면 중죄이고, 사실을 비방하면 가벼운 죄가 되니, 그들 자신의 행동이 가볍고 무거운 죄[輕重]에 통하기 때문이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한다.”⁸³⁾고 하였는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며, 나에게 선(善)을 베풀어 주면 그는 ‘스승’이며,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은 ‘왕의 교지(敎旨)’이고, 덮어 길러주는 것은 ‘육친의 은혜’이다. ‘육친(六親)’이란 아버지와 어머니와 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와 형과 동생이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이 보살의 근본 행이며 죽음도 사양하지 말아야 하거늘, 도리어 해를 끼치겠는가.

세존께서 설하시기를 “기러기 왕이었을 때 오백 마리 기러기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이때 기러기 왕이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떨어졌다. 그때 기러기 한 마리가 피울음을 토하면서 배회하고 날아가지 않았다. 사냥꾼이 활을 쏘려 하는데도 화살을 피하려 하지 않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두 날개를 퍼덕이며 기러기 왕에게 몸을 던졌다. 오백 마

83) 『춘추(春秋)』,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얼굴을 단장한다. 士爲知己者死 女爲說己者容.” 진나라 사람 예양은 범씨와 중항씨를 섬기다 나중에는 지백을 섬기었다. 그러다 지백이 조양자에게 죽음을 당하자 예양은 그의 원수를 갚으려고 결심하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얼굴을 단장하는 법이다. 지백이 나를 알아주었으니, 지금 내 기필코 원수를 갚은 후에 죽겠다.” 예양은 조양자를 암살하려다 실패하여 두 번이나 잡혔다. 무슨 까닭에 그토록 집요하게 지백의 원수를 갚으려 하는가 하는 조양자의 질문에 예양이 대답하였다. “저는 범씨와 중항씨를 섬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보통 사람으로 대접하였으므로 저 역시 보통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대접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백은 저를 한 나라의 걸출한 선비로 대우하였으므로 저도 한 나라의 걸출한 선비로 그에게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리의 기러기들도 허공을 배회하며 떠나지 않았으니, 이 때 사냥꾼이 이 한 마리 기러기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 곧 놓아주었다. 그 한 마리의 기러기가 곧 아난이었으니, 아사세왕(阿闍世王)이 비록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더라도 돌아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내어 세존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이다. 오백 아라한들이 천상[空]에 올라간 것도 근본은 같다.”⁸⁴⁾고 하셨다. 이미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람들이 극진히 칭찬하는 것이거늘 보살이 혹 저버리므로 이것을 제정하여 죄를 삼았다.

述曰, 輕拒賢善, 卽是無愧, 一切惡法, 從此而生, 紹隆佛種之所不宜. 故須制也. 無利益心, 故言惡心, 離三根故, 亦言無事. 此無根謗, 不能陷沒, 故於利他, 制爲輕罪. 其聲聞戒, 無根謗重, 謗實爲輕, 於彼自行, 通輕重故. 俗云, “士爲知己者用.” 其知己者良人也, 施我之善其師也, 護身財者王之教也, 蒙覆養者, 親之恩也. 言六親者, 父母伯叔兄弟爲六. 知恩報恩, 菩薩本行, 死尚不辭, 而生反害. 如說世尊, “爲雁王時, 將五百雁, 向南飛之. 爾時雁王, 墮獵師網. 時有一雁, 悲鳴吐血, 徘徊不去. 爾時獵師彎弓欲射, 不避弓矢, 目不暫捨, 卽鼓兩翅, 來投雁王. 五百羣雁, 徘徊虛空, 亦復不去, 爾時獵師, 見此一雁, 卽生慚愧, 尋時放捨. 其一雁者, 卽阿難是, 阿闍世王, 雖放醉象, 心生顧戀, 不離世尊. 五百羅漢, 登空如本.” 旣重其恩, 至人所, 菩薩若背, 制之爲罪.

㉔ 불을 놓아 생명을 손상하지 말라 放火損生戒第四經

□ 불자들이여! 악한 마음으로 큰 불을 놓아 산과 숲과 광야를 태우거

84)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4권(大3 p.147c)의 전생담.

나, 4월부터 9월 사이에 불을 놓아 남의 집과 성과 마을과 승방과 밭과 나무와 귀신과 관청의 물건에 이르기까지 일체 주인이 있는 물건을 고의로 태우지 말지니라. 만약 고의로 태우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以惡心故, 放大火燒山林曠野, 四月乃至九月放火, 若燒他人家屋, 城邑僧坊田木, 及鬼神官物, 一切有主物, 不得故燒. 若故燒者 犯輕垢罪.

■가리지 않고 중생을 죽이는 데는 불을 놓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평[雉]도 날개에 물을 적서 불타는 재난을 구제하였거늘⁸⁵⁾ 보살이 불을 놓는다면 도를 많이 거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제정한 것이다. 만약 불을 놓으려다가 생명을 해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면 별도로 살생과 도둑질을 범하게 된다. 『유가사지론』에 설하기를 “불을 놓는 것은 도둑질 보다 더 중죄”⁸⁶⁾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산(山)’ 등은 다분히 주인이 없는 것이며, 자비심이 없으므로 ‘악한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정해진 주인이 있는 물건을 간략하게 표하면 여섯 가지가 있으니, ① 다른 사람의 방과 집이고, ② 성읍(城邑)이며, ③ 사찰[僧坊]이고, ④ 논밭과 나무[田木]이고, ⑤ 귀신의 물건[鬼神物]이고, ⑥ 관청의 물건[官物]이다.

述曰, 無擇殺生, 無過放火. 雉尚潤翅, 救燒之難, 菩薩放火, 逆道之甚. 所以制之. 若欲放火, 害命損物, 別得殺盜. 瑜伽說,

85) 『대지도론(大智度論)』 16권 「석초품중비리아바라밀품(釋初品中毘梨耶波羅密品)」 27(大25 p.178c29)의 전생담.

86) 『유가사지론』 60권 「섭결택분중유심유사등삼지(攝決擇分中有尋有伺等三地)」 3(大30 p.634b7) “或憎他故, 焚燒聚落舍宅財物珍玩資具, 當知彼觸瞋恚所生. 盜相似罪.”

“燒是盜之重.”此中山等，多分無主，但無慈悲，言以惡心。定有主物，略標有六，一他室宅，二城邑，三僧坊，四田木，五鬼神物，六官物。

②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문 護攝他門

○ 법으로 교화함에 가르침을 어기지 말라 法化違宗戒第五經

□ 불자들이여! 불제자로 부터 외도와 악인, 육친(六親)과 일체 선지식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대승경과 율을 수지하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뜻과 이치를 가르쳐 일러주어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십발취심(十發趣心)과 십장양심(十長養心)과 십금강심(十金剛心)의 삼십심(三十心) 가운데 낱낱이 그 차제대로 법의 쓰임[法用]을 알도록 해야 하는데, 보살이 악한 마음과 성난 마음으로 함부로 이승성문(二乘聲聞)의 경을이나 외도의 삿된 견해의 론(論) 등을 가르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自佛弟子, 及外道惡人六親, 一切善知識, 應一一教受持大乘經律, 應教解義理, 使發菩提心. 十發趣心, 十長養心, 十金剛心, 於三十心中, 一一解其次第法用, 而菩薩以惡心瞋心, 橫教二乘聲聞經律, 外道邪見論等, 犯輕垢罪.

■ 보살은 마땅히 대승법[大法]으로써 중생을 교화해야 하니 『유마경(維摩經)』에서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면 대승으로써 인도해야 한다.”⁸⁷⁾ 고 한 것과 같다. 소승으로 대승을 장애하면 보살도를 거스른다. 이러한 이유로 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유가사지론』에서 “만약 어떤 사람

87)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상권 「방편품(方便品)」2(大14 p.539a27) “入講論處導以大乘.”

이 법을 구하면 먼저 종성(種性)⁸⁸⁾을 묻되 만약 그가 영리한 지혜[點慧]로 그 근성(根性)을 설명한다면 곧 적합한 것을 따라 대승법[乘法]을 일러주고, 자기의 종성[種性]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마땅히 삼승의 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준 다음 종성(種性)에 따라 그것을 듣고 발심한 연후에 적절하게 대승법을 설해주는 것과 같다.”고 하였겠는가? 여기에서는 악한 마음을 제지(制止)한 것으로 저 론(論)과 어긋난 것이 아니다. 망어업(妄語業)을 근거한다면 비록 믿지 않더라도 범하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의 ‘대중[衆]’에 간략하게 네 가지가 있으니 ①정법에 들어간 사람이고, ②아직 바른 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며, ③같은 형제자매이고, ④대승을 함께 닦아 매우 친해진 사람들이다.

일러주는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①교법(教法)이니 즉 대승의 경과 율을 가르치는 것이고, ②이법(理法)이니 뜻과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다. ③수행법이니 발심(發心) 등을 말한다. 가르침에 의지하여 이해가 생기고 이해에 의하여 수행을 하는 것이 그 차례이다. 여기에서 ‘보리심을 낸다’는 것은 십신(十信)이며, 십발취심(十發趣心)은 십주(十住)이며, 십장양심

88) 종성(種性, 𑖦gotra)은 종성(種姓)이라고도 한다. 성문·연각·보살 등의 삼승이 각각의 깨달음을 얻은 종(種)이 되는 본래적 소성(素性)·소질(素質)을 말한다. 여기서는 선천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경우와 후천적인 수행에 의해서 얻는 2종의 종성이 있다. 『유가사지론』 2권(大30 p.284c)은 본성주종성(本性住種姓)과 습소성종성(習所成種姓)의 두 가지를 세우고 있다. 법상종에서는 오성(五姓)이 선천적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여 성종성을 설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또 별도의 습종성을 설하는데, 이것은 호법의 학설에 속한다.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상권에는 습종성(習種性)·성종성(性種性)·도종성(道種性)의 3종성을 설한다.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상권(大24 p.1012b25)에서는 ① 습종성(習種性)[십주의 보살], ② 성종성(聖種性)[십행의 보살], ③ 도종성(道種性)[십회향의 보살], ④ 성종성(聖種性)[십지의 보살], ⑤ 등각성(等覺性)[등각의 보살], ⑥ 묘각성(妙覺性)[묘각의 보살]을 설하고 있다.

(十長養心)은 십행(十行)이며, 십금강심(十金剛心)은 십회향(十迴向)이다. 십지(十地)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증득함을 알기 때문이다. 혹 어떤 경우에는 “본래 장양심(長養心)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마땅히 (간략하게) 줄인 것인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함부로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은 『대집경(大集經)』에서 “소승을 권하여 배우게 하는 것은 마업(魔業)이다.”⁸⁹⁾라고 한 것과 같다. 하물며 외도의 샛된 론(論)이겠는가? 반드시 죄를 범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述曰, 菩薩應以大法化生, 如維摩經, “入講論處, 導以大乘.” 以小障大, 逆菩薩道. 所以制之. 問若爾何故, 瑜伽論云, “若有求法, 先問種姓, 若彼點慧, 說其根性, 卽隨所應, 授彼乘法, 若彼不知自種姓者, 應爲歷說三乘之法, 隨其種姓聞之, 發心然後, 如應說其乘法.” 答今制惡心, 不違彼論. 準妄語業, 雖不信犯. 今此文中, 衆略有四, 一入正法, 二未⁹⁰⁾入正法, 三同氣連枝, 四同乘親厚. 所授有三, 一者教法, 卽教大乘經律也, 二者理法, 謂教義理也. 三者行法, 謂發心等. 依教生解, 依解發行, 其次第也. 此中發菩提心, 十信也, 十發心者, 十住也, 長養心者, 十行也, 金剛心者, 十迴向也. 不說十地, 自證解故. 或有經, “本無長養心, 應知少也.” 言橫教者, 如大集云, “勸學小乘, 是魔業也.” 況乎外道邪論? 犯罪應知.

89)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15권 「허공장보살품(虛空藏菩薩品)」 8-2(大13 p.105c17) “所謂, 心向小乘, 是爲魔業.”

90) 仁60 p.449b14와 藥師寺藏本(元祿二年刊)에는 ‘未’로 되어 있으나 韓3 p.463c2에는 ‘未’로 되어 있다.

㊤ 재물을 탐하여 그릇되게 설하지 말라 貪財惜法戒第六經

□ 불자들이여! 반드시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의를 경을 배워 자세하게 의미를 해석할 것이니 나중에 배우기 시작한 보살[新學菩薩]이 백리나 천리로부터 와서 대승의 경과 율을 구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법답게 모든 고행(苦行)을 설해주되 혹 몸을 태우거나 팔을 태우거나 손가락을 태우게 하여야 한다. 만약 몸과 팔과 손가락을 태워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지 않으면 출가보살이 아니다. 그 밖에 굶주린 호랑이나 이리, 사자나 모든 아귀까지도 다 몸과 살과 손과 발을 보시하여 그들에게 공양하여야 한다. 그런 후에 날날이 차례대로 바른 법을 설해주어 마음을 열어 뜻을 알게 해야 하느니라. 보살이 이양(利養)을 위하여 대답해야 할 것을 대답하지 않거나, 경을 뒤바뀌게 설하여 문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삼보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應好心先學大乘威儀經律, 廣開解義味, 見後新學菩薩, 有從百里千里來, 求大乘經律, 應如法爲說一切苦行, 若燒身燒臂燒指. 若不燒身臂指, 供養諸佛非出家菩薩. 乃至餓虎狼師獅子, 一切餓鬼, 悉應捨身, 肉手足而供養之. 然後一一次第, 爲說正法, 使心開意解. 而菩薩爲利養故, 應答不答, 倒說經律, 文字無前無後, 謗三寶說者, 犯輕垢罪.

■ 먼저 자신이 배운 다음 뒤에 반드시 남을 가르쳐야 한다. 재산을 탐하고 법을 아끼면 곧 불종자(佛種)가 끊어져 보살도를 어기게 되므로 여기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먼저 고행(苦行)을 설해 주는 것’은 마음에 조심하여 견고하게 한 후에 진실한 정법을 설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답해야 할 것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해주지 않는 것을 말

한다. 그러나 다만 ‘이양을 위하여 법을 아끼는 것[慳貪]⁹¹⁾’이 아니라면 가벼운 죄에 속한다.

『유가사지론』에서 “현재 재물과 법이 있는데 재물과 법을 아끼고 탐내어 베풀지 않으면 타승처법(他勝處法)⁹²⁾이다.”라고 설한 것과 같다.

‘삼보를 비방한다’는 것은 본문에 맞게 뜻을 취한 것이다. 『열반경』에서 “만약 중생이 결정코 불성이 있다거나 결정코 불성이 없다고 말하면 모두 불법승(佛法僧)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다.”⁹³⁾라고 한 것과 같다.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란 『유가사지론』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법을 구하는데 싫어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질투하여 베풀지 않으면 이것은 물들고 범하는 것이지만, 게으르거나 잊어 버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물들고 범하는 것이 아니다. ‘어기고 범함이 없다는 것’은 외도가 허물을 엿보려하거나, 병들었거나, 사리분별을 못하거나[狂], 혹은 조복하고자 하거나, 혹은 이 법에 대해서 아직 잘 예리하게 통달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다시 그가 공경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나쁜 위의로 온 것

91) 간탐(慳貪, S[mātsarya-mala])이란 재물과 법에 인색하여 사람에게 주지 않으며, 탐욕스럽게 구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만약 소승법(小乘法)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교화(教化)한다면, 나는 곧 간탐(慳貪)에 떨어지리라. 『법화경(法華經)』 1권 「방편품(方便品)」 (大9 p.8a26-27) 若以小乘, 化乃至於一人, 我則墮慳貪.” 또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大32 p.581a19-20)에서는 “法性の 체는 간탐이 없음을 앞으로써 보시바라밀에 수순하여 수행한다. 以知法性體無慳貪故, 隨順修行檀波羅蜜.”

92) 『유가사지론』 40권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1(大30 p.515b24) “若諸菩薩, 現有資財, 性慳財故, 有苦有貧, 無依無怙, 正求財者, 來現在前, 不起哀憐而修惠捨. 正求法者, 來現在前, 性慳法故, 雖現有法而不給施, 是名第二他勝處法.”

93) 『대반열반경』 36권 「가섭보살품(迦葉菩薩品)」 12-4(大12 p.580b14) “善男子, 若有說言, 一切衆生, 定有佛性, 定無佛性, 是人亦名謗佛法僧.”

을 보았거나, 혹 그가 둔하여 도리어 샷된 견해를 내는 줄 알았거나, 혹은 다시 그가 사람 아닌 것[非人]에게 퍼는 줄 알면, 베풀어 주지 않아도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⁹⁴⁾라고 하였다.

述曰, 先應自學, 後必教他. 貪財惜法, 卽斷佛種, 違菩薩道. 故今制也. 此中意言先說苦行, 誠心令固, 然後爲說眞實正法. 應答不答者, 謂不說也. 然但爲利, 不由慳法, 所以輕攝. 如瑜伽說, “現有財法, 慳財法而不施, 他勝處故.” 謗三寶說者, 如文取義. 如涅槃經, “若說衆生, 定有佛性, 定無佛性, 皆爲謗佛法僧寶也.” 犯輕垢罪者, 瑜伽云, “他來求法, 嫌心恚心, 嫉妒不施, 是染違犯, 懈怠忘念, 無記之心, 非染違犯. 無違犯者, 外道伺過, 或病或狂, 或欲調伏, 或於此法, 未善通利, 或復見彼不敬不愧, 惡威儀來, 或知彼鈍反生邪見, 或復知彼轉布非人, 而不施與, 皆無違犯.”

㊤ 세력을 의지하여 나쁜 방법으로 구하지 말라 依勢惡求戒第七經

□ 불자들이여! 스스로 음식이나 돈이나 물건이나 이양이나 명예를 위하여 일부러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백관에게 친근히 하여 믿고 세력을 과시하며, 사정하여 억지로 구하거나[乞索], 때리고 협박하여 함부로

94)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6c13) “若諸菩薩, 安住菩薩淨戒律儀, 他來求法, 懷嫌恨心懷恚惱心, 嫉妒變異不施其法, 是名有犯有所違越, 是染違犯. 若由懶惰懈怠忘念無記之心, 不施其法, 是名有犯有所違越, 非染違犯, 無違犯者. 謂諸外道伺求過短, 或有重病, 或心狂亂, 或欲方便調彼, 伏彼出不善處, 安立善處. 或於是法, 未善通利, 或復見彼不生恭敬, 無有羞愧, 以惡威儀, 而來聽受. 或復知彼是鈍根性, 於廣法教, 得法究竟, 深生怖畏. 當生邪見, 增長邪執衰損惱壞. 或復知彼法至, 其手轉布非人, 而不施與, 皆無違犯.”

돈이나 물건들을 갈취하여 일체 이익을 구하거나, 악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과, 지나치게 많이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요구하는 것은 모두 자비스럽고, 효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自爲飲食錢物利養名譽, 故親近國王王子大臣百官, 恃作形勢, 乞索打拍牽挽, 橫取錢物, 一切求利, 名爲惡求多求, 教他人求. 都無慈心, 無孝順心者, 犯輕垢罪.

■ 타인을 괴롭힐 뿐 아니라 자신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깊이 두 가지 이익을 장애하는 까닭에 제정한 것이다. 『유교경(遺教經)』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고뇌가 많지만, 적은 욕심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여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더라도 가난하나니 항상 부족하게 여기기 때문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나니, 항상 편안하고 즐겁기 때문이다.”⁹⁵⁾라고 말한 것과 같다.

‘악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과 지나치게 많이 구하는 것’은 물들이 없이 의리에 맞게 구하는 것과 구별하려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계경(戒經)과 같이 ‘성문으로 하여금 일이 적고 업이 적고 바라는 것이 적은데 머무르도록 하기 위하여 차죄(遮罪)를 세워 짓지 않게 한다.’고 하였으니 그와 같이 배워서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닻

95)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大12 p.1111b28) “汝等比丘, 當知多欲之人, 多求利故苦惱亦多. 少欲之人, 無求無欲, 則無此患. 直爾少欲, 尚應修習. 何況少欲, 能生諸善功德. 少欲之人, 則無諂曲以求人意. 亦復不爲諸根所牽. 行少欲者, 心則坦然, 無所憂畏. 觸事有餘, 常無不足. 有少欲者, 則有涅槃. 是名少欲. 汝等比丘, 若欲脫諸苦惱, 當觀知足. 知足之法, 即是富樂安隱之處. 知足之人, 雖臥地上, 猶爲安樂. 不知足者, 雖處天堂, 亦不稱意. 不知足者, 雖富而貧. 知足之人, 雖貧而富. 不知足者, 常爲五欲所牽. 爲知足者之所憐愍, 是名知足.”

아서 자기만 이롭게 하며,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일 가운데 일이 적은 것으로 묘(妙)함을 삼지만, 모든 보살들은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수승한 것으로 여기므로 자기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는 가운데 ‘일이 적고 업이 적고 바라는 바가 적은데 머무르는 것을 묘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살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친척이 아닌 장자(長者)들의 주변에서 마땅히 백 천 가지 의발 등 물건을 구하고 여러 가지 보물을 모아 둔다.”⁹⁶⁾고 한 것이다.

述曰, 非但惱他, 自亦勞倦. 深障二利, 所以制之. 如遺教云, “多欲之人, 多求利故, 苦惱亦多, 行少欲者, 心即坦然, 無所憂畏. 不知足者, 雖富而貧, 恒乏短故, 知足之人, 雖貧而富, 常安樂故.” 言惡求多求者, 爲簡非染有義利求. 如瑜伽云, “若諸菩薩, 如佛戒經, ‘爲令聲聞, 少事少業, 少希望住, 建立遮罪, 令不造作.’ 不應等學. 何以故, 彼修自利, 於利他中, 少事爲妙, 非諸菩薩利他爲勝, 不顧自利, 於利他中, 少事少業少希望住, 得名爲妙. 如是菩薩, 爲利他故, 從非親里, 長者等邊, 應求百千衣鉢等物, 畜種種寶.”

96) 『유가사지론』 41 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7a15) “若諸菩薩, 安住菩薩淨戒律儀, 如薄伽梵, 於別解脫毘奈耶中, 爲令聲聞少事少業少希望住建立遮罪. 制諸聲聞令不造作, 於中菩薩與諸聲聞不應等學. 何以故. 以諸聲聞自利爲勝, 不顧利他. 於利他中, 少事少業少希望住, 可名爲妙. 非諸菩薩, 利他爲勝. 不顧自利於利他中, 少事少業少希望住得名爲妙, 如是菩薩爲利他故. 從非親里長者居士婆羅門等及忝施家, 應求百千種種衣服. 觀彼有情有力無力, 隨其所施, 如應而受. 如說求衣求鉢亦爾. 如求衣鉢, 如是自求種種絲縷, 令非親里爲織作衣 ….”

□ 불자들이여! 계를 배워 외우는 사람은 매일 여섯 차례 보살계를 지녀야 하며, 그 뜻의 이치와 불성(佛性)의 성품까지 이해해야 한다. 보살이 한 구절이나 하나의 계송과 계율의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거짓으로 잘 안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남도 속이는 것이다. 모든 법을 낱낱이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 계를 주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學誦戒者, 日夜六時, 持菩薩戒, 解其義理佛性之性. 而菩薩不解一句 一偈戒律因緣, 詐言能解者, 卽爲自欺誑, 亦欺誑他人. 一一不解一切法, 而爲他人, 作師授戒者, 犯輕垢罪.

■ 날마다 외워 지녀서 분명하게 알고 나서 스승이 되어야 한다. 게으르거나 분명하게 알지 못하므로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남을 속인다.’는 것은 스스로 나중에 법을 크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자기를 속인다.’고 하였고, 허망한 가르침을 주어 이익 없이 애쓰게 하므로 또한 ‘남을 속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보살지(菩薩地)」에서 “거짓으로 위의를 나타내어 보살의 공덕과 비슷하게 받아들이기 때문⁹⁷⁾”이라고 한다. 이것이 비록 망어(妄語)이기는 하나 거짓으로 스승이 된다는 의미에서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97) 『유가사지론』 46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보살공덕품(初持瑜伽處菩薩功德品)」 18(大30 p.546c5) “又諸菩薩, 略有五種相似功德, 當知實是菩薩過失, 何等爲五. 一者於其暴惡毀犯淨戒諸有情所, 由是因緣作不饒益. 二者詐現種種具足威儀. 三者於順世間文詞咒術外道書論相應法中, 得預智者聰叡者數. 四者修行有罪施等善行. 五者宣說建立像似正法.”

述曰, 日日誦持, 明解爲師. 懈怠不明, 此戒所制. 言卽爲自欺誑, 亦欺他人者, 自作後法大衰損故, 言自欺誑, 授虛妄教, 無利勤苦, 言亦欺他. 菩薩地云, “詐現威儀, 菩薩相似功德攝故.” 此雖妄語, 詐作師義, 犯輕垢罪.

㉔ 두 가지 말로 다투게 하지 말라 鬪諍兩頭戒第九經

□ 불자들이여! 악한 마음 때문에 계를 지키는 비구가 손에 향로를 들고 보살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간질을 해서 싸우게 하거나 현인을 비방하고 속여서 악을 짓게 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以惡心故, 見持戒比丘, 手捉香爐, 行菩薩行, 而鬪構兩頭, 謗欺賢人, 無惡不造者, 犯輕垢罪.

■ 보살행 하는 사람을 찬탄하며 피차를 화합시켜 선(善)을 내게 하는 것이 도리거늘, 그렇지 않고 이간질을 해서 싸우게 하면 도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계를 지키는 비구’를 보았다는 것은 어진 무리들이 다투는 것이다. ‘손에 향로를 들었다’는 것 등은 도를 닦는 위의[行道威儀]이다. ‘이간질을 해서 싸우게’ 하는 등은 말하자면 만나 이간질로 싸우게 하는 것이다. ‘구(遭)’는 만날 ‘우(遇)’字의 뜻이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방하고 속이면 많은 악이 일어나게 된다. 「보살지(菩薩地)」에서는 “만약 나쁜 벗에게 포섭당한 것을 보고 이간하는 말을 하면 도리어 공덕이 생긴다.”⁹⁸⁾ 고 하였다.

98)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7c18) “又如菩薩, 見諸有情爲惡朋友之所攝受親愛不捨, 菩薩見已起憐愍心, 發生利益安樂意樂. 隨能隨力說離間語, 令離惡友捨相親愛. 勿令有情由近惡友當受長夜無義無利, 菩薩如是以饒益心說離間語, 乖離他

述曰, 理應讚美菩薩行人, 能令此彼和合生善, 而反鬪遘兩頭逆道. 故制斯戒. 見持戒比丘者, 此是所聞賢良之衆. 手捉香爐等, 是行道威儀也. 言而門遘兩頭等者, 謂遘兩頭令門諍故. 遘者遇也. 謗欺此彼, 衆惡起也. 菩薩地云, “若見惡友之所攝受, 行離間語, 反生功德.”

㉔ 살아 있는 이와 죽은 이를 구제하라 不救存亡戒第十經

□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목숨을 놓아주는 일[放生業]을 행해야 하느니라. 모든 남자들은 다 나의 아버지였고, 모든 여인들은 나의 어머니였다. 내가 태어날 적마다 그들로부터 목숨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육도(六道)의 중생이 모두 나의 부모이거늘 죽여서 잡아먹는 것은,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다. 모든 흙과 물은 나의 예전 몸이며, 모든 불과 바람은 나의 본체(本體)이므로 항상 방생을 행하여야 한다. 태어날 적마다 생명을 받아 나는 것이 항상하여 변하지 않는 법이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산 목숨을 살려주도록 가르치라. 만약 세상 사람들이 짐승 죽이는 것을 보면 반드시 방편으로 구호하여 그 고난을 풀어 주어야 한다. 늘 교화하고 보살계를 강설하며 중생을 제도해야 하느니라. 부모와 형제가 돌아가신 날에도 반드시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경(菩薩戒經)』을 강설하여 죽은 사람에게 복의 자량[福資]이 되도록 하며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以慈心故, 行放生業. 一切男子是我父, 一切女人是我母. 我生生無不從之受生. 故六道衆生, 皆是我父母, 而殺

愛無所違犯, 生多功德.”

而食者，卽殺我父母，亦殺我故身。一切地水，是我先身，一切火風，是我本體，故常行放生。生生受生，常住之法，教人放生。若見世人殺畜生時，應方便救護，解其苦難。常教化，講說菩薩戒，救度衆生。若父母兄弟，死亡之日，應請法師，講菩薩戒經，福資亡者，得見諸佛，生人天上。若不爾者，犯輕垢罪。”

■ 경문(經文)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①방생으로 죽음의 재난에서 구제해주는 것이고, ②재[齋]와 강설(講說)로 죽은 망령(亡靈)을 돕는 것이다.

‘모두 나의 부모’라는 것은 널리 부모라고 여기는 관법[普親觀]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존께서 “나는 일체 유정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일찍이 너희들 부모가 되지 않음을 본 적이 없다.”⁹⁹⁾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은 사대[四大, 地·水·火·風]와 오상[五常, 仁·義·禮·智·信]을 이어 받지 않은 적이 없으니, 모두 옛날 내 양친의 자손이어서 나와 더불어 기운을 나누어 받지 않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속에서 말하는 “장부(丈夫)의 의기[意氣]는 마음속에 본래 풍운이 있고, 열사와 교류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형제가 된다.”¹⁰⁰⁾고 한 것과 같

99) 『범망경고적기촬요회본』 5권 94쪽 上면에 “『심지관(心地觀)』 二…” 했으나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2권(大3 p.297c8)에는 “善男子，衆生恩者，卽無始來，一切衆生輪轉五道，經百千劫，於多生中，互爲父母。以互爲父母故，一切男子，卽是慈父，一切女人，卽是悲母，昔生生中，有大恩故。猶如現在父母之恩，等無差別。如是昔恩，猶未能報。或因妄業，生諸違順。以執著故，反爲其怨。何以故。無明覆障宿住智明。不了前生曾爲父母，所可報恩互爲饒益。無饒益者，名爲不孝。”라 하여 고적기의 인용과는 매우 다르다.

100) 『논어(論語)』 안연편(顏淵篇), 천하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나 형제처럼 지낼 수 있다는 말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마우가 근심하며 말하기를 “사람이 다 형제가 있는데 유독 나만 없소이다.” 그러자 자하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 죽고 사는 것이 운명에 달려있고 부유함과 귀함이 하늘에 달려 있

다. ‘모든 흙과 물은 나의 전생 몸이며 모든 불과 바람은 나의 본체(本體)’라는 것은 만물에 대하여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니, 일찍이 대지에 몸을 버리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불과 바람이 존재하여 몸이 되었다가 흩어지면 이내 근본[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항상 산 목숨을 놓아 주며 방편을 써서 죽임을 당하는 자에게 현재와 미래의 괴로움을 없애 주라는 것이다.

‘돌아가신 날 계경을 강설하라’는 것은 진실로 이 계에 두 가지 덕이 있음을 말미암기 때문이니, ① 능히 악을 막는 것으로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② 모든 선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을 친견하여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계 중의 계는 보살계이니,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진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다만 『보살계경』을 설하라는 것이다.

述曰, 經文二意, 初放生以救死難, 後齋講以資亡靈. 皆我父母者, 起普親觀. 如世尊云, “我不能見一切有情, 長夜不曾爲汝父母故.” 言亦殺我故身者, 四大五常, 無曾不稟, 皆是舊我, 二親之孫, 無不與我分受氣故. 如俗間有語, “丈夫意氣, 寸心之中, 自有風雲, 烈士交遊, 四海之內, 皆爲兄弟.” 言一切地水, 是我先身, 一切火風, 是我本體者, 此於萬物, 作同體想, 大地

다 했소이다. 군자가 조심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고 남과 접촉하는데 공손하고 예의가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형제입니다. 군자가 어찌 형제가 없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사마우에게는 사마환퇴(司馬桓退)라는 형이 있었는데 천하에 악명을 드날리는 악한으로 송나라에서 일어났던 반란에 가담하였다가 실패한 후 망명하여 떠도는 신세였다. 사마우는 이것을 걱정하여 자하에게 근심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자하는 모든 일은 운명에 달려있다고 하고 군자가 공경으로서 남을 대하고 예를 지킨다면 천하의 누구와도 형제처럼 지낼 수 있으니 어찌 형제가 없음을 걱정하겠느냐고 위로한 것이다. “司馬牛憂曰, 人皆有兄弟, 我獨亡. 子夏曰, 商聞之矣, 死生有命, 富貴在天. 君子敬而無失, 與人恭而有禮, 四海之內, 皆兄弟也. 君子何患乎無兄弟也.”

無曾不捨身處故。火風存爲身，散卽歸本故。常行放生，及以方便，除能所殺，現當苦也。死亡之日，講戒經者，良由此戒，有二德故，一能遮惡故，不墮三途，二諸善本故，見佛生天。戒中之戒，謂菩薩戒，廣度衆生，以理本故，是故偏說菩薩戒經。

③ 총히 결론 지음 總結

□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반드시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지니 「멸죄품(滅罪品)」에서 낱낱의 계상을 자세하게 밝혔느니라.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如滅罪品中，廣明一一戒相。

(3) 열 가지 계를 가려냄 判十戒

■ ‘열 가지 계’ 아래는 육화경(六和敬)¹⁰¹⁾을 이루니, 열 가지는 차례대로 세 가지, 한 가지, 네 가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업(業)과 견해와 이익과 계를 똑같이 포섭한다. 처음 세 가지 계는 각기 세 가지 업을 포섭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육화경(六和敬)이 성립되는 것이다.

自下十戒，成六和敬，謂十如次，三一四二，攝彼業見利戒同故。初三各攝三業同故，成六和敬。

101) 육화경을 육합염법(六合念法), 육화합(六和合),육화(六和)라고도 한다. 수행자가 행위나 견해를 같이하여 화합하고 서로 존경하는 여섯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①신화경(身和敬)은 예배 등을 같이 하는 것이며, ②구화경(口和敬)은 찬탄가영(讚嘆歌詠)등을 함께 하는 것이고, ③의화경(意和敬)은 신심(身心) 등을 함께 하는 것이며, ④계화경(戒和敬)은 청정한 계를 함께 지키는 것이고, ⑤견화경(見和敬)은 공(空) 등의 견해를 함께 하는 것이며, ⑥이화경(利和敬)은 행화경(行和敬)이라고도 하며 이익이나 여러 가지 행을 함께 하는 것이다.

① 삼업으로 함께 닦음 三業同修

⊖ 인욕하여 어기고 범하지 말라 不忍違犯戒第一經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들이여! 성냄으로써 성냄을 갚거나, 때림으로써 때림을 갚지 말지니라. 혹은 부모와 형제와 육친을 죽였어도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며, 혹 임금이 다른 사람에게 시해되었을지라도 보복하지 말아야 하나니, 산목숨을 죽이면 과보가 생기므로 효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노비를 가두거나 욕하고 때리지 말지니, 나날이 세 가지 업을 일으켜 말(口)의 죄가 끝이 없거늘 하물며 고의로 칠역죄(七逆罪)를 짓겠는가? 출가한 보살이 자비심 없이 원수를 갚되 육친의 것까지 고의로 갚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佛言佛子! 不得以瞋報瞋, 以打報打. 若殺父母兄弟六親, 不得加報, 若國主爲 他人殺者, 亦不得加報, 殺生報生, 不順孝道. 尚不畜奴婢, 打拍罵辱, 日日起三業, 口罪無量, 況故作七逆之罪? 而出家菩薩, 無慈報讎, 乃至六親中故報者, 犯輕垢罪.

■ 원한으로써 원한을 갚는 것은 곧 계를 범하는 행위[違犯行]이다. 만약 인행(忍行)을 잃으면 대승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금 제정한 것이다. ‘성냄으로써 성냄을 갚는다.’는 것은 『장수왕경(長壽王經)』에서 “원한으로써 원한을 갚으면 원한이 끝내 사라지지 않으나, 덕으로써 원한을 갚으면 원한이 이에 끝난다.”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 까닭에 보살은 성내지 않는 것을 용기로 여긴다. ‘혹은 부모를 죽인’부터 ‘효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세속의 예절에서 ‘임금이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효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 왕이나 부모를 해친 원수를 갚으면 효를 어긴다고 하는가?

효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세간의 효도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으로 마치 풀[草]로 불을 끄는 것과 같고, 승의(勝義)의 효는 자비로써 원한을 갚는 것이니 물[水]로 불을 끄는 것과 같다. 이미 육도(六道)가 다 나의 부모인 것을 믿는다면 어찌 한 부모를 위하여 다시 한 부모를 해치겠는가? 저가 지금 (나의)부모를 죽였으므로 후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므로 다만 불쌍하게 여길 뿐 다시 갚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평등하게 원한을 풀어 속히 끊어버리는 것이 효 중에 효인 것이다. ‘출가한 보살이 자비가 없이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출가에 두 가지 부류가 있으니, 마음의 출가이고, 몸의 출가이다. 이 두 부류의 출가자가 모두 참지 못하면 죄가 되므로 『계경(戒經)』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인욕이 첫째 가는 도이니

부처님께서는 무위(無爲)가 으뜸이라 하셨네.

출가하여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 부를 수 없다네.¹⁰²⁾

述曰, 以怨報怨, 卽違犯¹⁰³⁾行. 若失忍行, 可謂退乘, 故今制也. 言以瞋報瞋等者, 如長壽王經云, “以怨報怨, 怨終不滅, 以德報怨, 怨乃盡耳.” 是故菩薩, 不瞋爲勇. 言若殺父母, 至不順孝道者, 問俗禮之中, “君父之怨, 不報非孝.” 何故, 今言於害王親, 報之違孝? 答孝有二種. 世間之孝, 以怨報怨, 如草

102) 『사분율비구계본(四分律比丘戒本)』(大22 p.1022b12) “忍辱第一道, 佛說無爲最. 出家惱他人, 不名爲沙門. 此是毘婆尸如來, 無所著等正覺.”

103) 卍60 p.442b13과 大40 p.712b3과 藥師寺藏本에는 ‘忍’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65b11에는 ‘犯’으로 되어 있다.

滅火. 勝義之孝, 以慈報怨, 如水滅火. 旣信六道, 皆我父母, 豈爲一親, 更害一親? 彼殺今親, 後墮地獄, 但可悲愍, 更無可報. 故慈心平等解怨, 速令斷絕, 孝中之孝. 言而出家菩薩, 無慈報讎者, 出家有二, 一心出家, 二身出家. 故通二衆, 不忍爲罪,¹⁰⁴⁾如戒經如. “忍辱第一道, 佛說無爲最. 出家惱他人, 不名爲沙門.”

㊤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慢人輕法戒第二經

□ 불자들이여! 처음 출가하여 아직 아는 것이 없으면서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고 믿거나, 혹은 고귀하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 혹은 집안과 가문이 높다거나, 많이 안다거나 복이 많다거나, 재물과 칠보가 넉넉함을 자랑하여 이러한 교만으로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을 묻고 배우지 않는다. 그 법사가 종성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비천한 가문이거나 가난하거나 불구[不具]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덕이 있고 일체 경을 다 알고 있다면 처음 배우는 보살은 법사의 종성[種性, 문벌가문]을 보지 말고 가서 법사에게 제일의 진리[第一義諦]를 묻고 배워야 하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初始出家, 未有所解, 而自恃聰明有智, 或恃高貴年宿, 或恃大姓高門, 大解大福, 饒財七寶, 以此憍慢, 而不諮受先學法師經律. 其法師者, 或小姓年少, 卑門貧窮, 諸根不具, 而實有德, 一切經律盡解, 而新學菩薩, 不得觀法師種姓, 而不來諮受法師第一義諦者, 犯輕垢罪.

104) 卍60 p.453a9와 大40 p.712b14과 藥師寺藏本에는 ‘非’로 되어 있으나 韓3 p.465c2에는 ‘罪’로 되어 있다.

■ 옛 사람들은 법을 구하기 위하여 몸을 불구덩이에 던졌고, 반 구절의 계송을 듣기 위하여 설산에서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였으며,¹⁰⁵⁾ 왕의 몸으로 나찰의 평상이 되기도 하였고, 하늘 옷으로 여우의 자리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정수리가 비록 존귀하나 짐승의 발을 머리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진실로 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한 자들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가법계 업신여기는 것을 제정하여 죄라고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지혜가 있다고’에서 ‘많이 알고 있다’까지는 세속의 일이다.

述曰, 昔人求法, 投身火院¹⁰⁶⁾, 欲聞半偈, 懸命雪山, 王身亦爲羅刹之牀, 天衣復作野干之座, 天頂雖尊, 戴畜生足. 良由重法, 爲先者乎, 是故輕慢, 制之爲罪. 此中有智及大解者, 世俗事也.

㉔ 새로 배우는 자를 경멸하지 말라 輕蔑新學戒第三經

□ 불자들이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으려 하거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계 받기를 서원하고 반드시 7일 동안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여 좋은 징조[好相, 불보살의 출현]를 보게 되면 문득 계를 얻게 되느니라. 만약 좋은 징조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14일

105) 구역(舊譯) 60 『대방광불화엄경』 제25 ‘만일 누가 한 글귀의 법을 설해 주어 나로 하여금 청정한 보살행을 얻게 해준다면 설령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큰 불속이라도 범천의 하늘 위에서 저 불길 속에 몸을 던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길 것이다.’라는 말 외에도 ‘그대는 어서 법을 말하라. 내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리라.’고 한 구선법왕보살과 금강사유보살의 이야기나 「입법계품(入法界品)」 중 선재의 53선지식 구법 가운데 승렬바라문 참문시 구도행각이 모두 불[火]과 관계가 있다. 반 구절의 계송을 듣기 위하여 설산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이야기는 『대반열반경』의 설산동자(雪山童子)의 구법행이다.

106) 卍60 p.453과 大40 p.712과 藥師寺藏本에는 ‘坑’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65c14에는 ‘阮’으로 되어 있다.

이나 21일에서부터 1년에 이르기까지 좋은 징조 얻기를 구하여야 하나니, 좋은 징조를 얻고 나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것이요. 만약 좋은 징조를 보지 못하였으면, 비록 불상 앞에서 계를 받을지라도 계를 얻었다고 할 수 없느니라. 만약 현전(現前)에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 앞에서 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좋은 징조를 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법사의 계가 스승과 스승으로부터 서로 전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징조가 필요하지 않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법사 앞에서 계를 받으면 곧 계가 얻어지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곧 계를 얻게 되는 것이니라.

만약 천리 안에 계를 일러줄 스승이 없으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반드시 좋은 징조를 보아야 하느니라.

만약 법사가 스스로 경율과 대승학계(大乘學戒)를 의지해 알면 국왕이나 태자, 백관에게 주어 선한 벗이 되어야 한다. 처음 배우는 보살이 와서 경전의 뜻과 계율의 뜻을 물을 때 가벼이 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과 교만심으로 하나하나 잘 일러주지 않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佛滅度後, 欲以好心, 受菩薩戒時, 於佛菩薩形像前, 自誓受戒, 當七日 佛前懺悔, 得見好相, 便得戒. 若不得好相, 應二七三七, 乃至一年, 要得好相, 得好相已, 便得佛菩薩形像前受戒, 若不得好相, 雖佛像前受戒, 不名得戒. 若現 前先受菩薩戒, 法師前受戒時, 不須要見好相. 何以故, 以是法師, 師師相授故, 不 須好相, 是以法師前受戒, 卽得戒, 以生重心故, 便得戒. 若千里內, 無能授戒師, 得佛菩薩形像前, 自誓受戒, 而要見好相. 若法師, 自倚解經律大乘學戒, 與國王 太子百官, 以爲善友. 而新學菩薩, 來問若經義律義, 輕心惡心慢心, 不
一一¹⁰⁷⁾ 好答問者, 犯輕垢罪.

■ 보살은 이치로 보아 마땅히 처음 배우는 보살을 칭찬하고 독려해야 할 것인데, 멸시하고 거두어주지 않기 때문에 죄로 제정한 것이다. 『영락경(瓔珞經)』에서는 “만약 한 사람이라도 교화하여 발심시켜 보살계를 받게 한다면, 대천세계에 가득하게 불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수승하다.”¹⁰⁸⁾ 고 하였다. ‘부처님 앞에서 참회한다.’는 것은 참회할 때 그 의미를 굳게 마음 속에 기억하는 것이니 간략하게 계송으로 말하겠다.

부처님께서 중생 제도하기를 서원하셨으니
저도 한 중생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의 선을 두루 아시고 도와주시어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해주소서.

스스로 계를 받은 것[自受羯磨]은 『유가사지론』 「보살지」 41권¹⁰⁹⁾과 같다. ‘만약 천리 안에’ 등은 자수공덕(自受功德)보다 열등하다는 것인가?

107) 卍60 p.454a1과 藥師寺藏本(元祿二年刊)에는 ‘一一不’로 되어 있으나 韓3 p.466a13에는 ‘不一’로 되어 있다.

108)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하권 「보살영락본업경인과품(菩薩瓔珞本業經因果品)」 6(大24 p.1021b10) “又復法師,能於一切國土中,教化一人出家,受菩薩戒者,是法師,其福勝造八萬四千塔.”

109)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21b6) “又諸菩薩,欲受菩薩淨戒律儀,若不會遇具足功德補特伽羅.爾時應對如來像前,自受菩薩淨戒律儀,應如是受.遍袒右肩右膝著地.或蹲跪坐作如是言,我如是名,仰啓十方一切如來已入大地諸菩薩衆.我今欲於十方世界佛菩薩所,誓受一切菩薩學處,誓受一切菩薩淨戒,謂律儀戒,攝善法戒,饒益有情戒,如是學處,如是淨戒,過去一切菩薩已具,未來一切菩薩當具,普於十方現在一切菩薩今具.於是學處於是淨戒,過去一切菩薩已學,未來一切菩薩當學,普於十方現在一切菩薩今學.第二第三亦如是說.說已應起,所餘一切如前應知.”

그렇지 않다. 비록 현재의 인연은 없더라도 마음이 용맹하고 예리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53권에서 “스스로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간에 평등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니 또한 이와 같이 지니면 복덕이 다르지 않다.”¹¹⁰⁾ 고 한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 53권에서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집에 있으면서 생계를 잇기도 어렵다. 출가해야 구제하기 쉬울 것이다. 여러 비구들이 범행(梵行)을 닦는 것처럼 나도 그리하여 목숨이 마칠 때까지 반드시 범행을 닦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뒤 출가해도 계를 지니고자 하는 욕구에 손해를 끼친다고 하지 않는다. 비록 순수하고 깨끗한 것은 아니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¹¹¹⁾ 고 하였으니 이미 그렇다면 또한 보리를 구하지 않고도 보살정계(菩薩淨戒)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성문의 행은 몸과 말을 우선하므로 비록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더라도 범행(梵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보살은 그렇지 않나니, 의지(意地)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혹은 어떤 설에서는 ‘그 글은 마음의 잡념을 나타낸 것일 뿐 온전하게 열반의 의지가 없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述曰，菩薩理應，讚勵新學，而蔑不攝，制之爲罪。如 纓絡¹¹²⁾經云，“若化一人，令發心，受菩薩戒者，勝造大千界滿中佛塔。”

110) 『유가사지론』 53권 「십결택분중(攝決擇分中)」 5 「식신상응지의지(識身相應地意地)」 3 (大30 p.591c19) “問，諸有律儀若由自受，若由他受，若從他受，若自然受。如是所受律儀，所獲福德，爲有勝劣差別不耶？答，若等心受，亦如是持，當知無有差別。”

111) 『유가사지론』 53권 「십결택분중(攝決擇分中)」 5 「식신상응지의지(識身相應地意地)」 3 (大30 p.592a6) “若復有人，作如是思，我處居家，難可活命。要當出家，方易存濟。如諸苾芻所修梵行，我亦如是，乃至命終，當修梵行。如是出家者，不名意樂損害。雖非純淨，非不說名出家受具。”

112)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의 영락은 ‘瓔珞’을 쓰며 甲, 乙, 丙본에도 모두 ‘瓔珞’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66a16에는 ‘纓絡’으로 쓰고 있다.

言佛前懺悔者，謂懺悔時，憶念斯義，略攝頌曰。佛誓度羣生，我入一生數，徧知助我善，一切罪滅除。自受羯磨，如菩薩地四十一說。若千里內等者，若爾自受功德劣耶。不爾。雖無現緣，心猛利故。如五十三云，“自受從他，若等心受，亦如是持，福德無別。”問五十三云，“若復有人，作如是思，‘我處居家，難可活命。要當出家，方易存濟。如諸苾芻所修梵行，我亦如是，乃至命終，當修梵行。’如是出家，戒不名意樂損害。雖非純淨，非不說名出家受具。”既爾亦可不求菩提，亦有受得菩薩淨戒？答聲聞之行，身語爲先，雖心不純梵行容成，菩薩不爾，存意地故。或說，“彼文顯此心雜，非說都無涅槃意樂。”

② 견해를 함께하여 수행 見解同修

⊖ 수승한 것을 두려워하고 열등한 것을 따르지 말라 怖勝順劣戒第四經

□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경율과 대승법과 바른 지견과 바른 성정[正性]과 바른 법신(法身)이 있어도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 익히지 않으면 칠보를 버리는 것과 같나니, 도리어 사된 견해인 이승(二乘)과 외도의 세속 책과 아비담잡론(阿毘曇雜論)과 서기(書記)를 배우면, 이는 불성(佛性)을 끊고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되며,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고의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有佛經律, 大乘法正見, 正性正法身, 而不能勤學修習, 而捨七寶, 反學邪見, 二乘, 外道俗典, 阿毘曇雜論書記, 是斷佛性, 障道因緣, 非行菩薩道, 若故作者, 犯輕垢罪.

■ 대승을 만나기 어려움은 경에서 자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보살’이란 대승을 배우는 사람이다. 자신의 무지를 안고 나쁜 벗을 따라 돌아다니는

과실을 막기 위하여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부처님의 경율과 대승법이 있다.’는 것은 교법(敎法)을 말함이니 외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경율’이라고 하였고 이승(二乘)과는 다르므로 ‘대승법’이라고 하였다. ‘바른 지견’이란 수행하는 법이며 바른 성정(正性)이란 이치에 맞는 법[理法]이며, 법신(法身)이란 과법[果法]이다.

‘칠보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대승법을 보배라고 여길만 하기에 비유를 따라 이름한 것이니, 칠보를 버리고 도리어 기와 조각을 가지는 것과 같다. 혹 어떤 경본(經本)에서는 “칠보를 버리지 않고”라고 하였으니, 곧 세상에서도 진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보태지고 덜어진 것[增減]을 ‘삿된 견해’라고 하며, 소승론 등을 ‘아비담(阿毘曇)’이라 이름하고, ‘서기(書記, 글씨 그림 산수 등)’란 세간의 꾸며진 문장들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정법과 비슷하게 펴며 세간의 문장(文章)과 명수(明數, 사주명리학)에 간여하여 보살과 비슷한 공덕[相似功德]이라 한다.”¹¹³⁾고 하였다. ‘이는 불성(佛性)을 끊고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에서 물려나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므로 ‘불성(佛性)을 끊는다.’고 한 것이요, 삿된 것을 소중하게 여겨 바른 것을 잃게 하므로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라고 한 것이다.

계경(契經)은 “대승법이 유행하여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법화경(法華經)』은 “소승을 배우는 사람과는 함께 머물지 말라.”¹¹⁴⁾고 한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는 “보살장(菩薩藏)을 아직

113) 『유가사지론』 46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보살공덕품(初持瑜伽處菩薩功德品)」 18(大30 p.546c5) “又諸菩薩, 略有五種相似功德, 當知實是菩薩過失, 何等爲五. 一者於其暴惡毀犯淨戒諸有情所, 由是因緣作不饒益. 二者詐現種種具足威儀. 三者於順世間文詞咒術外道書論相應法中, 得預智者聰叡者數. 四者修行有罪施等善行. 五者宣說建立像似正法, 廣令流布.”

114)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5권 「안락행품(安樂行品)」 14(大9 p.37a26) “又不親近

정밀하게 연구하지 못하였으면서 오로지 성문과 외도의 학설 등을 배운다면, 이것은 물들어 범하는 것이다. 만약 매우 총명하고 영민하여 빨리 배워 잊지 않거나 혹은 그 뜻을 생각하여 통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동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날마다 하루 중에 항상 삼분의 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그 밖의 것을 배워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¹¹⁵⁾라고 한다.

또 “만약 보살이 ‘무엇 때문에 성문장(聲聞藏)의 법을 수지하느냐’고 묻는다면 물들어 범하는 것[染違犯]이다. 오히려 외도의 것도 배울 수 있거늘 하물며 부처님의 말씀이겠는가. 어기고 범함이 없다는 것은 늘 소송만을 익힌 사람들에게 그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설한 것이다.”¹¹⁶⁾라고 한다.

述曰，難遇大乘，如經廣說。言菩薩者，大乘學也。抱己無知，隨惡友轉，爲防此失，故制斯戒。言有佛經律大乘法者，教法也，簡外道故，言佛經律，異二乘故，言大乘法。言正見者行法，正性者理法，法身者果法。言而捨七寶者，大法可珍，從喻爲

施陀羅及畜豬羊雞狗豕獵漁捕諸惡律儀，如是人等或時來者，則爲說法無所希望。又不親近求聲聞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亦不問訊。若於房中，若經行處，若在講堂中，不共住止”

115)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9a23) “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菩薩藏未精研究，於菩薩藏一切棄捨，於聲聞藏一向修學。是名有犯有所違越，無違犯者。若上聰敏若能速受，若經久時能不忘失，若於其義能思能達，若於佛教如理觀察，成就俱行無動覺者。於日日中常以二分修學佛語，一分學外，則無違犯”

116)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9a18) “菩薩何用於聲聞乘相應法教聽聞受持精勤修學。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用於以故。菩薩向於外道書論精勤研究，況於佛語，無違犯者，爲令向習小法者捨彼欲故，作如是說。”

名, 如捨七寶, 反取瓦礫也. 或有經本, “不捨七寶” 卽世珍也. 此中增減, 名爲邪見, 小乘論等, 名阿毗曇, 言書記者, 世間飾文. 瑜伽云, “宣似正法, 及預世間文章明數, 卽菩薩相似功德故.” 是斷佛種障道因緣者, 退大進餘, 名斷佛性, 重邪闕正, 名障道因緣. 如契經云, “大乘法流行, 名佛種子不斷.” 法華經云, “學小乘者, 不應共住.” 如瑜伽云, “於菩薩藏, 未精研究, 專學聲聞及外論等, 是染違犯. 若上聰敏, 速受不忘, 若於其義, 能思能達, 若於佛教, 無動覺者, 於日日中, 常以二分修學佛語, 一分學外, 卽無違犯.” 又云, “若說菩薩, 何用受持聲聞藏法, 是染違犯. 尚學外道, 況於佛語. 無違犯者, 爲令一向習小乘者, 捨彼欲故, 作如是說.”

③ 이양을 균등하게 利和同均

㉠ 주인이 되어 위의를 잃지 말라 爲主失儀戒第五經

□ 불자들이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설법주(說法主)가 되거나, 행법주(行法主)가 되거나, 절 살림을 주재[僧房主]하거나, 중생교화를 주재[教化主]하거나, 참선을 주재[坐禪主]하거나, 행각을 주재[行來主]하면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다툼을 잘 화해시키고, 삼보의 물건을 잘 간수하여 함부로 쓰지 말며 자기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다투게 하거나 방자한 마음으로 삼보의 물건을 사용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佛滅度後, 爲說法主, 爲行法主, 爲僧房主教化主, 坐禪主行來主, 應生慈心, 善和鬭訟, 善守三寶物, 莫無度用, 如自己有. 而反亂衆, 鬭諍恣心, 用三寶物者, 犯輕垢罪.”

■ ‘설법주(說法主)’란 곧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법하는 사람이다. ‘행법주(行法主)’가 된다.’는 것은 경장 등을 수호하는 사람이며, ‘승방주(僧房主)’는 강유(綱維, 기강을 세우는 維那 즉 悅衆)와 지사(知事, 절 살림을 주관하는 도감이나 주지)이다. ‘교화주(教化主)’란 세속인을 교화하며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며, ‘좌선주(坐禪主)’는 지관(止觀, 선정과 삼매)을 가르치는 사람이며, ‘행래주(行來主, 승려의 출입 행각을 지도, 禁戒를 지키도록 하는 이)’란 대중을 거느리고 제방을 유행(遊行)하는 이다.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는 이는 인의(仁義)를 존중해야 하나니, 사자(師子)가 옆구리 살을 떼어 원숭이 새끼를 구하고, 녹야원의 사슴 왕이 새끼 뱀 어미사슴을 대신하여 죽음에 나아간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다.

‘자기 것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①자신의 것처럼 여겨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것이고, ②써야 할 곳에서 자신의 것처럼 아껴서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이 계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 쪽에서는 경구죄이고 손상된 물건이 있는 쪽에서 보면 바라이(波羅夷)를 범하는 것이다.

述曰 說法主者, 卽說法者. 爲行法主者, 守經藏等, 僧坊房主者, 綱維知事. 教化主者, 化俗護法, 坐禪主者, 教授止觀, 行來主者, 領衆遊方. 汎爲他主, 仁義爲尊, 師子拔脇, 救獼猴子, 鹿苑鹿王, 代孕就死, 卽其事也. 如自己有者, 謂有二義, 一勿如己有任意用也, 二勿應用處如己吝惜. 今此戒中, 不守護邊, 得輕垢罪, 約所損物, 犯波羅夷.

㉔ 객스님인 줄 알면서 혼자만 이익을 받지 말라 領實違式戒第六經

□ 불자들이여! 먼저 승방(僧房)에 머무르고 있는데 나중에 객 보살비구(客菩薩比丘, 보살계를 받은 비구)가 승방이나 사택(舍宅)이나 성(城), 혹은

마을이나 국왕의 사택(舍宅)으로부터 여름 안거하는 곳이나 법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먼저 있던 스님은 반드시 영접하고 또 환송하며, 음식을 공양하고 방사(房舍)와 와구(臥具), 승상(繩牀) 등을 필요할 때마다[事事] 제 공해 주어야 하느니라. 만약 물건이 없으면 자기의 몸이나 아들과 딸을 팔아서라도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어야 하며, 만약 어떤 단월(檀越)¹¹⁷⁾이 와서 대중스님을 청하면 객승도 이양을 받을 몫이 있으므로 승방주(僧房主)는 반드시 차례대로 객승도 공양을 받을 수 있도록 청하여야 한다. 만일 먼저 살던 스님만 청하고 객승을 청하지 않으면 승방주는 한량없는 죄를 짓게 되나니 축생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사문(沙門)이 아니며 불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고의로 저지르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先在僧房中住, 後見客菩薩比丘, 來入僧房舍宅, 城邑國王宅舍中, 乃至夏坐安居處, 及大會中先住僧, 應迎來送去, 飲食供養, 房舍臥具, 繩牀事事給與. 若無物, 應賣自身及男女身, 供給所須, 悉以與之, 若有檀越, 來請衆僧, 客僧有利養分, 僧房主, 應次第差客僧受請. 而先住僧獨受請, 不差客僧, 僧房主得無量罪, 畜生無異, 非沙門, 非釋種姓. 若故作者, 犯輕垢罪.”

■ 불종(佛種)에 참예(參預)하였으면 법(法)과 이양[利]을 마땅히 같이 해야 하나 공평하게 쓰지 않으므로 계를 제정하여 죄라 하는 것이다.

‘여름 안거하는 곳’은 북병주(北并洲)의 『소(疏)』에서 말하기를 “옛 경론(經論)에서는 좌하(坐夏) 혹은 좌납(坐臘), 하납(夏臘)이라고도 하였는데 모두 옳지 않으니 방언(方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대

117) 단나빠씨는 ‘단월(檀越)’을 말한다. 단(檀)은 보시(布施)를 말하고 월(越)은 건너다는 뜻으로 보시의 복덕종자로써 빈궁(貧窮)의 바다를 건너가게 한다는 뜻이다.

당(大唐) 삼장(三藏)이 번역한 ‘우안거(雨安居)’에 의거하니 비 오는 기간에 안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방(西方)에서는 그 시기가 같지 않으니 혹은 네 시기[四時]를 세우기도 하는데, 정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봄철이 되고,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여름철이 되며, 이와 같이 가을과 겨울을 아울러 각각 세 달씩 계산하여 정월 15일에 이르면 이것을 한 해로 여긴다. 혹은 1년을 모두 삼시(三時)로 나누기도 하는데 불법(佛法)에서도 이에 의하여 정하였다. 정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무더울 때[熱際]라고 하고, 5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비올 때[雨際]라고 하며, 9월 16일부터 정월 15일까지는 추울 때[寒際]라고 하였다. 비 올 때는 벌레가 많은데도(다니므로) 사람들이 꾸짖고 비방하니 안거하도록 제정하였다. 그러나 첫 안거[初安居]는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우기가 끝난 후부터 추워지려고 할 때까지 스스로를 구제(救濟)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한 달을 열어 수고로움에 보상하는 달[償勞月]로 삼았다. 후안거(後安居)는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니 이 때는 곧 수고로움을 보상하는 달이 없다[無償勞]. 석 달의 우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중국)에서는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안거를 잡은 것은 실로 소(疏)의 오류¹¹⁸⁾이니 아직 여름철이 아닌데도 우안거(雨安居)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객승도 이양을 받을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심에서 나온 보시는 시방의 모든 승에게 해당되므로 부처님께서 승의 차례[僧次]를 제정하신 것이다.

‘한량없는 죄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시방의 현전승물(現前僧物)¹¹⁹⁾을

118) 『북병주소(北井洲疏)』를 인용한 것은 잘못된 번역어들을 사용하였다는 의미이다. 부연하면 안거 석 달 동안 출입하지 못하므로 끝난후 한 달 동안 옷도 구하고 소지품도 정리하는 기간을 정했는데 이를 보상하는 달[償勞月]이라고 하였다. 단, 후안거는 끝나도 이 제도가 없다는 말이다.

흠치는 것은 이양이 비록 작을지라도 시방승(十方僧)¹²⁰⁾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述曰, 預在佛種, 法利應同, 而不平用, 故制爲罪. 夏坐安居處者, 北并洲疏云, “昔來經論, 或名坐夏, 或名坐臘. 或名夏臘, 皆由不善方言也.” 今依大唐三藏譯云雨安居, 謂雨時安居故. 然西方立時不同, 或立四時, 謂從正月十六日, 至¹²¹⁾四月十五日爲春時, 從四月十六日, 至七月十五日爲夏時, 如此秋冬並, 各三月, 至正月十五日, 總爲一歲. 或總一年, 分爲三時, 謂卽佛法, 依此爲定. 謂從正月十六日, 至五月十五日, 以爲熱際, 從五月十六日, 至九月十五日, 立爲雨際, 從九月十六日, 至正月十五日, 卽爲寒際. 雨際蟲多, 令人譏謗, 故制安居. 然初安居, 卽從五月十六日, 至八月十五日, 良以雨時將畢, 恐至寒時不濟, 故開一月, 爲償勞月. 若後安居, 從六月十六日, 至九月十五日, 卽無償勞. 三月雨時盡故. 今此四月十六日, 至七月十五日, 實爲疏謬, 旣非夏時, 言雨安居. 言客僧有利養分者,

119) 현전(現前, saṃmukhī-bhūta)이란 ‘얼굴을 서로 향하여 성립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성립되어 있는 승가(僧伽)’라는 의미이다. 가는 곳마다 그 결계(結界) 내에 있는 비구들로 구성된 승가의 의미이다. 현전승물(現前僧物)이란 한 사찰에 거주하는 현재의 대중에게 돌아가는 물건이니, 시주가 현재의 대중에게 보시한 옷이나 음식 등이다. 반면 시방승 모두의 공유물로 사찰, 논, 밭, 산 등을 사방승물(四方僧物)이라고 한다.

120) 시방승(十方僧)이란 사방승(四方僧)이라고도 하며 사방으로 확대되는 승가를 말한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사방에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미래[已來·當來]로 확대되어 시공을 초월한 일체 승가를 말한다. 이것은 현전승가의 기반이 되는 승가이다.

121) 卮60 p.456a5와 大40 p.713a23과 藥師寺藏本에는 ‘室’로 되어 있으나 韓3 p.467b8에는 ‘至’로 되어 있다.

信施該十方，佛制僧次故。言得無量罪者，以盜十方現前僧物，利縱微小，僧無邊故。

㉔ 다른 사람의 별청을 받지 말라 受他別請戒第七經

□ 불자들이여! 별청¹²²⁾으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양을 일체 받지 말라. 이러한 이양은 시방승에 속한 것인데 따로 청을 받아서 시방승물(十方僧物)을 가지고 자기 혼자 독차지하면 팔복전(八福田)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성인(聖人)과 낱낱의 사승(師僧)과 부모와 병자의 물건을 자기 혼자 수용하는 것이 되므로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一切不得受別請, 利養入己. 而此利養, 屬十方僧, 而別受請, 卽取十方僧物入己, 八福田中, 諸佛聖人, 一一師僧, 父母病人物, 自己用者, 犯輕垢 罪.

■ 시주의 한량없는 복을 손상시키고 또한 대중스님들의 평등한 이익을 잃게 하므로 필요하여 제정한 것이다.

‘일체를 받지 말라.’는 것은 성문이 두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따로 별청 받는 것[別請]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구분하기[簡別] 위함이다. ‘이양(利養)은 시방승(十方僧)에 속한다.’는 것은 차례대로 받으면 이치로 보아

122) 별청(別請)이란, 차례를 뛰어 넘어 특정인을 따로 지명하여 청하는 일. 『비구유공법행경(比丘應供法行經)』과 『거사복전경(居士福田經)』에 ‘만일 나의 제자 가운데 별청을 받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결정코 일과(一果) 이과(二果) 삼과(三果) 사과(四果)를 잃을 것이니 비구라고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국왕의 땅을 밟고 다닐 수도 없고 나라의 물을 마실 수도 없으며 5백명의 큰 악귀가 그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 비구는 7겁을 두고 부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단월의 물건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오천명의 큰 귀신들이 항상 그 뒤를 따르며 불법 가운데 큰 도적이라고 할 것이니, 모든 비구는 별청을 받지 말라.’고 하였다.

시방승(十方僧)과 팔복전(八福田)에 속하기 때문이다. ‘시방승물(十方僧物)을 취(取)하여 자신에게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이미 남의 보시를 받은 것이므로 제2의 중계[第二重, 劫盜人物戒]는 아니다. ‘팔복전(八福田)’은 본문에서 말한 ‘부처님’ 등이니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보살지(菩薩地)』에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청하는데 싫어하고 성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물들어 어기고 범한 것[染違犯]이라고 하였겠는가?”¹²³⁾ 그 외에 자제하게 설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 또한 차례대로 청[次第請]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설법 등을 하려고 함에 따로 교화할 대상이 있으면 스님들의 차례[僧次]와 관계없이 별칭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제정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뒤의 것이 수승하니 앞에서는 설법한 자에게 공양하는 것을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述曰, 以損施主無限之福, 亦失衆僧平等之利, 故須制也. 言一切不得受者, 爲簡聲聞, 若非頭陀許受別請. 言而此利養, 屬十方僧者, 若次第受, 理屬十方僧, 及八福田故. 言卽取十方僧物入己者, 旣受他施, 非第二重. 八福田者, 如文佛等, 前已說也. 若爾何故, 菩薩地云, “他來延請, 嫌恚不受, 是染違犯?” 乃至廣說. 有說, “彼亦次第請.” 有說, “欲說法等, 別有所化, 不關僧次得受別請, 如此不受, 如論所制.” 以後爲勝, 前說供養說法者故.

123)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6b14) “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 他來延請, 或往居家或往餘寺, 奉施飲食及衣服等諸資生具. 憍慢所制懷嫌恨心懷恚惱心, 不至其所不受所請, 是名有犯有所違越, 是染違犯.”

④ 스스로 스님을 별칭하지 말라 自別請僧戒第八經

□ 불자들이여! 출가보살과 재가보살과 모든 단월들이 복전인 스님[僧福田]¹²⁴⁾들을 청하여 원을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승방에 들어가서 일을 맡은 스님[知事人, 사중 물건을 보관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소임자]에게 ‘지금 스님을 청하고자 합니다.’ 하고 물어야 하며, 일을 맡은 스님은 ‘차례대로 청하면 곧 시방의 현성승(賢聖僧)¹²⁵⁾을 얻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지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오백아라한(五百阿羅漢)이나 보살승(菩薩僧)만 따로 청하니, 스님들의 차례[僧次]에 의한 한 범부승(凡夫僧)을 청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스님을 별칭하는 것은 외도의 법이며 과거칠불에게는 따로 청하는 법이 없으니 효순 하는 도가 아니다. 만약 고의로 스님을 별칭하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有出家菩薩, 在家菩薩, 及一切檀越, 請僧福田, 求願之時, 應入僧坊, 問知事人, 今欲(請僧求願, 知事報言)¹²⁶⁾次第請者, 即得十方賢聖僧. 而世人別請五百羅漢菩薩僧, 不如僧次一凡夫僧. 若別請僧者, 是外道法, 七佛無別請法, 不順孝道. 若故別請僧者, 犯輕垢罪.

■ 이중 보살[二衆菩薩,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에게 바로 제정한 것을 일

124) 승복전(僧福田)은 팔복전의 하나로 단월들이 보시하여 복을 심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부른다.

125) 현성(賢聖)은 소승의 삼현(三賢) 사선근(四善根)의 칠현(七賢)과 수신행(隨信行)과 수법행(隨法行), 구해탈(俱解脫)을 합한 일곱을 현성(賢聖)이라 하고 사성제(四聖諦)를 증득한 이를 성(聖)이라 한다. 대승에서는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回向)의 삼현(三賢)과 십지(十地)의 성인(聖人)을 말한다.

126) 韓3 p.468a2에는 괄호 안의 경문(請僧求願 知事報言)이 빠져 있으므로 『범망경』 원문에 의거하여 넣었으며 이에 준하여 해석문을 달았다.

체 단월에게도 아울러 제정한 것이다.

‘시방의 현성승(賢聖僧)을 얻는 것’이란 화합해 있는 스님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공양하기 때문이니,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바로 모든 강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스님들의 차례[僧次]에 의한 한 범부승(凡夫僧)을 청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고 한 것에 대하여 묻기를 ‘마음을 넓게 쓰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것이 그와 같다면, 또한 우연히 마주친 어떤 사람을 결정코 죽었다면 일체유정계(一切有情界)를 죽인 죄를 얻게 되는 것인가?’ 답하기를 ‘그렇지는 않다. 제불의 본원(本願)은 두루 받아들임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넓은 원력없이 한결같이 다른 것을 두루 해치는 것은 안 된다. 그가 받을 괴로움이 마땅히 다할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다른 도[別道, 외도는 별칭을 허락함]의 덕을 희망함이 있으면 제외한다.

述曰, 二衆菩薩, 正所制也, 一切檀越, 兼所制也. 言即得十方賢聖僧者, 於一味僧, 廣心供故, 如飲海水, 即飲諸河. 言不如僧次一凡夫僧者, 問以廣心故, 得福如此, 亦可無擇, 逢一定殺, 得殺一切有情界罪? 答不爾. 諸佛本願, 徧許受故. 然無普願, 害一徧餘不爾. 彼受苦, 應無盡期故. 言犯輕垢罪者, 除有希望別道德也.

④ 계로써 화합하여 함께 닦음 戒和同修

⊖ 샀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말라 邪命養身戒第九經

□ 불자들이여! 악한 마음으로 이익을 얻고자 남녀의 성[色]을 팔거나,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되 스스로 갈거나 스스로 찢거나, 남녀를 점치고 상(相)을 보거나 꿈의 길흉을 풀이하거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점치거나, 주술(呪術)을 쓰거나, 교묘한 기술을 익히거나, 매를 길들이는 방법을

쓰거나, 백가지 독약과 천 가지 독약과 뱀의 독과 (가짜)금은을 만들거나 고독(蠱毒)¹²⁷⁾을 만들지 말지니, 이런 일은 도무지 자비심이 없는 것이므로 고의로 하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以惡心故, 爲利養, 販賣男女色, 自手作食, 自磨自舂, 占相男女, 解夢吉凶, 是男是女, 呪術工巧, 調鷹方法, 和合百種毒藥, 千種毒藥蛇毒, 生金銀蠱毒, 都無慈心, 若故作¹²⁸⁾者, 犯輕垢罪.

■ ‘남녀의 성[色]을 판다.’는 것은 율락업으로 이양을 구하는 것이니, 이는 파는 편에서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접촉(惡觸)으로 중생을 무너뜨리는 등의 죄이니 도리어 세간에서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가보살에게는 제정하지 않았다.

‘남녀를 점치고 상(相)본다.’는 것은 결혼이 마땅한지 점치거나 또 손금을 보는 것이며, ‘꿈의 길흉(吉凶)을 풀이하는 것’은 꿈 해몽이다. ‘이는 남아(男兒)다 이는 여아(女兒)다 하는 것’은 태아(胎兒)를 점치는 것이며, ‘주(呪)’는 저주(呪咀)이고 ‘술(術)’은 현혹(眩惑)하는 것이고 ‘교묘함[工巧]’은 기술이며 ‘뱀 독(毒)’은 5월 5일의 독사로 독약(毒藥)을 만드는 것이다. 또 독약을 써서 뱀 등을 피하는 것이다. ‘금은(金銀)을 만든다는 것은’ 가짜 금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고독(蠱毒)’은 귀신을 부리는 것 등이다.

127) 독 안에 독사, 두꺼비, 지네 등을 넣어두면 서로 독을 뱉고 싸우다가 제일 독한 것이 살아남는다. 최후까지 남은 독충으로 만든 약을 고독(蠱毒)이라고 한다.

128) 卍60 p.458b6과 藥師寺藏本(元祿二年刊)에는 ‘養’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69a2에는 ‘作’으로 되어 있다.

述曰, 販賣男女色者, 以開姪肆, 而求利也, 此販賣邊, 犯輕垢罪. 自手作食者, 卽是惡觸, 壞生等罪, 反作世間之所嫌也. 此一不制在家菩薩. 占相男女者, 占婚嫁宜, 又相手文等, 解夢吉凶者可解. 是男女者, 占卜胎也, 呪者呪咀, 術卽眩惑, 工巧爲匠也, 蛇毒者, 如五月五日, 毒蛇合毒藥. 又以毒藥, 避蛇等也. 生金銀者, 造假金銀, 以誑惑人, 蟲毒者, 使鬼等也.

㊤ 거짓으로 친한 척하며 중생을 해치지 말라 詐親害生戒第十經

□ 불자들이여! 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친한 척 아부하며 입으로는 공을 말하면서도 행은 유(有)에 있으며 백의(白衣, 재가 속인)와 통하여 남녀(男女)를 사귀게 하거나 음행으로 속박하며 육재일(六齋日)¹²⁹⁾과 매년 삼장재월(三長齋月)¹³⁰⁾에 중생을 죽이거나 도둑질해서 재(齋)를 깨뜨리고 계를 범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129) 재가 신자가 한 달에 6일을 출가인과 함께 재계를 지키는 것을 말하며 매달 8, 14, 15, 23, 29, 30일이다. 적은 달은 28, 29일이 되며 이 육재일에 사천왕이 천하를 순행하면서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날이다. 8일과 23일은 사천왕이 사자를 보내서 순찰하고 14일과 29일은 사천왕이 태자를 보내서 순찰하며 보름과 그믐날은 사천왕이 직접 내려와 순찰을 하는데 인간세상 사람들이 재일도 안 지키고 나쁜 짓만 하면 제석천왕이 '세상이 참으로 위태롭구나.' 하고 통곡한다는 것이다.

130) 1년에 정월, 오월, 구월의 초하루부터 15일까지 8재계를 지키는 것을 말하며 한 달 동안 재계를 지킨다고 하여 장재월(長齋月)이라고 한다. 정월은 모든 생명이 약동하려하고 오월은 번식의 달이며 구월은 생식(生殖)의 달이므로 살생을 금하는 재월(齋月)을 삼은 것이다. 또 사천왕이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달이라고도 하는데 정월달과 오월, 구월에는 사천왕이 남염부주(南閼浮州)에 와서 순찰하고 이월, 유월, 시월에는 동비바제(東弗婆提)를, 삼월, 칠월, 십일월은 서구타니(西瞿陀尼)를, 사월, 팔월, 십이월은 북구로주(北俱盧州)를 순찰한다. 다시 정월부터 남점부주 차례가 되므로 삭발은 하지 않더라도 팔관재계를 지키며 일종식으로 출가자가 되게 하는 제도이다.

若佛子! 以惡心故, 自身謗三寶, 詐現親附, 口便說空, 行在有中, 爲白衣通, 致男女交會, 姪色縛著, 於六齋日, 年三長齋月, 作殺生劫盜, 破齋犯戒者, 犯輕垢罪。

■ 삼보를 비방하는 것은 제10중(第十重, 毀謗三寶戒)에 들어가나 속이거나 이익을 찾는 편에서 모두 이 죄를 얻게 된다.

중매는 음행을 하게 하는 것이니 제3중(第三重, 無慈行欲戒)에 들어가며 중매를 성취하는 편에서는 이 죄가 결성(結成)된다. 그 ‘죽이거나’ 등도 마땅히 그러하니 재(齋)를 공경하지 않는 편에서 제정하여 경죄를 삼는다. ‘육재(六齋)’란 흑월(黑月)과 백월(白月)에 각각 셋이니 8일과 14일과 15일이다. 이 날은 귀신이 힘을 얻어 사람을 다치게 하므로 그 해를 면하게 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매년 삼장재(三長齋, 일년 중 으뜸 되는 정월과 오월, 구월의 세 달이다)’란 『제위경(提謂經)』¹³¹⁾에서 “정월(正月)의 본재(本齋, 1일부터 15일까지) 십오일 동안과 5월의 본재(本齋) 십오일 동안, 9월의 본재(本齋) 십오일 동안이다.”라고 하였다. 삼재(三齋)의 인연은 경에서 자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述曰, 此謗三寶, 第十重攝, 詐覓利邊, 并得此罪. 媒嫁令姪, 第三重攝, 然就媒邊, 結此罪耳. 其殺生等, 隨應亦爾, 不敬齋邊, 制爲輕罪. 言六齋者, 黑白各三, 謂第八日十四十五. 此日

131) 『제위경(提謂經)』은 북위(北魏)의 담정(曇靖)이 찬술(撰述)한 위경(僞經)이다. 『제위파리경』 또는 『제위오계경』이라고도 한다. 내용은 부처님이 제위와 파리 두 상인에게 오계(五戒), 오상(五常)과 십선(十善), 삼장재(三長齋), 육재일(六齋日) 등의 법을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은 소실되어 전하지 않으나 여러 서적에 많이 인용되어 있다. 그 중 여기 언급된 삼장재월(三長齋月)의 인연에 대하여는 당(唐) 도세(道世)스님이 지은 『법원주림(法苑珠林)』 88권(大53 pp.932b-933c)에서 참고할 수 있다.

鬼神，得勢傷人，爲令免害故須制也。年三長齋者，提謂經云，
“正月本齋十五日，五月本齋十五日，九月本齋十五日。”三齋
因緣，如經廣說。

⑤ 총히 결론 지음 總結

□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반드시 배워서 공경심으로 받들어 지켜야 하
니 「제계품(制戒品)」에서 자세하게 해석하였다.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制戒品中，廣解。

(4) 아홉 가지 계를 가림 判九戒

■ 다음의 아홉 가지 계는 바르게 베풀도록 권하고[開正施故], 마음대로
취하는 것을 막으며[遮橫取故], 샷된 인연을 피하고 바른 대승법에 나아가
게 하며, 구하기를 발원하며, 서원을 세워 (샷된 법을) 싫어하며, 어려움을
여의고[離難故], 난(亂)이 없게 하며, 이롭고 안락하게 하려는 것이니, 마
땅히 알아야 한다.

自下九戒，開正施故，遮橫取故，避邪緣故，趣正乘故，發願求
故，立誓厭故，離難故，無亂故，利樂故，所爲應知。

① 바르게 베푸는 것을 격려하심 開正施故

⊖ 존귀한 이를 액난에서 구해 내라 不救尊厄戒第一經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들이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악한
세상[惡世]¹³²⁾에서 외도와 모든 악인들과 도둑들이 불보살과 부모의 형상

132) 악세(惡世)란 불멸후 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末法) 가운데 말법세상으로
교리(敎理)는 있으나 행과(行果)가 없는 투쟁견고의 시대이다.

을 팔거나 경을 팔거나, 비구와 비구니를 팔거나 또는 발심한 보살과 도인을 팔아서 관청의 하인이 되게 하거나 일체 사람들에게 주어 노비가 되게 하면, 보살은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 반드시 자비심을 내어 방편으로 구호하며 곳곳에서 교화하여 불보살의 형상과 비구와 비구니와 발심한 보살과 모든 경을 재물로 값을 치르고 구해내야 한다. 만약 값을 주고 구해내지 않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佛言佛子! 佛滅度後, 於惡世中, 若見外道一切惡人劫賊, 賣佛菩薩父母形像, 販賣經律, 販賣比丘比丘尼, 亦賣發心菩薩道人, 或爲官使, 與一切人, 作奴婢者, 而菩薩見是事已, 應生慈心, 方便救護, 處處教化, 取物贖佛菩薩形像, 及比丘比丘尼, 發心菩薩, 一切經律. 若不贖者, 犯輕垢罪.

■ 보살은 이미 법을 지키고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마음을 삼았으니 값을 치루고 구호하지 않으면 공경을 어기고 자애로움[慈]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값을 치루고 구호하지 않는 것을 죄로 제정한 것이다. ‘부모의 형상’에 대해 법장스님은 “자기 아버지의 형상을 남에게 파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혹은 “부처님을 곧 부모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述曰, 菩薩旣以護法, 度生爲心, 不贖不救, 違敬違慈. 故不贖救, 制爲罪也. 父母形像者, 法藏師云, “己父母形像, 爲他所賣.” 或, “佛卽名父母.”

② 마음대로 갖지 못하도록 遮橫取故

○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지 말라 橫取他財戒第二經

□ 불자들이여! 칼이나 몽둥이나 활이나 화살을 모아 두지 말며, 가벼운 저울과 작은 되로 속여 팔거나 관청의 위세를 빌려서 남의 재산을 빼앗기

나, 해치려는 마음으로 결박하거나 남의 성공[功德]을 파괴하거나 고양이 나 돼지나 개를 기르지 말지니라. 만약 고의로 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不得畜刀仗弓箭, 販賣輕秤小斗, 因官形勢, 取人財物, 害心繫縛, 破壞成功, 長養貓狸豬狗. 若故作者, 犯輕垢罪.

■『유가사지론』「보살지」에서 “물건 주인이 가치를 모르고 싼 값으로 팔려 하면 보살은 알려 주고 제값대로 사야 한다.”¹³³⁾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릇을 속여 작게 주고 (이익을) 많이 취하여 여기고 범함이 심하므로 지금 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칼이나 몽둥이를 모아 두는 것은 앞에서 살생을 좋아하여 모아 두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재가자에게는 비록 사고파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저울이나 되를 속이는 일만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신이 관청의 힘을 믿고 남의 성공을 깨뜨려 공물(功物, 제 힘으로 얻은 물건)이 아닌 것을 받는 것이니 앞(제17輕戒, 依勢惡求戒)에서 남을 빙자하는 것과는 다르며, 이미 남이 준 것을 취하는 것이므로 도계(盜戒)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고양이 등을 기르는 것은 재물을 구하기 위한 도구이다.

述曰, 菩薩地云, “物主迷物, 賤價而賣, 菩薩教悟, 如價賈之.” 然此偽器, 少與多取, 違犯乃深, 故今制也. 今爲護財, 畜刀杖故, 與前愛殺, 而畜者別. 此是在家, 雖許販賣, 但不得以偽秤

133) 『유가사지론』 35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중성품(初持瑜伽處種姓品)」 1(大30 p.479a25) “於其種種末尼眞珠琉璃螺貝壁玉珊瑚金銀等寶, 資生具中, 心迷倒者, 能正開悟, 尙不令他欺罔於彼, 況當自爲.”

斗也. 此自身官, 破他成功, 傾非功物, 異前憑他. 旣取他與, 非盜戒攝, 養貓狸等, 覓財具也.

③ 샷된 인연을 피해서 避邪緣故

⊖ 헛되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 虛作無義戒第三經

□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일체 남녀들의 싸움과 군진(軍陣)의 병장(兵將)들과 도둑들의 싸움을 구경하지 말라. 또한 취패(吹貝, 소라)와 고각(鼓角, 북이나 장구와 빨로 만든 피리)과 금슬(琴瑟, 거문고 비파)과 쟁적(箏笛, 피리)과 공후(箜篌)와 높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소리를 듣지 말지니라. 저포(擣蒲, 옷 투전 노름)와 위기(圍碁, 바둑)와 바라색희(波羅賽戲, 象馬鬪라고도 하며 병전을 본 뜬 일종의 장기)와 탄기(彈碁, 여자들이 텅기면서 하는 놀이)와 육박(六博, 쌍육 주사위 놀이)과 박구(拍毬, 제기차기)와 척석(擲石, 돌팔매)과 투호(投壺, 화살던지기)와 팔도행성(八道行城, 바둑알 텅겨 들어가게 하는 놀이) 등을 하지 말며, 조경(爪鏡)과 지초(芝草)와 양지(楊枝, 버드나무가지)와 발우(鉢盂, 밥그릇)와 축루(髑髏, 해골)로 점을 치지 말며, 도둑의 심부름을 날날이 하지 말지니라. 만약 고의로 하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若佛子! 以惡心故, 觀一切男女等鬪, 軍陣兵將, 劫賊等鬪. 亦不得聽吹貝鼓角, 琴瑟箏笛, 箜篌歌叫伎樂之聲. 不得擣蒲圍碁, 波羅賽戲彈碁, 六博拍毬, 擲石投壺, 八道行城, 爪鏡芝草, 楊枝鉢盂髑髏, 而作卜筮, 不得作盜賊使命, 一一不得作. 若故作者, 犯輕垢罪.

■ 보살은 도를 위하여 시간을 아껴야 하거늘 헛되이 세월을 보내므로 죄로 제정한 것이다.

패(貝)는 소라[螺]이다. 『열반경』에서 “소라를 붙여 시간을 알리는 것이다.”¹³⁴⁾라고 한다. 각(角)도 부는 것이니 서방의 악기이다. ‘바라색희(波羅塞戲)’에 대하여 범장스님은 “이것은 서역국의 병정놀이니, 말하자면 두 사람이 각기 이십여 개의 작은 옥(玉)을 들고 코끼리나 말을 타고 국도(局道)의 위치에서 싸워 요도(要道)를 얻으면 이기는 것이다.”¹³⁵⁾라고 하였다. ‘탄기(彈碁)’는 손가락으로 바둑알을 튕겨서 멀리 가면 이기는 것이니, 세 간에서 말하기를 “바둑알 튕기기는 위(魏)나라 궁(宮)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육박(六博)’은 쌍육(雙六)이며, ‘투호(投壺)’는 작대기를 항아리에 던져 넣는 것이다. ‘팔도행성(八道行城)’에 대한 해석은 없다. 조경(爪鏡)에 대하여 범장스님은 “들은 바에 의하면 서방의 술사(術師)들이 약을 손톱에 바르고 주문을 외워 그 가운데 길흉 등의 일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점치는 일은 모두 요사한 술법이다. 또 지초(芝草)를 써서 술법을 부리기도 하고 혹은 양지(楊枝)로 주술을 부리거나 발우로 주술을 부리고 혹은 사람의 해골을 쓰기도 하는 것은 모두 점을 쳐서 길흉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³⁶⁾

述曰，菩薩爲道，應惜寸陰，虛度時節，制爲罪也。貝者螺也。

涅槃云，“吹貝知時也。”角亦所吹，西方樂器。波羅塞戲者，法

134) 『대반열반경』 13권 「성행품(聖行品)」 7-3(大12 p.443b1) “如鳴搥集僧，嚴鼓戒兵，吹貝知時。”

135)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6권 「관청작악계(觀聽作惡戒)」 33(大40 p.649b27) “第三波羅塞戲者，是西國兵戲法，謂二人各執二十餘小玉，乘象或馬，於局道所爭，得要路以爲勝也。”

136) 『범망경보살계본소』 6권 「관청작악계(觀聽作惡戒)」 33(大40 p.649c5) “四狐鏡下，明妖術，戒於中略辨五種。一狐鏡者，承聞西國術師，以藥塗狐甲，咒之即，於中見吉凶等事，故名狐鏡。二用芝草作術。三咒楊枝。四咒鉢。五以人觸體並用作筮占知吉凶。”

藏師云,“是西國兵戲法,謂兩人各執二十餘小玉,乘象或馬,於局道所,爭得要道,以爲勝也.”彈碁者,以指彈碁子,得遠爲勝,世說,“彈碁始自魏宮.”六博者,雙六,投壺者,投杖於壺中.八道行城,(此無譯者)¹³⁷⁾ 爪¹³⁸⁾鏡者,法藏師云,“承聞西方術師,以藥塗爪,甲呪之卽於中,見吉凶等事.此等卜筮,皆妖術也.又用芝草作術,或呪楊枝,或呪鉢盂,或人髑髏,並用作筮卜知吉凶.”

④ 대승법에 바로 나아감에 趣正乘故

⊖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말라 退菩提心戒第四經

□ 불자들이여! 금계(禁戒)를 잘 지켜서 행주좌와(行住坐臥)에 낮과 밤 육시(六時)동안 이 계를 독송하기를 마치 금강(金剛)과 같이 해야 하며 부낭을 지고 큰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이 해야 하고 초계비구(草繫比丘)와 같이 해야 하리라. 항상 대승에 선심을 내며 스스로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요, 제불은 이미 다 이루신 부처’인 줄 알아서 보리심을 내어 생각 생각으로 마음에서 여의지 말지니라. 만약 일념이라도 이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護持禁戒, 行住坐臥, 日夜六時, 讀誦是戒, 猶如金剛, 如帶持浮囊, 欲度大海, 如草繫比丘. 常生大乘善信, 自知我是未成之佛, 諸佛是已成之佛, 發 菩提心, 念念不去心. 若

137) 卍에는 “此無譯者”가 협주(夾註)로 처리되어 있으나 韓에서는 본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大에서는 ‘譯’을 ‘釋’으로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번역문에서도 그것이 의미상 더 정확하다고 보아 ‘번역’보다는 ‘해석된 것이 없다.’로 보았다.

138) 卍60 p.459a과 大4 p.714a과 藥師寺藏本에는 ‘抓’로 되어 있으나 韓3 p.469b에는 ‘爪’로 되어 있다.

起一念二乘外道心者, 犯輕垢罪.

■ 대보리심(大菩提心)은 만 가지 행의 근본이며 보살의 깨끗한 계는 세 가지 덕[三德, 恩德·斷德·般若德]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제정하였으니 굳게 지녀서 잠시라도 잃어버리지 말라. ‘행주좌와(行住坐臥)’란 지계의 힘이 서로 이어지기를 권하는 것이니 『화엄경』 계송에서 말한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마치 사람이 나무를 비벼 불을 피우되
불이 붙지 않았는데 자주 쉬면
멈출 때마다 불의 세력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도 그러하니라.¹³⁹⁾

‘금강(金剛)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뜻을 견고하게 하여 무너뜨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부낭(浮囊)을 진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작은 죄를 보고도 큰 두려움을 내야 하니, 미세한 틈이라도 있으면 물에 가라앉기 쉽기 때문이다. 『열반경』에서 “보살이 계 보호하기를 마치 부낭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부낭을 짊어지고 큰 바다를 건너고자 하는데 도중에 나팔이 나타나 부낭을 달라고 졸라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과 같다. 생사의 대해(大海)에서 계의 부낭을 지켜야 하니 아무리 번뇌귀(煩惱鬼)가 구걸하여도 조금도 잘라줄 수 없나니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¹⁴⁰⁾라고 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139)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5권 「보살명난품(菩薩明難品)」 6(大9 p.428c4) “譬如人鑽火, 未出數休息, 火勢隨止滅, 懈怠者亦然.”

140) 『대반열반경』 11권 「성행품(聖行品)」 7-1(大12 p.432b4) 에서 뜻만 취하였다.

것과 같다.

‘초계비구(草繫比丘)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내었다면 끝내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엄경론(莊嚴經論)』에서 “어떤 비구들을 도둑이 옷을 벌거벗기고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 나무뿌리와 풀을 가져와 묶어 놓고 가버렸는데 하룻밤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국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벌거벗은 채 풀에 묶인 이들을 보고 ‘외도인가’¹⁴¹⁾ 하니 곁에 있던 사람이 ‘이들은 불제자(佛弟子)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그 오른쪽 어깨가 검으니 이것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모습[偏袒之相]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왕이 곧 계송으로 물었다.

그대를 보니 병은 없는 것 같고
장성하여 힘도 있어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풀잎에 묶여
종일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는가.

이때 비구들이 계송으로써 답하기를

이 풀이 매우 연약하니
어찌 끊기가 어렵겠습니까마는
다만 불세존께서 금강 같은 계로

141) 옷을 걸치지 않고 발가벗고 탁발하며 수행하는 나형(裸形, ㉔acelaka)외도를 가리킨다. 『미사색오분계본(彌沙塞五分戒本)』(大22 p.197c4-5)에 “만약 비구가 남자든 여자든 나형 외도에게 손수 음식을 주면 바일제 죄를 범하는 것이다. 若比丘, 自手, 與外道裸形, 若男若女食, 波逸提.” 이것을 계기로 90바일제계 중 41번째의 ‘외도들에게 손수 음식을 주지 말라는 계[與外道食戒]’가 제정되었다.

제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심을 내어 풀어주고 옷을 입혀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새 옷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공양하였다.”¹⁴²⁾ 고 하니 하물며 보살계이겠는가? ‘만약 일념이라도 이승 등의 마음을 일으키면 경구죄를 범한다고 한 것’은 대승에서 물러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대반야경(大般若經)』 「계품(戒品)」에서 “만약 보살이 설령 금가사겁(殍伽沙劫)¹⁴³⁾토록 묘한 오욕락을 누리더라도 보살계에서는 오히려 범했다고 하지 않으며,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승의 마음을 일으키면 곧 범했다고 한다.”¹⁴⁴⁾ 고 한 것과 같다.

述曰, 大菩提心, 萬行之本, 菩薩淨戒, 三德之原. 故制堅持, 不應暫失. 言行住坐臥者, 勸勢相接, 如華嚴頌言. 譬如人攢火, 未出數休息, 火勢隨止滅, 懈怠者亦然. 言猶如金剛者, 意堅固不可壞也. 如帶持浮囊者, 見微小罪, 生大怖畏, 微有缺漏, 易沈流故. 如涅槃云, “菩薩護戒, 如護浮囊. 譬如有人, 帶持浮囊, 欲度大海, 路逢羅刹, 乞索浮囊, 不可分與. 生死大海, 護戒浮囊, 煩惱鬼索, 不可小缺, 畏沒死故.” 廣說如彼. 如草繫比丘者, 既生怖已, 終無犯也. 如莊嚴論說, “有諸比丘, 爲賊所剝, 裸形伏地, 以連根草縛之, 經宿不轉. 國王因獵, 見草中裸形, 謂‘是外道’, 傍人答云, ‘是佛弟子, 何以得知, 其右膊全黑, 是偏袒之相.’ 王卽以偈問云. 看時似無病, 肥壯有多力, 如何

142) 『대장엄론경(大莊嚴論經)』 3권 11(大4 p.268c5)에서 뜻만 취하여 인용하였다.

143) 금가사겁(殍伽沙劫, ṣaṅga-vāluka-kalpa)은 갠지스강에 있는 모래 수와 같은 겁이라는 말이다. 곧 무량무변한 시간을 가리킨다. 항가사겁(恒伽沙劫) 또는 항하사겁(恒河沙劫)이라고도 한다.

144)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584권 12 「정계바라밀다분(淨戒波羅蜜多分)」 1(大7 p.1022b10) “如是菩薩, 雖處居家, 經於殍伽沙數大劫, 受妙五欲, 而勝意樂, 常不退壞, 謂常趣求一切智智, 曾不發起二乘之心. 是故不名犯菩薩戒”

爲草繫，日夜不轉側。爾時比丘以偈答曰，此草甚危脆，斷時豈有難，但爲佛世尊，金剛戒所制。王發信心，解放與衣，將至宮中，爲造新衣，種種供養。”況菩薩戒？言若起一念二乘等心輕垢罪者，退乘本故。如大般若戒品云，“若菩薩，設殍伽沙劫，受妙五欲，於菩薩戒，猶不名犯，若起一念二乘之心，卽名爲犯。”

⑤ 여의지 않기를 발원 不離發願故

⊖ 발원을 세워라 不發願戒第五經

□ 불자들이여! 항상 부모와 사승(師僧)과 삼보에게 효순하고자 하는 일체 원을 낼지니라. 좋은 스승과, 함께 공부할 선우(善友)와 선지식(善知識)을 만나 항상 나에게 대승경율의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를 가르쳐주기를 원하며, 나로 하여금 환하게 알게 하여 법답게 수행하도록 하며, 부처님의 계를 굳게 지켜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생각 생각에 마음에서 버리지 않기를 발원해야 한다. 만약 일체 보살들이 이러한 발원을 세우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常應發一切願, 孝順父母師僧三寶, 願得好師同學善友¹⁴⁵⁾知識, 常教 我大乘經律, 十發趣十長養, 十金剛十地, 使我開解, 如法修行, 堅持佛戒, 寧捨身命, 念念不去心. 若一切菩薩, 不發是願者, 犯輕垢罪.

■ ‘바르고 그릇됨[正邪]과 옳고 그름[是非]’은 원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작은 선[小善]만 있어도 한없는 과보를 부르기도 하고, 많은 선[多善]이 있다 하여도 보잘 것 없는 과보로 돌아오기도 하니, 행을 이끌어 과

145) 卍60 p.460a17과 藥師寺藏本(元祿二年刊)에는 ‘反’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70a2에는 ‘友’로 되어 있다.

(果)에 나아감에 발원(發源)이 가장 요점이 된다.

지금 이 글의 뜻은 반드시 대원(大願)을 일으켜서 두 가지 은혜에 효순하라는 것이다. ①이 몸을 낳아 길러주신 은혜이니 부모이다. ②법신을 길러주신 은혜이니 스승과 대중이다. 효순을 인(因)으로 삼고 대원(大願)을 연(緣)으로 삼아 원하는 것을 성취하라는 것이 이 뜻이다.

원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①‘좋은 스승 등을 만난다.’는 것은 선사(善士)를 가까이 하려는 원이며, ②‘항상 나에게 가르쳐 주는 등’은 정법(正法)을 듣고자 하는 원이며, ③‘나로 하여금 환하게 알게 한다.’는 것은 진리(眞理)와 같이 생각하려는 원이며 ④‘법다이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여법하게 법을 따라 행하려는 원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원은 모든 선(善)에 다 들어가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위에서 ‘일체 발원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述曰, 邪正是非, 莫不由願. 或有小善, 招無量果, 或有多善, 感狹小果, 引行趣果, 願爲最要. 今此文意, 應發大願, 孝順二恩. 一覆育生身恩, 卽父母也. 二長養法身恩, 卽師衆也. 孝順爲因, 大願爲緣, 所願成就, 此中意也. 願有四種. 得好師等者, 親近善士願, 常教我等者, 聽聞正法願, 使我開解者, 如理作意願, 如法修行者, 法隨法行願. 如是四願, 盡攝諸善. 是故上言發一切願.

⑥ 서원을 세워야 立誓願故

⊖ 스스로 중하게 여겨 서원을 세워라 不生自要戒第六經

□ 불자들이여! 열 가지 큰 원¹⁴⁶⁾을 세운 다음, 부처님의 금계(禁戒)를 지

146) 홍찬(弘贊)스님은 『약소(略疏)』에서 ‘마음의 번뇌를 막아 계행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십원(十願)으로 선도(先導)하고 다섯 가지 맹서(盟誓)로 그 원(願)을 굳건히 하여 두려움이 없게 해야한다. 십종원(十種願)은 이설(異說)이 있으나 효

니고 다음과 같이 원을 지어 말하기를 ‘차라리 이 몸을 치열하게 타오르는 불구덩이나 칼산[刀山]에 던질지언정 삼세제불(三世諸佛)의 경율을 훼손하여 일체 여인과 더불어 부정한 행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다시 이 원을 짓기를 ‘차라리 뜨거운 쇠 그물을 천 겹 몸에 감을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 믿음이 있는 단월의 일체 의복을 입지 않겠나이다.’하라. 다시 이 원(願)을 짓기를 ‘차라리 이 입으로 뜨거운 쇠구슬을 삼키거나 크게 타오르는 맹렬한 불 속에서 백 천겹을 지낼지언정 결코 파계한 입으로 믿음이 있는 단월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하라. 다시 이 원을 짓기를 ‘차라리 이 몸으로 활활 타는 그물이나 뜨거운 철판 위에 누울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 믿음이 있는 단월의 온갖 상좌(牀座, 자리)를 받지 않겠습니다.’하라. 다시 이 원을 짓기를 ‘차라리 이 몸에 삼백 자루의 창을 찔러 일 겹(一劫)이나 이 겹을 지낼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 믿음이 있는 단월의 온갖 의약을 받지 않겠습니다.’하라. 다시 이 원을 짓기를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철 술에 던져 넣어 백 천겹을 지낼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 믿음이 있는 단월의 수많은 가지가지 방사(房舍)와 옥택(屋宅)과 원림(園林)과 전지(田地)를 받지 않겠습니다.’하라. 다시 이 원을 짓기를 ‘차라리 철퇴(鐵槌)로 이 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부수어 먼지가루로 만들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 믿음이 있는 단월의 공경과 예배를 받지 않

순부모(孝順父母), 효순사승(孝順師僧), 효순삼보(孝順三寶), 좋은 스승과 동학, 선지식 얻기를 원함[願得好師 同學善知識], 항상 대승경율을 배우며[常教大乘經律], 십발취 알기를 원하며[願解十發趣], 십장양 알기를 원하며[願解十長養], 십금강 알기를 원하며[願解十金剛], 십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願解十地]. 다섯 가지 맹서(盟誓)는 ① 탐욕에 물들음을 여의는 이욕서(離欲誓), ② 공양받기를 원하는 수공양서(受供養誓), ③ 공경받기를 원하는 수공경서(受恭敬誓), ④ 육근이 청정하기를 원하는 정육근서(淨六根誓), ⑤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는 도중생서(度衆生誓)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겠습니다.’하라. 다시 이 원을 짓기를 ‘차라리 백 천 자루의 뜨거운 쇠칼과 창으로 두 눈을 도려낼지언정 결코 파계한 마음으로 보기 좋은 색을 보지 않겠습니다.’하라. 다시 이 원을 짓기를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쇠 송곳으로 귀를 뚫어 일 겁이나 이 겁을 지낼지언정 결코 파계한 마음으로 귀에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하라. 다시 이 원을 짓기를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칼날로 코를 베어 제거할지언정 결코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좋은 향기 맡기를 탐하지 않겠습니다.’하라. 다시 이 원을 짓기를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칼날로 혀를 자를지언정 결코 파계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온갖 맛있는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하라. 다시 이 원을 짓기를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그 몸을 베고 찌을지언정 결코 파계한 마음으로 좋은 감촉을 탐착하지 않겠습니다.’하라.

다시 이 원을 짓기를 ‘일체 중생들이 다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할지니 그러나 보살이 이러한 원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發十大願已, 持佛禁戒, 作是願言, ‘寧以此身, 投熾然猛火大坑刀山, 終不毀犯三世諸佛經律, 與一切女人, 作不淨行.’ 復作是願, ‘寧以熱鐵羅網, 千重周匝纏身, 終不以破戒之身, 受於信心檀越, 一切衣服.’ 復作是願, ‘寧以此口, 吞熱鐵丸, 及大流猛火, 經百千劫, 終不以破戒之口, 食信心檀越百味飲食.’ 復作是願, ‘寧以此身, 臥大猛火羅網熱鐵地上, 終不以破戒之身, 受信心檀越, 百種牀座.’ 復作是願, ‘寧以此身, 受三百鉞刺, 經一劫二劫, 終不以破戒之身, 受信心檀越, 百味醫藥.’ 復作是願, ‘寧以此身, 投熱鐵鑊, 經百千劫, 終不以破戒之身, 受信心檀越, 千種房舍屋宅園林田地.’ 復作是願, ‘寧以鐵鎚, 打碎此身, 從頭至足, 令如微塵, 終不以破戒之身, 受信心檀越恭敬禮拜.’ 復作是願, ‘寧以百千熱鐵刀鉞, 挑其

兩目，終不以破戒之心，視他好色.’復作是願，‘寧以百千鐵錐，遍剗刺耳根，經一劫二劫，終不以破戒之心，聽好音聲.’復作是願，‘寧以百千刃刀割去其鼻，終不以破戒之心，貪饕諸香.’復作是願，‘寧以百千刃刀，割斷其舌，終不以破戒之心，食人百味淨食.’復作是願，‘寧以利斧斬斫其身，終不以破戒之心，貪著好觸.’復作是願，‘願一切衆生悉得成佛.’而菩薩若不發是願者，犯輕垢罪.

■ 비록 대원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마음에 중요하게 여겨 다짐하지 않으면 습관이 된 악을 버리기 어렵다. 조개껍질을 기울여서 바닷물을 뜨고¹⁴⁷⁾ 깃을 적서 숲에 뿌리거나¹⁴⁸⁾ 구슬을 얻어 황제를 감동시키는 지극함은 서원을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이러한 까닭에 중요한 약속[要契, 계약]인 계를 제정하여 세웠다.

무엇을 이름하여 십대원(十大願)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발보리심경(發菩提心經)』에서 “처음 발심함에 대비(大悲)를 으뜸으로 삼으며, 모두 더욱 수승한 열 가지 크고 바른 원[十大正願]을 일으킨다.”고 한다.

① 일찍이 지금 있는 선근을 중생들에게 베풀어주어 함께 불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고, ② 이 선(善)으로 인하여 부처님이 없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며, ③ 태어나서는 항상 부처님을 여의지 않기를 마치 그림

147) 『범망경고적기촬요』 5권 52장 후면에서는 『현우경(賢愚經)』 3권의 기사라고 하였다.

148) 『대지도론』 16권 「조품중비리아바라밀의(初品中毘梨耶波羅蜜義)」 27 (大25 p.178c29) “復次，昔野火燒林，林中有一雉，慙身自力，飛入水中，漬其毛羽，來滅大火，火大水少，往來疲乏，不以爲苦。是時天帝釋來，問之言，汝作何等？答言，我救此林愍衆生故。此林蔭有處廣清涼快樂。我諸種類，及諸宗親，并諸衆生，皆依仰此。我有身力，何懈怠而不救之。”

자가 몸을 따르듯 하기를 원하며, ④ 반드시 나를 위하여 설법하여 보살의 오통(五通, 누진통을 제외한 오신통)을 이루기 원하며, ⑤ 이로 인하여 바로 이제(二諦)를 통달하여 정법의 지혜[正法智] 얻기를 원하며, ⑥ 지(智)를 얻어 중생에게 설하여 항상 알게 하기를 원하며, ⑦ 부처님의 힘으로 두루 시방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받들고 법을 들어 널리 중생 거두기를 원하며, ⑧ 듣고 나서 법륜을 따라 굴리며 나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보리심 내기 원하며, ⑨ 보리심을 내고 나서 항상 이롭고 즐거움을 따라 정법을 깊어지기 원하며, ⑩ 깊어지고 나서는 비록 정법을 행하더라도 마음에 행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는 것이다.”¹⁴⁹⁾ 이것을 십대원(十大願)이라 부른다. 총괄적으로 이러한 원을 맹서하면 참된 법계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으며 중생의 세계가 결코 다할 기약이 없는 것과 같다. 이 원을 내고 나서 열세 가지 서원을 세워야 한다. 이 가운데 앞에서부터 열두 가지는 계를 수호하기를 맹세하는 원이며, 마지막 한 가지는 과를 증득하기를 맹세하는 원이다. 처음 가운데 앞에서부터 일곱 가지는 계를 보호하는 율의[護戒律儀]이고,

149) 『발보리심경론(發菩提心經論)』 3권 「원서품(願誓品)」 3(大32 p.510b6) “是故初始發心大悲爲首，以悲心故，能發轉勝十大正願。何謂爲十。願我先世，及以今身，所種善根，以此善根，施與一切無邊衆生，悉共迴向無上菩提。令我此願，念念增長，世世所生，常繫在心，終不忘失，爲陀羅尼之所守護。願我迴向大菩提已，以此善根，於一切生處，常得供養一切諸佛，永必不生無佛國土。願我得生諸佛國已，常得親近隨侍，左右如影隨形，無剎那頃，遠離諸佛。願我得親近佛已，隨我所應爲我說法，即得成就菩薩五通。願我成就菩薩五通已，即能通達世諦假名流布，解了第一義諦如真實性，得正法智。願我得正法智已，以無厭心爲衆生說，示教利喜，皆令開解。願我能開解諸衆生已，佛神力遍至十方無餘世界，供養諸佛，聽受正法，廣攝衆生。願我於諸佛所受正法已，即能隨轉清淨法輪，十方世界一切衆生，聽我法者，聞我名者，即得捨離一切煩惱，發菩提心。願我能令一切衆生，發菩提心已，常隨將護，除無利益，與無量樂，捨身命財，攝受衆生，荷負正法。願我能負荷正法已，雖行正法，心無所行，如諸菩薩行於正法，而無所行亦無不行，爲化衆生，不捨正願。是名發心菩薩十大正願。”

뒤의 다섯 가지는 근(根)을 보호하는 율의[護根律儀]이다. 두 종류의 율의(律儀)는 『유가사지론』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 ‘차라리 이 몸을 불구덩이에 던질지언정’이라 한 것 등은 인간의 불[火]은 육신 하나만 해치지만 계를 범한 죄는 법신을 해치기 때문에 헤아려 알지니라.

述曰, 雖發大願, 若不要心, 慣習之惡, 難可棄之. 傾貝酌海, 潤羽灑林, 獲珠感帝之至, 莫不由於誓願. 是故制立要契之戒. 云何名爲十大願耶? 謂發菩提心經云, “初始發心, 大悲爲首, 皆發轉勝十大正願.” 一願曾今所有善根, 施與衆生, 共成¹⁵⁰⁾佛道. 二願由此善, 不生無佛國. 三願生已, 常不離佛, 如影隨身. 四願如應爲我說法, 成菩薩五通. 五願由此, 卽達二諦, 得正法智. 六願得智, 爲衆生說, 恒令開解. 七願佛力徧生十方, 奉佛聽法, 廣攝衆生. 八願聞已, 隨轉法輪, 聽我名者, 發菩提心. 九願令發菩提心已, 常隨利樂, 荷正法擔. 十願荷已, 雖行正法, 心無所行. 是名十大願. 總誓此願, 如眞法界, 無所不至, 如衆生界, 終無盡期. 發此願已, 立十三誓. 此中初十二, 護戒誓願, 後一證果誓願. 初中前七, 護戒律儀, 後五護根律儀. 二種律儀, 如瑜伽說. 此中寧以此身, 投火坑等, 人間火等, 害一肉身, 犯戒之罪, 害法身故, 校量應知.

150) 卍60 p.461b9와 大40 p.714c8과 藥師寺藏本에는 ‘我’로 되어 있으나 韓3 p.470c6에는 ‘成’으로 되어 있다.

⑦ 험난한 곳을 저 멀리 離難故

⊖ 일부러 험난한 곳에 들어가 유행하지 말라 故入難處戒第七經

□ 불자들이여! 항상 반드시 두 때[二時, 봄과 가을]의 두타행을 실천하여야 한다. 겨울과 여름에 좌선(坐禪)하거나 여름 안거(安居) 할 때 항상 양지(楊枝, 이를 닦는 도구)와 조두(澡豆, 콩이나 팥으로 만든 비누)와 삼의(三衣, 5조·7조·9조의 가사)와 병(瓶, 물 담는 정병과 축병)과 발우(鉢盂, 식기)와 좌구(坐具, 니사단으로 앉을 때 펴는 깔개)와 석장(錫杖, 위에 고리를 단 지팡이)과 향로와 녹수낭(澆水囊, 물을 거르는 주머니)과 수건과 칼과 부싯돌과 섭자(鐺子, 족집게)와 승상(繩牀, 노끈으로 만든 침상)과 경과 울과 불상과 보살상을 지녀야 하느니라. 보살이 두타를 행할 때와 사방으로 행할 때 백리나 천리를 가더라도 열여덟 가지 물건을 항상 지녀야 하느니라.

두타행을 하는 때는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니, 이 두 때에 열여덟 가지 물건이 항상 그 몸에 함께하기를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해야 한다.

혹은 포살하는 날은, 새로 배우는 보살은 반달마다 포살하되 십중계와 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輕戒]를 외울 때는 모든 불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해야 하며 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사람이 외우고,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이거나 백 천 사람이 하더라도 또한 한 사람이 외워야 하며, 외우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사람은 낮은 곳에 앉아야 하며, 각각 구조(九條)나 칠조(七條) 또는 오조(五條)의 가사(袈裟)를 입어야 한다. 하안거를 결성하게 되면 날날이 법답게 해야 하느니라. 만약 두타행을 할 때에는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지니, 나라가 어지럽거나 왕이 사악하거나 토지가 거칠거나 초목이 무성한 곳, 사자나 호랑이나 물이나 불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도둑이 있는 길, 독사가 있는 곳과 같은 온갖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라. 만약 두타행을 시작하면서부터 하좌안거(夏坐安居)에 이르기까

지 이 모든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나니, 이 험난한 곳을 하물며 두타를 행하는 사람이 ‘위험한 곳’인 줄 보고도 일부러 들어가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常應二時頭陀. 冬夏坐禪, 結夏安居, 常用楊枝澡豆, 三衣瓶鉢, 坐具 錫杖, 香爐漉水囊, 手巾刀子, 火燧鑷子, 繩牀經律, 佛像菩薩形像. 而菩薩行 頭陀時, 及遊方時, 行來百里千里, 此十八種物, 常隨其身. 頭陀者, 從正月十五日, 至三月十五日, 八月十五日, 至十月十五日, 是二時中, 此十八種物, 常隨其身, 如鳥二翼. 若布薩日, 新學菩薩, 半月半月布薩, 誦十重四十八輕戒時, 於諸 佛菩薩形像前, 一人布薩, 卽一人誦, 若二人三人, 乃至百千人, 亦一人誦, 誦者 高座, 聽者下坐, 各各披九條七條五條袈裟. 結夏安居, 一一如法. 若頭陀時, 莫入難處, 若國難惡王, 土地高下, 草木深邃, 師子虎狼, 水火風難, 及以劫賊, 道路毒蛇, 一切難處, 悉不得入一切難處故. 頭陀行道, 乃至夏坐安居)¹⁵¹⁾ 是諸難 處, 悉亦不得入此難處, 況行頭陀者, 見難處而故入者, 犯輕垢罪.

■ 몸과 마음은 도의 그릇[道器]이니, 감히 훼손하여 상하게 하지 말라. 고요한 곳을 찾아 유행하며 또한 위험한 곳은 피하여야 한다.

‘두타(頭陀)’라는 것은 새로운 발음[新音]으로는 두다(杜多)이며, 중국 말로는 두수(抖擻, 털어버린다)라고 하는데, 번뇌와 생사(生死)에 물드는 것을 털어버리기 때문이다.

151) ‘入’字 아래 기록을 송장(宋藏)과 더불어 비교해 보면 고려대장경이 ‘入一切難處故 頭陀行道 乃至夏坐安居’의 열다섯 글자가 많다. 韓3 p.471a20-21은 여장(麗藏)을 따랐으므로 이에 입각하여 번역하였다.

『선의천자경(善意天子經)』에서 “탐진치(貪瞋癡)와 삼계(三界)와 육입(六入) 등을 털어버린다.”¹⁵²⁾고 한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 등에 의하면 십이두타라고도 하고 혹은 십삼두타라고도 하는데, 음식에 대한 네 가지와 옷에 대한 세 가지, 좌구(數具)에 대한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음식에 대한 네 가지 가운데 ① 늘 밥을 빌어 생활하는 것[常期乞食]이니, 갔다가 돌아오면서 집집마다 주는 대로 받아오는 것이다. ② 차례대로 결식하는 것[次第乞食, 七家食 차례대로 일곱 집에서 결식]이니, 집집마다 돌며 결식하여야 한다. ③ 다만 한 자리에서만 먹어야 한다[一座食]. ④ 먼저 그치고 후에 먹는다[先止後食, 자리나 먹을 것 등을 알고 먹는 것]. 『유가사지론』에서 “처음 두 가지[常期乞食, 次第乞食]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탐욕을 다스리는 것이고, 뒤의 두 가지[一座食, 先止後食]는 많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다스리는 것이다. 혹은 결식의 무차별성(無差別性)에 의하면 십이두다(十二杜多)¹⁵³⁾

152) 『성선주의천자소문경(聖善住意天子所問經)』 하권(大12 p.129a8) “我說彼人, 能說頭陀, 何以故. 天子, 若比丘抖擻貪欲, 抖擻瞋恚, 抖擻愚癡, 抖擻三界, 抖擻内外八入. 我說彼人, 能說抖擻.”

153) 십이두다(十二杜多)는 십이두타(十二頭陀)를 말한다. 두타(頭陀, 𑖅𑖻𑖟𑖫)는 두수(抖擻)·두수(抖擻)·두책(抖擻)·수치(修治)·기제(棄除)·사태(沙汰)·완세(浣洗)·분탄(紛彈)·요진(搖振)·제견(除見)·기(棄)·동(動) 등으로 의역한다. 또는 두타행(頭陀行)·두타사(頭陀事)·두타공덕(頭陀功德, 𑖅𑖻𑖟𑖫-guṇa)이라고도 한다. 범어의 원래 뜻은 흔들어 떨어 버린다는 뜻을 가진 동사 어근 √dhū에서 파생한 것으로 흔들리다. 동요되다는 뜻이며, 심신에 묻은 때를 떨어 없애 버린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곧 마음을 닦아 의·식·주에 대한 탐욕을 떨어 버리는 수행을 가리킨다. 두타는 일반적으로 열두 가지의 수행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십이두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십이두타에 ① 아란야에 머무는 것[在阿蘭若處] ② 늘 결식을 행하는 것[常行乞食] ③ 차례대로 결식하는 것[次第乞食] ④ 한 끼만 먹은 것[受一食法] ⑤ 과식하지 않는 것[節量食] ⑥ 짐승을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것[中後不得飲漿] ⑦ 누더기를 입는 것[著弊衲衣] ⑧ 삼의만을 입는 것[但三衣] ⑨ 무덤가에 머무는 것[塚間住] ⑩ 나무 밑에서 쉬는 것[樹下止] ⑪ 노지에 앉는 것[露地坐] ⑫ 눕지 앉는 것[但坐不臥]을 말한다.

이나, 만약 차별성에 의한다면 십삼두다(十三杜多)이다.¹⁵⁴⁾라고 하였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는 “공양청[請食]을 받은 자가 만약 얻으면 만심(慢心)을 일으키고,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며, 승가 음식[僧食]을 받는 자는 대중 일[衆事]이 많음을 따라 마음이 산란하여 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항상 절식을 하도록 하였다.” 오히려 한 끼를 구하는데도 방해가 많거늘 하물며 소식(小食) 등이겠는가. 그러므로 한 자리에 앉아서 먹으라고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비록 한 끼만 먹더라도 매우 배가 부르면 도에 방해(妨害)가 되므로 절량식(節量食, 분량을 조절)을 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먹을 것에서 삼분의 일을 남기는 것으로 곧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며 소화가 잘되고 병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述曰, 身心道器, 不敢毀傷. 逐靜遊行, 亦避嶮難也. 言頭陀者, 新音杜多, 此云抖擻, 抖擻煩惱生死染故. 如善意天子經云, “抖擻貪瞋癡三界六入等.” 依瑜伽等, 或十二, 或十三, 謂依食四, 依衣有三, 敷具有六. 依食四者, 一常期乞食, 隨往還家, 隨得受故. 二次第乞食, 巡家乞故. 三但一坐座食. 四先止後食. 瑜伽論云, “初二對治美食貪, 後二對治多食貪, 若依乞食無差別性, 十二杜多, 若開十三.” 大智論云, “受請食者, 若得起慢, 不得懊惱, 受僧食者, 隨衆事多, 心散妨道, 受常乞食.” 尚求一食, 多有所妨, 況小食等. 故一坐食. 有雖一食, 極飽妨道, 故節量食, 謂隨所食三分留一, 卽身輕安, 易消無患.

■ 옷에 세 가지가 있으니, ①다만 삼의(三衣)만 지녀야 하고, ②다만 누

154) 『유가사지론』 25권 「본지분중성문지」 13 「유가처출리지(瑜伽處出離地)」 3-4 (大30 p.422c4) 이하 내용에서 뜻만 취하였다.

더기[취의, 衣褻]를 지녀야 하고, ③분소의(糞掃衣, 검소한 옷)를 지녀야 한다. 차례대로 많은 옷과 부드러운 감촉과 묘한 세 가지 탐욕을 다스리는 것이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옷은 잠시 몸을 덮는 것이므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소욕지족(少欲知足, 욕심을 적게 하여 만족할 줄 아는 것) 하여야 하며, 삼의만 받아야 한다. 좋은 옷[好衣]은 구하기 어렵고 또한 도적의 난을 부르기도 하므로 납의(納衣)등을 받는 것이 법답다.”¹⁵⁵⁾라고 한다.

좌구[數具]에 대한 여섯 가지는 ①아련야(阿練若)에 머무르는 것이다. 시끄러운 곳[諠雜, 세간의 여염집]에 섞여서 살려는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니, 거리가 일 구로사(拘盧捨)¹⁵⁶⁾는 떨어져야 한다. 『서역기(西域記)』에서는 “한 마리 소의 울음소리[一牛吼]”¹⁵⁷⁾라고 하였으니, 말하자면 큰 소의 울음 소리가 들릴만한 거리이다.

『대지도론』에서는 “비록 집을 떠났다 해도 다시 스승과 무리에 소속 되면 마음이 다시 시끄러워진다. 그러므로 아련야(練若)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②나무 아래 앉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집에 대한 탐을 제거시킨다.”¹⁵⁸⁾고 한다. ③노지(露地, 드러난 바깥)에 앉는 것이다. 『대지도

155) 『대지도론(大智度論)』 67권 「석양불화합품(釋兩不和合品)」 47(大25 p.538b4) “行者少欲知足, 衣趣蓋形, 不多不少故, 受但三衣法. 白衣求樂故, 多畜種種衣. 或有外道苦行故, 裸形無恥. 是故佛弟子, 捨二邊處, 中道行. 住處食處常用故事多, 衣不須日日求故略說. 是十二頭陀, 佛意欲令弟子, 隨道行捨世樂, 故讚十二頭陀. 是佛意常以頭陀, 爲本有因緣. 不得已而聽餘事, 如轉法輪時, 五比丘初得道, 白佛言, 我等著何等衣? 佛言, 應著納衣. 又受戒法, 盡壽著納衣.”

156) 구로사(拘盧捨, ㄱkrośa)는 거리 단위. 구로사(俱盧舍)·구로(俱盧) 등으로 음사한다. 원래 ‘부르는 소리’라는 뜻이나, 큰 소가 우는 소리 또는 북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157)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2권(大51 p.875c9) “拘盧舍者, 謂大牛鳴聲所極聞, 稱拘盧舍.”

158) 『유가사지론』 25권 「본지분중성문지(本地分中聲聞地)」 13 「초유가처출리지(初

론(大智度論)』에서는 “좋은 나무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달빛이 고르게 비치어 하늘이 밝고 깨끗하면 마음이 쉽게 공삼매(空三昧)에 들어가기 때문이다.”¹⁵⁹⁾라고 하였다. ④ 무덤 사이에 앉는 것이다. 음일(姪洑)한 탐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니, 음욕심에서 벗어나기 쉽게 하기 때문이다. ⑤ 항상 단정하게 앉기를 바라는 것이다. 기대어 눕고자 하는 탐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대지도론』에서는 “몸의 사위의(四威儀)에서 앉는 것이 제일이 되니, 음식을 소화시키기 쉽고 혼침(昏沈)¹⁶⁰⁾과 도거(掉舉)¹⁶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¹⁶²⁾라고 하였다. ⑥ 한 곳에 항상 앉아 있는

瑜伽處出離地)」3-4(大30 p.422c11) “於諸敷具，有四種貪，能障修善。一誼雜貪，二屋宇貪，三倚樂臥樂貪，四敷具貪。”

159) 『대지도론(大智度論)』 68권 「석양불화합품(釋兩不和合品)」 47(大25 p.538a26) “露地住則，著衣脫衣，隨意快樂。月光遍照空中明，淨心易入空三昧。”

160) 혼침(昏沈, ㉠styāna)은 마음의 작용으로 심소의 하나이다. 『구사론』은 모든 오염된 마음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대번뇌지법(大煩惱地法)의 하나라고 한다. 유식에서는 수번뇌(隨煩惱)의 하나이며 심신(心身)을 시달리게 하여 혼매(昏昧)·침울(沈鬱)·둔감(鈍感)으로 융통성이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십전(十纏)의 하나로서 수면(睡眠)과 합하여 오개(五蓋)의 하나로 간주한다. 『대승아비달마집론(大乘阿毘達磨集論)』 1권(大30 p.665a24-25)에 “혼침(昏沈)이란 무엇인가? 우치(愚癡)의 일부로서, 마음을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비파사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何等昏沈? 謂愚癡分, 心無堪任爲體, 障毘鉢舍那爲業.”라고 한다.

161) 도거(掉舉, ㉠auddhatya)는 5위 75법 중 대번뇌지법(大煩惱地法)의 하나인 십전(十纏)의 하나이다. 유식(唯識)의 5위 100법 중에는 수번뇌(隨煩惱)의 하나. 마음을 들뜨고 불안정하게 하여 사마타(奢摩他, 止 ㉠śamatha)를 방해하는 심소를 말한다. 이에 비해 마음을 가라앉게 하여 비발사나(毘鉢舍那, 觀 ㉠vipaśyana)를 방해하는 심소를 혼침(昏沈, ㉠styāna)이라 한다. 『대승아비달마집론』 1권(大30 p.665a25-27)에 “도거란 무엇인가? 탐욕(貪欲)의 일부로서, 과거의 즐거웠던 일을 기억함으로써 마음을 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사마타를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何等掉舉? 謂貪欲分, 隨念淨相, 心不寂靜爲體, 障奢摩他爲業.”라고 하였다.

것이다. 좌구(數具)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려는 것이니, 한번 깬 다음에는 마칠 때까지 자주 뒤집어서 수리하지 않는다.

衣中有三者, 一但持三衣, 二但持毳衣, 三持糞掃衣. 如次對治, 多衣輒觸, 上妙三貪. 大智論云, “衣輒蓋身, 不多不少, 少欲知足, 故受三衣. 好衣難覓, 亦招賊難, 故受納衣等法.” 數具六者, 一住阿練若, 除誼難貪, 近遠去一拘盧捨. 西域記云, “名一牛吼, 謂大牛吼聲可聞也.” 大智論云, “雖出居家, 還屬師徒, 心復嬈亂. 故受練若.” 二樹下坐. 瑜伽論云, “除屋宇貪.” 三露地坐. 智論云, “除好樹貪. 月光徧照, 空中明淨, 心易入空三昧故.” 四塚間坐. 除姪洩貪, 易得離欲故. 五常期端坐. 除倚臥貪, 智論云, “身四威儀中, 坐爲第一, 食易消化, 離沈掉故.” 六處如常坐. 除數具貪, 一數設後, 終不數數翻修理故.

■『유가사지론』에서는 “음식 등에 대한 탐욕 때문에 범행(梵行)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치 틀지 않은 털로 모직물 짜는 데 맡길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지금 두다(杜多, 두타행)로써 깨끗이 수행하여 순수하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게 되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된다.”¹⁶³⁾고 한다.

『대지도론』에서는 “불법(佛法)은 다만 지혜로써 근본을 삼기 때문에 괴로움을 우선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은 모두 도를 돕는[助道] 것이니, 부처님이 늘 찬탄(讚歎)하신 것이다.”¹⁶⁴⁾라고 한다.

162) 『대지도론(大智度論)』 68권 「석양불화합품(釋兩不和合品)」 47(大25 p.538a27) “身四儀中, 坐爲第一. 食易消化, 氣息調和.”

163) 『유가사지론』 25권 「본지분중성문지」 13 「초유가처출리지」 3-4(大30 p.422b25)의 두다공덕(杜多功德)에 관한 답 가운데서 뜻만 취하였다.

164) 『대지도론(大智度論)』 67권 「석양불화합품(釋兩不和合品)」 47(大25 p.538b15)

‘두 때의 두타행[二時]’이란 봄과 가을 두 때이니, 마땅히 모두 아무 곳이나 다닐 수 있다[遊方]. ‘겨울과 여름에 좌선(坐禪)하는 것’은 너무 춥거나 더우면 마땅히 자취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73권에 서는 “보살은 비록 십이두타(十二頭陀)를 행하나 아련야(阿練若)¹⁶⁵⁾ 등의 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 해설하면 성문(聲聞)의 일을 줄이는[少事] 행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양지(楊枝)’¹⁶⁶⁾는 입을 향기롭게 하고 열을 제거하므로 새벽에 그것을 씹는다. 양지(楊枝)는 덕이 있으니, 『아함경(阿含經)』에서 설한 것과 같다. ‘조두(藻豆)’는 더러운 때를 제

“佛法，唯以智慧爲本，不以苦爲先。是法皆助道隨道故，諸佛常讚歎。”

- 165) 아련야(阿練若, 𑖀𑖦𑖫𑖞𑖫𑖞)란 산림 혹은 황야라고 번역하고, 비구가 거주하며 수행하는데 적당한 곳으로 마을에서 떨어진 조용한 장소를 말한다. 한역에서는 원리처(遠離處)·적정처(寂靜處)·공한처(空閑處)·의요처(意樂處)·무쟁처(無諍處)라고 한다. 거기에 살아가 할 곳 혹은 사는 이를 아란야가(阿蘭若迦)라고 한다. 아란야에는 3종이 있어서 삼처아란야라고 한다. ① 달마아란야(dharma-aranya)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도량. ② 마등가아란야(mātanga-aranya)는 총간처(塚間處)로 흙을 조그맣게 쌓아올린 묘 ③ 단타가아란야(daṇḍaka-aranya)는 사적처(沙磧處) 곧 인적이 없는 사원(沙源)을 말한다.
- 166) 양지(楊枝, 𑖅𑖦𑖫𑖞𑖫𑖞 Dantakastha)는 탄다가슬탁(憚多家瑟託) ‘탄다(憚多)’는 치(齒)이고 ‘가슬탁(家瑟託)’는 나무이므로 ‘치목(齒木)’으로 번역. 엄지손가락 첫마디를 일지(一指)라고 하는데 치목은 보통 십이지(十二指)가 정수(正數)이다. 이 나무가지 끝을 오래 씹어서 미세해지면 그것으로 어금니와 혀 등을 문지르는데 『남해기귀전(南海寄歸傳)』에는 ‘매일 아침에 나무를 씹어서 이를 닦고 혀를 움직임을 법과 같이 하며 세수하고 이를 닦아 청정하게 한 후 경례를 행한다.’고 하였다. 서역에 버드나무는 드물며 부처님의 치목수(齒木樹)도 양류(楊柳)가 아니다. 일체의 나무로 양지(楊枝)를 만들 수 있으나 다만 성질이 화유(和柔)하고 고미(苦味)가 없는 것으로 취한다. 『대일경소(大日經疏)』 5에는 ‘우담발라(優曇鉢羅)를 취하거나 혹은 다른 단정하고 곧은 나무로 거칠지도 가늘지도 않은 것으로 십이지(十二指) 가량의 길이로 잘라서 쓴다.’고 하였고 『관음참법』에는 ‘나 지금 양지(楊枝)와 정수(淨水)를 갖추고 다만 대비애련(大悲哀憐)으로 섭수(攝受)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거하여 몸을 씻어주는 것이다. ‘삼의’는 삼세제불(三世諸佛)의 복전(福田)의 모양이다.

『대비경(大悲經)』에서 “만약 불자여, 내가 멸(滅)한 뒤 계가 있거나 없거나, 다만 여래의 삼의만 입고 있으면 자씨불(慈氏佛)부터 마지막 누지불(樓至佛)¹⁶⁷⁾에 이르기까지 모두 남김없이 열반을 얻으리라.”라고 한다. ‘병(瓶)’은 물 담는 그릇이며 ‘발우’는 걸식을 위한 것으로 범어로는 발다라(鉢多羅)이며 중국어로는 응량기(應量器, 量에 맞는 그릇)이다. 큰 것은 한 말 반을 담을 수 있고 작은 것은 다섯 되[升]를 받을 수 있다. 율(律)에서는 철발과 와발을 제정하였고 다른 것을 모아 두면 안 된다고 하였다. ‘좌구(坐具)’는 옷이 닿는 것을 막아주고, ‘석장(錫杖)’은 독한 벌레나 짐승을 막아주며 ‘향로(香爐)’는 부처님을 감응하게 하고, ‘녹수(澆水)’는 중생을 구제하며, ‘수건’으로 손을 닦고, ‘칼[刀子]’로 손톱을 깎고, ‘부싯돌[火燧]’로 불을 피우고, ‘섭자[鑷子]’로 가시를 빼어주고, ‘승상(繩床)’으로 몸을 편안하게 하고, ‘경과 율(律)’은 이해를 내게 하고, ‘존상(尊像)’은 믿음을 일으키게 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도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열여덟가지 물건’이란 의적스님은 “양지(楊枝)와 조두(藻豆)를 제외하고 삼의 등을 취했으며 경과 율과 부처님과 보살을 따로 열었다.”¹⁶⁸⁾고 한다. 그러나

167) 누지불(樓至佛, ㉔Rudita, Rucita)이란 현겁천불(賢劫千佛) 중 마지막 부처님의 이름. 노차불(盧遮佛)·노지불(盧至佛)·노지불(魯支佛)·누유불(樓由佛) 등으로 음사하고 애락불(愛樂佛)·제곡불(啼哭佛) 등으로 한역한다. 과거세에 전륜성왕의 천 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으로 태어났는데, 이들이 성불할 차례를 산가지로 헤아린 결과 마지막인 천 번째에 성불할 것이라 하자, 자신의 박복함을 슬퍼하였다는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168) 『범망경보살계본소』 하권 「제칠수시두타계(第七隨時頭陀戒)」(大40 p.683a26) “十八物者, 三衣爲三, 四瓶, 五鉢, 六坐具, 七錫杖, 八香爐, 九澆水囊, 十手巾, 十一刀子, 十二火燧, 十三鑷子, 十四繩床, 十五經, 十六律, 十七佛像, 十八菩薩形.”

당나라에서는 “삼의를 셋으로 삼고 경과 율은 하나로 삼으며 불(佛)과 보살을 하나로 삼아서 열여덟 가지”라고 하였다. ‘항상 그 몸에 따르기를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도구가 갖추어져야 많은 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집경(大集經)』에서 “처음 업을 닦는 보살은 항상 고요함을 즐기면서 일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일 많은 사람에게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한다.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에서 “우바새(優婆塞)는 반드시 승가리(僧伽梨)와 의발(衣鉢)과 석장(錫杖)을 모아두어야 한다.”¹⁶⁹⁾ 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인가? 화상(和上)이 말하기를 “보살에게도 출가할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무구칭경(無垢稱經)』에서는 유마힐(維摩詰)이 찬탄하기를 “삼의와 발우 등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다. 다른 본문[文]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험난한 곳’에 두 가지 문장이 있으니 ①처음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이다. 경에서 “만약 두타(頭陀)를 할 때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과 같으니 이를테면 국난(國難) 등 모든 위험한 곳이다. ②그 속에 머무르는 것을 막은 것이다. 경에서 “모든 험난한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 것과 같다. ‘두타(頭陀)’부터 ‘하좌안거(夏坐安居)’에 이르기까지 아래부터 차례대로 앞의 것을 거듭 들어가면서 범함을 결론지은 것이다. ‘이 모든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처음을 거듭 들어 제정한 것이다. ‘이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두타를 행하는’까지는 나중에 거듭 제정한 것이다. ‘위험한 곳을 보고’ 아래는 어긴 것을 들어 죄를 결론지은 것이다.

169) 『우바새계경』 3권 「수계품(受戒品)」 14(大24 p.1050a7) “若優婆塞, 受持戒已, 若不儲畜僧伽梨衣鉢孟錫杖, 是優婆塞得失意罪. 不起墮落不淨有作.”

瑜伽論云,“由食等貪,不順梵行,如未彈毛,不任作氈.今此杜多,淨修令純,有所堪任,不增不減.”智論云,“佛法唯以智慧爲本,不以苦爲先.是法皆助道,諸佛常讚歎.”言二時頭陀者,春秋二時,宜皆遊行.冬夏坐禪者,以極寒熱,宜攝迹故.七十三云,“菩薩雖行十二杜多,不貴阿練若等法.”解云 以順聲聞少事行故.此中楊枝,口香除熱,故晨嚼之.楊枝有德,如阿含說.澡豆落垢去膩洗身.三衣者,三世諸佛,福田之相.大悲經說,“若佛子!於我滅後,有戒無戒,但有被著如來三衣,從慈氏佛,終至樓至佛,皆得涅槃,無有遺餘.”瓶持水器,鉢欲乞食,梵言鉢多羅,此云應量器.大者即容斗半,小即可受五升¹⁷⁰⁾.律制鐵瓦,餘不得畜.坐具護衣之觸,錫杖止毒蟲獸,香爐感佛,澆水救生,手巾拭手,刀子割甲,火燧求火,鐺子拔刺,繩牀安身,經律生解,尊像起信.是故道具,必須具也.十八種物者,義寂師云,“除楊枝澡豆,取三衣等,別開經律佛菩薩故.”然唐國說,“三衣爲三,經律爲一,佛菩薩爲一,故十八.”常隨其身,如鳥二翼者,道具已足,離多事故.如大集云,“初業菩薩,常樂寂靜,不樂多事,於多事人,莫起嫌心.”若優婆塞戒經云,“優婆塞,應畜僧伽梨,衣鉢,錫杖.”此何所用?和上云,“菩薩亦有心出家故.”如無垢稱經,讚維摩詰云,“不離三衣鉢等.”餘文可解.於難處中,有其二文,一制初入.如經,“若頭陀時,莫入難處.”所謂國難等,一切難處中也.二制住中.如經,“悉不得入一切難處故.”言頭陀乃至夏坐安居 自下,如次牒前結犯.是

170) 卍60 p.464a8과 大40 p.715b5과 藥師寺藏本에는 ‘舛’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72a5에는 ‘升’으로 되어 있다.

諸難處，亦不得入者，牒初制也。此諸難處，況行頭陀者，牒後制也。見難處已下，舉違結罪。

⑧ 혼란스럽지 않게 無亂故

⊖ 앉음에 차례를 어기지 말라 坐無次第戒第八經

□ 불자들이여! 반드시 여법하게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은 뒤에 앉아야 한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비구든 비구니든 귀인이든 국왕이든 왕자든 나아가 황문(黃門)이든 노비든 묻지 말고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은 차례를 따라 앉아야 한다. 외도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간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질서 없이 앉아서 마치 병사나 노비의 법과 같게 하지 말라. 우리 불법(佛法)에서는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은 뒤에 앉아야 하니, 보살로서 차례대로 앉지 않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應如法次第坐。先受戒者，在前坐，後受戒者，在後坐。不問老少，比丘比丘尼，貴人國王王子，乃至黃門奴婢，皆應先受戒者，在前坐，後受戒者，次第而坐。莫如外道癡人，若老若少，無前無後，坐無次第，兵奴之法。我佛法中，先者先坐，後者後坐，而菩薩不次第坐者，犯輕垢罪。

■ 불법(佛法)에서는 계가 으뜸이 되나니, 세간에서 나이 많은 것으로 존경하는 것과는 다르다. 존비(尊卑)가 문란해지면 궤칙(軌則)이 없어지므로 지금 제정한 것이다. ‘나이 많고 적은 것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법장스님은 “어떤 사람이 해석하기를 사부대중으로 하여금 뒤섞여 앉게 한 것이다.”¹⁷¹⁾라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이 문장의 뜻은 따로 제정한 것들을 모두 열거한 것이니 실제로 자종(自宗)을 따라 각각 차례를 의지하여 앉도록 하는 것이다. 의적스님은 “여러 스님들의 해석이 같지 않으니, 어떤 경우는 ‘보살계 받은 것으로 차례를 삼는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백세비구(百歲比丘)라도 보살계를 받지 않았으면 십 세의 보살 아래에 앉아야 하며, 만약 받고 나면 곧 예전의 하안거 수(數)에 의지하여 앉아도 된다.’고 하였으니, (성문)계를 받았더라도 도리어 보살계로 (차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가의 노비와 그 주인 또한 그러하니, 존비(尊卑)가 다르므로 비구가 나중에 계를 받았어도 백세(百歲) 비구니 앞[上]에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문과 보살의 차별을 묻지 않고 다만 먼저 계를 받았으면 앞에 앉는다.’고 하였다. 『대지도론』의 설과 같으니 문수와 미륵이 성문대중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앉았기 때문이다. 재가도 먼저 성문의 오계를 받은 자가 앞에 앉아야 한다. 비록 주인이 뒤에 받았을지라도 노비보다 윗사람이니, 신분이 섞이는 것은 아니다. 마치 비구와 비구니의 높고 낮음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¹⁷²⁾ 고 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출가하면 귀하고 수승해져서 윗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미 노비에서 풀려났으면 계 받은 것으로 순서를 정한다. 이에 ‘늙고 젊은 것을 묻지 않는다.’고 한 것은, 곧 율(律)에서 “사미는 나이로 순서를 정하는데, 만약 나이가 같으면 계 받은 것으로 순서를 정한다.”고 한 것과 다르다. 화상(和尚)이 말하기를 “실제로는 비록 재가보살이라 하더라도 성문대승(聲聞大僧)의 위에 앉는다.”고 하였으니 『아사세왕경(阿闍世王

171) 『범망경보살계본소』 하권 「중좌괴의계(衆坐乖儀戒)」 38(大40 p.651c1) “有人釋云, 令四衆等, 雜合通坐以明長幼, 今解不爾.”

172)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하권 「제팔존비차제계(第八尊卑次第戒)」 (大40 p.683c26) 이하略取.

經)』에서 “문수가 말하기를, ‘가섭이 앞에 앉아야 하리니,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니, 가섭이 사양하면서 ‘저희가 뒤에 앉겠습니다. 보살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사리불이 ‘우리도 존귀하니, 이미 무상심(無上心)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니, 가섭이 ‘보살은 나이와 존귀와 발심한 것이 오래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문수가 거느린 이천 명의 재가보살이 앞에 앉고 가섭 등 오백 성문이 뒤에 앉았다.”¹⁷³⁾ 고 한 것과 같다. 비록 그러하나 저 성문들이 화합하지 못하면 차례를 의지하여 앉아야 한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석가의 법에는 따로 보살승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문수와 미륵 등이 성문 대중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앉은 것이다.”¹⁷⁴⁾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서는 현재 몸으로 출가함을 우선으로 여기며 그때 모습을 나타내고, 나타낸 모습을 다른 대중들이 인정함을 밝힌 것이다. 만약 문수가 실제로 계 받은 차례에 의한다면 이미 삼대겁(三大劫)이 지났으므로 섞여서 앉지 말아야 하며, 또한 두루 배우려고 성문중(聲聞衆)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한다. 만약 성문계를 받은 것으로 보면 부루나(富樓那) 같은 이가 바로 성문중이니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총히 말하자면 만일 순수한 성문으로서 보살계를 받지 않았다면 차례를 의지하여 앉되, 나중에 보살계를 받으면 성문으로서 많은 안거를 지냈다 하더라도 보살계의 차례에 의지하여 앉아야 한다.

설령 먼저 받은 바의 계가 있더라도 보살계를 받아야 나중에 승(乘)이

173) 『불설아도세왕경(佛說阿闍世王經)』 하권(大15 p.399b15) “文殊師利, 從座起著衣服, 謂摩訶迦葉, 便而前行我今從後, 何以故. 其年尊老故. 復先佛作沙門, 以是故當在前. 摩訶迦葉, 則時答言, 其法者亦無前後. 不計年歲而有尊幼. 文殊師利言, 當行謂爲尊老. 摩訶迦葉答言, 智慧是尊, 學問甚多, 是則爲尊, 在所作爲, 是則爲尊.”라고 한 아래 기사를 약취한 것이다.

174) 『대지도론(大智度論)』 34권 「석초품중견일절불세계의(釋初品中見一切佛世界義)」 51(卷三十四)(大25 p.311c12) “以釋迦文佛, 無別菩薩僧故, 入聲聞僧中, 次第坐.”

전향될 때 비로소 바뀌기 때문이다. 보살승에서 여자가 먼저 받으면 남자보다 앞자리[上]가 되나, 다만 섞어 앉지 않을 뿐이다. 왕과 신하와 노비와 주인이 만약 세속법에(따라) 나아가 앉는다면 그 존비(尊卑)에 따라야 하나, 만약 법에(따라) 나아가 앉는다면 모두 (계) 받은 것으로 차례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경에서 “일체(一切)를 묻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먼저 받은 자가 앞에 앉는 것이다. 보살은 몇 종류 대중인가? 『대지도론』에서는 “사부대중[四衆, 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이라고 하였으니, 저 논의 뜻으로 말하자면, 동등하게 삼취정계를 받은 이로서 출가한 남녀와 재가의 남녀로 구별하기 때문이다. 만일 널리 배우는 이는 성문(聲聞)과 같다.

述曰, 佛法中者, 戒爲上首, 不同世間年歲爲尊. 尊卑若亂, 卽無軌則, 故今制也. 不問老少等者, 法藏師云, “有釋令四衆, 雜合通坐.” 非也. 此文意者, 通舉別制, 實隨自宗, 各依次坐. 義寂師云, “諸師釋不同, 一云, 但受菩薩戒爲次第, 一云百歲比丘, 未受菩薩戒, 坐於十歲菩薩已下. 若受卽依舊夏數坐. 戒亦反成菩薩戒故. 如此在家奴主亦爾, 尊卑異故. 如比丘後受, 在百歲尼上. 一云不問聲聞菩薩差別, 但先受戒, 卽在前坐. 如智論說, 文殊彌勒, 入聲聞衆, 次第坐故. 在家亦應先受聲聞五戒爲上. 雖主後受於奴爲上, 類不雜故. 猶如僧尼, 尊卑不雜.” 問若爾出家貴勝爲上? 答如已放奴, 受戒爲次. 此中不問老少, 卽不同律云, “沙彌生年爲次, 若生年等, 受戒爲次.” 和上云, “據實菩薩雖是在家, 坐於聲聞大僧之上,” 如阿闍世王經云, “文殊云, ‘迦葉坐上, 以耆年故.’ 迦葉讓言, ‘我等在後. 菩薩尊故.’ 舍利弗云, ‘我等亦尊, 已發無上心故.’ 迦葉云, ‘菩薩年尊, 久發心故.’ 故文殊所將, 二千在家, 在前而住, 迦葉等五百聲

聞,在後而坐.”雖然若彼聲聞不和,卽依次坐.如智論云,“釋迦法中,無別菩薩僧.是故文殊彌勒等,入聲聞衆,次第而坐.”此明現身出家爲初,爾時現相相現,餘衆許故.若依文殊實戒次第,已經三大劫,不應雜坐故,亦非徧學入聲聞衆.若受聲聞,如富樓那,是聲聞衆,非菩薩故.總而言之,若純聲聞,不受菩薩戒,依次第坐,後受菩薩戒,聲聞夏雖多,依菩薩戒,次第而坐.設先所受,成菩薩戒,後轉乘時,方反成故.菩薩乘中,女人先受,於男爲上,但不雜坐.王臣奴主,若就俗坐,如其尊卑,若就法坐,悉受爲次.由此經云,“一切不問.”先者先坐.問菩薩幾衆?答智論,“四衆”謂彼論意,等受三聚,出家在家男女別故.若徧學者,如聲聞也.

⑨ 이롭고 안락하게 利樂故

⊖ 복과 지혜를 닦아 중생을 이롭고 행복하게 하라 不行利樂戒第九經

□ 불자들이여! 항상 반드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며, 절을 짓고 산림과 동산과 밭에 불탑(佛塔)을 세우고, 겨울과 여름 안거에 좌선하는 곳과 도를 닦는 곳을 다 건립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강설해야 하며, 혹은 질병이 돌거나 나라가 어지럽거나 도둑이 들끓거나 부모나 형제나 화상(和尚)이나 아사리(阿闍梨)가 돌아가신 날과 삼칠일(三七, 二十一日)이나 칠칠일(七七日, 四十九日)에 이르도록 반드시 대승경을 읽고 외우며 강설하여 재를 차리고 복을 구해야 한다. 오가며 생계를 꾸려가거나[行來治生] 큰불에 타거나 큰물에 떠내려가거나 거센 바람이 배에 불어 닥치거나 강이나 바다에서 나팔의 난을 만났을 때에도 이경을 읽고 외우며 강설하여야 한다. 일체 죄의 업보[罪報]인 삼세의 과보[三報]와 칠역(七逆)과 팔난(八難)과 수갑과 쇠고랑, 큰 칼과 오랏줄로

그 몸을 묶거나, 음욕이 많거나 성냄이 많거나 어리석음이 많거나 질병이 많을 때에도 모두 이 경을 읽고 외워 강설해야 하느니라. 신학보살(新學菩薩)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常應教化一切衆生, 建立僧坊, 山林園田, 立作佛塔, 冬夏安居, 坐禪處所, 一切行道處, 皆應立之. 而菩薩應爲一切衆生, 講說大乘經律, 若疾病, 國難, 賊難, 父母兄弟, 和上阿闍梨, 亡滅之日, 及三七日, 乃至七七, 亦應讀誦講說大乘經律, 齋會求福. 行來治生, 大火所燒, 大水所漂, 黑風所吹船舫, 江河大海, 羅刹之難, 亦應讀誦講說此經律. 乃至一切罪報三報,¹⁷⁵⁾ 七逆八難, 杻械枷鎖, 繫縛其身, 多姪多瞋, 多愚癡多疾病, 皆應讀誦講說此經律. 而新學菩薩, 若不爾者, 犯輕垢罪.

■ 복과 혜[福慧]의 두 가지 선(善)은 새의 두 날개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한 가지만 모자라도 수승한 과를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 까닭으로 교화하고 도 닦는 곳을 건립하는 것은 곧 복된 행동[福行]이 되며, 경을 강설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지혜로운 행[智行]이 된다. 복을 닦고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것을 이로움이라고 하며, 법력(法力)으로 어려움에서 구제해주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하니 이와 같은 차례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疾病)’ 아래는 액난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오가며 생계를 꾸려간다[行來治生]’는 것은 남쪽 사람들은[南人] 생산업을 경영하여 생활하는데 살림살이에 이로움이 없더라도 또한 대승경을 강설하여야 한다.

175) 卍60 p.466b11과 藥師寺藏本(元祿二年刊)에는 ‘惡’로 되어 있으나 韓3 p.473a23에는 ‘報’로 되어 있다.

‘죄보(罪報)’를 구제하는 가운데 ‘보(報)’란 삼시(三時, 과거·현재·미래) 죄의 과보를 받는 것이다. 감옥의 난을 구제하는 내용에서 손에 차는 것을 ‘수갑[桎]’이라 하고 발에 차는 것을 ‘쇠고랑[械]’이라 하며, 목에 차는 것을 ‘큰 칼[枷]’이라 하고 허리에 묶는 것은 ‘오랏줄[鎖]’이라 하니, 모두 업보로 인하여 이러한 죄의 그물에 묶이는 것이다.

‘질병이 많다’는 것은 성품[性]에 병이 많은 것 등이니, 앞의 천행(天行, 천성적인 품행) 등에 따라 일부러 짓는 차별이 있다. 무엇 때문에 모두 ‘대승을 강설할 것을 제정’했느냐 하면, 대승은 중생을 이롭게 함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述曰，福慧二善，如二翼輪，隨闕一種，勝果難成。是以教化，立行道處，卽福行也，講經生解，卽智行也。修福生慧名利，法力救難名樂，如其次第，文相可解。疾病下，卽救難也。言行來治生者，南人經營產業爲治生，治生不利，亦講大乘也。救罪報中，報者，三時報罪也。救獄難中，在手曰桎，在足曰械，在頸名枷，在腰名鎖，皆由業報，致斯罪網。多疾病者，性多病等，前天行等，故有差別。何以皆(制)講大乘者，大乘利生，以爲本故。

② 총히 결론 짓다 總結

□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만드시 배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할지니, 「범단품(梵壇品)」에서 마땅히 설하리라.

‘범단(梵壇)’이란 중국어로 번역하면 묵묵히 물리침[默擯, 내쫓음]이니, 조복(調伏)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로써 다스리는 것이다.

言梵壇者，此翻默擯，不受調伏，故以治也。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梵壇品中當說。

(5) 아홉 가지 계를 나누다 判九戒

■아래 아홉 가지 계에서 처음 다섯 가지는 계로써 받아들이는 것이며, 뒤의 네 가지는 자비로써 교화하는 것이다. 처음 다섯 가지는 근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아닌 것을 가려냄(簡非故)이며, 밖에서 수호하는 것(外護故)과 안에서 수호하는 것(內護故)과 공경하는 것(恭敬故)의 차례이며, 뒤의 네 가지는 창도하여 이끌어 주는 것(唱導故)과, 설법하여 교화하는 것과(說化故), 악을 막아주는 것(遮惡故)과 바른 것을 수호(護正故)하는 차례이니 할 바를 알아야 한다.

自下九戒，初五以戒攝受，後四以悲教化。初五如次攝器故，簡非故，外護故，內護故，恭敬故，後四如次，唱導故說化故，遮惡故護正故，所爲應知。

① 계로써 받아들임 以戒攝受

ㄱ. 근기를 포용하다 攝機故

⊖ 교화하여 받아들임에 가려서 계를 일러주지 말라 攝化漏失戒第一經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들이여! 사람들에게 수계(受戒)를 줄 때 선별하거나 고르지 말아야 하나니, 일체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백관들, 비구와 비구니, 믿음 있는 남자와 여자, 음란한 남자와 여자, 십팔범천(十八梵天)이나 육욕천자(六欲天子), 무근(無根)과 이근(二根)¹⁷⁶⁾, 황문(黃門)과 노비와 모든 귀신들이 다 계를 받을 수 있나니라.

몸에 입는 가사는 모두 괴색(壞色)¹⁷⁷⁾을 써서 법도에 맞게 해야 하며 모

176) 무근(無根)은 성기(性器)를 갖추지 못한 것이며 이근(二根)은 남녀(男女)의 성기(性器)를 동시에 갖춘 것이다.

177) 괴색(壞色)은 가사(袈裟)의 빛깔이 청(靑), 황(黃), 적(赤), 백(白)의 정색(正色)이 아니라 혼합하여 본색(本色)을 무너뜨린 탁색(濁色)을 말한다.

두 청색(靑色)·황색(黃色)·적색(赤色)·흑색(黑色)·자색(紫色)을 써서 물
 들여야 한다. 그 물들인 옷에서 와구(臥具)에 이르기까지 다 괴색(壞色)
 을 쓰되 몸에 입는 옷은 모두 물들여야 한다. 비구의 옷은 다 반드시 그 나
 라 국토 안의 속인들의 옷과는 달라야 한다. 만약 수계하고자 할 때 법사
 가 반드시 ‘그대는 현신(現身, 이생에 받은 몸)으로 칠역죄(七逆罪)를 짓지
 않았는가.’를 물어야 한다. 보살법사(菩薩法師)는 칠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금생에 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칠역죄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냈거나, 아
 버지를 죽였거나, 어머니를 죽였거나, 화상(和尚)을 죽였거나, 아사리(阿
 闍梨)를 죽였거나, 갈마전법륜승(羯磨轉法輪僧)¹⁷⁸⁾을 파(破)하게 하였거나,
 성인(聖人)을 죽인 경우이다. 만약 칠차(七遮)를 갖추었다면 곧 금생에 계
 를 받을 수 없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계를 받을 수 있다. 출가인은 국왕
 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고 부모를 향하여 예배하지 않으며, 육친을 공경하
 지 않으며, 귀신에게 예(禮)하지 않는 것이 법이다.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
 듣는 자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법을 구하러 오는 자가 있을 적에 보살법
 사가 악한 마음으로 성을 내어 중생들에게 계를 주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
 하는 것이니라.

佛言。佛子，與人受戒時，不得簡擇。一切國王王子大臣百官，
 比丘比丘尼，信男 信女，姪男姪女，十八梵天，六欲天子，無根
 二根，黃門奴婢，一切鬼神，盡得受戒。應教身所著袈裟，皆使
 壞色，與道相應，皆染使靑黃赤黑紫色，一切染衣，乃 至臥具，

178) ‘갈마전법륜승(羯磨轉法輪僧)을 파(破)한’ 것은 다음과 같다. 아홉 명이 한 도량
 에 있을 경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제바달다처럼 불타(佛陀)임을 자칭(自稱)하
 면 네 명의 비구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다른 네 명의 비구는 정법(正法)을 지
 켜 그를 따르지 않으면 이부(二部)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제바달다처럼 잘못된
 법을 설하여 정법(正法)의 교단(敎團)과 법륜(法輪)을 깨는 것이다.

盡以壞色, 身所著衣, 一切染色. 若一切國土中, 國人所著衣服, 比丘皆 應與其俗服有異. 若欲受戒時, 師應問言, ‘汝現身, 不作七逆罪耶.’ 菩薩法師, 不得與七逆人, 現身受戒. 七逆者, 出佛身血, 殺父, 殺母, 殺和上, 殺阿闍梨, 破 羯磨轉法輪僧, 殺聖¹⁷⁹⁾人. 若具七遮, 卽現身不得戒, 餘一切人, 盡得受戒. 出家人法, 不向國王禮拜, 不向父母禮拜, 六親不敬, 鬼神不禮. 但解法師語, 有百里 千里, 來求法者, 而菩薩法師, 以惡心瞋心, 而不卽與授一切衆生戒者, 犯輕垢 罪.

■ 능히 감당해 받을 만한 그릇[器, 근기]이 있는데도 가리지 않고 버리게 되면, 받아들여 교화(敎化)함에 잃어버리는 허물을 이루게 되므로 제정한 것이다. ‘몸에 입는 옷은 모두 괴색(壞色)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출가한 이의 옷을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가사(袈裟)는 중국어로 부정색(不正色)이니, 청색(靑色) 등의 다섯 가지가 정색(正色)이 아니므로 괴색(壞色)이라고 한다. 비록 청색(靑色) 등이라고 하나 바른 청색(正靑) 등이 아니다.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 “문수가 ‘몇 가지 색의 옷이 있습니까?’ 하고 여쭙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 붉은 색이 아니며, 너무 노란 색이 아니며, 너무 검은 색도 아니며, 완전하게 희지도 않은 것이 청정하고 여법한 것이니, 세 가지 법복(三法服)과 다른 옷도 다 이러한 색이어야 한다. 혹은 스스로 물들이거나 혹은 남을 시켜 물들이기도 하여, 여법하게 다듬질하여 만들어서 수시로 빨아서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하며, 와구(臥具)도 이와 같이 청색이나 황색 등 잡색을 써야 한다.’

179) 卍60 p.467b5와 藥師寺藏本(元祿二年刊)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73c14에는 ‘聖’으로 되어 있다.

고 하셨다.”¹⁸⁰⁾

‘모든 옷에 물들인다.’ 아래는 다른 옷의 색까지 제정한 것이다. ‘속인들의 옷과 달라야 한다.’는 것은 모양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교경(遺敎經)』에서 “그대들 비구는 스스로 머리를 어루만져 보라. 이미 아름다운 장식을 버리고 괴색(壞色) 옷을 입었으며 응기(應器)를 들고 결식으로 살아가나니, 스스로 이와 같음을 보고도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마땅히 빨리 없애야 한다. 교만한 마음을 기르는 것은 세속 사람에게도 옳지 않거늘, 하물며 출가하여 도에 든 사람이겠는가.”¹⁸¹⁾라고 한 것과 같다.

‘칠역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금생에 계를 주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칠역죄를 참회하지 않으면 아직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생에 계를 받을 수 없으나, 만약 가르침에 의지하여 참회하면 죄가 사라지므로 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집법열경(集法悅經)』에서 “다라니(陀羅尼)를 갖추어 외우면 오역죄가 사라진다.”¹⁸²⁾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

180)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上권(大14 p.496c2) 「세간계품(世間戒品)」 10 “爾時, 文殊師利白佛言, 世尊, 菩薩有幾種色衣? 云何歸依? 願爲廣說, 爲饒益諸菩薩故. 佛告文殊師利, 不大赤色, 不大黃, 不大黑, 不大白, 清淨如法色. 三法服及以餘衣, 皆如是色, 若自染若令他染, 如法擣成, 隨時浣濯, 常使淨潔, 如是臥具, 得用青黃雜色.”

181)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大12 p.1111b21) “汝等比丘, 當自摩頭. 已捨飾好, 着壞色衣. 執持應器, 以乞自活. 自見如是, 若起憍慢, 當疾滅之. 謂長橋慢, 尚非世俗白衣所宜, 何況出家, 入道之人.”

182) 『다라니잡집(陀羅尼雜集)』 9권 「집법열사고타라니경(集法悅捨苦陀羅尼經)」(大21 p.631a4)에 “南無佛陀蛇 南無達摩蛇 南無僧伽蛇 南無毘首陀遮蛇 南無阿伽竭浮遮蛇 南無摩訶薩婆伽利蛇 多擲哆林彌利 婆婆彌 留遮陀 檀摩陀 那闍那啼知 沘利 婆婆遮蛇 那蛇波羅薩婆 摩訶啼 知沘利 央求 知利默求知利 比婆薩婆蛇那 毘林婆闍呵 陀舍地輸 薩婆娑羅 三幕鉢沘 波波波利 摩訶 阿那 莎呵.”라는 다라니를 제시하고 뒤(大21 p.631b6)에서 “이 다라니는 능히 백억겁 생사오역대죄를 제거한다. 此陀羅尼能除去百億劫生死五逆大罪”라고 한다.

렇지 않다. 참회하고 나면 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경문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칠차(七遮)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죄가 인연을 갖추면 성립되기 때문이니, 반드시 칠(七)이라는 수(數)를 갖추어야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륜승(法輪僧)¹⁸³⁾을 파(破)할 때는 갈마승(羯磨僧)¹⁸⁴⁾을 파(破)하는 것이 아니라 갈마법(羯磨法)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갈마(破羯磨)’

183) 법륜승(法輪僧, ㉔dharmacakra-saṃgha)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는 스님이라는 뜻. 부파불교의 대표적 학파인 설일체유부에서 특히 견도위(見道位)에 도달한 스님을 법륜승이라 하는데, 이것은 법륜이 세간에서 사용되는 전륜성왕의 윤보(輪寶)와 다섯 가지 측면에서 동일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란 다음과 같다. ① 빠르게 나아간다. 견도의 15心은 각각 한 찰나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마치 전륜성왕의 윤보가 빨리 스쳐가는 것과 같다. ② 취하는 것과 버리는 것이 있다. 견도에서 고제(苦諦)의 경계를 버리고 집제(集諦)의 경계를 취하는 것이, 마치 전륜성왕이 앞의 윤보를 취하고 뒤의 윤보를 버리는 것과 같다. ③ 아직 조복시키지 못한 것을 조복시킨다. 견도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던 것을 능히 보고 아직 끊지 못했던 것을 능히 끊는다. ④ 이미 조복시킨 것을 진압한다. 견도에서 미혹을 끊되, 다시 미혹에 의해 물러나지 않을 만큼 확고하게 조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위 아래로 돌아간다. 견도에서 먼저 하고(下苦)를 관찰하고 나중에 상고(上苦)를 관찰한다. 이 밖에 제바달다(提婆達多)가 부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별도의 교단을 세운 것과 같은 것을 파법륜승(破法輪僧)이라 하고, 동일 교구에서 포살이나 갈마작법의 규칙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분열되는 것을 파갈마승(破羯磨僧)이라 한다.

184) 갈마승(羯磨僧, ㉕karma-saṃgha, ㉖kamma-saṃgha)이란 네 명 이상의 구족계를 받은 비구가 같은 결계(結界, ㉗sīmā-bandha) 안에 머물면서 갈마작법을 행할 때 이것을 갈마승이라고 한다. “출가한 사람 중에서 구족계를 받은 네 명 이상의 비구가 범부와 성인을 가릴 것 없이 같은 구역 안에 살면서 백일갈마(百一羯磨)의 작법을 함께 준수하여 어기지 않으면 이들을 갈마승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대승의장(大乘義章)』 7권(大44 p.608c9-11) “出家之中, 具足比丘, 四人已上, 不簡凡聖, 在一界內, 於彼百一羯磨之法, 同遵不乖, 名羯磨僧.”

라고만 하고 ‘승(僧)’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갈마승(羯磨僧)을 파하는 것만으로는 차난(遮難)¹⁸⁵⁾이라 하지 않으므로, 다만 파범륜승[破輪]으로 하나의 역죄(逆罪)를 삼은 것이다.

『선생경(善生經)』에서는 “보리심을 낸 중생을 죽이면 보살계를 받지 못한다.”¹⁸⁶⁾고 하였는데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곧 화상(和尚)과 아사리류(阿闍梨類)이니, 그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왕을 향해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왕 등이 계가 있건 없건 모두 출가의 공덕에 비할 수 없으므로, 이에 출가자가 재가자에게 절을 하면 재가자가 한량없는 죄를 얻게 되는 것이다.

述曰, 有堪受器, 不擇而捨, 則成攝化, 漏失之過, 所以制之. 身所著衣皆 依¹⁸⁷⁾壞色者, 別制出家. 袈裟此云不正色, 謂青等五, 成不正色, 故名壞色. 雖言青等, 非正青等. 如文殊問經, “文殊白言, 有幾色衣? 佛告文殊, 不太赤色, 不太黃, 不太黑, 不太白, 清淨如法, 三法服, 及以餘衣, 皆如是色. 若自染, 若令他染, 如法擣, 成隨時浣濯, 常使清潔, 如是臥¹⁸⁸⁾具, 得用青黃雜色.” 言一切染衣已下, 制餘衣色. 與俗服有異者, 樣亦須別. 所以然者 如遺教云, “汝等比丘, 當自摩頭. 已捨飾妙, 著壞色

185) 3권 26) 주(註) 참조.

186) 『우바새계경』 3권 「수계품」 14(大24 p.1047c15) “欲受菩薩優婆塞戒, … 復應問言, 汝將不作盜法人不? 若言不作, 復應問言, 汝非二根無根人? 壞八戒齋父母師病不棄去耶? 將不殺發菩提心人, 盜現前僧物, 兩舌惡口, 於母姊妹作非法耶? 不於大眾作妄語乎? 若言無者, 復應語言.”

187) 卍60 p.467b12와 大40 p.716a24과 藥師寺藏本에는 ‘使’로 되어 있으나 韓3 p.474a2에는 ‘依’로 되어 있다.

188) 卍60 p.468a1과 大40 p.716b1과 藥師寺藏本에는 ‘臣’로 되어 있으나 韓3 p.474a9에는 ‘臥’로 되어 있다.

衣, 執持應器, 以乞自活, 自見如是, 若起憍慢, 當疾滅之. 增長憍慢, 尚非世俗白衣所宜, 何況出家, 入道之人.”言不得與七逆人, 現身受戒者, 有說, “未懺七逆, 猶罪現存, 故言現身不得戒, 若依教懺, 罪滅應得.” 如集法悅經, “辨誦陀羅尼, 滅五逆罪.” 有說, “不然. 無文懺已得受戒¹⁸⁹⁾故.” 言若具七遮者, 以一一罪, 具緣成故, 非謂要具七數方爾. 破法輪僧時. 不破羯磨僧. 然謗羯磨法. 是故唯言破羯磨. 不言僧也, 唯破羯磨僧. 不爲遮難. 唯取破輪. 立爲一逆. 善生經云, “殺發菩提心衆生, 不得受菩薩戒.” 此中何攝, 謂卽和上闍梨 類也, 彼先入故. 言不向國王禮拜等者, 謂國王等, 有戒無戒, 一切不如出家功德, 是卽出家, 若禮在家, 在家卽得無量罪故.

ㄴ. 아닌 자를 가려내다 簡非故

○ 나쁜 목적을 위하여 스승이 되지 말라 惡求弟子戒第二經

□ 불자들이여!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이 일어나게 할 때 보살은 다른 사람에게 계를 일러주는 범사[敎戒法師]가 되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두 명의 계사인 화상(和尚)과 아사리(阿闍梨)를 청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두 명의 계사는 ‘그대는 칠차죄(七遮罪)를 지은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만약 금생에 칠차죄(七遮罪)를 지었다면 계사들은 마땅히 계를 주지 말아야 하나니, 칠차죄가 없는 사람만이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만약 십계(十戒)를 범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를 참회시켜야 하나니, 불상이나 보살상 앞에서 낮과 밤 동안 육시(六時)로 십중계(十重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외우게 하며 애써 삼세의 천불들[三

189) 卍60 p.468a12와 大40 p.716c10과 藥師寺藏本에는 ‘破’로 되어 있으나 韓3 p.474a21에는 ‘戒’로 되어 있다.

世千佛]에게 좋은 징조[好相]를 볼 때까지 예배하게 하기를, 혹은 7일이 나 14일 21일 49일 외에 1년에 이를지라도 반드시 좋은 징조를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좋은 징조[好相]란 부처님이 오셔서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시거나 빛이나 꽃의 여러 가지 기이한 모양을 보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죄가 사라지리라. 만약 좋은 징조가 없으면 비록 참회하여도 이익이 없으니 이러한 사람은 금생에 계를 얻을 수는 없으나, 증수계(增受戒)는 얻을 수 있느니라. 혹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범한 자는 웃어른에게 참회하면 죄가 사라지므로 칠차(七遮)와는 같지 않나니라.

계를 일러 주는 스승[敎戒師]은 이 법을 낱알이 알아야 하나니, 만약 대승경율의 가법고 무겁고 옳고 그른 상(相)을 알지 못하거나 제일의제(第一義諦)와 습종성(習種性)과 장양성(長養性)과 불가괴성(不可壞性)과 도종성(道種性)과 정법성(正法性)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얼마간의 관행(觀行)에 출입하여¹⁹⁰⁾ 십선지(十禪支)¹⁹¹⁾와 일체의 행법에 대하여 낱알이 이 법의 뜻을 얻지 못하면서도 보살이 이양을 위하거나 명성을 얻고자 하여 악구다구(惡求多求)로 이익과 제자를 탐하여 (남을)속여서 일체 경율을 아는 척하면 공양(供養) 때문에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다.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계를 일러주는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教化人起信心時, 菩薩與他人作敎戒法師者, 見欲受戒人, 應敎請二師, 和上阿闍梨, 二師應問言, ‘汝有七遮罪不?’ 若現身有七遮, 師不應與受戒, 無七遮者得受. 若有犯十

190) 관행(觀行)에 출입(出入)한다는 것은 십발취(十發趣)가 가관(假觀)으로부터 공관(空觀)에 들어가고, 십장양(十長養)이 공관에서 나와 현상계(現象界)인 가유(假有)로 들어가며, 십금강(十金剛)이 이변(二邊)을 융회(融會)하여 중도에 드는 것 등을 가리킨다.

191) 1권 97) 주(註) 참조.

戒者, 應教懺悔, 在佛菩薩形像前, 日夜六時, 誦十重四十八輕戒, 若到禮三世千佛, 得見好相, 若一七日, 二三七日, 乃至一年, 要見好相. 好相者, 佛來摩頂, 見光華種種異相, 便得滅罪. 若無好相, 雖懺無益, 是人現身, 亦不得戒, 而得增受戒. 若犯四十八輕戒者, 對首懺罪滅, 不同七遮. 而教戒師, 於是法中, 一一好解, 若不解大乘經律, 若輕若重, 是非之相, 不解第一義諦, 習種性, 長養性, 不可壞性, 道種性, 正法性, 其中多少, 觀行出入, 十禪支, 一切行法, 一一不得此法中意, 而菩薩爲利養故, 爲名聞故, 惡求多求, 貪利弟子, 而詐現解一切經律, 爲供養故, 是自欺詐, 亦欺詐他人. 故與人受戒者, 犯輕垢罪.

■ ‘반드시 두 명의 법사를 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화상(和尚)은 계를 얻게 하는 근본이고, 아사리(阿闍梨)는 계를 얻게 하는 인연이기 때문이다. 『보현관경(普賢觀經, 觀普賢菩薩行法經)』에서 “세 명의 법사를 모시라.”고 한 것은 은근하고 진중한 마음을 내게 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다만 한 분만 청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에서는 “사(師)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①볼 수 없는 분이니 제불(諸佛)과 보살(菩薩)이며, ②볼 수 있는 분이니 계를 주는 스승[授戒師]이다.”¹⁹²⁾라고 하였다. 또 “만약 불보살에게 받지 아니하면 보살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공통적으로 설한 것이 스승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192) 『보살선계경』 1권(大30 p.1014c4) “師有二種, 一可見, 二不可見. 不可見者, 十方諸佛菩薩僧是. 可見者, 我身是, 於可見不可見師邊, 是人得戒竟.”

‘칠차(七遮)’를 물은 것은 이 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니,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에 ‘덕을 갖추어야 함’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열 가지 계의 일’을 갖추어야 비로소 받을 수 있음을 물은 것은, 말하자면 먼저 성문계를 받는 것 등이다.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에서 “우바새가 계를 받음에 열다섯 가지 차난(遮難)이 있다.”고 하였거늘 무엇 때문에 통속적으로 다만 칠차(七遮)만 묻는가?

그것은 다만 근사(近事)¹⁹³⁾의 성품을 의지한 까닭이니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참회시켜야 한다.’는 것은, 『열반경』에서 “세간에 두 종류의 강건한 사람이 있으니, ①악을 짓지 않으려는 자이고 ②짓고 나서 능히 뉘우치는 자이다.”¹⁹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허물이 없는가 하면 뉘우치는 자이니,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 “참(懺)은 지극한 마음에 있다. 세존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것은 의지[意樂]로 말미암는 것이니, 내가 능히 벗어나게 하려고 설하는 것이지 다스려 별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참괴(慙愧)의 약으로 죄의 독을 죽이는 것이다. 『보살선계경』에 의하면 “보살이 죄를 감추면 본래의 죄보다 무거워지니, 승잔(僧殘)을 덮으면 곧 바라이(波羅夷)가 된다. 이러한 등은 품류[品]를 따르니, 만약 성문이 감추면 돌길라(突吉羅)죄가 되는 것이다.”¹⁹⁵⁾라고 한다.

193) 근사(近事)는 삼보에게 가까이서 봉사한다는 뜻으로 오계(五戒)를 받아 준수하는 재가신자를 말한다. 남자는 근사남(近事男)으로 즉 우바새(優婆塞)이고 여자는 근사녀(近事女)로 즉 우바이(優婆夷)이다.

194) 『대반열반경』 26권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10-6 (大12 p.518b23) “善男子, 世有二人, 甚爲希有, 如優曇花, 一者不行惡法, 二者有罪能悔, 如是之人, 甚爲希有.”

195) 『보살선계경』 1권 (大30 p.1015b26) “若比丘爲求罪過聽菩薩戒, 不信受者, 不信教

‘삼세천불(三世千佛)’이란, 범장스님은 “과거장엄겁(過去莊嚴劫)의 화광불(華光佛) 등 일천불(一千佛)과 현재현겁(現在賢劫)의 구류손불(拘留孫佛) 등 일천불(一千佛)과 미래성수겁(未來星宿劫)의 일광불(日光佛) 등 일천불(一千佛)이다.”¹⁹⁶⁾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는 드러난 것을 따라 설하였으나 이치로 보면 일체불에 다 통하는 것이다.

‘만약 좋은 징조[好相]가 없으면 비록 참회하여도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전(上纏, 큰 번뇌)을 범하여 계를 잃어버린 것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요, 중전(中纏)과 하전(下纏)은 아니다.

述曰, 應教請二師者, 和上是得戒之本, 阿闍梨耶, 得戒因緣故. 普賢觀經, “請三師者” 生慳重故. 喻伽, “唯請一師者” 一人能作多事義故. 善戒經云, “師有二種. 一是不可見, 謂諸佛菩薩, 二是可見, 謂授戒師.” 又云, “若不於佛菩薩受者, 不名菩薩戒.” 當知, 通說想對所師. 問七遮者, 障此戒故, 若善戒經, 約具德故. 問十種事具方得受, 謂先受聲聞戒等. 問優婆塞戒經說, “受優婆塞戒, 有十五遮難.” 何故通俗, 唯問七遮? 答彼依近事性, 故不相違. 言教懺者, 如涅槃經云, “世間有兩種健人, 一欲不作惡, 二作已能悔.” 是則誰人無過, 改莫大焉. 如瑜伽云, “懺在至心. 如世尊言, ‘於所犯罪, 由意樂故, 我說能出, 非治罰故.’” 謂慚愧藥, 殺罪毒也. 依善戒經, “菩薩覆罪 重於

者, 及不成就優婆塞戒, 不成就沙彌戒, 不成就波羅提木叉戒者, 不得聽菩薩戒. 聽者得罪. 若比丘犯波夜提罪, 不慚愧不生悔, 聽菩薩戒者, 得偷羅遮罪. 若比丘犯偷羅遮罪, 不慚愧不生悔, 聽菩薩戒者, 得僧伽婆尸沙罪. 若比丘犯僧伽婆尸沙罪, 不慚愧不生悔, 聽菩薩戒者, 得波羅夷罪. 謂第八重若有說者, 得僧伽婆尸沙. 是故經中作如是言. 不信者不應聽. 不信者不應說.”

196) 『범망경보살계본소』 6권 「무덕사사계제사십일(無德詐師戒第四十一)」(大40 p.652c22) 참조.

本罪。且覆僧殘，卽波羅夷。”此等隨品，若聲聞覆，但突吉羅。言三世千佛者，法藏¹⁹⁷⁾師云，“過去莊嚴劫，華光佛等一千佛，現在賢劫，俱留孫等一千佛，未來星宿劫，日光佛等一千佛。”此隨顯說，理通一切。言若無好相，雖懺無益者，此約上纏，犯失者說。非中下纏。

■ 『유가사지론』에서 “또한 이 보살의 모든 범한 것(違犯)은 다 악작(惡作)에 들어가는 줄 알아야 한다. 능력이 있고[有力] 말로 뜻을 표현하면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승과 대승의 보특가라(補特伽羅)¹⁹⁸⁾를 향해서 발로참회(發露懺悔,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여 없애도록 해야 한다. 만약 보살이 상품전(上品纏, 상품의 번뇌)으로 타승처(他勝處, 바라이죄)를 범하면 계율과 위의를 잃어버리므로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한다. 만약 중품전(中品纏)이라면 반드시 세 사람 혹은 이보다 많은 수에게 범한 것을 진술하

197) 韓3 p.475a5의 ‘處’字는 ‘藏’으로 고쳤다.

198) 보특가라(補特伽羅, ㉟pudgala, ㉟puggala)는 인간 또는 모든 인간 행위의 주체자·담당자 등으로 여겨지는 자아(自我)를 지칭하는 총체적인 개념. 부특가라(富特伽羅)·불가라(弗伽羅)·복가라(福伽羅) 등이라고도 음사하고, 한역어는 인(人)·중생(衆生)·삭취취(數取趣)·중수(衆數)·중수자(衆數者) 등이 있다. 보특가라는 먼저 외도(外道)의 16지견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이 16지견은 모두 자아의 여러 가지 속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십육신아(十六神我)라고도 한다. 16신아 중 하나인 보특가라는 특히 중수자(衆數者)로 한역되었는데, 중생(衆生)·인(人) 등의 한역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중생·인 등도 또한 16신아 중 하나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중수자로서 한정된 보특가라란, 오온(五蘊)·십이입(十二入)·십팔계(十八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법수(法數)를 시설하여, 이것들의 집합으로서 설정한 자아를 일컫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무아(無我)를 말함으로써 ‘보특가라’가 실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편의상 사람을 거짓 ‘보특가라’라고 부르는데 불과하다고 한다. 다만 부파 불교 중 독자부·정량부·경량부에서는 이것을 인정한다.

여 참회해야 한다. 만약 하품전(下品纏)으로 타승처(他勝處) 이외의 그 밖의 경죄를 어기고 범하였다면 한 사람을 마주 대하여 참회해도 된다. 만약 마주 대하여 죄를 드러내어 참회함에 범한 것을 없애 줄 수 있는, 따를 만한[隨順] 보특가라가 없으면, 청정한 의지로써[淨意樂] 스스로 ‘내가 장차 결정코 앞으로 막아 보호하여 끝내 다시 범하지 않으리라.’고 맹서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¹⁹⁹⁾ 고 하였다.

지금 이에 ‘비록 참회하여도 이익이 없다[無益].’고 말한 것에 대하여 범장스님과 의적스님은 “상전(上纏)으로 계를 잃었더라도 만약 좋은 징조를 얻으면 옛 계(舊戒)가 다시 소생하므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만약 좋은 징조를 얻지 못하면 옛 계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재의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다.”²⁰⁰⁾ 고 하였다.

칠차(七遮, 칠역죄)가 아니라면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수계(增受

199)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 10-2 (大30 p.521a21) “又此菩薩一切違犯, 當知皆是惡作所攝. 應向有力於語表義, 能覺能受小乘大乘補特伽羅. 發露悔滅, 若諸菩薩以上品纏違犯, 如上他勝處法失戒律儀, 應當更受. 若中品纏違犯, 如上他勝處法, 應對於三補特伽羅. 或過是數, 應如發露除惡作法. 先當稱述所犯事名, 應作是說. 長老專志, 或言大德. 我如是名違越菩薩毘奈耶法. 如所稱事犯惡作罪. 餘如苾芻發露悔滅惡作罪法. 應如是說, 若下品纏違犯, 如上他勝處法及餘違犯. 應對於一補特伽羅發露, 悔法當知如前. 若無隨順補特伽羅, 可對發露悔除所犯. 爾時菩薩, 以淨意樂, 起自誓心. 我當決定防護, 當來終不重犯, 如是於犯還出還淨.”

200) 범장(法藏)은 『범망경보살계본소』 6권 「무덕사사계 제사십일(無德詐師戒 第四十一)」 (大40 p.652c27) 에서 “又見好相中, 既不言夢見, 覺見甚難, 若得此相, 舊戒還全, 更不須受. 若不得此相, 舊戒已失, 故云現身不得戒. 此是上品纏犯故失戒也.”라 하였고 의적은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下권 「제이구덕작사계(第二具德作師戒)」 (大40 p.686a1)에서 “十重若懺得相得受, 不得相不得戒, 今謂十重若懺得相不作受法, 便得本戒, 若不懺除應更增受. 三十八唯須對悔不須更受. 若無好相雖懺無益者. 謂無罪滅得戒之益.”라고 한다.

戒)를 얻는다고 하였다. ‘칠차(七遮)와는 다르다.’는 것은 중죄와 경구죄를 범한 것은 칠차를 범하였기 때문에 길이 받을 수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결론 지어 나타낸 것이다.

‘날날이 잘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다만 덕이 있는 이를 따른다.”고 자세하게 말한 것과 같다. 경에서 “부부가 서로 법사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 또한 덕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승을 알지 못하는 것’ 등은 교법(敎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일의제(第一義諦)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법(理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습종성(習種性) 등’은 행법(行法)과 과법(果法)이다. ‘습종성(習種性)’²⁰¹⁾은 십발취(十發趣)이니 처음 훈습(熏習)하기 때문이고, ‘장양성(長養性)’은 십장양성(十長養性)이니 점점 증장하기 때문이다. ‘불가괴성(不可壞性)’은 십회향(十迴向)이니, 이미 견고(堅固)해졌기 때문이며, ‘도종성(道種性)’²⁰²⁾은 순결택분(順決擇分)으로 성도(聖道)를 이끌기 때문이니, 비록 회향(迴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로 인하여 『인왕호국반야경(仁王護國般若經)』에서는 “십회향위(十迴向位)는 모두 도종(道種)이다.”²⁰³⁾라고 한다.

‘정법성(正法性)’이란 곧 성종성(聖種性)²⁰⁴⁾이니, 다 불지(佛地)에 속하

201) 1권 49) 주(註) 참조.

202) 도종성(道種性)은 6종성의 하나. 십회향의 지위와 십금강심(十金剛心)에 해당한다. 이 위에서 비로소 바로 중도관을 닦기 때문에 도(道)라고 하고, 불(佛)의 과(果)를 내기 때문에 도종성이라 한다.

203) 『인왕호국반야경(仁王護國般若經)』 3권(大8 p.836b29) “復次道種性菩薩, 修十迴向起十忍心.”이라 하고 또 뒤에서(大8 p.841b23) “復次道種性菩薩, 住堅忍中, 觀諸法性, 得無生滅.”이라 한다.

204) 성종성(性種性)은 6종성의 하나. 십행(十行)과 십장양심(十長養心)의 지위에 있는 보살은 우주 만유의 본성인 진공(眞空)을 증득하고, 만유제법을 인정하여 중

는 것으로 이미 진성(眞性)을 요달하였기에 바른 법성[正法性]이라 한다.

‘십선지(十禪支)’란 모두 열여덟 가지를 묶어 십지로 만든 것이니, 희락(喜樂)과 정(定) 등이 지(地)에 따라 비록 다르나 이름과 의미는 같기 때문이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심(尋)과 사(伺)²⁰⁵⁾와 희(喜)와 락(樂)²⁰⁶⁾과 정(定)²⁰⁷⁾과 내등정²⁰⁸⁾과 사(捨)와²⁰⁹⁾ 념(念)²¹⁰⁾과 정지(正知)²¹¹⁾와 사수(捨

생을 제도하므로 이렇게 말한다. 성위(聖位)에 깨달아 들어간 십지(十地)와 등각 묘각에 해당한다.

205) 심(尋, 𑖦vitarka)과 사(伺, 𑖦vicāra)는 『구사론』에 의하면 심소유법(心所有法) 가운데 부정지법(不定地法)에 속한다. 심(尋)은 대상을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대해서, 사(伺)는 대상을 미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역(舊譯)에는 각관(覺觀)이라고 한다. 『성유식론(成唯識論)』에서는 사부정(四不定)·수면(睡眠)·심(尋)·사(伺)에 속한다.

206) 희락(喜樂, pīti-sukha)은 안(眼)등의 오식(五識)작용 가운데 받아들이는 쾌락을 무분별 입장에서는 즐거움이라고 부르고, 분별에 의해서는 기쁨이라고 한다. 中村 元, 『불교어대사전(佛敎語大辭典)』(東京書籍, 1981), p.211.

207) 1권 98) 주(註) 참조.

208) 내등정(內等淨)이란 내정정(內澄淨)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내정(內淨)이라고도 한다. 제2정려가 가진 네 지분인 내등정(內等淨)·희(喜)·락(樂)·등지(等持) 중 첫 번째 지분을 말한다. 제1정려까지는 존재하는 심사(尋伺)를 여의고 신근(信根)을 본질로 하며 외부대상으로 향하는 산란한 마음이 내부로 향하는 것이다.

209) 사(捨, upekṣā)는 평정(平靜), 고려(顧慮). 『구사론』에서는 심소법(心所法)중에서 대선지법(大善之法)의 하나이다. 유식설(唯識說)에서는 선심소(善心所)의 하나이며,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혼침(昏沈)과 도거(掉擧)를 여의어서 생각에 잠기거나 들뜨지 않고, 평등·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中村 元, 『불교어대사전』(東京書籍, 1981), p.605 참조.

210) 념(念, smṛti)은 기억하는 것. 또는忆념이라고 한다. 『유가론(瑜伽論)』 1권(大30 p.280b) 유식설(唯識說)에서 념(念)은 별경심소(別境心所)의 하나로서 기억한다. 『유식삼십송(唯識三十誦)』(大31 p.60b) 『성유식론(成唯識論)』(大31 p.27b) 등에 보인다. 中村 元, 『불교어대사전』(東京書籍, 1981), p.1079 참조.

211) 정지(正知)는 제3선정에 있는 오지(五支)인 사(捨), 념(念), 정지(正知), 락(樂), 삼매(三昧) 가운데 하나이다.

受)²¹²⁾이다.

비록 내등정(內等淨)이 곧 사와 념과 정지(正知)인줄 알지라도 총(總)과 별(別)이 다르므로 따로 세워 수를 정하였으니 전(傳)하는 말이 이리하다.

“나쁘게 구한다(惡求)”는 것 등은 법답지 않게 이양을 구(求)하므로 나쁘게 구한다(惡求)고 하며, 지나치게 즐기면서도 만족하여 싫어함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탐(貪)이라 하고, 이상한 거동을 바른 척 드러내므로 ‘속인다[詐]’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므로 ‘기만한다[欺]’고 한다.

이 계는 제십팔계(第十八戒, 虛僞作師戒)와 어떻게 다른가? 저기에서는 게을러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정하였고, 여기에서는 이양을 탐하여 나쁜 방법으로 제자를 구하므로 제정한 것이다.

如瑜伽云, “又此菩薩, 一切違犯, 當知皆是惡作所攝. 應向有力, 於語表義, 能覺能受, 小乘大乘, 補特伽羅, 發露悔滅. 若諸菩薩, 以上品纏, 犯他勝處, 失戒律儀, 應當更受. 若中品纏, 應對三人, 或過此數, 陳所犯悔. 若下品纏, 犯他勝處, 及餘²¹³⁾違犯, 應對一人. 若無隨順補特伽羅, 可對發露悔除所犯, 以淨意樂, 起自誓心, ‘我當決定, 防護當來, 終不重犯.’” 今此中言雖懺無益者, 藏師及寂師云, “上纏失戒, 若得好相, 舊戒還生, 更不須受. 若不得相, 舊戒已失, 故言現身不得戒.” 旣非七遮更受故, 言而得增受戒. 言不同七遮者, 結顯犯重及輕垢罪, 不同七遮永不得受. 言一一好解者, 如瑜伽云, “唯從有德 如彼廣

212) 사수(捨受)는 삼수(三受)·오수(五受) 가운데 하나의 마음작용이다.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라고도 한다. 몸과 마음에 고통도 즐거움도 느끼지 않는 일종의 감각작용을 말한다.

213) 원주(原註) ‘경죄명여(輕罪名餘)’의 여(餘)는 사십팔경죄를 말하므로 다른 것, 또는 나머리라 한다.

說.”經“許夫婦互爲師”者 亦有德故. 言若不解大乘等, 不了教法也. 言不解第一義諦, 不了理法也. 習種性等, 行果法也. 習種姓卽十發趣, 初熏習故, 長養性卽十長養性, 漸增長故. 不可壞性, 十迴向也, 已堅固故. 道種姓, 順決擇分, 引聖道故, 雖迴向攝, 別說如常. 由此仁王, “十迴向位 皆名道種.” 正法性者, 卽聖種姓, 通攝佛地, 已了眞性, 名正法性. 言十禪支, 總束十八爲十支也, 喜樂定等, 隨地雖別, 名義同故. 何等爲十? 謂尋伺喜樂, 定內等淨, 捨念正知 及以捨受. 雖知內等淨卽捨念正知, 總別異故, 別立爲數, 傳說如此. 言惡求等者, 非法求利, 故曰惡求, 耽無厭足, 故名爲貪, 矯現異儀, 故名爲詐, 罔冒他人, 言之欺也. 此戒何異第十八戒? 彼制懈怠而不明了, 此制貪利惡求弟子.

ㄷ. 밖으로 외호 外護故

⊙ 법답지 않은 곳에서 계를 설하지 말라 非處說戒第三經

□ 불자들이여! 이양(利養)을 위해서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 외도와 악인 앞에서는 이 천불의 대계[千佛大戒, 보살계]²¹⁴⁾를 설하지 말라. 사견인(邪見人) 앞에서도 또한 말하지 말지니, 국왕을 제외한 다른 모두에게 말하지 말라. 이러한 악인의 무리들은 부처님의 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축생이라고 하니, 날 적마다 삼보를 뵈지 못한다. 이들은 목석(木石)같이 무심(無心)하므로 이름하여 외도라 하는 것이니 사견인(邪見人)

214) 천불(千佛)이란 과거(過去), 현재, 미래(未來)의 삼천불(三千佛) 가운데 현재 현겁(現在 賢劫)의 천불(千佛)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천불(千佛)의 대계(大戒)는 일체제불(一切諸佛)의 공통(共通)된 대계(大戒)라는 의미(意味)로 보살계(菩薩戒)를 말한다.

의 무리들은 나무막대와 다르지 않다. 보살이 이러한 악인 앞에서 칠불(七佛)이 가르치신 계²¹⁵⁾를 설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不得爲利養故, 於未受菩薩戒者前, 若外道惡人前, 說此千佛大戒. 邪見人前, 亦不得說, 除國王, 餘一切不得說. 是惡人輩, 不受佛戒, 名爲畜生, 生生 不見三寶. 如木石無心, 名爲外道, 邪見人輩, 木頭無異. 而菩薩於是惡人前說七 佛教戒者, 犯輕垢罪.

■ 『유가사지론』 40권에서는 “대승을 비방하는 이와 믿지 않는 이에게는 갑자기 가르침을 펴거나 깨우쳐 주지 말지니, 왜냐하면 듣고 나서 믿고 이해[信解]하려 하지 않고 크게 무지한 장애[大無知障]에 덮여 가려져서 비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비방으로 인하여 마치 정계율의(淨戒律儀)에 머무른 보살이 한량없는 대공덕장(大功德藏)을 성취하는 것과 같이 저 비방하는 사람도 또한 한량없는 대죄업장(大罪業障)이 따르기 때문이다.”²¹⁶⁾라고 하였다. 이러한 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란, 발심하지 않은 이에게는 계를 설

215) 칠불교계(七佛教戒)는 칠불통계(七佛通戒)를 말하는 것으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불의 칠불을 말한다. 통계(通戒)는 위에 든 칠불 곧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금계(禁戒)의 근본계문(根本戒文)이다.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 뜻을 스스로 깨끗이 하면 이것이 계불의 가르침이니라.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義, 是諸佛教.’

216)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第」 10-2(大30 p.515b8) “又諸菩薩於受菩薩戒律儀法, 雖已具足受持究竟, 而於謗毀菩薩藏者無信有情, 終不率爾宣示開悟. 所以者何. 爲其聞已不能信解大無知障之所覆蔽, 便生誹謗. 由誹謗故, 如住菩薩淨戒律儀. 成就無量大功德藏. 彼誹謗者, 亦爲無量大罪業藏之所隨逐, 乃至一切惡言惡見及惡思惟, 未永棄捨終不免離.”

해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유가사지론』 40권에서 “보살계를 주려 할 때 먼저 반드시 그를 위하여 보살법장(菩薩法藏)과 마달리가(摩怛履迦, 논장)²¹⁷⁾와 보살의 학처(菩薩學處)와 범하는 경우의 상[犯處相]을 설해 주어, 그로 하여금 듣고 지혜로써 관찰하여 스스로 받고자 하여 능히 사유해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²¹⁸⁾고 한 것과 같다.

‘외도’란 정법(正法)의 허물을 구하는 자이며, ‘악인’이란 듣고 나서 비방하는 자이며, ‘대사견(大邪見)’이란 모두 내의를 부정(否定)하는 것이니, 저 악(惡)이 증장(增長)하는 것을 염려하여 설해주지 말라는 것이다.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에서 “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설하지 말아야 하며, 대승을 비방하는 자에게 설해서도 안 된다.”²¹⁹⁾고 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믿지 않는 자는 이러한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왕을 제외한다’는 것은, 불법(佛法)을 두 사람에게 부촉(付屬)²²⁰⁾하였

217) 마달리가(摩怛履迦, 𑖣mātrkā, 𑖣mātikā)는 마달리가(摩怛理迦)의 다른 음사어. 본모(本母)라고 한역한다. 경에서 논의의 주제가 되는 핵심만을 뽑아 기억을 위해 범수나 주제별로 요약 정리한 것으로, 경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일종의 목차와도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다. 십이부경(十二部經) 중 논의(論議, 𑖣upadeśa)를 가리키기도 하며 이것이 발전하여 논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유가사지론』 25권(大30 p.419a1-3)에 “논의(論議)란 무엇인가. 모든 마달리가와 아비달마이니 경의 뜻을 깊이 연구하여 그 내용의 중요를 선양하는 것이다. 이것을 논의(論議)라고 한다. 云何論議, 所謂一切摩怛履迦. 阿毘達磨, 研究甚深素咀纒義, 宣暢一切契經宗要, 是名論議.”고 하였다.

218)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持瑜伽處戒品)第」 10-2(大30 p.515b16) “又諸菩薩, 欲受菩薩菩薩戒時, 先應爲說菩薩法藏摩怛履迦, 菩薩學處及犯處相, 令其聽受. 以慧觀察自所意樂, 堪能思擇受菩薩戒.”

219) 『보살선계경』 1권(大30 p.1014c25) “既受戒已, 不應向彼不信者說, 乃至不向謗大乘者說.”라 하고 뒤에서(大30 p.1014c5) “不信者不應聽, 不信者不應說.”라 하였다.

으니, ① 불제자(佛弟子)로서 안으로 보호[內護]하고, ② 모든 국왕이니 밖으로 보호[外護]하도록 그들에게 설한 것이다. 또 왕에게는 세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계율(戒律)과 위의(威儀)를 의지하여 수행인을 책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알게 해야 한다.

‘불계(佛戒)를 받지 않았으므로 축생이라 한다.’는 것은 이 몸은 비록 사람이나 생인(生因)이 없으므로 장차 얻을 과(果)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述曰, 瑜伽四十云, “於謗大乘及無信者, 終不率爾, 宣示開悟. 所以者何, 爲其聞已, 不能信解, 大無知障之所覆蔽, 便生誹謗. 由誹謗故, 如住菩薩淨戒律儀, 成就無量大功德藏, 彼誹謗者, 亦爲無量大罪業藏之所隨逐.” 有此大過, 故今制也. 此中未受戒者, 遮不發心. 如瑜伽四十云, “欲授菩薩戒時, 先應爲說菩薩法藏, 摩呾履迦, 菩薩學處, 及犯處相, 令其聽受, 以慧觀²²¹⁾察, 自所意樂, 堪能思擇.” 言外道者, 求正法過, 言惡人者, 聞已謗也, 大邪見者, 總撥內外, 恐增彼惡, 故不爲說. 如善戒經云, “不應向彼不信者說, 乃至不向謗, 大乘者說.” 何以故, 若不信者, 以是因緣, 墮地獄故. 除國王者, 佛法付屬兩人, 一佛弟子, 以爲內護, 二諸國王, 以爲外護, 故爲說之. 又王有力, 當依戒律儀, 策勵行人, 故須知也. 言不受佛戒, 名爲畜生者, 此身雖人, 無生因故, 得當果名.

220) 부촉(付屬)이란 잊지 않고 지니어서 대대로 전하도록 당부하는 것. 부촉(付屬)·부촉(附屬)·부촉(咐囑)·촉루(囑累) 등이라고도 한다. ‘부’는 전해준다는 말이고, ‘촉’은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교법을 널리 전하여 제자들에게 맡기고 널리 유행하도록 당부한다는 뜻이다.

221) 卍60 p.481a5와 藥師寺藏本에는 ‘勸’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75c18에는 ‘觀’으로 되어 있다.

ㄹ. 안으로 외호 內護故

⊖ 고의로 성인의 금계를 어기지 말라 故違聖禁戒第四經

□ 불자들이여! 신심(信心)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정계(正戒)를 받고 나서, 일부러 성스러운 계[聖戒]를 헐뜯고 범하려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단월(檀越)의 공양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국왕의 땅 위를 다닐 수도 없고 국왕의 물도 마실 수 없다. 오천(五千) 명의 큰 귀신들이 항상 그 앞길을 막고, 귀신이 ‘큰 도적’이라고 할 것이며, 만약 방사(房舍)나 성(城)이나 마을 집에 들어가면 귀신들이 다시 항상 그 발자국을 쓸어버리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법(佛法) 가운데 도둑놈’이라 꾸짖을 것이며, 일체 중생들이 눈으로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계를 범한 사람은 축생과 다름이 없고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나니, 만약 고의로 바른 계[正戒]를 어긴 사람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信心出家, 受佛正戒, 故起心毀犯聖戒者, 不得受一切檀越供養, 亦不得國王地上行, 不得飲國王水. 五千大鬼, 常遮其前, 鬼言大賊, 若入房舍城邑宅中, 鬼復常掃其腳跡, 一切世人罵言佛法中賊, 一切衆生眼不欲見. 犯戒之人, 畜生無異, 木頭無異, 若故毀正戒者, 犯輕垢罪.

■ 마음으로도 오히려 가만히 계를 범할 생각을 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보살이 또한 헐뜯고 범하겠는가? 중죄이거나 경죄거나 간에 고의로 가르침을 어기면 이러한 죄를 얻게 된다. ‘모든 단월(檀越)의 공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비단 스스로 죄를 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福)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국왕의 물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출가하여 부역(負役, 병역)을 회피하고도 복전(福田)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국왕에게 은혜도 갚을수가 없고 쓰일 데가 없기 때문에 ‘큰 도둑놈’이라고 말하

는 것이다. 죄가 있는 이는 축생과 같고, 선(善)이 없는 이는 나무토막과 같다.

述曰, 心尙不應竊懷犯戒, 何況菩薩亦行毀犯? 若重若輕, 故違教邊, 得此罪也. 言不受一切檀越供養者, 非但自增罪, 於他損福故. 不得飲國王水者, 出家避役而非福田, 於其國王無恩分故, 無所用故言大賊. 有罪同畜生, 無善同木頭也.

□. 공경하라 恭敬故

⊖ 경율계를 소중히 여기고 공양하라 不重經律戒第五經

□ 불자들이여! 항상 한 마음[一心]으로 대승경율(大乘經律)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受持讀誦], 가죽을 벗겨 종이를 삼고 피를 내어 먹을 삼으며, 골수(骨髓)로 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아 부처님의 계를 베껴 써야 하느니라. 나무껍질과 비단과 종이와 갖가지 명주와 대나무에도 또한 모두 써서 지니되, 항상 칠보와 값을 매길 수 없는 향과 꽃과 모든 여러 가지 보배로써 상자와 주머니를 만들어 경율을 담아야 한다. 만약 여법하게 공양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常應一心, 受持讀誦大乘經律, 剝皮爲紙, 刺血爲墨, 以髓爲水, 析²²²⁾骨爲筆, 書寫佛戒. 木皮穀紙, 絹素竹帛, 亦應悉書持, 常以七寶, 無價香華, 一切雜寶, 爲箱囊, 盛經律卷. 若不如法供養者, 犯輕垢罪.

■ 여기서는 어려운 일을 쉬운 일에 견준 것이니, 글과 같이 알지니라. 각각 그 힘에 따라 보배로써 공양하라는 것이 속뜻이다.

222) 卍60 p.471b14와 藥師寺藏本에는 ‘折’로 되어 있으나 韓3 p.476b3에는 ‘析’으로 되어 있다.

『유가사지론』과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에서 설한, ‘베껴 쓰는[書寫] 등, 십종으로 법을 행하는 것[十種法行]’²²³⁾이 여기 갖추어져 있다.²²⁴⁾ 이는 『유가사지론』에서 삼보에게 공양하는 첫 번째 경계(輕戒)이다. 『선생경(善生經)』에서는 “만약 의복과 발우를 만들면 먼저 부처님과 부모와 스승이나 어른에게 받들어 올려서 먼저 한번 쓰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쓰라.”²²⁵⁾ 고 하였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은 향과 꽃으로 그것을 대신한다.

述曰, 此中以難況易, 如文可解. 各隨其力, 以實供養, 此中意也. 瑜伽中邊等所說, 書寫等十種法行, 此中應具. 此當瑜伽, 供養三寶第一輕戒. 善生經云, “若作衣服鉢器, 先奉上佛, 父母師長, 先一受用, 然後自服.” 若上佛者, 當以香華贖之.

223) 십종법행(十種法行, Sdaśadharma-caritāni)이란 십법행(十法行)이라고도 한다. 경전을 전수하는 10종은 『유가사지론』 74권(大30 p.706c22-27)과 『변중변론』 하권(大31 p.474b19-c1) 등에 설명하고 있다. ① 서사(書寫, 書持 lekhanā) ② 공양(供養, pūjanā) ③ 유전(流轉, 惠施, 施他, dāna) ④ 청수(聽受, 聽聞, 諦聽, śravaṇa) ⑤ 전독(轉讀, 翫讀, 披讀, vācana) · ⑥ 교타(教他, 領受, 受持, udgrahaṇa) ⑦ 해탈(解脫, 開示, 開演, prakāśana) ⑧ 습송(習誦, 諷誦, svādhyāya) ⑨ 사택(思擇, 思量, 思惟, cintanā) ⑩ 관찰(觀察, 修習, bhāvanā)이나, 이 가운데 ⑦과 ⑧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다.

224) 『유가사지론』 74권 「섭결택분중보살지(攝決擇分中菩薩地)」 3(大30 p.706c22)에서 “復次於大乘中, 有十法行, 能令菩薩成熟有情. 何等爲十. 謂於大乘相應菩薩藏, 攝契經等法. 書持供養惠施於他, 若他正說恭敬聽聞. 或自翫讀或復領受, 受已廣音而爲諷誦. 或復爲他廣說開示. 獨處空閑思量觀察隨入修相.”라 하였고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大31 p.461a28) “大乘法修行有十, 一書寫, 二供養, 三施與他, 四若他讀誦一心聽聞, 五自讀, 六自如理取名句味及義, 七如道理及名句味顯說, 八正心聞誦, 九空處如理思量, 十已入意爲不退失故修習.”이라 한다.

225) 『우바세계경』 5권 「잡품지여(雜品之餘)」(大24 p.1061a15) “若自造作衣服鉢器, 先奉上佛并令父母師長和上, 先一受用, 然後自服. 若上佛者以花香贖.”

② 자비로써 교화 以悲教化

ㄱ. 창도하여 이끌어 주라 唱導故

⊖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不化有情戒第六經

□ 불자들이여! 항상 큰 측은지심을 일으켜 모든 성이나 마을 집에 들어가 일체 중생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큰소리로 ‘그대들 중생들은 모두 반드시 삼귀계(三歸戒)와 십계(十戒, 보살 십선법계)를 받으라.’고 해야 한다. 소나 말이나 돼지나 양이나 모든 축생을 보면 반드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너희 짐승들도 보리심을 내라.’고 해야 하며, 보살이 온갖 곳에 있는 산과 개울과 숲과 들에 들어갈 적에도 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해야 할 것이니, 보살로서 만약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常起大悲心, 若入一切城邑舍宅, 見一切衆生, 應當唱言, ‘汝等衆生,

盡應受三歸十戒.’ 若見牛馬豬羊一切畜生, 應心念口言, ‘汝是畜生, 發菩提心.’

而菩薩入一切處山川林野, 皆使一切衆生, 發菩提心, 是菩薩若, 不發教化衆生

心者, 犯輕垢罪.

■ 일체 성도(聖道)는 모두 다른 이의 음성을 근본으로 하니, 비록 그 성품이 있을지라도 가르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열(下劣)한 유정(有情)이 설령 알아듣지 못한다 하여도 소리가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멀더라도 보리(菩提)의 인연(因緣)이 되기 때문에 교화를 제정하였다, 이에 경문(經文)의 내용을 알지니라. 그러나 『유가사지론』에서는 “중생을 교화하는 선한 방법에 간략하게 여섯 가지가 있으니, ① 유정(有情)으로

하여금 작은 선근(善根)으로 한량없는 과(果)를 얻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정들로부터 하찮은 한 톨의 보리알에 이르기까지, (또)버려서 더러운 밭에서 꿈틀거리는 방생(傍生)의 류(類)에게도 보시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를 구하도록 권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근(善根)으로 물건과 밭이 비록 하열하나 회향하는 힘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과를 얻게 될 것이다.

②능히 유정으로 하여금 조금씩 공력(功力)을 써서 크고 한량없는 선근을 이끌어 들여야 한다. 요점만 말하자면 만약 샅된 법에 의지하는 이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정법을 설해 주며, 또 세간에서 복(福)을 지어 즐거운 인연을 받으면 따라 기뻐하며 남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 또 시방의 고통 받는 유정(有情)을 반연하여 자신이 대신 받기를 원하며, 의욕적으로 불법승에 예배하여 목숨을 마칠 때까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며, 또 과거와 현재에 범한 모든 것을 깨끗한 뜻[淨意樂]으로 부처님 대하듯 생각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지난 일을 드러내어 참회를 닦아야 하니, 이와 같이 자주자주 조금씩 공력을 쓰면 일체 업장에서 모두 벗어나게 된다.”²²⁶⁾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그와 같다. ③성인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돌아서는 유정에게는 성내고 괴로워함을 제멸시키고, ④그 가운데 처한

226) 『유가사지론』45권 「본지분중보살지」15 「초지유가처보제분품」17-2 (大30 p.540a22) “云何依外成熟一切有情六種方便善巧。一者菩薩方便善巧，能令有情以少善根感無量果。二者菩薩方便善巧，能令有情少用功力，引攝廣大無量善根。三者菩薩方便善巧，於佛聖教憎背有情其悲惱。四者菩薩方便善巧，於佛聖教處中有情令其趣入。五者菩薩方便善巧，於佛聖教已趣入者令其成熟。六者菩薩方便善巧，於佛聖教已成熟者令得解脫。云何菩薩方便善巧令諸有情以少善根感無量果。謂諸菩薩方便善巧，勸諸有情，捨微劣物乃至最下一糲團，施鄙穢田乃至蠢動傍生之類，作是施已迴求無上正等菩提。如是善根物田雖下，由迴向力感無量果。”라고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유정을 그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며, ⑤이미 들어갔으면 성숙하게 하고, ⑥이미 성숙해지면 해탈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 앞의 네 번째를 분석하면 다시 여섯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 ①수순하여 회통하는 선한 방법[隨順會通方便善巧]이니, 그의 욕구를 따라 행하여 주고 나중에 법으로 교화하여 깊은 가르침을 설하여 회통시켜 주는 것이다. ②함께 중요한 약속을 세우는 선한 방법[共立要契方便善巧]이니 유정이 구할 것이 있어서 온 것을 보면 곧 중요하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선(善)을 닦는다면 그대가 바라는 것을 따라 줄 것이다.”라고 한다. 또 고통이 있는 이를 구제함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③갈래를 달리하는 의지의 좋은 방법[異分意樂方便善巧]이니, 중요하게 약속하고 나서 그가 중요하게 약속했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다만 이익을 주기 위하여 화를 내고 꾸짖으며 베풀어주지 않고 임시로 버려서 마침내 편안한 곳[安處]으로 돌아가게 한다. ④핍박을 내는 선한 방법[逼迫所生方便善巧]이니, 혹은 집안의 주인이거나 혹은 국왕이 되어 뛰어난 세력으로 강제로 핍박하면서 억지로 다그쳐 선을 닦게 한다. ⑤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는 선한 방법[施恩報恩方便善巧]이니, 유정들에게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되 혹 액난(厄難)에서 구제해 주었을 때 그가 은혜를 갚고자 하면 보살은 그때 ‘선을 닦는 것으로 보은(報恩)하라. 세간의 재물로써는 갚지 말라.’고 권한다. ⑥구경의 청정한 선한 방법[究竟清淨方便善巧]이니, 마침내 도사천(都史天, 도솔천 지족천)으로부터 팔상성도(八相成道)에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마땅히 배워야 한다.

述曰，一切聖道，他音爲本，雖有其性，無教不成，故制教化。下劣有情，設無領解，聲入毛孔，遠作菩提之因緣故，此中文相可解。然瑜伽云，“教化衆生，善巧方便，略有六種，一能令有情，以少善根，感無量果。謂勸有情捨微少物，乃至最下唯一

麁團，施鄙穢田，乃至蠢動傍生之類，迴求無上正等菩提。如是善根，物田雖下，由迴向力，感無量果。二能令有情，小用功力，引攝廣大無量善根。以要言之，若依邪法，爲說正法，又於世間，作福受樂因緣，隨喜勸他亦。又緣十方受苦有情，願自代受，又以意樂，禮佛法僧，乃至命終，時無虛度，又於過現一切違犯，以淨意樂，想對諸佛，至誠發露，悔²²⁷⁾往修來。如是數數小用功力，一切業障，皆得解脫。廣說如彼。三憎背聖教，除具恚惱，四處中有情，令其趣入，五已入令熟，六已熟解脫。”辨次前四，復有六種方便善巧。一者 隨順會通方便善巧，謂順行彼欲，後以法化 又於深教會通而說。二共立要契方便善巧，謂見有情有所求來，卽要契言，“汝若修善，隨汝欲施。”又救有苦亦如是等。三異分意樂方便善巧，謂要契已，若彼不行如要契事，但爲利益，示現憤責而不施，彼權時棄捨，終歸安處。四逼迫所生方便善巧，謂或家主，或作國王，得增上力，強逼令修善。五施恩報恩方便善巧，謂於有情隨力少多，施作恩惠，或濟厄難，彼欲報恩，菩薩爾時，勸令修善以受報恩，告言，“莫以世財相酬。”六究竟清淨方便善巧，謂到究竟，從都史²²⁸⁾天八相成道。如是方便，應當學之。

227) 卍60 p.472b8과 大40 p.717c6과 藥師寺藏本에는 ‘誨’로 되어 있으나 韓3 p.476c15에는 ‘悔’로 되어 있다.

228) 卍60 p.473a8과 大40 p.717c21과 藥師寺藏本에는 ‘支’로 되어 있으나 韓3 p.477a12에는 ‘史’로 되어 있다.

ㄴ. 설법하여 교화 說化故

⊖ 여법하게 설법하라 說法垂儀戒第七經

□ 불자들이여! 항상교화를 행하고 큰 대비심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단월(檀越)과 귀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일체 대중 가운데서 선 채로 속인[白衣]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지니라. 반드시 속인 대중 앞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서 해야 한다. 법사비구(法師比丘)는 땅에 서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라. 만약 설법할 때에 법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향과 꽃의 공양을 받아야 하며, 사부대중으로서 법을 듣는 사람은 낮은 데 앉아서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하게 따르기를, 마치 불을 섬기는 바라문과 같이 해야 하느니라. 그 설법하는 사람이 만약 법답게 설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常行教化, 起大悲心. 入檀越貴人家一切衆中, 不得立爲白衣說法. 應白衣衆前高座上坐. 法師比丘, 不得地立, 爲四衆說法. 若說法時, 法師高座, 香華供養, 四衆聽者下坐, 如孝順²²⁹⁾父母, 敬順師教, 如事火婆羅門. 其說法者, 若不如法說, 犯輕垢罪.

■ 사람을 공경하고 법을 소중히 여겨야 수승한 선(善)이 비로소 일어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악법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귀인’은 교만이 많으므로 치우쳐 그를 가르킨 것이다. ‘듣는 사람은 낮은 데 앉는다.’는 등은 갈망하고 우러르기 때문이다. 『섭대승론(攝大乘論)』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계족(戒足)이 비록 파리하고 열등하더라도 능히 설법하여 많은

229) 卍60 p.473a15와 藥師寺藏本(元祿二年刊)에는 ‘奕’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77 a19에는 ‘順’으로 되어 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불세존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고 그의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열반경』에서는 “법을 아는 자가 있으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제2천에서 제석천(帝釋天)을 받들어 섬기듯 해야 한다.”²³⁰⁾고 하였다.

述曰, 敬人重法, 勝善方生, 不爾便生翻彼惡法. 此中貴人多慢, 故徧舉之. 言聽者下坐等, 生渴仰故. 如攝論云, “若人戒足雖羸劣, 而能說法利多人, 如佛世尊應供養, 受彼善說相似故.” 又涅槃云, “有如²³¹⁾法者, 若老若少, 如第二天奉事帝釋.”

ㄷ. 악을 막아내는 遮惡故

⊖ 옳지 못한 법으로 제한하지 말라 非法立制戒第八經

□ 불자들이여! 모두 신심(信心)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은 자라면, 국왕이나 태자나 백관이나 사부제자(四部弟子)들이 스스로 고귀함을 믿고 불법과 계율을 파멸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분명하게 만들어 나의 사부제자들을 억제(抑制)하여 출가하여 도 닦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또는 불상과 불탑과 경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통제하는 관리를 두어 대중을 제한하거나 관리를 두어 승적을 기록하게 하며, 보살비구는 땅에 서게 하고 속인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온갖 법답지 못한 일을 행함에 병졸과 노예가 주인 섬기듯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마땅히 여러 사람의 공양을 받아야 하거늘, 도리어 관리들의 부림을 받게 하면 이는 법에 맞지 않고 율에 맞지 않느니라. 만일 왕과 백관이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계를

230) 『대반열반경』6권 「여래성품(如來性品)」 4-3 (大12 p.400c10) “有知法者, 若老若少, 故應供養 恭敬禮拜, 猶如事火, 婆羅門等, 如第二天, 奉事帝釋.”

231) 卍60 p.473b3과 大40 p.717c29과 藥師寺藏本에는 ‘知’로 되어 있으나 韓3 p.477 b3에는 ‘如’로 되어 있다.

받았거든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지니 고의로 법을 파괴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皆以信心, 受佛戒者, 若國王太子百官四部弟子, 自恃高貴, 破滅佛法 戒律, 明作制法, 制我四部弟子, 不聽出家行道, 亦復不聽造立形像佛塔經律 (立 統官制衆, 使安籍紀僧, 菩薩比丘地立, 白衣高座, 廣行非法, 如兵奴事主. 而菩薩, 正應受一切人供養, 而反爲官走使, 非法非律. 若國王百官, 好心受佛 戒者, 莫作是破三寶之罪)²³²⁾ 破三寶之罪, 若故作破法者, 犯輕垢罪.

■ 만약 악인을 출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상을 만들어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등은 이치[道理]로 보아 범하는 것이 아니며, 그 밖의 것은 모두 범하는 것이다.

述曰, 若於惡人不令出家, 不須許造像而市賣等, 理應無犯, 餘皆結犯.

ㄹ. 바른 것을 수호 護正故

⊖ 스스로 내법을 파괴하지 말라 自破內法戒第九經

□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했으면서 명예[名聞]와 이익(利養)을 위하여 국왕이나 백관들 앞에서 칠불의 계[七佛戒]를 설하며 제멋대로 비구와 비구니와 보살계 제자들을 계박(繫縛)하는 일을 한다면, 이것은

232) 韓3 p.477b10 본문에는 아래 구절의 경문이 빠져 있으므로 『범망경』 원문에 의거하여 넣었으며 이에 준하여 번역문을 달았다. “立統官制衆, 使安籍紀僧, 菩薩比丘地立, 白衣高座, 廣行非法, 如兵奴事主. 而菩薩, 正應受一切人供養, 而反爲官走使, 非法非律. 若國王百官, 好心受佛戒者, 莫作是破三寶之罪.”

마치 사자 몸에서 생긴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나니, 외도나 천마(天魔)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부처님의 계를 받았으면 반드시 불계(佛戒)를 보호하기를 외아들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할 것이며,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나쁜 말로 부처님의 계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마치 삼백 자루 창이 가슴을 찌르고 천개의 칼과 만개의 몽둥이로 그 몸을 때리는 것과 같이 여길 것이며,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겁(百劫)을 지낼지언정 한번이라도 나쁜 말로 불계(佛戒)를 깨뜨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리라.’고 해야 하거늘, 하물며 스스로 불계를 깨뜨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법을 깨뜨리는 인연을 짓게 하여 효순 하는 마음이 없게 하겠는가? 만약 고의로 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 以好心出家, 而爲名聞利養, 於國王百官前, 說七佛戒, 橫與比丘比丘尼, 菩薩戒弟子, 作繫縛事, 如師子身中蟲, 自食師子肉, 非外道天魔能破. 若受佛戒者, 應護佛戒, 如念一子, 如事父母. 而菩薩聞外道惡人, 以惡言謗佛戒時, 如三百鋒刺心, 千刀萬杖打拍其身, 等無有異, ‘寧自入地獄經百劫, 而不用一聞惡言破佛戒之聲.’ 而況自破佛戒, 教人破法因緣, 亦無孝順之心? 若故作者 犯輕垢罪.

■ 시비(是非)를 말하며 파괴하는 이들이 집안에 있으니, 이는 외도들이 하는 바가 아니다. 『연화면경(蓮華面經)』에서 “부처님이 아난(阿難)에게 이르시되 ‘비유하자면 마치 사자가 목숨을 마치면, 허공이나 땅이나 물이나 육지에 있는 짐승들은 감히 사자의 살을 먹지 못하지만, 다만 사자 몸에서 나온 벌레들이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처럼, 아난아! 우리 불법도 다른 이들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법 안의 여러 비구들이 나의

삼대아승지겁(三大阿僧祇劫) 동안 행을 쌓아 부지런히 애써 모은 불법을 파괴하느니라.”²³³⁾라고 한 것과 같다.

述曰, 說是非而破, 唯在內家, 非外道等之所能也. 如蓮華面經云, “佛告阿難, 譬如師子命終, 若空若地若水, 若陸所有衆生, 不敢食師子身肉. 唯師子自生諸蟲, 自食師子之肉, 阿難, 我之佛法, 非餘能壞, 是我法中, 諸比丘, 破我三大阿僧²³⁴⁾祇劫, 積行勤苦所集佛法.”

□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九戒]를 반드시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너희들이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과거의 여러 보살들이 이미 외웠으며, 미래의 여러 보살들도 마땅히 외울 것이며, 현재의 여러 보살들도 지금 외우고 있느니라.

如是九戒, 應當學, 敬心奉持. 諸佛子, 是四十八輕戒, 汝等受持. 過去諸菩薩已誦, 未來諸菩薩當誦, 現在諸菩薩今誦.

233) 『연화면경』 상권(大12 p.1072c24) “阿難, 譬如師子命絕身死, 若空若地若水若陸, 所有衆生不敢食彼師子身肉, 唯師子身自生諸虫, 還自噉食師子之肉, 阿難, 我之佛法非餘能壞, 是我法中諸惡比丘猶如毒刺, 破我三阿僧祇劫積行勤苦所集佛法,” 사자신중충(獅子身中虫)의 의미는 파계불자(破戒佛子)가 불법(佛法)을 망(亡)하게 하는 것이 마치 사자 몸을 사자의 벌레가 먹는 것에 비유한 말. 사자는 짐승 가운데 왕이어서 죽은 고기도 다른 짐승이 감히 먹지 못하지만, 사자 몸에서 나온 벌레가 사자 고기를 먹듯이, 불법도 외부의 이교도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파계불자에 의해 망한다고 하는 설이다.

234) 卍60 p.474a7과 藥師寺藏本(元祿二年刊)에는 ‘僧’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77c8에는 ‘僧’으로 되어 있다.

③ 총히 결론짓다 總結

□ 모든 불자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이 십중계(十重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는 삼세제불(三世諸佛)이 이미 외우셨고, 당래에도 외울 것이며, 지금도 외우시고, 나도 지금 이와 같이 외우느니라. 그대들 모든 대중과 국왕과 왕자와 관리들과 비구와 비구니와 신남(信男)과 신녀(信女) 등 보살계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받아 지니되 읽고 외우고 해설해야 하느니라. 불성(佛性)이 항상 머무는 계를 베껴 써서 삼세에 유통시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고 또 교화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천불(千佛)을 친견하여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세세생생 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말고 항상 사람이나 하늘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라.

내가 지금 이 보리수 아래에서 간략하게 칠불의 법계[七佛法戒]를 열었으니, 그대들은 반드시 일심(一心)으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배워서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할지니라. 저 「무상천왕품(無相天王品)」의 배우기를 권하는 글 가운데 낱낱이 자세하게 밝힌 것과 같나니라.

그때 삼천학사(三千學士)와 앉아서 함께들은 자들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외우는 것을 듣고 마음과 마음으로 정대(頂戴)하며 떨 듯이 기뻐하면서 받아 지니었다.

諸佛子諦聽. 此十重四十八輕戒, 三世諸佛, 已誦當誦今誦, 我今亦如是誦. 汝等 一切大衆, 若國王王子百官, 比丘比丘尼, 信男信女, 受持菩薩戒者, 應受持讀誦, 解說書寫, 佛性常住戒卷, 流通三世, 一切衆生, 化化不絕, 得見千佛, 佛佛授手, 世世不墮惡道八難, 常生人道天中. 我今在此樹下, 略開七佛法戒, 汝等當一 心, 學波羅提木叉, 歡喜奉行. 如無相天王品勸學中一一廣明. 三千學士時坐聽者, 聞佛自誦, 心心頂戴, 喜躍受持.

■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의 세 번째 문[三門]이다.

述曰, 輕戒三門.

[유통본]

3) 결론 지어 봉행하기를 권하는 문 結勸奉行門

■ 이 아래부터는 세 번째 결론 지어 봉행하기를 권하는 문[結勸奉行門]이다.

自下第三, 結勸奉行門.

□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와 같이 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의 노사나불(盧舍那佛)의 심지법문(心地法門) 가운데 「십무진계법품(十無盡戒法品)」을 설하여 마치셨다. 천 백억의 석가모니불께서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여 마해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에서부터 이 보리수 아래십주처설법품(十住處說法品)에 이르기까지 일체 보살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들이 수지독송하고 그 뜻을 해설한 것이 또한 이와 같느니라. 천백억 세계와 연화장세계의 티끌 같이 많은 세계에서도 모든 부처님의 심장(心藏)과 지장(地藏)과 계장(戒藏)과 무량행원장(無量行願藏)과 인과불성상주장(因果佛性常住藏)등 여여한 모든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일체 법장을 설하여 마치시니, 천 백억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받아 지니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심지상(心地相)의 모양을 자세하게 열어 보인 것은 「불화광왕품(佛華光王品)」에서 설한 것과 같느니라.

爾時, 釋迦牟尼佛, 說上蓮華臺藏世界盧舍那佛, 心地法門品

中, 十無盡戒法品 竟. 千百億釋迦亦如是說, “從摩醯首羅天王宮, 至此道樹下十住處說法品, 爲一切菩薩不可說大衆, 受持讀誦, 解說其義亦如是. 千百億世界蓮華藏世界微塵世界, 一切佛心藏, 地藏戒藏, 無量行願藏, 因果佛性常住藏, 如如一切佛, 說無量一切法藏竟, 千百億世界中, 一切衆生受持, 歡喜奉行. 若廣開心地相相, 如佛華光王品中說.”

■ 이 책 전체를[始終卷] 처음에 삼단(三段)으로 나누었는데, 이 부분은 곧 세 번째 유통분(流通分)이다. 이글의 뜻을 말하자면 이곳의 한 분의 석가께서 뜻을 내어 행할 때 그 밖의 석가(釋迦)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만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혜수라(摩醯首羅)’부터 ‘십세계해(十世界海)’등을 설하는 곳은 권 첫 부분[卷初, 梵網經 一卷]의 설명과 같다.

‘심장(心藏)’이라는 것은 전해오는 말에 “심장(心藏)은 곧 삼현(三賢)²³⁵⁾이고, 지장(地藏)은 십성(十聖)의 지(地)이며, 계장(戒藏)은 십중계(十重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이다. 무량행원장(無量行願藏)은 위 삼현(三賢)과 십성(十聖)에게 있는 행원(行願)이다.”라고 하였다. ‘인(因)’은 삼겁(三劫)을 말하고 ‘과(果)’는 곧 사지(四智)²³⁶⁾이며 ‘불성상주(佛性常住)’는 청정

235) 삼현(三賢)과 십성(十聖)이란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가운데 견도(見道) 이상에 도달한 사람을 성(聖)이라 하고, 아직 견도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악을 여원(緣)사람을 현(賢)이라 한다. 『구사론』 23권(大29 p.120c)은 칠현칠성(七賢七聖)을 설한다. 칠현(七賢)은 칠가행(七加行)이라고도 한다. 삼현(三賢)에 오정심(五停心)·별상념주(別相念住)·총상념주(總相念住)가 있고, 사선근(四善根)에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이 있다. 칠성(七聖)은 수신행(隨信行)·수법행(隨法行)·신해(信解)·견지(見至)·신증(身證)·혜해탈(慧解脫)·구해탈(俱解脫)이 있다. 대승에서는 삼현 십성(三賢 十聖)을 주장한다. 삼현은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回向)이다. 십성은 초지에서 제십지까지의 보살이다.

236) 사지(四智)는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3권 「보리품(菩提品)」(大31

한 법계[淸淨法界]²³⁷⁾이다. 이 아래는 총결이니, 글과 같이 알지니라.

pp.606c23-607a2)에서 대원경지(大圓鏡智)·평등성지(平等性智)·묘관찰지(妙觀察智)·성소작지(成所作智)의 사지(四智)가 설해진다. 그런데 아직 ‘모든 식의 전변’과 ‘네 가지 지혜를 얻는다.’는 두 개념이 결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42송·제43송에서 전식(轉識)과 득지(得智)의 결합을 예상시키는 사상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은 ‘전식득지(轉識得智)’상이 형성되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섭대승』하권(大31 p.149b29-c7)에서 비로소 팔식(八識)과 사지(四智)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섭대승논식(攝大乘論釋)』에 “식은(識蘊)의 의지처를 전환하기 때문에 대원경지·평등성지·묘관찰지·성소작지를 얻는다. 이중에서 ① 대원경지(大圓鏡智)는 잃어버림이 없는 법으로서, 알아야 할 경계가 현전하지 않더라도 또한 능히 기억하여 아는 경지이다. 논서를 잘 익히고 독송하는 자는 이전부터 밝게 알았던 자다. ② 평등성지는 먼저 진정한 법계에 통달할 때 모든 유정의 평등심을 얻는 등이니 이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청정함을 알아야 한다. ③ 묘관찰지는 창고의 주인처럼, 그 원하는 대로 어떠한 다라니문·삼마지문에 따라 작의하고 사유하면 곧 자재하고 걸림이 없는 지혜가 전전함을 얻는 것이다. ④ 성소작지는 능히 도솔천에서 생을 마치는 데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시현하는 갖가지 불사에 대해 자재함을 얻는 것이다.”라고 한다. 『섭대승논식(攝大乘論釋)』9권(大31 p.372a12-21) 由轉識蘊依故, 得大圓鏡智 平等性智 妙觀察智 成所作智. 此中大圓鏡智者, 謂無忘失法, 所知境, 雖不現前亦能記了鏡智. 善習誦書論光明. 平等性智者, 謂先通達眞法界時, 得諸有情平等心等, 應知此中究竟淸淨. 妙觀察智者, 謂如藏主如其所欲, 隨於何等陀羅尼門, 三摩地門作意思惟, 即得自在無礙智轉. 成所作智者, 謂能示現從睹史多天宮, 而沒乃至涅槃, 種種佛事皆得自在. 또한 『성유식론』10권(大31 p.56a12-28)에는 4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237) 청정법계(淸淨法界) (Sdharma-dhātu-visuddhi)는 법계가 청정하다는 뜻이다. 법계란 분절된 의식에 의해 왜곡되기 이전의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말한다. 법계 청정란 이러한 세계의 청정성을 형용한 말이다.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어떤 것을 법계청정이라 하는가? 바른 지혜를 닦아서 모든 상(相)을 여의고 진여를 증득하는 것을 말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잠에서 꿈을 꾸면서 스스로 그 몸이 크고 사나운 물결 속에 떠다니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사나운 물결을 벗어나기 위해, 크게 정진하려는 마음을 내었으니, 곧 크게 정진하려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잠자기 곧 깨어나고, 깨어나서는 저 사나운 물결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相을 제거하는 이치도 이와 같다.”고 하였다. 『유가사지론』 73권(大30 p.701c4-9)

述曰，始終卷初，分爲三段，此卽第三流通分也。此文意言，此一釋迦行作意時，其餘釋迦亦爾，應知。從摩醯首羅等者，說十世界海等處，如卷初說。言心藏等者，傳說，“心藏卽三賢也，地藏者，十聖之地，戒藏，卽十重四十八輕戒也。無量行願藏者，卽上三賢十聖所有行願也。”因謂三劫，果卽四智，佛性常住，清淨法界也。自下總結，如文可解。

梵網經古迹記 卷第四 終

云何名爲法界清淨 謂修正智 故永除諸相 證得眞如 譬如有人 於眠夢中 自見其身 爲大暴流之所漂溺 爲欲越渡如是暴流 發大精進 卽由發起大精進故 欸然便覺 既得覺已於彼暴流 都無所見 除相道理 當知亦爾



◀ 菩薩戒本宗要 보살계본중요 ▶





解題 해제

1. 『범망경』의 전래와 주석서

『범망경』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제십(第十)의 약칭이며, 『범망경보살심지품(梵網經菩薩心地品)』·『범망계품(梵網戒品)』이라고도 한다. 총 2권으로 대정신수 대장경 24권(pp.997b6-1010a23)에 수록되어 있다. 본래는 120권의 광본(廣本)이 있었는데, 후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대소승(大小乘) 경론 50부를 번역하고 마지막으로 이 경의 보살행지(菩薩行地)를 밝히고 있는 「보살심지법문품(菩薩心地法門品)」 가운데 수행의 계위와 계에 관한 부분만을 따로 역출한 것이라고 한다.¹⁾

1) 『범망경(梵網經)』 권1(大24 p.997a27-b5) : 「詔天竺法師鳩摩羅什, 在長安草堂寺, 及義學沙門三千餘僧, 手執梵文, 口翻解釋, 五十餘部. 唯梵網經, 一百二十卷六十一品, 其中菩薩心地品第十, 專明菩薩行地. 是時 道融道影三百人等, 即受菩薩戒, 人各誦此品, 以為心首. 師徒義合, 敬寫一品八十一部, 流通於世, 欲使仰希菩提者, 追蹤以悟理故. 冀於後代同聞焉.」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권11(大55 p.79c2-5) : “三千學士與什, 參定大小



이 경의 성립에 관해서는 그간의 학문적인 성과에 의하면, 5세기 중간 무렵(420년경)에 중국에서 그 때까지 먼저 유행하고 있던 여러 종류의 대승계경(大乘戒經)과 소승율문(小乘律文), 『열반경(涅槃經)』 등의 대승경전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다시 더 효(孝)를 주로 하는 중국 고유의 사상까지 포섭해서 찬술된 중국 성립의 경전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 경은 이처럼 『화엄경』·『열반경』·『인왕반야경』 등의 대승불교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대승계경과 율문을 통섭(統攝)하고 계율의 조목을 정비해서 소승율과는 달리 출가와 재가의 구별이 없고, 중생의 공통된 계율에 의지한다는 점, 불성의 자각을 강조한 것을 특색으로 한다. 유포되어 전해진 과정과 역자 및 저자와 관련된 사실 등이 상세하지 않고 다른 경전이 많이 인용된 것으로 보아 범어 원본을 한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경우 편찬 연대는 유송(劉宋) 말년 경으로 추론한다.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 인도 찬술이라 해도 믿을 만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이 경은 대승보살계의 근본성전으로 예로부터 존숭되어 왔으며, 본경의 교주는 연화장세에서 성도하신 노사나불이다. 보살 수도(修道)의 계위(階位)와 수지(受持)해야 할 십중계(十重戒)와 48경계(四十八輕戒)의 계상(戒相)을 설명하고 있다. 상권에 보살의 계위인 십발취심·십장양심·십금강심 등의 삼십심과 십지 등의 사십법문을 설명하고 있으며, 하권에서는 십중대계와 사십팔경구계의 계상을 상세히 설명한다.

예로부터 하권이 더욱 성행하였는데, 이 경우 별도로 한 것을 『범망경보살계경(梵網經菩薩戒經)』·『보살계본(菩薩戒本)』·『다라계본(多羅戒本)』

乘經五十餘部。唯菩薩十戒四十八輕，最後誦出，時融影三百人等，一時受行修菩薩道。”

本)』·『보살바라제목차경(菩薩波羅提木叉經)』·『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중사십팔경계(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十重四十八輕戒)』 등이라고 불렀다. 본경의 주석서는 매우 많다. 중국의 대표적인 것은 수나라 때 천태대사의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2권, 당나라 때 명광(明曠)이 산보(刪補)한 『천태보살계소(天台菩薩戒疏)』 3권, 당나라 때 법장(法藏)이 찬술한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6권 등이 있다.

『범망경』이 어느 때에 신라에 전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헌에서 ‘보살계’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진평왕(眞平王) 대에 원광(圓光)이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주면서,

불교에 보살계가 있어서 열 가지가 있으나, 그대들은 신자로서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대들에게는 세속의 오계를 주리라 ...²⁾

고 한 데서 보인다. 원광(圓光)은 진평왕 11년(589)에 중국에 유학하여 『성실론』과 『열반경』 등 대소승 교의에 통달하고 『반야경』을 강설하여 이름을 드날렸다. 이후 진평왕 22년에 귀국하였으니, 당시 중국의 수(隋) 나라에서 『범망경』을 연구하여 신라에 전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장(慈藏)은 선덕여왕 5년(636)에 입당(入唐)하여 선덕여왕 12년에 귀국할 때, 당 태종으로부터 대장경 1부를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범망경』과 그 주석서 등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많은 주석이 이루어졌다. 원효가 지은 『범망경소(梵網經疏)』 2권, 『범망경약소(梵網經略疏)』 1권, 『범망경

2)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 「원광서학조(圓光西學條)」 “光曰, 佛教有菩薩戒, 其別有十. 若等爲人臣子, 恐不能堪, 今有世俗五戒, 一曰事君以忠, 二曰事親以孝, 三曰交友有信, 四曰臨戰無退, 五曰殺生有擇, 若行之無忽.”

중요(梵網經宗要)』1권,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2권, 『범망경보살계본지범요기(梵網經菩薩戒本持犯要記)』1권, 의적(義寂)이 찬술한 『범망경문기(梵網經文記)』2권,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3권, 승장(勝莊)의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3권과 태현이 찬술한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2권·『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1권, 단목의 『범망경기(梵網經記)』2권, 원승(圓勝)의 『범망경기(梵網經記)』1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6종의 저술이 현재 전하여 한국불교전서, 대정신수대장경, 속장경 등에 수록되어 있다.

2. 태현(太賢)

태현은 경덕왕(742-765) 때 스님으로 유가종(瑜伽宗)의 개조로 알려져 있으며, 경덕왕 12년(753) 여름에 내전에 초청되어 기우(祈雨)행사를 주관 하기도 하였다. 휘는 태현(太賢)이며³⁾ 자호(自號)는 청구사문(靑丘沙門)이다. 생몰연대와 전기는 『삼국유사』에 행적이 소개된 외에 달리 전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⁴⁾ 원효 다음으로 신라에서 많은 저술을 남긴 것으로 유

3) 채인환의 고증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의 문헌자료에는 거의가 태현(太賢)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일본에 전하는 문헌자료의 대부분은 태현(太賢)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채인환(蔡印煥), 「신라(新羅) 태현법사연구(太賢法師研究) I - 대승계학(大乘戒學)」, 불교학보 20, 1983.

4) 나라(奈良)의 도다이지(東大寺)에 있으면서 『율종강요(律宗綱要)』·『삼국불법전통연기(三國佛法傳通緣起)』 등 많은 저술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교넨(凝然, 1240-1321)의 저서 가운데 『태현법사행장록(太賢法師行狀錄)』 1권이 있었다고

명하다. 태현은 유식학(唯識學)에만 머물지 않고 불교학의 여러 분야를 갖추어 연구하여 여러 불교사상에 널리 통달하였다.

『삼국유사』 권4 의해(義解)5 「현유가(賢瑜伽)」에는 “유가조(瑜伽祖) 대덕 태현화상(太賢和尚)이 남산 용장사에 주석하였다.”라고 하였다. 특히 스님은 유식(唯識)과 인명(因明)에 정통하여 국내의 후진을 개도(開導)함은 물론 중국의 학자들까지도 크게 흠양하였다. 스님은 후세에 ‘신라(新羅) 유가조(瑜伽祖) 대덕태현(大德太賢)’이라고 존칭되었듯이 국내와 국외의 대덕선사들이 법상(法相)에 관하여 밝힌 의지(義旨)를 널리 여러 저술에서 집성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신라 유가연구의 기반을 세웠다. 스님의 계보에 있어서는 원칙(圓測)의 제자인 도증(道證)의 제자라고 하나 확실한 문헌적 근거는 없다.⁵⁾ 스님은 많은 저술을 남겼으므로 원효·경홍과 더불어 신라의 3대 저술가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도 저술이 전해져 많은 주석서가 나오는 등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세이산(清算)의 『범망경상권고적기강의(梵網經上卷古迹記綱義)』 제1에는

태현(太賢)이란 소주(疏主)의 휘명(諱名)이다. 이조(異朝)에서는 율사(律師)·선사(禪師)·법사(法師)의 삼사호(三師號)를 세웠으며, 이는

하나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 5) 쇼엔(照遠)은 ‘有人云’이라 인용하면서, 태현(太賢)을 도증(道證)의 제자라고 하는 글은 ‘요집(要集)’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태현이 도증의 제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조명기(趙明基)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원측의 제자가 도증이며, 도증의 제자가 태현이라고 하나 확실한 기록을 볼 수가 없고, 스님의 문하에는 회암 윤권 구암 등의 제자가 있었다. 그리고 사상계통을 보면 분명히 동일한 법맥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제덕의 교시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명기(趙明基),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 채인환의 상기 논문에서 재인용)

법사의 호이니,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의 서(序)에 태현법사(太賢法師)라 칭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연(凝然)법사의 기(記)에 이르기를 ‘태현은 신라국인이며, 오직 자국에서만 불법을 편 까닭에 고승전 가운데에는 이 스님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규문(蚘文)⁶⁾은 당(唐)에도 전통(傳通)하고 있으니 신라의 순경(順憬)·의상(義湘)과 같이 승전(僧傳)에 실려야 함은 분명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대당 대천복사의 도봉법사는 서(序)를 지어서 스님이 찬술한 제문(諸文)의 수(首)에 관(冠)하였고,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의 수(首)에도 두었다. 또 멀리서나마 법사의 행업(行業)을 탄식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오백에 응하여 훌륭하게 일어난 사람은 그 누구인가? 바로 신라(東國)의 태현 법사가 그 사람이다. … 그러나 자취를 감추어 만남을 멀리 기약하여…’라 하였으니, 그가 승전(僧傳)에 실리지 않은 것은 작용을 숨기고 광명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하더라도 태현의 저서는 당(唐)까지 전해져서 널리 유통되었고 존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승전(僧傳)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감히 건지기 어려울 정도로 그 행업이 널리 알려지고 크게 찬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나 일본 등에 전해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태현의 학덕(學德)을 그의 저술에 의하여 찬탄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행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행장의 일부라도 전하고 있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에 있는 태현에 관한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6) 규문(蚘文) : 규(蚘)는 뿔이 없는 용. 용이 굽틀거리는 것 같은 기운을 가리키는 말이니, 귀중한 것을 형용하는데 쓰이는 말이다. 보기 드문 훌륭한 문장을 비유하여 규문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태현의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를 지칭함.

유가종의 시조[祖]이며 대덕이신 대현(大賢)은 남산의 용장사(菴長寺)에 주석[住]하였다. 절 안에 미륵보살[慈氏]의 석상(石像)이 있으니 일장 육척(一丈六尺)이었다. 대현이 항상 그 주위를 돌면 석불(石佛)도 또한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고 한다. 대현은 지혜와 변제가 정밀하고 민첩하여 결택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대개 범상종[相宗]의 도리는 뜻과 이치가 깊고 오묘하여 쪼개어 분석하기가 어렵다. 중국의 명사 백거이(名士 白居易)도 일찍이 이것을 연구하다 해내지 못하고 말하기를 “유식은 오묘하여 알기 어려우며, 인명(因明)은 분석해도 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이어받아 계승하기 어려운 지 오래되었다. 대현이 홀로 그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잠깐만에 심오한 뜻을 열어 자유자재로 분석하니 동국의 후학들이 모두 다 그의 가르침을 따랐으며, 중국의 학자들도 자주 그의 글을 의지하여 안목을 삼았다.

경덕왕(景德王) 천보(天寶) 십이년(十二年) 계사해[癸巳, 753]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었으므로 (대현에게) 왕명을 내려 내전에 들어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강설하여 단비를 빌게 하였다. 하루는 사시공양 때에 발우를 펴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기다렸으나 정수(淨水)를 올리는 것이 늦어졌다. 감독하는 관리가 늦은 것을 나무라자 공양 준비하는 자가 말하기를 ‘궁궐의 우물이 말라서 먼 곳에서 길어 오느라 늦었습니다.’ 하였다. 대현(大賢)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하여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더라. 오후 경을 강설할 즈음에 향로를 받들고 아무 말 없이 계시니 이에 잠깐사이에 우물물이 솟아 나와 일곱 길이나 되게 올라가는 모양이 마치 찰당(刹幢)과 같았다.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탄복하니, 이 일로 인하여 그 우물을 금광정(金光井)이라 부르게 되었다. 찬탄하는 시에

남산 위 부처님을 돌고 도니 불상도 대현 따라 돌고 돌았네
청구의 불일(佛日) 하늘 한가운데 다시 떠오르니
금광명경 강설함에 마른우물에서 맑은 물 솟구치네

그 누가 알았으랴 한 줄기 향 연기의 신령스러움을.⁷⁾

이렇듯 태현은 단순히 교리에만 해박한 학승일 뿐만 아니라 남다른 신심과 능력을 지니고 국리(國利)와 민복(民福)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살행을 실천한 분으로서 신라의 땅에 불법의 해를 다시 뜨게 한 스님이라고 칭송되었다. 이상으로 비록 태현이 그 자취를 숨겨 드러내지 않는 일생을 보냈지만, 그의 높은 학덕과 당시 신라인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국내외에서 추앙받은 명성을 알 수 있다.

태현의 저술은 경율론의 삼장에 걸쳐 있으므로 후세에 ‘해동의 자은(慈恩)’이라는 칭송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모두 43종에 달하는 저술을 남겼으나⁸⁾ 대부분 산실(散失)되었다. 현재 전해지는 것으로는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2권·『범망경보살계본종요(梵網經菩薩戒本宗要)』 1권·『약사

7) 『삼국유사』 4권, 의해(義解)5 「현유가(賢瑜伽條)」瑜珈祖大德大賢, 住南山茸長寺. 寺有慈氏石丈六, 賢常旋繞, 像亦隨賢轉面, 賢惠辯精敏, 決擇了然. 大抵相宗鎔量, 旨理幽深, 難爲剖析. 中國名士白居易, 嘗窮之未能, 乃曰, “唯識幽難破, 因明擘不開.” 是以學者, 難承稟者尙矣. 賢獨刊定邪謬, 暫開幽奧, 恢恢游刃. 東國後進, 咸遵其訓, 中華學士, 往往得此爲眼目. 景德王天寶十二年癸巳, 夏大旱, 詔入內殿, 講金光經, 以祈甘霖. 一日齋次, 展鉢良久, 而淨水獻遲. 監吏詰之, 供者曰, “宮井枯涸, 汲遠故遲爾.” 賢聞之曰, “何不早云.” 及晝講時, 捧爐默然, 斯須井水湧出, 高七丈許, 與利幢齊. 闔宮驚駭, 因名其井曰金光井. 賢嘗自號青丘沙門. 讚曰, 遶佛南山像逐旋, 青丘佛日再中懸. 解教宮井清波湧, 誰識金爐一柱烟.”

8) 태현의 저술에 관해서는 민영규(閔泳珪), 「신라장소록장편(新羅章疏錄長編)」(『白性郁頌壽紀念 佛教學論文集』, 1959), pp.375-378 및 조명기(趙明基),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新太陽社, 1962), pp.191-194에서는 각각 45종, 54종을 들고 있으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편,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동국대출판부), pp.72-82에서는 52종을 들고 있다. 또 채인환(蔡印煥), 『신라불교계율사상연구』(國書刊行會, 1977), pp.378-386에서는 43종을 들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일단 채인환이 고증한 43종을 따르기로 한다.

본원경고적기(藥師本願經古迹記)』2권·『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8권·『기신론내의약탐기(起信論內義略探記)』1권 등 5부 14권의 저술이 남아 있다.

3. 『범망경보살계본중요』

8세기경 신라의 태현이 지었으며, 신수대장경 45권(pp.915a14-918a24), 한국불교전서 3권(pp.479a8-483a20)에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태현의 또 다른 저술인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이하 『고적기』)에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적기』보다 앞서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고적기』를 짓기 위한 전 단계 연구로 평가된다.⁹⁾ 즉, 태현은 『범망경』을 주석하기에 앞서 그 전초작업으로 범망계의 요지(要旨)에 대한 파악인 『중요』를 지었던 셈이다. 이는 대승보살계가 설해져 있는 『범망경』을 태현이 매우 유념하고 중시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범망경보살계본중요(梵網經菩薩戒本宗要)』(이하 『중요』)는 『범망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범망경』 하권에서 설한 보살계본에 의거하여 대승보살계의 대강을 정립하면서 율문의 추요(樞要)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대승보살도를 수행하여 구경의 불도를 성취하려는 사람이 먼저 보살계를 수지해 가는데 있어 제일 알기 어려운 것이 지범(持犯)의 세상(細相)

9)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에 『중요』가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은 小野玄妙編, 『佛書解説大辭典』10 (大東出版社, 1964 改訂版), p.232에서 지적한 바가 있으며, 채인환도 『신라불교계율사상연구』, pp.407-408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인데, 대현은 중요에서 전체의 내용을 삼문(三門)으로 나누는 가운데 최후의 수행차별문(修行差別門)에서 전문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여 수행론을 펴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지범상문(持犯相門)을 마련하여 간결하게 지범(持犯)의 추요(樞要)를 밝힘으로써 지범개차(持犯開遮)에 대한 것을 한 눈에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는 『범망경보살계본중요』·『범망경중요』라고도 한다. 『범망경』하권에 설해진 보살계에 근거하여 보살계의 의의를 밝힌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의 내용은 『범망경』의 근본취지를 펼쳐 보이는 신경의문(申經意門), 상을 자유자재로 세우는 주체와 성립된 상의 뜻에 대하여 서술한 능소상문(能所相門), 바른 수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 수행차별문(修行差別門)의 3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신경의문에서는 경의 제목에 의거해 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대의를 밝혔다. 경이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품’이니, 범망경 혹은 보살계경이라고도 한다. 노사나불은 번역하면 정만(淨滿)이며, 인위(因位)의 보살수행의 도정(道程)이고, 계위(階位)를 말한 것이 심지범문품이다. 그 가운데 신구의 삼업의 방비지악(防非止惡)을 위한 계를 만든 것이 대승의 불성계(佛性戒)이며 거기에 보살계가 있다. 범망경이라는 명칭은 이 경이 대범천왕의 중중무진한 망라당(網羅幢)에 인(因)하여 설하고 이와 같이 무량무진한 불법도 인교망(人教網)을 펴서 무변한 인천의 중생을 제도하여 제불의 위(位)에 들도록 함에 비유한 것이다. 심지(心地)란 이 계가 일체 불보살의 본원이 있고, 일체중생의 불성종자가 있어 만덕을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능소상문은 다시 능성상문(能成相門)과 소성상문(所成相門)으로 분류한다. 능성(能成)이란 능히 보살계를 수지하여 보살행을 성취할 수 있는 근기, 즉 능히 계를 수지하는 사람을 말하며, 어떤 중생이던 마음이

있는 이는 모두가 이 계를 수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소성(所成)이란 대승보살도를 수행함에 수지된 계법, 즉 지켜야 되는 보살계로서, 계를 받는 것과 범하는 것, 잃는 것의 세 가지 점에서 보살계와 성문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수행차별문에서는 보살계를 잘 수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 선사(善士)를 친근히 해야 하고, 둘째 정법을 설해줄 것을 요청하여 들어야 하며, 셋째 제행무상(諸行無常)·유루개고(有漏皆苦)·삼계부정잡염성(三界不淨雜染性, 삼계는 청정하거나 물드는 일이 없음)·제법무아(諸法無我)의 이치를 관찰하여 모든 진도된 생각을 제거해야 하며, 넷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수행하는 것에도 다시 네 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한다. ①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고, ② 바라밀다를 닦아야 하며, ③ 계의 경중을 알아야 하고, ④ 지키는 것과 어기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태현은 『중요』에서 범망의 보살계는 삼취정계(三聚淨戒)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삼취정계 속에는 육바라밀과 사섭법 등의 만행이 구족하게 섭지(攝持)되어 있지 않음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계의 경중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삼취정계 중 섭율의계(攝律儀戒)에는 10종 48경계가 있지만, 악(惡)은 삼독(三毒)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 곧 10종계 중 뒤의 네 가지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네 가지란, 유가계본에 수록된 4종타승처법(四種他勝處法)으로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 것, 재물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 것, 분노하는 마음을 내지 말 것, 대승법을 비방하지 말 것 등을 말한다.

섭선법계(攝善法戒)는 수복사지(修福捨智)와 기대향소(棄大向小)가 위

배의 근본이 되고, 섭중생계(攝衆生戒)는 선자후타(先自後他)·친원(親怨)에 대한 상념이 있는 것 등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는 삼취정계 각각의 근본이 되는 것을 밝혔다는 특색이 있다. 계를 지키는 것과 어기는 것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총상(總相)·별상(別相)·구경문(究竟門)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구경문의 설명은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의 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본서의 주석서로는 채인환의 조사에 의하면 31종의 주석서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가쿠세이(覺盛)의 『보살계본종요잡문집(菩薩戒本宗要雜文集)』 1권, 코세이(興正)의 『보살계본종요보행문집(菩薩戒本宗要輔行文集)』 2권, 자쿠인(寂隱)의 『보살계본종요관해(菩薩戒本宗要關解)』 3권, 쇼가쿠(宗覺)의 『보살계본종요찬주(菩薩戒本宗要纂註)』 2권 등 28종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¹⁰⁾

4. 맺는 말

이상 태현의 행장(行狀)과 태현의 현존 저술 중 『범망경보살계본종요』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살펴본 바, 스님의 윤리관은 대승보살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유가계본에 입각한 보살계사상을 실천함에 있었다. 스님의 교학연구는 법상(法相)에만 머물지 않고 제종(諸宗)을 겸하여 경을

10) 채인환(蔡印幻), 「신라(新羅) 대현법사(大賢法師) 연구(研究) III-대승계학(大乘戒學)」(불교학보 22, 1985), pp.47-48.

론 삼장의 모든 불교사상을 망라하고 있으며, 저술도 대단히 많고 해동의 자은(慈恩)이라고까지 칭송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천성이 명민하고 자품(資稟)이 뛰어난 현인이면서도 명예를 좋아하지 않고 숨어서 덕행을 행한 까닭에 행장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계로써 생활을 청정하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정을 닦을 수 없으며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오늘날 승가의 위상이 실추되고 적지 않은 비난을 초래하게 된 데는 계행의 실천이 따르지 않은 면이 그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대야 말로 계율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며, 그 령기에 스님의 남기신 저술이 소중하고 또 감사한 것이다.

태현법사의기서大賢法師義記序

대천복사¹⁾ 승 도봉이 짓다.

大薦福寺僧 道峰撰

내가 관찰해보건대 많고 많은 중생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번뇌의 뿌리를 키우고, 허둥지둥 성급한 많은 사람들은 세속의 인연[垢緣]에 끄달려서 미혹의 나무만 키우고 있다. 비유하면 공화(空華)²⁾가 생겼다가 사라

-
- 1) 대천복사(大薦福寺)는 섬서성 장안현 서안성 남쪽에 위치한 고찰. 문명원년(文明元年, 684년) 측천무후가 고종의 추복(追福)을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처음의 이름은 대현복사였다. 천수원년(天授元年, 690) 대가람으로 영식(營飾)하였고,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경룡(景龍) 년중(年中)에 15층 전탑을 세웠는데 높이가 40미터로서 대자은사의 대안탑과 마주하여 우뚝 서게 되니 소안탑이라고 하였다. 경룡(景龍)·경운(景雲) 년간에 의정(義淨)삼장이 이 절의 변경원(翻經院)에서 선후로 『육상공덕경(浴像功德經)』 등 28부 88권과 『칭찬여래공덕신주경(稱讚如來功德神呪經)』 등 12부 21권을 역출(譯出)하였고, 개원년간(開元年間)에 금강지(金剛智)삼장이 또한 『금강정경만수실리보살오자심다라니품(金剛頂經曼殊室利菩薩五字心陀羅尼品)』·『관자재여의륜보살유가법요(觀自在如意輪菩薩瑜伽法要)』 각 1권을 역출하였다. 무종(武宗) 회창원년(會昌元年, 841)에 일본 승려 원인(圓仁)이 이 절에 와서 불아루(佛牙樓)에 올라 불아(佛牙)에 공양하였다. 명나라 가정(嘉靖) 년간에 두 차례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안탑(雁塔) 최상의 이층(二層)이 손상되었고 지금은 13층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은 『정원신정석교목록(貞元新定釋教目錄)』 13권·『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9권·『구당서본기(舊唐書本紀)』 제7·『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3권.

- 2) 공화(空華, khaṇuṣpa)는 실재하지 않는 허공의 꽃을 말한다. 본래 실체가 없는 곳에서 뿔뿔히 흩날려 일으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집착하는 것을 눈병이 있는 사람이 아무 것도 없는 허공에 마치 꽃이 있는 듯이 오인하는 것에 비

지는 것과 같고, 화륜(火輪)³⁾이 치달리면서 돌아가는 것과 같다.

吾觀，悠悠羣動營塵業，以增夫漏根，遑遑衆人攀垢緣，以津於
惑樹。譬乎空華起滅，火輪旋⁴⁾馳

그러므로 진범(眞梵)께서 이를 가없이 여기서서 보배뗏목을 운행하시
고, 세웅(世雄)⁵⁾께서 교화를 주재하심에 훌륭한 법장[金章]으로써 하셨
다. 만약 그 정미로움을 길러서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인식의 허망한 바
다를 뛰어넘어 어지러이 살아감을 버리고, 몸속의 정신[宅神]이 신령해져

유한 말이다. 『불설대승수전선설제법경(佛說大乘隨轉宣說諸法經)』 1권(大15 p.774c1-5)에 “선남자야 세간의 일체중생의 묘명원심이 본래 청정하여 모든 더러움이 없어서 시방에 원만하여 담연 적정함이 마치 허공에 본래 티끌이 없이 적연 청정하지만 중생이 눈에 병이 나면 공화가 생기는 것과 같아서 공화가 일어나고 공화가 사라지는 것이 병든 눈으로 보는 바라 눈병이 나으면 공화 또한 소멸하여 청정한 허공은 본래 움직임이 없으니 묘명원심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善男子，世間一切衆生，妙明元心，本來清淨，無諸垢染，圓滿十方湛然寂靜，猶如虛空本無塵翳寂然清淨，衆生眼病空華發生，華生華滅病眼所見。眼翳既消，空華亦滅，清淨虛空，本來不動，妙明元心，亦復如是。”라고 하였다.

3) 화륜(火輪)은 선화륜(旋火輪). 불을 빨리 돌리면 바퀴 모양으로 보이는 것. 비록 바퀴의 모양으로 보이나 바퀴의 실체는 없는 것처럼 유위법(有爲法)이 염념상속(念念相續)하여 가지가지의 모양을 나타내지만 그 실체가 없는 것의 비유.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3권 「집일체법품(集一切法品)」(大16 p.601b5-6)에 “비유하면 화륜(火輪)은 수레바퀴가 아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레바퀴로 생각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譬如火輪，實非是輪，愚夫取著，非諸智者.”고 하였다.

4) 卍60 p.357a4와 大40 p.915a21(寬文八年刊 宗教大學藏本)과 藥師寺藏本(元祿二年刊)에는 ‘施’로 되어 있으나 韓3 p.478a에는 ‘旋’으로 되어 있다.

5) 세웅(世雄)은 부처님의 존칭. 부처님은 대정력(大定力)이 있어 웅건한 덕을 갖추시며 세간의 가장 웅맹(雄猛)스러운 분으로 능히 일체의 번뇌를 끊어 다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무량수경(無量壽經)』 권상에 “今日世雄，住佛所住.”이라 하였고, 「법화경방편품(法華經方便品)」에 “世雄不可量”이라 하였다.

온갖 작용을 기쁘게 하면서도 편안할 것이다.

故眞梵哀夫，運之以寶筏，世雄宰化，授之以金章。若蹟其精微，冥厥中秘則，超識妄海，遺捐汨紛，宅神靈鄉，惺用恬止。

천고(天鼓)⁶⁾가 처음 광요(光耀)⁷⁾에서 올림으로부터 도가 참되고 바르며 진실해졌다. 세안(世眼)⁸⁾께서 마침내 견고림[堅林]⁹⁾에서 입멸하셨지만, 이치는 오직 하나를 깨닫는 것일 뿐이다. 천년 뒤에 이르러서 두宗旨(宗旨)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었으니, 유(有)에 집착하면 공(空)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면 유를 버리면서 각각 한 쪽 극단에 의거하여 중원(中源)을 밟지 못하였다.

自天鼓始奏於光耀，道實正眞。世眼初滅於堅林，理唯一悟。至乎千歲之後，二宗肇興，執有則遺¹⁰⁾空，著空則遺¹¹⁾有，各據邊

6) 천고(天鼓)는 ① 도리천(初利天) 선법당(善法堂)에 있는 북으로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묘음을 낸다고 함. ② 부처님의 다른 이름 (『법화의소(法華義疏)』1권)

7) 광요(光耀)는 광요토(光耀土). 부처님께서 『화엄경(華嚴經)』을 설하신 장소인 광요토보광명전(光耀土寶光明殿). 『벽암록』 28칙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으셨다. 처음 광요토(光耀土)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한 자도 설하지 않으신 것이다.” (불가원오선사(佛果圓悟禪師) 『벽암록(碧巖錄)』 3권(大48, p.168c14-16) 釋迦老子出世，四十九年，未曾說一字。始從光耀土，終至跋提河，於是二中間，未嘗說一字)라고 하였다.

8) 세안(世眼)은 세간안(世間眼)의 준말. ① 세계의 어둠을 비추는 눈. ② 세상의 안목이 되는 사람, 즉 부처님, 세존.

9) 견림(堅林)은 견고림(堅固林). 부처님의 열반지인 구시나가라 성 밖에 있는 사라쌍수림. 이 나무는 겨울이나 여름에도 시들지 않으므로 견고라고 한역한다. “사라는 견고라고 한다. 북원(北遠)이 겨울이나 여름에도 변하지 않으므로 견고라고 이름한다.”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 권3(大54 p.1100b18-19) 娑羅，此云堅固。北遠云，冬夏不改，故名堅固.

10) 卍60 p.357a8과 大40 p.915a25와 藥師寺藏本에는 ‘遺’으로 되어 있으나 韓3

岸, 未涉中源.

아! 덕풍(德風)은 훈기를 그치고 신선의 감로는 그 맛을 잃어버려 대의(大義)를 장차 잃게 되었으니 그 누가 버리를 제시[提綱] 하리요? 다섯 해가¹²⁾ 인도 전역[五天]에 비추어서 다시 밝은 빛이 펼쳐지고, 세친[千部]이 천고(千古)에 명성을 드날려 다시 큰 공훈을 세우시니, 참되도다! 진실로 빛을 잇고 등불을 전하심에 봄에는 난초 피고 가을에는 국화 피었네.

嗟乎, 德風罷熏, 仙露失味, 大義將喪, 孰云提綱? 則五日傳照於五天, 還舒麗景, 千部飛聲於千古, 再樹洪勳, 信夫! 繼燭傳燈, 春蘭秋菊.

그러므로 오백 년에 응하여 걸출하게 일어난 분은 그 누구인가? 바로 신라[東國]의 태현 법사가 그 사람이다. 그의 그윽한 풍모는 맑고 아득했으며 도의 기운은 고절(孤節)하고 웅대(雄大)하였다. 뛰어난 문장과 빼어난 지략[龍章鳳雛]을 갖춘 자태와 황하를 가로막고 산을 들어 올릴 듯한[河關岳聳] 도량을 지니셨다. 20세를 넘어서 깨달음의 나무를 신라[靑丘]¹³⁾에 심었고 30세가 되어서는 자비의 배를 온 세상[陸海]에 띄웠다. 그러나 자취를 숨기고 기약하는 것을 원대하게 하여 마침내 그 행동을 숨기고 지혜의 빛을 감추었다.

p.478c12에는 ‘遣’로 되어 있다.

11) 卅60 p.357a9과 大40 p.915a26과 藥師寺藏本에는 ‘遣’로 되어 있으나 韓3 p.478c12에는 ‘遣’으로 되어 있다.

12) 다섯 해[五日]는 용수·제바·불호·월칭·청변으로 이해된다.

13) 청구(靑丘)는 옛날 중국에서 한국을 일컫던 별칭. 하늘에는 청구라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한국의 땅을 맡고 있다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然應五百而傑起，其誰歟？卽東國太賢法師其人也。玄風清
邈，道氣孤雄。龍章鳳雛之姿，河關岳聳之量。踰弱冠之歲，栽
覺樹於青丘，將成立之年，泛慈舟於陸海。而跡幽期遠，遂潛
用韜光。

이치의 동산[義園]이 시들어 감을 슬퍼하고 법의 다리[法橋]가 무너짐
을 탄식하여 안으로 『유가사지론찬요(瑜伽師地論纂要)』 3권을 저술하였
고, 『유식결택(唯識決擇)』 1권과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 1권, 그리
고 『본모송(本母頌)』 일백 줄을 지어 후손에게 전하였다. 글의 말씀이 아
름답고 이치가 깊으며, 글이 간략하면서도 의미가 풍부하고 또렷하다. 밝
은 지혜의 해[慧日]가 더욱 눈부시고, 빛나는 깨달음의 산[覺山]이 더욱
아름다워져서 갈림길에서 헤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곧바로指南(指南
車)¹⁴⁾를 보게 하였으니, 그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도 서진(西秦)의 거울¹⁵⁾
로 우러러 보았다.

嗟義苑之彫榮，歎法橋之墜構，內¹⁶⁾述瑜伽纂要三卷，造唯識
決擇一卷，菩薩戒本宗要一卷，并本母頌一百行，用傳來葉。並

14) 指南車(指南車)의指南(指南)은 방향을 가리키는 기구로서 나침반을 말하며, 전
하여 ‘가리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指南車(指南車)는 수레 위에 신선(神
仙)의 목상(木像)이 있어 그 손이 항상 남쪽을 가리키게 만든 수레이다.

15) 서진(西秦, 385-431)은 5호16국의 하나로서 선비족(鮮卑族)의 걸북국인(乞伏國
仁)이 감숙성 남부지방에 세운 나라. 4주 47년 만에 하(夏)나라의 혁련정(赫連
定)에게 망하였다(385-431). 서진시대에는 불교가 매우 흥왕하였다. 그러나 본
장에 쓰인 ‘서진지경(西秦之鏡)’은 후진의 구마라집이 『범망경』을 번역한 의의
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6) 卽60 p.357a16과 大40 p.915b5와 藥師寺藏本에는 ‘因’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79a1에는 ‘內’로 되어 있다.

詞妍理邃, 文約義豐. 彪炳之慧¹⁷⁾日增明, 采¹⁸⁾燦之覺山踰麗,
庶使迷於岐路, 直觀南指之車, 昧其形顏, 仰鑒西秦之鏡者爾.

17) 大40 p.915b8와 藥師寺藏本에는 '惠'로 되어 있으나 韓3 p.479a4에는 '慧'로 되어 있다.

18) 卍60 p.357a18과 大40 p.357b.8과 藥師寺藏本에는 '采'로 되어 있으나 韓3 p.479a5에는 '采'로 되어 있다.

보살계본 중요 菩薩戒本宗要

청구사문 태현이 짓다.
靑丘沙門 太賢撰

용사가 전쟁에 임하면 죽어서야 돌아오듯	勇士交陳死如歸,
장부가 도를 향함에 어찌 물러날 수 있으리.	丈夫向道有何辭.
처음 시작 언제나 어렵고 영원히 쉽지 않지만	初入恒難永無易,
어렵다고 물러서면 어느 세월에 이루리.	由難若退何劫成.
장부가 삼계의 왕이 되기를 바란다면	丈夫欲取三界王,
지혜의 칼 휘둘러 온갖 장애 끊어야만 하리.	當揮智劍斷衆魔.
나는 고행에 두려움 없기를 서원하고	吾於苦海誓無畏,
장엄한 계의 뗏목으로 온 세상 구제하리.	莊嚴戒筏攝諸方.

이제 이 경에 의거하여 지니고 범하는 긴요한 점을 해석함에 있어서 간략히 세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경의 뜻을 펴는 문[申經意門]이요, 둘째는 주체와 대상을 이루는 문[能所成門]이요, 셋째는 수행에 있어서 차별이 있음을 밝힌 문[修行差別門]이다.

今依此經，釋持犯要，略有三門。一申經意門，二能所成門，三修行差別門。

첫째, 경의 뜻이란, 경에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지품」이라 하였으니,

범(梵)이란 ‘능히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요, 망(網)이란 ‘중생[有情]을 포섭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이 경은 유정천[有頂]에 이르기까지 나고 죽는 큰 바다에서 중생들을 꺼안아 마침내 위없는 적멸의 언덕에 이르게 하여, 그지없이 많은 모든 목마르고 배고픈 중생들을 요익하게 함이 세간의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세존께서 범망(梵網)을¹⁹⁾ 인하여 일부(一部)의 근본 핵심[宗心]을 설하시어 만덕을 생장케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심지(心地)라고 하였다.

一經意者，經曰，梵網經盧遮那佛說菩薩心地品，梵者能淨之義，網者攝有情義。謂此經者，乃至有頂，生死大海，拘持有情，終致無上寂滅之岸，無盡饒益諸飢渴類，如世網故。由斯世尊，因梵網說一部宗心，生長萬德，名爲心地。

둘째, 주체와 대상을 이루는 문[能所成門]이란 간략히 두 가지 문이 있으니, ①능히 상을 이루는 문[能成相門]이요, ②이루어진 상의 문[所成相門]이다.

二能所成門者，略有二門，一能成相門，二所成相門。

첫째, 능히 이론다는 것은 경에 이르기를 “모든 마음을 가진 자는 다 마땅히 불계(佛戒)를 섭지(攝持)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를테면 무상승(無上乘)²⁰⁾은 지극히 심오하고 지극히 광대하고, 지극히 심오하기 때

19) 범망(梵網, ㉠bramma-jāla, ㉡brahman-jāla)의 ‘梵’이란 주체인 범왕(梵王, 大梵天王) 또는 부처님. ‘網’이란 중생을 포섭하는 가르침을 그물에 비유한 말. 또는 범왕이 지닌 망라당(網羅幢, 그물에 걸린 깃대)의 그물코를 비유로 삼아 세계와 중생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만큼 많다는 뜻을 나타낸다.

20) 무상승(無上乘, ㉠yāna-ānuttarya, mahāyāna)이란 최상의 승(乘)이라는 뜻으로 대승의 다른 이름이다. 『대보적경(大寶積經)』 28권(大11 p.157b2-5)에 “선남자여

문에 다하기가 진실로 어려우며, 지극히 광대하기 때문에 일체가 인을 이룬다. 하나의 티끌과 작은 물방울이 산과 바다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제불께서 계를 제정하심에 걸림이 없으니, 다만 말을 알아듣는 이들이 일으킨 마음은 종성²¹⁾의 힘[種姓力]을 말미암아 모두 인(因)을 이루기 때문이다.

一能成者, 如經曰, "一切有心者, 皆應攝佛戒." 謂無上乘, 至深至廣, 以至深故, 極之良難, 由至廣故, 一切成因. 一塵微滯, 山海本故. 由此諸佛, 制戒無礙, 但解語者, 所發之心, 由種姓力, 皆成因故.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결정코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기를 희구하면서 유정계(有情界)를 다하여 지극한 장부의 행

제불여래의 정진장각으로 행하는 도는 그 승을 대승이라 하며 상승이라 하며 묘승이라 하며 승승이라 하며 무상승이라 하며 무상상승이라 하며 무등승이라 하며 불악승이라 하며 무등등승이라 한다. 善男子, 諸佛如來正真正覺所行之道, 彼乘名為大乘, 名為上乘, 名為妙乘, 名為勝乘, 名無上乘, 名無上上乘, 名無等乘, 名不惡乘, 名為無等等乘."고 하였다.

- 21) 종성(種姓, ☐gotra)은 종성(種性)이라고도 한다. 성문·연각·보살 등의 삼승이 각각의 깨달음을 얻은 종(種)이 되는 본래적 소성(素性)·소질(素質)을 말한다. 여기서는 선천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경우와 후천적인 수행에 의해서 얻는 2종의 종성이 있다. 『유가사지론』 2권(大30 p.284c)에서는 본성주종성(本性住種姓)과 습소성종성(習所成種姓)의 두 가지를 세우고 있다. 법상종에서는 오성(五姓)이 선천적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여 성종성을 설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또 별도의 습종성을 설하는데, 이것은 호법의 학설에 속한다.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상권에는 습종성(習種性)·성종성(性種性)·도종성(道種性)의 3종성을 설한다.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상권(大24, p.1012b25)에서는 ① 습종성(習種性, 십주의 보살), ② 성종성(聖種性, 십행의 보살), ③ 도종성(道種性, 십회향의 보살), ④ 성종성(聖種性, 십지의 보살), ⑤ 등각성(等覺性, 등각의 보살), ⑥ 묘각성(妙覺性, 묘각의 보살)을 설하고 있다.

을 하면, 그 때 이 해탈분심(解脫分心)²²⁾이 갈마(羯磨)²³⁾의 연을 말미암아 보살계를 얻는다. 일체 악이란 초발심으로부터 보리에 이르기 까지 끊을 바와 일체의 잡염(雜染)을 버리는 것이요, 일체 선이란 처음 발심한 때부터 보리에 이르기까지 생겨나는 것과 일체 청정을 얻는 것이다. 유정계란 미래제가 다하도록 깊어지는 것이니, 일체 도를 구함에 이보다 큰 것이 없다.

此復云何? 謂如有一人, 決定希求斷一切惡, 修一切善, 盡有情界, 至丈夫行, 爾時於此解脫分心, 由羯磨緣, 得菩薩戒. 一切惡者, 從初發心, 乃至菩提, 所斷及捨一切雜染, 一切善者, 從初發心, 乃至菩提, 所生及得一切清淨. 有情界者, 窮未來際所荷負, 一切求道, 莫大斯焉.

‘지극한 장부[至丈夫]’라 함은 어떤 것인가? 봉황의 말이 비록 겹질을 깨고 나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본래 경계를 초월하는 형세가 있으니, 처음 발심한 마음이 비록 번뇌 [纏]²⁴⁾ 속에 있으나 문득 빼어난 중생[匠物]의

22) 해탈분심(解脫分心)의 해탈(解脫)은 열반(涅槃), 분(分)은 인(因)이라는 뜻. 삼현위(三賢位)는 열반에 순응하여 해탈하기 위한 인(因)이 된다는 뜻으로 열반의 작용이 있는 유루(有漏)의 선근(善根, 順解脫分)을 수증(修證)하는 단계이다.

23) 갈마(羯磨, ᱵkarman)는 수계·참회·결계 등 계율에 관한 행사를 할 경우, 그의 지가 몸의 동작과 말로 표시되는데 이에 의하여 선(善)을 일으키고 악을 없애는 일종의 의식상의 작법을 의미한다. 또 수계(受戒) 때 갈마에 의하여 수계자는 계체(戒體, 악을 끊고 선을 생기게 하는 작용을 내는 힘)를 자기 몸에서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갈마의 내용을 법(法, 갈마의 방법)·사(事, 갈마를 하는 행사)·인(人, 갈마에 관계하는 사람)·계(界, 갈마를 하는 장소)의 넷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갈마의 사법(四法)이라 하며, 갈마는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4) 전(纏, ᱵparyavasthāna)은 마음을 얹어서 선(善)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구사론』 권21(大29, p.109b14-18)에서는 무참(無慚)·무괴(無愧)·질(嫉)·간(慳)·회(悔)·수면(隨眠)·도거(掉擧)·혼침(昏沈)의 팔수번뇌(八隨煩惱)를 팔전(八纏)이라 한다. 여기에 분(忿)·부(覆)를 더해서 십전(十纏)이라고도 한다. 또

성품이 있다. 모기나 등애가 날개를 펼친다 해도 하늘을 덮는 작용이 없으니, 이승(二乘)은 번뇌는 벗어났으나 중생을 덮어주는 공(功)이 없다.

名至丈夫，何者？鳳凰之卵，雖未破殼，自存²⁵⁾超境之勢，初發之心，雖在纏裏，便有匠²⁶⁾物之性。蚊虻舉翼，而無翳天之用，二乘出染，而無覆生之功。

경에 가섭보살이 송²⁷⁾한 것과 같다.

如經迦葉菩薩頌曰。

발심과 필경 ²⁸⁾ 이 다르지 않건만	發心畢竟二無別，
이와 같은 두 마음에 발심이 어렵다네.	如是二心先心難。
자기 제도 하지 않고 먼저 남을 제도하니	自未得度先度他，
그러므로 저는 처음 마음을 낸 이에게 예배합니다.	是故我禮初發心。
첫 발심에 이미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시어	初發已爲天人師，

한 경량부에서는 번뇌의 종자를 수면(隨眠)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번뇌의 현행(現行)을 전(纏)이라 한다. 그리고 『유가사지론』 89권(大30 p.803b3-11)에도 보인다.

- 25) 大40 p.915c11과 藥師寺藏本에는 ‘在’로 되어 있으나 韓3 p.479b16에는 ‘存’으로 되어 있다.
- 26) 大40 p.915c12와 藥師寺藏本에는 ‘近’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79b15에는 ‘匠’으로 되어 있다.
- 27) 송(頌)은 계(偈)와 같으며 계송(偈頌)이라고도 한다. 운문(韻文)·시구(詩句)로서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의 시체(詩體)의 하나이다. 중국의 서(書)에 있어서 육의의 하나로서 공덕을 찬양하고神明(神明)에 고하는 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교리를 노래하는 시로서 십이부경의 하나이다.
- 28) 필경(畢竟, 𑖦atyanta)은 구경(究竟)·지경(至竟)·구극(究極)·지극(至極)·최종(最終). 번뇌 등으로 오염된 것을 없앤 절대 청정한 진리인 열반(涅槃, 實相, 空性)을 필경정(畢竟淨), 중생에 있어 최후의 소의(所依)이므로 필경의(畢竟依), 불타의 궁극적인 깨달음인 무상각을 필경각(畢竟覺)이라 한다.

성문과 독각보다 뛰어나시며	勝出聲聞及獨覺,
이와 같은 발심으로 삼계를 뛰어 넘으시니	如是發心過三界,
그러므로 가장 높다고 이름합니다. ²⁹⁾	是故得名最無上.

둘째 ‘이루어진 상[所成相]’이란, 경에 설한 것과 같이 “일체 보살이 이미 배웠고 일체 보살이 미래에 배울 것이며 일체 보살이 지금 배운다”고 하여 이미 간략하게 바라제목차³⁰⁾의 모습을 설하였다. 보살계는 실체에 의거하여 취하고 버리므로 다른 계율과 같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당시의 사정을 잘 알아서 가벼운 것을 설하여 중계(重戒)를 만들고 무거운 것을 설하여 경계(輕戒)를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삼계(三際)³¹⁾의 계상(戒相)이 결정되었다.

二所成相者, 如經曰, “一切菩薩已學, 一切菩薩當學, 一切菩薩今學.” 已略說波羅提木叉相貌. 謂菩薩戒, 依實取捨, 不同餘戒, 佛知時宜, 說輕爲重, 說重爲輕, 故於三際戒相決定.

그러나 성문의 경우에는 간략히 세 종류의 갈래가 같지 않은 모습[不同分相]³²⁾이 있으니, 첫째는 받음의 갈래가 같지 않은 모습[受不同分相]이다.

29) 『금강정유가중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론(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 권1(大32 p.573c4-7)

30)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Ṭprātimokṣa)는 별해탈(別解脫)·처처해탈(處處解脫)·별처해탈(別處解脫)·수순해탈(隨順解脫)·해탈생사(解脫生死)·보득해탈(保得解脫) 등으로 번역하며, 계율을 말한다. 이것은 몸과 입으로 범한 허물을 따로따로 해탈하는 것이므로 별해탈이라고 한다.

31) 삼계(三際)는 삼세(三世)의 다른 이름.

32) 부동분상(不同分相)은 부동분심(不同分心, Ṭvisabhāga-citta)을 의미하며, 같이 나눌 수 없는 마음이다. 무루의 34념과 종류가 다른 유루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구사론』에서 제시하는 부동류심(不動類心)과 같은 말이다. 『대비바사론(大毘婆

이를테면 보살계는 칠차(七遮)³³⁾를 갖춘 이를 제하고 모두가 받을 수 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육도 중생으로 계를 받은 이는 다만 말을 알아 듣는 이는 계를 얻어 잃어버리지 말라. 불자여, 삼세겁 중에 모든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 하신다”고³⁴⁾ 한 것과 같으니, 이로 말미암아 또한 스스로 받는 법이 있게 되었다.

然望聲聞，略有三種不同分相，一受不同分相。謂菩薩戒，除具七遮，一切受得。如本業說，“六道衆生受得戒，但解語得戒不失。佛子，三世劫中，一切佛常作是說。”由此亦有自受之法。

또 비록 중죄를 범했을지라도 만약 칠차죄가 아니면 현재의 몸[現身]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계율과 같지 않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십중죄를 범하고 뉘우침이 없어도 하여금 거듭 계를 받게 할 수 있다”고³⁵⁾ 한 것과 같으며, 『유가사지론』에서도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에는 칠차(七遮)를 범함을 기준으로 하여 밀의로 전체를 설하여 “십중죄를

沙論』 153권(大27 p.780b7-10)에서 “부동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저들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보살이 부동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가? 그러나 보살에게도 부동분심이 있다. 설사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으며, 주장하는 본래의 하고자 하는 의요(意樂)와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問，云何非起不同分心？答，彼說，誰言 菩薩不起不同分心？然菩薩有不同分心。設有此言，亦不違理，不違所立本意樂故。”라고 하였다. 또 『유가사지론』 53(大30 p.592c7-8)권에 “마땅히 알라 부동분심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선근이 끊어지기 때문에 중동분을 버리게 되며 부동분심을 받은 다음에 다시 버리게 된다. 當知，由起不同分心故，善根斷故，棄捨衆同分故，受已還捨。”라고 하였다.

33) 칠차(七遮)는 칠차죄(七遮罪)·칠역죄(七逆罪)와 같음. 성도(聖道)를 방해하는 7종의 중죄(重罪)로서, 이 중의 하나라도 범하면 보살계를 받지 못하게 하므로 차죄(遮罪)라고 함.

34) 『보살영락본업경』 권2 「7 대중수학품(大衆受學品)」(大24 p.1021b20-23)

35) 『보살영락본업경』 권2 「7 대중수학품」(大24 p.1021b18-19)

범한 자는 현신에 계를 얻지 못 한다”고 하였다.

又雖犯重，若非七遮，現身得受，不同餘戒。如本業說，“十重有犯無悔，得使重受。”瑜伽亦爾，然此經中，約犯七遮，密意總說，“犯十重者，現身不得戒。”

둘째는 범함의 갈래가 같지 않은 모습[犯不同分相]이다. 『섭대승론』에서 “보살의 성죄(性罪)³⁶⁾는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과 함께 서로 비슷하며, 차죄(遮罪)³⁷⁾가 현행함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성문에게는 범함이 되지만 보살에게는 범하지 않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보살에게는 범함이 되지만 성문에게는 범하지 않음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살은 몸과 말과 마음의 계를 다 갖추고 있고, 성문은 오직 몸과 말의 두 가지 계만 있기 때문이다.”³⁸⁾라고 한 것과 같다.

二犯不同分相。攝大乘說，“菩薩性罪，不現行故，與聲聞共相似，遮罪有現行故，與彼不共。於此處所，有聲聞犯，菩薩不犯，有菩薩犯，聲聞不犯，菩薩具有身語心戒，聲聞唯有身語二戒。”

36) 성죄(性罪)는 그 자체가 죄악인 것이니, 살생(殺生)·투도(偷盜)·사음(邪淫)·망어(妄語)를 말한다.

37) 차죄(遮罪)는 살(殺)·도(盜)·음(淫)·망(妄)의 행위는 부처님의 제지(制止)에 앞서 그 자체가 죄이므로 이것을 성죄(性罪)라 하고, 음주(飲酒)·벌목(伐木) 등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죄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것은 부처님이 제지하신 것으로 범했을 때 비로소 죄가 되는 것. 범망의 대승계에서는 칠차를 칠차죄(七遮罪)라고 하고 이것을 차지(遮止)하고 나서 보살계를 받게 한다.

38) 『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 3권(大31 p.146b16-20)

이를테면 인(人)과 행(行)에 각각 4구(四句)가 있으니, 인의 4구(人四句)는 ①마음은 샷되지만 행동은 바른 것이요, ②행동은 물들었지만 마음은 청정한 것이며, ③마음과 행동이 다 청정한 것이요, ④마음도 행동도 다 물든 것이다. 행의 4구(行四句)란 ①작은 복에 부합하여 광대한 법을 어기는 것이요, ②심오하고 원대한 것을 따르고 얕고 비근한 것을 어기는 것이며, ③둘 모두를 따르는 것이요, ④둘 모두를 어기는 것이다. 이 중에 보살은 중간의 둘을 취하기 때문에 성문과 본래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또한 성좌가 현행함이 있다. 『유가사지론』에서 “좋은 방편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모든 성좌에 일부분은 현행하나 범한 바가 없으므로 도리어 공덕을 내는 것이다”라고 하여 자세히 설하고 있는 것과 같다.³⁹⁾

謂人與行，各有四句，人四句者，一內邪外正，二外染內淨，三俱淨，四俱染。行四句者，一合小福而乖廣大，二順深遠而違淺近，三俱順，四俱違。此中菩薩取中間二故，與聲聞自有不同，由此亦有性罪現行。如瑜伽說，“善權方便，爲利他故，於諸性罪，少分現行，而無所犯，反生功德。”乃至廣說。

만약 지극하게 알면 오직 부처의 경계 뿐이지만 나누어진 갈래를 따르기 때문에 일체가 마음을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스스로 지옥을 판단하겠는가? 모든 성인은 이미 그것을 끊었기 때문에 계경에서 “보살은 계를 깨뜨리는 인연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대승을 수지하고 애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곧 파계한다. 보살은 그 때에 응당 이러한 생각을 한다. ‘내가 차라리 일겁 동안이나 또는 일겁이 조금 모자라는 기

39) 『유가사지론』 41권 「10계품(戒品)」(大30 p.517b6-8)

간을 무간옥에 떨어져서 이 죄보를 받을지언정 반드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리라.’ 문수가 부처님께 사죄어 말씀드리되 ‘이렇게 계를 범하고 아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옳다!’고⁴⁰⁾ 하셨다”라고 한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⁴¹⁾

若以至知，唯佛境界而隨分故，一切由心。不爾，如何自判地獄？以諸聖者，已斷彼故，如契經言，“菩薩知以破戒因緣，令人受持愛樂大乘，則得破戒。菩薩爾時，應作此念。‘我寧一劫若減一劫，墮無間獄，受此罪報，要令是人，不退菩提。’文殊

40)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권12 「7 성행품(聖行品)」(大12 p.434b26-c8) 참조.

41) 여기서는 삼취정계(三聚淨戒) 중에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삼취계(三聚戒) 또는 삼중정계(三種淨戒)라고도 한다. 삼취정계는 초기불교로부터 부파불교에 걸쳐 전통적인 교단에서 재가신자는 삼귀·5계를 받고, 사미·사미니는 10계를 받고, 정학녀는 6계, 비구·비구니는 구족계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성문계가 율의계(律儀戒) 뿐인 것에 대하여, 보살계는 그 외에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가 첨가된다. 이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선(善)을 행하는 계이다. 『화엄경(華嚴經)』 권27, 제2 이구지(離垢地)(大10 p.149b22-c8)에 삼취정계라는 말이 있다. “항상 스스로 삼중정계에 안주하며 또한 중생에게 이와 같이 안주하게 한다. …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삼취정계에 머물러 영원히 살업(殺業)을 끊은 선근회향이라 한다. 常自安住三種淨戒，亦令衆生如是安住，… 是爲菩薩摩訶薩，住三聚淨戒，永斷殺善根迴向。” 그리고 『유가사지론』 40권(大30 p.511a14-20)에 “즉 이 재가·출가의 이분(二分) 정계(淨戒)를 의지해서 간략히 세 가지로 설한다. ① 율의계 ② 섭선법계 ③ 요익유정계이다. 율의계란 이른바 모든 보살이 받은 7중(衆)의 별해탈율의이다. 즉 이것이 비구계·비구니계·정학계·근책계·근책녀계·근사남계·근사녀계이다. 이와 같이 7중, 재가·출가의 이분에 의지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것을 보살의 율의계라고 한다. 卽依此在家出家二分淨戒，略說三種。一 律儀戒，二 攝善法戒，三 饒益有情戒。律儀戒者，謂諸菩薩所受七衆別解脫律儀。卽是苾芻戒，苾芻尼戒，正學戒，勤策男戒，勤策女戒，近事男戒，近事女戒。如是七種，依止在家出家二分，如應當知。是名菩薩律儀。”

白佛言, ‘爲此毀戒, 墮阿鼻獄, 無有是處.’ 佛讚善哉!" 瑜伽亦同.

문기를, 이미 ‘공덕을 내었다’ 했는데 어찌하여 ‘성죄(性罪)’라고 하는가? 답하되, 의요(意樂)는 비록 선하나 방편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곳곳마다 ‘물들지 않고 범하지 않음[不染不犯]’을 설하고 있으나, 다만 의요에만 의거하고 방편에 의거하지 않으면 방편을 쓸 때 또한 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가자(在家者)는 자비한 마음으로 음행을 해도 된다고 설하지만 출가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성문계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問, 旣生功德, 何名性罪? 答, 意樂雖善, 方便惡故. 然處處說不染不犯, 但由意樂, 不由方便, 以方便時, 亦有染故. 如說在家慈心行姪, 出家不爾. 護聲聞故.

문기를, 함께 삼취정계를 받았으면 계의 갈래[戒支]가 응당 동등해야 하리니 어찌 하나의 일에 대하여 범하고 범하지 않음이 다른가? 답하되, 계의 갈래는 비록 동등하나 닳음에 있어서는 분제(分齊)⁴²⁾가 있으니, 예컨대 부정성(不定性)의 소지장성(所知障性)⁴³⁾은 그 바라는 바에 따라 물들거

42) 분제(分齊)는 한계·차별·차별된 내용·범위·정도·분위(分位)·계급·신분. 후세에는 분제(分際)라고도 한다.

43) 소지장(所知障)은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방해하는 것. 일체의 소지(所知)에 대해서 지혜의 활동이 방해되는 불오염(不染汚)의 무지(無知)를 말한다. 이것이 멸(滅)할 때에 일체의 지자(智者)가 되는 것, 또는 보리를 얻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성유식론(成唯識論)』 권9(大31 p.48c9-11)에 “소지장이란 변계소집인 실체의 법으로 집착하는 아견을 첫째로 하는 악견·의심·무명·탐애·성냄·교만 등이다. 인식의 대상과 전도됨이 없는 본성을 덮어서 능히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한다.所知障者, 謂執遍計所執實法, 薩迦耶見而爲上首, 見疑無明愛恚慢等. 覆所知境無顛倒性, 能障菩提名所知障.”라고 하였다.

나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問, 同受三聚, 戒支應等, 如何一事, 犯不犯別? 答, 戒支雖等, 修有分齊, 如不定性所知障性, 隨其所望, 染不染故.

셋째는 머림의 갈래가 같지 않은 모습[捨不同分相]이니, 비구는 5연(五緣)이요, 보살은 4연(四緣)이니 논에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三捨不同分相, 比丘五緣, 菩薩四緣, 如論廣說.

또 비구가 삼품(三品)의 중죄를 범함은 다 정계를 버리는 것이니 보살은 반드시 상품전(上品纏)을 말미암아 버린다. 자존께서 설하시기를 “만약 모든 보살이 네 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을 훼범(毀犯)하여 자주자주 현행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함이 없이 깊이 애락(愛樂)하는 마음을 내어 이것을 공덕이라고 보면, 마땅히 알라. 상품전을 범하면 보살이라고 하지 않는다. 잠시 한번이라도 타승처법이 현행하면 문득 보살의 정계율의(淨戒律儀)를 버리는 것이니 비구들과 같다.”⁴⁴⁾ 고 하셨다.

又比丘三品犯重, 皆捨淨戒, 菩薩必由上品纏捨. 如慈尊說, “若諸菩薩, 毀犯四種他勝處法, 數數現行, 都無慚愧, 深生愛樂, 見是功德, 當知. 說名上品纏犯, 非諸菩薩. 暫一現行他勝處法, 便捨菩薩淨戒律儀, 如諸苾芻.”

또 비구계는 반드시 전체를 수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죄 하나를 범하면 문득 일체를 잃게 되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계 중에는 무여범(無餘犯)이 없다”⁴⁵⁾라고 하여 널리 설한 것과 같다. 이를테

44) 『유가사지론』 40권 「10계품(戒品)」(大30 p.515c12-16)

면 상품전은 비록 중죄 하나를 깨뜨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계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마치 근사(近事)⁴⁶⁾가 통털어 하나를 수지함과 같으니 비록 이름은 범계(犯戒)이나 그 성(性)이 이루어진다. 계경에 설하되 “(계가) 있으면서 범하는 것이 (계가) 없으면서 범하지 않는 것보다 수승하다. 범함이 있는 것은 보살이요, 범함이 없는 것은 외도니라.”라고⁴⁷⁾ 한 것과 같다.

又比丘戒，必總受持故，犯一重，便失一切，菩薩不爾。如瑜伽言，“菩薩戒中，無無餘犯。”乃至廣說。謂上品纏，雖破一重，不失餘故。猶如近事總受持一，雖名犯戒，而成其性。如契經言，“有而犯者，勝無不犯。有犯名菩薩，無犯名外道。”

또 초유계(初誘戒)는 일분(一分, 하나의 戒目)을 받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일분을 지님이 있으니,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일계(一戒)를 받으면 일분우바새(一分優婆塞)라 한다.”고⁴⁸⁾ 한 것과 같다. 보살도 또한 그러하니 분계(分戒)를 따르기 때문이다. 계경에서 “일분의 계를 받음이 있으면 일분보살(一分菩薩)이라 하며, 마침내 십분(十分)에 이르러야 구족수계(具足受戒)라 한다.”고⁴⁹⁾ 한 것과 같다.

又初誘戒，由有一分受，亦有一分持，如世尊言，“受一戒，名一分優婆塞。”菩薩亦爾，隨分戒故。如契經言，“有受一分戒，名一分菩薩，乃至十分，名具足受戒。”

45) 『유가사지론』 41권 「10계품(戒品)」(大30 p.521b19)

46) 근사(近事)는 세속의 신자. 삼보를 가까이 하여 받들어 섬기는 일, 또는 그 사람.

47) 『보살영락본업경』 권2 「7 대중수학품」(大24 p.1021b15-16)

48) 『사분률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鈔資持記)』 권3(大40 p.406b26-27)

49) 『보살영락본업경』 권2 「7 대중수학품」(大24 p.1021b16-17)

또 비구계는 목숨을 따라 곧 잃어버리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으니, 비록 다른 생을 전전하더라도 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자세한 해설은 논(論)에 서와 같다. 또 경에서 “일체보살의 범성계(凡聖戒)는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체를 삼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하면 계도 다하겠지만 마음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계도 다함이 없다.”⁵⁰⁾고 한 것과 같다.

又比丘戒，隨命即捨，菩薩不爾。雖轉餘生，戒隨遂故。廣說如論。又如經說，“一切菩薩凡聖戒，盡心爲體。是故心盡，戒亦盡，心無盡故，戒亦無盡。”

문기를, 또한 보살은 원(願)이 수승함을 기약하기 때문에 따로 팔계(八戒)⁵¹⁾를 받아 밤낮으로 지녀야 하는가? 답하되, 만약 계의 갈래까지 제정한 바를 벗어남이 없이 받으면 시간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응당 알아야 할 것이다. 어찌 변제(邊際)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불설관무량수불경(佛說觀無量壽佛經)』에서 “대왕이 날마다 팔계를 받았다.”⁵²⁾고 한

50) 『보살영락본업경』 권2 「7 대중수학품」(大24 p.1021b20-21)

51) 팔계(八戒)란 팔재계(八齋戒)·팔계재(八戒齋). 일일일야(一日一夜)에 한하여 남녀의 재가신자가 지키는 8가지의 계율. 오계(五戒)와 옷의 사치와 주거의 사치와 음식의 사치에 관한 계율로서 매월 8일·14일·15일·23일·29일·30일에 지켜 행함.

52) 『불설관무량수불경(佛說觀無量壽佛經)』 1권(大12, p.341a7-12)에 “그때에 대왕이 볏은 보리가루를 먹고 미음을 마시고 물을 찾아 양치를 하시고, 양치를 마친 후 합장하고 공경하여 기사굴산을 향하여 멀리 세존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대목건련은 나의 친한 벗이니 원컨대 자비를 일으켜 나에게 팔계를 주소서’하니, 마침 목건련이 매가 날듯 날아서 재빨리 왕의 처소에 도착하여 날마다 왕에게 팔계를 설해 주었다. 爾時大王，食麴飲漿，求水漱口，漱口畢已，合掌恭敬，向耆闍崛山遙禮世尊，而作是言，‘大目乾連是吾親友，願興慈悲，授我八戒。’時目乾連，如鷹隼飛疾至王所，日日如是授王八戒。”고 한다.

것과 같다.

問，亦可菩薩期願勝故，別受八戒，過日夜持？答，如支無過所制而受，時亦應知。⁵³⁾ 寧過邊際？如觀經說，“大王日日受八戒。”

문기를, 만약 그렇다면 시간과 같이 반드시 계의 갈래를 갖추어야 하는가? 혹 계의 갈래와 같이 또한 시간도 줄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경을 어기는 것이다. 설하시기를, “내가 한 때 향하사 가에 머무를 적에 가전연이 와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중생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재법(齋法)을 받게 하면 혹 하루나 하루 밤, 혹 일시나 일념에 이와 같은 사람이 제계(齋戒)를 이룰 수 있습니까?’라고 하기에 내가 ‘비구여! 이 사람은 선법을 얻은 것이지 재계를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소리 내어 말하기를 ‘여래께서 팔재계(八戒齋)를 설하셨다.’고 하고, 갖추어 수지하여 마침내 얻었다고 하였다”⁵⁴⁾라고 하신 것과 같은 것인가? 답하되, 한 가지 악을 막으면 한 가지의 계만 성립되니 정혜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시간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 보살과 칠중과⁵⁵⁾ 성문의 팔계를 수순함도 또한 그리하여 따로 그와 같은 것을 받는다.

問，若爾，如時必應具支？或復如支，亦可減時？是則違經。如說，“我於一時 住恆河邊，迦旃延來作如是言。‘世尊！我教衆生，令受齋法，或一日或一夜，或一時或一念，如是之人，成齋不耶？’我言，‘比丘！是人得善，不名持齋。’我諸弟子，聞是說

53) 大40 p.916c13과 藥師寺藏本에는 ‘然’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80b16에는 ‘知’로 되어 있다.

54) 『대반열반경』 34권 「12 가섭보살품(迦葉菩薩品)」(大12 p.568b16-21)

55) 칠중(七衆)이란 비구·비구니·śākāmaṇa·사미·사미니·우바세·우바이를 말한다.

已, 不解我意, 唱言, ‘如來說八戒齋.’ 具受乃得.” 答, 一惡應遮, 一支成戒, 欲進定慧, 不減其時. 菩薩七衆, 隨順聲聞八戒, 亦爾, 別受如彼.

『열반경』에 송한 것과 같다.

如涅槃經頌曰,

만약 무상도를 얻기 위하여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라도
팔재법을 받아 지니면
부동국에 태어나리라.⁵⁶⁾

若爲無上道,
一日一夜中,
受持八齋法,
則生不動國.

셋째, 수행차별문(修行差別門)은 간략히 네 가지 문이 있다. ①선사를 친근히 하는 문(親近善士門)이요, ②바른 법을 듣는 문(聽聞正法門)이며, ③진리에 맞게 뜻을 지니는 문(如理作意門)이요, ④가르침대로 수행하는 문(如說修行門)이다.

三修行差別門者, 畧有四門. 一親近善士門, 二聽聞正法門, 三如理作意門, 四如說修行門.

첫째, 선사를 친근히 한다(近善士)는 것은 세존께서 “일체중생이 큰 보리와 가까운 인연이 되는 것은 선우(善友)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⁵⁷⁾ 하신 것과 같다. 벗에는 네 종류가 있다. ①선을 따르고 악을 어기는 벗이요, ②악을 따르고 선을 어기는 벗이며, ③선과 악 모두를 따르는 벗이요,

56) 『대반열반경』 21권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大10 p.491a28-29)

57) 『열반경회소(涅槃經會疏)』 18권(卍36 p.598)

④ 선과 악을 모두 어기는 벗이다.

一近善士者，如世尊言，“一切衆生，爲大菩提近因緣者，無先善友。”謂友有四。一順善違惡，二順惡違善，三善惡皆順，四善惡俱違。

이 가운데 처음 하나는 응당 더불어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니,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고치는 것으로써 스승을 삼는 것이요, 마음을 같이하면 쇠붙이도 끊을 수 있다는 그런 벗⁵⁸⁾은 아니다. 이마 위의 구슬을 열어서 보리의 그릇을 이루게 하니 누구라서 훌륭한 장인[勝匠]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그 공을 세우는 자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선사를 친근히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此中初一，應與事同，雖其惡者，以改爲師。不以同心斷金之友。開於額上之珠，使成菩提器，誰有不憑勝匠，而立其功者也？是故親近善士爲先。

둘째, 바른 법을 듣는 것이란, 계경에서 “설사 세계에 불이 가득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가서 법을 듣고자 한다.”고⁵⁹⁾ 한 것과 같다. 이를테면 일구(一句)를 말미암아 능히 고륜(苦輪)을 끊을 수 있었기에 반 계(半偈)를 듣고자 하니 설산에 잠겼던 것이다.⁶⁰⁾ 그러나 사처(四處)⁶¹⁾에 안주하여 정념

58) 단금(斷金)은 쇠붙이도 끊을 만큼 우정이 대단히 깊은 것. 『주역(周易)』 「계사(繫辭)」 상전(上傳)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쇠붙이도 잘라낼 수 있는 예리함을 가지며, 그 마음은 난과 같은 향기를 풍긴다. 二人同心，其利斷金，同心之言，其臭如蘭.”이라고 한 데서 나온 말.

59) 『불설무량수경(佛說無量壽經)』 2권(大12 p.273b17)

60) 『대반열반경』 14권 「성행품(聖行品)」(大12 p.449b8-p.451b5) 참조

61) 『유가사지론』 30권(大30 p.448c1-8)에서 사처(四處)란 ① 오로지 깨달음만을 구

이 된 연후에 청문(淸問)해야 하니 논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알아야 한다. 아침에 들고 저녁이 되기 전에 반드시 유통하고자 하거나, 다른 이의 올바른 실천을 가지고 제 자신의 만행(萬行)으로 삼고, 다른 이가 성도한 것을 가지고 제 자신의 보리로 삼으며, 설사 정념을 그르쳐서 아버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중생을 이롭게 하고 마음에 달게 고를 받는 것이다. 계경에서 “한 중생을 위하여 억겁 동안 수행하며, 무량한 중생들로 하여금 고해를 건너게 한다.”고⁶²⁾ 한 것과 같다.

二聞正法者，如契經言，“設滿世界火，必過要聞法。”謂由一句，能斷苦輪，故聞半偈，魂沈雪山。然於四處，安住正念，然後請問，如論應知。朝聞未夕，要必流通，以他正行，爲自萬行，以他成道，爲自菩提，設誤正念，墮阿鼻獄，利一衆生，甘心受苦。如契經言，“爲一衆生，億劫修行，使無量衆，令度苦海。”

셋째, 진리에 맞게 뜻을 지니는 것이란, 이를테면 네 가지 일을 관하여 먼저 4전도(四顛倒)⁶³⁾을 다스려야 한다. ①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니 생

하여 따져 묻는 마음이 없는 곳[專求領悟無難詰心處] ② 깊이 공경심을 내어 교만한 마음이 없는 곳[深生恭敬無憍慢心處] ③ 오직 훌륭한 선만을 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곳[唯求勝善非顯己能處] ④ 순전히 자타의 선근만을 안립하고 이양과 공경과 명예를 구하지 않는 곳[純爲安立自他善根非求利養恭敬名聞處]이라고 하였다.

62) 『금광명경(金光明經)』 1권 「참회품(懺悔品)」(大16 p.337b2-3)

63) 『출요경(出曜經)』 6권 「무방일품(四無放逸品)」(大4 p.638b17-20)에 “무엇이 청정치 못한 것인가? 네 가지 전도된 것이다. 무상함을 항상하다고 여기는 것이 첫째 전도요, 고를 띠이라 여기는 것이 둘째 전도요,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셋째 전도요, 무아를 아라고 여기는 것이 넷째 전도이니, 이 네 가지 전도와 상응하지 않은 자를 청정하다고 한다. 何者不淨者? 四顛倒是, 無常謂有常, 是一顛倒. 苦謂曰樂, 是二倒. 不淨謂淨, 是三倒. 無我謂我, 是四倒. 與此

기면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이요, 모든 왕성한 것은 쇠잔함으로 돌아가서 구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유루(有漏)는 모두 고이니 삼고(三苦)⁶⁴⁾를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애욕의 그물 때문에 생사윤회에 얽매이게 되고, 독 묻은 칼날에 베이고 찢긴 바에 합하거나 여의며, 불화살에 맞아서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것이니 논에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③삼계는 부정하니 잡염성(雜染性)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정한 것처럼 나타나니 원수가 친한 이라고 속이는 것과 같다. 모든 부정상(不淨相)은 논에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④모든 존재는 아(我)가 없으니, 두 가지 아⁶⁵⁾가 공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모든 온(蘊)의 범은 생멸로 몸을 삼아 일어나도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 멸해도 멸했다는 생각이 없다. 제법은 한 모양이니

四倒不相應者，是謂為淨。”라고 하였다.

- 64) 삼고(三苦)란 생존하고 있는 세 가지의 괴로움이다. 고고(苦苦)는 좋아하지 않는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괴로움. 행고(行苦)는 세상이 세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괴로움. 괴고(壞苦)는 좋아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괴로움을 말한다. 『무량수경(無量壽經)』(大12, p.266a) ; 『구사론(俱舍論)』 권22(大 29, p.114b5-114b22) ;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권15(大 31, p.551a-b) 등에서 설명되고 있다. 고(苦)는 범어 dukkha의 번역으로 신심(身心)에 대하여 찌박하고 괴롭히는 상태이니, 마음에 계합하지 않는 대상으로 향할 때 느끼는 괴로움. 삼고(三苦)는 ① 고고(苦苦) - 중생의 신심을 괴롭게 하는 고(苦)이니, 배고픔·질병·비바람·춥고 더운 것·매 맞고 노동하는 것 등의 괴로움. ② 괴고(壞苦) - 좋아하는 대상이 변멸(變滅)하여 없어짐으로 받는 괴로움이니, 몸 가운데 사대(四大)가 무너질 때 느끼는 고뇌, 또는 자기가 사랑하던 것이 없어질 때 느끼는 괴로움. ③ 행고(行苦) - 행(行)은 천류(遷流)의 뜻으로 생멸 변화함을 말하는 것. 세상의 일이 바뀌는 것을 보고 느끼는 괴로움이니,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으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 등을 말한다.
- 65) 두 가지 아(二我)란 인아(人我)와 법아(法我). 오온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인신(人身)에 실재한 것 같이 생각되는 상일주재(常一主宰)의 아(我)를 인아(人我), 객관의 물(物)·심(心) 제법에 실다운 체성(體性)이 있다고 고집하는 마음을 법아(法我)라고 한다.

이른 바 무상(無相)인 것이다. 환과 같이 연으로 나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성(無性)의 성이라 하니, 곧 모든 법성은 비록 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그 몸을 볼 수 없고 비록 말 속에 있으나 그 모양을 말할 수 없다.

三如理作意者, 謂觀四事, 先治四倒. 一者諸行無常, 生必滅故. 諸盛歸衰, 非究竟故. 二者有漏皆苦, 由三苦故. 然以愛⁶⁶⁾網, 纏生死輪, 合離毒刃之所割裂, 憂苦火箭之所射然, 廣說如論. 三者三界不淨, 雜染性故. 然似淨現, 如怨誑親. 諸不淨想, 如論廣說. 四者諸法無我, 二我空故, 謂諸蘊法, 生滅爲身, 起不言起, 滅無滅想. 諸法一相, 所謂無相. 如幻緣生, 無自性故, 無性之性, 卽諸法性, 雖不出相, 莫見其軀, 雖在言裏, 未談其狀.

넷째,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란, 맹세코 십지(十地)를 일으켜 멀리 보리에 뜻을 두어 출가하여 사랑하던 무리들을 하직하여 이별하고, 가사[掃衣]와 발우[量鉢]를 법답게 수지(受持)하여 백성문(百姓門)을 세워 집안의 양식을 삼고 계정혜(戒定慧) 속에서 가르침대로 수행 하는 것이다. 이는 또 어떤 것인가? 이를테면 네 가지 문에 선한 방편으로 보살이 능히 계문을 청정하게 하여 묘하게 자량을 갖추나니, ①정념을 호지하는 문[護正念門]이요, ②바라밀다의 수승한 문[波羅密多勝門]이요, ③경중성문(輕重性門)이요, ④지범상문(持犯相門)이다.

四如說修行者, 誓起十地, 遠志菩提出家, 辭別所愛之類, 掃衣量鉢如法受持, 樹百姓門, 以爲家糧, 戒定慧中, 如說修行. 此

66) 卍60 p.361b9와 藥師寺藏本에는 ‘受’로 되어 있으나 韓3 p.481a6에는 ‘愛’로 되어 있다.

復云何? 謂於四門善巧, 菩薩能淨戒行, 妙具資糧, 一護正念門, 二波羅密多勝門, 三輕重性門, 四持犯相門.

첫째, 정념을 호지(護持)한다는 것은 가히 사랑할만한 것에 응당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한다. ‘모든 욕망은 배부름이 없어서 마른 뼈 등과 같으며 내지 위태롭기가 나무 끝에 매달린 잘 익은 과일과 같고, 나찰녀가 조금 맛보게 하고 재앙을 많이 주어 두루 세간과 출세간의 의리(義利)를 해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참지 못하고 어찌 고통을 다하겠는가?’

一護正念者, 謂於可愛, 應作此念. ‘諸欲無飽, 如枯骨等, 乃至危, 如樹端爛果, 如羅刹女, 少味多災, 遍害於世出世義利. 於此不忍, 何盡苦際?’

만약 서로 어긋남을 대하면 응당 이렇게 생각하되, ‘비록 모든 유정들이 한결같은 여래장(如來藏)이나, 제 마음을 미혹하여 다른 것이라고 헤아려 생각하기 때문에 허망하게 기쁨과 성냄을 내어 고통의 흐름에 빠지는 것이다. 제가 지은 업으로 과보를 받아 다른 것을 이끌어 연을 삼아서 악한 갈래에 떨어지게 하니, 이는 깊이 자기의 허물이로다. 내가 일찍이 오히려 옳은 이로움[義利]을 구하여 지옥을 돌아보지 않고 길이 큰 괴로움을 받았거늘, 하물며 보리를 위하여 잠시의 작은 고통을 참고 받지 못하겠는가?’ 해야 한다.

若對相違, 應作此念, ‘雖諸有情, 一如來藏, 而迷自心, 計爲他故, 妄生喜患, 沈於苦流. 自業受果, 引他爲緣, 令墮惡趣, 深是自過. 我曾尚求無義利事, 不顧地獄, 長受大苦, 況爲菩提, 暫時小苦, 而不忍受?’

만약 그 가운데 용납함이 있으면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목숨은 쏘아버린 화살과 같아서 부앙(俯仰)⁶⁷⁾하는 일생이 오늘 다하고자 하니 어찌 옳은 이로움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아득한 옛적부터 이 몸을 길러왔으나 몸은 도리어 해를 받아 끝없는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바가 없도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지는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무량한 생사고(生死苦)를 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한 사람이 1겁 동안 받은 몸의 뼈[身骨]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것이 그 모인 양이 왕사성 옆의 광박협산⁶⁸⁾과 같다.”고⁶⁹⁾ 하셨다. “마신 유즙이 사해의 바닷물과 같고 몸에서 나온 피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고통으로 흘린 눈물은 사대해(四大海)처럼 많다. 대지의 초목을 다 잘라서 산가지[壽]⁷⁰⁾를 만들어 부모를 헤아린다 해도 또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량없이 많은 겁 동안 지옥에 있거나 축생

67) 부앙(俯仰)은 좌작진퇴(坐作進退)·기거동작(起居動作)과 같은 말. 즉 사람의 일상생활의 행동.

68) 광박협산(廣博脅山)은 중인도 마가다국 왕사성의 동쪽을 둘러싼 다섯 산 중 가장 높은 산. 광보산(廣普山)·광협산(廣脇山)·대산(大山)·방산(方山) 등으로 한역한다. 다섯 개의 산은 영취산(靈鷲山)·백선산(白善山)·부중산(負重山)·선인굴산(仙人掘山)·광박협산(廣博脅山) 등이다.

69) 『유가사지론』 9권(大30 p.321a5-12)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피보니 대지는 너희들이 장야에 이곳에서 일찍이 무량한 생사를 받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간의 중생을 살피보니 길이 장야에 유전하면서 너희들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 궤범사와 친교사와 다른 존중사가 되지 않음이 없도다.’하시며, 또 말씀하시기를 ‘한 중생이 일 겁 동안 받은 신골이 설사 어떤 사람일지라도 쌓여서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것이 그 모인 양의 높이가 왕사성 옆의 광박협산과 같다’고 하셨다. 又復說言, ‘我觀, 大地無少處所可得, 汝等長夜於此處所, 未曾經受無量生死.’ 又復說言, ‘我觀世間有情, 不易可得長夜流轉, 不為汝等若母若父, 兄弟姊妹, 若軌範師, 若親教師, 若餘尊重, 若等尊重.’ 又如說言, ‘若一補特伽羅, 於一劫中, 所受身骨, 假使有人, 為其積集不爛壞者, 其聚量高王舍城側廣博脇山.’”라고 하였다.

70) 산가지(壽)는 수를 세는 가는 대막대기.

에 있거나 아귀에 있으면서 받은 행고(行苦)는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유하고 깊은 밤이 되도록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며, 내지 한 밤중에도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워서 광명상(光明相)⁷¹⁾에 머물러 사슴이 잠자는 것처럼 해야 한다.

若在中容，應作此念。‘命如放箭，俯仰一生，今日欲盡，何義利成？無始供身，身所反害，無邊生死，無所不羈。’如世尊言，“大地無有汝等長夜，不受無量生死苦處。一人一劫所受身骨，不爛壞者，其聚量，齊王舍城側廣博脅山。所飲乳汁，如四海水，身所出血，復愛別離所泣之淚，多四大海，大地草木，盡斬爲籌，以數父母，亦不可盡。無量劫來，或在地獄，或在畜生，或在餓鬼，所受行苦，不可稱計。”如是思惟，夙夜匪懈，乃至中夜，右脅而臥，住光明想，如野鹿寐。

『좌선경』에 설한 것과 같다.

如坐禪經曰，

번뇌는 깊어서 끝이 없고

煩惱深無底，

생사의 바다 다함이 없구나.

生死海無邊。

고해를 건너는 배를 만들지 못하였으니

度苦船未立，

어찌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云何得睡眠？⁷²⁾

71) 광명상(光明相)은 광상(光相). 부처님이나 보살 등 제존(諸尊)의 신체에서 방출하는 광명의 상으로 지혜를 상징한다. 회화나 조각 등에 원형으로 표현한 것이 많으므로 원상(圓相)·원광(圓光) 등이라고도 한다. 신광(身光)과 두광(頭光)이 있다.

72)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 권1(大15 p.270c6-7)에는 뒷부분이 “度苦艇未辦，安得樂睡眠”로 되어 있으며, 『왕생예찬계(往生禮讚偈)』 권1(大47 p.440c23-26)에는 뒤에 “勇猛勤精進，攝心常在禪”이 더 있다.

둘째, 바라밀다로 섭수하는 문[波羅密多攝門]이란 간략히 두 문이 있으니, ①총성섭문(總性攝門)이요, ②별상섭문(別相攝門)이다. 처음 제행은 지음과 짓지 않음을 말미암는 것이니, 응당 4구를 지어야 한다. 이는 일곱 가지 최승⁷³⁾의 섭수하는 바가 바로 이름이 도피안이기 때문이다. 널리 자세히 설명은 논과 같다. 그러나 도피안이 각기 9상이⁷⁴⁾ 있으니,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 설한 것과 같이 마땅히 선한 방편으로 해야 한다. 뒤의 것이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인과섭(因果攝)이다. 앞은 뒤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앞의 구[前句]에 순하여 포섭하며, 뒤가 앞을 청정하게 지니기 때문에 뒤의 구[後句]에 순하여 포섭한다. 비록 따로따로 닦지만 이끌어 지님[引持]을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자연히 두루 일체를 닦는 것이다.

二波羅密多攝門者，略有二門，一總性攝門，二別相攝門。初者諸行，由作不作，應作四句。七種最勝之所攝受，乃名到彼岸故。

73) 일곱 가지 최승[七種最勝]은 온갖 보시 등의 행을 모두 바라밀다라 이름 할 수 없고, 반드시 그 가장 뛰어난 것을 갖추어야만 바라밀다를 이룰 수 있다.

- ① 안주최승(安住最勝)은 보살의 중성에 안주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의지최승(依止最勝)은 대보리심에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의과최승(意果最勝)은 모든 유정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 ④ 사업최승(事業最勝)은 한 가지 행에만 그치지 않고 구족하게 모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교편최승(巧便最勝)은 무상지에 머물러 온갖 법이 幻과 같음을 통달하여 집착을 여의는 것을 말한다.
- ⑥ 회향최승(廻向最勝)은 무상보리에 회향하는 것을 말한다.
- ⑦ 청정최승(清淨最勝)은 번뇌장·소지장으로 인하여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74) 『유가사지론』 41-42권 「계품」(大30 pp.511a-523a)에서 보살의 바라밀이 지니고 있는 모양을 아홉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 것. 계바라밀의 경우에는 ① 자성계(自性戒) ② 일체계(一切戒) ③ 난행계(難行戒) ④ 일체문계(一切門戒) ⑤ 선사계(善士戒) ⑥ 일체종계(一切種戒) ⑦ 수구계(遂求戒) ⑧ 차세타세계(此世他世戒) ⑨ 청정계(清淨戒)로 분류한다.

廣說如論 然到彼岸，各有九相，如瑜伽說，應當善巧。後者有三種，一因果攝。前爲後依故，順前句攝，後淨持前故，順後句攝。雖別別修，由引持故，一一自然徧⁷⁵⁾修一切。

둘째는 체섭(體攝)이니, 하나하나의 행을 닦는 것은 일체 탐이 없는 보시의 성품[施性]이며, 일체 생각으로 짓는 업의 계성(戒性)이며, 일체 성냄이 없는 참는 성품[忍性]이며, 일체가 용맹스러운 정진의 성품[精進性]이며, 일체가 오로지 집중하여 고요히 사유하는 성품[靜慮性]이며, 일체가 뒤의 다섯을 올바르게 보는 성품이니, 이 하나의 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을 닦아 반드시 상응하기 때문이다.

二者體攝，修一行，一切無貪施性，一切思業戒性，一切無瞋忍性，一切勇悍精進性，一切專注靜慮性，一切正見後五性。由此一行，修一切行，必相應故。

셋째는 용섭(用攝)이니, 탐 등의 법이 없어서 하나하나가 모두 무외(無畏) 등의 보시가 있으며, 내지 유정의 지혜와 위의를 성취하여 서로서로 도우며 서로서로 권속이 되어 다 일체의 함께 행하는 공덕[俱行功德]으로써 자성을 삼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일체행(一切行)에 대하여 일체행으로 실천하는 것이니 그러한 즉 일념에 일체행을 닦으니 어찌 오직 아승지겁을 닦은 이후이겠는가? 또 무수히 많은 겁이 실로 일념(一念)에 있으니 돌고 돌면서 가는 자가 실로 자기의 목을 미래제를 삼고 정수리와 또 등과 얼굴을 과거제로 삼는 것과 같으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일념에

75) 卍60 p.362b17과 大40 p.917a22와 藥師寺藏本에는 ‘遍’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81c5에는 ‘徧’으로 되어 있다.

돌아가기 때문이다.

三者用攝，無貪等法，一一俱⁷⁶⁾有無畏等施，乃至成就有情智儀，互相資助，展轉眷屬，皆以一切俱行功德，爲自性故。由此於一切行，行一切行，是則一念，修一切行。豈唯阿僧企耶已後？又無數劫，實在一念，如旋行者，實向自頂，爲未來際，頂亦背顏，爲過去際，無始無終，歸一念故。

계송에서 말한 것과 같다.

如有頌言，

꿈속에서 해를 보냈다고 하지만

處夢謂經年，

깨어보니 바로 순식간이다.

悟乃須臾頃。

그러므로 시간은 비록 한량이 없으나

故時雖無量，

한 찰나에 포함되어 있다네.⁷⁷⁾

攝在一刹那。

셋째, 경중성문(輕重性門)이란 취하고 버리는 것이 비록 일체의 잡염(雜染)과 청정(淸淨)을 포섭하고 있지만 가행업(加行業)에서는 금계(禁戒)를 제정하기 때문이다. 간략히 열 가지 중한 것과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十重四十八輕戒]가 있다. 그러나 보살계는 의지(意地)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니, 만약 수승한 이익을 보면 몸과 말의 계를 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악도 탐진치(貪瞋癡)를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으며, 좋은 것을 이끌어 악을 쫓아 가지 않음이 없으므로 뒤의 넷으로써 근본 중죄를 삼는다.

三輕重性門者，所取及捨，雖攝一切雜染淸淨，於加行業，制禁

76) 卍60 p.363a3과 大40 p.917a26과 藥師寺藏本에는 ‘具’로 되어 있으나 韓3 p.481 c10에는 ‘俱’로 되어 있다.

77)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6권(大31 p.419a6-9)

戒故. 略有十重四十八輕. 然菩薩戒, 意地爲本, 若見勝利, 縱身語故. 無惡不由貪瞋癡者, 無不爲引好推惡, 所以後四, 爲根本重.

섭선계(攝善戒) 중에 심하게 어기는 것이 둘이 있으니, ①복을 닦고 지혜를 버리는 것이요, ②대(大)를 버리고 소(小)를 향하는 것이다. 탐은 치우쳐 맨 처음을 끌어내고 어리석고 성냄은 두루 이끌어 내며, 나머지 둘은 뒤를 이끌어 대승을 어기기 때문이다. 섭유정계(攝有情戒) 중에 심하게 어기는 것이 둘이 있으니, ①자기를 먼저하고 다른 이를 뒤에 하는 것이요, ②친하고 원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악을 미루어 처음을 이끌고 탐냄과 성냄으로 뒤를 끌어내며, 어리석고 샛된 소견[愚癡邪見]으로 통틀어 일체를 끌어내어서 이로 말미암아 따르고 응하여 삼취(三聚)의 근본이 된다.

攝善戒中, 極違有二, 一修福捨智, 二棄大向小. 貪偏引初, 愚癡遍引, 餘二引後, 違大乘故. 攝有情中, 極違有二, 一先自後他, 二有親怨想. 推⁷⁸⁾惡引初, 貪瞋引後, 愚癡邪見通引一切, 由此隨應, 爲三聚本.

넷째, 지범상문(持犯相門)이란 간략히 세 가지 문이 있으니, ①총상문(總相門)이요, ②별상문(別相門)이며, ③구경문(究竟門)이다. 첫째 총상이란, 만약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범하는 것이라면 범하면서 또한 행동하는 것이다. 4구(四句)로 분별해보면, 혹 행동하되 범하지 않음은 수승한 이익을 보고 보살계 중에서는 하열한 범부에 이르기까지 선심으로 지은 것은

78) 大40 p.917b12와 藥師寺藏本에는 '惟'로 되어 있으나 韓3 p.482a6에는 '推'로 되어 있다.

모두 범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 행동은 하지 아니하되 범함이 있는 것은 따라 기뻐하는 등이니, 다른 구절은 응당 알 수 있을 것이다.

四持犯相門者，略有三門，一總相門，二別相門，三究竟門。一總相者，若作必犯，設犯亦作。四句分別，或有作而非犯，謂見勝利，菩薩戒中，乃至下凡，善心所作，皆非犯故。或有不作而犯，謂隨喜等，餘句應知。

만약 범한 것이 반드시 물든 것이면 물든 것을 시설하여 결정코 범한 것이니 여기에 4구가 있다. 제1구는 무부무기(無覆無記)⁷⁹⁾이니 무지하고 방일⁸⁰⁾하여 이 죄가 악을 도와 그 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요, 제2구는 그가

79) 무부무기(無覆無記, ㉔anivṛta-avyākṛta)는 정무기(淨無記), 즉 마음을 덮어 성도를 장애하지 않는 무기. 유부무기(有覆無記)와 대칭된다. 무기(無記)는 선(善)도 아니고 불선(不善)도 아닌 것. 성도(聖道)를 덮어 가리거나 방해하거나 마음을 부정(不淨)하게 하거나 하지 않는 순수한 무기(無記)로 유위·무위의 두 가지 무기로 나누어진다. 유위무기(有爲無記)란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이숙·위의·공교·통과·자성 등의 다섯 가지가 있다. ① 이숙무기(異熟無記)는 과거 선·불선의 인에 의해서 생한 이숙과의 체로서 이숙생(異熟生)이라고도 한다. ② 위의무기(威儀無記)는 사위의(四威儀)로서 위의로심(威儀路心)이라고도 한다. ③ 공교무기(工巧無記)는 몸으로 짓는 것[身工巧]과 말로 짓는 것[語工巧]으로서 공교처심(工巧處心)이라고도 한다. ④ 통과무기(通果無記)는 천안통(天眼通)과 천이통(天耳通)으로서 변화무기(變化無記)라고도 한다. ⑤ 자성무기(自性無記)는 이상 네 가지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기를 말한다. 무위무기(無爲無記)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승의무기(勝義無記)가 이에 해당되는데 승의무기는 삼무위 중 비택멸(非擇滅)에 속하는 무위(無爲)·허공(虛空) 등과 같다.

80) 방일(放逸, ㉔pramāda)은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부지런히 선(善)을 닦지 않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작용인 심소(心所) 중 하나로서 일(逸)이라고도 하며, 방자(放恣)·나타(懶惰)·태타(怠惰)·부주의(不注意) 등과 통하는 개념으로 산만하여 선한 행위에 몰두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의요(意樂)를 일으켜서 부지런히 정진을 일으키는 것을 끊고자 함이니, 번뇌가 치성하여 그 마음을 덮고 눌러서 때때로 자주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나머지 구절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若犯必染，設染定犯，謂有四句。第一句者，無覆無記，無知放逸，此罪助惡，招彼果故。第二句者，謂欲斷彼生起意樂，發勤精進，煩惱熾盛，弊抑其心，時時數起。餘句應知。

만약 범함이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이라면 죄를 시설하여 또한 범하는 것이다. 앞 구절을 따라서 어지러움을 범하는 등이니, 깨달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생각으로 지은 업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죄가 있고 또한 업도⁸¹⁾라면 업도를 시설함이 있고 또한 중죄이다. 4구로 분별해보면 혹 그것은 중죄이나 업도는 아니니, 술을 파는 등과 나머지 일부분이요, 혹 업도가 있으나 중죄에 포함되지는 않으니 기어(綺語) 등이다. 나머지 구는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若犯必罪，設罪亦犯。謂順前句，以犯亂等，無所了知故，思業故。若有重罪，亦業道，設有業道，亦重罪。四句分別，或有是重，而非業道，謂酤酒等，及餘一分，或有業道，而非重攝，謂綺語等。餘句應知。

만약 업도가 무거우면 또한 반드시 계율을 잃게 되니 계율을 잃는 것은 또한 중한 업이기도 한 것인가? 응당 4구를 지으면, ① 중·하품전이 타승처(他勝處)를 범하는 것이니, 참괴⁸²⁾함이 있고 또한 심하게 탐하지 않아

81) 업도(業道)란 근본업도(根本業道). 선악의 일을 막 지어 마친 때를 말한다. 그 업을 막 지어 마친 때의 표업(表業)과 무표업(無表業)을 근본업도라 한다. 업도라는 것은 사업(事業)에 의해서 행하는 장소라는 뜻이다.

서 이것을 공덕으로 보는 것이다. ②자기 자신과 다른 이를 향하는 것이니 보리에 대한 서원을 버리는 것이다. ③상전(上纏)이 전체와 따로따로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니 근본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저러한 소상(所相)을 제외한 나머지로 제4구를 삼는다.

若重業道，亦必捨戒，設捨戒者，亦重業耶？應作四句，一中下品纏，犯他勝處，謂有慚愧，亦不深耽，⁸³⁾ 見是功德。二自及向他，捨菩提願。三上纏，總別犯他勝處，起根本罪。除爾所相，爲第四句。

문기를, 만약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보살영락본업경』에서 “보살계에 법을 받음은 있고 법을 버림은 없으며, 범함은 있고 잃음은 없어서 미래제를 다한다”고⁸⁴⁾ 하였는가? 답하되, 하승(下乘)이 대(大)를 향함에 응당 법을 버림이 있으나 보살계를 버림은 응당 그러함이 없기 때문이다. 혹 보살계에 무여범(無餘犯)이 없는 것은 전부 앞의 설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問，若爾何故，本業經言，“菩薩戒有受法，而無捨法，有犯不失，盡未來際？”答，下乘向大，有應捨法，棄菩薩戒，無應爾故。或菩薩戒，無無餘犯，無有總盡 如前說故。

둘째, 별상(別相)이란 만약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반드시

82) 참괴(慚愧)에서 참(慚, ㉮hrī)은 스스로를 반성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고, 괴(愧, ㉮apatrāpya)는 남에 대해 또는 하늘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다.

83) 대40 p.917b28과 藥師寺藏本에는 ‘耽’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82b2에는 ‘耽’으로 되어 있다.

84) 『보살영락본업경』 2권 「7 대중수학품」(大24 p.1021b7-8)

죄가 된다면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이 또한 복이 되는 것인가? 4구가 있으니,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와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차례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며 요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와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샅됨을 겪는 것 따위이며 아침으로 이익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이를테면 천하고 작은 것을 따라서 심원하고 원대한 가르침[深廣]을 어기는 것 따위이다.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과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이 죄도 안 되고 복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그 마음에 더 훌륭한 것을 위함[增上]으로 어지러움을 범하는 것과 같다. 혹 무거운 괴로움이 꺾박하거나 혹 계를 받지 않은 이는 무기심(無記心)⁸⁵⁾으로 짓는 것이다.

二別相者，若於自他讚毀必罪，設毀讚者，亦是福耶？謂有四句，或有讚毀罪，毀讚福。如次他邊損害故，饒益故。或有讚毀福，毀讚罪，摧邪等故，佞引利故。或有讚毀，亦福亦罪，毀讚亦爾，謂順淺小，違深廣等。或有讚毀毀讚，非罪非福，謂如彼心，增上犯亂。或重苦逼，或未受戒，無記所作。

만약 칭찬하고 헐뜯은 죄가 반드시 타승처라면, 타승처를 시설하는 것도 또한 칭찬하고 헐뜯는 것이기도 한 것인가? 경중(輕重)의 모습을 결정하기 어려우니, 자리[位]를 따라 지키고 범하는 것이 지극히 미세하기 때

85) 무기심(無記心)은 선과 악 어느 것도 아닌 마음이다.

문이다. 그러나 초업(初業)에 의하여 4구로 분별해보면 칭찬하고 헐뜯는 것이 중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록 사랑하고 미워함이 있으나 이익 따위를 위하지 않으며, 비록 죄를 범하여 물들었으나 중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구는 응당 알 수 있을 것이다.

若讚毀罪，必他勝處，設他勝處，亦讚毀耶？謂輕重相，難可決定，隨位持犯，極微細故。然約初業，四句分別，謂有讚毀，而非重罪。雖有愛憎，不爲利等，雖染犯罪，而非重故。餘句應知。

이 가운데에서는 우선 칭찬하고 헐뜯는 하나의 계만을 말한 것이니, 다른 지키고 범하는 것[持犯]은 이에 비교해서 보면 응당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보살계와 모든 바라밀을 행하는 마음은 넓고 커서 방소가 없으므로 웅거(雄據)하여 장애하는 것이 없다. 수행자의 근기는 진사(塵沙)를 초월하기 때문에 만행 하나하나가 천 가지 문[千門]으로써 호응하고, 수많은 근기[塵機]가 하나하나를 수행하기 때문에 죄와 복의 성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의 행이 진(塵)에 응하기 때문에 사정(邪正)의 모습이 쉽게 뒤섞이게[混濫] 된다.

此中，且說讚毀一戒，所餘持犯，類此應知。謂菩薩戒與諸行心，廣蕩無方，無所據礙。行者之機，過塵沙故，萬行一一以千門應，塵機修一一故，罪福之性難別。一行應塵之故，邪正之相易濫。

비록 헤아릴 수 없는 근기이지만 다 보살의 도에 들고, 비록 걸림 없는 문이지만 보리의 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도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편협한 정(情)의 비방을 높이 벗어나며, 다 인(因)이 되기 때문에 광대한 지혜[廣慧]¹⁸⁶⁾의 찬탄에 깊이 들어가며, 비록 똑같이 사람의 얼굴이지만 어찌

합당히 하나의 모습이겠으며, 비록 먼 길을 향해 가지만 어찌 오직 특히
말 뿐이겠는가.

雖無數機，皆入菩薩之道，雖無礙門，莫出菩提之因，無不道
故，高出狹情之謗，皆爲因故，深入廣慧之歎。雖同人面，豈合
一相，雖向遠路，寧唯特足。

계경에 말씀하시되, “수례[乘]의 느슨한 것은 곧 느슨하다 이름하고, 계
(戒)에 느슨한 것은 느슨하다고 하지 않는다. 보살마하살은 이 대승에 대
하여 마음에 게을리 하지 않으니, 이를 이름하여 ‘계를 받들어 올바른 법
을 보호한다’고 한다. 대승의 물로써 스스로 목욕하니, 그런 까닭에 보살
은 비록 과계를 나타내지만 느슨하다고 이름하지 않는 것이다.”⁸⁷⁾라고 하
였다.

如契經言，“於乘緩者，乃名爲緩，於戒緩者，不名爲緩。菩薩
摩訶薩，於此大乘，心不懈慢，⁸⁸⁾是名，‘奉戒爲護正法。’以大乘
水，而自澡浴，是故菩薩，雖現破戒，不名爲緩。”

셋째, 구경(究竟)이란 곧 이공(二空)으로써 삼륜상(三輪相)을 없애는 것

86) 광혜(廣慧)란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 광혜(廣惠)라고도 쓴다. 또는 보살이 갖추
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로서 불법과 불법 이외의 모든 경서에 두루
통달하는 지혜이다. 『대지도론(大智度論)』 권83 「69 대방편품(大方便品)」(大25,
p.641a29-b1)에 “광혜란 도인이나 속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서와 논의가
불법 중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함이 없는 것이다. 廣慧者，道俗種種，經書論
議，於佛法中，有無無不悉知。”라고 하였다.

87) 『대반열반경』 6권 「4 여래성품(如來性品)」(大12 p.400c25-28)

88) 卍60 p.364b14와 大40 p.917c25와 藥師寺藏本에는 ‘緩’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
82c8에는 ‘慢’으로 되어 있다.

이니, 계경에서 “응당 원만한 정계(淨戒)인 바라밀다를 호지하지 않음으로써, 범하였으나 범한 모습이 없으니 가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⁸⁹⁾라고 한 것과 같다. 이를테면 계·죄·사람의 삼륜의 상은 연(緣)에 즉(卽)하지 않기 때문이며, 비록 상이 없지 않으나 연을 버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三究竟者，卽以二空亡三輪相。如契經言，“應以不護圓滿淨戒波羅密多，犯無犯相，不可得故。”謂戒罪人，三輪之相，不卽緣故，雖相非無，不離緣故。

자성이 있지 아니하니 곧 중간을 여의어서 또한 가히 얻을 수 없다. 자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능지(能持)를 더할 수 없으며, 상이 없지 않기 때문에 무범(無犯)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공하되 떨쳐버린 것이 아니므로 계의 상[戒相]을 잃지 않고, 있지만 보탠 것이 아니므로 계를 범한 성품[犯戒性]이 없다. 비록 경중과 시비의 상을 밝혔으나 삼륜이 구경행이 아님을 보고, 제법의 이치대로 하면 곧 이름이 여래이다. 무아를 닦아 얻은 바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상행(無相行)이다. 영원히 두 가지 장애⁹⁰⁾를

89)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3권 「2 학관품(學觀品)」(大5 p.11c20-21)

90) 두 가지 장애(二障)란 혹장(惑障)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 『구사론(俱舍論)』에는 번뇌장(煩惱障)과 해탈장(解脫障), 유식론(唯識論)에는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 『원각경(圓覺經)』에는 이장(理障)과 사장(事障), 금강경론(金剛經論)에는 번뇌장과 삼매장(三昧障), 또는 내장(內障)과 외장(外障)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이장(二障)은 번뇌장(ṣ kleśa-āvaraṇa)과 소지장(ṣ jñeya-āvaraṇa)으로 『유가사지론』 18권(大30, p.375a22) 등에 보인다. 번뇌장은 혹장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며, 성도(聖道)를 방해해서 열반을 얻지 못하게 하는 번뇌를 말한다. 소지장은 지장(智障)이라고도 하며 탐·진·치 등의 번뇌가 객관의 진상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므로 소지장이라고 한다. 『성유식론』 9권(大31 p.48c6-11)에 “번뇌장이란 변계소집인 실체의 자아로 집착하는 아견[살가야견(薩迦耶見)]을 상수(上首)로 하는 128가지 근본번뇌 및 그것의 등류인 모

끊고 두 가지 이익⁹¹⁾을 만족할 수 있어야 그 이름을 구경이라 한다.

自性非有，卽離中間，亦不可得。性非有故，勿增能持，相非無故，不撥無犯。空而不撥，不失戒相，有而不增，無犯戒性。雖明輕重是非之相，而見三輪，非究竟行，諸法如義，卽名如來。由修無我之所得故，此無相行。永斷二障，能滿二利，名爲究竟。

무엇이 일념 안에 삼제(三際)가 원융한 것인가? 이를테면 보리가 발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니, 의요를 증상하여 이를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계경에 설하되, “과에 당하여 제불이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설법하신다.”⁹²⁾ 하였으니, 한 가지 법이 공함에 일체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심(自心)으로 육도를 이루어서 흘러 다닌다’는 것이니, 동체대비가 이로부터 일어난다. 계경에 설하되, “곧 이 법신이 한량없이 많은 번뇌가 나

든 수번뇌를 말한다. 이것이 모두 유정의 몸과 마음을 어지럽게 괴롭혀서 능히 열반을 장애하는 것을 번뇌장이라고 한다. 소지장이란 변계소집인 실체의 법으로 집착하는 아견을 첫째로 하는 악견·의심·무명·탐애·성냄·교만 등이다. 인식의 대상과 전도됨이 없는 본성을 덮어서 능히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한다. 煩惱障者，謂執遍計所執實我，薩迦耶見而爲上首，百二十八根本煩惱，及彼等流諸隨煩惱。此皆擾惱有情身心，能障涅槃名煩惱障。所知障者，謂執遍計所執實法，薩迦耶見而爲上首，見疑無明愛恚慢等。覆所知境無顛倒性，能障菩提名所知障。번뇌장은 아집을 근본으로 하고 소지장은 법집을 근본으로 한다. 그 작용의 특징을 말하면 번뇌장은 열반을, 소지장은 보리를 장애한다.”고 하였다.

91) 두 가지 이익(二利)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자리(自利)는 노력하고 정진하여 수도의 공을 쌓는 것으로 그로부터 생기는 복락과 지혜 등의 좋은 과덕(果德)의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받아 누리는 것[上求菩提]. 이타(利他)는 다른 이를 이익하게 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제를 위해 닦는 공덕을 말한다[下化衆生]. 소승의 행은 자리뿐이지만 대승의 행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원만을 목표로 한다.

92) 『보살영락본업경』 2권 「4 석의품(釋義品)」(大24 p.1018a20-21)

부끼고 요동쳐지면서 생사에 왕래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고⁹³⁾ 하였으니, 보호해 지킴(護持)이 이미 그러하니 벗어나 여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何者，一念之內，三際圓融？便謂菩提不離發心，增上意樂，從此而生。如契經說，“當果諸佛，摩頂說法。”一法之空，一切無生。便謂，‘自心流成六道。’同體大悲，從此而起。如契經言，“卽此法身，無量煩惱之所漂⁹⁴⁾動，往來生死，名爲衆生。”護持旣爾，出離亦然。

계승에서 설한 것과 같다.

如有頌曰，

일체 업장의 바다는
다 망상으로부터 생겨나니
만약 참회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 실상을 생각하라.
많은 죄는 서리와 이슬 같아서
지혜의 해가 능히 녹여 없앨 수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육근의 죄를 참회하라.⁹⁵⁾

一切業障海，
皆從妄想生，
若欲懺悔者，
端坐念實相。
衆罪如霜露，
慧日能消除。
是故應至心，
勤懺六根罪。

이 삼취계는 고락(苦樂)의 경계를 여의고 단·지·은(斷·智·恩) 삼신

93) 『기신론소(起信論疏)』 1권(大44 p.209b8-9)

94) 卍60 p.364b14와 大40 p.918a11과 藥師寺藏本에는 ‘漂’로 되어 있으나 韓3 p.483a4에는 ‘漂’로 되어 있다.

95)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 권1(大9 p.393b10-13)

(三身)의 덕⁹⁶⁾을 증득하는 근본이니 경계하기를 줄을 고르듯이 하여 묘하게 그 중도를 취해야 한다.⁹⁷⁾ 계경에 설하되, “보살은 도를 위하므로 네 가지 공양을 받는다. 몸은 굳고 단단한 것이 아니어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며,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능히 선을 닦지 못한다. 괴로움에 대하여 화를 내고 즐거움에 대하여 탐심을 낸다.”고⁹⁸⁾ 하여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此三聚戒，離苦樂邊，證斷智恩三身德本，誠如調絃，妙取其中。如契經說，“菩薩爲道，受四供養。身不堅牢，則不忍苦，不忍苦故，不能修善。於苦生恚，於樂生貪。”乃至廣說。

96) 삼신덕(三身德)이란 불교에 갖추어진 삼덕(三德). 지덕(智德)은 불타가 모든 입장에서 본 지혜를 두루 갖추고 온갖 것을 투철하게 보는 덕. 단덕(斷德)은 모든 번뇌와 후업을 없애버리는 덕. 은덕(恩德)은 중생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힘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함. 이 삼덕(三德)을 법신(法身)·보신(報身)·응신(應身)의 삼신(三身)에 배대하고, 또 지(智)와 단(斷)의 이덕(二德)을 자리(自利)와 자행(自行)·자각(自覺)에 배대하며, 은덕(恩德)을 이타(利他)·화타(化他)·각타(覺他)에 배대한다.

97) 『중아함경(中阿含經)』 29권 「1 大品」(大1 p.612a26-b1)에 “세존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거문고를 연주할 적에 줄을 고르게 하여 팽팽하거나 느슨하지 않게 해서 그 중간을 얻어서 알맞게 하면 조화로운 소리가 사랑할 만하단가?’ 사문이 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알려주시기를 ‘이와 같으니라. 수행자여 너무 빨리 정진하려 하면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너무 느슨하게 정진하면 마음을 해태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대는 반드시 이러한 때를 분별하며 이러한 모습을 관찰하여 방일하지 말라. 世尊復問，於意云何？若彈琴調絃不急不緩，適得其中，為有和音可愛樂耶？沙門答曰，如是世尊！世尊告曰，如是沙門，極大精進，令心調亂，不極精進，令心懈怠。是故汝當，分別此時，觀察此相，莫得放逸。”고 하셨다.

98) 『대반열반경』 22권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大12 p.498a20-24)

내가 일체 논의 종지[論宗]를 두루 탐방하고 보배를 헤아리는 사이에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반푼 어치[半錢]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요문(要門)을 모아 후에 닦는 이를 위하여 고적(古迹)을 편집한다. 『유가기』와 계송에 의요를 뺐으니, 『유식』을 가린 1권처럼 뜻을 같이 하는 이가 있어서 자세히 하여 결판을 취하기를 바라노라.

吾爲遍訪一切論宗，數寶之頃，少年位滿，今爲半錢之利，鳩此要門，爲後修集古迹。如瑜伽記并頌，申自意樂，如唯識判一卷幸有同趣 詳而取決

이미 성전(聖典)의 미묘하고 비밀한 요점을 열었으니 已開聖典微密要，
원경(圓鏡)이 하늘에 달려있어 먼 하늘을 비춤이로다. 圓鏡懸空照長霄.
사람 몸과 성인의 가르침은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人身聖教難可再，
마음에 벗어나고자 하면 마땅히 때를 놓치지 마라. 有心欲出宜及時.

菩薩戒本宗要一卷 終



附錄 부록



太賢에 관한 자료 검색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단행본〉

1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古代韓國佛敎敎學研究 / 高翊晉.
단체 저자	불교사학회, 편
발행 사항	서울 : 民族社, 1989
내용 주기/ 개인 저자	三國時代大乘敎學에 대한 研究 / 高翊晉 新羅佛敎의 敎學思想 / 安啓賢 新羅唯識思想의 特성과 그 歷史의 展開 / 吳享根 僧朗大師 思想·學說의 關係資料 / 金仁德 圓光의 菩薩戒思想 / 鄭柄朝 元曉의 眞俗圓融無碍觀과 成立理論 / 高翊晉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研究 / 金煥泰 慈藏의 佛敎思想에 대한 再檢討 / 辛鍾遠 新羅 大賢法師研究(1) / 蔡印幻

2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梵網經述記 / 승강 지음 菩薩戒本疏 / 의적 지음 梵網經古述記 / 태현 지음; 목정배 옮김
총서 사항	한글대장경
발행 사항	서울 : 東國譯經院, 1994
일반 주기	梵網經述記 外
개인 저자	승강, 의적, 태현 / 목정배, 옮김

3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韓國思想論文選集 / 284 古代佛敎思想 : 唯識思想(2) 古代佛敎思想 : 唯識思想과 圓測 · 太賢(1) 古代佛敎思想 : 彌勒思想

단체 저자	불함문화사, 편
발행 사항	고양 : 불함문화사, 2005
일반 주기	韓國儒學思想, 韓國佛教思想, 韓國道教思想 및 近世民族宗教에 이르기까지 韓國思想의 전 方面을 망라하여 각 部分의 論文을 발췌·영인한 자료임
내용 주기/ 개인 저자	<p>新羅 大賢法師研究(1) : 行蹟과 著作 / 蔡印幻</p> <p>新羅 大賢法師研究(3) : 戒律思想 / 蔡印幻</p> <p>日本 法相關係 諸疎에 引用된 太賢法師의 唯識思想 / 李萬</p> <p>見登의 大乘起信論同異略集에 引用된 太賢의 唯識思想 :</p> <p>第4 建立 唯識同異門을 中心으로 / 李萬</p> <p>新羅의 彌勒思想 / 徐閔吉</p> <p>백제미륵사상의 역사적 위치 / 金三龍</p> <p>元曉의 彌勒信仰 / 李箕永</p> <p>百濟의 彌勒信仰 / 田村圓澄</p> <p>백제불교와 미륵신앙 / 金三龍</p> <p>斷石山神仙寺 造像銘記에 보이는 彌勒信仰集團에 대하여 :</p> <p>신라 中古期の 王妃族 岑喙部 / 辛鍾遠</p> <p>三國時代 彌勒信仰流行의 社會的 背景 :</p> <p>百濟·新羅를 中心으로 / 張지훈</p> <p>新羅 下代 前期 興輪寺 金堂 十聖의 奉安과 彌勒下生信仰 / 郭承勳</p> <p>三國時代大乘敎學에 대한 研究 / 高翊晋</p> <p>新羅佛教의 敎學思想 / 安啓賢</p> <p>新羅唯識思想의 特성과 그 歷史的 展開 / 吳享根</p> <p>僧朗大師 思想·學說의 關係資料 / 金仁德</p> <p>圓光의 菩薩戒思想 / 鄭柄朝</p> <p>元曉의 眞俗圓融無碍觀과 成立理論 / 高翊晋</p> <p>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研究 / 金煥泰</p> <p>慈藏의 佛教思想에 대한 再檢討 / 辛鍾遠</p> <p>新羅 大賢法師研究(1) / 蔡印幻</p>

4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韓國高僧集 / 佛敎學研究會 編 3 : 新羅時代 3
단체 저자	불교학연구회, 편
발행 사항	서울 : 景仁文化社, 1974
내용 주기/ 개인 저자	<p>梵網經古跡記 / 太賢 著</p> <p>藥師經古跡記 / 太賢 著</p> <p>梵網經菩薩戒本疏 / 義寂 著</p> <p>法華經論述記 / 義寂 著</p> <p>海印三昧論 / 明효 著</p>

5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太賢和尚文集 / 太賢 著 1
총서 사항	韓國歷代文集叢書; 4
발행 사항	서울: 景仁文化社, 1993
내용 주기/ 개인 저자	成唯識論學記 - 菩薩戒本宗要 - 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 太賢

6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太賢[文集] / 太賢 著
총서 사항	韓國歷代文集叢書; 5
발행 사항	서울: 景仁文化社, 1993
내용 주기/ 개인 저자	太賢[文集] / 太賢 明晶文集 / 明晶 義寂[文集] / 義寂 環興文集 / 環興

7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已續藏經 60, 中國撰述 大小乘釋律部 / [新文豐出版公司 編]
단체 저자	신문풍출판공사
발행 사항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5-66[1976-1977]
일반 주기	京都 藏經書院版 大日本續藏經의 影印本
내용 주기/ 개인 저자	梵網經菩薩戒本疏 (6卷) / (唐) 法藏 撰 梵網經菩薩戒本疏 (3卷) / (新羅) 義寂 述 梵網經菩薩戒本述記 (4卷) / (唐) 勝莊 撰 梵網經菩薩戒本疏 (5卷 但現存卷2·卷4) / (唐) 知周 撰 菩薩戒本宗要 (1卷) / (新羅) 大賢 撰 梵網經古述記 (4卷 釋經上下) / (新羅) 大賢 集 梵網經菩薩戒疏 (4卷現存上卷) / (唐) 法洗 撰 梵網經菩薩戒注 (3卷) / (宋) 慧因 註 梵網經玄義 (1卷) / (明) 智旭 述; 道昉 訂 梵網經合註 (7卷釋經上下) / (明) 智旭 述; 道昉 訂 梵網經菩薩戒略疏 (8卷 附半月誦菩薩戒儀式註) / (明) 弘贊 述

8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梵網經述記 菩薩戒本疏 梵網經古述記 / 東國譯經院[編];목정배 옮김
단체 저자	동국역경원, 편
총서 사항	한글대장경; 140
발행 사항	서울: 東國譯經院, 1996
일반 주기	梵網經述記 外

9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韓國佛教全書 /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第3冊: 新羅時代 3
단체 저자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
발행 사항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79
내용 주기/ 개인 저자	<p>瑜伽論記 (48卷) / 遁倫. - 往五天竺國傳 / (新羅) 慧超 記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序 (1卷) / 慧超 賀玉女潭祈雨表 (1卷) / 慧超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 (2卷) / (唐) 不可思議 撰 本願樂師經古述 (2卷) / (新羅) 太賢 撰 梵網經古述記 (3卷) / (新羅) 太賢 集 菩薩戒本宗要 (1卷) / (新羅) 太賢 撰 成唯識論學記 (8卷) / (新羅) 太賢 記 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1卷) / (新羅) 太賢 作 大乘起信論同異略集 (2卷) / 見登之 華嚴一乘成佛妙義 (1卷) / (新羅) 見登之 集 祖堂集所載順之和尙說 (3卷) / 順之 唐大薦福寺故寺主¹經大德法藏和尚傳 (1卷) / (新羅) 崔致遠 撰</p>

10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新羅 太賢의 唯識思想研究: 成唯識論學記를 中心으로 / 李萬 著
개인 저자	이만, 태현
발행 사항	서울: 동쪽나라, 1989
일반 주기	被傳者: 太賢 권말부록으로 "成唯識論學記(영인본)" 수록

11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韓國思想論文選集 / [불함문화사 編] 281: 古代佛教思想: 戒律思想(2): 古代 佛教思想: 戒律思想과 圓光
단체 저자	불함문화사, 편
발행 사항	고양: 불함문화사, 2005
일반 주기	韓國儒學思想, 韓國佛教思想, 韓國道教思想 및 近世民族宗教에 이르기까지 韓國思想의 전 方面을 망라하여 각 部分의 논문을 발췌·영인한 자료임
내용 주기/ 개인 저자	新羅 승려들의 不飲酒戒觀 / 崔源植 新羅 義寂의 梵網菩薩戒觀 / 崔源植 신라불교의 정립과 三階敎 / 閔泳珪 太賢의 菩薩戒 이해와 現實問題 인식 / 崔源植 慈藏定律과 四分律 / 南東信 신라 菩薩戒思想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 崔源植 新羅 麗初 禪僧들의 受戒와 持律 / 崔源植 元曉의 大乘菩薩戒思想과 그 意味 / 李炳學 圓光法師와 三岐山 金谷寺 / 鄭永鎬 圓光의 菩薩戒思想 / 鄭柄朝 淨土敎와 圓光世俗五戒의 考察 / 申賢淑 圓光法師와 世俗五戒에 대한 新考察 / 李鍾學 圓光의 「殺性有擇」觀 / 金戊祚 圓光의 생애와 사상 / 崔鉛植 원광법사와 운문사 / 全明星 新羅 圓光法師의 如來藏思想과 敎化活動 / 朴美先 圓光의 占祭法會 시행과 그 의미 / 박광연

〈학위 논문〉

12	
자료 유형	학위논문 (박사)
서명 / 저자	太賢의 唯識哲學研究= Study on tachyun's philosophy of yogacara buddhism / 方仁
발행 사항	서울: 서울大學校, 1995
내용 주기/ 개인 저자	서울大學校 大學院: 哲學科 東洋哲學專攻, 1995 / 方仁

13	
자료 유형	학위논문 (석사)
서명 / 저자	太賢의 戒律思想에 對한 研究: 菩薩戒本宗要를 中心으로 / 崔昌述
발행 사항	서울: 동국대학교, 1978
일반 주기	피전자: 太賢

내용 주기/ 개인 저자	東國大學校 大學院, 1978 / 최창술, 태현
-----------------	---------------------------

14	
자료 유형	학위논문 (박사)
서명 / 저자	新羅 太賢의 成唯識論學記에 관한 研究: 資料의 研究를 中心으로= (A)Study on Dae Hyan's Cheng-Wel-Shin-lun-xue-ji / 李萬
발행 사항	서울: 東國大學校, 1988
일반 주기	피전자: 太賢
내용 주기/ 개인 저자	東國大學校 大學院, 1987 / 이만, 태현

〈고 서〉

15	
자료 유형	고서
서명 / 저자	梵網經古迹記撮要 卷1 / 太賢(新羅)古迹; 洞空(日)撮要; 蓮盛(日)分會
개인 저자	태현, 고적, 동공, 환요, 연성, 분회, 반담, 발
발행 사항	京都: 大和屋, [貞享3(1686)] 刊
일반 주기	表題: 再治會本梵網經古迹記撮要 跋: 貞享3年(1686) 歲次柔兆攝提格佛成道日羽陽乞士槃譚書 紙質: 楮紙

16	
자료 유형	고서
서명 / 저자	梵網經古迹記撮要 卷3 / 太賢(新羅)古迹; 洞空(日)撮要; 蓮盛(日)分會
개인 저자	태현, 고적, 동공, 환요, 연성, 분회, 반담, 발
발행 사항	京都: 大和屋, [貞享3(1686)] 刊
일반 주기	表題: 再治會本梵網經古迹記撮要 跋: 貞享3年(1686) 歲次柔兆攝提格佛成道日羽陽乞士槃譚書 紙質: 楮紙

17	
자료 유형	고서
서명 / 저자	梵網經古迹記撮要 卷4 / 太賢(新羅)古迹; 洞空(日)撮要; 蓮盛(日)分會
개인 저자	태현, 고적, 동공, 환요, 연성, 분회, 반담, 발

발행 사항	京都：大和屋, [貞享3(1686)] 刊
일반 주기	表題：再治會本梵網經古述記撮要 跋：貞享3年(1686) 歲次柔兆攝提格佛成道日羽陽乞士槃譚書 紙質：楮紙

18	
자료 유형	고서
서명 / 저자	梵網經古述記撮要 卷5 / 太賢(新羅)古述; 洞空(日)撮要; 蓮盛(日)分會
개인 저자	태현, 고적, 동공, 환요, 연성, 분회, 반담, 발
발행 사항	京都：大和屋, [貞享3(1686)] 刊
일반 주기	表題：再治會本梵網經古述記撮要 跋：貞享3年(1686) 歲次柔兆攝提格佛成道日羽陽乞士槃譚書 紙質：楮紙

19	
자료 유형	고서
서명 / 저자	梵網經古述記撮要 卷6 / 太賢(新羅)古述; 洞空(日)撮要; 蓮盛(日)分會
개인 저자	태현, 고적, 동공, 환요, 연성, 분회, 반담, 발
발행 사항	京都：大和屋, [貞享3(1686)] 刊
일반 주기	表題：再治會本梵網經古述記撮要 跋：貞享3年(1686) 歲次柔兆攝提格佛成道日羽陽乞士槃譚書 紙質：楮紙

20	
자료 유형	고서
서명 / 저자	藥師本願經古述
개인 저자	태현
발행 사항	北京：北京刻經處, [民國9(1920)] 刊
일반 주기	刊記：民國九-十年(1920-1921) 北京刻經處識 紙質：竹紙 菩薩戒本宗要, - 梵網經古述記

21	
자료 유형	고서
서명 / 저자	靑丘法集 坤：梵網經古述記 卷3-卷4 / 太賢(新羅) 撰
발행 사항	北京：北京刻經處, 民國9(1920) 刊

일반 주기	刊記：民國九年(1920) 十月北京刻經處謹識 紙質：綿紙
내용 주기/ 개인 저자	藥師本願經高迹 卷上,下 / 太賢 撰. - 菩薩戒本宗要 卷1 / 太賢 撰 梵經古迹記 卷1-卷4 / 太賢 集

22	
자료 유형	고서
서명 / 저자	靑丘法集 乾: 藥師本願經高迹 卷上-卷下, 菩薩戒本宗要, 梵經古迹記 卷1-卷2 / 太賢(新羅) 撰
발행 사항	北京: 北京刻經處, 民國9(1920) 刊
일반 주기	刊記：民國九年(1920) 十月北京刻經處謹識 紙質：綿紙
내용 주기/ 개인 저자	藥師本願經高迹 卷上,下 / 太賢 撰 菩薩戒本宗要 卷1 / 太賢 撰 梵經古迹記 卷1-卷4 / 太賢 集

<기 사>

23	
기사 제목	太賢의佛性論: 彼の唯識論疏を中心として
기사 저자명	李萬
발행처	佛教大學 佛教文化研究所
발행 년도	1988,3
수록잡지명	(佛教大學) 佛教文化研究所年報
권호정보/ 수록페이지	Vol.6 / pp.135-153

24	
기사 제목	대현의 불교철학사상
기사 저자명	최봉익
발행처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행 년도	1965
수록잡지명	철학연구
권호정보	no.3

25	
기사 제목	대현(太賢)대사

기사 저자명	해인사
발행처	해인사
발행 년도	1990.12
수록잡지명	海印
권호정보/ 수록페이지	106호 / p.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유식사상과 원측 태현 미륵사상
총서 사항	韓國思想論文選集 . 284 , 古代佛教思想 唯識思想과 圓測 太賢(2)
발행 사항	고양 : 불함문화사, 2005
내용 주기/ 개인 저자	<p>新羅 大賢法師研究(1) : 行蹟과 著作 / 蔡印幻</p> <p>新羅 大賢法師研究(3) : 戒律思想 / 蔡印幻</p> <p>日本 法相關係 諸疎에 引用된 太賢法師의 唯識思想 / 李萬</p> <p>見登의 大乘起信論同異略集에 引用된 太賢의 唯識思想 :</p> <p>第4 建立 唯識同異門을 中心으로 / 李萬</p> <p>新羅의 彌勒思想 / 徐閔吉</p> <p>백제미륵사상의 역사적 위치 / 金三龍</p> <p>元曉의 彌勒信仰 / 李箕永</p> <p>百濟의 彌勒信仰 / 田村圓澄</p> <p>新羅 中古時代의 彌勒信仰 / 金杜珍</p> <p>現存 佛像銘을 통해 본 高句麗 彌勒信仰 / 金煥泰</p> <p>新羅 中代의 彌勒信仰 / 金惠婉</p> <p>미륵신앙과 화랑사상 / 金知見</p> <p>元曉의 彌勒上生經典觀 / 姜庚九</p> <p>新羅 下代의 彌勒信仰 / 金惠婉</p> <p>新羅 彌勒信仰의 전개와 성격 / 김남윤</p> <p>百濟의 彌勒信仰과 戒律 / 金杜珍</p> <p>新羅彌勒信仰의 思想의特性 : 샤머니즘을 中心으로 / 張志勳</p> <p>百濟遺民의 抵抗運動과 彌勒信仰의 變遷過程 :</p> <p>全北 母岳山 金山寺를 中心으로 / 崔洵植</p> <p>日本における彌勒信仰と民俗文化 / 宮田登</p> <p>백제불교와 미륵신앙 / 金三龍</p> <p>斷石山神仙寺 造像記에 보이는 彌勒信仰集團에 대하여 :</p> <p>신라 中古期의 王妃族 岑喙部 / 辛鍾遠</p> <p>三國時代 彌勒信仰流行의 社會的 背景 : 百濟 新羅를 中心으로 / 장지훈</p> <p>新羅 下代 前期 興輪寺 金堂 十聖의 奉安과 彌勒下生信仰 / 郭承勳</p>

2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唯識思想 (2)
총서 사항	韓國思想論選集 . 284 , 古代佛教思想·唯識思想 (2)
발행 사항	고양 : 불함문화사, 2003
내용 주기/ 개인 저자	<p>新羅 大賢法師研究(1) : 行蹟과 著作 / 蔡印幻 新羅 大賢法師研究(3) : 戒律思想 / 蔡印幻 日本 法相關係 諸疎에 引用된 太賢法師의 唯識思想 / 李萬 見登의 大乘起信論同異略集에 引用된 太賢의 唯識思想 : 第4 建立 唯識同異門을 中心으로 / 李萬 新羅의 彌勒思想 / 徐閔吉 백제미륵사상의 역사적 위치 / 金三龍 元曉의 彌勒信仰 / 李箕永 百濟의 彌勒信仰 / 田村圓澄 新羅 中古時代의 彌勒信仰 / 金杜珍 現存 佛像銘을 통해 본 高句麗 彌勒信仰 / 金模泰 新羅 中代의 彌勒信仰 / 金惠婉 미륵신앙과 화랑사상 / 金知見 元曉의 彌勒上生經典觀 / 姜庚九 新羅 下代의 彌勒信仰 / 金惠婉 新羅 彌勒信仰의 전개와 성격 / 金南윤 百濟의 彌勒信仰과 戒律 / 金杜珍 新羅彌勒信仰의 思想의特性 : 샤머니즘을 中心으로 / 張志勳 百濟遺民의 抵抗運動과 彌勒信仰의 變遷過程 : 全北 母岳山 金山寺를 中心으로 / 崔洵植 日本における彌勒信仰と民俗文化 / 宮田登 백제불교와 미륵신앙 / 金三龍 斷石山神仙寺 造像銘記에 보이는 彌勒信仰集團에 대하여 : 신라 中古期의 王妃族 岑喙部 / 辛鍾遠 三國時代 彌勒信仰流行의 社會의 背景 : 百濟 · 新羅를 中心으로 / 장지훈 新羅 下代 前期 興輪寺 金堂 十聖의 奉安과 彌勒下生信仰 / 郭丞勳</p>

3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曉城趙明基先生遺文稿 / 효성조명기선생유문고간행위원회, 조명기
총서 사항	韓國佛教史學論集
발행 사항	서울 : 민족사, 1989.

4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신라불교 / 불함문화사
총서 사항	韓國佛敎學研究叢書 : 新羅佛敎 篇, 38 - 50
발행 사항	고양 : 불함문화사, 2003
일반 주기	38 - 40, 新羅佛敎, 1 - 3. - 41, 新羅佛敎, 4 : 慈藏, 圓測. - 42, 新羅佛敎, 5 : 義湘. - 43, 新羅佛敎, 6 - 7 : 新羅 僧侶, 1 - 2. - 45, 新羅佛敎, 8 : 海外留學僧, 崔致遠. - 46, 新羅佛敎, 9 : 崔致遠. - 47, 新羅佛敎, 10 : 道詵, 1. - 48, 新羅佛敎, 10 : 道詵, 2. - 三國遺事, 1. - 49, 新羅佛敎, 11 - 12 : 三國遺事, 2 - 3

5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新羅 僧侶 1
총서 사항	韓國佛敎學研究叢書 . 43, 新羅佛敎 : 新羅佛敎 6 : 新羅 僧侶 1
발행 사항	고양 : 불함문화사, 2003
내용 주기/ 개인 저자	『錐洞記』와 그 異本 『華嚴經問答』/金相鉉 『華嚴經 問答』과 義湘의 一乘三乘論 / 朴太原 憬興의 彌陀淨土往生思想 ; 新羅僧 憬興의 彌勒淨土往生思想 / 安啓賢 憬興의 生涯에 관한 再考察 / 韓泰植 元曉와 憬興의 『金光明經』註疏에 나타난 신라의 天文星宿世界觀 / 金一權 太賢과 茸長寺의 佛敎彫刻 / 文明大 新羅 大賢法師研究(1) : 行蹟과 著作 ; 新羅 大賢法師研究 3 : 戒律思想 / 蔡印幻 日本 法相關係 諸疏에 引用된 太賢法師의 唯識思想 ; 見登의 大乘起信論同異略集에 引用된 太賢의 唯識思想 : 第四 建立唯識同異門을 中心으로 / 李 萬 太賢의 菩薩戒 이해와 現實問題 인식 / 崔源植 신라 점찰법회와 진표의 교법연구;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思想 / 金煥泰

국회도서관

1	
자료 유형	학위 논문 (박사)
서명 / 저자	新羅 菩薩戒思想史 研究 / 崔源植
발행 사항	서울 : 東國大 大學院, 199308

2	
자료 유형	일반 논문
서명 / 저자	太賢의 菩薩戒 이해와 現實問題 인식 /崔源植
발행 사항	伽山佛教文化研究院
수록지명	伽山學報 2('93,3) pp.103-130

3	
자료 유형	학위 논문 (박사)
서명 / 저자	新羅太賢의 唯識思想研究 : 成唯識論學記를 中心으로 / 李 萬 著
발행 사항	서울 : 동쪽나라, 198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梵網經古述記 ; 梵網經菩薩戒疏 ; 梵網經菩薩戒註 / 太賢(新羅)
총서 사항	靖國紀念大日本續藏經 ; 第1輯第60套第3冊 大日本續藏經 ; 第1輯第60套第3冊
발행 사항	京都 : 藏經書院, 明治42[1909]

2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梵網經古述記 / [釋]太賢(新羅) 著
발행 사항	[刊地未詳] : [刊者未詳], [刊年未詳, 後寫]

3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太賢文集, 2 / 太賢 [等]著 ; 韓國文集編纂委員會 編
단체 저자	한국문집편찬위원회
총서 사항	韓國歷代文集叢書 ; 5
발행 사항	서울 : 景仁文化社, 1993

내용 주기/ 개인 저자	梵網經古跡記；藥師經古跡記 / 太賢 梵網經菩薩戒本疏；法華經論述記 / 義寂 海印三昧論 / 明鼎 無量壽經連義述文贊 / 璟興
-----------------	--

4	
자료 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	古代佛教思想: 唯識思想과 圓測 · 太賢. 2 ; 古代佛教思想 : 彌勒思想 / [불함문화사 편]
단체 저자	불함문화사
총서 사항	韓國思想論文選集 ; 284
발행 사항	고양 : 불함문화사, 2005

5	
자료 유형	학위논문(석사)
서명 / 저자	大賢의 戒律思想에 對한 研究 : 菩薩戒本宗要를 中心으로 / 崔昌述
발행 사항	서울 : 東國大學校, 1978

6	
자료 유형	학위논문(박사)
서명 / 저자	新羅 法相宗 研究=A Study on Pubsang school of Silla / 金南允
발행 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7	
자료 유형	학위논문(박사)
서명 / 저자	太賢의 唯識哲學研究 = Study on Tachyun's philosophy of Yogacara Buddhism / 方仁.
발행 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범망경고적기』 관련 일본 자료

京都大学附属図書館 所蔵 藏經書院本 目録

1	
書名	梵網經古迹記撮要 六卷
責任表示	(僧)洞空著;蓮盛分會
書誌事項	洛陽 貞享三年跋
請求記号	日藏 / 未刊 / 132 登録年月日 登録番号 291891

2	
書名	梵網經下卷古迹記述迹抄 五卷
責任表示	(僧)照遠記
書誌事項	新
請求記号	日藏 / 既刊 / 87 登録年月日 登録番号 511808

3	
書名	梵網經古今疏鈔日録
責任表示	(僧)諦忍著
書誌事項	皇都 明和五年序
請求記号	日藏 / 既刊 / 93 登録年月日 登録番号 511814

4	
書名	梵網經古迹記科解 二卷
責任表示	(僧)寂尊著
書誌事項	洛陽 元禄三年刊 下卷のみ
請求記号	日藏 / 既刊 / 88 登録年月日 登録番号 511809

5	
書名	梵網經古述記輔行文集 十卷
責任表示	(僧)寂尊著
書誌事項	京都 承応三年
請求記号	日藏 / 既刊 / 89 登録年月日 登録番号 511810

6	
書名	梵網經古述補忘抄 十卷
責任表示	(僧)定泉記
書誌事項	京都 寛文二年
請求記号	日藏 / 既刊 / 90 登録年月日 登録番号 511811

7	
書名	梵網經上卷古述記綱義 十卷
責任表示	(僧)清算著
書誌事項	新
請求記号	日藏 / 既刊 / 91 登録年月日 登録番号 511812

8	
書名	梵網經菩薩戒本疏紀要 三卷
責任表示	(僧)鳳潭著
書誌事項	京都 享保九年
請求記号	日藏 / 既刊 / 92 登録年月日 登録番号 511813

9	
書名	梵網經要解 十卷
責任表示	(僧)諦忍著
書誌事項	皇都 明和五年序
請求記号	日藏 / 既刊 / 93 登録年月日 登録番号 511814

일본 國會圖書館 所藏目錄

1	
書名	新纂大日本統藏經. 第38卷
責任表示	国書刊行会,
書誌事項	1977.5

2	
書名	日本大藏經. 第36卷
責任表示	鈴木學術財団
書誌事項	増補改訂 - 鈴木學術財団, 1974

3	
書名	新纂大日本統藏經. 第38卷
責任表示	国書刊行会,
書誌事項	1977.5

4	
書名	梵網經古迹記. 下
責任表示	太賢
書誌事項	森江佐七, 明10.5

5	
書名	梵網經古迹記. 本1 分冊1
責任表示	吉田義山
書誌事項	上坂氏顕彰会史料出版部, 2002.8 (理想日本리프린트; 第84卷)

6	
書名	梵網經古迹記. 本1 分冊2
責任表示	吉田義山
書誌事項	上坂氏顕彰会史料出版部, 2002.8 (理想日本리프린트; 第84卷)

7	
書名	梵網經古述記. 本1 分冊2
責任表示	吉田義山
書誌事項	上坂氏顕彰会史料出版部, 2002.8 (理想日本리프린트; 第84卷)

8	
書名	梵網經古述記. 本2 分冊1
責任表示	吉田義山
書誌事項	上坂氏顕彰会史料出版部, 2002.8 (理想日本리프린트; 第84卷)

9	
書名	梵網經古述記. 本2 分冊2
責任表示	吉田義山
書誌事項	上坂氏顕彰会史料出版部, 2002.8 (理想日本리프린트; 第84卷)

10	
書名	梵網經古述記. 末1 分冊1
責任表示	吉田義山
書誌事項	上坂氏顕彰会史料出版部, 2002.8 (理想日本리프린트; 第84卷)

11	
書名	梵網經古述記. 末1 分冊2
責任表示	吉田義山
書誌事項	上坂氏顕彰会史料出版部, 2002.8 (理想日本리프린트; 第84卷)

12	
書名	梵網經古述記. 末2 分冊1
責任表示	吉田義山
書誌事項	上坂氏顕彰会史料出版部, 2002.8 (理想日本리프린트; 第84卷)

13	
書名	梵網經古迹記. 末2 分冊2
責任表示	吉田義山
書誌事項	上坂氏顕彰会史料出版部, 2002.8 (理想日本리프린트; 第84卷)

14	
書名	梵網經古迹記.
責任表示	太賢[他]
書誌事項	出雲寺文次郎, 明20,3

15	
書名	梵網經古迹記玄談開朦.
責任表示	上田照遍
書誌事項	藏地真明, 明14,8

16	
書名	梵網經古迹記上会本.
責任表示	太賢[他]
書誌事項	明教社, 明17



索引 찾아보기





가(假) 179
가행도(加行道) 284
간생훼욕계(慳生毀辱戒) 431
간탐(慳貪) 431, 502
갈마(羯磨) 630
갈마승(羯磨僧) 572
갈마전법륜승(羯磨轉法輪僧) 569
감변(減邊) 228
개허광설문(開許廣說門) 362
거향상(去向相) 279
겁도인물계(劫盜人物戒) 391
게송(偈頌) 631
견도(見道) 462
견림(堅林) 623
견박(見縛) 189, 192
견신인(堅信忍) 163
결박하(結縛河) 236
결성죄문(結成罪門) 389
경각(警覺) 156
경계(輕戒) 457
경계사문(境界事門) 387, 393
경구죄(輕垢罪) 466
경멸신학계(輕蔑新學戒) 515
경중성문(輕重性門) 374, 646, 652
계경(契經) 153
계금취(戒禁取) 270
계바라밀(戒波羅蜜) 650
계심(戒心) 174

계악행문(誠惡行門) 141
고고(苦苦) 261
고독(蠱毒) 531
고위성금계(故違聖禁戒) 588
고입난처계(故入難處戒) 550
고제(苦諦) 261
고주계(酤酒戒) 421
고주생죄계(酤酒生罪戒) 420
공(空) 179, 217
공구(孔丘) 427
공능(功能) 452
공능차별(功能差別) 159
공물(功物) 536
공삼매(空三昧) 171
공혜(空慧) 296
공화(空華) 621
공화관지(空華觀智) 277
과욕력품(果欲力品) 280
관각(觀覺) 275
관재(棺材) 493
관중(關中) 136
관행(觀行) 210, 575
광명상(光明相) 649
광박협산(廣博脅山) 648
광왕좌(光王座) 318
광요(光耀) 623
광혜(廣慧) 659
괴고(壞苦) 262
괴색(壞色) 569
교(橋) 433

교만(驕慢) 432
교정행문(敎正行門) 141
교회주(敎化主) 522
구경(究竟) 659
구경문(究竟門) 344, 379, 653
구로사(拘盧捨) 554
구마라집(鳩摩羅什) 135
구선법왕보살 515
구신(句身) 268
구심(九心) 198
구족수계(具足受戒) 639
구족여시십인보살(具足如是十忍菩薩)
322
국적(國賊) 492
근력품(根力品) 280
근사(近事) 639
금강(金剛) 318
금강백운색(金綱白雲色) 157
궁가(菴伽) 314
궁가사겁(菴伽沙劫) 542
기신론고적기(起信論古迹記) 132

나락가(那落迦) 385
나형(裸形)외도 541
낙(樂) 216, 582
낙각(樂覺) 275
남해기귀전(南海寄歸典) 557

내공(內空) 297
내등정(內等淨) 216, 582
내범부(內凡夫) 233
념(念) 582
노사나(盧舍那) 153
녹수낭(澗水囊) 550
논어(論語) 428, 509
뇌타판매(惱他販賣) 493
누지불(樓至佛) 558
누진지(漏盡智) 288
능관(能觀) 193
능성상문(能成相門) 628
능소성문(能所成門) 627, 628
능수유정문(能受有情門) 360
능전(能詮) 487

다문(多聞) 484
단금(斷金) 643
단덕(斷德) 663
단월(檀越) 524
달조(達照) 228
담무갈(曇無竭) 보살 460
담무참(曇無讖) 139
담타과실계(談他過失戒) 376, 421
대명지(大明智) 293
대사견(大邪見) 586
대승심(大乘心) 234

대지도론(大智度論) 162
 대천복사(大薦福寺) 621
 대치(對治) 186
 도(盜) 342
 도거(掉擧) 555
 도력품(道力品) 280
 도인오전(盜人五錢) 429
 도제(道諦) 259, 263
 도종성(道種性) 499, 581
 독(獨) 235
 독대승심(獨大乘心) 235
 동사심(同事心) 213
 동심 同心 213
 두타(頭陀) 472, 551

ㄱ

락(酪) 469
 락(樂) 216, 582

ㄴ

마달리가(摩怛履迦) 586
 마정정(摩頂定) 242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 325
 만(慢) 433
 만인경법계(慢人輕法戒) 514
 말법(末法) 534

말주현양문(末主顯揚門) 348, 357
 망(妄) 342
 망념(妄念) 464
 망라당[羅網幢] 152
 망식(妄識) 149
 망어(妄語) 415
 멸제(滅諦) 263
 명득(明得) 241
 명색(名色) 367
 명색지(名色支) 270
 명수(明數) 520
 명신(名身) 268
 명증(明增) 241
 명행족(明行足) 305, 308
 묘광당(妙光堂) 318
 무간도(無間道) 284
 무간상속(無間相續) 454
 무간정(無間定) 243
 무공용(無功用) 296
 무근(無根) 568
 무근방훼계(無根謗毀戒) 494
 무기심(無記心) 657
 무루계(無漏戒) 462
 무문자설(無問自說) 268
 무방리(無方理) 247
 무부무기(無覆無記) 654
 무분별지(無分別智) 161
 무상(無相) 172
 무상사(無上士) 306, 308
 무상승(無上乘) 628

무상심(無相心) 236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 356
 무생인(無生忍) 252
 무생지(無生智) 230
 무여범(無餘犯) 442
 무위(無爲) 172
 무위무기(無爲無記) 654
 무자행욕계(無慈行欲戒) 404
 무착지(無著智) 293
 무표색(無表色) 369
 무학도(無學道) 462
 문사수(聞思修) 167, 275, 480
 문신(文身) 268

방화손생계(放火損生戒) 496
 배정향사계(背正向邪戒) 486
 백세비구(百歲比丘) 562
 백세(百歲) 비구니 562
 백의(白衣) 532
 백일갈마(百一羯磨) 572
 번뇌장(煩惱障) 192, 660
 범망(梵網) 150, 628
 범망경(梵網經) 150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131
 범망경고적기상회본(梵網經古迹記上會本) 131
 범망경고적기촬요(梵網經古迹記撮要) 131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137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137
 범불등분상(犯不同分相) 634
 범실문(犯失門) 345
 범공(法空) 172
 범락인(法樂忍) 276
 범륜승(法輪僧) 572
 범문(法門) 154
 범신(法身) 310
 범장(法藏) 137, 153, 414, 489, 538, 561, 578
 범처색(法處色) 215
 범화위중계(法化違宗戒) 498
 변계소집성(徧計所執性) 180
 변학문(徧學門) 337
 별상(別相) 656
 별상문(別相門) 379, 653

ㄴ

바라밀다섭문(波羅密多攝門) 650
 바라밀다승문(波羅密多勝門) 646
 바라색희(波羅賽戲) 537
 바라이(波羅夷) 390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327, 632
 박구(拍毬) 537
 박저(縛著) 224
 발로참회(發露懺悔) 579
 발심필경(發心畢竟) 361
 발취문(發趣門) 145
 발취상문(發趣相門) 142
 방생업(放生業) 508
 방일(放逸) 420, 654

별상섭문(別相攝門) 650
 별청(別請) 527
 별해탈계(別解脫戒) 462
 보광당(普光堂) 318
 보살계의소(菩薩戒義疏) 163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133
 보살종자(菩薩種子) 159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151, 159
 보살지지계본(菩薩地持戒本) 139
 보시(普施) 437
 보특가라(補特伽羅) 579
 복지(福智) 356
 복덕자량(福德資糧) 356
 복인(伏忍) 239, 252
 부(覆) 419
 부낭(浮囊) 341
 부동류심(不動類心) 632
 부동분상(不同分相) 632
 부동분심(不同分心) 359, 442, 632
 부양(俯仰) 648
 부주도(不住道) 148, 149
 부중경율계(不重經律戒) 589
 부증불감경(不增不減經) 143
 부촉(付屬) 313, 314, 586, 587
 북명주(北井洲) 524, 525
 북취(北趣) 251
 분단생(分段生) 270
 분단생사(分段生死) 301
 분별기(分別起) 250
 분제(分齊) 637
 불가괴성(不可壞性) 581
 불가설(不可說) 314
 불거교참계(不舉教懺戒) 475
 불경사장계(不敬師長戒) 459
 불계지(佛界地) 306, 309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 216
 불공법(不共法) 250
 불광산사(佛光山寺) 134
 불괴심(不壞心) 239
 불구존망계(不救存亡戒) 508
 불구존액계(不救尊厄戒) 534
 불국사고금역대제현계창기(佛國寺古今
 歷大諸賢繼勅記) 132
 불능유학계(不能遊學戒) 482
 불발원계(不發願戒) 543
 불생자요계(不生自要戒) 544
 불세존(佛世尊) 306, 308
 불인위범계(不忍違犯戒) 512
 불지(佛地) 306
 불침병고계(不瞻病苦戒) 487
 불청설(不請說) 268
 불퇴법(不退法) 224
 불퇴심(不退心) 232
 불행리악계(不行利樂戒) 565
 불화유정계(不化有情戒) 591
 비법립제계(非法立制戒) 596
 비비계(非非戒) 175
 비심(悲心) 203
 비염(非染) 463
 비처설계(非處說戒) 584

- 사(捨) 208, 216, 582
 사(伺) 216, 582
 사대(四大) 509
 사도번뇌(四倒煩惱) 186
 사명양신계(邪命養身戒) 530
 사무량심(四無量心) 254
 사바세계(娑婆世界) 162
 사망승(四方僧) 526
 사방승물(四方僧物) 526
 사불동분상(捨不同分相) 638
 사선근(四善根) 241, 319, 351
 사성(四聖) 136
 사수(捨受) 582
 사식(四識) 351
 사심(捨心) 170, 171, 207, 208
 사위의(四威儀) 178, 555
 사위지기자사 여위열기자용(士爲知己者
死 女爲說己者容) 495
 사음(四陰) 222
 사자신중충(獅子身中虫) 598, 599
 사장(四藏) 134
 사전도(四顛倒) 644
 사지(四智) 602
 사처(四處) 643
 사취(四取) 270
 산문(産門) 411
 살(殺) 342
 살바야공(薩婆若空) 231
 삼각(三覺) 256
 삼계하(三界河) 236
 삼고(三苦) 257, 645
 삼고상(三苦相) 255
 삼과법문(三科法門) 152
 삼근(三根) 494
 삼륜(三輪) 149, 172, 173, 177
 삼보비방(三寶誹謗) 444
 삼상(三相) 202
 삼선근(三善根) 446
 삼성(三性) 252
 삼세천불(三世千佛) 578
 삼수(三受) 269
 삼시(三時) 567
 삼신(三身) 454
 삼신덕(三身德) 663
 삼심(三心) 227, 256
 삼심소(三心所) 261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 248
 삼악취(三惡趣) 478
 삼유(三有) 147
 삼의(三義) 153
 삼장(三藏) 134
 삼장재(三長齋) 533
 삼장재월(三長齋月) 532
 삼정육(三淨肉) 471
 삼제(三際) 315, 363, 632
 삼취계(三聚戒) 334
 삼취정계(三聚淨戒) 136, 334, 636
 삼현(三賢) 454, 602

상각(上覺) 275
 상노월(償勞月) 525
 상락아정(常樂我淨) 185
 상락인(上樂忍) 279
 상법(像法) 534
 상사공덕(相似功德) 435
 상속(相續) 262
 상제보살(常啼菩薩) 460
 상좌(上座) 460, 463
 상품전(上品纏) 579
 생멸하(生滅河) 236
 생소(生蘇) 469
 생주이멸(生住異滅) 274
 생집(生執) 199
 서역기(西域記) 554
 서역전(西域傳) 324
 석장(錫杖) 550
 선계경(善戒經) 374
 선근(善根) 446
 선법(善法) 416
 선서(善逝) 305, 308
 설법괴의계(說法乖儀戒) 595
 설법본말문(說法本末門) 354
 설법주(說法主) 522
 설산동자(雪山童子) 515
 설행(說行) 300
 섭선계(攝善戒) 653
 섭선법계(攝善法戒) 477
 섭율의계(攝律儀戒) 477
 섭자(鐺子) 550
 섭화루실계(攝化漏失戒) 568
 성계상문(成戒相門) 358
 성력품(性力品) 280
 성승문(成勝門) 343
 성유식론고적기(成唯識論古迹記) 132
 성종성(性種性) 499
 성죄(性罪) 342, 634
 성해탈지(聖解脫智) 308
 세간해(世間解) 308
 세간해탈(世間解脫) 306
 세계해(世界海) 162
 세안(世眼) 623
 세웅(世雄) 622
 세제(世諦) 227
 소성상문(所成相門) 628
 소연(所緣) 173
 소욕지족(少欲知足) 554
 소의(所衣) 186, 390
 소전(所詮) 487
 소지장(所知障) 292, 637, 660
 소지장성(所知障性) 637
 속제(俗諦) 228
 송현주존승문(頌顯主尊勝門) 348
 수달나태자(須達拏太子) 436
 수도(修道) 462
 수득문(修得門) 331
 수면(隨眠) 218
 수미산(須彌山) 152
 수불동분상(受不同分相) 632
 수성문(隨性門) 338

수심문(隨心門) 336
 수타별청계(受他別請戒) 527
 수행각(受行覺) 256, 257
 수행차별문(修行差別門) 627
 숙세력품(宿世力品) 280
 숙주지(宿住智) 288
 순생(順生) 282
 순승문(順勝門) 340
 순인(順忍) 217, 219, 252
 순인공(順忍空) 218
 순현수(順現受) 282
 순현수업(順現受業) 282
 순후(順後) 282
 습기(習氣) 144, 262
 습종성(習種性) 167, 499, 581
 승금(勝金) 324
 승방주(僧房主) 522
 승복전(僧福田) 529
 승승(乘乘) 223
 승조(僧肇) 136, 137
 승진도(勝進道) 284
 승진행(勝進行) 278
 승처해탈(勝處解脫) 181
 시방승(十方僧) 526
 시상권지문(示相勸持門) 380
 시심(施心) 208
 시처(時處) 132
 식세기혐계(息世譏嫌戒) 151, 337
 식오신계(食五辛戒) 473
 식육계(食肉戒) 470
 식지(識支) 270
 신경의문(申經意門) 627
 신경통(神境通) 288
 신라장소록장편(新羅章疏錄長編) 132
 신인(信忍) 163, 252
 신통(神通) 314
 신통명지품(十神通明智品) 285
 신통지(神通智) 293, 299
 실제(實諦) 228
 실체(實諦) 227
 신택심(室宅心) 251
 심(心) 329
 심심(深心) 227
 심심(深深) 228
 심심(心心) 235
 심왕(心王) 260
 심일경성(心一境性) 216
 십계(十戒) 476
 십근진색(十根塵色) 215
 십금강심(十金剛心) 165, 220
 십대원(十大願) 547
 십력(十力) 166
 십력품(十力品) 280
 십발취심(十發趣心) 163
 십법행(十法行) 590
 십변처(十徧處) 181
 십삼난(十三難) 478
 십삼난사(十三難事) 332
 십삼중난(十三重難) 371
 십선정(十禪定) 319

십선지(十禪支) 214, 216, 248, 575
 십성(十聖) 141, 454, 602
 십승행(十勝行) 334
 십악(十惡) 339
 십원(十願) 544
 십육경차(十六輕遮) 332, 371
 십이두타(十二頭陀) 552
 십이입(十二入) 171
 십이처(十二處) 152
 십인(十忍) 317, 321
 십장(十藏) 134
 십장양심(十長養心) 164, 201
 십종법행(十種法行) 590
 십종원(十種願) 544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200
 십지(十地) 141, 165
 십통(十通) 288
 십팔계(十八界) 152, 171
 십팔불공행(十八不共行) 166
 십팔성인지(十八聖人智) 291

아어취(我語取) 270
 아륜(我輪) 196, 198
 악구제자계(惡求弟子戒) 574
 악세(惡世) 534
 악인(惡人) 586
 악취(惡趣) 250
 애어심(愛語心) 210
 약사경고적기(藥師經古迹記) 132
 양지(楊枝) 537, 557
 업도(業道) 386, 655
 업지력품(業智力品) 280
 여래(如來) 305, 307
 여래성(如來性) 142
 여래성문(如來性門) 142
 여래십호(如來十號) 305
 여래장(如來藏) 142, 145
 여래장연기(如來藏緣起) 143
 여여(如如) 196
 여여혜(如如慧) 237
 여외도식계(與外道食戒) 541
 연화대장세계해(蓮華臺藏世界海) 160
 염(念) 216
 염범(染犯) 463
 염부제보리수(閻浮提菩提樹) 316
 염부주(閻浮洲) 162
 염염(焰焰) 223
 염천(焰天) 317
 영빈위식계(領賓違式戒) 523
 오계(五戒) 476
 오둔사(五鈍使) 198

아(我) 171
 아련야(阿練若) 557
 아박(我縛) 192
 아사리(阿闍梨) 460, 463
 아사세왕(阿闍世王) 496
 아소(我所) 171

오리사(五利使) 198
오명론(五明論) 250
오백선인(五百仙人) 408
오상(五常) 509
오신채(五辛菜) 473
오신통(五神通) 314
오안(五眼) 280
오역죄(五逆罪) 467
오연(五緣) 390
오온(五蘊) 152
오욕락(五欲樂) 147
오음(五陰) 171
오인(五忍) 252
오장(五藏) 134
오정육(五淨肉) 471
외도(外道) 586
외범부(外凡夫) 233
요익중생계(饒益衆生戒) 477
욕취(欲取) 270
용섭(用攝) 651
용장사(葺長寺) 132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151, 493
원성실성(圓成實性) 180
원심(願心) 188
원효(元曉) 452
위기(圍碁) 537
위범상문(違犯相門) 392
위범성문(違犯性門) 384
위범성문(違犯成門) 393
위주실의계(爲主失儀戒) 522

유(乳) 469
유가론기(瑜伽論記) 352
유교경(遺敎經) 366, 480, 504, 571
유식(唯識) 153
유위무기(有爲無記) 654
육념(六念) 223
육박(六博) 537
육신통(六神通) 314
육십이견(六十二見) 196
육재일(六齋日) 532
육족지(六足智) 290
육축(六畜) 493
육친(六親) 495
육화경(六和敬) 511
육화합(六和合) 511
은덕(恩德) 663
은륜(銀輪) 204
은밀문(隱密門) 339
음(姪) 342
음주계(飲酒戒) 465
음주삼십육실(飲酒三十六失) 466
음행(淫行) 404
응공(應供) 305, 307
의(意) 328
의각(猗覺) 275
의락(意樂) 145
의락문(意樂門) 341
의보(依報) 392
의세악구계(依勢惡求戒) 503
의식(意識) 329

의식각(意識覺) 257
 의요(意樂) 146
 의적(義寂) 452, 562
 의지각(意地覺) 255
 의지처[三心所] 261
 의타기성(依他起性) 180
 이구지(離垢地) 265
 이근(二根) 568
 이리(二利) 661
 이시(二時) 550
 이아(二我) 645
 이염(爾焰) 274
 이익심(利益心) 210
 이장(二藏) 134
 이장(二障) 193, 334, 660
 이전의(二轉依) 335
 이행심(利行心) 211
 인공(人空) 172
 인과섭(因果攝) 650
 인순(忍順) 228
 인심(忍心) 176
 일각선인(一角仙人) 408
 일분수(一分受) 332
 일분우바새(一分優婆塞) 639
 일체사(一切捨) 170
 입광광화삼매(入光光華三昧) 277

자량(慈良) 175
 자량(資糧) 356
 자별청승계(自別請僧戒) 529
 자분행(自分行) 274
 자비희사(慈悲喜捨) 254
 자심(慈心) 201, 202
 자찬훼타계(自讚毀他戒) 376, 427
 자파내법계(自破內法戒) 597
 장부(長夫) 306
 장수왕경(長壽王經) 512
 장식(藏識) 144
 장양성(長養性) 581
 장재월(長齋月) 532
 저포(撝蒲) 537
 적멸인(寂滅忍) 252, 276
 전(纏) 630
 전문(纏門) 218
 전변(轉變) 187
 전송본사문(傳誦本師門) 348
 전식(轉識) 144
 전전개화문(展轉開化門) 357
 점복화(占蔔華) 424
 정(定) 215, 582
 정력품(定力品) 280
 정법(正法) 534
 정변지(正遍知) 305, 307
 정보(正報) 392
 정삼매법(頂三昧法) 279

정심(定心) 182, 214
 정심(頂心) 196
 정의락(淨意樂) 396
 정지(正知) 216, 582
 정토화신(淨土化身) 351
 정행(定行) 295
 제사선(第四禪) 325
 제석궁(帝釋宮) 316
 제일타승처법(第一他勝處法) 430
 제호(醍醐) 469
 조경(爪鏡) 537
 조어장부(調御丈夫) 308
 조요궁(照樂空) 187
 조행(照行) 300
 종성(種性) 499, 629
 종자(種子) 159
 종취(宗趣) 141
 좌구(坐具) 550
 좌무차제계(坐無次第戒) 561
 좌선주(坐禪主) 522
 주례(周禮) 493
 주불청법계(住不請法戒) 480
 주역(周易) 463
 주인(住忍) 276
 증변(增邊) 228
 指南거(指南車) 625
 지덕(智德) 663
 지범상문(持犯相門) 379, 646, 653
 직심(直心) 231
 직조(直照) 231

진불수사계(眞不受謝戒) 440
 진상(進相) 279
 진실지(眞實智) 299
 진심(進心) 178
 진여성(眞如性) 142
 진장(眞藏)스님 321
 진제삼장(眞諦三藏) 138
 집법열경(集法悅經) 571
 집제(集諦) 259, 262



차난(遮亂) 332
 차죄(遮罪) 342, 634
 찬계공능문(讚戒功能門) 348, 355
 참괴(慚愧) 346, 656
 처력품(處力品) 280
 처중(處衆) 155
 척석(擲石) 537
 천각지(天覺智) 286
 천고(天鼓) 623
 천념지(天念智) 286
 천불대계(千佛大戒) 584
 천신지(天身智) 285
 천신통(天身通) 288
 천심통(天心通) 288
 천안력품(天眼力品) 280
 천안통(天眼通) 288
 천엽(千葉) 349

천엽대(千葉臺) 349
 천원지(天願智) 286
 천이지(天耳智) 285
 천이통(天耳通) 288
 천인사(天人師) 306, 308
 천인지(天人智) 286
 천인통(天人通) 288
 천정심지(天定心智) 286
 천타심지(天他心智) 286
 천태보살계소(天台菩薩戒疏) 137
 천태의기(天台義記) 137
 천해탈지(天解脫智) 286
 천해탈통(天解脫通) 288
 청구(靑丘) 624
 청정법계(淸淨法界) 307, 602
 체섭(體攝) 651
 체성광명지(體性光明地) 165, 267
 체성만족지(體性滿足地) 165, 289
 체성불후지(體性佛吼地) 166, 295
 체성선혜지(體性善慧地) 165, 254
 체성이염지(體性爾焰地) 165
 체성입불계지(體性入佛界地) 166, 305
 체성평등지(體性平等地) 165, 247
 체성허공화광삼매(體性虛空華光三昧)
 316
 체성혜조지(體性慧照地) 165, 280
 체성화광지(體性華光地) 165, 285
 체성화엄지(體性華嚴地) 166, 302
 초계(草繫) 148, 341
 측루(髑髏) 537

측지(觸支) 270
 총상문(總相門) 379, 653
 총성섭문(總性攝門) 650
 총지(總持) 242
 축살생구계(畜殺生具戒) 490
 춘추(春秋) 495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138
 취말(聚沫) 199
 취생(趣生) 387
 칠가식(七家食) 552
 칠각지(七覺支) 275
 칠불교계(七佛教戒) 585
 칠불계[七佛戒] 597
 칠불통계(七佛通戒) 585
 칠비(七非) 339
 칠비묘법(七非妙法) 339
 칠심계(七心界) 215
 칠역죄(七逆罪) 452, 569
 칠재(七財) 210, 211
 칠종최승(七種最勝) 650
 칠중(七衆) 641
 칠차(七遮) 452, 633
 칠차죄(七遮罪) 452

쾌의살생계(快意殺生戒) 382

타승처(他勝處) 579
 타승처법(他勝處法) 346, 446
 타심지(他心智) 288
 탄기(彈基) 537
 탐재석법계(貪財惜法戒) 501
 통국사명계(通國使命戒) 492
 통행(通行) 299
 퇴보제심계(退菩提心戒) 539
 투란차(偷蘭遮) 394
 투쟁양두(鬪諍兩頭) 507
 투호(投壺) 537

과계(破戒) 424
 과승(破僧) 467
 과화합승(破和合僧) 399
 팔계(八戒) 476, 640
 팔고(八苦) 260
 팔난(八難) 197, 477
 팔도행성(八道行城) 537
 팔마(八魔) 239, 241
 팔무가(八無暇) 477
 팔법(八法) 289
 팔복전(八福田) 489
 팔승처(八勝處) 181
 팔장(八藏) 134

팔전도(八顛倒) 174
 팔중법(八重法) 375
 팔풍(八風) 289
 평등(平等) 207
 평등혜체성지(平等慧體性地) 249
 포승순렬계(怖勝順劣戒) 519
 포외문(怖畏門) 342
 필경(畢竟) 631
 필수(筆受) 137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韓國佛教撰述文
 獻總錄) 132
 항하(恒河) 314
 해탈도(解脫道) 284
 해탈력품(解脫力品) 280
 해탈분심(解脫分心) 630
 해태(懈怠) 464
 행고(行苦) 262
 행래주(行來主) 522
 행법주(行法主) 522
 허공장(虛空藏) 310
 허위작사계(虛僞作師戒) 506
 혁혁사자좌(赫赫師子座) 316
 현성(賢聖) 529
 현수법장(賢首法藏) 458
 현전(現前) 526
 현전승물(現前僧物) 525, 526

현통화광왕(玄通華光王) 157
 혜견심(慧見心) 217
 혜관(慧觀) 136
 혜심(慧心) 184, 217, 237
 혜행(慧行) 297
 호상(好相) 515
 호심(護心) 191
 호어심(好語心) 209
 호용(互用) 393
 호장문(護障門) 343
 호정념문(護正念門) 646
 호지문(護持門) 336
 혹장(惑障) 660
 혼침(昏沈) 555
 홍찬(弘贊) 323, 460, 544
 화광(華光) 287
 화륜(火輪) 622
 화상(和尚) 460, 463
 황문(黃門) 368
 횡취타재계(橫取他財戒) 535
 후득지(後得智) 190
 훼방삼보계(毀謗三寶戒) 376, 444
 희심(喜心) 194, 205, 206



譯注者 역주자

- 圓徹원철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圓哲원철 ...동국대 박사, 동국대 강사

- 性海성해 ...전(前) 해인사 강사

- 圓昌원창 ...전(前) 해인사 강사

- 行禧행오 ...전(前) 동학사 강사

- 英惠영덕 ...운문사 강사

- 圓映원영 ...일본 하나조노(花園)대학 박사, 동국대 강사

- 朴相俊박상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李美玲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韓國傳統思想書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서간행위원회

• 간행위원회 위원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海峰 慈乘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影潭 · 기획실장 圓潭 · 재무부장 祥雲

문화부장 曉吞 · 사회부장 慧耕 ·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圓徹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宗薰 · 불교신문사장 慧慈 · 기획국장 滿堂

• 간행위원회 간행위원 •

제1팀… 海住 동국대학교 교수

제2팀… 金榮郁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팀… 鄭炳三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4팀… 李晉吾 부산대학교 교수

제5팀… 圓徹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제6팀… 古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제7팀… 彌山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正德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선임연구원… 金宰晟 · 金鐘仁 · 李洪九

연구원… 權奇燦 · 金惠珍

편집 · 제작… 尙賢淑 · 朴鍾壹





韓國傳統思想叢書 한국전통사상총서

韓國人の歴史와 그 文化의 最古層에 穩연히 자리하고 있는 韓國의 傳統佛敎思想은 우리 精神史의 原型이며 韓民族 數千年 知性史의 基軸이다. 일천칠백여 년간 한국인 그리고 한국 내에서 유구히 전승·축적된 한국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代表하는 작품들을 精選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주석·번역하여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으로 엮었다. 한국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國內·外에 널리 刊行·流通시킴을 目標로 대한불교조계종이 文化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海住	精選 元曉… 晉譯華嚴經疏序·無量壽經宗要 등 17篇
海住	精選 知訥… 勸修定慧結社文·修心訣·圓頓成佛論 등 7篇
金榮郁	精選 休靜… 淸虛堂行狀·禪家龜鑑·禪教訣 등 5篇
海住	精選 華嚴Ⅰ… 華嚴一乘法界圖·法性偈 주석 모음 등 7篇
鄭炳三	精選 華嚴Ⅱ… 海印三昧論·大覺國師文集 등 4篇
鄭炳三	精選 諸敎學… 三彌勒經疏·成唯識論學記(選) 등 6篇
金榮郁	精選 公案集Ⅰ… 禪門拈頌說話(選)
金榮郁	精選 公案集Ⅱ… 禪門拈頌說話(選)
金榮郁	精選 禪語錄… 眞覺語錄·白雲語錄 등 4篇
李晋吾	精選 詩選集… 無衣子詩集·湖山錄 등 26篇
鄭炳三	精選 文化… 往五天竺國傳·三國遺事(選)
圓徹	精選 戒律… 梵網經古迹記·菩薩戒本宗要并序
智冠	精選 韓國高僧碑文… 韓國高僧碑銘 15基

